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郡誌

홍천군
HONGCHEON-GUN

일러두기

본 권은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로 인문환경, 지명유래, 민속, 구비전승, 언어, 시문학 등 전체 6편으로 나누어 홍천의 삶과 문화를 소개하였다.

- 제1편 「인문환경」에서는 홍천지역 지형의 특징, 도로망, 마을, 인구 등 인문환경을 소개하였다.
- 제2편 「지명유래」에서는 홍천지역의 지명유래를 군현, 산천, 읍면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 제3편 「민속」에서는 홍천지역의 의식주 문화, 통과의례, 세시풍속, 민간신앙, 민속놀이, 생업문화와 생업도구 등을 소개하였다.
- 제4편 「구비전승」에서는 설화(신화·전설), 민요, 구비단문 등 홍천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말을 소개하였다.
- 제5편 「언어」에서는 홍천지역 방언의 음소, 음운, 문법, 어휘, 의미 등을 소개하였다.
- 제6편 「시문학」에서는 홍천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홍천지역의 산천, 사찰, 누정을 노래한 옛시를 소개하였다.
- 개별 원고의 주는 원고가 속한 해당 편의 맨 뒷부분에 모두 모아서 배치하였다.
- 본 권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공식적인 공람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제1편 인문환경 19

제1장 **인문환경** 21

1. **개요** 21

2. **지형적 특징과 도로망** 22

1) 고개 22
2) 교통로 23

3. **마을** 30

1)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지명 32
2) 읍면 35

4. **인구** 55

1) 조선시대 이전 55
2) 조선시대 인구변화 56
3) 일제강점기의 인구변화 60
4)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의 홍천 인구 62
5) 1960년대 이후 화전정리와 인구변화 63
6) 2000년대 이후 홍천 인구 67

제2편 지명유래 73

제1장 **홍천 군현 명칭유래** 75

1. **지명유래 개념** 75

1) 우리나라 지명의 변화 76
2) 삼국시대 지명의 변화 77
3) 고려시대 지명의 변화 78
4) 조선시대 지명의 변화 78
5) 일제강점기 지명의 변화 79

2. **홍천 군현의 명칭유래** 80

제2장 산천의 지명유래 82

1. 주요 산지 지명유래 82

1) 홍천읍 83
2) 화촌면 89
3) 두촌면 91
4) 내촌면 93
5) 서석면 94
6) 동면 97
7) 남면 99
8) 서면 102
9) 북방면 105
10) 내면 107

2. 주요 하천 지명유래 110

1) 홍천강 111
2) 군업천 111
3) 신내천(풍천천) 111
4) 두촌천 112
5) 내촌천 112
6) 덕치천 112
7) 성수천 113
8) 양덕원천 113
9) 성동천 113
10) 자운천 113
11) 계방천 113
12) 조항천 114
13) 내린천 114
14) 방내천 115

제3장 읍면별 지명유래 116

1. 읍면별 지명유래 116

1) 홍천읍 116
2) 화촌면 132
3) 두촌면 152
4) 내촌면 164
5) 서석면 176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6) 동면 194
7) 남면 211
8) 서면 226
9) 북방면 242
10) 내면 256

제3편 민속 275

제1장 의식주 문화 277

1. 의생활 문화 278

2. 식생활 문화 287

1) 향토음식 287
2) 장 담그기 290
3) 김장하기 290
4) 구황식품 291

3. 주거 문화 294

1) 귀틀집 295
2) 독가촌 296
3) 풍암리 고택 297

제2장 통과의례 299

1. 산속과 육속 300

1) 산속 300
2) 육속 306

2. 성년식 311

3. 혼례 311

1) 의혼 313
2) 혼례식 전 의식 314
3) 혼례의식 317
4) 혼례식 후 의식 321

4. 하의례 324

5. 상장례 324

1) 초종 325
2) 염습과 입관 327
3) 성복과 문상 329
4) 치장 331
5) 우제와 탈상 334

6. 제례 335

1) 기제 336
2) 차례 337
3) 시제 337
4) 생신제 338
5) 무후제 338

제3장 세시풍속 340

1. 1월 340

1) 설 340
2) 정초 346
3) 대보름 348
4) 1월 중 359

2. 2월 361

1) 일꾼 날 361
2) 거리제 지내기 362

3. 3월 363

1) 삼짇날 363
2) 3월 중 365

4. 4월 365

1) 초파일 365
2) 청명 한식 365
3) 4월 중 367

5. 5월 369

1) 단오 369
2) 5월 중 372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6. 6월 374

1) 유월 유두 374
2) 하지 374
3) 기우제 375
4) 삼복 376
5) 소서와 대서 377

7. 7월 377

1) 칠석 지내기 377
2) 7월 중 378

8. 8월 379

1) 추석 379
2) 8월 중 380

9. 9월 382

1) 중양절(9월 9일) 382
2) 9월 중 383

10. 10월 385

1) 입동 385
2) 김장하기 385

11. 11월 386

1) 동지 386

12. 12월 387

1) 납평일 387
2) 섣달그믐 387

제4장 민간신앙 390

1. 마을신앙 390

1) 산신제 391
2) 서낭제 395
3) 거리제 402

2. 가정신앙 408

1) 안택 408
2) 성주 409
3) 조왕 411
4) 삼신 411
5) 산치성 412
6) 신줏단지 412
7) 영등 413
8) 터주 415
9) 칠성 416
10) 측신 416

3. 무속신앙 417

제5장 민속놀이 423

1. 단체놀이 424

1) 달집태우기 424
2) 석전과 줄다리기 425
3) 횃불싸움 426
4) 오곡밥 얻어먹기 426
5) 달마중하기 427
6) 연싸움하기 427
7) 윷치기 427
8) 망우리 돌리기/싸우기 428
9) 호미씻이 428
10) 천렵 429
11) 대돋음하기 429

2. 개인놀이 430

1) 연날리기 431
2) 널뛰기 431
3) 그네뛰기 431
4) 씨름 433
5) 자치기 433
6) 곱새치기 433
7) 다리헤기/다리뽑기 436
8) 고드름 치기 437





중권

삶과 문화





9) 소리하기 437
10) 멱감기 438
11) 고무줄놀이 439
12) 반지 돌리기 놀이 439
13) 줄넘기하기 439
14) 그리면서 노래부르기 439
15) 춘향이 놀이 439
16) 잠자리 잡기 440

3. 현대의 놀이 441

1) 컴퓨터게임과 보드게임 441
2) 땅따먹기와 그네타기 441
3) 줄넘기 441
4) 손으로 하는 놀이 442
5) 여우야 여우야 442
6) 곰발바닥 442
7) 해골바가지 그리기 443

제6장 생업문화와 생업도구 445

1. 생업문화 445

1) 산야의 생업문화 445
2) 밭의 생업문화 453
3) 논의 생업문화 457
나가며 460

2. 도구 461

1) 의생활 도구 462
2) 식생활 도구 464
3) 주생활 도구 465
4) 산야 채취 도구 466
5) 농업생산 도구 468
6) 운반 도구 471
7) 교역 도구 474
나가며 474

제4편 구비전승 477

제1장 **설화** 479

1. **개관** 479

2. **신화** 480

1) 팔봉산 당신화 481
2) 권대감 당신화 482

3. **전설** 483

1) 자연물전설 483
2) 인공물전설 491
3) 동물전설 493
4) 풍수전설 495
5) 아기장수전설 497
6) 역사인물전설 499

제2장 **민요** 504

1. **개관** 504

1) 노동요 508
2) 의식요 514
3) 유희요 515

제3장 **구비단문** 518





중권

삶과 문화

제5편 언어 521

제1장 개관 523

제2장 홍천방언의 어휘 527

1. 음소 527
2. 음운 528
   1) 자음 528
   2) 모음 530
   3) 받침 533
3. 문법 534
4. 어휘 534
5. 의미 538
   1)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한 교체 538
   2) 의미영역의 차이로 인한 교체 539

제6편 시문학 543

제1장 산천 545

제2장 사찰 555

제3장 인물 570

1) 이원익 571
2) 이안눌 573
3) 이항로 576
4) 안중관 581

제4장 누정 584

1) 학명루에 대한 기문 - 서거정 585
2) 범파정 제영 587





전권 차례

상권(자연과 역사)

제1편 연혁

제2편 자연환경

제1장 **지형과 지세**
1. 위치와 면적
2. 지형적 특성
3. 산지 지형
4. 하천 지형
5. 평야 지형

제2장 **지질과 토양**
1. 지질적 특성
2. 토양분포

제3장 **기후와 자연재해**
1. 기후 특성
2. 자연재해

제4장 **생태환경**
1. 동물 생태
2. 식물 생태

제3편 역사

제1장 **선사시대**
1. 개요
2. 구석기시대
3. 신석기시대
4. 청동기시대
5. 철기시대

제2장 **고대사회**
1. 고조선~삼한시대
2. 삼국시대
3. 남북국~후삼국시대

제3장 **고려시대**
1. 행정구역과 군사제도
2. 불교정책과 홍천
3. 외적의 침입과 홍천

제4장 **조선시대**
1. 행정구역과 군사제도
2. 임진왜란과 홍천
3. 홍천의 교통과 통신
4. 토산품과 경제
5. 조선시대 고지도와 홍천

제5장 **근현대**
1. 고·순종시대
2. 일제강점기
3. 광복 이후

제4편 문화재와 문화유적

제1장 **선사 유적·유물**
1.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2.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3.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4. 철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2장 **불교 유적·유물**
1. 사찰
2. 사지
3. 불교 유물

제3장 **유교 유적·유물**
1. 향교·서원·사우
2. 효열 유적
3. 누정
4. 분묘
5. 선정비

제4장 **천연기념물**
1. 삼봉약수
2. 보호수

제5장 **전적과 고문서**

제6장 **성곽과 봉수지**
1. 성곽 유적
2. 봉수 유적

제7장 **금석문**
1. 개요
2. 금석문
3. 태실비

제8장 **근대건축과 기념비**
1. 근대건축
2. 기념비

제5편 성씨

제1장 **성씨**
1. 성씨 개관과 분포 현황
2. 본관 성씨와 세거씨족의 입향조
3. 집성촌과 동족마을 형성

제6편 인물

제1장 **인물**
1. 총론
2. 역사인물(고려·조선시대)
3. 근현대 인물(1894년 이후)
4.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

하권(경제와 사회)

제1편 농업

제1장 **근대화와 홍천의 농업**
1. 근대화 초기의 농촌사회
2. 일제 식민지하 농업
3. 광복 이후 격동기 속의 농업
4. 21세기 지방농정과 홍천의 농업·농촌

제2편 축산업

제1장 **축산업**
1. 강원도 축산업의 변천
2. 홍천군 축산업의 변천
3. 일상생활 속 홍천한우

제3편 오일장과 상업

제1장 **오일장과 상업**
1. 상업
2. 오일장의 형성과 변화
3. 현재의 오일장과 특징

제4편 내수면 어업

제1장 **내수면 어업**
1. 내수면
2. 물고기잡이
3. 내수면 어업활동

제5편 특산물

제1장 **특산물**
1. 홍천의 명품
2. 산나물과 과채류
3. 과일

제2장 **홍천의 요리**
1. 대표음식
2. 향토음식

제6편 명소

제1장 **홍천의 명소**
1. 홍천9경
2. 명산
3. 휴양림
4. 계곡과 강변
5. 니산구곡
6. 박물관·미술관·기념관·과학관
7. 공원·수목원
8. 트레킹 코스
9. 관광농원, 체험마을
10. 관광지, 관광단지
11. 숙박·교통

제7편 축제

제1장 **홍천의 축제**
1. 지역축제
2. 마을축제

제8편 현황

제1장 **행정**
1. 행정구역의 변천
2. 행정 조직의 변천

제2장 **홍천군 행정기구**
1. 홍천군청(본청)
2. 직속기관
3. 사업소
4. 읍·면사무소

제3장 **홍천군의회**

제4장 **공공기관**
1. 홍천경찰서
2. 홍천소방서
3. 홍천우체국
4. 선거관리위원회
5.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6.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7.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8.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
10. 홍천세무서
11. 홍천군 법원·등기소
12. 홍천기상관측소
13. 홍천국토관리사무소
14. 홍천국유림관리소
15.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16.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제5장 **정치**
1. 선거
2. 지방자치
3. 국민투표

제6장 **산업**
1. 사업체 현황
2. 농공단지·산업단지
3. 농업
4. 임업
5. 축산업
6. 어업
7. 광업·제조업
8. 유통·금융업

제7장 **사회복지**
1. 복지시설 및 기관
2. 의료기관
3.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8장 **교육**
1. 홍천교육지원청

2. 유치원·어린이집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특수학교
7. 폐교 현황
8. 유관 기관
9. 평생교육
10. 사설 학원 현황

제9장 **환경·위생**
1. 환경
2. 위생

제10장 **종교**
1. 기독교
2. 불교
3. 유교
4. 천도교
5. 천주교

제11장 **문화·예술·언론·출판·체육**
1. 문화
2. 예술
3. 언론·출판
4. 체육

제12장 **사회단체**
1. 사회운동단체
2. 통일운동 단체
3. 노인회·청년회
4. 봉사단체
5. 보훈단체
6. 생산인·경제인 단체
7. 여성단체
8. 장애인단체
9. 기념사업회
10. 환경보호단체
11. 친목·출향 단체

제9편 귀농·귀촌과 다문화

제1장 **귀농·귀촌**

제2장 **다문화**

별권(자료집)

제1편 문헌자료

제1장 **연대기자료**
1. 삼국사기
2. 고려사
3. 조선왕조실록
4. 승정원일기
5. 일성록
6. 비변사등록

제2장 **지리지와 읍지**
1. 세종실록지리지
2. 신증동국여지승람
3. 여지도서
4. 홍천현 읍지①
5. 대동지지
6. 홍천현 읍지②
7. 홍천현 읍지③

제3장 **근현대 자료**
1. 조선총독부 관보
2. 신문·잡지 자료

제2편 사진자료

제1장 **산하의 변천**

제2장 **여가생활**

제3장 **학교생활**

제4장 **사회생활**

제5장 **의례문화**

제3편 구술생애사

제4편 부록

1. 역대 홍천 군수
2. 역대 홍천 부군수
3. 역대 홍천군의원
4. 역대 읍면장









제1편

인문환경

제1장 인문환경

제1장

인문환경

1. 개요

홍천 관련 고문서와 고지도에는 무관(武官)들이 배치된 기록이 나온다. 홍천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했음을 뜻한다. 이후 역원(驛院)제도를 실시하면서는 중앙정부와 강원 영서·영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해왔다.

조선시대의 역은 교통 및 통신기관이었다. 역을 통하여 전령뿐만 아니라 변경의 긴급한 군사정보 및 사신왕래에 따른 접대와 육로를 이용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수 물자를 운반하는 육상교통의 핵심기관이었다. 강원도의 찰방역은 보안도였으며, 속역으로 홍천지역에는 창봉역(당시 홍천 땅), 연봉역, 천감역이 있었다.

연봉역은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 중심지였으며 그 연유로 '연봉'이 생겼고, 천감역은 역과 원의 기능을 갖추어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역내리'라는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다. 북방면의 역전평은 역 앞에 펼쳐진 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원은 양덕원과 천감역 두 곳에 있었으며, '양덕원'은 그대로 지명이 되었다.

조선 초기의 문신 서거정은 홍천현감으로 부임한 윤지의 뜻을 받아들여 학명루기를 쓰면서 "내가 젊었을 때 영서에 유학한 일이 있었다. 원주에서 춘천으로 갈 때에 거듭 홍천으로 길을 잡아 지나갔었다"라고 적었다. 또 조선시대 문인들이 금강산 등지를 구경하고 감상을 적은 기행록인 「동유기(東遊記)」에 홍천을 지나는 여정에 천감역, 연봉역 등 홍천의 여러 지명이 나타난다.

2. 지형적 특징과 도로망

1) 고개

홍천에는 고개가 많다. 홍천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한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영치현명(嶺峙峴名)이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 기록된 지명 대부분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홍천과 양평의 경계에는 신당고개(신다현, 신당치: 남면-청운면)과 갈기고개(남면-청운면), 홍천과 춘천의 경계에는 부사원고개(부사원치: 북방면-동산면)와 가락재(터널: 화촌면-춘천 동면), 홍천과 횡성의 경계에는 큰삼마치고개(홍천읍-공근면)과 작은삼마치고개(소삼마치: 동면-공근면), 먼드렛재(서석 청량-횡성 청일), 백치(서석-청일) 등이 있으며, 홍천과 인제의 경계에는 건니고개(건이현, 건이치: 두촌면-인제 남면)과 아홉사리고개(내촌면-상남면), 행치령(서석며-상남면), 고사리재(내면-상남면) 등이 있고, 홍천과 가평의 경계에는 널미재, 홍천과 평창의 경계에는 보래령(터널: 내면-봉평), 운두령과 두로령(내면-진부), 구목령(서석 생곡-봉평)과 불발령(내면-봉평) 등이 있으며, 홍천과 양양의 경계에는 구룡령(내면-서면) 등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홍천현의 영치현명(嶺峙峴名)

군내면	栢峙, 馬蹄峴, 羽嶺
화촌면	酒飮峙, 황매골고개, 明洞峙, 된덕고개, 松峙, 朝霞垈峴, 孔雀峙, 斗峴,內洞峙,於矣洞, 곱돌고개, 사실고개, 小馬峙, 缶項峴, 麗日峙, 孫利峙, 三丁峴, 獐項峴, 巽耳峙, 小洞峙, 麗日峙, 北方峙, 決雲峙, 大基峙
두촌면	黃屛嶺, 乾伊峴, 插橋峴, 炭峴, 馬峴
내촌면	무안고개, 가족고개, 아홉사리고개
서석면	直踰峙(곳네미고개), 獐項峙, 長谷峙, 椽木嶺, 梨峴, 芝長峴, 鳥弄峴, 自作峴, 부목재, 黃腸峙, 머들애재, 원네미고개, 行雉嶺, 顴鳥峴, 大九屯峙, 小九屯峙,황새고개
영귀미면	盖峴, 弩峴, 明理峴, 富墨峴, 小三馬峙, 장셔지고개, 方禦峙, 東幕峙, 叱牛峴,狐峴, 獐項峴, 開雲峴, 盖峙, 上佐峙, 三齊峙, 하위고개, 小洞峙, 新峰峙
금물산면	婦峙(메누리고개), 三馬峙, 自作峴, 新堂峙, 貢谷峙
감물악면	五道峙, 寒峙, 狐峴, 凳谷峴, 垈日峴, 竹垈峴, 栢峙, 百倍峴, 石峴, 成野峴, 馬峙, 長垈峴, 佳日峴, 鹿門峴, 貴良峴

북방면	지장골고개, 면배고개, 府司院峴, 덧고개, 으능정고개, 石峴, 얼밀고개
내일면	韻頭峴(운두재), 獐項峴(노루목이재), 寶萊峴(볼래재)
내삼면	蓬田峴(쑥밭재), 井峴(정현), 崖崎峴(애기고개), 味峴(맛고개), 城隍峴(서낭고개)

주: 한자와 언문 표기만 정리. 내면지역은 인제현을 참조.

홍천의 면과 면 경계에도 고개가 있다. 홍천읍과 북방을 연결하는 잣고개·성치·마지기고개가, 홍천읍과 동면을 잇는 우령·삼현·방어재·여우고개, 홍천읍과 양덕원을 잇는 며느리고개, 화촌과 서석을 잇는 솔치(송치), 화촌과 두촌을 잇는 말고개(마현), 서석과 내촌을 잇는 가루개고개, 서석과 동면을 잇는 부목재, 서석과 내면을 잇는 뱃재(이현), 내촌과 두촌을 잇는 지르매재, 남면과 서면을 잇는 백양치 등이 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에도 고개를 한두 개 쯤 넘어야 했다.

홍천 땅은 87%가 산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개를 넘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고갯길을 내는 일은 마을과 마을이 소통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되었다. 최근에는 터널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삼마치터널, 며느리고개터널, 잿골터널, 오룡터널, 장전터널, 솔치터널, 철정터널, 보래령터널 등이 개통되었고, 두촌과 내촌을 잇는 지르매재터널이 공사 중이며, 서석 생곡과 평창 봉평을 잇는 구목령터널이 추진 중이다. 또한 춘천-대구를 잇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구간에는 터널이 3개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구간에는 19개의 터널이 있다.

2) 교통로

『여지도서』에는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홍천현의 도로가 기록되어 있다. 동쪽으로 태학리-삼정포리를 지나 인제방향으로 자음리(두촌면 자은리의 오기)를 지나 인제현으로 향하고, 삼정포에서 기린을 지나 강릉계에 이른다. 서쪽으로 양덕원-지평현을 지나 경부에 닿으며, 남쪽으로 삼마치-창봉역을 지나 횡성현-원주 감영에 이른다. 북쪽으로 화계리-부사원을 지나 낭천에 이르고, 부사원에서 양근현-양근군에 이른다. 이 도로는 역원을 중심으로 연결되며, 홍천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1) 고속도로,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① 고속도로

홍천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고속도로는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홍천 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동홍천 IC, 내촌 IC를 통해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고속도로 노선과 관내구간

노선번호	노선명	관내구간
55호선	중앙선	북방면 역전평리~ 동면 월운리
60호선	서울-양양선	북방면 성동리~ 서석면 수하리

② 국도

춘천-원주를 잇는 5번 국도는 원래 북방면 삼거리에서 장수촌 어귀-마지기고개-홍천성당 입구-구신장대리파출소-홍천터미널사거리-홍천대교-연봉사거리-무궁화공원입구-장전평을 잇는 도로였다. 나중에 북방면삼거리-11사단 앞-잣고개-홍천터미널-홍천대교-연봉사거리-무궁화공원입구-장전평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북방면삼거리-하이트맥주입구-장전터널-장전평-삼마치-삼마치터널을 지나 횡성·원주로 연결된다. 44번 국도는 원래 신당고개-양덕원면사무소-명덕초교-며느리고개-양지말사거리-오안초교앞-연봉사거리-홍천대교-홍천터미널사거리-대기고개-홍천농고앞-구성포 신내사거리-화촌면면사무소-말고개를 넘는 길이었으나 지금은 외곽도로가 확포장되어 홍천읍내를 거치지 않고, 신당고개를 넘어 며느리고개터널-연봉사거리-문화예술회관-화촌면-두촌면을 지나 인제-양양에 닿는다.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56번 국도 춘천에서 홍천 구성포 신내까지 구간이 확포장된 일명 '잼버리도로'는 화촌면 구성포를 지나 군업-솔치-서석-내면-구룡령를 넘어 양양에서 7번 국도와 만난다. 31번 국도는 인제 상남면 고석평에서 고사리고개를 넘어 내면 방내를 지나 율전에서 56번 국도와 합류하여 상뱃재고개를 넘어 내면 창촌리 양수교에서 갈라져 운두령을 넘어 평창군 진부로 연결된

다. 5번 국도와 44번 국도는 홍천읍에서 교차하고, 44번 국도와 56번 국도가 화촌면 구성포 신내에서 교차한다.

국도 노선과 관내구간

노선번호	노선명	관내구간
5호선	거제-중강진	북방면 부사원리-홍천읍 삼마치리
31호선	부산-신고산	내면 자운리-내면 방내리
44호선	양평-양양	남면 양덕원리-두촌면 장남리
56호선	철원-양양	화촌면 풍천리-내면 명개리
19호선	남해-홍천	서석면 풍암리-서석면 청량리

③ 지방도

70번 지방도는 양평 단월-군업-대곡치-반곡-어유포-광탄삼거리로 이어진다. 86번 지방도는 서면 두미삼거리-개야리-모곡-한서기념관-널미재를 넘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으로 연결된다. 403번 지방도는 한서기념관삼거리-장락리-마곡리-충의교를 지나 춘천시 남면으로 이어진다. 406번 지방도는 화촌면 군업 조하대에서 당무-노천-화방좌운-횡성 가곡으로 연결된다. 408번 지방도는 서석 용두안 삼거리에서 장수원-내촌IC-와야삼거리-서곡리-도관리-광암리-괘석리-자은3리(내후동)-원동-조교리로 이어진다. 444번 지방도는 홍천 태림아파트사거리에서 닭바우-오룡터널-동면 성수-속초-노천-물골-부목재를 넘어 서석 어론-수하리 항골을 지나 행치령을 넘어 인제에서 451번 지방도와 만난다. 451번 지방도는 철정 사거리에서 지르매재(터널 공사 중)를 넘어 화상대-답풍리-도관리-서곡리-와야삼거리-아홉사리고개를 넘어 444번 지방도와 만나 인제 상남 고석평에서 31번국도와 연결된다. 494번 지방도는 횡성 상창봉 삼마치고개 삼거리에서 남면 유치리-시동-양덕원-백양치터널을 지나 서면 굴업에서 70번 지방도와 만나고 대곡에서 중방대리-모곡-한서기념관으로 연결된다.

지방도 노선과 관내구간

노선번호	노선명	관내구간	비고
70호선	청양-춘천	서면 굴업리-서면 어유포리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남양주-춘천	서면 동막리-서면 두미리	국가지원지방도
403호선	홍천-양구	서면 모곡리-서면 마곡리	지방도
406호선	공근-화촌	동면 노천리-화촌면 군업리	지방도
408호선	상걸-봉평	두촌면 자은리-서석면 생곡리	지방도
424호선	내면-덕산	내면 자운-내면 자운리	지방도
444호선	홍천-상남	홍천읍 갈마곡리-서석면 수하리	지방도
446호선	신남-진부	내면 율전리-내면 명개리	지방도
451호선	철정-현리	두촌면 철정리-내촌면 서곡리	지방도
494호선	청평-횡성	서면 모곡리-남면 유치리	지방도

군도 노선과 관내구간

노선번호	노선명	관내구간
군도2호선	화계-홍천	북방, 홍천
군도4호선	반곡-부사원	북방, 서면
군도6호선	군업-주음치	화촌
군도7호선	양덕원-남노일	남면
군도8호선	하오안-풍천	북방, 화촌, 홍천
군도9호선	대곡-어유포	서면
군도10호선	내삼포-풍천	화촌
군도11호선	수하-원동	서석, 내촌, 두촌
군도12호선	하오안-굴운	홍천, 동면, 화촌
군도13호선	율전-생둔	내면
군도14호선	팔봉-상화계	서면, 남면, 북방
군도15호선	광원-방동	내면

노선번호	노선명	관내구간
군도16호선	홍천-화촌	홍천, 화촌
군도17호선	역내-광암	두촌, 내촌
군도18호선	방내-방내	내면

④ 농어촌도로

농어촌 도로(마을도로)는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 169개의 노선이 있다.

농어촌도로

구분		노선 수	노선 길이(㎞)				비 고
			계	포장	비포장	포장률(%)	
농어촌 도로	계	169	556.60	213.88	342.72	38.43	
	면도	14	62.40	39.20	23.20	62.82	
	리도	150	482.10	168.48	313.62	34.95	
	농도	5	12.10	6.20	5.90	51.24	

(2) 다리

홍천이 넓은 강을 가진 지역이라는 것은 다리를 보면 알 수 있다. 『홍천현읍지』에는 한교(漢橋), 학교(鶴橋), 범파교(泛波橋)가 기록되어 있다. 한교는 희망리와 연봉리를 연결하는 다리이고, 학교는 서거정의 학명루기에 기록된 다리로 지금의 학다리이며, 범파교는 범파정 앞에 놓았던 다리이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나루에서 배를 타거나거, 섶다리나 널다리를 놓고 건너 다녀야 했다. 홍천읍 진리는 나루가 있어 붙여진 마을이고, 내촌 물걸리 '널나드리'는 넓게 켠 나무판인 널을 다리로 놓고 건너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이다.

내촌천과 장남천이 만나 홍천강을 이루는 지점부터 마곡까지 홍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다음과 같다. 주음치교, 성포교, 동홍천IC교(서울양양고속도로 나들목다리),

대평교, 홍천강교(서울양양고속도로), 대진교, 신내교, 굴운교(송정교), 와동교, 태학교, 갈마곡교, 화양교, 남산교, 홍천교, 홍천대교(외곽도로: 북방 하화계-하오안), 둔지교, 홍천강1교(중앙고속도로), 도둔교(하이트교), 홍천강2교(중앙고속도로), 소매곡교, 홍천강3교(중앙고속도로), 도사곡교, 장항교, 남노일대교, 고주암교, 위안터교, 구룡밭교, 팔봉1교, 팔봉2교, 반곡교(반곡리-산수리), 두미교(두미리-산수리), 산수교(춘천 남산면 산수리-서면 개야리), 한덕교(서면 개야리-춘천 남산면 한덕리), 발산1교(서울양양고속도로), 충의대교(서면 마곡-춘천 남산면 발산리). 홍천관내에 길고 짧은 다리는 모두 180여 개이다. 그중 100m 넘는 다리가 25개이며, 제일 긴 다리는 태학교로 240m이다. 또 내린천 수계의 다리는 총 13개이며, 금계천 수계의 다리는 2개이다. 2018년에는 홍천 희망리와 연봉리를 잇는 연희교(인도교)가 개통되었다.

(3) 뱃길

홍천강이 언제부터 뱃길로 이용되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사는 깊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군정은 시위군(侍衛軍)이 155명, 선군(船軍)이 6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륙지역이면서 선군이 편재된 점으로 볼 때 강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본다. 고려시대에도 홍천강은 뱃길로 활용되었을 것이며,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후에는 세곡 운송뿐만 아니라 상선을 이용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 화양강진과 구성포 신내나루까지 소금과 어물 등 생필품을 실은 상선이 들어왔으며, 19세기에는 화양강진(지금의 진리)을 중심으로 장이 섰고, 후에 장터가 형성되고 홍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천강 뱃길은 뚝섬나루와 마포나루에서 출발한 배가 도둔나루-화양강진-구성포 신내나루까지 이어지고, 구성포 신내나루에서 작은 배를 이용하여 두촌·내촌 등 홍천의 내륙으로 생필품을 실어 날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촌면 진등고개 아래 광대소는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강을 가로질러 줄을 매고 광대놀이를 했다 하여 붙여진 곳이다.

홍천강의 뗏목은 청평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활발하였다. 주요 적심지는 내촌 답풍리의 떼소, 구성포의 신내, 서면 마곡 등이었다고 한다. 특히 서면 모곡 오지소의 배바위는 뗏목꾼들의 애환이 전해지는 곳이었으며, 이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

도 마곡에서 다시 떼를 엮었다고 한다. 그러나 육상교통이 발달하고 1944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홍천강의 뱃길은 끊겼다.

(4) 도로명 주소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각 도로 구간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의 기준은 8차로 이상은 '대로', 2차로에서 7차로까지는 '로', '로'보다 좁은 곳은 '길'로 정하였다. 도로의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 방향으로 20m 간격마다 왼쪽 건물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했다.

홍천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와 연결되며, 5번 국도 홍천 구간의 도로명은 춘천에서 원주 방향으로 영서로로 이어지고, 44번 국도는 양평에서 인제 방향으로 설악로, 56번 국도는 구성포리 신내사거리에서 춘천 방향은 가락재로, 서석 내면 방향으로는 구룡령로로 정했으며, 19번 국도는 서석 청량리와 횡성 청일면을 잇는다 하여 청정로, 31번 국도 인제군 상남에서 내면 방내 율전 구간은 방내로, 다시 창촌 양수교에서 운두령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운두령로로 정했다. 홍천의 국도와 중심도로, 마을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명은 다음 표와 같다.

홍천의 도로명

행정구역	국도/중심도로	마을도로
홍천읍	영서로(5번 국도) 설악로(44번 국도)	홍천로, 와동로, 오룡로, 결운로 ,갈마로, 석화로, 희망로, 마지기로, 꽃뫼로, 두개비산로, 송학정로, 무궁화로, 연봉중앙로, 송학강변로, 오안로, 높은터로, 남산강변로, 송학로, 연봉서로, 연봉동로, 연봉로, 장전평로, 신장대로, 진리로, 번영로, 소옥개로, 갈마로, 공작산로
화촌면	설악로(44번 국도), 구룡령로(56번 국도)	성산로, 산초울로, 주음치로, 가락재로, 야시대로, 굴운로, 당무로
두촌면	설악로(44번 국도)	자은로, 원동조교로, 광석로

내촌면	아홉사리로 (지방도 451호선)	장수원로, 동창로, 행치령로, 광석로
서석면	구룡령로(56번 국도), 청정로(19번 국도)	청량로, 공작산로, 행치령로, 장수원로
동면	공작산로 (지방도 444호선)	수타사로, 오룡로, 수타사로, 월운로, 신봉로, 금계로
남면	설악로(44번 국도), 한서로(지방도 494호선)	시동로, 시동안로, 남로일로, 신대로, 망덕산로, 양덕원로
서면	한서로(지방도 494호선)	모곡로, 한서로, 개야로, 팔봉산로
북방면	영서로(5번 국도)	성동로, 중화계로, 팔봉산로, 노일로, 굴지강변로, 두개비산로, 홍천로
내면	구룡령로(56번 국도)	방내로, 운두령로, 내린천로, 명개로, 보래령로, 운두령로, 창촌로

3. 마을

마을의 입지조건은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처음에는 농사짓기 편리한 곳에 터를 정하였다가 점차 농업의 발달로 입지가 확대된다. 홍천의 경우 많은 지천을 끼고 있어 강 유역에 크고 작은 뜰이 형성되었고, 뜰을 경작하기에 수월한 곳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반대로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하면서 골짜기에 작은 마을을 이루기도 했다. 세거씨족(世居氏族)은 집성촌을 이루어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내촌의 김해허씨, 결운리의 전주이씨, 성수리의 여흥민씨, 서면의 함열남궁씨, 장평의 청주사씨, 성산의 밀양박씨 등은 대표적인 집성촌이다. 두촌의 남덕동(남양홍씨가 덕을 베풀었다고 하여 남덕동이라 했다)과 서석의 방가대는 세거씨족들의 성씨에서 마을 이름이 생겨난 예이다.

현청의 기능이 커지면서 주요 관청이나 부속건물, 역원, 도로나 뱃길의 여건에 따라 마을이 생겨나기도 했다. 홍천흡 현내면은, 홍천현의 읍치로서 기능을 살린 부속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향교골', '성황당', '성골', '옥거리', '안읍내', '지아성황당' 등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동서남북 지역에 창이 들어섰는데, 내촌의 동창, 두촌의 북창, 남면

의 창말, 서면의 서창터, 내면의 창촌 등은 창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었다. 또 역원의 영향으로 역내리, 역전평, 원골, 원터 등 마을이 생겨났다.

홍천강 뱃길이 활발해지면서 나루도 생겨났다. 구성포 신내나루, 외삼포 돈도루배터, 대진나루터, 진리나루새, 화양강진, 닥바우나루터, 소단리 도둔나루, 노루목나루, 노일 구룡밭나루, 모곡 돌담나루, 고란터나루, 마곡 말골나루터 등은 홍천강 뱃길 따라 나루중심의 상거래 및 왕래가 이루어지던 곳으로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마을의 소지명으로 남아 있다. 특히 진리나루는 화양강진이라는 지명이 붙을 만큼 큰 나루터로 장마당이 섰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새장터(신장대리)가 생겨났다. 구성포의 신내나루는 홍천강 뱃길의 종점이었던 만큼 나루를 중심으로 주막, 여인숙, 상점, 마방 들이 들어서서 상권이 번성했으며, 소금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봉상대(베루바위 봉우리)에서 봉화가 오르고 장이 섰다고 한다. 주막이 생겨나고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육로와 교량이 발달하면서 나루의 이용은 점차 줄었다. 한편 도사곡리와 굴지리를 잇는 다리가 놓이기 전인 1980년대까지 줄배를 이용했다.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관개수로는 마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내촌의 동창보는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서석면 어론리 용두안보의 비문에는 "李朝中葉(西紀1580年頃) 本 龍頭岸洑를 構築하고 畓을 開拓하여 地域住民들의 生計를 富裕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홍천의 보 문화가 1580년경에도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에는 성여동제언(城余洞堤堰)과 성치제언(城峙堤堰)에 대한 기록이 있고, 『관동지』에는 제언에 대한 소출 현황도 고록이 있으며, 『홍천현읍지』에는 성여동제언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城余洞堤堰 自官門西距三里 長四十二尺 廣四十尺 周回一百七十二尺 深二尺

(성여동제언 현의 서쪽으로 3리에 있다. 길이가 42척 넓이가40척 둘레가 172척이며 깊이는 2척이다)

城峙堤堰 自官門西距五里許 長二百二十八尺 廣二百尺 周回五百二十八尺 深 二尺

(성치제언 현의 서쪽으로 5리에 있다. 길이가 228척이고 넓이는 200척이며 둘레는

528척, 깊이는 2척이다)

『관동지』

성여동제언(城餘洞堤堰): 현의 서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둘레가 172척이고, 바깥 높이는 2척 5촌이다. 수원지는 산이 작은 개울을 막고 있다. 수심은 1척 5촌이며, 수통(水桶)이 1고(庫)이다. 10그루의 나무를 식목했다. 힘들게 경작해도 물 받는 것이 없어 논의 소출이 2석(石)이다.

성치제언(城峙堤堰): 현의 서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 둘레가 528척이고, 길이는 228척이며, 넓이는 200척, 안쪽 높이는 2척, 바깥쪽 높이는 3척이다. 수원지는 봉천저수지이며, 수심은 2척이다. 수통이 1고(庫)이다. 95그루의 나무를 식목했다. 힘들게 경작해도 물 받는 것이 없어 논의 소출이 2석이다.

1)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지명

조선 후기까지 형성되었던 홍천의 자연마을은 1914년 일제에 의하여 행정구역 개편으로 정리된다. 일제에 의하여 단행된 행정체계 개편은 마을명이 곧 촌락명이었던 과거와 달리 여러 촌락을 묶어 하나의 행정명으로 명명했다. 일제에 의해 지명이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예전부터 불렀던 대부분의 자연 마을 지명이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는 1911년 조선총독부가 일제 통치를 위해 전국 지명을 조사한 후, 순우리말 지명을 일본식 지명으로 바꿔 기록한 책이다. 홍천군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地名)을 한문과 한글, 일본어로 표기했다. 『여지도서』와 『관동지』, 『홍천현읍지』에 군내면으로 표기된 태학리와 결운리가 화촌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면은 당시 인제군 자료를 참조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고문서나 지도에 보이지 않던 많은 지명과 야평(뜰), 주막, 제언, 영치현명(고개), 계곡, 산, 강 등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후에 여러 작은 마을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다.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뜰, 주막, 제언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언에 대한 자료는 『여지도서』와 『관동지』, 『홍천현읍지』 등에 서술된 성여동제언과 성치제언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각 면 단위로 축조된 제언과 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내면지역은 뜰은 기록되어 있지만 보와 제언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주막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목과 관련이 있다. 주막은 60여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주막거리, 새술막 등의 지명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뜰과 보에 대한 기록도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 뜰과 보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었다. 뜰이 많은 지역은 화촌면·서석면·영귀미면·감물악면이었다. 내촌면과 서석면의 경우 보는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 1개로 물을 대는 뜰이 많은 경우로 생각된다. 경지정리로 뜰이 합쳐져 지명이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전의 지명들이 남아 있다. 또 계곡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화전이나 광산개발로 작은 촌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야평명(野平名)

면	야평명(뜰과 버덩)
군내면	孔枰(구녕뜰), 五里程坪, 軍器坪
화촌면	祭堂坪, 귀새둔지뜰, 가매덕이뜰, 日乾坪, 簾墻坪, 新村坪, 院坪, 司倉坪, 錢坪(돈두루뜰), 屯德坪, 牛岩坪, 新坪, 穢墻坪, 가루개버덩, 屯地坪, 증밋버덩, 大基坪
두촌면	楸坪, 土屯坪, 鵝湖坪
내촌면	庚申坪, 깨뜰, 堂坪
서석면	屯地坪, 大垈坪, 新屯坪, 廣板坪, 長水坪, 嶋巢垈坪, 龍頭案坪, 泥屯坪, 問村坪, 老長坪, 龍虎垈坪, 咸谷坪, 寺洞坪, 訥言坪, 佳邱坪
영귀미면	後屯坪, 丈屯坪, 大洑坪, 於野坪, 石峰坪, 獐垈坪, 注畓坪, 昭君坪, 新坪, 間坪, 順長坪, 萬垈坪, 堂山坪, 紫公坪
금물산면	明洞坪, 道村坪, 泥坪, 三洞坪
감물악면	南上坪, 垈巨坪, 古岩坪, 陳垈坪, 柳坪, , 周坪, 長垈坪, 馬墳坪, 三巨坪, 中坪, 新垈坪, 店村坪, 後坪, 別九坪
북방면	驛田坪, 軍糧坪, 외로이뜰, 石田坪, 萬川坪
내일면	廣大坪(광저버덩)
내삼면	處士坪(처사버덩), 倉坪(창뜰)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제언

면	제언/보
군내면	五里程堰, 孔杵洑
화촌면	大洑, 俗開洑, 畓機村洑, 廣石坪洑, 九沙洑, 朝霞垈洑, 桑坪洑, 行人橋, 筏川洑, 院坪洑, 女妓沼洑, 木簫洑, 발담보, 新洑, 水砧洑
두촌면	知音堤, 沙屯堤, 後洞堤, 南德堤 大洑, 驛洑, 鐵板洑, 屛岩洑
내촌면	大川洑(큰내보), 小川 洑(작은내보)
서석면	上洑, 龍垈坪洑, 龍頭尾洑, 立案洑
영귀미면	大洑, 後屯地洑, 水桶項洑, 艾洞洑, 紫公浦洑, 大洑
금물산면	梧木亭洑, 屯之尾洑, 前坪洑, 德頭里洑, 屋低洑, 鳳岩洑, 別隅洑, 壯平洑, 前坪洑
감물악면	五道峙洑, 寒峙洑, 新垈洑, 欽陽洑, 巨野洑, 牟谷洑
북방면	畓谷坪洑, 滿川洞洑, 蒲田洑, 伐山洑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된 주막

면	주막
군내면	後巷酒幕, 五里程酒幕
화촌면	진두루주막, 松峙酒幕, 大坪里酒幕, 栢里酒幕, 속새둔지쥬막, 楓川酒幕(신내쥬막), 松亭酒幕, 決雲酒幕, 大基酒幕
두촌면	寒溪酒幕, 楸坪酒幕, 新村酒幕, 廣川酒幕, 院洞酒幕
내촌면	松亭酒幕(솔경지쥬막), 사방거리쥬막, 가새거리쥬막, 슈직골쥬막, 廣岩酒幕(너벙바위쥬막), 新村酒幕
서석면	孝悌谷酒幕, 大月酒幕, 判官垈酒幕, 長谷於口酒幕, 道賢理酒幕, 上軍社里酒幕, 鳥歌洞酒幕, 地靈里酒幕, 豊岩酒幕, 魚論酒幕, 松峙酒幕, 佳印於口酒幕, 寺洞酒幕
영귀미면	梨木亭酒幕, 貫華垈酒幕, 新垈酒幕, 莎屯地酒幕
금물산면	五里木亭酒幕, 屯陣隅酒幕, 新店村酒幕, 月川洞酒幕, 文景隅酒幕, 陽德院酒幕, 느름정이쥬막, 新堂峙酒幕, 上蒼峰里酒幕松谷酒幕, 大村酒幕, 長田坪酒幕
감물악면	蛟龍洞酒幕, 前村酒幕, 大村酒幕, 三巨里酒幕, 店村酒幕, 中村酒幕
북방면	石鋸里酒幕, 외로이쥬막, 府司院酒幕, 驛田坪酒幕
내일면	梨峴酒幕(뱃재주막), 魯陽洞酒幕(노양골주막), 倉村里酒幕(창말주막), 院堂里酒幕(원당리주막)

2) 읍면

(1) 홍천읍(洪川邑)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 녹효, 고려·조선시대에는 홍천현의 현내면, 13도제 실시(1896.8.3)로 강원도 홍천군 군내면, 1917년에는 홍천면이었다가 1963년에 홍천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진리·신장대리·희망리·갈마곡리·검율리·와동리·결운리·태학리·연봉리·하오안리·장전평리·삼마치리·상오안리 등 13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홍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홍천읍은, 홍천군의 행정·교육·금융·교통 중심지다. 홍천강과 덕치천이 만나면서 소옥개에 넓은 뜰을 이루었고, 홍천강이 동에서 서로 감돌아 흘러간다. 남쪽에는 남산, 북쪽에는 석화산이 있다.

조선시대 읍치는 진리와 희망리로 추정된다. 안읍내·학다리·옥거리·향교골·소옥개·오리정·잿골·성여동·배무기·사미정·개떼배기·관터고개·지아서낭당 등 지명이 남아 있다. 홍천향교와 홍천군청이 석화산 아래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상선이 들어왔던 진리가 중심 시가지였다. 차차 시장이 넓어지면서 새 장터(신장대)가 형성되었고, 뱃길이 끊긴 후 신장대로 옮겨 전통시장이 열리는 등 홍천의 중앙시가지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연봉과 갈마곡리에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가지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44번 국도와 5번 국도가 교차하면서 형성되었던 도로는 지금도 중심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읍내의 마을을 연결하는 골목길이 확장되면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홍천읍의 시가지도로는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교차하면서 도로망을 형성한다. 동서 연결 도로는 잣고개와 대기고개를 축으로 잣고개-터미널-관광호텔-대기고개-홍천경찰서-홍천농고-결운리-화촌면 구성포 신내사거리로 연결되는 '홍천로'와 잣고개-교육청-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어지는 '꽃뫼로'가 있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시장통을 통과하는 '번영로'와 '신장대로'가 연결되며, 형제주유소삼거리-홍천고교-홍천향교-홍천군청-토우아파트사거리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석화로'와 태림아파트 사거리-홍천의회-토우아파트사거리로 이어지는 '희망로'는

잿골터널로 이어지는 '두개비산로'와 만난다. 남산교와 연결되는 '마지기로'는 동백아파트 마지기고개를 넘어 '두개비산로'와 연결된다. 외곽도로인 '설악로'는 상오안-하오안-연봉-닥바우-검율-와동을 지나고, '영서로'는 하오안 둔지-열산골-장전평 옥류동-삼마치를 지나 횡성으로 연결된다.

신시가지를 형성한 연봉은 홍천터미널에서 무궁화공원을 잇는 '무궁화로'를 중심으로 연봉동로·송학로·연봉로·연봉서로가 연결된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송학강변로'가 남산골에서 연봉사거리로 이어지고, 무궁화공원 삼거리에서 장전평-옥류동-삼마치로 이어지는 '장천평'로는 영서로와 연결된다. 홍천여자중학교가 자리한 닭바우는 태림아파트사거리에서 소방서 오룡터널로 이어지는 '공작산로'가 외곽도로를 형성하고, 강변을 따라 '소옥개로'와 닭바우시가지를 지나는 '갈마로'가 '결운로'로 이어지며 홍천농고 삼거리에서 '홍천로'와 만난다. 44번 국도인 '설악로'를 따라 상오안과 하오안이 연결되고 오안초교사거리에서 장전평2리 삼마치2리로 이어지는 '높은터로'가 연결된다.

와동리는 새터(新垈)·와촌(瓦村)·동막(東幕)을 병합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여지도서』에는 동막리로 나와 있으며, 송유리는 본래 홍천군 현내면 송유리(松柳里)라 하였는데, 당뿌리, 응달말을 병합하여 검율리로 변경하였다.

찾아볼 만한 곳은 이괄의 전설이 전해오는 대미산성과 석화산성, 홍천향교, 홍천성당, 당간지주, 홍천석불, 희망리삼층석탑 등 역사유적과 전통시장 등이다.

(2) 화촌면(化村面)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 녹효, 고려·조선시대에는 홍천현 화촌면(花村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1917년 일제시대에 화촌면(化村面)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른다. 소재지는 본래 구성포리에 두었다가 지금의 성산리로 옮기게 되었다. 1917년 태학리와 결운리는 홍천읍으로 편입되고, 1973년 춘성군 동산면 풍천리가 화촌면으로 편입되어 현재 성산(城山)·송정(松亭)·굴운(屈雲)·구성포(九城浦)·풍천(楓川)·외삼포(外三浦)·내삼포(內三浦)·야시대(也是垈)·주음치(酒飮峙)·군업(君業)·장평(長坪) 등 11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화촌면에서 발원하는 홍천강의 지류는 풍천·군업천·야시대천·주음치천·당무천

등이 있으며, 모두 홍천강(화촌면 사람들은 화양강이라고 부른다)으로 흘러든다.

군업천을 따라 외삼포·내삼포·군업·조하대·군둘·장평·솔치·당무·도광터 마을이 있고, 풍천을 따라 돈도루·둔덕재·오림촌·논틀말·무랭이·무수터·기와집말·도심이·벌대울·덕밭재·장재울·변가터·가락재·쌍자리골 마을이 있으며, 야시대천을 따라 원평·행인나들이·무랭이·벌말·갈공터·양짓말·귀밑말 마을이 있고, 주음치천을 따라 무봉촌·수름재·고압 등 마을이 있다.

큰 강을 끼고 있는 만큼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녀야 했던 지역이었지만 굴운교·송정교·주음치교·당무교·성포교·대진교 등 큰 다리가 놓이면서 교통이 편리해졌다.

화촌면은 성산리 백이동 어귀에 동홍천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하지만 아직도 화촌면의 중심도로는 '설악로'와 '구룡령로-가락재로'다. 설악로와 구룡령로-가락재로는 신내사거리에서 교차하며, 신내사거리에서 홍천로와 성산로가 이어진다. 야시대로는 성산로에서 이어지며, '주음치로'는 설악로 말고개 나들목에서 부목골, 춤새, 삼맛골, 술음재를 넘어 조하대에서 구룡령로 이어지고, '당무로'는 군둘, 당무, 도강터 마을을 지나 공작고개를 넘어 동면 공작산저수지를 지나 공작산로와 만난다.

'가락재로'는 구성포와 풍천리를 지나 가락재터널을 넘어 춘천으로 연결되며, 구룡령로를 따라 대평마을-내삼포-군업-조하대-장평-솔치터널을 지나 서석으로 이어진다.

장평은 장야평으로 『고종실록』에 "소모관 맹영재가 행군하여 홍천 장야평에 이르러 비적(匪賊) 30여 명을 쏘아 죽인" 전적지로 기록되어 있다. 또 한국전쟁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말고개 육탄용사 전적지와 신석기·청동기시대를 살았던 선사시대의 유적인 지석묘군이 군업뜰에 자리하고 있다. 삼포는 조선시대 말기의 대 유학자 화서 이항로 선생이 일감재(日鑑齋)를 짓고 진정한 선비정신을 가르친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군업리 답연밭 일대에 들어섰다. 홍천잣의 본향으로 알려진 풍천리 덕밭재에는 노무라 도쿠시치(野村德七)가 1936년 심은 잣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화촌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풍천리의 알파카월드와 대진강변의 대평체험관을 들 수 있으며, 임도로 연결된 산책길 등 여유와 휴식의 테마가 있는 곳이다.

(3) 두촌면(斗村面)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 녹효, 고려·조선시대에는 홍천현 말촌면(末村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斗村面)이 되어 지금에 이른다. 소재지는 처음에 자은리 내후동에 설치하였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겼으며, 역내(驛內)·원동(遠洞)·자은(自隱)·장남(長南)·철정(哲亭)·천현(泉峴)·괘석(掛石) 등 7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천현리는 원래 천치리였는데, '천치(天癡)'로 오해하기 쉽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천현리로 개명했다.

두촌을 가르는 장남천은 장사랑이골에서 시작되며, 괘석리의 전나무골에서 발원하는 내후동천과 멀골의 원동천, 백암산과 쇠뿔봉에서 발원하는 용수계곡의 경수천, 가리산 비병초바위골에서 발원한 평내천, 철정의 한계천 등을 만나 흘러 북창에서 내촌천과 합류하여 홍천강이 되어 흐르며, 유역에 가래뜰·선평 등 뜰이 형성되어 있다.

장남천변의 철정리와 역내리에서는 신라시대의 석관묘와 유물이 발견되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촌면 괘석리와 내촌면 광암리 사이를 흐르는 용소계곡은 너래바위 위를 흐르는 맑은 물과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계곡으로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계곡을 따라 화전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흔적도 남아 있으며, 수태마을 절터의 삼층석탑은 심심산골까지 스민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석철: 현의 동쪽 말흘동(末訖洞)에서 난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말흘동은 지금의 두촌면이다. 두촌 자은철광과 원동철광은 전국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일제 때에는 금광이 개발돼 노다지를 꿈꾸는 광부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자은리의 소림광산과 괘석리 대명광산에는 광부들이 몰려들자 주막이 들어서고 장이 섰다고 한다. 최근에는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두촌면은 화전민들이 많이 모여든 곳이기도 하다. 가리산을 오르다 보면 가삽고개 일대 숲에는 아직도 화전터가 남아 있으며, 괘석리에는 가을철 곡물을 사려는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고 한다.

두촌면의 중심도로는 '설악로'이다. 큰길은 '아홉사리로'·'원동조교로'·'광석로'이며, 철정사거리에서 아홉사리로를 따라가면 철정국군병원을 지나 지르매재를 넘어 내

촌 화상대마을로 이어지고, 철정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편으로 따라가면 아호-북창을 지나 주음치로와 만나며, 왼편 농로를 따라가면 본부락뜰과 본부락마을로 이어진다. 설악로에서 이어지는 향교골을 따라가면 가리산 관음사가 있으며, 평내 사거리에서 가리산으로 들어가면 평내마을을 지나 가리산에 닿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가리산: 현의 동쪽 70리에 있다. 용연(龍淵)이 있는데 날이 가물 때 범의 뼈를 용연에 잠그면 응보(應報)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천감역이 있던 자리는 자은로 길옆에 있다. 자은로는 평내사거리에서 모로골-면사무소를 지나 설악로로 이어진다. 역내는 조선시대 보안도에 딸린 역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관동지』에는 "천감역(泉甘驛) 현의 동쪽 5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원은 3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은로'는 두촌면소재지를 지나며 두촌초등학교,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자은버스정류장, 단위농협 등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은로에서 다리를 건너면 두촌중학교가 나온다. 길은 자은리 증골과 나가정으로 이어진다. 증골은 원래 점골이다. 점간은 보습 등 농기구를 만들던 곳으로 물을 부어 식힐 때 증기(수증기)가 많이 난다 하여 붙여졌다. 원동조교로는 원동에서 고개를 넘어 춘천 조교리로 이어지는 길이다. 전국 최고의 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마을이며, 대대울·다릿골·조덕골·덧골 마을이 있다. 내촌면 광암리와 두촌면 괘석리에서 한 자씩 따다가 붙인 '광석로'를 따라가면 내후동·대명어터·다름재·탑거리 마을이 있고 다리를 건너면 내촌면 광암리다. 괘석리는 괘시기라고 부르는데 열두 괘시기가 있다고 한다. 두촌면 괘시기와 내촌면 너벙바위(광암리: 내촌 괘시기라고 한다)에는 '터'자가 붙은 마을이 12곳이라 하여 부르는데 골짜기에서 화전을 일구어 살던 작은 마을로 범의터·대명어터·영수터·잘부터·금산아터·장가터·덕무터·느와터(능와터·영와터)·절터·새터·점바우터(점방아터)·다락터 마을이 있다. 일부 지역은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되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장남리는 인제군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건니고개 아래는 원거리·강지나뭇골·장사랑이·도덕골 마을이 있다. 남덕골은 남양홍씨가 덕을 베풀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마을로 『여지도서』에 도덕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강원도 옥수수시험장이 있다.

가리산, 용연·용소계곡이 유명하다. 가리산휴양림은 물소리와 새소리가 지절대는 숲속의 휴양지라고 할 수 있고, 레포츠파크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심신단련과 여가를 즐길 만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4) 내촌면(乃村面)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 녹효, 고려·조선시대에는 홍천현 내촌면(奈村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奈村面), 1942년 내촌면(乃村面)이 되어 지금에 이른다. 소재지는 처음에 물걸리 동창에 있었다가 문현리로 옮기고 다시 지금의 도관리로 옮겼다. 현재 도관(道寬)·물걸(物傑)·와야(瓦野)·서곡(瑞谷)·답풍(踏楓)·화상대(和尙垈)·문현(文峴)·광암(廣巖) 등 8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내촌 하면 먼저 떠오르는 마을이 동창이다. 동창은 홍천현의 세곡 창고가 동쪽에 있어 붙여진 마을이며, 천년의 불교문화를 간직한 물걸리사지와 산골마을 동창에서 대한독립을 외친 기미만세운동과 팔열사의 넋이 잠든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동창 기미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조성한 공원과 척야산이 유명하다.

내촌을 내촌답게 하는 것은 내촌천과 가령폭포이다. 내촌천의 덕탄은 바위와 어우러진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가령폭포는 구중궁궐처럼 백암산 깊은 산속 60m 높이의 바위를 타고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내촌천으로 흘러드는 지류는 와야천·복골천, 장수원의 소동개울, 백우산의 큰골개울, 연못골개울 등이 있으며, 동창뜰·솔경지뜰·경신뜰 등 비교적 넓은 뜰이 있다.

451번 지방도를 따라가는 '아홉사리로'가 중심도로이다. 와야삼거리에서 '장수원로'가 행치령로로 이어지고, 진고개에서 '동창로'가 행치령로로 연결된다. '광석로'는 도관리에서 광암리-두촌면 괘석리를 잇는 도로다. 아홉사리로는 철정사거리에서 지르매재-화상대- 답풍리-도관리-서곡리-와야삼거리-진거리-비레울-아홉사리고개를 넘어 인제로 이어지고, 장수원로는 와야삼거리에서 와야-망전-수작골-감두리-장수원-점말-새말-큰구둔치 고개를 넘어 행치령로와 연결되며, 동창로는 진고개-동창초등학교-장터거리-척야산공원입구-가루개고개를 넘어 행치령로와 만나고, 광석로는 당벌뜰-동도리-우렁골-가족고개-가족동-물굽이-장가터-두촌 괘석리로 이어진다.

내촌을 멀게 했던 지르매재는 현재 터널 공사 중이며, 고개를 넘으면 화상대리다. 아홉사리로를 따라가다 화상대다리를 건너면 월부터·연못골·할미골·신여울·어은동·살벼울·정신뜰 마을로 갈 수 있다. 할미골에는 할미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공작산 마구할미(삼신할미)가 가리산을 갈 때 밟고 갔다는 발자국이 남아 있다.

오형제고개를 넘으면 답풍리다. 숯고개·미골·용포·삼선대·솔경지·논골·가래울

등 마을이 있다. 용포·삼선대·솔경지는 내촌천변을 따라 형성된 뜰에 마을을 이루고 있다. 논골에는 시방원이 있으며, 솔경지의 떼소는 뗏목을 적심하던 곳이라 한다.

도관리는 면소재지이다. 면사무소, 내촌초등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 보건진료소, 내촌중학교, 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많은 전설이 깃들어 있는 백우산이 날개를 펴 품고 있다. 옛날 풍수에 따라 솔모종을 하였다는 모종촌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장거리·버섯고지·동도리·구만이·사갑·거주포·메지골·뱃골·우령골·큰골·둔덕말·양지떼소 마을이 있다. 당벌뜰은 도관리의 너른 뜰이다. 이 뜰에 물을 대기 위하여 거주포에 저수지를 막은 적도 있었다.

광암리는 화전민들이 모여들어 개간을 한 산골짜기다. 넓은 바위가 있어 '너벙바위'라고도 하는데, 너벙바위 안쪽으로도 5개 반이 있었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 또 금광이 개발되어 광부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가족동엔 아직도 광석을 실어 나르던 레일이 남아 있는 금광이 있다. 현재 가족고개 확포장 공사가 한창이다.

용소계곡은 홍천군에서 군립공원을 계획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연애바위, 귕소, 촛대바위, 또랑소, 용소, 너래소, 굴아우, 거북바우 등 마음을 둘 만한 곳이 많다. 용소계곡 가는 길은 가족고개 정상에서 백우산에 올라 새나들이로 내려와 너래소로 가는 길과 물굽이에서 용소간(영수대)을 지나 군유동 설통바위를 돌아 새나들이에서 너래소로 가는 길이 있다.

문현리는 사갑에서 다리를 건너 오른편 농로를 따라 가야 한다. 비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화전촌이다. 한때 문현광산에서 금맥이 터져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서곡리는 서곡당대사가 태어난 마을이다. 안실과 밧실, 여창이 마을이 있다. 서곡리의 풍광은 덕탄의 물소리와 바위와 소나무 숲에서 나온다. 수레바위, 복주께바위, 새댁바위 등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자연조각공원을 이루고 있다. 여창이에는 두봉산 쌍계사가 있으며 동해 지장사 철불을 모시고 있다.

와야리는 인제 상남으로 가는 길과 동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으며, 망전·진거리·비선동·수작골·가령골·본부락·영계동 마을이 있다. 백암산 가령폭포가 있으며, 소설가 전상국의 단편소설 「동행」의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이다.

와야삼거리에서 장수원로를 따라 물걸리로 들어가면 물걸리 어귀에 내촌 IC가 있다. 물걸리는 물걸리사지와 함께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탑둔지, 동창, 비석거리, 복골, 동막골, 구미말, 장터거리, 동회골, 널나드리, 감두리, 장수원, 점말 등 마을이 있으며,

동창장이 서기도 했다. 동창뜰에 물을 대던 동창보의 바위에 보주김군보라 음각된 글씨가 남아 있다.

내촌의 명승지는 가령폭포·물걸리사지·척야산·덕탄·용소계곡 등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만한 곳이 많으며, 단호박이 유명하다.

(5) 서석면(瑞石面)

『홍천군지』에 "고려시대에 노릉군 주우면이라 칭하다"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자료의 출처를 알 수 없어 조선시대부터 서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사이암 석(石): 속(續)"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홍천현 서석면으로 편입되고,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瑞石面)이 되어 지금에 이른다. 면소재지는 풍암리이다. 검산·풍암·생곡·어론·수하·군두·청량 등 7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홍천 동부지역의 교통요지로 중심도로는 56번 국도인 '구룡령로'이다. 인제군 상남면으로 가는 '행치령로', 동면과 연결된 '공작산로', 횡성 청일로 가는 '청정로', 청량마을로 가는 '청량로'가 있다. 구룡령로에는 어론·풍암·검산·생곡 마을이 있고, 행치령로에는 수하리, 공작산로에는 어론리, 청정로에는 군두리·량리 마을이 있으며, 청량로는 동두촌-삼연대로 이어진다.

서석은 신화적인 지명을 가진 마을이다. 불바래기, 할미자리, 미약골, 서광이, 대월, 검산, 명동, 조조, 삼신산 등과 지장고개, 보리울, 연화봉, 법밭, 생비, 절골 등 지명은 단군신화와 불교와 연관돼 보인다. 서석은 홍천강 발원지이다. 미약골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홍천의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이며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서석면 주민들은 구목령 피리샘에서 매년 시원제를 올린다. 생곡천·검산천·청량천·어론천·수하천 등에서 실려 온 토사로 크고 작은 뜰을 이루었는데, 『조선지지자료』에는 둔지뜰·큰터뜰·새진뜰·광판뜰·장수뜰·도소터뜰·용두안뜰·진창뜰·샛말뜰·노쟁이뜰·용호터뜰·항골뜰·절골뜰·누런이뜰·가두둑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거지도 쌀밥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풍요로운 곳이다.

풍암리는 동학혁명 최후 격전지이다. 1976년 새마을 사업을 하던 중 자작고개에서 발견된 유해 더미를 보면, 당시 사망자가 800명이었다고 추정된다. 『고종실록』에는 "소모관 맹영재가 행군하여 장야평에 이르러 비적 30여 명을 쏘아 죽이고, 방향을 바

꾸어 서석면에 이르니 비적 수천여 명이 흰 기를 세우고 진을 치고 모여 있기에 총을 쏘며 접전하였는데 사상자는 그 수를 알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때 생겨난 지명이 자작고개다. 홍천 동학운동에 대한 기록은 「갑오실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구룡령로 솔치터널을 넘으면 어론리이다. 어론삼거리(평촌초교)에서 야촌·황정골·이금이·과우·부목재·동면으로 가는 '공작산로'가 연결되며, 용두안삼거리에서 이어지는 '행치령로'에는 와둔지·응골·가두둑·구둔치·항골·절골 마을이 있다.

방가대는 방씨 일가가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어론천은 미울에서 발원하며 살구베리는 숨겨진 마을 천렵터로 알려져 있다. 고양산에는 100년이 넘은 무궁화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동학문화제와 코스모스축제가 열린다.

수하리는 예전에 학이 많이 날아왔다 하여 '향학촌'이라고도 하였다. 와야리로 가는 '장수원로', 물걸리로 가는 '동창로'와 인제군 상남면으로 가는 '행치령로'가 지나며, 가두둑·구둔치·항골·절골·무사골·놀언동·용호대 마을이 있다. 을달항골에 물을 대기 위해 바위굴을 뚫어 물길을 낸 굴보(김사창이 주도하여 뚫음)가 있다.

풍암리에는 서석면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서석면의 중심 상권지역이며 4·9일 서석장이 선다. 진등 자작고개에는 동학혁명군전적지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성황당에서는 매년 천신과 지신에게 제를 올린다. 풍암뜰을 적시는 이반보(입안보)가 있으며, 현하·장막·새말·조조울·조가동·감두리·덕바치 마을이 있다.

군두리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때 군대가 주둔하였던 곳이라 한다. 원래 상군두와 하군두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병합하였다. 군두리장이 섰던 곳이며 너른 뜰이 펼쳐져 있다. 강가에는 소풍 장소가 되었던 매지바위너설이 있었으며, 옥루동·마산·새둔지·구시장 등 마을이 있다.

청량리는 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맑아 시원한 동네라고 붙여진 마을이다. 청정로가 마을을 가르며 횡성군 청일면으로 이어지고, 마을 안으로 이어지는 청량로를 따라가면 삼연대 저수지가 있다. 홍천의 명물 올챙이묵 전설이 깃든 마을이다. 노쟁이·삼근암·솔골·삼연대·동두촌·벌막·보리울 등 마을이 있다. 늘 구름과 안개가 서려 있다는 운무산이 있다.

검산리는 삼신산과 아미산이 품은 마을이다. 마리소리악기박물관, 귀농귀촌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용오름 산촌휴양관이 있고, 철광석을 캤다는 쇠판이마을과 명동·효제곡·샛말·진장이·구방·둔지·버들구미·용오름 마을이 있으며, 서봉사가

있다.

생곡리는 홍천강 발원지이며, 태기왕 전설이 전해오는 마을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무궁화가족 홍천 꿈동이> 뮤지컬을 만들고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보부상과 장돌뱅이들이 넘던 구목령을 넘으면 평창군 봉평면이다. 매년 서석면민을 위한 시원제를 피리샘에서 올린다. 최근 군도 408호 마을 안길 확포장 및 구목령 터널 공사가 추진 중이다. 서광동은 서석이라는 지명의 전설이 깃든 마을이며, 판관대·대월·생비·이목동·샛말·용터·도찬동·이목동 등 마을이 있다. 폭포산, 눌언동, 미약골 등은 맑은 물과 시원한 바람소리를 즐길 수 있는 명소이다. 홍천강 발원지 어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미약골에는 촛대바위, 암석폭포가 있다. 내면 율전리로 가는 뱃재(이현)는 오르막만 있는 고개다.

(6) 동면(東面)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 녹효, 고려·조선시대에는 홍천현 영귀미면(詠歸美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詠歸美面)이 되었다가, 일제가 간행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한 내용을 정리한 일람 자료로 1917년 5월 1일 간행)에서 영귀미면은 홍천의 동쪽이 된다 하여 동면(東面)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때 홍천의 영귀미면, 금물산면, 감물악면, 화계면이 각각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으로 변경 기록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면소재지는 처음에는 좌운에 두었다가 속초리로 옮겼으며, 속초(束草)·신봉(新峰)·덕치(德峙)·성수(城壽)·삼현(三峴)·방량(方良)·월운(月雲)·후동(後洞)·개운(開運)·노천(魯川)·좌운(坐運) 등 11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영서 최고의 고찰 공작산 수타사에는 대적광전, 흥회루, 사천왕상, 범종, 『월인석보』(권17·권18), <영산회상도>, 홍우당부도 등 보물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정희왕후의 태를 봉안"한 곳이라고 전해오며, 둘레에 산소길과 공작산생태숲이 있다.

동면은 공작산·대학산·만대산·오음산·먹방산 등 큰 산이 둘러싸고 있다. 크고 작은 개천이 이룬 뜰과 좌운저수지·속초저수지·개운저수지·공작산저수지를 막으면서 각 지역에 큰 뜰이 생겨났다. 홍천인삼 최초 경작지이며 홍천사과 주산지이다.

중심도로인 '공작산로'가 오룡터널-성수-속초-노천을 지나 부목재를 넘어 서석면 어론리에서 구룡령로와 연결된다. '방량로'는 성수-삼현 방량-방어재를 넘어 영서로에 연결된다. '월운로'는 속초에서 개운-방량-월운으로 이어지고, '신봉로'가 공작산로에서 신봉으로 이어지며, '금계로'가 노천-화방-좌운을 지나 횡성군 공근면과 연결된다. '당무로'는 노천에서 공작저수지-공작고개를 넘어 당무를 지나 조하대에서 구룡령로와 만난다.

성수리는 대미산성에서 유래된 마을이며, 개운천과 삼현천이 이룬 너른 뜰이 펼쳐져 있다. 의병장 한갑복 선생 추모비와 민병태 열사 형제 추모비, 이종호 시비가 건립되어 있다. 대미산성에는 이괄의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여흥민씨 집성촌이다. 성전·숫골·짓골 등 마을이 있다. 오룡터널이 개통되면서 읍내와 가까워졌다.

덕치리는 덕고개에서 유래된 마을이다. 순장버덩과 귀미뜰, 비선뜰이 펼쳐져 있다. 비선뜰은 원래 비석뜰이었다고 한다. 수타사 뒷봉우리는 '여의주봉'이라고 하는데 풍수가들은 공작이 알을 품은 공작포란형이라고도 한다. 홍천용씨 사당인 '화산재'가 단봉에 있고, 소군이·순장버덩·양지말·사내·큰말·둔지촌 마을이 있다.

속초리는 속새가 많아 이름이 붙여진 마을인데 면소재지이다. 면사무소, 학교, 보건진료소, 파출소, 농협 등 기관이 밀집해 있다. 김해허씨가 세거를 이루었다. 성수리와 속초리 사람들이 정월대보름에 석전놀이를 했다고 한다. 노천저수지가 생기면서 상전벽해를 이루었으며, 곶골·사락동·붉은봉·소니골·속새울·원개울·먹방·새술막 마을이 있다.

개운리는 개운절이 있었다 하여 이름이 유래되었다. 개운저수지가 생기면서 돌모루뜰이 옥답으로 변했다. 돌모루 뜰 한가운데의 소나무 숲은 풍수에 따라 심었다고 하며, 일제강점기에 송진을 채취한 상처를 안고 있다. 산수골·개운절·돌모루·중평골 마을이 있다. 한가운데 고인돌이 있으며, 피고개는 피리처럼 길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월운리는 오음산이 감싸 안은 마을이다. 월운초등학교(지금은 분교)가 있고, 중앙고속도로가 마을을 가르며 지나간다. 공주터·새말·석봉안·개암둔지·과녁터·양지말·버덩말·담을네미·노루터 마을이 있다. '남궁 부자 효자 정문'이 있으며, 개비석 이야기가 전해온다. 공주터에 흔들바위가 있다.

후동리는 만 개의 집터가 있다는 만대산 자락의 마을이다. 마을 안길에 복사나무

를 심어 동요 <고향의 봄>을 떠올리게 한다. 홍천인삼 최초 경작지이며, 주논뜰이 넓게 펼쳐져 있다. 삼굿모퉁이·뒷골·동막골·구미말·장성지·큰논골·작은논골 마을이 있다. 마을을 수호하는 거북이 형상의 산이 두 곳에 있다.

방량리는 수리재를 경계로 방량골·골말·족돌바위 마을이 있다. 방량골은 삼현천을 따라 골말마을이 있고, 족돌바위는 월운천을 따라 마을을 이루고 있다.

삼현리는 건들재, 웃삼재, 진삼재 등 고개가 세 개 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마을 어귀에 솟대를 세우는 풍습이 있었고, 논꼴·무네미·배터·방량골 등 마을이 있다. 물통방아놀이를 재현하여 전승해 오는 마을이다.

신봉리는 마을 가운데 있는 신봉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덕치천의 상류에 있다. 공작산 산소길의 길목으로 궁소 등 아름다운 계곡과 약수봉 아래 동봉사, 신봉리사지가 있다. 궁터·맛바우·왕터 마을이 있다.

노천리는 노랫골, 노래골 또는 노내동(魯內洞), 노래동(魯來洞), 노천(魯川), 노촌(魯村) 등으로 부르던 마을에서 따온 지명이다. 공작산 아래에 있다. '소니고개'는 옛날 호랑이를 잡던 쇠뇌를 놓았다는 데서 유래된 고개라고 한다. 노장·약바터·양지말·장거리·지왕동·효죽·새목·물골·공작동·덕우·솔골·허뱅이·솟대배기 마을이 있다. 좌운리 넘어 다니던 갯고개가 있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옷샘이 있다.

좌운리는 '금계로'가 마을의 중심도로이다. 금계로는 대학산에서 발원한 금계천에서 유래된 도로명이다. 곶골·청룡말·첫내·둔지말·안골·개고개·장구목·예의촌 마을이 있다. 좌운저수지를 막고 나자 돌버덩이던 개천이 옥답으로 바뀌었다. 개고개의 유래와 허장군 전설이 전해온다.

(7) 남면(南面)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는 녹효, 고려·조선시대에 홍천현 금물산면(今勿山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금물산면(今勿山面)이 되었다가, 1917년 일제에 의해 홍천의 남쪽이 된다 하여 남면(南面)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오안리·장전평리를 홍천면으로 이관하고, 제곡리를 재편성 편입하였다. 1963년 삼마치리를 홍천읍으로 이관하고, 1973년 상창봉리를 횡성으로 이양하였으며, 1983년 상오안리를 홍천읍으로 이양하였다. 면소재지는 처음에 시동 고음실에 두었다가

상오안리 새술막으로 옮겼고, 다시 양덕원리로 옮겼다. 현재 양덕원·유목정·신대·시동·남노일·유치·월천·명동, 제곡·용수·화전 11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44번 국도를 따라 '설악로'가 신당고개를 넘어 유목정리-양덕원리-월천리를 지나 며느리고개로 이어지고, '양덕원로'가 월천리에서 양덕원 시가지를 지나 설악로로 연결되고 있으며, '남노일로'가 양덕원에서 명동리-제곡리-용수리를 지나 남노일대교를 건너 굴지강변로와 연결된다. '시동로'는 양덕원에서 유목정리-신대리-시동리-유치리를 지나 영서로로 이어지며, '신대로'·'망덕산'·'시동안로'가 마을을 이어주고 있다.

양덕원리는 면소재지로 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원이 있어 교통이 발달하였고, 경기도로 가는 길목으로 터미널이 있다. 시동 금계천·유목정천·화전천이 모여들어 양덕원천을 이룬다. 구장터·뒷모퉁이·앞버덩·양덕원터·탑터 마을이 있고, 봉암정이 있다.

유목정리는 물굽이가 마을을 휘돌아 흐르고 물가에 정자가 있었다 하여 유목정이라 했다. 신당고개에는 성황당이 있었고, 두루봉에는 봉화대가 있었다. 갈길(葛吉)·봉상촌(鳳翔村)·물굽이 마을이 있다. 인적산에는 천년바위와 거북바위가 있다.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양덕상업고등학교-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개명)가 있다.

화전리는 신선들이 꽃을 가꾸며 살았다는 전설이 깃든 마을이다. 백양치터널이 뚫려 서면 가는 길이 수월해졌으며 골프장이 있다. 과우·방골·길골·터골·독장골·막거리·흥성골·묵어골·봄노리(법노리)·사방터·허리원·새남터·어두어니·오도치 마을이 있고, 황금전나무와 영천이라는 샘터가 있었다.

명동리는 월명리에서 갈라져 나온 마을이다. 양덕원천과 월천으로 너른 뜰이 형성되었고,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석양촌·심방골·숲골·안골·절골 마을이 있다. 가수 인순이가 설립한 해밀학교생활관이 있다.

제곡리는 제골에서 온 지명으로 무용가 최승희가 태어난 곳이다. 이소의 효자각이 있으며, 제골·자터 마을이 있다. 중보의 전설이 전해온다. 제곡진료소가 있다.

용수리는 용소에서 용이 나와 두 산이 합해졌다고 하여 부르게 되었는데, 용수골·응아지·큰말·장독벼루·장자터 마을이 있으며, 토탄이 나온다. 용수분교 터에 해밀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남노일리는 북방면에서 편입된 마을로 홍천강이 고주암과 위안터를 감돌아 흐르며 수태극을 이룬다. 금학산과 백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고드레미·구룡밭·돌

고개·여내·위안터 마을이 있다.

월천리는 며느리고개 아랫마을이다. 설악로가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며, 안말·가작골·헌텃골·양지말·안아밭골·욕골 마을이 있다. 월천골 안막에 저수지 두 개가 있다. 이괄의 아버지 이육(李陸)의 묘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신대리는 고려가 망하면서 왕건의 후손들이 새로 터를 잡았다 하여 붙여진 마을이다. 마을의 한가운데 망덕산이 있다. 홍천의 남창이 있었다. 덕머리·창말·사기막·샛말·동은·서은·하은·발귀고개 마을이 있다. 신대리 홍천배가 유명하다.

시동리에서는 시인묵객들이 사계절 내내 모여들어 시를 읊었다 하며, 시동8경이 전해온다. 홍천용씨의 집성촌이다. 고음실·동삿골·독벼루·사기점·도출·음터골·새못골·독벼루 마을이 있다. 시동장이 섰던 장터거리도 있으며, 아들바위가 있다.

유치리는 고개에 느릅나무가 많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금물산이 안고 있으며, 상화터·학동·지산·산막골·난터골·가두둑·양지골 마을이 있다.

(8) 서면(西面)

본래 고구려시대에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 녹효, 고려·조선시대에는 홍천현 감물악면(甘勿岳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감물악면(甘勿岳面)이 되었다가, 1917년 일제에 의해 홍천의 서쪽이 된다 하여 서면(西面)으로 변경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면소재지는 반곡리이며, 두미(斗米)·중방대(中方垈)·길곡(吉谷)·동막(東幕)·모곡(牟谷)·마곡(馬谷)·개야(開野)·팔봉(八峯)·굴업(屈業)·어유포(魚遊浦)·대곡(垈谷)·반곡(盤谷) 12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홍천강과 중방대천을 따라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며, 모곡에 큰 뜰이 형성되어 있다.

팔봉산은 조선시대 천신대제를 올리던 산이었다. 그 풍속이 팔봉산 당굿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덟 봉우리 마다 각기 이름을 가진 산으로 산중에는 용마굴·장수굴·백운대·은선암·현선암·구암·연가암 등 기암이 절정을 이루며, 산 아래를 감고 도는 구곡강(팔봉산을 굽어 흐르는 홍천강의 다른 이름)은 백석청탄으로 래프팅과 물놀이 장소가 되고 있다.

모곡은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 운동 발상지이다. 한서기념관, 유리봉, 한

서묘역 등 선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유포리에는 해동공자 문충공 최충 선생의 영정을 모신 노동서원이 있고, 두미리 붓고지 전각은 명성황후와 관련이 깊은 곳이다. 팔봉리에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대명 비발디파크가 있다. 휴식과 캠핑을 즐기기 위해 홍천강의 백사장과 맑은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민물고기가 많아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서면의 도로망은 한서로와 팔봉산로가 중심이다. 남면 양덕원에서부터 이어지는 '한서로'는 굴업리-대곡리-중방대리-모곡리-동막리를 지나 널미재를 넘어 설악면으로 이어지고, 북방면 부사원에서부터 이어지는 '팔봉산로'는 어유포리-반곡리-두미리-대곡치를 넘어 대곡에서 한서로와 연결되며, '개야로'는 반곡에서 개야를 지나 모곡으로, '모곡로'는 한서삼거리에서 마곡리, 충의대교를 건너 춘천시 황골로 연결된다. 따라서 서면은 경기도와 춘천 생활권에 가깝다.

팔봉리는 팔봉산 아랫마을이다. 팔봉산에 관한 전설이 많이 전해오는데 베틀바위·철갑바위·벽장바위 등의 바위와 장락사와 성방사가 있었다고 전해오고, 검시리·구예기·도룡골·두멍안·당골·오도재·큰말·쇠판이·중사리 마을이 있다.

반곡리는 감물악산 아래에 위치하는 면소재지이다. 홍천의 서창이 있던 서창터와 홍천강 한가운데 신바위(상청담불)와 용늪, 태양산이 동쪽에 있다. 예전에 반곡장이 섰던 장거리와 망단이·뒤뜰·가무름 마을이 있다. 팔봉산 양조장이 있다.

어유포리 앞으로는 팔봉산이 우뚝 솟아 있고, 구곡강(고부소)이 돌아 흐른다. 최충 선생을 모신 노동서원이 있고, 팔봉산당굿이 이어져오고 있다. 구석말·돌곶이말·효죽은이·버덩말·법실이·중간말·당여울 마을이 있다.

두미리는 감물악산 아래 두메가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거리·됫말·붓고지·양짓말·웃말·오릿골·관사터·응달말·옥담터 마을이 있다.

개야리는 종자산 아래 홍천강가에 있다. 밧말·안말·유진이 등 마을이 있으며, 마을 둘레길과 강변이 아름답다.

굴업리는 백양치터널이 뚫리면서 홍천과 가까워졌다. 버덩말·솔골·뺑치·장거리·안굴업 등 마을이 있다.

대곡리는 대곡치 아래 옛터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두미리와 중방대리로 가는 길목이다. 새터·귀량리·점촌 등 마을이 있다.

중방대리는 방씨 성을 가진 사람이 옹기를 굽던 점방터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가일·병천(아우라지)·산음·중방대 등 마을이 있다.

모곡리는 서면에서 제일 큰 리(里)로 모곡장이 섰었다.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묘역과 한서기념관이 있다. 함열남궁씨 집성촌이다. 모곡강변과 오지소 앞 천근암(배바위)에서는 카약과 래프팅 등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돌댐이·설밀·아랫말·웃말·점터·장락동·밤벌·도리소·보릿골 마을이 있다.

동막리는 홍천군과 경기도 가평군의 경계인 널미재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이다. 아랫말·웅골·새말·삼거리·점말 마을이 있다.

길곡리는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는 서면의 두메산골이다. 두 개의 골짜기가 만나는 합소, 낭암리·동동멧벌·웃말·진터벌·한새울 마을이 있다. 골프장이 들어섰다.

마곡리는 말을 먹였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홍천강이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마을로 청평호의 상류가 된다. 홍천강가를 따라 길게 마을을 이루고 있다. 뗏목을 다시 맸다고 하는 떼내와 말골나루터 마을이 있고, 왕터산이 있다.

(9) 북방면(北方面)

고구려시대에는 벌력천현, 통일신라시대에는 녹효,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홍천현 북방면(北方面),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천군 화계면(花溪面)이 되었다가, 1917년 일제에 의해 화계면은 홍천의 북쪽이 된다 하여 북방면(北方面)으로 변경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1년 춘천시 동산면 북방리와 풍천리가 북방면에 편입되었다가 풍천리는 화촌면으로 다시 편입되고, 전치곡은 없어졌다.

상화계리·중화계리·하화계리·화동리·성동리·북방리·능평리·부사원리·본궁리·역전평리·원소리·구만리·소매곡리·도사곡리·굴지리·장항리·노일리 17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북방면은 화촌면 풍천리와 더불어 홍천잣의 주 생산지이다. 1957년 성동저수지가 완공되면서 북방면이 홍천의 곡창지대가 되었다. 하화계리 도둔에 하이트맥주공장, 성동리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있다. 무궁화테마파크, 강재구공원, 연화사, 친환경에너지타운, 무궁화문화마을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은 성동천을 따라 북방리·성동리·화동리·상화계리가, 홍천강변을 따라 소매곡리·도사곡리·굴지리·장항리·노일리가, 북방 중간 지역을 따라 부사원리·본궁리·역전평리·원소리·구만

리가 형성되어 있다.

중앙고속도로가 역전평-소매곡리-하화계리를 관통하며, 부사원부터 이어지는 국도 5호선 '영서로'가 능평-상화계리-하화계리를 지나고, '팔봉산로'가 부사원-본궁리-역전평리-원소리-구만리를 지나 어유포리로 이어지며, '굴지강변로'가 역전평사거리에서 굴지리-장항리를 지나 남로일로와 만나 노일로로 이어져 원소리 삼거리에서 팔봉산로와 만난다. 홍천읍과 연결되는 '두개비산로'는 잿골터널-중화계를 지나고, '마지기로'는 마지기고개를 넘어 중화계 삼거리에서 두개비산로와 만나 상화계삼거리에서 영서로와 연결되며, '성동로'는 장수촌 어귀 마지기로에서 화동리-강재구공원-성동삼거리-용태울-북방리로 이어진다.

하화계리 일대는 홍천강과 너른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중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계리는 조선 단종 때 병조판서 화계 김효성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화계는 상화계(上花溪), 중화계(中花溪), 하화계(下花溪), 화동(花洞)의 4개 리 앞으로 흐르는 개울이다. 개울 건너 산 위에 소학정(巢鶴亭)이 있었다고 한다.

상화계리는 면소재지로 주요 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상가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덧골·뒷골말·모래골 등 마을이 있다. 중화계리는 잿골터널이 뚫리면서 읍내와 가까워진 마을이다. 조선 세조 때 정난공신인 선약장군 김경조의 묘가 있다. 덕고개·방고개·가루고개·샛골고개 등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과 왕래했다. 너구리터·능안·철가터 등 마을이 있다. 봉화대가 있었고 큰 솔밭이 있다. 하화계리는 잣고개가 낮아지면서 읍내 생활권이 가까워졌으며, 홍천강변을 따라 농경지와 마을을 이루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하이트맥주공장 공사 중 하화계리 일대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다. 도둔(桃屯)·백리(栢里, 백이)·사둔지(沙屯地, 새둔지)·소단이·새터·돌터거리(비석거리)·안골·청성촌·퇴밋고개 마을이 있다. 송학정 터를 중심으로 무궁화테마파크가 조성되었고, 하이트맥주가 도둔에 자리하고 있다. 11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화동리는 화계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이름이다. 너부내·아랫범골·덕고개·웃범골 등 마을이 있다. 장승제와 성황제를 지내며, 가을에 국화꽃축제가 열린다.

성동리는 성재(城峙) 아래가 된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성동(대룡)저수지가 있다. 성재산·갈골·만내골·뱀골·구렁말·붉은봉이·돌모루·새나무터·무수막·샛말·샛성골·수전막·용태울·옻나무배기·닥밭골 마을이 있다.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과

강재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북방리는 본래 춘천시 동산면 지역이었다가 북방면으로 편입되었다. 속칭 사랑말이라고 한다. 장자터·용소매기 등 마을이 있다. 소풍 장소였던 대답바위, 강원대학교 실습림, 연화사가 있다.

능평리는 조선 세조 때 정난공신 연산군 김효성의 묘가 있어 능평이라 하였다. 무궁화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 능뜰·건너말·다락구석이·원동골·절터·진골 마을이 있다. 김효성 묘와 신도비, 독립운동을 펼친 오의사 묘역이 있다.

부사원은 원이 있다 하여 붙여진 마을이며, 진골·막은내밋골 등 마을이 있다.

본궁리는 세조가 행차하다가 본궁을 차리고 묵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우는 장승제가 이어져온다. 솔골·시무개·양지말·응달말·논골·건넌골·논뜰·솔밭모랭이·안산모랭이 마을이 있다. 홍천굿당이 있다.

역전평리는 역에 딸린 뜰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춘천시 동산면과 연결된 도로가 마을을 지나며, 계량이·비칠·역밭뜰 등 마을이 있다.

원소리는 홍천현에서 멀다 하여 먼소, 먼배라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먼배·벌업·만내골·밧원소·원소리고개·신술리·내원소·밧면배 등 마을이 있다.

구만리는 구만산 아래가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구만천가에 뜰이 형성되어 있으며, 청동기유적인 고인돌이 있다. 구성말·북정골·원수골·반석들·왜둔지·원수동·잣나무배기 등 마을이 있다.

소매곡리는 홍천강이 새 '을(乙)'자처럼 휘돌아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얼밀이라고도 한다. 중앙고속도로 홍천휴게소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타운이 자리하고 있다. 얼밀·굴결·먹뱅이·더운김내기 등 마을이 있으며, 홍천온천과 천냥바위가 있다.

도사곡리는 도새울에서 실려 온 모래가 많아서 이름 붙여졌다. 도사곡다리가 놓이고 소매곡부터 서면 팔봉까지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가 확포장되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다. 문들·도새울·밧말·중간말·안말 마을이 있다.

굴지리에는 홍천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굴지8경이 있다. 굴지8경은 '굴지천의 철쭉, 괴바우의 비경, 괴바우소의 녹음, 낙화암의 낙조, 벼루바우의 단풍, 정자바위의 운치, 굴지천의 백사장, 맑고 푸른 강물이 빚어낸 조화로운 풍경'이다. 굴기·머문너미·산구네미·웃거리·석골·무랭이·물알버덩·석밭재 등 마을이 있다. 삼청교육대훈련장이 있었다.

장항리는 지형이 노루의 목과 같다 하여 노루목이라 하였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노루목·노루목나루·돌골·오라리·왯벌·용삼·용수·절골·절벼루·절안 마을이 있다. 홍천용씨 시조 용득의가 학서루를 짓고 말년을 보낸 마을이다. 2018년 장항교가 놓였으며, 홍천강 오토캠핑장이 있다.

노일리는 홍천강가를 따라 길게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뒤로는 금학산이 있다. 구룡밭·남머이·돌고개·돌골·샛말·영산골·용수사터·큰마을·윗벌·모래나드리 마을이 있다. 2018년에 구룡밭교가 놓였다. 섶다리축제가 열린다.

(10) 내면(內面)

본래 명주군(지금의 강릉)에 속해 있었으며, 1895년 내일면·내산면으로 분할되었다. 내일면은 가미동·율전리·광원리·생둔리·원당리·하북리·소한리·조항리·이현동·자운리·창촌리 등 11개 리를 관할하고, 내삼면은 용연동·미산동·아계동·여차동·방내리·성내동 등 6개 리를 관할했다. 1906년 인제군으로 이관되고 1914년 두 면을 합쳐 내면(內面)으로 개명하고, 창촌·광원·자운·율전·미산·방내 6개 리로 개편하였다. 1945년 38선이 생기면서 홍천으로 편입되었다가, 1973년 양양군 서면 명개리가 내면으로 편입되었고, 미산이 인제군으로 편입되었다. 현재 창촌·광원·자운·명개·율전·방내 등 6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내면은 전국 면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다. 백두대간의 길목이며, 북한강 수계 내린천의 발원지이다. 오대산 비로봉·계방산·방태산·응봉산 등 1,000m 이상의 산들이 에두르고 있고, 92%가 임야이며, 고랭지채소·산채·한약재 등을 재배하고, 논농사는 방내에서 한 가구가 짓고 있다. 삼봉휴양림과 개인이 조성한 은행나무 숲이 있고, 천연기념물 열목어 서식지이다. 삼봉약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마을 곳곳에 권대감을 모시는 성황당이 있다.

내면의 중심도로는 '구룡령로'이다. 뱃재고개를 올라서면서 율전-자운 괸돌-자운경천-창촌양수교-창촌-광대평-광원절에-원당-광원-명개리를 지나 구룡령으로 이어진다. '운두령로'는 창촌 양수교-자운 운두-운두령으로 이어지며, '보래령로'는 자운 운두삼거리에서 청계동을 지나 보래령터널을 지나 봉평으로 연결된다. '방내로'는 고사리재를 넘어 방내-성내-율전에서 구룡령로와 연결되고, '내린천로'가 광원 원당삼거리

에서 가덕-살둔을 지나 인제군 미산면으로 이어진다.

면소재지인 창촌리는 창이 있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5·10일 장이 선다. 노루목·노양골·들미버덩·문지방골·물안골·백성동·베루골·상북골·송지골·아래버덩·양수교·웃버덩·작은한이·큰한이·중간말·창집터·터골·하북골·문암 마을이 있다. 석화산과 문암의 병풍처럼 두룬 바위가 비경이다.

광원리는 조선시대 원이 있었다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너른 장거리로 부른다. 권대감을 모신 사당이 있었다. 삼봉약수, 휴양림, 은행나무숲, 칡소폭포 등 절경이 있다. 월둔·광원·을수·달둔·원당 작업장·절에·가덕·뒷버덩·붉은덕·쇠터울·일어서기·사월평·실론·샘터·쇳골·섬터·다릿골·석대·새터·원터버덩·장거리·피앗골 마을이 있다.

자운리 운두령 밑에 위치한다. 아침 해가 뜰 때 붉은 구름이 비친다 하여 자운이라 하였다. 박정열 여인의 살신모정 추모비와 권대감의 말무덤 성황당이 있다. 괸돌·경천·덕두원·청계동·운두골·새목이·말무덤·솔무치·수레너미고개·용장골·자작장이 마을이 있다. 경천마을은 화전민을 모집하여 화전을 일군 마을이며, 전국 최대 오대산 명이나물 재배지이다.

명개리는 본래 양양 땅(당시에는 양양군 서면 명지리와 조개리)이었다가 1973년 내면으로 편입되면서 명개리가 되었다. 오대산관리소와 구룡령이 있다. 명지골·청도·조개동·통마름·독가촌·인바우버덩·메밀앗골 등 마을이 있으며, 벌바위·아소벼랑·금성대·삿갓바위·선녀탕 등 명소가 있다. 마을 전체가 천연기념물 열목어 서식지이며, 오대산에는 습지가 있다. 동학군이 최후에 전사한 마을이다.

율전리는 밤나무가 많아 밤바치·율전이라고 불렸다. 가진포·고든골·노루목재·문바우·물안골·문암·뱃재·부흥동·신흥동·신기·안현동·외솔배기·우물골·진앙골·한솔골·화랑동·신여울 마을이 있다. 트레킹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살둔계곡이 있다. 문암에 250년이 넘은 귀틀집이 있다.

방내리는 옛날 현이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 장이 서기도 했다. 내면농협 분소가 있다. 가마소·성내동·구름·노루목·담터·녹수골·무너미·삼리창말·석장골·속새절골·아치네·아차울·양지말·원심이·자기아치·질고앗 마을이 있다.

2018년 현재 홍천의 마을은 1읍 9면, 105개 법정리, 198개 행정리, 1,054반으로 편

성되어 있고 622개 자연마을이 있다. 도로는, 고속도로 2개 노선 34.88㎞, 국도 5개 노선 200.20㎞, 국가지원 지방도 2개 노선 30.27㎞, 지방도 8개 노선 206.85㎞, 군도 15개 노선 235.08㎞, 농어촌도로 169개 노선 556.6㎞로 총1,263.88㎞이다. 이 중 846.18㎞가 포장되어 66.9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4. 인구

인구는 특정한 시간에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인간의 집단을 말한다. 1925년 일제에 의해 최초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홍천의 인구는 1960년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196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인구 증가 혹은 감소 요인을 해당 시기의 자료들로 살펴보면, 그 시대의 상황과 홍천의 지형적 조건을 잘 알 수 있다. 주요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관동지』, 『홍천현읍지』, 『조선지지자료』, 『2016홍천군정백서』, 동아일보, 통계청자료 등이다.

1) 조선시대 이전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 등을 통해서 홍천에 일정 규모의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기 구석기 삶을 보여주는 북방면 하화계리 사둔지와 도둔지역은 홍천강과 나지막한 산들이 둘러싸인 곳으로 사람들이 물고기잡이와 사냥하기에 알맞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물이 발굴된 토양의 층위에서는 중기 구석기의 유물 수천 점이 발굴되었다. 이 일대가 중기 구석기에 세석기를 제작하던 작업장소였다고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이 오랜 기간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12,000~10,000년 전의 일이며, 홍천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홍천문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홍천 곳곳에 사람들이 터를 잡는다. 화촌면 성산리 백이동·군업리, 두촌면 철정리·역내리, 동면 개운리·월운리, 남면 유치리·시동리, 북방 능평리·구만리·하화계리 등에서 선사유적과 고분·고인돌이 발굴되었다. 그 주인공들이 홍천 전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거주하며 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에 걸쳐 홍천에 정착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들은 공작산 아래 수타사를 창건하고, 물걸리에 절을 짓고 석탑을 세우고 석불을 모셨다. 괘석리에는 사사자삼층석탑을 세우고 희망리에는 삼층석탑과 당간지주와 석불을 세웠다.

『삼국사기』에는 벌력천정(伐力川停)에 배치한 무관의 수가 나온다. 대대감(隊大監) 1명, 소감(少監) 2명을 두었고, 화척(火尺)은 벌력천정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삼천당주(三千幢主)는 벌력천정에 6명, 삼천감(三千監)을 편제하고 벌력천정에 6명을 두었다. 이 시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홍천 곳곳에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았다.

2) 조선시대 인구변화

홍천 현감으로 부임한 윤지는 학명루를 짓고 그 기(記)를 서거정에게 부탁한다. 서거정은 「학명루기」에 "홍천은 산과 물이 둘러 있고, 깊고 궁벽한 곳에 있으면서 잘 다스려졌다. 백성들의 풍속은 순박하고 소송은 적다"라고 적는다. 또한 "읍내의 인가들은 그윽하고 깨끗하며 산과 물이 맑고 기이하다. 백성들의 재물이 부요(富饒)하고 수목이 울창한 것에 기뻐했다"라고 덧붙였다.

1432년 전국 군현의 호구 수를 담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홍천현의 호수는 420호, 인구가 1,154명이며, 사이암장의 호수가 24이며, 인구가 5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세 징수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남자장정(男子壯丁)의 수만 기록하였고, 노인·아이·여성과 조세를 피하기 위해 깊은 산지로 숨어든 유민 등은 제외되어 통계치가 정확하지는 않다.

18세기 『여지도서』에는 호구와 인구가 각 리(里)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총인구가 9,394명이었다. 1829~1831년에 감영에서 각 읍지를 종합하여 성책한 26개 군현의 읍지인 『관동지』에는 면 단위로 호수와 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총인구는 10,566명이었다.

『여지도서』에 기록된 인구 수

행정구역 (홍천군)	리	호	인구(명)		
			남자	여자	계
현내면	진리	48	71	55	126
	희망동리	171	270	234	504
	태학리	37	56	43	99
	검유리	20	45	23	68
	동막리	40	95	79	174
	연봉리	19	35	24	59
	계	335	572	458	1,030
화촌면	결운리	53	85	72	157
	성산리	73	122	95	217
	야시대리	48	65	53	118
	삼정포리	107	203	175	378
	장평리	115	228	213	441
	계	396	703	608	1,311
말촌면	철은정리	105	212	145	357
	자음리	94	143	90	233
	계	199	355	235	590
내촌면	물걸리	82	140	91	231
	미야리	80	143	93	236
	화상대리	126	181	135	316
	계	288	464	319	783
서석면	수하리	65	133	105	238
	유진리	84	168	160	328
	생곡리	54	108	81	189
	계	203	409	346	755

행정구역 (홍천군)	리	호	인구(명)		
			남자	여자	계
영귀미면	노천리	148	211	180	391
	좌운리	112	220	162	382
	성전리	231	327	292	619
	계	491	758	634	1,392
금물산면	양덕원리	166	311	226	537
	삼마치리	82	151	125	276
	신대리	238	348	335	683
	계	486	810	686	1,496
감물악면	대곡리	201	331	281	612
	반곡리	142	214	145	359
	계	343	545	426	971
북방면	구만리	78	130	95	225
	노일리	116	211	151	362
	화계리	166	314	165	479
	계	360	655	411	1,066

『관동지』에 기록된 인구 수

행정구역 (홍천현)	리	민호	인구 수(명)		
			남자	여자	합계
현내면	진리(津里), 희망동리(希望洞里) 갈마곡리(葛麻谷里), 태학리(太學里) 검유리(檢柳里), 동막리(東幕里), 연봉리(蓮奉理) *신장대리	300 *310	702	561	1,263

화촌면	결운리(決雲里), 성산리(城山里) 야시대리(野是大里), 주음치리(酒飮峙里) 삼정포리(三汀浦里), 장평리(長坪里) 군업리(君業里), 풍천리(楓川里) 송정리(松亭里), 굴운리(屈雲里) *구성포리(풍천리 빠짐)	368 *383	898	588	1,486
두촌면	철정리(哲亭里), 자은리(自隱里) 천치리(泉峙里), 도덕리(道德里)	282 *291	430	370	800
내촌면	물걸리(物傑里), 화상대리(和尙垈里) 와야리(瓦野里), 서곡리(瑞谷里), 금곡리(琴谷里) 도관리(道寬里), 괘석리(掛石里) *답풍리	324 *310	758	562	1,320
서석면	수하리(水下里), 유진리(流津里) 검산리(劍山里), 생곡리(笙谷里), 청량리(淸凉里)	240 *241	535	310	845
영귀미면	좌운리(坐雲里), 노천리(魯川里), 속초리(束草里), 월운리(月雲里), 성전리(城前里), 덕치리(德峙里) *산수동리	443 *434	740	625	1,365
금물산면	양덕원리(陽德院里), 오안리(吾安里) 제곡리(諸谷里), 신대리(新垈里), 시동리(時洞里), 유치리(楡峙里), 삼마치리(三馬峙里) *월천동리	528 *533	727	648	1,375
감물악면	대곡리(垈谷里), 굴업리(屈業里), 모곡리(牟谷里), 중방대리(中方垈里), 반곡리(盤谷里), 팔봉리(八峰里) *길곡리, 동막리, 개야리, 두미리, 어유포리	372 *375	502	491	993
북방면	구만리(九萬里), 원소리(遠所里), 노일리(魯日里), 굴지리(屈只里), 소매곡리(踈梅谷里), 성동리(城洞里), 하화계리(下花溪里), 상화계리(上花溪里) *본궁리, 역전평리	364 *363	653	466	1,119
9개면	54개리 *71개리 3,252호(읍지에 기록된 수치)	3,221	5,945	4,621	10,566

*는 갑자 2월에 정리한 『홍천현읍지』.

18세기와 19세기 중반 인구분포를 보면, 『여지도서』에는 31개의 마을이 기록되었고, 『관동지』에는 『여지도서』에 나타난 지명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지명을 기록하여 54개의 마을이 나타나 있다. 『여지도서』에는 500인 이상 거주하는 마을도 4곳과 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인구분포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 반면, 『관동지』에는 면 단위만 집계되어 있어 리별 인구분포는 알 수 없다. 『여지도서』에 9,394명이던 인구는 『관동지』에는 10,566명으로 증가했으며, 호구 수도 3,101호에서 3,221호로 증가했다.

마을과 인구, 호구 수의 변동 원인은 자연적인 증가와 함께 19세기 중반 당시의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세기 중반 한국사회는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매관매직으로 사회가 혼탁해졌고, 관직을 얻은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하층 농민들의 유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하층 농민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광산촌으로 이주하여 광부가 되기도 했으며, 대도시나 개항한 포구의 날품팔이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부류도 나타났다. 이런 농민들의 유민화 현상은 홍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화전민들이 몰리면서 산간계곡에는 마을은 생겨나지만 화전을 2~3년 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없는 마을로 남게 되었다. 결국 마을은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났으며, 또 당시 인구조사의 능력이나 방법 등이 미비하여 인구나 호구수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동지』에 새로 표기된 마을은 현내면의 갈마곡리, 화촌면의 군업리(君業里)·풍천리(楓川里)·송정리(松亭里)·굴운리(屈雲里)·주음치리(酒飮峙里), 두촌면의 천치리(泉峙里)·도덕리(道德里), 내촌면의 금곡리(琴谷里)·서곡리(瑞谷里)·도관리(道寬里)·괘석리(掛石里), 서석면의 검산리(劍山里)·청량리(淸凉里) 영귀미면의 속초리(束草里)·월운리(月雲里)·덕치리(德峙里), 금물산면의 오안리(吾安里)·제곡리(諸谷里)·시동리(時洞里)·유치리(楡峙里), 감물악면의 굴업리(屈業里)·중방대리(中方垈里)·모곡리(牟谷里)·팔봉리(八峰里), 북방면의 원소리(遠所里)·굴지리(屈只里)·소매곡리(踈梅谷里)·성동리(城洞里)·상화계리·하화계리 등이다. 『홍천현읍지』에는 『관동지』보다 마을의 수가 12개 더 많아진다. 『1892년 지방지도』에는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구역이 기록된다.

3) 일제강점기의 인구변화

조선시대 말기인 1895년 홍천은 현에서 군이 되고, 1896년 13도제 실시로 강원도 홍

천군이 된다. 군내·화촌·두촌·내촌·서석·영귀미·금물산·감물악·북방의 9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고, 일제에 의해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군내면을 홍천면, 영귀미면를 동면, 금물산면을 남면, 감물악면을 서면, 화계면을 북방면으로 바꾸게 된다.

한편 1885년 국제통계협회에서 '1900년, 같은 날을 기준으로 공통으로 인구총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근대적 방식의 인구총조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부터 국세조사란 명칭으로 인구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고, 그 후 5년마다 조사하였다. 1944년에는 전시동원을 위한 임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방 이후 실질적인 인구총조사는 1949년 5월 1일 제1회 인구총조사가 실시되었다.

1925~1944년 사이의 인구통계를 보면 매년 인구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35년의 인구총조사에서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이 추진한 의료 및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홍천군은 자연적 인구증가와 더불어 근대적 교통수단 등장, 농경지개척, 개간지역 확대, 광산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 등 사회적 변화와 이동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두촌면의 인구 증가폭이 컸는데, 광산(금광과 철광) 개발과 유민들의 화전 유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홍천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1925~1944년까지 인구 현황(단위: 명)

	1925	1930	1935	1940	1944
총인구	73,541	77,245	90,172	93,418	95,737
남자	38,313	39,876	46,752	47,935	48,299
여자	35,228	37,369	43,420	45,483	47,438

자료: 국가통계포털.

1925년 인구총조사에서 홍천군의 인구는 73,541명이다. 『관동지』에 기록된 10,566명에서 62,000여 명 증가한 것이다.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 증가 요인은 인구조사 방법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유민들의 쏠림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홍천의 두촌·내촌·서석면 등에서 금광개발과 산판·화전 등이 활발해지면서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두촌면의 소림광산과 대명광산, 내촌면의 문현광산, 물걸리금광은 자가발전을 이용해 전깃불을 밝히고 금방아를 돌렸다고 한다. 또 서석·화촌·내촌·동

면·남면 지역의 개간사업으로 뜰이 형성되었고, 보로써 물을 끌어오면서 농업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본다.

4)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의 홍천 인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국토가 분단되면서 38선 이남지역인 인제군의 일부가 홍천군으로 편입되어 홍천군이 12개 면을 관할하게 된다. 1949년 인구는 137,106명이다. 이 중 기린면·신남면·내면의 인구 33,887명을 제외하고도 홍천군의 인구는 103,219명으로 증가한다.

1949년 홍천 인구(단위: 명)

행정구역		인구 수
강원도		1,138,785
홍천군	계	137,106
	홍천면	13,500
	화촌면	12,154
	두촌면	10,989
	내촌면	11,961
	서석면	12,656
	동면	11,400
	남면	13,224
	서면	9,347
	북방면	8,392
	기린면	13,032
	내면	12,011
	신남면	8,440

자료: 국가통계포털.

한국전쟁 이후 1955년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 홍천의 인구는 118,929명이다. 기린면·신남면은 인제군으로 다시 편입되었고, 내면은 그대로 홍천군으로 편입되어 현재와 같은 10개 면이 되었다. 인구 수에서는 큰 증가율을 보이지만 내면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증가는 미미했다. 한편 북방면의 인구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특히 20대의 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홍천지역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북방면 군부대를 중심으로 주소지를 옮겼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된다.

1955년 인구총조사(단위: 명)

	남자	여자	계
홍천면	8,474	7,085	15,559
화촌면	7,381	5,521	12,902
두촌면	4,002	4,024	8,026
내촌면	4,935	5,208	10,143
서석면	5,716	5,831	11,547
동면	5,147	5,426	10,573
남면	6,430	6,252	12,682
서면	3,914	4,088	8,002
북방면	14,897	3,955	18,852
내면	5,453	5,190	10,643
총계	66,349	52,580	118,929

자료: 국가통계포털.

5) 1960년대 이후 화전정리와 인구변화

19세기 중반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로 하층농민들의 유민화가 촉진되었다. 이 시기 유민들의 이동은 홍천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홍천으로 이동한 유민들은 광부나 화전민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촌면은 대명광산, 소림광산 등 금광의 광부들이 마을을 이룰 정도로 유민들이 찾아들었고, 화전민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화전민에 대한 기록은 동아

일보 기사(1933년 4월 14일자)에 "강원도에만 순 화전민이 53,400인"이라고 기록이 있다. 홍천군은 "662호 수에 화전민 3,320명, 면적이 25,456단(段)"이라고 했다.

휴전이 되면서 홍천에는 유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주로 산판꾼들과 화전민들이다. 산판은 홍천 전역에서 벌어졌지만 내면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안 행해졌다. 명개리에는 산판꾼들로 마을을 이룰 만큼 수가 많았고, 지역에 새로운 번지가 생기기도 했다. 한편 인제군의 내면이 홍천군으로 이관되면서 홍천의 화전민 수가 증가하였다. 1970년대 내면에는 화전정리 사업으로 일명 '독가촌' 마을이 형성된다. 독가촌은 정부에서 지은 화전민 이주 주택이다. 공동주택 형식으로 시멘트블록으로 지은 집인데, 한 채에 한 가구 혹은 두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었다. 두 가구용 주택에는 화목용 아궁이와 부엌이 설치되었고, 방은 두 개였다. 화전민들은 깊은 산골짜기에 외따로 떨어진 곳에 귀틀집이나 초가를 지었고, 두 칸 정도의 방에서 온 식구들이 살아야 했으며, 지붕은 주로 굴피나 너와를 얹었다.

정부가 화전정리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60년이고, 강원도에서 시행된 것은 1966년이었으며, 내면지역에서 화전정리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66년이다. 당시 화전정리 사업의 경사도 기준은 20°였다. 20°가 넘으면 나무를 심어 경작을 금하고, 20°가 넘지 않으면 경작을 허락하였다.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은 화전정리 사업의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화전민들을 평지로 이주시키게 된다. 이때 화전민 이주 정착 주택 보급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독가촌 마을이다. 골짜기가 많거나 깊으면 인근 마을 가까이에 공동주택을 지어 보급했다.

내면 월둔 골짜기에서 화전을 일구고 살던 사람들은 광원리 작업장 독가촌에 정착하고, 가덕 뒷버덩과 골말에서 살던 화전민들은 가덕 버덩말에 독가촌을 짓고 자리를 잡았다. 큰절에에 살던 화전민들은 광원리 큰절에 독가촌으로 이주하였고, 명지골과 조개동에 살던 사람들은 명개리 독가촌에 정착했다. 자운리 운두동 독가촌, 창촌리 작은하니(소한동)독가촌과 양수교독가촌, 방내리 성내동독가촌, 자운리 괸돌(원자)독가촌 등 내면 곳곳에 독가촌을 지었고, 지금까지 개보수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자운리 경천독가촌은 화전민을 모집해 화전을 일구어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홍천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형성된 마을이다. 1965~1967년까지 처음에는 30동, 그 후에는 20동, 6동, 4동, 20동 등 화전민이 모집되는 대로 들여보냈다. 당시 어용골과 큰골에 모두 80동의 독가촌이 지어졌으며 학교도 들어섰다. 그러나 처음 들어온

사람들 중 일이 고되고 힘들어 많이 마을을 떠나갔고, 정착한 사람들도 개축하여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4동 지역에 3채가 남아 있다.

광원리의 '작업장'이라는 마을은 원래 '월둔 어귀 둔지'였다. 일제강점기에 목재를 제재하여 실어내기 위하여 대단위 제재소를 짓고 작업을 하였다. 이때 붙여진 마을 이름이 '작업장'이다. 작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로 벌목꾼이나 목도꾼이었다. 산에서 목재를 벌목하고 목도꾼들이 지거나 실어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산판꾼들이 많았다고 한다. 작업장은 1970년 무렵까지 운영되었다. 당시 광원에 살았던 방모(1928년생, 내면 거주) 씨는 '작업장은 1931년(소화 12)년 경에 강릉영림소에서 제재소를 지었으며, 한국전쟁 이후까지 운영'했는데, '주로 피나무를 벌목'했다고 한다. '광복 후에는 충남제재소가 들어오고, 후에 동아연필공장과 문화연필공장이 들어오면서 광원리 샘골, 명개리 청도, 율전리 문암 등 목재 운반이 수월한 곳에서 제재소를 가동하였다'고 한다.

당시 작업장이 들어선 인근 마을에는 원당분교가 설립되었다. 전쟁 후 제재소가 들어서는 곳에는 학생 수가 많아 학교 교실을 늘리거나 분교 등이 설립되었는데, 화전과 벌목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내면지역에만 경천·원자·소한·생둔·성내·광문 분교장이 설립되었다. 분교가 본교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화전정리 사업이 시작될 무렵인 1966년 홍천 인구는 132,065명에 이르지만 화전정리 사업이 종료하는 1980년에는 101,006명으로 감소한다.

1925~1980년대까지 홍천 인구(단위: 명)

연도	25	30	35	40	49	55	60	66	70	75	80
총	73,541	77,245	90,172	93,418	137,090	118,929	122,789	132,065	121,975	120,596	101,006
남	38,313	39,876	46,752	47,935	70,176	66,349	62,867	67,654	61,182	61877	51,850
여	35,228	37,369	43,420	45,483	66,914	52,580	59,922	64,411	60,739	58,719	49,156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가 증가할 때는 장마당도 곳곳에 형성되었다. 언제부터 장이 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국문헌비고』에는 '홍천군 지역의 장으로는 홍천 읍내장(4·9), 천감장(3·8), 양덕원장(5·10)이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830년 편찬된 서유구의 『임원십육지(林園

十六志)』에는 『동국문헌비고』의 장을 인용하면서 '양덕원장이 사라지고, 현내장(縣內場)은 4일과 9일, 천감장(泉甘場)은 3일과 8일에 열리며, 미곡·면포·마포·명주·어염·송아지가 풍부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1913년 '춘천헌병대본부 강원도 상황경개'에는 홍천장, 군두리장, 역내리장이 기록되어 있다. 1940년에는 성산장, 자은장, 도관장, 풍암장, 양덕원장, 모곡장이 문을 열었다. 1960년 「국토구역총람」에는 강원도에 92개의 장이 있는데, 홍천에 홍천장·성산장·자은장·도관장·동창장·풍암장·양덕원장·시동장·모곡장·창촌장·광원장·방내장·노천장·좌운장·속초장 등 15개의 장이 섰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두촌면 가리산 자락의 화전과 괘석리, 내촌면 광암리, 서석면 생곡리에는 화전민들이 수확한 곡물을 사기 위하여 임시로 장이 설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1975년에는 14개의 장이 섰지만, 인구감소와 함께 1989년에는 9개, 1993년에는 5개로 줄었다. 2000년 들어서는 홍천장과 서석장만이 명맥을 이어왔는데, 최근 양덕원장과 내면장이 정기적으로 장마당을 열고 있고, 내촌장은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시장은 홍천읍·서석면·남면 양덕원·서면 반곡·내면 창촌 등에서 열렸고, 홍천 곳곳의 장마당 한쪽에 소규모 우시장이 섰다.

홍천장은 갈마곡리 큰골어귀(현재 강변아파트 일대)에 섰다가, 1977년에 갈마곡리 소옥개(지금의 주공아파트 일대)로 옮겼다. 2005년부터는 북방 하화계리로 이전하여 장(홍천가축시장)이 서고 있다. 서석면의 장은 한국전쟁 전에는 현 천주교 앞 광덕철물 뒤 위치하다가, 전쟁 후 서석시장이 새로 형성되면서 현 축협사무소 위치로 옮겼다. 우시장은 풍암 5일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각 마을의 주막거리에서 1차 거래가 이뤄진 후 우시장에 모여서 다시금 거래되었다. 장날마다 보통 100여 두 이상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육농가가 전문화되고, 축협이 한우거래를 관리하면서 1980년 중반 홍천우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서석우시장은 사라졌다. 두촌 자은우시장, 남면 양덕원우시장, 서면 반곡우시장, 내면 창촌우시장도 비슷한 시기에 폐쇄되었다.

홍천의 장날

홍천장날	양덕원장날	서석장날	내면장날	홍천 가축시장
1일, 6일	2일, 7일	4일, 9일	5일, 10일	1일, 6일

홍천의 인구는 1966년 132,065명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90,133명으로 감소하다가 1989년 8만 명 선이 무너지고, 1990~2008년까지 7만 명 선을 유지하였다.

1992~1999년 인구(단위: 명)

년도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인구	74,939	75,251	75,105	75,493	75,924	76,891	78,047	79,408

자료: 국가통계포털.

이 시기의 인구감소 현상의 원인은 이촌향도를 꼽을 수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초반까지 홍천에는 화전, 금광, 벌목 등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화전정리와 산림녹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홍천을 떠나고 홍천인구는 급감한다. 이들은 대부분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대도시와 신흥 공업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6) 2000년대 이후 홍천 인구

홍천 인구는 2000년 74,461명, 2002년 72,514명, 2003년 71,35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2009년에는 69,606명으로 6만 명 선에 머문다. 그러다가 2013년 7만 명 선으로 올라간다. 2008년 서울-춘천 고속도로공사가 착공하였고, 2009년 10월 30일 서울-동홍천 구간이 개통되었지만 홍천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홍천이 수도권에서 한 시간대 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홍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들어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가 2013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홍천은 201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홍천군의 20~39세까지의 인구는 홍천군 전체인구의 5.2%에 불과하다. 한편 서석면과 남면은 극심한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2017년까지 인구추이 및 65세 인구(단위: 명)

연도	2017	2016	2015	2014	2013	2009	2003	2000
총인구	70,340	70,076	70,336	70,451	70,638	69,606	71,351	74,461
65세인구	15,899	14,933	14,739	14,400	14,159	12,825	10,355	8,884
65세비율	22.6%	21.3%	20.9%	20.4%	20.0%	17.4%	14.5%	11.9%

자료: 국가통계포털.

20세~39세까지 인구(단위: 명)

	홍천군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남	2,070	1,158	99	58	54	127	84	237	84	100	69
여	1,626	1,003	83	39	36	78	78	120	51	80	58
계	3,696	2,161	182	97	90	205	162	357	135	180	127

자료: 국가통계포털.

홍천군으로 유입된 인구는 2010년에는 210명이 줄었으나 2013년 1,097명이 증가하였다. 2013년 순이동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기점으로 홍천군의 인구는 차츰 증가세를 기록한다. 또 2010년 순이동이 음의 값을 나타냈지만 시도 간 이동은 양의 값을 나타낸다. 즉 다른 시도에서 홍천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도 간 이동지수(단위: 명)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2017	7,357	6,820	537	4,240	3,522
2016	7,196	7,173	23	4,050	3,585
2015	6,776	6,759	17	3,927	3,622
2014	7,094	7,091	3	4,062	3,653
2013	8,150	7,053	1,097	4,525	3,383
2012	7,380	7,370	10	3,958	3,712
2011	7,343	7,205	138	4,134	3,659
2010	7,527	7,737	-210	4,109	3,789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년 7월 18일 전국 '최초의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었다. 그 영향으로 2017년 순이동은 537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시행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산업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의 교통 편리성과 청정 자연환경으로 전원생활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특구지원권, 전원생활권, 산림휴양권, 농업경원권 등 4개 특구권역을 설정하여 조성할 계획을 추진했으며, 2016년에 준공된 홍천귀농센터는 예비 귀농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귀농교육을 받는 One-Stop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음 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추진을 하면서 홍천으로 귀농한 가구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30대 이하의 귀농인의 경우에는 동반가구원수가 많은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동반가구원수가 적다. 30대 이하의 경우 가족이 함께 귀농한 가구가 많은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가구원 중 귀농을 원하는 사람만 귀농한 것으로 추정되며, 40대-50대 귀농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홍천군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속적인 영농 및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창업자금과 주택자금지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 정주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교육, 홍보, 박람회 참가 및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귀농인 정착금지원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수리, 영농 정착 지원을 하고,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지역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기정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2016년 귀농가구원 수(단위: 명)

귀농 현황	2016				2015				2014			
		30대~	40~50대	60대+		30대~	40~50대	60대+		30대~	40~50대	60대+
귀농가구원 수	208	23	122	63	199	33	103	63	157	26	81	50
귀농인 수	150	5	97	48	138	7	85	46	108	8	62	38
동반가구원 수	58	18	25	15	61	26	18	17	49	18	19	12

자료: 국가통계포털.

(1) 2000년대 외국인 등록인구

홍천군의 외국인 등록자는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집계에서는 55명이었고, 여성 등록인구가 41명으로 남성 14명보다 많았다. 외국인 여성 등록인구가 2013년까지 남성보다 많았지만 2014년부터 남성이 더 많아진다. 외국인 여성 등록인구의 대부분은 결혼 이민자들이었지만 남자들은 농업 일손 부족으로 들어온 농업 취업자이다. 2017년 외국인 등록인수는 897명(남 525, 여 354)이다.

외국인 현황(단위: 명)

년	남	여	합계
2000	14	41	55
2005	47	73	120
2010	162	209	371
2013	198	214	412
2014	287	233	520
2015	340	248	588
2016	425	298	723
2017	525	354	879

자료: 국가통계포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에 개소한 홍천군 국가통계포털은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된 이민자 수는 총 477명이다. 그중 베트남의 이민자 수가 156명으로 가장 많으며, 홍천읍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누락되거나 등록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많아 실제로 홍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현황(단위: 명)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팔	태국	키르기스스탄	미국	일본	온두라스	몽골	라오스
477	130	156	63	47	6	3	4	17	1	4	40	1	4	1

면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명	194	28	16	22	36	27	60	22	36	36

자료: 홍천군 다문화가족센터.

(2) 현재 인구 현황

2018년 현재 홍천군의 읍·면별 총인구는 70,066명(남 35,718, 여 34,348)이다. 최다 인구 거주지역은 홍천읍으로 전체인구의 50.98%인 35,678명이 살고 있고, 최소 인구 거주지역은 내촌면으로 전체인구의 2.74%인 2,434명이 살고 있다. 성비를 보면 홍천군 전체는 103.99이다. 두촌면은 99.51로 여자가 많으며, 서면은 112.51로 남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홍천군 인구(2018. 3 현재)(단위: 명)

행정기관	인구수			구성비			성비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계	70,066	35,718	34,348	100.00	50.98	49.02	103.99
홍천읍	35,678	17,902	17,776	50.92	25.55	25.37	100.71
화촌면	4,660	2,416	2,244	6.65	3.45	3.20	107.66
두촌면	2,442	1,218	1,224	3.49	1.74	1.75	99.51
내촌면	2,434	1,274	1,160	3.47	1.82	1.66	109.83
서석면	3,863	1,956	1,907	5.51	2.79	2.72	102.57
동면	3,790	1,923	1,867	5.41	2.74	2.66	103.00
남면	6,212	3,254	2,958	8.87	4.64	4.22	110.01
서면	3,806	2,015	1,791	5.43	2.88	2.56	112.51
북방면	3,883	2,022	1,861	5.54	2.89	2.66	108.65
내면	3,298	1,738	1,560	4.71	2.48	2.23	111.41

자료: 홍천군청.

홍천군의 인구이동, 인구증가, 인구감소 요인 등은 시대상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산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정주여건이 마땅치 않으며, 이촌향도로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중반에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된 산림녹화 사업과 화전정리 사업으로 홍천을 떠나는 유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경제적 일자리를 찾아 산업현장이나 도시로 이동하였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겪은 현상으로 홍천으로 유입된 유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면서 인구가 급속히 감소했다.

또한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빨라졌는데, 출산율 저하와 사망률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1998년 이후 홍천군은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00년 들어 고령사회를 지나 2015년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취학아동이 없어 학교가 통폐합을 하는 등 마을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2000년 들어 다문화가정이 대폭 증가하였다. 홍천군의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는 극심한 남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인구등록이 점차 증가하고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배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겪을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강원도지』.
『고려사』.
『대동지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조선지지자료』.
『홍천현읍지』.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92.
『홍천군지』, 홍천군, 1989.









제2편

지명유래

제1장 홍천 군현 명칭유래

제2장 산천의 지명유래

제3장 읍면별 지명유래

제1장

홍천 군현 명칭유래

1. 지명유래 개념

땅이름 지명 속에는 생성 당시의 명명 대상이 된 장소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함께 명명 집단의 자연관과 언어 형태가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지명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문화가 접합된 복합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지명의 기원에 대하여 '지명유래', '지명어원', '지명전설', '지명설화' 등의 여러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지명유래란 명명의 근거가 되는 대상의 역사적 사건, 혹은 인물에 얽힌 각종 내용이 지도나 사료에 담겨 있어, 구전이나 민담 혹은 전설로 전해지는 지명설화나 전설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된 것을 뜻한다. 지명의 생성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지명유래'라고 한다면 '지명어원'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지명어가 갖는 본래 의미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명어원은 반드시 지명유래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명어는 그 유래의 일부를 취하거나 또는 그것과 연관이 없는 전혀 다른 말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하면 '지명설화' 내지 '지명전설'은 좀 더 추상적인 허구에 가까울 수 있다. 지명전설은 지명설화의 한 유형으로 지명의 지리적 무대를 바탕으로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등에 대해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설화적 요소가 가미된 유래담을 지칭한다. 지명이 명명된 이후의 다음 세대는 언어유산의 재해석을 통해 장소의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윤리적인 내용, 때로는 풍수지리적인 해석으로 자기가 사는 장소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집단에 의해 해석된 지명은 유연성(有緣性)을 지니면서 파생지명을 생성하기도 한다.

1) 우리나라 지명의 변화

지명은 변화한다. 지리적 환경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뀌면 국가의 통치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명이 생겨난다. 음운 변화를 통해 언어의 변화에 순응하기도 한다. 변화의 과정에서 이전의 지명은 다른 형태로 변화, 잔류, 소멸된다.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대중 사이에서 장소 소통의 도구로 이용되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고지명의 흔적은 과거 역사지리적 내용과 문화집단의 흔적으로 과거를 복원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자연환경을 무대로 왕권 교체도 동일한 공간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명의 변화 양태는 매우 복잡하다. 삼국·고려·조선시대의 지명과 일본식 지명, 그리고 현재의 지명, 때로는 외래지명이 섞여 있다. 한글지명과 한자지명이 동시에 병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지명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행정자치구역의 신설로 새로운 지명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간척사업으로 섬 지명은 소멸되기도 하였다. 또한, 하천의 유로 변화나 퇴적작용으로 새로운 지명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명 변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명을 문자로 표현하는 수단은 대부분 한자(漢字)였으며, 지명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된 이후 지명 변화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20세기 일제강점기에 모든 지명이 일본식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이전 고유 지명의 형태는 많이 변질, 상실되어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지명의 변화

<table>
<tr><th>←삼국~고려~조선시대→</th><th>←일제강점기→</th><th>←현대→</th><th></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현대 생성 지명
혹은 지명의 부활</td></tr>
<tr><td rowspan="2">새 지명 명명</td><td>원형 사용 지명
변형 사용 지명</td></tr>
<tr><td></td><td>소멸</td></tr>
<tr><td rowspan="3">우리말 고유 지명</td><td rowspan="3">한자화</td><td rowspan="3">훈차
음차
변형</td><td>원형 사용 지명</td></tr>
<tr><td>변형 사용 지명</td></tr>
<tr><td>소멸</td></tr>
<tr><td rowspan="3">한자 지명</td><td colspan="2">원형 유지</td><td>원형 사용 지명</td></tr>
<tr><td colspan="2">형태 변화</td><td>변형 사용 지명</td></tr>
<tr><td colspan="3">소멸(일부 재생성)</td></tr>
</table>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중 「우리나라 지명의 변화」(김기혁, 2008)에서 표 인용.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63712&categoryId=44177&cid=43740).

2) 삼국시대 지명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명의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757년(신라 경덕왕 16)이다. 이전의 삼국시대의 고을 지명은 우리말에 한자를 빌려서 이두(吏讀)나 향가식(鄕歌式) 문자로 땅이름이 표현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임피현본백제시군(臨陂縣本百濟屎郡)', '청풍현본고구려사열이현(淸風縣本高句麗沙熱伊縣)'의 기록에서 나타나듯이 '시(屎)'는 피(소변의 뜻)에서 '임피(臨陂)'로, '沙熱伊(사녈리)'는 '서늘하다'는 의미로서 '청풍(淸風)'으로 바꾼 것이다.

홍천(洪川)의 고구려 지명인 벌력천현(伐力川縣)의 '伐力'-'綠'은 중세 한국어의 프르다(綠), 伐力 pərəkə 綠 噴 파라ᄒᆞ-(綠), 프르- 파랗-, 푸르- 伐 벌(野) 벌, 벌판과 횡성의 어사매(於斯買)도 於斯 əsi 橫 엇-(橫) 엇-어사매 橫川-엇매 등과 비교하여 보면,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강원도에 남아 있는 오근내(烏根乃, 춘천), 평원군(平原郡, 원주), 하서

량 또는 하슬라(河西良 혹은 下瑟羅, 강릉), 벌력천현(伐力川縣, 홍천), 횡천현(橫川縣, 於斯買, 횡성), 달홀(達忽, 고성) 등의 지명과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당시 강원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구려 말 가운데 '伐力(綠)푸르-', '於斯(橫)엇', '首(新)새', '首(牛)쇼', '波衣(巖)바희', '功木(熊)곰', '斤戶(文)글', '忽(谷, 洞)골', '加戶(犁)가래', '今勿(黑)검-', '沙熱伊(淸, 凉)서늘-', '冬非(圓)등글-', 등의 기초어휘가 중세 한국어와 일치한다는 것은 고구려 말과 신라 말이 동일한 언어였다는 증거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지명은 대부분 한자식(漢字式) 지명(地名)으로 사용되었다.

3) 고려시대 지명의 변화

고려시대에 들어 군현제도를 바탕에 두고 중앙집권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지방을 통치하면서 전국을 오도(五道)와 양계(兩界)로 행정구역을 재편하였다. 그 밑에 경(京), 도호부(都護府), 목(牧), 군(郡), 현(縣)과 특수 행정구역인 향(鄕), 소(所), 부곡(部曲), 장(莊), 처(處) 등을 두었다. 홍천현(洪川縣)에도 임내(任內)[1]에 특수행정구역으로 사이암장(寺伊巖莊)을 현의 동쪽 110리에 두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사이암장(寺伊巖莊)이 이미 고적(古跡)이 되어 있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및 특수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서 새로운 지명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4) 조선시대 지명의 변화

조선시대에 들어 지명은 다시 한 번 대폭 변화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는 1413년(태종 13)에 확립된 팔도제(八道制)와 군현제(郡縣制)가 바탕이 되었다. 각 군현은 등급에 따라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목(牧), 도호부(都護府), 군(郡), 현(縣)으로 구성되었다. 한양·개경·평양 등에는 부방제(部坊制), 각 군현에는 면리제(面里制)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명의 이름소는 과거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형태소의 경우 대폭변동이 이루어졌다. 일부 지명들은 충효(忠孝)를 바탕으로 한 유교(儒敎)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명이 바뀌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되어 오던 조선시대의 행정지명은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1895년 5월 팔도제를 폐지하고 지방제도 개정과 지방관 관제를 공포, 시행하면서 크게 변하였다. 8도의 각 감영(監營) 및 안무영(按撫營, 함경북도에 한정)과 개성·강화·광주·수원 각 유수부와 지방관을 전부 폐지하고 전국을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종래 부·목·군·현 등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336개의 군으로 통일하였다. 한성부와 23개의 부에는 관찰사를, 군에는 군수를 두어 통할하게 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동시에 수도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행정구역을 다시 13도(道) 7부(府) 1목(牧) 331군(郡)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서 지명은 크게 바뀌었다. 당시 실시되었던 13도제의 행정구역은 1945년 이후 지명의 골격이 되어왔다.

조선시대에는 한글지명과 한자지명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한자지명은 지도나 지리지 혹은 문서에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글 → 한자화 지명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음차나 훈차를 통해 지명이 생성되었다.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순한글 고유지명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일제강점기 지명의 변화

20세기 초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은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글지명이 일본식 한자지명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지명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전 지명의 한자를 바꾼 사례도 있었다.

1910년 8월 일제의 강점으로 지방행정구역과 조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1914년 4월 1일자로 일제는 한말 이래의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통폐합 정리하였다. 1914년 3월부터는 부·군의 통폐합을, 또 동년 4월 1일부터는 면의 폐합을 단행하였다. 이 조정은 하부의 면과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였다.

현재 각 지방 행정구역 지명은 이때 비롯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기준은, 부(府)의 경우 일본인 거류민단 및 일본인 거류지의 지역을 포함하였다. 군(郡)의 경우는 면적 약 40평방 리, 호수(戶數) 약 1만 호 정도로, 면(面)의 경우는 대체로 호수 800호, 면적 약 4평방 리를 표준으로 구획하였다. 그 결과 부는 지역을 축소시켜 12부가 되고, 군은 97개 군을 감축해서 220개 군으로 하고, 면은 1,800개 면을 감축하여 총 2,521

면이 되었다.

1915년 5월에 도제(島制)가 창설되어 제주도와 울릉도에 도사(島司)를 두었다. 도는 행정과 경찰이 분리된 군행정과는 달리 일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220개에서 218개로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조선총독의 지휘 아래 지방의 도·부·군을 거쳐 면·동·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지배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정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서 특히 행정지명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형태소에 있어서 조선시대 목(牧)·부(府)·군(郡)·현(縣)으로 불리던 고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시(市)나 군(郡)으로 바뀌었다. 서울의 경우 현재 동 단위였던 방(坊)은 정(町)으로 바뀌었고 가(街) 등의 새로운 형태소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2. 홍천 군현의 명칭유래

삼국시대에는 본래 고구려(高句麗) 벌력천현(伐力川縣)[2] 땅이었다. 현재의 홍천군 일대는 고구려 때 옛 지명으로 벌력천현이라 불렸다. 신라 때에는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고 군사시설인 벌력천정(伐力川停)을 설치하였다. 757년(신라 경덕왕 16) 12월에 녹효현(綠驍縣)[3]으로 고치고 삭주도독부(朔州都督府: 春川)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홍천(洪川)이라 처음 개칭하였고, 1018년(현종 9)에 춘주(春州, 춘천)로 병합[4] 속현(屬縣)으로 되었다가 1143년(인종 21)에는 감무(監務)를 두면서 독립하였다. 별호(別號)로 화산현(花山縣)으로도 불렸다.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에 왕권강화(王權强化)와 수령직(守令職) 강화책의 일환으로 비로소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승격(昇格)시키면서부터 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홍천현은 중앙에서 왕권(王權)을 대행하는 고을 수령(守令)이 파견된, 즉 독립된 주현(主縣)으로 조선시대 동안 계속 이어 사용되어 왔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당시 홍천군은 9개 면 59개 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현내면(縣內面, 홍천읍)·화촌면(化村面, 화촌면)·동내촌면(東奈村面, 내촌면)·동서석면(東瑞石面, 서석면)·영귀미면(永歸美面, 동면)·금물산면(今勿山面, 남면)·서감물악면(西甘勿岳面, 서면)·북방면(北方面, 북방면)·동두촌면(東斗村面, 두촌면)이 당시

의 관할 면이었다. 이 가운데 동내촌면·동서석면·서감물악면·동두촌면에 보이는 접두어 '동'과 '서'는 읍치로부터 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나 『동여도(東輿圖)』 등에서는 이 접두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호구총수(戶口總數)』 편찬 당시의 9개 면 체제는 시기에 따라 면단위 이름 명칭이 다소 달라질 뿐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23부제를 시행하면서 춘천부(春川府) 홍천군이 되었으며, 1896년 8월 4일 전국 13도제가 시행되면서 강원도 홍천군이 되었다. 1914년부터 실시한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통폐합과 같은 행정상의 커다란 변혁 때마다 순우리말 땅이름은 차츰 소멸(消滅)되었다. 1914~1916년간의 일제에 의한 지명변경은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폐지, 통합할 때 우리 고유의 지명을 쉽고 간편한 일본식 글자로 바꾸었으며 그 결과 당초와는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 역사·문화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땅이름에 얽힌 이 시대의 고유한 우리말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

산천의 지명유래

1. 주요 산지(山·峰) 지명유래

강원도 중서부에 위치한 홍천의 주요 산지는 한강기맥(漢江岐脈)으로 백두대간의 오대산 두로봉에서 분기하여 인간의 때가 거의 묻지 않은 자연상태의 큰 심산을 두루 거친 뒤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줄기를 가르며 양평 양수리의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약 166km의 산줄기다. 산경표상 1대간 9정맥(1대간 1정간 13정맥)에 속하지는 않지만 웅장한 산세와 심산유곡의 모습은 정맥의 반열에 올려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당당한 산줄기다. 백두대간에서 비켜나 있는 오대산 비로봉 줄기를 포함, 기맥의 최고봉 계방산으로 솟구치면서 고산준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이어간다.

대체로 서진하는 형태의 산줄기가 되며 강원도 평창과 홍천의 경계를 이어가다 횡성을 지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도계를 잠시 이룬다. 그리고 통골고개에서 강원도와 구분, 양평의 용문산 줄기를 달리다가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그 화려한 맥을 마감한다. 심산유곡의 험준한 준령을 간직한 탓에 날머리지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한강기맥 마루금이며, 마루금을 이루는 주요 산들이 소재하고 있다.

태백산맥 서사면의 일부를 차지해 기복이 심하고, 동부와 북부에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연이어 있어 산지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한다. 군의 해발고도는 약 150m에서 1,000m 내외를 이루고 있으며, 내면지역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내륙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평야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나, 각 수계(水系)를 따라 홍천분지를 비롯하여 소규모의 하안단구와 산록완사면이 형성되어 있어 중요한 생활터전이 되고 있다.

홍천군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간문화(山間文化, 山村文化)와 벌력천, 녹효강, 화양강, 전천(前

川), 남천(南川) 등으로 불려왔던 150km(375리)의 홍천강을 중심으로 강촌문화(江村文化)가 발달되어 함께 어우러진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고 큰 강(江)과 산(山)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田園都市)로서 건강플러스를 지향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홍천군 관내에는 홍천군 관아(官衙)의 진산(鎭山)인 석화산(石花山, 224.5m)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가리산(加里山, 1,051m)·계방산(桂芳山, 1,577m)·공작산(孔雀山, 887.4m)·오대산(五臺山, 1,563m)·팔봉산(八峰山, 327m) 등과 약수산(藥水山, 1,306m)·가칠봉(柯七峰, 1,240m)·가마봉(可馬峰, 1,191m)·응복산(鷹伏山, 1,360m)·구룡덕봉(九龍德峰, 1,388m), 동쪽에는 상왕봉(象王峰, 1,493m)·두로봉(頭老峰, 1,422m), 남쪽에는 운무산(雲霧山, 980m)·수리봉(960m)·발교산(髮校山, 998m)·오음산(五音山, 930m), 서쪽에 장락산(長樂山, 627m)·나산(羅山, 628m) 등이 솟아 있다. 이 밖에도 응봉산(鷹峰山, 868m)·매화산(梅花山, 752m) 등 많은 산들이 연이어 있다.

동북부에는 설악산맥(雪嶽山脈)이, 동남부에는 오대산맥이 뻗어내려 해발 1,000m 이상의 전형적인 산지지형을 이룬다. 구룡덕봉(九龍德峰, 1,388m)·약수산(藥水山, 1,306m)·응복산(膺伏山, 1,360m)·두로봉(頭老峰, 1,422m)·오대산(五臺山, 1,563m)·계방산(1,577m) 등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중부에 아미산(峨媚山, 961m)·백우산(白羽山, 895m), 서부에 매화산(梅花山, 752m)·금학산(金鶴山, 655m)·종자산(種子山, 581m) 등이 솟아 있고, 서쪽 끝에는 장락산맥(長樂山脈)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경기도 가평군과 자연경계를 이룬다.

1) 홍천읍

『여지도서』에 홍천읍은 현내면(縣內面) 지역으로 진리(津里)·희망동리(希望洞里)·갈마곡리(葛麻谷里)·태학리(太學里)·검유리(檢柳里)·동막리(東幕里)·연봉리(蓮峰里) 등 7개 지역의 위치와 호구가 기록되어 있다. 읍치(邑治, 邑所)는 현재 홍천읍 희망리 부근이다. 홍천읍내 주요 산지로는 진산(鎭山)인 석화산(石花山, 石華山, 바우-설)을 비롯하여 야자산(也字山), 두개비산[섬산(蟾山)]과 매화산(봉화산), 오룡산(五龍山), 오성산(五星山), 남산(南山)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여지도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천현(洪川縣) 산천조(山川條)에는 남천(南川)으로 범파정(泛波亭) 앞을 흘러 춘천부 소양강 하류

관천강(冠川江)과 합수되어 소양강으로 유입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1) 석화산(石花山, 石華山, 바우설)

홍천읍 북쪽, 현재 홍천군청·향교·홍천중고교가 자리 잡고 있는 석화로(희망리) 뒷산에 소재한 홍천읍치(관아, 도읍지)의 진산(鎭山, 主山)[1]으로 신장대리(新場垈里)와 희망리(希望里)를 동서로 연이어 홍천읍내를 굽어보는 산이 석화산이다. 온 산이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다. 봄이면 이 바위산에 홍천군의 군화(郡花)인 진달래가 장관을 이루어 석화산이라 불리고 있는데, 봄의 진달래 못지않게 가을 단풍도 석화산의 절경을 더한다. 옛날에 신선(神仙)이 와서 놀았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일명 바우설이라고도 불린다.

바우설 명칭에서 바우는 '바위'의 방언으로 석산(石山) 바우산(巖山)이라는 뜻이고, 바우설[2]은 '바위설' 또는 '바우설'과 '바우셜'로 바위와 눈(설, 雪)을 합한 소리와 의미의 한글과 한자식의 합칭한 이두식 표현으로 옮긴 지명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명을 '바위눈'·'바우눈' 또는 '바위눈뫼'·'바우눈뫼' 등과 '석설산(石雪山)' 또는 암설산(巖雪山) 등으로 불려야 하지만 겨울에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쌓여 온 산의 바위가 모두 눈같이 희다고 하여 '바우설'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바우설이란 석화산의 별칭의 지명유래는 겨울의 석산(암산, 바우산)에 핀 눈꽃, 눈꽃 산이란 의미로 바우설(石雪, 巖雪)이라고 이름 하였다는 설(說)이 전한다.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명칭은 바위 꽃(石花)이고 석화산의 겨울 명칭 바우산에 눈꽃, 즉 석설(石雪), 암설(巖雪)의 우리 한글과 이두식(吏讀式)이나 향가식(鄕歌式) 표현으로 바우-설이라고 한 것으로 정리되며, 석화산과 바우-설에 대한 명칭 유래는 온 산의 바위에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아름답고 다채로운 진달래꽃, 단풍, 눈꽃 등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서 장관(壯觀)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가리산에서 뻗어내려 온 석화산의 연혁(沿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에는 석화산(石花山)으로 사용하다가 1945년 광복 직후부터 현재까지에는 석화산(石花山, 石華山)으로 산 지명이 불리고 있으나, 현재의 희망3리 홍천여고 뒷산인 야자산(也字山)이란 산의 모양이 나지막하게 '야자(也字)'형으로 생겼다고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산의 지명이 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1945년 광복 직후에는

석화산으로 통합되어 산 지명이 사라지고 없어진 이름도 발견된다.

홍천의 진산(晉山)인 석화산 아래에는 고지도인 『해동지도』·『동여도』·『1871년 관동읍지』에 당시 현내면으로 지역에는 관아(官衙)·향교(鄕校)·객사(客舍)·창(倉, 司倉)·관수당(觀水堂)·연봉역(蓮峰驛)이 표시되어 있는데 천감역(泉甘驛)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872년 지방지도』의 읍치에는 교궁(校宮, 鄕校)·사창(司倉)·현아(縣衙)·진창(賑倉)이 표시되어 있다. 주변에는 객사(客舍)·범파정(泛波亭)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야자산(也字山)

야자산(也字山)은 산(山) 모양이 나지막한 야자(也字) 형국으로 생겼다고 하여 산 지명으로 일제강점기까지 1910년대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의 동리촌별 지명(地名) 산명(山名)에 기록되어 부르고 사용하여 왔음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산의 지명이 되었다. 야자산 정상부에는 야자산성지(也字山城址)가 유적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록이 없어 홍천군청에서 석화산(石花山)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석화산성지(石花山城址)라고 소개하고 있다. 홍천읍 희망3리 홍천여고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홍천강과 연봉리의 5번 국도와 44번 국도의 교차지점을 환히 내려다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북방면 하화계리, 중화계리가 내려다보이고, 동쪽으로는 홍천읍내를 환히 내려다볼 수 있다. 이 산은 현재의 두개비산(두꺼비산, 두껍산, 섬산, 339m)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두개비산(두꺼비산, 두껍산, 섬산)

홍천읍 희망리와 북방면 하화계리 경계에 접하여 있는 산으로 형상이 두꺼비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두개비산에는 옛날에 만든 석화산성(石花山城)의 흔적이 있으며,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야트막한 산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4) 매화산(梅花山)

매화산은 홍천읍 삼마치리·장전평리·상오안리와 남면 시동리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산 모양이 매화꽃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때 봉홧불을 올렸던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던 곳으로 봉화산(烽火山)이라고도 불린다. 서쪽 능선에 가끈봉(削峰)이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회자되는 영험한 아들바위가 있다. 시동리에는 시동8경이 있는데, 매화산의 설경·금물산의 가을 단풍·금계천의 고기잡이 횃불, 소리개뜰의 풍년 경치, 농부들의 논매는 소리 등이라고 한다.

매화산 동북쪽에는 선녀가 베틀을 놓고 베를 짰다는 신선바위와 숫돌이 나왔다는 숫돌재가 있다. 또 임신한 부인이 돌을 던져 바위에 올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아들바위가 있다.

(5) 봉화산(燧火山)

봉화산은 홍천읍 장전평리에 위치한 산이다. 옛날의 봉수제(烽燧制)의 봉화를 올렸던 통신(通信) 터답게 사방으로 시야가 확 트여 전망이 좋은 산이다. 조선시대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 하여 '봉화산' 또는 '봉화-뚝'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6·25 때 홍천 주민들이 피난처로 사용했을 정도로 오지였다고 한다. 먹실고개는 나무가 너무 울창하여 깜깜한 그늘이 만들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과거는 어땠을지 모르나 지금은 간벌한 흔적으로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않다. 남쪽으로는 산의 형세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두루봉 뒤로 금물산과 성지봉이, 멀리 치악산과 함께 조망된다. 남서쪽으로는 매화산과 산이 깎은 듯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까끈봉 뒤로 갈기산이 드러난다. 서쪽으로는 매봉산이 멀리 도일봉, 용문산과 함께 조망된다. 북서쪽으로는 금학산 뒤 멀리로 화악산도 시야에 들어온다.

6) 남산(南山)

홍천읍 갈마곡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홍천읍 관아가 있는 진산 석화산(石花山)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홍천강(洪川江, 華陽江) 건너 정남향 남쪽에 소재한 산이라 이름

이 붙여졌다.

화양강 건너편에 있는 남산 기슭에 거북의 등과 같은 모양의 산등성이가 있다. 홍천읍 쪽 정면에서 바라보면 전면에 거북의 머리 부분과 양쪽 발의 형상이 완연하게 보인다. 거북등에 관한 전설이 전하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거북등이 천하 명당(明堂) 자리라 한다. 남산 정상에서 완만하게 흘러내린 좌청룡(左青龍) 우백호(右白虎)가 뚜렷하고 턱밑에는 바로 화양강이 유유히 흘러 과연 범인이 보아도 첫눈에 명당임을 알 만한 곳이다. 남산에 묘를 쓰면 운수대통하고 가문이 번창한다고 하나 이곳에서 장사(葬事) 지내면 홍천읍이 큰 가뭄으로 흉년이 들고 향교의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괴변이 생긴다고 하여 이곳에서 장사 지내는 일을 막았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큰 가뭄이 들어 이곳을 파헤치니 암장(暗葬)한 시신이 나왔다고 한다. 그 시신을 옮기고 석화산에서 고을 수령(守令)이 기우제(祈雨祭)를 올려 가뭄을 달랬다고 전해지고 있다.

(7) 구배산(龜背山, 거북등산)

홍천읍 갈마곡리 남산(南山) 아래 있는 산으로 모양이 거북이 등(龜背)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좋은 산소(山所) 자리로 명당(明堂)이 있다고 전하는 낮은 산으로 『조선지지자료』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8) 오룡산(五龍山)

홍천읍 갈마곡리와 동면 성수리(城壽里) 경계에 접하여 있는 산으로 산 아래 큰 늪(沼)에서 다섯 마리의 용(龍)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昇天)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전한다.

(9) 오성산(五星山)

홍천읍 검율리(檢律里)와 동면 덕치리(德峙里) 경계에 접하여 있는 산이다. 풍수지리에 좋은 명산(名山)으로 오성(五星)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을

구분함에는 대체로 5개의 오성산(五星山)으로 크게 나눈다. 오성(五星)은 5개의 행성(行星)인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비유하여 사용하는 용어다.

오행의 성정을 살펴보면 목(木)은 음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힘(緩氣)을 가지고 있고 화(火)는 음양이 서로 꽝 하고 부딪친 후에 뜨겁게 불타서 확 퍼지려는 힘(散氣)을 가진다. 그리고 토(土)는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뜨겁게 통합하는 힘(固氣)을 갖는다. 금(金)은 음양이 서로 잡아당기어 싸늘하게 긴장시키고 숙살하는 힘(堅氣)을 갖고 있다. 수(水)는 음양이 서로 반항하여 밀어내는 힘(軟氣)을 가짐이 특징이다.

산천의 만물들도 저마다 각각의 다른 기운들을 품고 있다. 예컨대 산, 강, 사물, 사람의 유형들도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해 각각의 성정과 품고 있는 기운들의 강약을 판별할 수가 있다. 홍천의 오성산은 산천의 기운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음양오행의 기운을 품고 있는 산이라 명명한 것으로 짐작된다.

(10) 오음산(五音山)

홍천읍 삼마치리와 동면 월운리,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세 면(面)이 만나는 산이다. 산의 양쪽에는 큰삼마치, 작은삼마치가 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오음산에서 다섯 장수가 날 것을 마을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다섯 장수가 나면 재앙을 입는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장수가 나지 못하게 오음산 골짜기 바위굴에 구리를 녹여 붓고 쇠창을 꽂았다. 그러자 검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며 다섯 개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에 이르더니 주인 잃은 백마 세 마리가 고개를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다. 그 뒤부터 산 이름을 오음산(五音山)이라고 하고 고개는 삼마치라 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병마 주둔지였고 지금은 군부대 통신탑이 있다.

또 다른 지명유래가 있다. 다섯 가지 소리를 내는 짐승, 즉 여우·까마귀·살쾡이·멧돼지·꿩이 한 골짜기마다 점령하여 자신들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서 다섯 가지 소리를 가진 산이라 하여 오음산이라고도 한다.

(11) 감투봉(坎頭·甘頭峰, 감투-봉, 宕巾峰)

홍천읍 남산(南山)에 있는 몇 개의 봉우리 중 한 봉우리로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이 쓰던 의장용(儀裝用) 모자와 같이 감두(坎頭·甘頭), 탕건(宕巾)처럼 산봉우리 모양새가 턱이 없이 민틋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12) 까끈봉(삭봉, 削峰)

홍천읍 하오안리·상오안리와 북방면 도사곡리와 경계에 있는 산봉우리도 까끈봉(삭봉)이라 한다. 한편 남면 월천리(月川里)·신대리(新垈里) 경계에 있는 봉우리도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 높다랗게 솟아 있어 이 산봉우리 역시 까끈봉(삭봉)이라고 불리고 있다.

(13) 두루봉(두리봉, 周峰)

홍천읍 결운리(決雲里) 산64-8번지로 결운리와 태학리(太學里)에 걸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둥그렇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1953년에 개교한 주봉초등학교와 마주하고 있으며 90여 년 전에 안양섭(安養燮)이 창건한 안양사(安養寺)라는 절이 자리 잡고 있다.

2) 화촌면

홍천군의 중부에 위치한 면이다. 특산물 홍천잣의 생산지로서 풍천1·2리에서 연간 36톤이 생산되고 있고 주변에는 공작산, 군업강변, 대진교 강변, 주음치 강변 등 천연관광 자원이 많은 곳으로 홍천군의 젖줄인 홍천강이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1) 삼촌면산(三村面山)

화촌면 주읍치리(酒飮峙里)에 소재한 산으로 본래 산 이름이 국립지리정보원 지도상에 없는 무명산(無名山)이었다. 월간 『사람과 산』 기고자이자 산꾼 시인(詩人) 김은남 씨가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등 '촌'자가 붙은 3개 면을 가르는 절묘한 지점의 봉우리가 무명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곤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삼각점과 공작산으로 이어지는 공작분맥과 백우산(白羽山)으로 이어지는 백암분맥이 시원하게 바라보이는 'ㅏ'자 갈림 능선상의 산봉우리이다. 이를 삼촌면산이라고도 부른다. 건너편 백우산과 매봉 그 앞으로 봉황산과 송곡대산(松谷垈山)이 나무 숲 사이로 보인다.

(2) 응봉산(鷹峰山)

화촌면과 서석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사냥할 때 이곳에서 매(鷹)를 놓아 꿩을 잡았다고 전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설과 산봉우리의 형세가 매와 같이 영특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이란 설이 있다.

(3) 바른재산

화촌면 주음치리에 소재한 무명봉이 근처 주음치리에서 외삼포리와 내삼포리로 넘어다니는 바른재에서 그 이름을 얻은 듯하다. 바른재봉이라고도 한다.

(4) 갈미봉(葛味峰)

화촌면 군업리와 외삼포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공작산과 가리산(加里山) 사이에 능선을 이어가면 삼촌면산, 곤봉, 청벽산으로 연결된다. 남쪽으로 공작산이 한층 가깝고, 서쪽으로는 구절산, 연엽산, 녹두봉, 대룡산이 아스라한 하늘금이다. 북쪽에는 가리산의 기상관측소가 있는 봉우리가 보인다.

⑸ 수리봉

화촌면 주음치리에 소재한 산으로 국립지리원 지도상 무명봉이나 현지 주민들이 모양이 수리와 같이 장엄하게 생겼다고 해서 수리봉으로 부르고 있다. 전국 어디에 있든 수리봉이란 이름을 가진 산은 산세가 바위와 어우러져 있듯이 이곳의 주음치리 수리봉도 정상 직전에 바위 봉이 있어 수리봉이란 이름을 얻은 듯하다. '높은 곳', '맨 꼭대기'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것이다. 그런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를 보면 이 수리봉이 한자로 '수리봉(守理峰)'이라고 표기된 곳도 있다. 단옷날의 순우리말이 '수릿날'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추석이 달의 축제였다면 단오는 태양의 축제인바, 태양이 높은 하늘의 한가운데 떠 있는 날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수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수리가 된다. 맨 위에 있기 때문이다. 독수리의 어원도 마찬가지다. 예로부터 높은 곳을 날아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산봉-우리'는 '산봉수리'에서 'ㅅ'이 탈락하여 산봉-우리가 된 것이다. 지역마다 달리 부른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운변화가 일어나서 변형이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⑹ 자지봉(紫芝峰), 적봉(赤峰), 불근-덩이

화촌면 구성포리에 있는 산으로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리 경계에 있다. 자지봉(紫芝峰)에서 지난날 매를 잡기 위해 가지(덫)를 놓았다 한다. 잣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하여 가지봉이라고도 하며, 붉은색의 높은 봉우리가 외따로 우뚝 서 있어서 적봉(赤峰), 불근-덩이라고도 불린다.

3) 두촌면

홍천군 북부에 있는 면으로 1,000m 내외의 험준한 산이 대부분으로 가마봉(925m)·매봉(865m)·소뿔산(1,180m) 등이 솟아 있다. 산곡을 흐르는 소하천들이 합류해 장평천을 이루고 있으며, 산간곡저와 하천 양안에 소규모의 충적지가 분포한다. 이 충적지에 취락이 밀집해 있다.

(1) 가리산(加里山)

두촌면과 춘천시 북삼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는 가리산이다.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천현리 산134-1)이며, 태백산맥의 줄기인 내지산맥(內地山脈)에 속하는 산으로, 북쪽에 매봉, 서쪽에 대룡산(大龍山), 동쪽에 가마봉(可馬峰) 등이 솟아 있다. 산림청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이다. 가리산 이름의 지명유래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땔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산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고깔 모양으로 생긴 데서 가리산의 이름이 유래한다. 산 정상에 바위삼봉이 가리처럼 돋아 있다. 가리산이라 불리는 명산(포천 가리산, 설악 가리봉)은 모두가 정상에 바위봉이 우뚝 솟아 있다.

제1봉 남쪽에서 홍천강 발원하여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의 수원(水源)을 이룬다. 산의 동쪽 사면으로 흐르는 수계(水系)는 자은리 부근에서 여러 수계를 합하여 북한강의 지류인 홍천강(洪川江)을 이루어 남서쪽으로 흐르며, 두촌면의 역내리를 지나 철정리에 이르러 서석면과 내면의 경계인 응봉산(鷹峰山) 부근에서 발원하여 흘러온 내촌천(乃村川)과 합류하여 화양강(華陽江)을 이룬다. 북쪽 사면으로 흐르는 수계는 물노리에 이르러 소양호로 흘러들고, 서쪽 사면으로 흐르는 수계도 품안리에서 역시 소양호로 흘러든다. 남쪽 사면으로 흐르는 수계는 성산리 부근에서 화양강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북쪽 산 밑의 물노리(勿老里)에는 옛날의 청(淸) 태조(太祖)의 선대묘(先代墓)가 있었다고도 한다. 또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현재 가래나무는 찾아보기 힘들고 참나무류의 숲이 울창하다.

(2) 봉황산(鳳凰山)

두촌면 역내리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봉황새가 날아가는 비봉형(飛鳳形)이기 때문에 또는 산의 모양이 봉황을 닮았다고 하여 봉황산(鳳凰山)이라 불린다. 봉황은 예로부터 전설에 나오는 신령한 상상의 새이다. 오동나무에 살고 대나무열매를 먹으며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는데, 수컷을 봉(鳳), 암컷을 황(凰)이라 하며 성천자(聖天子)의 치정(治政)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새가 봉황이다.

(3) 송곡대산(松谷垈山)

두촌면 역내리에 자리한 산이다. 백두대간 주 능선에 자리한 오대산 두로봉이 서쪽으로 곁가지 산줄기를 뻗는다. 한강기맥으로 불리는 이 산줄기는 평창군 봉평면과 홍천군 서석면 경계를 이룬 청량봉에서 북서쪽으로 또 다른 산줄기를 일으킨다. 춘천지맥으로 불리는 이 산줄기에도 응봉산, 백암산, 소뿔산, 가리산, 대룡산 등 명산들이 즐비하다. 이 산줄기의 백암산에서 춘천지맥 주 능선을 벗어난 정서 녘 산줄기는 다시 백우산, 송곡대산, 봉황산을 일으킨 후 홍천강 상류에서 그 산줄기를 마감한다. 송곡대산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의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산이다. 숫고개에서 서쪽으로 이어가는 길은 아름드리 적송들이 우람한 몸매를 자랑하며 숲을 이룬다. '송곡대(松谷垈)'란 산 이름의 뜻을 저절로 깨닫게 하는 아름드리 소나무다. 소나무가 울창한 계곡을 굽어보는 망대 같은 산, 또는 소나무 울창한 계곡 위에 솟구친 망루의 산이라는 뜻의 산이다.

(4) 청벽산(靑壁山)

두촌면 철정리와 내촌면 화상대리 경계에 소재한 산이다. 봉황대 서남쪽으로 홍천강 변의 물안골 쪽 방면 사면이 병풍과 같이 100여 길의 큰 벼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벽(靑壁)이라 부른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4) 내촌면

홍천군 중북부에 있는 면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매봉(865m)·백암산(1,099m)·백우산(895m) 등을 비롯하여 400m 이상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북한강의 지류인 내촌천이 면의 중앙을 곡류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백암산 남쪽에는 가령폭포가 있다.

(1) 매봉(응봉, 鷹峰)

내촌면 도관리와 광암리 경계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의 모양이 매(鷹)와 같이 생겼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매봉 또는 응봉(鷹峰)이라고 불린다.

(2) 백암산(白岩山)

내촌면 와야리와 인제군 상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자연 속에 숨겨진 때 묻지 않은 오지(奧地)의 산이다. 하얀 바위산이란 의미로 붙여진 산 이름이다. 옛날 뱀이 많아 '뱀산' 또는 '배암산'이라 불리다가 '백암산'으로 음운변화 되었다는 설도 있다.

(3) 백우산(白羽山)

내촌면 도관리와 광암리 경계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한 마리의 새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려 한껏 날개를 펼친 모습의 산세는 주변에 백암산, 가마봉, 고적산, 매봉산, 송곳대산들이 서로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홍천강 발원지인 북쪽의 용소계곡에는 넓이 200여 평의 작은 너래소와 500여 평의 큰 너래소를 비롯, 30리 계곡에 봄철의 철쭉과 가을단풍 등 자연 경관이 절경이다.

(4) 무장봉(武將峰)

내촌면 화상대리·문현리·답풍리 경계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의 생김새가 마치 무관 장수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서석면

홍천군 중동부에 있는 면으로 고려시대는 노릉군 주우면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1895년 홍천군 서석면이라 칭하였다. 1965년에 7개의 법정리와 14개의 행정리로 편성하였다. 서석면은 태백산맥의 지맥이 면내까지 이어져 대체로 400~1,000m의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며, 곳곳에 응봉산(1,103m)·아미산(961m)·수리봉(960m)·운무산(980m)·동막산(731m) 등이 솟아 있다.

(1) 고양산(高陽山)

서석면 검산리 아미산(娥媚山, 峨眉山)의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풍암리와 수하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천주단과 원(元) 글씨가 새겨진 삼각바위가 있으며, 아미산과 연계산행을 할 수 있다. 아미산 끝자락 고양산은 뭇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짧은 거리의 등산과 함께 깨끗한 내촌천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맑은 하천과 풍요로운 산, 해와 바람, 물과 나무가 조화로운 아람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과 동·식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풍족하게 살아가는 결실의 땅으로 고양산 아람마을의 진산(鎭山)으로 뒷산인 고양산, 아미산 안에 서석(瑞石)의 중심지로서 터를 잡고 있다.

(2) 동막산(東幕山)

홍천군 서석면 소재지 서쪽에 솟아 있는 동막산은 서석 분지를 가르는 내촌천을 사이에 두고 북동쪽 아미산과 마주보는 산으로 동막산은 아미산의 유명도에 밀려 아직 등산인들 발길이 거의 없다. 게다가 동막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응봉산, 수리산, 대학산, 운무산 등 미들급 산들 그늘에 가려 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3) 아미산(娥媚山)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水下里), 풍암리(豊岩里) 풍암분지 북쪽에 병풍을 두른 듯 솟아 있는 서석의 진산(鎭山)이다. 삼신산(三神山)의 세 봉우리 중의 하나로 제일 높은 산으로, 조조울[효제동(孝悌洞)], 검산(儉山), 풍암(豊岩)을 품는 모산(母山)이다. 아미산(娥媚山)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염하게 웃음 짓는 여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는 설과, 여인의 예쁜 눈썹과 같다고 하여 눈썹 '미(眉)'자를 써서 아미산(娥眉山)이라 불린다는 설이 있다. 또 높고 험하다는 뜻의 아미산(峨嵋山), 말의 꼬리 형상과 같다고 하여 마미산(馬尾山)이란 이름도 붙었다고 한다. 풍암리는 온통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만 이뤄진 서석면 일원에서는 유일하게 널찍한 들판이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 서석면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풍암리보다는 일반적으로 "서석"으로 불리는 고장이다. 서석은 마치 거대한 분화구 속에 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서석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고양산과 아미산이 가로막혀 보이고, 동으로는 청량봉, 남으로는 운무산, 서로는 동막산 줄기가 둥그렇게 원을 그린 듯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아미산은 백암산, 응봉상, 흥정산, 덕고산, 운무산, 수리봉 등이 사방으로 병풍(屛風)을 둘러 친 듯 거대한 분화구(噴火口) 속에 싸인 산이다. 산정에는 의좋은 삼형제가 풍암리 들판을 굽어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가리산, 동으로는 계방산, 회령봉, 흥정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공작산을 조망할 수 있다. 아미산을 접근하려면 홍천읍에서 동으로 100리이다. 높고 겹겹이 쌓인 심산(深山) 깊숙한 산골로 이어진 전형적 농촌향수의 정취(情趣)가 풍기는 풍암리 서석면 소재지에 이른다. 서석마을은 사방으로 높은 산들에 에워싸여 거대한 분화구 속에 들어선 느낌이 들고, 넓은 들판의 소박한 농촌풍경이 평화스럽다. 서석마을에서 아미산 정상 쪽에 올려다 보이는 바위지대에, 산(山)자를 닮은 바위 세 개가 우뚝 솟아있어 두각(頭角)을 나타내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암봉을 삼형제봉이라 부르고 또 삼형제봉의 안부(鞍部)를 세찬 바람이 통한다 하여 바람골이라고도 부른다.

(4) 운무산(雲霧山)

홍천군 서석면(瑞石面) 청량리(淸凉里)와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속실리(粟實里)에 위치하고 있는 운무산(雲霧山)은 항상 구름과 안개가 걸쳐 있는 것 같으며 그리 높지는 않은 산이지만 아기자기한 능선 위에 바위와 암릉에 어우러진 노송(老松)과 철쭉, 진달래, 산나물이 온산을 뒤덮고 있어 경관이 아름답다. 운무산 정상부위에 항상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세종대왕 신하들이 피신(避身)했다는 설과 옛날 삼한시대 진한(辰韓) 마지막 왕 태기왕(泰岐王)이 신라(新羅)의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세력다툼을 하다가 태기산(泰岐山) 전투에서 패하여 운무산으로 철수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역사성(歷史性) 깊은 산이기도 하다.

(5) 응봉산(鷹峰山)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水下里) 내사동(內寺洞, 절골)에 위치하고 있는 명산이며 내면 방

내리(坊內里)와 경계를 이룬다. 산의 모양새가 매(鷹)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매봉산이라고도 불린다. 산정(山頂)으로 오르는 곳에 6·25 전까지 화전민(火田民) 20여 가구가 1개 반이 형성되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산줄기는 계속 뻗어나가 행치령(行治嶺)에 이르러 인제군 경계를 이루며 백암산에서 가마봉으로 이어진 후 춘천 소양호변 매봉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리산, 대룡산으로 멀리 이어진다.

(6) 청량봉(淸凉峰)

서석면 청량리와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의 경계에 있는 봉우리이다. 영춘지맥 중 춘천지맥의 분기점에 속한다. 불발현(佛發峴)에서 이곳까지 30여 분이 소요되었고 진행하는 등로길에 푸른 산죽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웠다.

6) 동면

홍천군 동남부에 위치한 면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영귀미면에 산천(山川)으로는 대미산(大彌山)과 공작산(孔雀山)이 기록되었으나 『여지도서』에는 대미산성이 고적(古跡)으로 기록되었다. 천년고찰 수타사(壽陀寺)와 전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공작산이 있다.

(1) 공작산(孔雀山)

동면과 화촌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정에서 사방으로 뻗은 능선이 공작(孔雀)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공작산이라 하였다. 궁적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궁적산 아래 동네가 '궁지기' 또는 '궁지기골(동면 노천리)'이다. 궁지기골뿐만 아니라 '지왕동'과 '왕터' 등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 아직도 노천리에는 남아 있다.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인제 갑둔리에 자리 잡기 전 노천리의 지왕동을 거쳐 왕터에서 머물다 갔다는 자료가 남아 있으나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없다.

(2) 대미산(大彌山)

동면 덕치리와 성수리, 홍천읍 검율리(檢律里)에 걸쳐 있는 오룡산의 동북방 능선에 위치한 산이다. 용(龍)이 승천(昇天)할 형국을 갖추고 있다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홍천현 동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적(古跡)에 "대미산고성 석축 주이천일백구십칠척 고칠척 금반퇴락(大彌山古城 石築周二千一百九十七尺 高七尺 今半頹落)"이라고 상술하고 있다.

대미산성은 언제 축조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대미산성에 관한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여지도서』, 『관동지』, 『홍천현읍지』 등에 남아 있다. 『여지도서』에 지금은 허물어졌으나 유지(遺址)인 흔적(痕迹)이 남아 있다고 하였듯이 지금도 대미산에 오르면 산성(山城)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홍천 남산(南山) 산행의 들머리인 '여우고개'를 오르다 보면 '대미산성지'라는 표석을 볼 수 있고, 석축과 축대, 와편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미산성에는 이괄(李适)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이괄산성'을 비롯해 '이괄바위'와 '이괄이소', '군량뜰', '이괄봉', '이괄의 우물터', '이괄굴', '성무재', '이괄의 장독대', '이괄의 말무덤', '이괄 아버지무덤', '야루정(耶樓亭)' 등이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대미산성'을 '이괄산성'이라 별도로 기록하고 있다. 이괄은 대미산에 산성을 쌓는데 '부사원고개'에서 돌을 옮겨 쌓았다고 한다. 그 후 '이괄성터'라 부르고, '이괄봉'에는 돌담으로 쌓은 길이 쭉 뻗어 있었다고 하며, 이괄이 이곳에 보물을 숨겨 놓았다고 한다. '이괄봉'에서 건너다보이는 오성산 정상에는 바위들이 널려 있는데 이를 '이괄의 장독대'라고 한다.

(3) 대학산(大學山)

동면 노천리와 서석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공작산과 발교산(髮校山) 사이 물골(水洞) 남쪽에 있다. 이 산에 있는 '물골'은 본래 '수동(水洞)'이라 불렸는데 계곡이 크다 하여 '큰골'로도 불렸다. 정상에서의 조망은 서북쪽으로 공작산이 가깝게 보이고 동쪽으로는 수리봉에서 계곡 남쪽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의 병무산(兵武山, 兵無山, 921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있다.

(4) 덕구산(德丘山, 德邱山)

동면 노천리와 좌운리의 경계 능선에 있는 산으로 산의 형세가 덕(德)이 있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산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노천리 덕모루(德隅, 得隅) 앞에 있는 산이라 덕우산(德隅山)이라고도 불린다.

(5) 만대산(萬垈山)

동면 좌운리와 후동리,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옛날 산 중턱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터가 있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첩첩 오지 산중에 그만한 집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대산의 유래이다.

(6) 발교산(髮校山)

동면 노천리와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사이에 있는 산이다. 정상 이름이 '발기봉(發氣峰)'[3]인데 정상석에 표기되어 있다. 발교산과 발기봉의 지명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지명유래집』을 찾아 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다.

(7) 응곡산(應谷山)

동면 노천리와 좌운리의 경계에 있는 풍수지리상 매봉 역할을 하는 산이다. 나무를 하러 오다가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 산에서도 같은 소리로 응한다고 하여 응곡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응곡산 아래 사방으로 갈라진 능선들이 뻗어내려 있는 것으로 보아 골짜기마다 돌아오는 메아리가 그렇게 들렸을 것도 같다. 혹자들은 산의 모양새가 행상(상여)과 같다고 하여 행상봉(行喪峰), 화채봉이라고도 부른다.

7) 남면

남면은 금물산(今勿山, 775.5m), 갈기산(葛基山, 685m), 까끈봉(削峰, 642m), 망덕산(望德

山, 430m), 매봉산(梅峰山, 651m), 쇠뿔봉(牛角峰, 牛角山, 557.9m) 등이 솟아 있어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양덕원천(어룡천)이 여러 지류와 합쳐지면서 중앙을 북류함으로써 유역인 시동리·유치리·양덕원리 일대에 기름진 평야와 산록완사면이 형성되어 농경지와 생활터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양덕원천은 명동리, 제곡리, 용수리, 남노일리에서 홍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1) 금물산(今勿山)

홍천군 금물산이 유치리(楡峙里) 남쪽에 있는 산으로 그다지 높지 않으나 주 능선 길이가 10km를 넘어 계곡이 길고 깊다. 금물산은 산의 모양새가 그물을 쳐놓은 것과 같다고 하여 산의 지명이 유래되었는데 금물산면(今勿山面)이 1917년 일본식 행정편의에 따라 읍치소(邑治所)의 방향에 따라 남쪽에 해당된다고 하여 남면(南面)으로 바꿨다. 1920년부터는 금(金)과 은(銀)을 캐는 광산(鑛山)이 있었음으로 금은산(金銀山)이라고도 하였다.

(2) 갈기산(葛基山)

남면 양덕원과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를 잇는 44번 국도 동쪽 옆에 솟아 있는 산이다. 갈기산의 한자 표기는 칡 '갈(葛)'자에 터 '기(基)'자를 쓴 '갈기산(葛基山)'이지만 과거에는 일어날 '기(起)'자를 썼다고 한다. 한말 기록에는 부동산(不動産), 그전에는 감물악(甘勿岳)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3) 까끈봉(삭봉, 削峰)

남면 월천리와 신대리 경계에 있는 봉우리로 봉우리가 깎아 세운 듯 높게 솟아 있어 이름 붙여졌다. 홍천읍 하오안리와 상오안리에도 까끈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4) 망덕산(望德山)

남면 신대리와 시동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고려(高麗)가 망하고 조선왕조 이씨(李氏)가 고려의 왕족인 왕씨(王氏) 일가를 섬멸시키려고 할 때 왕씨 일가는 송도(松都), 개성(開城)에서 이곳으로 피하여 와서 전씨(全氏)로 성씨를 바꾸고 피난생활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고개 너머 시동4리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광활하여 방어할 수 있는 은신처와 망을 볼 수 있는 산이 없어서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협소하고 방어도 쉽고 뒤에 뾰족한 산이 있어 사주경계도 가능한 이 삼은(三隱) 지역에 정착했다고 한다.

망덕산은 동은마을 뒷산에 아주 뾰족하게 생긴 산인데 이곳에 올라가 노심초사(勞心焦思)하여 항상 망을 보며 살았고 매월 1일과 15일에는 개성을 향해 망향제(望鄕祭)를 지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산을 고려가 망했으니 패망산(敗亡山)이라고 했다가 개성이 그리워서 개성에 있는 산 이름인 덕물산(德物山)이라고 하였다가 어느 날 스님이 와서 자고 가면서 "망덕산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여 그 후부터 지금까지 망덕산이라고 부른다고 전한다.

(5) 매봉산(梅峰山)

남면 화전리와 서면 굴업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매를 놓아 사냥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응봉산(鷹峰山)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6) 쇠뿔봉(牛角峰, 牛角山)

홍천군 남면 용수리와 서면 팔봉리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지막한 산이지만 첩첩산중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계곡과 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호젓한 산행을 하기 좋은 산이다. 교통이 매우 불편하여 찾아 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쇠뿔봉 주변 북쪽으로 매봉산, 팔봉산, 금학산이 있고 주변에 홍천강이 흐르고 있다. 산세는 완만한 편이며 순수한 육산이고 조용한 시골 오지의 한적한 자연 속의 산이나, 수도권에서 가깝고 인근에 유명한 홍천강변유원지가 있으며, 하산길에 청정 용수

골계곡이 흐르고 있어 주말 산행지로 아주 좋은 산이다.

8) 서면

홍천군 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 운동 발상지인 유서 깊은 지역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홍천군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면이다. 서울, 춘천, 원주 방면의 교통 요충지이며, 여덟 봉우리의 기암괴석 비경과 홍천강이 어우러진 산자수려한 팔봉산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비수도권 지역이다.

(1) 팔봉산(八峰山)

서면 팔봉리에 소재한 여덟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나지막한 산이다. 팔봉산은 여덟 개의 봉우리가 대부분 암봉(巖峰)으로 되어 있다. 2봉 꼭대기에는 삼부인당이라는 작은 사당이 있다. 이씨, 김씨, 홍씨 세 부인을 모시는 곳이다. 이씨는 시어머니, 김씨는 딸, 홍씨는 며느리다. 안내판에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부터 주변 마을 사람들이 풍년을 빌고 액운을 막기 위해 이곳에서 당굿을 해왔다고 적혀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씨가 가장 인자했고 김씨도 너그러웠으나 홍씨 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당굿을 할 때 이씨가 강신하면 풍년, 김씨가 내리면 대풍, 홍씨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1봉에선 거의 보이지 않던 홍천강이 2봉에서부터 조금씩 부드러운 곡선을 드러낸다. 팔봉산을 휘감아 도는 홍천강은 8봉 바로 아래에서 크게 휘어 산의 남서북면을 감싼다. 3봉을 지나 4봉을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해산굴을 통과해야 한다. 해산굴은 이곳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산굴은 하늘을 향해 구멍이 나 있다. 워낙 틈새가 작아 배 둘레가 큰 사람들은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것처럼 보인다. 해산굴 외에 장수굴이라는 이름도 있다. 통과하면 젊어진다는 것이다. 한 번 통과 시 10년씩 젊어진다는 설도 있다. 7봉에서 내려다보는 8봉은 낮고 자그마하다. 8봉에서 홍천강까지 내려가는 길은 바위에 박힌 작은 발판에만 의지해 아슬아슬한 구역도 있다.

(2) 나산(羅山)

서면 길곡리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와 경계를 이룬 산이다. 일명 보리산이라고도 한다. 나산1봉과 나산2봉·나산3봉이 있는데, 나산2봉이 정상이다. 이 산의 서쪽 지반골에 설악스파랜드가 세워진 뒤 등산객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설악스파랜드는 23만여 평의 대지에 건평 2,000여 평 규모의 온천이다. 이외에도 등산로와 산책로가 개발되어 있고, 자연학습장과 눈썰매장·야외수영장·야외텐트촌 등이 개발되어 있어 산행과 휴양을 겸한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3) 노고산(老姑山)

서면 모곡리와 길곡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신 할머니가 있었다 하여 노고산(老姑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수산과 마주 보고 있어 여자산이라고 하며 아들을 바라는 이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리면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4) 두릉산(杜陵山), 덕응산(德應山)

홍천군 서면 두미리(斗尾里)와 팔봉리(八峯里), 반곡리(盤谷里)에 걸쳐 있는 산이다. 두릉산 앞에는 자연 휴양림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가 자리 잡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두릉산의 '두릉'은 산의 생김새가 둥그렇게 둘러져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덕응산(德應山)이라고도 불린다.

(5) 왕터산

서면 마곡리와 경기도 설악면 미사리의 경계가 되는 산이다.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난(紅巾賊亂)을 피해 이곳으로 몽진하여 와서 왕터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왕터산은 널미재에서부터 장락산을 거쳐 북쪽 끝까지 10km가 넘는 긴 능선으로 장맥 산맥이 이루어져 있다.

(6) 장락산(長樂山)

서면 모곡리, 동막리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용문산(龍門山)에서 시작한 한 줄기가 천사봉(폭산)을 거쳐 봉미산, 보리산(나산)을 거쳐 장락산을 지나 왕터산에서 그 줄기를 다하는 산이다. 장락산(長樂山)에서 봉미산(鳳尾山)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를 장락산맥이라 부른다.

장락(長樂)이란 이름에 관한 유래는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산세가 장락산 줄기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까닭에 산 이름처럼 '길게 즐거운 산'이라 평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이 많은 급경사가 산의 곳곳에 나타난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양평군 북하도면(北下道面) 도곡리(道谷里)·송리(松里)·미사천리(彌沙川里)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바위동굴은 전쟁터에 나간 임을 기다리던 처녀가 동굴에서 베를 짜며 기다리다 베틀에 앉은 채로 죽었다는 데서 각씨굴(각시굴)이라 부른다.

(7) 종자산(種子山)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에 위치한 산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개야리, 모곡리, 중방대리, 대곡리, 두미리, 반곡리로 나뉜다. 옛날 아이를 낳지 못해 걱정이 태산 같았던 어느 여인이 이 산에 올라 정성껏 기도를 한 후에 자식을 얻었고 후에 그 자식이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래서 이 산은 여인이 자식이라는 의미의 '씨앗(種子)'을 얻었다 해서 '종자산(種子山)'으로 불려왔다고 한다.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이 산에서 많이 나는 약초(藥草)와 산삼(山蔘)을 먹고 살아났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8) 형제봉(兄弟峰)

홍천군 서면 모곡리(牟谷里)와 마곡리(馬谷里)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의 형세가 마치 두 봉우리가 형제처럼 나란히 솟아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9) 북방면

홍천군 북부에 위치한 면으로 동쪽으로는 홍천읍 및 화촌면, 서쪽으로는 서면, 남쪽으로는 남면, 북쪽으로는 춘천시 동산면에 접해 있다.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에 홍천현 북방면이었다. 1393년(태조 2) 중앙집권적 촌락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강구된 면리제(面里制)에서 홍천현 북방면으로 계속 사용되어 오다 1895년(고종 32) 음력 5월 26일에 전국 23부제로 구획하는 지방제도 및 관제 개혁 때 화계면(花溪面)으로 개칭하였으나 1910년 당시 부군관할구역(府郡管轄區域)에 4,322개소의 면이 있었으나 1914년 부제실시로 부구역 내의 면이 전폐되고 군내의 면도 폐합되었다. 1917년 다시 북방면(北方面)이 되었다. 그 뒤 1917년 '면제(面制)', 1920년 면제의 개정, 1930년 '읍면제(邑面制)' 등을 거치면서 지방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에 춘천시 동산면의 실질 월경지였던 북방리를 편입하였고, 노일리의 일부를 남면에 넘겨줘 남면 남노일리로 만들었다.

(1) 금학산(金鶴山)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獐項里)와 원소리(遠所里), 남면 노일리(魯日里)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금학산은 "옛날에 금빛 학이 날개를 펴고 춤추는 형상"이라 해서 금학산(金鶴山)이라 지명하였다고 『홍천군지』에 금학산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1872년지방지도』 홍천현(洪川縣)에는 북방면 노일리(魯日里) 위쪽에 표시되어 있고,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에는 관아 북서쪽에 금학산을 표시하고 용수사(龍水寺)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대동여지도』에도 금학산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금확산(金確山)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 망령산(望嶺山, 望山嶺)

북방면 성동리와 홍천읍 경계에 있는 산으로 망산령(望山嶺)으로도 불린다.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 고려 말의 어떤 충신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이성계가 주는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 홍천에 은거하고 매일 아침 산에

올라 고려의 패망을 애통해하며 통곡하였다 한다. 그런 연유로 오늘날 그가 오르던 산을 망령산(望嶺山)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3) 성치산(城峙山)

북방면 부사원리와 성동리 경계의 산으로 나지막한 산이지만, 옛 토성(土城)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남북으로 잇는 주 능선이 의연하고 떡갈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가 산초나무와 어울려 길을 가린다. 싸리나무, 진달래 등 잡초들도 많아 터널 길을 지나는 듯 구부리고 가야 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등산 초입인 원골과 진골 일대는 장송이 하늘을 가려 마치 심산에 온 느낌을 준다.

(4) 패명산(敗名山, 敗兵山)

북방면 화동리, 중화계리, 하화계리에 걸쳐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진을 치고 싸웠는데 관군(官軍)에 패했다고 하여 패명산(敗名山), 또는 패병산(敗兵山)이라고 불린다.

(5) 화금봉(火禁峰, 火禁山, 불금산)

북방면 능평리와 성동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남쪽줄기에 화금잔등이 있다. 화금잔등은 화금산 봉우리의 뜻으로 '잔등'은 '산봉우리'의 방언(方言)이다. 화금산(火禁山), 불금산이라고 불린다. 불금산(불禁山)은 화금산의 '화(火)', 즉 '불'의 훈(訓)을 표기하고, '금'은 음(音)을 합쳐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명유래와 형태소를 알 수 있다.

(6) 구절산(九節山)

북방면 성동리에 편입되어 있던 산으로 모산(母山)은 빛나는 연꽃처럼 생긴 연엽산(蓮曄山)이고 연엽산의 모산은 춘천시 동내면의 대룡산(大龍山)이다.

구절산의 아름다움은 정상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암릉에 있다. 마치 산세가 구

절(九節)양상을 연상케 하듯 9개가 넘는 봉우리와 지능선이 갈라진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답게 한쪽은 밋밋한 사면인 반면 한쪽은 한여름의 하늘가의 적란운(積亂雲)처럼 철저한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다. 그 단애가 굴곡을 지으며 9개의 암릉봉(巖陵峰)을 형성하고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일제강점기와 1973년 7월까지는 홍천군 북방면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춘천시 동산면에 편입되어 있다.

10) 내면

홍천군 동부에 위치한 면으로 동쪽으로는 강릉시 연곡면과 평창군 진부면, 서쪽으로는 서석면, 남쪽으로는 평창군 봉평면과 용평면, 북쪽으로는 인제군 상남면과 기린면 및 양양군 서면에 접해 있다.

(1) 계방산(桂芳山)

『대동여지도』, 『청구도(靑邱圖)』에서는 '연방산(燕方山)'이라 하였다. 남한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계수나무 계(桂)자와 꽃다울 향기 방(芳)자가 합쳐져 계수나무가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산이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뿐, 지명유래는 정확하게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2) 소계방산(小桂芳山)

내면 창촌리에 있는 산이다. 한강기맥이 오대산(五臺山) 호령봉(虎嶺峰)부터 약 9km 거리에 이른 지점(계방산 전방 0.8km)인 1,551m봉에 이르면 북으로 능선 하나를 분기시킨다. 이 1551m봉에서 분기한 능선은 1.7km 거리인 1,390m봉에서 Y자형으로 갈라진다. 북동으로 갈라진 능선이 1km 거리에 이르러 들어 올린 산이 소계방산이다.

(3) 개인산(開仁山)

내면 광원리(廣院里)와 인제군 기린면(麒麟面)에 걸쳐 있는 개인산은 인제의 명산인 방

태산(芳台山)의 남쪽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방태산 능선에 주봉인 주억봉을 비롯하여 서쪽에 깃대봉, 동쪽에 구룡덕봉, 침석봉, 숫돌봉이 종이깔때기 형상을 하고 그 안에 개인동이라는 큰 계곡을 품고 있다. 인제군에서는 개인산, 개니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개인산은 개인약수(藥水), 삼봉약수, 방동약수로 유명하다 약수 섞인 물은 개인산의 북면을 흐르는 방대천과 서남면을 돌아가 방대천을 합하는 20km의 내린천으로 흘러들어 차례로 소양강, 북한강, 한강이 된다.

(4) 문암산(門岩山)

내면 창촌리(蒼村里)와 율전리(栗田里)에 걸쳐 있는 산으로 문처럼 생긴 큰 바위가 양쪽에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문암산은 바위산(巖山)으로 노송(老松)이 한 폭의 동양화 병풍 같이 펼쳐져 있어 문암산을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석화산(石花山)이라고도 부르며, 묘한 바위봉우리[암봉(巖峰)]들은 항상 눈꽃에 뒤덮인 산같이 보인다. 그래서 일명 바우설이란 이름도 생겨났다.

(5) 석화산(石花山)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소재한 산으로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으며 50m 정도 병풍 같이 바위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설악산(雪嶽山)을 연상케 하는 산이다. 또한 정상에 설치해놓은 안내표지판에는 이 산 바위에 자생하고 있는 석이(石耳)버섯이 많이 자란다고 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에 꽃이 핀 것같이 보인다고 하여 유래되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산 지명 유래설이 있다고 한다. 창촌리 면사무소 뒤편으로 계방산과 소계방산 사이에 있으며,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석화산이라는 명칭은 옛날 이 산의 바위에 석이(石耳)버섯이 많이 자라서 멀리서 바라보면 바위가 마치 꽃처럼 보인 데서 유래하였다. 문암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산 서북쪽의 내면 율전리 문암동 계곡에 있는 거대한 문처럼 생긴 바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6) 약수산(藥水山)

약수산이란 이름은 흔히 명개리 약수(藥水)라 불리는 이 산 남쪽 골짜기의 약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약수산은 백두대간이 오대산에 이르기 직전 산세를 일으키고 있는 산 중의 하나다. 구룡령(九龍嶺) 너머 서쪽엔 갈전곡봉이, 동남으로는 응복산(鷹伏山), 만월봉(滿月峰)이 한 어깨로 나란히 솟아 있다.

(7) 응복산(鷹伏山, 매복산)

홍천군 내면과 양양군 서면·현북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응복산은 백두대간 1,0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며 구름과 함께 걷는 하늘 길 두로봉에서 구룡령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산정으로 오르는 통 바람 골의 울창한 수림(樹林)과 맑은 물에는 희귀 동식물과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어 태고의 자연 전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산의 형세모양이 매가 엎드린 형국[응복(鷹伏), 매복]이라 하여 매복산(응복산)이라고도 부른다.

(8) 응봉산(鷹峰山, 매봉산)

홍천군내 막힘없는 조망이 최고봉인 응봉산은 홍천군 서석면과 내면 경계를 이루며 하뱃재에서 잠시 가라앉는다. 하뱃재를 지난 이 능선은 약 10㎞ 거리인 970m 봉에 이르러 남서쪽으로 각근치 지맥을 분가시키는데, 이 지맥에 아미산이 솟아 있다. 응봉산은 고산으로 산봉우리 모양이 매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고 매봉산이라고도 한다.

(9) 가칠봉(柯七峰)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위치한 산이다. 가칠봉은 평화롭지만 까칠한 봉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평화롭지만 까칠하다"고 하는 이유는 급격한 경사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 희귀조류인 새호리기(Falco subbuteo)[4]가 북동부 가칠봉(柯七峰) 일대의 잣나무 고목에서 번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10) 맹현봉(孟峴峰)

내면 율전리(栗田里)와 방내리(坊內里), 인제군 상남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매우 험악하다. 일명 맹현산(孟峴山)으로도 불린다. 맹현봉은 강원도 심산유곡으로 내린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방태산 동쪽에 개인산과 마주하고 문암동계곡을 사이에 두고 문암산과 마주한 오지의 산이다. 맹현봉[5]은 흙산으로 부드러운 산이다. '맹현봉'을 '맹맹한 봉우리'라는 의미에서 '맹한 봉(峰)'이라 불리던 것을 한자(漢字)로 옮기면서 맹현봉(孟峴峰), 맹현산(孟峴山)으로 험하지 않고 순탄하여 맹맹한 산봉우리라는 의미로 선조들께서 산 지명을 한자로 옮기면서 좋은 뜻의 맹현봉, 또는 맹현산으로 명명한 것으로 본다.

(11) 사삼봉(沙蔘峰, 새양봉)

사삼봉은 홍천군 내면 광원리(廣院里)와 명개리(明開里)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삼봉약수(三峰藥水), 동쪽으로 명지리(明池里)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가칠봉(柯七峰) 능선으로 이어지는 능선상 최고봉으로 사삼봉(沙蔘峰), 또는 새양봉이라고도 불린다. 사삼봉의 유래는 사삼(沙蔘, 더덕)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양봉은 산양유(山羊乳)와 같이 줄기덩굴을 자르면 흰 유액이 나옴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산양봉>새양봉으로 변화되어 불리게 되었다.

2. 주요 하천 지명유래

홍천군의 주요 하천은 홍천강(洪川江)을 중심으로 내촌천(乃村川)·장남천(長南川)·군업천(郡業川)·덕치천(德峙川)·수성천(壽城川)·어룡천(魚龍川)·성전천(城前川)·굴지천(屈只川) 등의 여러 지류와 합쳐지면서 홍천군의 중앙부를 홍천강이 서류한다. 자운천(紫雲川)과 계방천(桂芳川)이 동쪽을 흘러 내린천(內隣川)이 되어 서쪽으로 흐른다. 홍천강은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산에서 발원하여 내촌천이라고 불리면서 흐르다가 북부 중앙의 매봉(800m) 기슭에서 발원한 장남천(長南川)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에 유입한다. 한편 내면 명개리 망월봉에서 발원한 소양강은 계방천이라고 불리며 북서류하다가 자운천 등과 합류하여 내린천이라고 불리면서 인제군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들 하천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천강(洪川江)

홍천강은 북한강의 여러 지류 중 제일 크다. 강원도 홍천군과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을 서류하여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홍천강의 지명유래는 옛 이름에서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홍천의 고지명을 그대로 따라서 강 이름도 벌력천(伐力川), 신라시대에는 녹효강(綠驍江), 녹요강(綠繞江), 그 이후에는 벌력천(伐力川), 녹효강(綠驍江), 녹요강(綠繞江), 남천(南川), 전천(前川), 전계(前溪), 화양강(華陽江)이라고 불렀다. 그 지명의 유래는 벌력천(伐力川)의 '伐力'-'綠'은 중세 한국어의 프르다(綠), 伐力 pɐrəkə 綠 噴 파라ᄒᆞ-(綠), 프르- 파랗-, 푸르- 伐 벌(野) 벌, 벌판을 의미하는 푸른 벌판에 힘차게 흐르는 강(江)과 하천(河川)을 표현하여 자연지리적인 특징을 그대로 지명으로 삼아 하천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푸른 벌판을 음차(音借)한 벌력(伐力)의 같은 뜻인 녹효(綠驍, 綠繞)도 푸른 벌판이라는 같은 의미의 신라시대 한자식 지명이었고 하천인 홍천강 본래의 강 이름이었다. 홍천강도 같은 뜻인 "푸르고 넓은 내"라는 의미를 뜻하는 현재의 하천 이름인 '넓다'와 '물이 푸르고 벅차게 흐른다'는 의미의 '홍(洪)'자를 훈차(訓借)하여 홍천강(洪川江)으로 개명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 군업천(郡業川)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대를 흐르는 하천으로 장평리(長坪里) 동쪽 솔치[송치(松峙)]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여러 굽이를 져서 군업리(郡業川)를 거쳐 내삼포리(內三浦里)에서 홍천강으로 유입되어 흐른다.

3) 신내천(풍천천, 楓川川)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일대를 흐르는 하천으로 냇가에 신나무, 단풍나무가 많으

므로 신내, 또는 풍천이라 하였다. 본래 춘천시 동산면 지역으로서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정에 따라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가 되었다. 구성포 남쪽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냇가에 신나무가 많으므로 신내라고 이름 하였으며 또는 풍천이라 마을 이름으로 하였다. 신내는 신나무(단풍나무)에서 '신'자와 '내'를 결합한 지명이기도 하며 신내천은 춘천시 동산면 풍천리 북쪽 사오랑재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화촌면 구성포리(九城浦里) 앞에서 홍천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4) 두촌천(斗村川)

두촌면 괘석리(掛石里) 쇠뿔봉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내촌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장남리의 장남천과 원동리 삼거천, 그리고 천현리 평천의 합류로 천현리 새말(新村)에 이르러 남쪽으로 꺾이어 역내리를 거쳐 철정리 아호(鵝湖)에서 동쪽으로 흘러오는 내촌천(乃村川)과 합류하여 홍천강으로 유입된다. 주로 두촌면의 중앙을 뚫고 흐른다.

5) 내촌천(乃村川)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檢山里) 동북쪽 뱃재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상군두리를 거쳐 풍암리에서 북쪽으로 꺾였다가 여러 굽이를 이루면서 수하리 용호터에서 서쪽으로 꺾여 내촌면의 중앙을 뚫고 흘러 두촌면 철정리(哲亭里) 아호(鵝湖)에서 두촌천(斗村川)과 만나고 합류하여 홍천강으로 유입되어 흘러 들어간다.

6) 덕치천(德峙川)

동면 노천리(魯川里) 부목재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노천리에 이르러 북쪽으로 꺾이어 신봉리(新峰里)를 거쳐 덕치리 둔지(屯地) 앞에서 남쪽으로 오는 성수천(城壽川)을 합하여 홍천읍 검율리(檢律里)에서 홍천강으로 유입되어 흘러 들어간다. 덕치천을 둔지천(屯地川)이라고도 한다.

7) 성수천(城壽川)

동면 동막리(東幕里) 남쪽 오음산(五音山)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성수리(城壽里)를 거쳐 덕치리(德峙里)에서 둔지천(屯地川)으로 흘러 들어간다.

8) 양덕원천(陽德院川)

남면 유치리(楡峙里) 동쪽 느르치[유치(楡峙)]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양덕원(陽德院)에서 북쪽으로 꺾이고 용수리(龍水里)에서 홍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여러 지류와 합쳐지면서 중앙을 북류함으로써 유역인 시동리·유치리·양덕원리 일대에 기름진 평야와 산록완사면이 형성되어 농경지와 생활터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9) 성동천(城洞川)

북방면 북방리 북쪽 대룡산(大龍山)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북방면 성동리(城東里), 화동리(花洞里)를 거쳐 하화계리(下花溪里)에서 홍천강으로 유입(流入)되는데 주로 홍천읍 북쪽이 된다. 조선시대 고지도(古地圖)에는 화양강(華陽江)을 남천(南川)으로 성동천(城洞川)을 북천(北川)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10) 자운천(紫雲川)

자운천은 내면 계방산 준령인 불발령(佛發嶺)[6]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창촌리(倉村里) 남쪽 양수교(兩水橋)에서 조항천(鳥項川)을 합하고 광원리(廣院里) 계천(桂川)에서 오고 동남쪽에서 오는 계천을 합하여 사월평(沙月坪)에서 물굽이를 이루고 월둔동(月屯洞)에서 흐르는 물과 인제 내린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합한다.

11) 계방천(桂芳川)

내면 동쪽의 소계방산(小桂芳山)에서 발원하는 계방천(桂芳川)은 우리나라에서 맑은

물을 자랑하는 내린천의 상류하천이다. 계방천이란 이름은 오대산 줄기인 계방산의 계곡을 적시고 흐르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내린천 발원지인 홍천군 내면 광원리의 을수골 초입에는 7개의 소(沼)를 만들어놓고 흐른다 해서 칠소(七沼)라고도 불리는 칡소 폭포엔 열목어가 산다. 칡소 폭포를 뛰어오른 열목어가 거슬러 오르는 을수골 구경도 좋다. 개울이 '새 을(乙)'자 처럼 굽이 돌며 흐른다는 을수골, 즉 을수동(乙水洞)은 내린천 발원지를 품고 있는 계곡이다.

12) 조항천(鳥項川)

내면 자운리(紫雲里)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다 남서 방향으로 흘러 자운천으로 유입되는 조항천은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계방산에서 발원하여 31번 국도인 운두령로를 따라 자운교차로와 창촌초등학교 운두분교(폐교)를 지나 창촌삼거리 양수교[7]에서, 내면 동쪽의 창촌리 소계방산(小桂芳山)에서 발원하는 계방산과 계방산 준령인 불발령(佛發嶺)에서 발원하여 내려온 자운천과 함께 56번 국도 구룡령로를 따라 사월평교와 원당교를 지나 원당삼거리에서 446번 지방도 내린천로를 따라 자운교와 광원리 가덕동을 지나 내린천에서 한데 모여 소양강으로 흘러간다.

13) 내린천(內麟川)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인 내린천은, 내면에서 인제군 기린면을 지나는 소양강(昭陽江)의 지류이다. 통상적으로 31번 국도를 따라 홍천군 내면에서 인제군 기린면으로 흐른다고 하여 내면과 기린의 면(面) 단위 지명 '내(內)'자와 '린(麟)'자 한자씩 취하여 이름으로 하였다. 국토부의 고시된 하천의 명칭은 내린천을 본류로 보아 기린면에서 방태천(芳台川)과 합류한 뒤를 소양강으로 보지만, '내린천계곡' 관광지 등 방태천 합류점-인북천(麟北川) 합류점을 내린천으로 보기도 한다. 두산백과는 합강리(合江里)에서 인북천과 내린천이 합류해 내린천이 끝난다고 보았다.

내린천은 한편으로 양양군 서면의 복룡산(伏龍山)에서 발원하여 홍천군 내면의 소계방산(小桂芳山)에서 나오는 계방천(桂芳川)과 인제군 기린면 현리(縣里)의 방태천이 합류하여 40여㎞를 흘러내려 소양강 상류 합강에 이르는 계곡을 말한다.

14) 방내천(坊內川)

홍천군 내면 율전리 뱃재 합류점에서 시작하여 사행을 이루며 북쪽으로 흘러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 합류점으로 유입되어 기린면 현리(縣里) 소양강(昭陽江)으로 합류하는 한강수계의 강원도 지방하천이다.

제3장

읍면별 지명유래

1. 읍면별 지명유래

1) 홍천읍(洪川邑)

1895년(고종 32) 홍천현 군내면(郡內面) 지역이었다가 1917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용어로 홍천군 홍천면이 되었다. 1963년 홍천읍으로 승격되었으며 2007년 인구의 증가로 갈마곡6리·연봉9리·10리로 개편입하였다. 『여지도서』에 홍천읍은 현내면 지역으로 진리·희망동리·갈마곡리·태학리·검율리·동막리·연봉리 등 7개 지역의 위치와 호구가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에 현내면 지역에는 관아(官衙)·향교(鄕校)·객사(客舍)·창(倉)·관수당(觀水堂)·연봉역(蓮峰驛)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천감역(泉甘驛)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872년 지방지도』의 읍치에는 교궁(校宮)·사창(司倉)·현아(縣衙)·진창(賑倉)이 표시되어 있다. 주변에는 객사(客舍)·범파정(泛波亭)이 기록되어 있다. 읍치(邑治)는 현재 홍천읍 희망리 부근이다. 주변에는 각 면과 마을 이름이 비교적 소상하게 표시되어 있다. 도로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고 도로변에는 역원명도 기재되어 있다. 연봉리는 이곳에 있었던 연봉역에서 지명이 오래전부터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연봉역은 홍천현 남쪽 5리"에 있으며 『관동지』에는 "연봉역은 현의 남쪽 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원(院)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동지』 방리(坊里)조의 현내면에 "연봉리는 관문에서 남쪽으로 5리 거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명이 마을명으로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동지도』에서 연봉역은 현내면 읍치 근교에 표기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는 현내면 한진교(漢津橋)와 남산(南山) 사이에 표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연봉역은 홍천읍 연봉리 지역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홍천군지』에 "연봉리는 본래 홍천군 현내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보안도(保安道)에 딸린 연봉역이 있던 곳이므로 연봉(蓮峰)"이라고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배목기·관텃골·절골·밤나뭇골을 병합하여 연봉리라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연봉교·연봉역터에서 지명을 엿볼 수 있다.

(1) 진리(津里)

홍천읍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법정리이다. 본래 홍천군 홍천읍(현내면, 군내면)의 지역이었으며, 나루가 있었으므로 나루새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진리(津里)라 하였으며 흔히 진삼거리라고 한다.

- 미륵-당: 진리 북쪽 현 구인당한약방 옆에 있는 미륵당(彌勒堂) 돌부처가 있다.
- 진리-나루새: 진리에서 신장대리의 닥바우로 가는 나루터. 부근에 군용(軍用) 비행장이 있었음. 1910년대까지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홍천의 5일장이 형성되었다 한다.
- 악-거리[옥(獄)거리]: 진리 안쪽에 있었다는 마을. 옛 홍천현(洪川縣)의 감옥(監獄)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었으나 지금은 이 지명을 아는 이가 드물 정도로 오래전에 잊혀진 지명이 되었다.
- 진리 비행장: 진리 동쪽에 있는 군용(軍用) 비행장. 1954년경에 생겼다가 1970년대에 현재의 소재지인 태학리(太學里) 큰 터로 옮겨졌다.

(2) 신장대리(新場垈里)

홍천읍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로서 본래 홍천군 홍천읍(현내면)의 지역이었으며, 새로 전통 5일장이 섰으므로 새 장터 또는 신장대(新場垈)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터를 병합하여 신장대리라 하였으며, 1985년 5월 1일 3개 행정리로 분리되어 2018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새장-터[신장대(新場垈)]: 새로 장(場)이 섰으므로 새 장터 또는 신장대(新場垈)라 하였다.
- 장-터: 새장터 위에 있는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장터거리로 장터 마을이다.

(3) 희망리(希望里)

홍천읍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로서 본래 홍천읍(현내면)의 지역이었으며, 희망동(希望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숲밭, 개때배기, 오리정을 병합하여 희망리라 하였다.

- 개때-배기: 희망리 남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 홍천당간지주(洪川幢竿支柱)가 있다.
- 마제기-고개[마제현(馬蹄峴)]: 희망리에서 북방면 화동리로 가는 고개. 지형이 말굽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서낭당-산: 희망리 서쪽 3리쯤 되는 곳에 있는 지야골[지야곡(之也谷)] 마을로 서낭당이 있다.
- 성여동(城餘洞): 희망리 서쪽 3리쯤 되는 곳에 있는 지야골[지야곡(之也谷)] 마을로 성재밑이 된다.
- 성-재[성치(城峙)]: 성여동(城餘洞) 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고지도에도 표기된 지명이다. 산 위에 돌로 쌓은 옛 산성(山城)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흔적이 약 900m쯤만 남아 있다.
- 숲-밭: 나무가 무성했던 곳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앞-다리[전교(前橋)]: 희망리 앞에 놓인 다리이다.
- 여제단(厲祭壇): 희망리 북쪽에 있는 홍천현의 여역신(厲疫神)을 모시던 여제단의 터가 있던 곳으로 오래전부터 이름이 붙여졌다.
- 오리정(吾里亭): 희망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손님을 보내고 맞이하던 오리정이 있었다고 하여 연유한 지명이다.
- 오리정 배터: 오리정(吾里亭)에 있는 나루터이다.
- 잣-고개: 희망리에서 북방면 하화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홍천여고 뒷산 '야자산(也字山)' 정상부에 야자산성지(也字山城址)가 유적으로 남아 있다. 현재 기록이 없어 홍천군청에서 석화산(石花山)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석화산성지(石花山城址)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이곳 지명은 성(城)을 뜻하는 옛말 '잣'에 어원을 둔 지명으로 성(城)이 소재하고 있는 성 앞의 고개라는 뜻으로 잣고개라고 지명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이다. 1910년대 홍천읍(현내·군내면) 『조선지지자료』 동리촌별 지명의 영치현명

(嶺峙峴名)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본식 한자지명으로 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고유의 의미 깊은 산성(山城)과 관련된 지명을 일제가 통치수단으로 잣과는 관련 없는 잣고개[백현(柏峴), 백치(柏峙, 栢峙)][8]로 명명한 것이다.

- 지야(之也) 서낭당[성황사(城隍祠)]: 성재[성치(城峙)] 아래 지야골[지야곡(之也谷)]에 있던 홍천현의 성황사 터이다.
- 학-다리[학교(鶴橋)]: 학명루(鶴鳴樓) 아래에 있는 다리이다. 북쪽에서 홍천강으로 흘러드는 개울이 있었으나 십수 년 전 복개되었다. 현재 홍천감리교회 옆에 학-다리에 대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학명루(鶴鳴樓): 윤지(尹志)라는 사람이 홍천고을 수령(守令, 縣監)으로 부임하여 객관(客館)의 동쪽에 누대(樓臺)를 세웠다. 누대 이름을 묻자, 한 마을 어른이 "이 객관(客館, 客舍) 앞 수십 보 거리에 학다리[학교(鶴橋)]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는 날 학(鶴)이 날아와서 울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입니다. 청컨대 학(鶴)은 이 고을의 상서(祥瑞)이니 누대 이름을 학이 날아와서 울었다는 이야기에 연유시켜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현감 윤지는 이 노인의 뜻에 따라 누대 이름을 '학명루(鶴鳴樓)'라고 지었다고 전해진다.
- 학명루 터: 희망리에 있었던 학명루(鶴鳴樓) 정자의 터로 조선조 1448년(세종 30)에 도임한 홍천현감 윤지(尹志)가 1450년 가을에 낙성식 때 여러 선비들과 마을 어른들을 초청하여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어 놀았다고 전한다.
- 향교-골[향교동(鄕校洞)]: 희망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향교가 소재한 마을이라 만들어진 지명으로 현 홍천군청과 홍천향교 부근이다.
- 호국사(護國寺): 희망리 북쪽 산에 있는 사찰로 1947년 임수화가 처음 세운 절이다.
- 홍천교[洪川橋, 한다리, 한교(漢橋), 한진교(漢津橋)]: 희망리 앞 홍천강 나루터에 있는 큰 다리(한다리, 漢橋)로 고지도(古地圖)에 여러 곳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4) 갈마곡리(葛麻谷里)

홍천읍의 동북쪽에 위치한 법정리로서 본래 홍천군 홍천읍(현내면, 군내면)의 지역으로 갈마곡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화양교 건너편 남산쪽의 짓골, 속개, 닥바우를 병합하여 갈마곡리라 하였다.

- 감투-봉: 남산(南山)에 있는 몇 개의 봉우리중 한 봉우리로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이 쓰던 의장용 모자와 같이 감두(坎頭·甘頭)처럼 모양새가 턱이 없이 민틋하게 생겨져서 붙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 관수당(觀水堂) 터: 홍천 관아(官衙)와 객사(客舍) 정남향으로 범파정(泛波亭) 서쪽 울타리 밖에 있었던 정자의 터. 바로 앞 아래에 홍천강이 흐른다.
- 남산(南山): 갈마곡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홍천읍 관아가 있는 진산(鎭山) 석화산(石花山)에서 홍천강 건너 정남향의 남쪽에 소재한 산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 남산의 거북등: 남산 아래에 있는 산.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좋은 산소 자리로 명 당자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 닥바우(鷄岩): 닥바우 마을 서쪽 홍천강가에 있는 큰 바위. 1925년 홍천강이 범람하였을 때 닭이 떠내려 오다가 바위에 걸려서, 이 바위 위에 올라가 홰를 치면서 울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 닥바우 나루터: 홍천읍 진리(津里)에서 갈마곡리 닥바우로 건너가는 나루터이다.
- 닥바우-들: 닥바우 마루 위에 있는 들이다.
- 닥바우 빨래터: 닥바우 바위 옆에 있는 빨래터로 예전부터 마을사람들이 사용한 곳이다.
- 닥바우 약수터: 닥바우 바위 옆에 있는 약물[藥水]터로 속병에 좋다고 전해진다.
- 뒤-꾸렁이[후항(後巷). 뒷구래이, 뒤근애]: 홍천읍 뒤쪽 구렁[구학(溝壑):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있는 마을이다.
- 범파정(泛波亭) 터: 홍천현 관청에서 남쪽 약 400m쯤 떨어져 있는 홍천강가에 있던 정자(亭子)의 터이다.
- 새-마을[신촌(新村), 짓골, 칫골, 우곡(羽谷)]: 닥바우 동북쪽 짓고개 아래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매월 1일·6일에 5일장인 우(牛)시장이 섰다.
- 새미정-구미: 사미정으로 가는 후미를 말한다.
- 새미정-소: 사미정 밑에 있는 소(沼)이다.
- 소옥-개[이천(裏川)]: 닥바우 서북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 전에는 황무지였던 곳인데, 근년에 이룩되었다.
- 속개-늪: 소옥개에 있었던 늪.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다.
- 속개-들: 소옥개 앞에 있는 들을 말한다.

- 속개-버덩: 속개에 있는 들. 지금은 개간되어 있다.
- 양망헌(兩望軒) 터: 홍천현 객사(客舍)의 문루(門樓)인 범파정(泛波亭) 동쪽 담장 울타리 옆에 있던 마루집 터이다.
- 절-터[마을]: 남산과 짓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 고려 때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는데, 현재는 기와 조각만이 남아 있다.
- 짓-고개[우령(羽嶺), 칫칙고개]: 새마을에서 동면 성수리 아래숫골로 가는 고개이다. 세상에 알려지기는 학다리[학교(鶴橋), 남교(南橋)]에 모였던 학(鶴)들이 우령(羽嶺) 이 짓고개를 지나가다가 깃을 떨어뜨렸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전한다.
- 큰-골[대곡(大谷)]: 갈마곡리에 있는 큰 마을이라 '대곡(大谷), 큰 골, 큰 말'이라고 부른다.

(5) 검율리(檢律里)

홍천읍 동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서 본래 홍천군 현내면 송유리(松柳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뿌리, 음달말을 병합하여 검율리라 하였다.

- 당뿌리[당록(堂麓)]: 검율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오성산(五星山)의 서쪽 기슭이다. 당뿌리는 오성산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독산(獨山)에 가까울 정도로 검율리 일대에서 산이 우뚝 솟아 있는 산 끝자락에 위치한 마을이며 옛 당제 고개 끝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한자식 표현인 당록(堂麓)의 '당(堂)'은 '산'을 의미하며 '록(麓)'은 산기슭 끝자락을 의미하는 지명이다.
- 성째, 성재[성전(城前), 성치(城峙)]: 검율리 당뿌-리(당록) 동쪽에 위치한 오성산(五星山)에 정상에 있는 산성(山城)이 있는 마을 앞에 있는 고개이다.
- 야루정(耶樓亭, 야루재)마을: 당뿌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야루정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야루정 터[야유정(冶遊亭) 터]: 당뿌리 동쪽 오성산(五星山) 위에 있었던 정자의 터이다.
- 응달-말[음촌(陰村)]: 응달이 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이괄-바우[이괄암]: 당뿌리 동쪽 오성산 위에 있는 큰 바위. 이괄(李适)이 무술을 닦을 때 바위 위에서 자기 첩(妾)을 떨어뜨리고 뛰어 내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두 손

으로 받아 올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 이괄이-소: 이괄바위 밑에 늪이 있는 소(沼)이다. 이괄이 여기에서 목욕을 했다고 전한다. 전에는 깊이 6~7m 되었는데, 길을 내기 위하여 이괄바위와 산을 허는 바람에 소(沼)가 메워져서 현재는 깊이 3m 정도라 한다.
- 화냥-바우: 홍천읍 동쪽 약 2km 화양강가에 있는 양쪽으로 괴인 돌 위에 얹혀 있는 바위 이름이다. 그 밑에서 사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져서 화냥질이 생긴다 하여 검율리 마을에서 이 바위를 없애려고 허물어 버렸더니 더욱 풍기가 문란해져서 다시 그대로 놓아두었다 한다.

(6) 와동리(瓦東里)

홍천읍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현내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새터, 와촌, 동막을 병합하여 와촌(瓦村)과 동막(東幕)의 이름을 따서 와동리라 하였다.

- 광복사(光復寺): 와촌 동쪽 산에 있는 절. 1942년에 이성렬이 창건했다.
- 대광사(大光寺): 새터 서쪽 산에 있는 절. 1938년 10월에 이성춘이 창건했다.
- 동막리(東幕里): 산막이 있던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새-터[신대(新垈)]: 와촌 동쪽에 있는 마을. 수백 년 전부터 춘천박씨(朴氏)가 세거(世居)하였으며, 지금도 세족(世族)마을을 이루고 있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와촌(瓦村): 동막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집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작은 새터[중샛터, 중신대(中新垈)]: 새터의 작은 마을. 큰새터와 와촌 사이에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큰-새터: 새터의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7) 결운리(決雲里)

홍천읍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화촌면 지역이었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고 사미정 이구(李龜)가 이곳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1523년

벼슬에서 물러나 홍천으로 돌아온 그가 이곳에 은거(隱居)하기로 작정하고, '은거를 결심하였다' 하여 마을 이름을 '결은(決隱)'이라 하였다. 그런 연유로 400여 년이나 결은리(決隱里)로 불려왔다. 1914년 일제가 국토측량을 하고 행정구역을 통폐하였다. 이에 따라 결은(決隱), 둔지(屯地), 점말[점촌(店村)]을 병합하여 결운리로 마을 이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전래되어 아직까지 겨룬이 또는 결운리(決雲里) 불리고 있다.

- 결운-교: 결운리 앞에 있는 다리. 1964년 11월에 준공되었다.
- 둔지(屯地): 결운리 북쪽 둔덕이 진 곳에 있는 마을로 둔지(屯地)라 이름하였다.
- 안양사(安養寺): 결운리 서북쪽 두루봉에 있는 절]로 약 90여 년 전 안양섭(安養燮)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 점-말[점촌(店村)]: 결운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 말 천주교도들이 탄압을 피하여 100여 년 전 이곳으로 피신하여 옹기(甕器)를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었던 곳이다.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이라 지명이 붙여진 이름으로 옹기점 말이라고 하였다.

(8) 태학리(太學里)

홍천읍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화촌면의 지역이었으며, 대기(大基), 대기촌(大基村), 대기말, 대기마을 또는 큰 터, 태학리(太學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기, 여냇골을 병합하여 태학리라 하여 홍천면(洪川面, 현 홍천읍)에 편입되었다.

- 대기(大基): 대기마을 또는 큰 터, 대깃-말, 대기(大基), 대기촌(大基村)이라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여냇골을 병합하여 태학리(太學里)라 새로 지명하였다.
- 망짓-골: 여냇골[여내, 호천동(狐川洞)] 안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살던 엄씨(嚴氏)가 조상 산소(山所)를 잘못 써서 망했다고 전한다.
- 양지-말: 대기(大基) 큰 터 양지(陽地) 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여냇-골[여내, 여우내 골, 연애골, 호천동(狐川洞)]: 대기(大基)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개울물이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다가 마을 앞에 이으러 갑자기 물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 음달-말[음지촌(陰地村)]: 양지말 동쪽 음지(陰地) 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9) 연봉리(蓮峰里)

홍천읍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현내면 지역이었으며, 조선시대 때 춘천도호부 보안도(保安道)에 딸린 연봉역(蓮峰驛)이 있던 곳이므로 연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배목기, 관텃골, 절골, 밤나뭇골을 병합하여 연봉리(蓮峰里)라 하였다.

- 관텃-골[관대(官垈)]: 연봉 남쪽 서울 방향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때 역원제도에 따라 연봉역이 설립되어 있었으므로 붙여진 지명으로 역말, 역마을, 역촌(驛村)이라고도 하였다.
- 밤나뭇-골[율목동(栗木洞)]: 관터[관대(官垈)] 동쪽으로 밤나무가 많았던 마을. 현재 영안(永安)모자 공장인 백학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배-목기[배무기, 배메기, 포항촌]: 연봉 서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 서울로 오르내리던 배가 쉬어 갔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새-말[샛말, 신촌(新村), 간촌(間村)]: 안말과 연봉 사이에 새로 형성된 마을 이름이다.
- 안-말[내촌(內村)]: 홍천에서 인제(麟蹄)로 가는 길 안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 연봉교(蓮峰橋): 연봉삼거리 검문소 앞에 있는 다리이다.
- 연봉역 터: 관터에 있는 조선시대 때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보안도(保安道)에 딸린 연봉역이 있었던 터이다.
- 오리나무-정: 연봉 북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 오리나무 정자가 많았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절-골: 남산과 짓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10) 하오안리(下吾安里)

홍천읍 서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금물산면(남면)의 지역이었는데, 오안리(吾安里) 아래쪽이 되므로 하오안리(下吾安里)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시울, 굴골, 도새울, 둔지미, 오리나무정을 병합하여 하오안리라 하여 군내면(郡內面)에 편입되었다.

- 개산곡(開山谷): '개산골, 열산골, 여산골, 여산곡(呂山谷), 을산골'이라고도 불리며, 둔짐산(노적봉) 아래 있는 둔지미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 골자기가 길게 늘어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또한 둔짐산(노적봉) 아래 있는 첫 번째 마을로 둔짐산을 여는 마을이라 개산골, 개산곡(開山谷)이라 붙여졌다고 한다.
- 구시-울[구실, 구곡(玖谷)]: 둔지미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하천마을로 주변의 평야가 비옥하며 곡식의 열매가 잘 여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구시울 약수터: 구시울 안에 있는 약물터이다.
- 굴-골[굴곡(屈谷)]: 양짓말 남쪽에 있는 마을. 서쪽 산에 굴바우가 있다.
- 굴-바우: 양짓말 서쪽 산에 있는 큰 바위. 굴이 뚫렸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도새-울[도사골, 도사곡(都沙谷), 양짓말, 양지촌(陽地村)]: 굴골 북쪽에 있는 마을. 모래가 많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도새울-고개: 도새울에서 북방면 장항리 사시락골로 가는 고개이다.
- 둔지미(屯地尾): 둔짐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둔지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둔짐-산[노적봉]: 하오안 동북쪽 둔지미 뒤에 있는 산으로 곡식 따위를 한데 수북이 쌓아놓은 노적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노적봉이라 하였다.
- 상오리목정(上吾里木亭): 오리나무정 위쪽 마을이다.
- 양지교(陽地橋): 양짓말 앞에 있는 다리이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놓았다.
- 열산-골[여산곡(呂山谷), 개산곡(開山谷)]: 둔지미 서쪽에 있는 마을로 긴 산골자기 마을이라는 뜻과 산골짜기 첫 번째로 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오리나무-정[판사곡(板沙谷)]: 굴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오리나무가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11) 상오안리(上吾安里)

홍천읍 서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금물산면(남면)의 지역이었으며, 오안리(吾安里) 위쪽이 되므로 상오안리(上吾安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웃말[상촌(上村)], 새술막[신주막(新酒幕)], 공골[공곡(貢谷)], 며느리고개말[부치촌(婦峙村)], 청룡우(靑龍隅)를 병합하여 상오안리라 하였다.

- 공-골[공곡(貢谷)]: 며느리고개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 어귀에 공골폭포가 있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공골-교: 공골 앞에 놓인 다리를 말한다.
- 공골-재[공곡치(貢谷峙)]: 공골 남쪽에서 신대리로 가는 재이다.
- 공골 폭포수: 공골 어귀에 있는 폭포로 높이 약 30m. 큰 바위가 마치 폭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며느리-고개[붙이, 부치, 부현치(婦峙, 婦峴峙)]: 며느리고개말 남쪽에서 남면 월천리(月川里)로 가는 고개. 옛날 몹시 가난한 어느 며느리가 한겨울에 이 고개를 넘다가 얼어 죽었다 하여 붙여진 고개이름이다.
- 며느리고개-말[부현촌(婦峴村)]: 새술막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며느리고개 아래가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밤나뭇-골: 상오안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아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새-술막[신주막(新酒幕), 새술말]: 상오안 동쪽에 있는 마을.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샛-말[간촌(間村)]: 상오안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석장-재[석장치(石葬峙)]: 상오안에서 북방면 장항리 사시락골로 가는 재. 옛 무덤이 있음으로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신선-바우: 매화산 위에 있는 크고 넓은 바위이다. 옛날에 신선(神仙)이 내려와 놀고 갔다는 전설이 전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 양지-말[양지촌(陽地村)]: 상오안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오안리(吾安里): 상오안리와 홍천읍 하오안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 웃-말[상촌(上村)]: 상오안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우(靑龍隅): 풍수지리학상 상오안의 청룡이 되는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12) 장전평리(長田坪里)

홍천읍 서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남면(금물산면)의 지역이었으며, 긴 밭이 있으므로 긴밭들 또는 장전평(長田坪)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갈골[갈곡(葛谷)], 논꼴[답곡(畓谷)], 먹실[묵실(墨室), 묵곡(墨谷)], 안흥리(安興里), 지둔지(榛屯地)를 병합하여 장전평리라 하여 현내면(홍천읍)에 편입되었다.

● 긴밭들[장전평(長田坪)]: 홍천읍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농경지인 밭이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밭들' 이라고도 한다.
● 갈-골[갈곡(葛谷)]: 밧먹실 북쪽에 있는 마을로 칡(葛)이 많았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논-꼴[답곡(畓谷)]: 긴밭들 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논[답(畓), 수전(水田)]이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 논꼴-재[답치(畓峙)]: 논골에서 동면 삼현리(三峴里)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먹-실[묵실(墨室), 묵곡(墨谷)]: 긴밭들 동남쪽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긴밭들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먹실-고개[묵곡현(墨谷峴)]: 안 먹실에 있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밧-먹실[외묵곡(外墨谷)]: 먹실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성산-터[성산대(城山垈), 벼루천지]: 긴밭들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 성터가 있어서 딴 세상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하여 또 다른 지명으로 별천지(別天地)라 붙여진 이름이 음운변화 되어 별천지>벼루천지가 되었다.
● 안-먹실[내묵실(內墨室)]: 먹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안흥(安興): 밧먹실 동남쪽에 있는 아늑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전쟁 같은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양지-말: 진둔지 북쪽에 위치한 남향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옥녀-동: 긴밭들 남쪽 옥녀 폭포 옆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옥녀-폭포: 옥녀동(玉女洞) 옆에 있는 작은 폭포(瀑布)이다. 옥녀(玉女)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장승-배기: 긴밭들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절-골[사곡, 사동(寺谷, 寺洞)]: 밧먹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진둔지(榛屯地): 갈골 북쪽에 있는 개암나무 등 잡목 숲이 무성한 마을로 지형이 매우 길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3) 삼마치리(三馬峙里)

홍천읍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남면(금물산면)의 지역이었으며, 횡성과의 경계인 삼마치고개 아래 마을이라 하여 '사무라치(일제강점기 일본식 표기)' 또는 삼마치(三馬峙)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너픈터, 독골, 솔골, 새말, 원터를 병합하여 삼마치리라 지명하고, 1962년에 홍천읍에 편입되었다.

- 귀영-고개[조치(槽峙)]: 솔골에서 우에너픈터(위높은터)로 가는 고개이다. 모양이 마치 외양간 소 구유(귀영, 귕, 여물통)같이 생겼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 너픈-터[고대(高垈)]: 솔골 남쪽 높은 지대(높은 터)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독-골[독곡(篤谷)]: 아래 노픈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독을 만들던 곳으로 아래 높은터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두멍-안[샘터골]: 오음산에 있는 골짜기. 큰 샘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삼마치(三馬峙): 원터에서 남면 상창봉리(현재는 횡성군 공근면 소재)로 가는 고개. 홍천읍에서 제일 높고 험한 고개라서 세 마리의 말을 갈아타고 넘어 다녔다 하여 삼마치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 다섯 마리의 용마(龍馬) 중 세 마리가 왜군이 쏟아부은 구리에 묻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 삼마치 약수터: 삼마치고개 밑에 있는 약수(藥水)로 속병에 좋다고 전해졌던 곳이다.

- 새-말[간촌(間村), 샛말]: 큰말과 솔골 사이에 있는 마을임으로 새말, 샛말, 한자식으로 간촌(間村)이라고 붙여진 지명이다.
- 솔-골[송곡(松谷)]: 삼마치고개 아래 첫 번째 남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소나무가 많아서 솔-골, 또는 송곡(松谷)이라 붙여졌다.
- 아래-너픈터[하고대(下高垈)]: 너픈터(높은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양지-말[양지촌(陽地村)]: 삼마치 고개 동쪽 양지편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우에-너픈터[상고대(上高垈)]: 너픈터(높은터)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원-터[원대(院垈), 원거리]: 삼마치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원(院)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 중간-터[중고대(中高垈)]: 아래 너픈터[높은-터]와 우에 너픈터[높은-터] 사이에 있는 중간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큰-말[대촌(大村)]: 삼마치 서쪽에 있는 큰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홍천읍(현내·군내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나르쇠	나르쇠	津里(나루새)	진리에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진리에 편입				
	조선지지	鄕校洞	향교골	希望里(향교골)	희망리에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희망리에 편입				
	조선지지	場垈	장터	장터	신장대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신장대리에 편입 옛날 장터 지칭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鷄岩里	닥바위	닥바위	갈마곡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갈마곡리에 편입 지금은 갈마곡리 큰골				
	조선지지	後巷村	뒷구레이	뒷구레이, 뒷구렁이 뒤근애	갈마곡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갈마곡리에 편입 샘통골 입구				
	조선지지	新村	새말, 짓골	새말, 짓골, 새마을	갈마곡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갈마곡리 편입, 닥바우 동북쪽 짓고개 아랫마을				
	조선지지	당부리	당부리	당부리	검율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검율리에 편입				
	조선지지	구렁말	구렁말	구렁말	연봉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연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間村	샛말	샛말	연봉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연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布項村	포항촌	배목기, 배무기	연봉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와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新垈(샛터)	신대(샛터)	신대(샛터)	와동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와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瓦村	와촌	와동(瓦東)	와동리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동막리와 와촌을 와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鐵洞(무쇠골)	무쇠골	무쇠골(水鐵洞)	와동리 편입
山名	石華山	석화산	石華(石花)山	홍천군청 뒷산	
	也字山	야자산	석화산	희망리 홍여고 뒷산	
	龜背山	구배산	구배산 (거북등산)	갈마곡리 남산 아래 산	
谷名	之也谷	지야골	지야골	희망리 홍여고 뒷산	
	泉谷 (샘통골)	천곡(샘통골)	샘통골	희망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谷名	小谷	작은골	작은골	갈마곡리	
	大谷	큰골	큰골	갈마곡리	
	雲霧谷	운무골	운무골	갈마곡리	
	羽谷(깃골)	깃골	짓골, 짓고개(羽嶺)	갈마곡리	
	寺谷	절골	절골, 절터	갈마곡리	
嶺峙峴名	栢峙	잣고개	잣고개	희망리	
	馬蹄峴	마제기고개	마제기고개(馬峴)	희망리	
	羽嶺	짓고개	깃고개, 짓고개	갈마곡리	
古碑名	元萬春碑	원만춘비	縣監元萬春淸白善政永世不忘碑	元萬春(1629~1697)希望里所在郡民共立淸白善政碑,現洪川歷史館所藏	
	李世白碑	이세백비	縣監李世白善政碑	李世白(1635~1703)津里所在 郡民共立善政碑	
古蹟名	巢嶋亭	소도정	巢鶴亭	희망리	
	大彌山城	대미산성	大彌山城(李适山城)	檢律里 今無	
	之也山城	지야산성	石花山城	希望里 今無	
酒幕名	後巷酒幕	뒤구레이쥬막		갈마곡리	
	五里程酒幕	오리정쥬막		희망리	
渡津名	漢橋津(한다리나루)	한다리나루	한다리나루	희망리	
	鷄岩津	닥바위나루	닥바위나루	갈마곡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市場名	新場垈 (새장터)	새장터	장터	신장대리	
野坪名	孔枰 (구녕뜰)	구녕뜰	구녕뜰(공평)	검율리	
	五里程坪	오리정뜰	오리정뜰	희망리	
	軍器坪	군기뜰	군기뜰	희망리	
堤堰 洑名	五里程堰	오리정제언		희망리	
	孔枰洑 (구녕뜰보)	구녕뜰보		검율리	
江川溪 澗名	華陽江	화양강	화양강	진리	
驛名	蓮峰驛	연봉역	연봉리	연봉리	

2) 화촌면(化村面)

1895년(고종 32)에 홍천군이 되어 현내면, 화촌면, 두촌, 내촌, 서석, 영귀미(동면), 감물악(서면), 금물산(남면), 북방면 등 9개 면을 두었을 때 화촌면(花村面)이라 명명되었다. 그 후 1917년 현재 불리고 있는 화촌면(化村面)이라 명명되었다.

(1) 성산리(城山里)

화촌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로서 옛 성(城)이 있었다고 하며 구성포리 쪽에 있는 진등고개 산이 마치 성을 쌓은 것 같다 하여 성산(城山)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앞말, 뒷말, 일건, 새말, 원평, 석정동, 답골, 점촌 등을 병합하여 성산리라 하였다.

● 밭달-뜰: 성산 앞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논이 있는 뜰로 성산리에서 제일 좋은 논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백이교(白二橋): 백이동 앞에 있는 다리이다. 1928년에 놓았다.
- 백이동(白二洞): 성산 남쪽 들 안에 있는 마을이다. 지명 유래는 과거 골짜기에 집들이 102 가구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새-말[신촌(新村)]: 원평 북쪽 약 120년 전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1860년경 최화영씨가 처음으로 자리하여 개척하였다고 한다.
- 성산교(城山橋): 성산 북쪽에 있는 다리로 홍천과 인제로 통하는 44번 국도로 연결되는 다리인데, 6·25 때 파괴되고, 1962년에 다시 놓았다.
- 성산장(城山場): 성산리에 있는 화촌면의 전통 5일장의 장시(場市)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창설하였는데, 6·25 동란으로 외삼포로 옮겼다가, 21년 후에 다시 옮겨 왔으나 현재는 폐쇄(閉鎖)되었다.
- 속새-둔지: 성산 앞 둔지에 있는 마을로 속새가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원평(院坪, 遠坪): 성산 서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고을 원님이 행차 때 쉬어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원평교(院坪橋): 원평 앞에 놓였던 다리이다. 1953년 군용 도로로 쓰였는데, 1965년 장마로 유실되었으나 새로 복구하였다.
- 일건(日乾): 성산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건답(乾畓)이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터: 성산리에 전통 5일장이 있는 마을.
- 점-말[옹기말, 옹촌(甕村)]: 성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100여 년 전 천주교인(天主敎人)들로서 귀양살이 온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옹기점을 경영한 연유로 붙여진 지명이다.

(2) 구성포리(九城浦)

화촌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로서 본래 홍천군 화촌면 지역이었으며, 홍천강 물이 아홉 굽이를 돌아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구성포(九城浦)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정지내, 도심리, 기와집말, 오리술말, 신내, 돈도루, 광석돌, 갈골, 무랭이를 병합하여 구성포리라 하였다.

- 갈-골: 물수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갈밭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곡석현(曲石峴): 백이동에서 춘성군 동산면 풍천리 신기로 가는 고개이다.
- 광석-들[광석평(廣石坪)]: 논틀말 북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넓은 바위가 있으므로 광석평이라고도 한다.
- 기와집-말[와가촌(瓦家村)]: 물수터[수철대(水鐵垈)]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집이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논틀-말[답기촌(畓機村)]: 오리숲 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논이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도침리(都沈里, (都十里): 기와집-말로 화촌면에서 서북쪽 제일 끝에 있는 마을이다.
- 돈도루 배터: 돈도루[돈두루, 돈뚜루, 돈-뜰, 전평(錢坪)]에서 외삼포리의 건금리(乾金里)로 건너가는 홍천강에 있는 나루터이다.
- 돈-두루[돈두리, 돈뚜루, 돈-뜰, 전평(錢坪)]: 신내신-내[정지내, 풍천(楓川)]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토질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풍요로운 들이란 뜻과 마치 지형이 옛날 돈 모양으로 구성포(九城浦)에서 휘어 돌아 돈들, 돈뚜루, 돈두리, 전평이라고도 불린다.
- 둔덕-이[둔덕리(屯德里)]: 구성포 북쪽 둔덕에 있는 마을이다.
- 무랭-이[수왕동(水旺洞), 무랑이]: 논틀-말[답기촌(畓機村)]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여러 골짜기에서 냇물이 흘러와 물이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물수터[수철대(水鐵垈)]: 무랭이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무쇠점이 있었다는 연유로 붙여진 지명이다.
- 백이교(栢二橋): 백이동 앞에 있는 다리임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이동(栢二洞): 광석들 북쪽에 있는 마을로 과거 골짜기 집들이 102호(戶)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뱀개-소: 구성포 앞에 있는 소(沼)로 큰 구렁이가 있어서 부근에 매뒀던 소(한우)를 잡아먹었다 한다.
- 사태-골: 구성포리에 있는 마을로 장마철이면 사태가 잘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말: 약 70~80년 전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내[정지내, 풍천(楓川)]: 구성포 남쪽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냇가에 단풍나무가 많으므로 신내, 또는 풍천이라 마을 이름으로 하였다. 신내는 신나무(단풍나무)에서

'신'자와 '내'를 결합한 지명이다.

- 신내-교(풍천교): 신내[정지내, 풍천(楓川)] 앞에 있는 다리이다.
- 안-구만이(內九巒里): 구성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오리숲-말(오림동, 오림촌): 둔덕이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는 오리나무 숲이었다 한다.
- 작은 도십리(小都十里): 도십리 안의 작은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진등-고개(長峴): 진등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또는 신내 북쪽에 있는 긴 고개로 성산리 백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3) 송정리(松亭里)

화촌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홍천읍에서 44번 국도변에 8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편에 흐르는 홍천강을 끼고 있으며 옛날 소나무가 많았고 정자가 있어 송정이라 불리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만내동, 새점말을 병합하였다.

- 만-내[만천(萬川)]: 송정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 골짜기에서 냇물이 모두 흘러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만내-고개[만천현(萬川峴)]: 만내에서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새-점말[신점촌(新店村)]: 만내 서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토기점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용-바우: 송정 앞 홍천강[화양강(華陽江)]가에 있는 바위로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용이 나왔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웃-말[상촌(上村)]: 송정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4) 내삼포리(內三浦里)

화촌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의 옛 고을터였다 하며, 삼정포(三汀浦)의 안쪽이 되므로 내삼정포 또는 내삼포라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렁말, 사창굴, 노냇골을 병합하여 내삼포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복골, 가망골, 노내골 등의 골짜기도 있으며, 이곳엔 지금도 대궐 터가 있다고 한다.

- 구렁-말: 내삼포 서북쪽 산 구렁에 있는 마을로 산 구렁에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논엣-골[논냇-골]: 구렁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논이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논냇-골이라고도 한다.
- 사창-골: 구렁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골 안에 나라의 양곡창고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전해진다.
- 삼포[三浦, 삼정포리(三汀浦里)]: 내삼포리와 외삼포리(外三浦里)에 걸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서 두 냇물이 합수하여 삼각주를 이룬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또한 '삼포'는 강이 휘감아 도는 굽이마다 골짜기를 이루며 맑은 계곡물이 흘러드는 곳 셋이다. 세 곳의 나루터는 '성산(城山)'과 '건금리(乾金里)'로 '성포(城浦)나루'와 '일건(日乾)'에서 '대평(大坪)'마을로 '삼포나루', '구성포(九城浦)'에서 '대평(장거리)'마을로 건너다니던 '대진나루' 세 곳이다. '성포(城浦)'와 '삼포(三浦)'·'대진(大津)'을 합쳐 '삼포'라 했다고 한다.

(5) 외삼포리(外三浦里)

화촌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본래 홍천군 화촌면의 지역으로서, 홍천현의 현감을 이곳에 설치하였다고도 한다. 지명은 삼정포의 바깥쪽이 되므로 외삼정포 또는 외삼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건금리(乾金里), 대평리(大坪里)를 병합하여 외삼포라 하였다.

- 가마-소: 옻나무여울 안에 있는 큰 소가 가마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건금리(乾金里): 외삼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논이 적고 밭은 많았으나 비옥하지 못해 생긴 지명이다.
- 대진교(大津橋): 외삼포에서 성산리 성산(城山)으로 가는 홍천강에 있는 대진나루터에 놓인 다리로 1959년에 건설되었고 그 후 새로 준공하였다.
- 대진-나루터: 외삼포에서 성산리 성산(城山)으로 가는 홍천강에 있는 나루터로 지금은 대진교가 놓여 있다.
- 대평-들: 대평리(大坪里)에 있는 큰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평리(大坪里): 건금리(乾金里) 서남쪽 들에 있는 큰 뜰 마을이다.

- 무랭이[수완(水頑)]: 건금리 서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산골 물이 많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산초울 마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 2리의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산초울'로 불리고 있는 지명은 푸른 산과 풀, 넘실거리는 개울이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삼포[三浦, 삼정포리(三汀浦里)]: 내삼포리와 외삼포리에 걸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서 두 냇물이 합수하여 삼각주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성포·삼포·대진을 '삼포'라 했다.
- 선-바우: 옻나무여울 가에 우뚝 서 있는 큰 바위로 높이 10m이다.
- 수리께[수리포]: 건금리 안 홍천강가에 있는 들이다. 전에는 잡초가 우거진 곳으로 수리포라 하였는데, 1965년에 개간하여 논이 되었다.
- 수리께-버덩: 수리께 옆에 있는 버덩으로 풀이 무성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옻나무여울[칠탄(漆灘)]: 옻나무여울 옆에 있는 마을로 또는 건금리 동남쪽 개울에 있는 여울이다. 여울 윗 산에 옻나무가 많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옻나무여울약물터: 옻나무여울 옆에 있는 약물터로 옻오른 데 바르면 곧 낫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일감재(一鑑齋) 터: 화서 이항로의 별업(別業)으로 '일감재' 앞에 '송방당(松方塘)'이라는 연못을 조성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강학처가 있었던 터이다.
- 장터-거리: 대평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6·25 전쟁 후 성산리에 섰던 전통 5일장이 옮겨와 2년간 서다가 다시 성산리로 옮겨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6) 야시대리(也是垈里)

화촌면 동북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야시대 골짜기는 깊다. 지형이 야(也)자를 닮아 야시대라 부른다. 그런 까닭에 숨은 골짜기가 많고 들판이 넓다. 또는 '들 야(野)'자를 써서 야시대(野是垈)라고도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에 따라 무랭이, 무지기, 벌말, 갈공터를 병합하여 야시대리라 하였다.

- 갈공-터[갈공대(葛公垈)]: 절골 북쪽에 있는 마을. 갈씨가 살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무랭-이[물골, 수왕동(水旺洞), 수동(水洞)]: 갈공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무지-기[무직항(無直項)]: 갈공터 서북쪽 깊은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 벌촌(筏村, 벌말): 절골 남쪽 들에 있는 마을이다.
- 복상나무-골: 행인 나드리 안에 있는 마을. 복숭아나무가 많다.
- 사실-고개[살실고개, 사실치(士實峙), 사실재]: 물골에서 춘천시 동면 품걸리로 가는 고개. 굽이가 많아서 사슬과 같다 하였다.
- 야시대-개울: 물골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야시대를 걸쳐 성산리에서 홍천강으로 들어가는 내이다.
- 양지-말: 물골 동남쪽으로 양지에 있는 마을이다.
- 절-골[사동(寺洞)]: 행인나드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절이 있었다
- 차돌-고개[차돌목이, 차석치]: 물골에서 홍천군 두촌면 천치리(泉峙里)의 작은평내로 넘어가는 고개로 차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물골[대수동]: 물골의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학-바우: 무지기 안에 있는 마을에 학(鶴)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행인-나드리: 행인나드리 다리가 있는 마을로 또는 야시대 개울 위에 놓였던 다리로 야시대에서 성산리 새말로 감으로 행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 주음치리(酒飮峙里)

화촌면 술음재 고개 아래 있는 법정리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업, 밤나무골, 부못골, 문바웃골, 품새, 삼맛골 등을 통합하여 주음치리라 한다.

- 고업리(高業里, 고엽): 수룸재 마을 서북쪽 높은 지대에 마을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문-바우: 문바웃골 어귀에 있는 큰 바위가 길 양쪽에 솟아 있어 마치 문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문바웃-골: 수룸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문바우가 있으며, 문암사(門岩寺)라고 하는 사찰이 있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밤나뭇-골(골안): 수룸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부못-골[부무동(富畝洞), 부목골, 불뭇골]: 고업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삼맛-골: 수룸재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마(麻)가 잘된다고 하여 붙여진 지 명이다.
- 수룸-재(술음재): 골짜기가 깊은 두메산골 마을로 옛날 새색시가 주음치리(酒飮峙里) 마을로 가마타고 시집을 갈 때 수풀이 우거져 길도 없는 험한 고개를 넘어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한없이 서럽게 울었다고 하여 '설음재'로 불리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일본 사람들이 전국의 지명을 정리할 때 이 마을에 와서 고개 이름을 마을 주민에게 묻자 '설음재'라고 대답하니, 그들의 발음상 '설음재'라고 발음 못하고 '술음재', '수름재'라고 하며 한자로 '술 주(酒)'자, '마실 음(飮)'자, '산 고개 재(峙)'자로 고개를 명명하고 마을 이름도 주음치리(酒飮峙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이름이 새로 붙여진 후에 한자 풀이대로 이 고개를 넘어갈 때 꼭 한 잔을 마시고 넘어가야 한다고 와전되었다.
- 춤-새[무봉촌(無鳳村), 무봉말]: 고업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이 새가 춤추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8) 군업리(軍業里)

화촌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군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군들, 나븐들, 도광터, 답연들, 말골, 조가터를 병합하여 군업리라 한다.

- 공작-폭포: 공작산 북쪽 기슭에 있는 폭포로 높이 약 25m이다.
- 공작폭포-동: 공작폭포 옆에 있는 마을이다.
- 군-들[군둘, 군두(軍杜), 군터골, 군대곡(軍垈谷)]: 도광터 북쪽에 있는 마을. 의병 난리 때 의병들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
- 기러기-바우: 군업 서쪽 개울가에 있는 바위이다. 기러기 떼가 내려앉은 것처럼 바위들이 잇달아 놓여 있었다.

- 나븐-들: 안마을 남쪽 군업 개울가에 있는 마을로 너럭바위가 있었다는 연유로 지명으로 되었다.
- 답연-밭[답연전(畓連田)]: 군업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여러 골짜기에서 냇물이 흘러내려와 논과 밭이 연달아 징검다리처럼 되어 있는 경작지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당무(唐武)]: 군업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당산 아래가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唐山, 堂山): 당산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산제당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도광-터(道光垈): 당산(唐山)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도(道)를 닦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말-고개: 말골 남쪽에서 조가터로 가는 고개로 모양이 말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말-골[마곡(馬谷)]: 조가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말고개 아래가 됨으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다.
- 상-골: 군들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아양정(鵝養亭): 양지말 남쪽 산기슭에 있는 정자로 약 90여 년 전 원주이씨 문중에서 세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말[내촌(內村)]: 군업 서쪽 길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양지-말[양촌(陽村)]: 안말 서북쪽 양지(陽地)의 남향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열녀-정문: 안마을에 있는 열녀 박정숙의 정문으로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손수 번 돈으로 자선사업을 하여 나라에서도 여러 번 표창받았다.
- 조가-터[조하대(朝霞垈)]: 군업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씨가 살았다고 한다.
- 틱-골[대곡(垈谷)]: 공작산(孔雀山) 아래에 있는 마을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터잡고 마을을 형성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9) 굴운리(屈雲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점말, 큰골, 작은골을 병합하여 법정리 지명으로 굴

운리라 하였다.

- 논-꼴: 구룬이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논이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덕두-리: 큰골 동남쪽 공작산에 있는 골짜기로 붙여진 이름이다.
- 뒷-골: 버덩말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버덩-말(繁村): 구룬이 앞 버덩에 있는 마을로 한자식으로 번영(繁榮)하는 마을이란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승짓-골: 구룬이 안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예전에 암자(菴子)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골[소동(小洞)]: 구룬이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점-말[점촌(店村)]: 구룬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토기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큰-골[대동(大洞)]: 구룬이 동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고을이 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 포전(浦田): 구룬이 동쪽 갯가에 있는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0) 장평리(長坪里)

화촌면 지역으로 긴들 옆이 되므로 진들, 진둘 또는 장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골말, 노루터, 마전동, 솔치, 신뱃공을 병합하여 법정리 장평리라 하였다.

- 골-말[도룡동(都龍洞)]: 진들 북쪽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도룡뇽이 많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노루-터[장대동(獐垈洞)]: 진들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꿈에 노루가 나타나 터를 잡아주어 마을이 이룩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마전동(麻田洞): 아래술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삼밭이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사씨정문(史氏旌門): 신뱃골 안에 있는 중국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청주사씨(靑州史氏)의 열녀(烈女) 정문(旌門)이다.

- 솔-치[솔재, 송치(松峙)]: 솔치 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또는 웃솔치 동쪽으로 서석면 어론리로 가는 큰 고개로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뱃-골[산리동(酸梨洞), 심복골(深福谷), 신복골]: 진들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돌배나무가 많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아래-솔치[하송치(下松峙)]: 솔치의 아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웃-솔치[상송치(上松峙)]: 솔치의 위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응-골[응곡(應谷)]: 진들 남쪽 응봉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말-고개: 북창(北倉)에서 야시대리로 가는 고개로 말고개 아래가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솔치[소송치(小松峙), 잔솔재]: 솔치의 작은 고개로 아래 솔치 마을에서 내촌면 물걸리 새마을로 가는 잔솔재, 작은 솔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지복사(池福寺): 신뱃골에 있는 절이다. 근년에 지순리가 세웠다고 한다.
- 진-둘[진들]: 진들 마을 앞에 있는 긴 들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 풍천리(楓川里)

본래 춘천군 동산면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덕밭재[덕전(德田)], 변가터, 새터, 벌대울, 쌍자리골, 장재울, 턱골을 병합하여 법정리로 풍천리라고 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정에 따라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가 되었다.

- 풍천리(楓川里, 신내): 냇가에 단풍나무(신나무)가 많으므로 신내라고 이름하였다. 또는 풍천(楓川)이라고도 하였다.
- 가락골-고개: 웃버덩 근처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 가랫-고개: 춘천시 동면 상걸리로 가는 고개이다.
- 녹진골-고개: 춘천시 동면으로 가는 고개. 웃버덩을 지나서 간다.
- 덕밭-재[덕전현(德田峴)]: 풍천리의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덕밭재-숲: 덕밭재 복판에 있는 숲으로 서낭당이 있다.
- 돌톱골: 톱니처럼 생긴 돌이 있는 골짜기이다.
- 백림(柏林): 잣나무 밀림으로 풍천리에 350ha에 18만 그루의 잣나무 숲이 있다.

1936년 일본 노무라 도쿠시치(野村德七)가 조림하였다고 한다.

- 사오랑재(사오랑치, 사오랑재)) 일제강점기 때 우국지사가 일병(日兵) 사오랑을 시해한 재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섬바우: 덕밭재에 있는 섬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음으로 지명이 생겨 작은 섬바우와 큰 섬바우가 나누어 불리고 있다.
- 턱골: 풍천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마을이다. 또는 턱밭재 꼭대기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화촌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舞鳳村	춤새말 무봉촌	춤새마을(舞鳳村)	주음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주음치리 편입, 춤새마을, 무봉촌으로 부림				
	조선지지	富畝洞	부목골 부무동	부못-골(富畝洞)	부목골, 불뭇골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주음치리 편입, 富畝洞, 부못-골, 부목골, 불뭇골 불림				
	조선지지	栗木洞	밤나뭇골	밤나뭇골(栗木洞)	밤나뭇-골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주음치리 편입, 밤나뭇골, 율목동으로 불림				
	조선지지	獐垈洞	노루터 장대동	노루-터	장대동(獐垈洞)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평리에 편입, 현재 노루터, 장대동이라 불림				
	조선지지	酸梨洞	신복골 산리동	심복골(酸梨洞)	신복골, 신목골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평리에 편입, 현재 심복골(酸梨洞), 신목골이라 불림				
	조선지지	麻田洞	삼밭골	삼밭골(麻田洞)	장평1리 솔치아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평리에 편입, 현재 장평1리 솔치 삼밭골				
	조선지지	銀谷村	은곡말	은곡말(銀谷村)	솔치 삼밭골 부근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평리에 편입, 솔치 삼밭골 부근으로 비정				
	조선지지	松峙村	솔치말	솔치(松峙村)	아랫솔치, 윗솔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평리에 편입, 아랫솔치, 윗솔치, 솔치재, 솔치터널				
	조선지지	堂山里	당산리	당산리(堂山里)	당산(唐山)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군업리에 편입, 마을 동쪽에 있는 산제당이 있던 곳				

洞里 村名	조선지지	道光垈	도광-터道光垈	도광-터(道光垈)	도광대(道光垈)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군업리에 편입,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제당 있는 마을				
	조선지지	朝霞垈	조가-터	조가-터(朝霞垈)	조하대(朝霞垈)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군업리에 편입, 군업 동북쪽에 있는 솔치 입구 마을				
	조선지지	筏村	벌말	벌말(筏村)	벌말, 벌촌(筏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야시대리에 편입, 1963년 벌촌초등학교를 설립				
	조선지지	萬貢垈村	갈공터(葛貢垈)	갈공터(葛貢垈)	'萬'는 '葛'의 誤字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무랭이, 무지기, 벌말, 갈공터를 병합 야시대리에 편입				
	조선지지	藿峙村	번개말	번개터, 번개말	번개터(藿峙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야시대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項村	무랭이	무랭이(水項村)	수리목, 물목(水項)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야시대리에 편입				
	조선지지	板項里	널목	늘목, 널목	널목(板項, 板項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야시대리에 편입, 널판재목 쓸 수 있는 울창한 마을				
	조선지지	日乾	일건	일건(日乾)	일건(日乾)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산리에 편입, 신내에서 성산입구 마을				
	조선지지	路上村	윗말	앞말, 윗말	앞말(路上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산리에 편입				
	조선지지	新村	새말	새말(新村)	새말(新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산리에 편입				
	조선지지	院坪村	원평	원평, 원평말	원평(院坪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산리에 편입				
	조선지지	乾金里	건금리	건금리(乾金里)	건금리(乾金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외삼포리에 편입				
	조선지지	柴灘里	시여울	시여울, 시탄리 (柴灘里)	외삼포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외삼포리에 편입				

洞里 村名	조선지지	舞龍治里	무랭이	무랭이, 무릉치리 (舞龍治里)	구성포리, 舞龍治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성포리에 편입				
	조선지지	瓦家村	기와집말	기와집말	구성포리 瓦家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성포리에 편입				
	조선지지	畓機村	답기촌	답기촌(畓機村)	구성포리 畓機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성포리에 편입				
	조선지지	屯德里	돈도루, 둔덕리	둔덕리, 돈도루	구성포리 屯德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성포리에 편입, 언덕배기에 있는 마을				
	조선지지	栢里洞	백이동	백이동	구성포리 栢里洞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성포리에 편입				
	조선지지	坪村	벌말	벌말(평촌)	송정리 坪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송정리에 편입				
	조선지지	萬川洞	만내동	만내동, 만내	송정리 萬川洞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송정리에 편입				
	조선지지	周峰里	주봉리	주봉리	결운리 周峰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결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店村	점말	점말	결운리 店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결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屯地村	둔지말	둔지말	결운리 屯地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결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大基村	대기말	대기말	태학리 大基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태학리에 편입				
	조선지지	狐川洞	여우내골	여내골, 연애골	태학리 狐川洞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태학리에 편입				
	조선지지	巷村	구렁말	구렁말	내삼포리 巷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내삼포리에 편입				
	조선지지	司倉里	사창리	사창리	내삼포리 司倉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내삼포리에 편입				

洞里 村名	조선지지	大谷里	큰골	큰골	굴운리 大谷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굴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店村	점말	점말	굴운리 店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굴운리에 편입				
山名	鷲峰山	슈리봉산	수리봉, 취봉산	주음치리	
	鷹峰山	매봉산	매봉산 응봉산	주음치리	
	馬背岩山	마등암산	마등암산	장평리	
	長皮山	장피산	장피산	장평리	
	孔雀山	공작산	공작산	군업리	
	帽峰山	모봉산	모봉산	군업리	
	堂山	당산	당산	군업리	
	五峰山	오봉산	오봉산	군업리	
	九萬峰山	구만봉산	구만봉산	야시대리	
	老壯山	노장산	노장산	야시대리	
	駕馬峰山	가마봉산	가마봉산	야시대리	
	城側山	성측산	성측산	성산리	
	保屯地山	보둔지산	보둔지산	성산리	
	栢甴山	백수산	백수산	성산리	
	馬山	마산	마산	내삼포리	
	鳳翔治山	봉상치산	봉상치산	구성포리	
	龍頭山	용두산	용두산	구성포리	
	梧林山	오림산	오림산	구성포리	
	鷲峰山	취봉산	취봉산	구성포리	
	巽耳山	손이산	손이산	굴운리	
	薇峰山	미봉산	미봉산	굴운리	
	寒雨山	한우산	한우산	굴운리	
	杏山	행산	행산	송정리	
	香爐峰山	향로봉산	향로봉산	송정리	

山名	周峰山	주봉산	주봉산	결운리	
	劒花垈山	검화대산	검화대산	태학리	
谷名	門岩谷	문바웃골	문바우골 문암곡	주음치리	
	지역골	지역골	지역골	주음치리	
	낼골	낼골	낼골	주음치리	
	多大谷	다대울	다대울, 대대울	장평리	
	솟때백이골	솟때백이골	솟때백이골	장평리	
	長蔘谷	지샘	지샘골, 진생골	장평리	
	楸谷	가래골	가래골, 가래울골	장평리	
	녀내골	녀내골	여냇골, 얕은내	장평리	
	東倉谷	동창골	동창골	장평리	
	直谷	직골	직골	장평리	
	琴谷	거문골	거문골	장평리	
	銀谷	은골	은골	장평리	
	於矣谷	어의골	어의골	야시대리	
	內谷	안골	안골	야시대리	
	寺谷	절골	절골	야시대리	
	水項谷	물목골	물목골	야시대리	
	柴木谷	시목골	시목골	야시대리	
	石長谷	석장골	석장골	성산리	
	院垈谷	원터골	원터골	성산리	
	老來谷	노내골	노내골	내삼포리	
	長松谷	장송골	장송골	구성포리	
	朔田谷	삭전골	삭전골	구성포리	
	水項谷	물목골	물목골	구성포리	
	東幕谷	동막골	동막골	구성포리	
	太田谷	큰밭골	큰밭골	구성포리	
	장재울골	장재울골	장재울골	구성포리	

谷名	聖旨谷	성지골	성지골	굴운리	
	明堂谷	명당골	명당골	송정리	
	寺谷	절골	절골	송정리	
	鉢卵谷	발묘골	발묘골	송정리	
	北方谷	북방골	북방골	송정리	
	石谷	돌골	석골	송정리	
	풀무골	풀무골	풀무골, 풋물골	송정리	
	骨美谷	골미골	골미골	결운리	
	獨占谷	독점골	독점골	결운리	
	大谷	큰골	큰골	결운리	
	寺谷	절골	절골	결운리	
	道長谷	도장골	도장골	결운리	
	進大谷	진대골	진대골	태학리	
	장삼에골	장삼에골	장삼에골	태학리	
	김생에골	김생에골	김생에골	태학리	
	石葬谷	석장골	석장골	태학리	
	도두개골	도두개골	도두개골	태학리	
	星周目谷	성주목골	성주목골	태학리	
嶺峙	酒飮峙	주음치	주음치	주음치리	
	峴名	황매골고개	황매골고개	장평리	
	明洞峙	明洞峙	明洞峙	장평리	
	된덕고개	된덕고개	된덕고개	장평리	
	松峙	솔치	솔치	장평리 솔치	
	朝霞垈峴	조가터고개	조가터고개	장평리 조가터	
	孔雀峙	공작치	공작고개	군업리 공작치	
	斗峴	말고개	말고개	군업리 두현	
	內洞峙	안골고개	안골고개	야시대리 안골	
	於矣洞	어의동	어의동	야시대리 어의동	

嶺峙	곱돌고개	곱돌고개	곱돌고개	야시대리	
嶺峙	사실고개	사실-고개	사실-고개	사실-고개 사실치(士實峙), 살실고개, 사실재	
	峴名	작은 말고개	작은 말고개	성산리	
	缶項峴	장군목고개	장군목고개	외삼포리	
	麗日峙	려일고개	려일고개	구성포리	
	孫利峙	손이고개	손이고개	구성포리	
	三丁峴	삼정고개	삼정고개	구성포리 삼정	
	獐項峴	노루목고개	노루목 고개	구성포리	
	巽耳峙	손이고개	손이고개	굴운리	
	小洞峙	작은골 고개	작은골 고개	굴운리	
	麗日峙	麗日峙	麗日峙	송정리	
	北方峙	북방고개	북방고개	송정리	
	決雲峙	결운고개	결운고개	결운리	
	大基峙	큰터고개	큰터고개	대학리 대기	
酒幕名	진두루주막	진두루쥬막		장평리	
	松峙酒幕	솔치쥬막		장평리	
	大坪里酒幕	대평리쥬막		외삼포리	
	栢里酒幕	백일어니쥬막		성산리 백이동(白二洞)	
	속새둔지쥬막	속새둔지쥬막		성산리	
	楓川酒幕	신내쥬막		구성포리	
	松亭酒幕	송정쥬막		송정리	
	決雲酒幕	결운쥬막		결운리	
	大基酒幕	대기쥬막		태학리	
寺刹名	鷹峰寺	응봉사		장평리	
野坪名	祭堂坪	제당뜰		야시대리 제당	

野坪名	귀새둔지뜰	귀새둔지뜰		야시대리 귀새둔지	
	가매덕이뜰	가매덕이뜰		야시대리 가매덕이	
	日乾坪	일건뜰	일건뜰, 건답뜰	성산리 일건(乾畓)	
	簾墻坪	簾墻坪		성산리	
	新村坪	새말뜰	새말뜰	성산리 새말뜰(新村)	
	院坪	원뜰	원뜰	선산리 원평(遠坪)	
	司倉坪	사창뜰	사창뜰	내삼포리 사창뜰	
	錢坪	돈두루뜰	돈두루뜰 돈두리뜰	돈두리, 전평(錢坪)	
	屯德坪	둔덕-이뜰	둔덕-이뜰	둔덕리(屯德里)	
	牛岩坪	우암뜰 운암뜰	우암뜰 운암뜰	굴운리(屈雲里)	
	新坪	샛뜰	샛뜰	굴운리(屈雲里)	
	穢墻坪	예장평	예장뜰	굴운리(屈雲里)	
	가루개버덩	가루개버덩	가루개버덩	결운리(決雲里) 가루개[갈현(葛峴)]	
	屯地坪	둔덕이뜰	둔덕이뜰	결운 둔지(屯地)	
	증밋버덩	증밋버덩	증밋버덩	결운 둔지(屯地)	
	大基坪	대기뜰	대기뜰	태학리 대기(大基)	
堤堰 洑名	大洑	큰보	큰보	구성포리	
	俗開洑	속개뜰보	속개뜰보	구성포리	
	畓機村洑	논틀-말보	논틀-말보	구성포리	
	廣石坪洑	광석-뜰보 나븐-들보	광석-뜰보 나븐들보 너럭바위뜰보	군업리 광석평(廣石坪)	
	九沙洑	구사보	구사보	군업리	
堤堰 洑名	朝霞垈洑	조가터보	조가터보	군업리 조가터 조하대(朝霞垈)	
	洑名	상뜰보	상뜰보	장평리	
	行人橋	행인나드리	행인나드리	야시대리 행인교	

堤堰洑名	筏川洑	벌천보	벌말보 (筏村洑)	야시대리 벌말	
	院坪洑	원평보	원평보	성산리 원평	
	女妓沼洑	여기소보		성산리	
	木簫洑	목소보		성산리	
	발담보	발담보	밭닫들보	성산리 밭닫들	
	新洑	새보	새보	내삼포리	
	水砧洑	수침보	수침보	내삼포리	
江川溪澗名	舞鳳村川	춤새말내	춤새말내	주음치리 춤-새, 무봉촌(無鳳村), 무봉말	
	行人橋川	행인나드리내	행인나드리내	야시대리 행인교	
	水洞溪	무랭-이 물골내	무랭-이 물골내	야시대리 무랭이 수왕동(水旺洞) 수동(水洞), 물골	
	睢鳩灘	져부녀울	져부녀울	성산리	
	二水橋川	이수교내	이수교내	성산리	
	老來谷川	노내골내	노내골내	내삼포리 노내골	
	錢坪川	돈두루내	돈두루내	외삼포리 돈-두루 돈두리, 전평(錢坪)	
	大坪川	큰뜰내	큰뜰내	외삼포리 큰뜰내, 대평내	
	楓川	신내	신내	구성포리 신내	
	栢灘川	잣여울내	잣여울내	송정리 백탄	
	骨美谷川	골미골	골미골	결운리 골미골	
江川溪澗名	菱支沼	능지소	능지소	태학리	
	狐川	여내	여내	태학리[여내, 호천동(狐川洞)]	

3) 두촌면(斗村面)

두촌[斗村, 두촌(頭村), 말촌(末村)]면은 홍천군 1읍 9면의 하나로서 본래 홍천군 동쪽 끝에 있다 하여 말촌면(末村面)이라 하였다가 1830년대에 두촌면이라 칭하고 천치(泉峙), 자은리(自隱里), 도덕(道德), 철정(喆亭)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역내(驛內), 원동(遠洞), 자은(自隱), 장남(長南), 철정(哲亭), 천치(泉峙, 현 泉峴), 괘석(掛石)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 자은리(自隱里)

두촌면(斗村面) 행정 및 문화생활의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 마을이다. 본래 홍천군 두촌면 지역으로 진흙 둔지였으므로 흙둔지라 하다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너븐나드리(廣灘), 쉬인재, 뒷골, 점골을 병합하여 자은리(自隱里)라 하였다.

- 가마-소(沼): 가마 모양의 웅덩이가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거리-뒷골[가후동(街後洞), 외후동(外後洞)]: 뒷골 거리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나가정-뜰(나오정): 점꼴 서쪽 들 옆에 있는 마을로 약 100년 전 나씨(羅氏)의 정자(亭子)가 있었다 한다.
- 너븐-나드리[광탄(廣灘), 광탄리(廣灘里)]: 자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장남리에서 오는 개울과 원동리 쪽에서 오는 개울이 합류됨으로 넓은 여울이란 의미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너븐-나드리[광탄(廣灘)]: 너븐나드리 북쪽에 있는 넓은 여울이란 이름의 개울 명칭이다.
- 뒷-골[후동]: 너븐나드리 뒤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쉬인-재[영수령(永水嶺)]: 점골에서 두촌면 괘석리 영수 터로 가는 긴 재[영치(永峙)]로 고개가 길어서 쉬엄 쉬엄 쉬어간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안-뒷골[내후동(內後洞)]: 뒷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점-꼴[지음동(知音洞), 증골]: 자은 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말 때 보습을 만들어 팔던 점포(店鋪)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2) 괘석리(掛石里, 掛夕里)

두촌면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두촌면 지역으로 많은 바위들이 층을 이루고 괴어 있는 것 같다 하여 괘석이라 하였는데, 1961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다름재, 범의터, 샛골, 영수터, 탑거리를 병합하여 괘석리라 하였다.

● 개암-벌[갬벌, 개암평(開岩坪)]: 용수동(龍水洞) 서쪽에 있는 마을로 주로 바위로 되어 있어 흙을 밟지 않고도 마을 안을 다닐 수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너래-바우[너벙바우]: 너래바우가 있는 마을로 너럭바위, 너렁바우, 너벙바우라고도 한다.
● 다름-재[다음재, 다음동(多陰洞), 월림동(月林洞), 월음동(月陰洞), 월림골]: 괘석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대명산(大明山): 대명(大明)의 터에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에 대명광산이 있었다.
● 대명의-터[신흥동(新興洞)]: 다름재 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뱀이 많았었다 하는데, 대명광산이 생긴 뒤로부터 큰 마을로 번창하였다고 하여 새로 일어난 마을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되었다.
● 동자석(童子石): 용수바위[용소(龍沼)바위] 위에 있는 바위로 동자가 서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망-밭[망전(望田)]: 개암벌[갬벌, 개암평(開岩坪)]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논은 없고 밭만 있어 밭만 바라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목은-너미[목우너미, 오유동(梧踰洞)]: 용소먹이 동쪽 너머에 있는 마을로 묵은너미로도 불리며 오유동이란 지명으로 지명유래를 추정해본다면 벽오동(碧梧桐)나무가 있는 목우마을 너머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 범의-터[범의동(凡義洞)]: 괘석 동쪽에 있는 마을로만 밝혀지고 유래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자식 지명으로만 추정해본다면 무릇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잘 지키는 마을이란 뜻이 아닌가 한다. 혹시 우리말로 범의-터란 범이 나와 놀던 터로도 추측해볼 수 있다.

- 샛-골[광간동(廣間洞), 새골]: 탑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속새풀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래 괘석[하괘석(下掛石)]: 괘석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영수-터[용수터, 영수대(永水垈)]: 개암벌 북쪽 마을로 용소(龍沼)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용소-먹이[용수동(龍水洞)]: 용수터 동남쪽에 있는 용소(龍沼)가 있는 마을로 붙여진 이름이다.
- 용수-바우: 용소(龍沼) 옆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한다.
- 웃-괘석[상괘석]: 괘석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절-터[수태동, 수타동(水墮洞), 수대동(水垈洞)]: 망밭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수타사(水墮寺)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3층 석탑만 남아 있다.
- 탑-거리[탑동(塔洞)]: 다름재에서 범의터로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다.

(3) 철정리(哲亭里)

두촌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두촌면 지역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었다는 철은정(哲隱亭)이라는 정자의 이름을 따 철은정(哲隱亭)이라 하다가 줄여서 철정(哲亭)이 되었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창(北倉), 아오라지[아호(鵝湖)], 한계(寒溪), 복동(福洞), 부채돌[선평(扇坪)], 지다치(之多峙), 향교골[향교동(鄕校洞)], 용꼬리[용미동(龍尾洞)]를 병합하여 철정리라 하였다.

- 괴-바우: 아오라지[아호동(鵝湖洞)] 서쪽 홍천강가에 있는 바위가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놋점-골: 철정 안 골짜기로 예전에 놋그릇을 생산 판매하던 점포(店鋪)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왕-고개: 복골에서 내촌면 화상대리 솔골[송곡(松谷)]로 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돌-고개: 철정에서 용암사로 가는 고개로 돌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드렁-골: 복골 위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도랑처럼 길고 좁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랑골 > 드렁골 음이 변화되었다.
- 말-고개[마령(馬嶺), 마현(馬峴), 큰말고개, 대마령(大馬嶺), 대마현(大馬峴)]: 한계(寒溪)에서 화촌면 야시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예전에 정씨(鄭氏)가 아버지 묘(墓)를 이 고개에 쓰고 난 뒤 사흘이 되자 갑자기 천둥이 일어나고 묘가 뒤집히고 그 곳에서 용마(龍馬)가 나타나 고개를 넘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복-골[복곡(福谷)]: 철정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살던 문씨가 복(福)을 받아은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본부락(本部落, 본말, 본마을): 철정리의 본마을로 '부락'은 일본식 표현이다.
- 부채-뜰[선평(扇坪)]: 부채돌 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부채돌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부채-뜰, 선평이라고도 불린다.
- 부채-돌: 부채돌 동쪽 산 아래에 있는 큰 바위가 부채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북창(北倉): 한계(寒溪)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홍천현의 북창(北倉)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북창교(北倉橋): 홍천강의 지류인 내촌천 상류 마을로 건너다니던 다리로서 조선시대 홍천현 소속의 북창(北倉)이 다리 앞에 있어 북창교라고 하였다.
- 시-골[시곡(屍谷)]: 철정 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사형당한 사람을 묻었던 곳이라 하여 시체골, 시골[시곡(屍谷)]이라 이름하였다.
- 아오-라지[아호동(鵝湖洞)]: 북창 동쪽에 잇는 마을로 내촌면 화상대리 쪽으로 흘러오는 냇물이 마을 앞 냇물과 합해져 옛날에 호수가 있었는데 기러기가 많이 모여 놀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여냇-골: 한계 안에 있는 마을이다.
- 오송정(五松亭): 복골 안에 있는 마을인데, 소나무 정자 다섯 개가 있었다.
- 용-꼬리[용미동(龍尾洞)]: 철정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용꼬리 형국이라 한다.
- 작은 말고개: 북창(北倉)에서 야시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말고개 아래가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장터-거리: 철정 안에 있는 중심마을로 예전에 5일 전통 장시(場市)가 섰던 곳이다.

- 중화-터: 철정 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조선조 때 중화점(中火粘)을 내던 터이다.
- 철정(哲亭): 이곳 연못 부근에 철은정(哲隱亭)이라는 정자가 있어 유림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철은정(哲隱亭)의 이름을 따 줄여서 철정(哲亭)이라 명명하였다.
- 한계(寒溪): 철정의 중심지로서 철정초등학교 왼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이 차가운 개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계마을의 철정교(哲亭橋)가 있다.
- 향교-골: 예전에 홍천 향교(鄕校)가 세워졌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천현리(泉峴里)

두촌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두촌면 지역으로서, 샘재고개 아래가 되므로 샘재, 또는 천치(泉峙)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평내(平川), 새말[신촌(新村)], 모로골[모로곡(毛老谷)], 경수[鏡水, 경호(鏡湖)], 장여울[장탄(長灘)]을 병합하여 천치리라 하였다. 이후 '천치(泉峙)'라는 지명이 하늘이 내린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바보 천치(天癡)'로 오해(誤解)받을 지명이며 어감(語感)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983년 10월 1일자 뜻이 같은 천현리(泉峴里)로 개명하였다.

- 가삽-고개[평내고개, 가삽현(加揷峴), 평내현]: 큰평내에서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참배나뭇골로 가는 큰 고개이다. 914m이다.
- 경수[鏡水, 경호(鏡湖)]: 샘재고개[천치(泉峙)] 북쪽에 있는 마을로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흘러가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모로-골[모로곡(毛老谷)]: 큰평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모르고 지나간다는 뜻의 무로골, 물의골이라고 하며, 산 모서리 골짜기라는 뜻으로 모노곡이라고도 한다.
- 무쇠말-째: 큰평내에서 춘천시 동면 판메기리로 가는 높은 재이다. 옛적에 이 부근이 모두 바다가 됐으므로 고개 위에 쇠말뚝을 박고 배를 매었다고 한다.
- 새-말[신촌(新村)]: 경수(鏡水) 다음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 샘재-고개: 샘재[천치(泉峙)]에서 경수(鏡水)로 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에는 좋은 샘이 있었다고 한다.
- 쇠판-이: 샘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홍천 철광산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으

로 쇠[철광(鐵鑛)]를 파내는 광산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 쉰패랭-이: 쇠판이 안에 있는 쇠를 파내던 굴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말엽에 패랭이를 쓴 사람들이 굴안으로 들어가 쇠를 캐내다가 갑자기 굴이 무너져 떼죽음을 당했는데, 굴 밖에 벗어놓은 패랭이를 세어보니 50개였다고 한다.
- 용소-깐[용연(龍淵)]: 큰 평내 서북쪽 가리산에 있는 큰 소(沼)이다. 사방이 벼랑으로 이뤄졌으며, 늪 위에서 폭포가 쏟아짐으로 늪 안에 용(龍)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소-폭포(평내폭포): 용소 위에 있는 폭포이다.
- 작은 평내(소평천): 평내의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장-여울[장탄(長灘)]: 경수 동남쪽 홍천강 긴 여울[경수천(鏡水川)] 옆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큰-평내[대평천(大平川)]: 평내의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평-내[평천(平川)]: 샘재 서쪽 홍천강 건너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큰 냇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원동리(遠洞里)

두촌면의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홍천군 두촌면 지역으로 멀골 또는 원동(遠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대울, 다릿골, 텃골을 병합하여 원동리라 하였다.

- 갈미-봉[갓모봉, 노적봉]: 문봉리 뒤에 있는 산으로 갈모(-帽)[9] 또는 노적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다릿-골[교동(橋洞)]: 멀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다리가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대대-울[다대울, 다대곡(多大谷)]: 다릿골 서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큰 골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멀골[원동(遠洞)]: 두촌면 소재지인 자은리(自隱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문봉리(文峯里): 갈미봉(갓모봉, 노적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붓처럼 뾰족한 산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삼거리(三巨里): 조떡골, 대대울, 다릿골로 가는 삼거리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원동리-다리: 멀골 앞에 놓인 나무로 된 다리를 말한다.
- 조떡-골[조덕동(調德洞), 조텃골, 조적골]: 삼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명유래는 밝혀지지 않았다.

(6) 역내리(驛內里)·천감리(泉甘里)

두촌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두촌면 지역으로 조선조 때 보안도(保安道)에 딸린 천감역(泉甘驛)이 있었으므로 천감역내(泉甘驛內)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쇠덕, 가래뜰[추평(楸坪)], 소서낭거리[소성황가리(小城隍街里), 소성황거리], 숯고개, 전감[천감(泉甘), 천감역], 평내[평천(平川)]를 병합하여 천감리(泉甘里)라 하였다.

- 가래-들[추평(楸坪)]: 소서낭거리 서북쪽 들에 있는 마을이다. 전에 큰 가래나무가 있었다 한다.
- 소-서낭거리[소성황가리(小城隍街里), 소성황거리]: 천감(泉甘) 남쪽에 있는 마을. 작은 서낭이 있었다 한다.
- 쇠-덕: 역내리에 딸린 마을로 전에 쇠를 캐냈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 숯-고개[탄현(炭峴)]: 역내에서 내촌면 답풍리 용포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 전-감[천감(泉甘), 천감역]: 역내 동쪽 홍천강 건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마을 앞 논에 좋은 샘이 있었다 하여 지명으로 되었다. 또 조선시대 때 춘천 보안도(保安道)에 딸린 천감역(泉甘驛)이 있었다.
- 천감역-터: 전감에 있는 조선조 때 천감역의 터이다. 남쪽으로 연봉역(連峯驛)이고 북쪽으로 마노역(馬奴驛)에 연락되었다.
- 평내-다리[평천교(平川橋)]: 평내 어귀에 있는 공굴로 된 다리라 붙여진 이름이다.
- 평내-어구[평천어구(平川於口)]: 평내 어귀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7) 장남리(長南里)

두촌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두촌면 지역으로 장남(長南)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강지나뭇골, 주막거리, 어구말, 장사랑, 큰골, 납덕골을 병합하여 장남리라 하였다.

- 강지나뭇-골[강지동(江之洞, 姜之洞)]: 장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전에 강씨(姜氏)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거니-고개[건이치(建伊峙), 건이현(建伊峴)]: 원거리 북쪽에서 인제군 남면 어론리로 가는 낮은 고개로 조선시대 때 고개 아래에 건이원(巾伊院)이라는 역원(驛院)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남덕-골[현덕골(賢德谷), 현덕동(賢德洞)]: 장남(長南) 서남쪽 둔덕에 있는 마을로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덕(德)을 베풀면서 잘 살았다 하여 남양홍씨의 '남'자와 어진 덕행(德行)의 현덕(賢德)에서 '덕'자를 따서 '남덕-골'이라 이름하였고, '현'자와 '덕'자를 취하여 현덕동이라 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 도덕-골[도덕리(道德里)]: 원거리 북쪽에 있는 산골짜기로 예전에 도둑의 떼가 행인(行人)을 괴롭혔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복상나무-골[도목동(桃木洞)]: 장사랑(長仕郞)의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복숭아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어구-말[어귓말, 어구촌(於口村)]: 원거리 북쪽 장사랑의 어귀에 있는 마을로 마을 어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원-거리(院巨里): 장남(長南) 북쪽 길가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건이원(巾伊院)이라는 역원(驛院)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주막거리라고도 불린다.
- 장사랑-이[장사랑(長仕郞)]: 원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장사랑(將仕郞) 벼슬을 한 사람이 피난 와서 오랫동안 살다가 갔다 하는데 100여 년 전에 그 후손들이 은(銀)을 감췄다고 적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찾다가 허탕치고 돌아갔다 한다.
- 장사-버덩: 장사랑이에 있는 큰 버덩(뜰, 坪)을 말한다.
- 주막-거리[원거리(院巨里)]: 장남 북쪽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건이원(巾

伊院)이라는 역원이 있었던 곳에 주막(酒幕)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골[빈지골, 버니골, 대곡(大谷)]: 장사랑이[장사랑(長仕郞)] 서북쪽 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큰골이라 칭하였고 한자로 대곡(大谷)이라 하였다.
- 큰골-고개[대곡현(大谷峴), 매봉고개, 매봉현]: 큰 골 북쪽에서 춘천시 북산면 창막동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두촌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寒溪	한계	한계	철정리 한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북창, 아오라지, 한계, 복동, 선평을 철정리에 편입				
	조선지지	鵝湖	아오라지	아오라지	철정리 아호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아오라지, 한계, 복동, 선평, 향교골을 철정리 편입				
	조선지지	福洞	복골	복골, 복곡	철정리 복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아오라지, 한계, 복동(복골), 선평을 철정리 편입				
	조선지지	校洞	교골	교골, 향교골	철정리 교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아오라지, 한계, 복동, 선평, 향교골을 철정리 편입				
	조선지지	楸坪里	가래뜰	가래뜰	천감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쇠덕, 가래뜰, 소서낭거리, 숯고개, 평내 천감리 편입				
	조선지지	驛內里	역안이	역안이	천감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역안이(驛內里) 천감리에 편입				
	조선지지	泉峙	샘재	샘재(泉峙)고개	천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평천, 새말, 모로골, 경수, 장여울 천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平川里	평내	평내(平川)	천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평천, 새말, 모로골, 경수, 장여울 천치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鏡水	경수	경수(鏡水, 鏡湖)	천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평천, 새말, 모로골, 경수, 장여울 천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毛老洞	모로골	모로골, 모로동	천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평천, 새말, 모로골, 경수, 장여울 천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新村	새말	새말(新村)	천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평천, 새말, 모로골, 경수, 장여울 천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土屯地	흙둔지	흙둔지, 흑둔지	자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흙둔지 자은리에 편입				
	조선지지	知音洞	지음골	지음골	자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음골 자은리에 편입				
	조선지지	廣川里	너부내	너부내, 너브내	자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너부내(廣川里) 자은리에 편입				
	조선지지	內後洞	안 뒷골	안 뒷골	자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 뒷골 자은리에 편입				
	조선지지	文峰村	문봉말	문봉말	원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대대율, 다릿골, 조덕골을 병합하여 원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院洞	원골	원골, 멀골, 원동	장남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강지나무골, 주막거리, 어구말, 장사랑 장남리에 편입				
	조선지지	松亭里	송정리	송정리	장남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원동, 남덕동, 어구말, 큰골 등을 장남리에 편입				
	조선지지	覽德洞	남덕골	남덕동(현덕동)	장남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남덕골(覽德洞) 장남리에 편입				
	조선지지	栗木洞	밤나무골	밤나무골, 율목동	장남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밤나무골(栗木洞) 장남리에 편입				
	조선지지	長仕郎里	장사랑골	장사랑리	장남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사랑골長仕郎里) 장남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乾伊洞	거니골	건이골, 건이동	장남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거니골(乾伊洞) 장남리에 편입				
	조선지지	大明洞	대명의터	대명동(신흥동)	괘석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다름재, 벌의터, 샛골, 영수터, 탑거리 괘석리에 편입				
	조선지지	塔洞	탑골	탑골, 탑동(탑거리)	괘석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탑동을 병합하여 괘석리에 편입				
	조선지지	任雲洞	임운동	임운동	괘석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임운동(任雲洞) 괘석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墮洞	수타동	수태동, 수타동	괘석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수타동 괘석리에 편입				
	조선지지	暎水洞	영수터	영수동, 용수동 용소(龍沼)	괘석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영수터 괘석리에 편입				
山名	加里山	가리산	가리산(加里山)	천치리	
	黃屛山	황병산	황병산(黃屛山)	괘석리	
	劒鳴山	검명산	검명산(劒鳴山)	자은리	
谷名	福谷	복골	복골	철정리	
	校谷	교골	교골	철정리	
	知音谷	지음골	지음골	자은리	
	內後谷	안뒷골	안뒷골	자은리	
	方哥垈谷	방가터골	방가터골	자은리	
驛名	泉甘驛	천감역	전감역, 천감역(泉甘驛)	천감리	
野坪名	楸坪	가래뜰	가래뜰	천감리	
	土屯坪	흙둔지뜰	흑둔지뜰(土屯坪)	자은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野坪名	鵝湖坪	아오라지뜰	아오라지뜰, 아호평(鵝湖坪)	철정리	
嶺峙峴名	黃屛嶺	누렁담재	황병령(黃屛嶺)	괘석리	
	乾伊峴	거니고개	거니고개	장남리	
	插橋峴	삽다리고개	삽다리고개	원동리	
	炭峴	숯고개	숯고개	천감리	
	馬峴	말고개	말고개	철정리	
酒幕名	寒溪酒幕	찬내쥬막		철정리	
	楸坪酒幕	가래뜰쥬막		천감리	
	新村酒幕	새말쥬막		천치리	
	廣川酒幕	너븐내쥬막		자은리	
	院洞酒幕	원골쥬막		장남리	
土産名	水鐵	무쇠	무쇠(水鐵)	산출지 자은리	
堤堰名	知音堤	지음제		자은리	
	沙屯堤	사둔제		자은리	
	後洞堤	후동제		자은리	
	南德堤	남덕제		자은리	
洑名	大洑	큰보		철정리	
	驛洑	역보		천감리	
	鐵板洑	철판보		천치리	
	虎岩洑	호암보		자은리	
江川溪澗名	鵝湖川	아오라지	아오라지, 아호천(鵝湖川)	철정리	
	廣川	너브내	너부내, 너븐내, 광천(廣川)	자은리	
	鏡水川	경수내	경수천(鏡水川), 경호(鏡湖)	천치리	

4) 내촌면(乃村面)

내촌면(乃村面, 奈村面)은 홍천군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 고려 명종(明宗)에 홍천현 관할로 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내촌면(奈村面)이라 칭하였다가 30여 가구에 불과하던 것이 숙종(肅宗) 때 이르러 동창(東倉)을 중심으로 면세를 확장하고 1895년에 홍천군 내촌면으로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도관(道寬)·물걸(物傑)·와야(瓦野)·서곡(瑞谷)·답풍(踏楓)·화상대(和尙垈)·문현(文峴)·광암(廣巖) 등의 법정리를 두었다. 1942년 내촌면(柰村面)을 내촌면(乃村面)으로 개칭하였다.

(1) 물걸리(物傑里)

내촌면 동남쪽에 있는 법정리이다. 본래 내촌면 지역으로 물거리(物巨里) 또는 물걸리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복곡(福谷, 복골), 동창, 감두리, 새마을(새말), 탑둔지, 자근솔치, 장수원, 조상골, 조룬, 된재를 병합하여 물걸리라 하였다.

- 가루-고개[갈고개, 갈현(葛峴)]: 동창(東倉) 동쪽에 있는 마을로 또는 가루고개 동쪽에서 서석면 수하리 절골로 가는 고개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감두리(甘杜里): 동창 서쪽에 있는 마을. 내촌천이 마을을 감돌아 흘러감으로 연유하였다.
- 귀미: 동창 서쪽에 있는 들. 내촌천의 물이 굽이져 후미(後尾)를 이룬다고 하여 붙여졌다.
- 널-나드리[판교(板橋)]: 동창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 냇물에 나무 널판으로 놓은 다리가 있었으므로 자연마을 명칭으로 연유하였다.
- 동창[東倉, 창촌(倉村), 창말, 비석거리]: 물걸리 서남쪽에 있는 제일 큰 마을로 조선조 때 홍천현의 동창(東倉)이 있었으며, 조선조의 역촌(驛村)으로 서울-영동 간 교통 중심지로 집산지였다.
- 된-재[되용재, 회룡동(回龍洞), 회룡치(回龍峙)]: 조룬 북쪽에 있는 마을로 된재 밑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지명이다. 또는 된재 마을에서 와야리 비선동으로 가는

고개로 고개가 매우 되어서 길이 여러 굽이가 되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용이 돌아 올라간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명이다.

- 복-골[복곡(福谷)]: 물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땅이 좋다고 한다.
- 새-마을[신촌(新村)]: 장수원(長壽院, 長水院)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 장수원(長壽院): 감두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써 장수(長壽)한 노인이 많이 있는 동창 마을 마방(馬房)의 역원(驛院)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점-말: 물걸리 안에 있는 마을로써 조선후기 천주교(天主敎) 신자들이 종교적 박해(迫害)를 받자 박해를 피하여 옹기점을 경영하였던 곳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마을명이다. 현재 천주교 공소가 위치하고 있다.
- 조-운[조운(早雲, 朝雲)]: 새마을(새말)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이른 아침에 구름이 많이 낀다 하여 붙여진 마을명이다.
- 조상-골[조상동(朝霜洞)]: 널나드리(널다리, 板橋)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높아 서리가 아침 일찍 내린다 하여 붙여진 마을명이다.
- 탑둔지(塔屯地): 동창(東倉) 서북쪽 둔지에 있는 마을로 물걸리 사찰(일명 홍양사)의 삼층석탑과 석조비로사나불좌상과 석조여래불좌상이 있는 것에서 연유하여 붙여진 마을명칭이다.

(2) 서곡리(瑞谷里)

내촌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내촌면 지역으로, 조선 영조 때 서곡대사(瑞谷大師) 찬연(粲淵)의 출생지라 하여 서일(瑞日), 또는 서곡(瑞谷)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절골[사동(寺洞)], 여창이[汝昌-, 呂昌-]를 병합하여 서곡리라 하였다.

- 가사-거리: 서일(瑞日) 앞 내촌천가에 있는 마을로 옛 쌍계사의 스님들이 내촌천에서 목욕할 때, 이곳 소나무에 가사(袈裟)를 걸어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지명이다.
- 덕탄(德灘): 서일(瑞日) 앞에 있는 내촌천의 큰 여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두봉산(頭鳳山): 절골[절깨, 사곡(寺谷), 사동(寺洞)] 뒷산에 소재한 봉황의 머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절골 마을 쌍계사(雙溪寺) 뒷산 이름이다.

- 물안 꼴[수왕동(水旺洞)]: 큰 여창이 옆에 있는 마을로 여러 골짜기의 물이 마을 앞으로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밧-실[밧서일, 외서일]: 서일(瑞日)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서일-고개: 서일(瑞日)에서 와야리(瓦野里)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수레-바우: 안실 남쪽에 있는 바위로 수레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실[내서곡, 내서일(內瑞谷, 內瑞日)]: 서일 안쪽에 있는 마을로 영조 때 서곡대사(瑞谷大師)가 출생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 여창-이: 서일 북쪽에 있는 마을로 여씨(呂氏)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 여창이, 큰 여창이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 절-골[절깨, 사곡(寺谷), 사동(寺洞)]: 작은 여창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쌍계사(雙溪寺)가 있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곡, 사동이라고도 한다.

(3) 와야리(瓦野里)

내촌면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내촌면 지역으로 오랜 옛날에 이씨 성을 가진 부자 12명이 기와집을 12채 짓고 살았다고 하며, 이곳에서 기와를 굽던 마을이므로 와야(瓦野, 瓦耶)라 이름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령골[가령곡(加靈谷), 개령동, 가역골, 가역곡(加驛谷)], 망전[望田, 덕전(德田)]을 병합하여 와야리라 하였다.

- 가령-골[가령곡(加靈谷), 개령동, 가역골, 가역곡(加驛谷)]: 와야리 동북쪽 길가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역(驛)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역 이름은 '가역(加驛)'이었다. 가역골, 가역곡(加驛谷)이라고 불리다 가령, 개령 등으로도 변하여 불린다.
- 가령-폭포: 가령골 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폭포이다.
- 고든-골[직골, 직곡(直谷)]: 곧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고든-골이라고 불린다.
- 덕전[德田, 망전(望田)]: 와야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 덕전(德田)이라 하였는데,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살던 큰 부자가 시주 온 중에게 거름을 퍼주고 내쫓아버린 뒤로 망했다고 한다.
- 문-바우: 봉소대에 있는 문처럼 생긴 바위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밤-까시[율목동(栗木洞)]: 와야 북쪽에 있는 마을에 밤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백암산(白岩山): 가령골 위쪽에 있는 산으로 신바우가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벼락-바우: 전에 벼락을 맞았다는 바위가 소재하고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본부락(本部落): 와야리의 본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봉소대(鳳巢臺): 망전 남쪽에 있는 산이다. 경치가 썩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 불당동(佛堂洞): 망전 옆에 있는 마을로 불당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비선동(飛仙洞): 봉소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산이-동(산리동): 비선동과 회룡치 사이 산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수작-골[수작동(水作洞)]: 와야쪽의 물과 일문골의 물이 합치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수작골 고개(망전고개): 수작골에서 망전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신-바우(흰바우): 백암산(白岩山)에 있는 크고 흰 바위를 말한다.
- 아홉-사리[구곡치(九曲峙)]: 가령골에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의 미다리로 가는 큰 고개로 높고 험해서 길이 아홉사리로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연계동[煙溪洞, 영계동(詠溪洞)]: 덕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연계사 절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일문-골[일문곡(一門谷), 일문동]: 연계동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폭포수-골(폭포골): 가령폭포가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푯대-봉: 망전에 있는 산으로 세부 측량 때 기점(基點)을 잡은 푯대가 서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한바우-터: 처음에 한바우라는 사람이 터를 닦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4) 문현리(文峴里)

내촌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내촌면 지역으로 문고개 밑이 되므로 문고개(문현, 文峴) 또는 문현동(文峴洞)이라 하였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문현리라 하였다.

- 문-고개(문현, 文峴): 문고개 마을 문현동(文峴洞)에서 와야리(瓦野里)의 비선동(飛仙洞)으로 가는 고개이다. 입구에 문바위가 있다.
- 상촌(上村): 문현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하촌(下村): 문현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도관리(道寬里)

내촌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내촌면 지역으로 사방으로 산이 둘러 있어서 독의 안과 같이 되었다 하여 '독안'이라 하였고, 소나무 모종을 하였다고 모종촌이라고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큰골, 둔덕말, 모종촌, 버섯구지, 양지떼소를 병합하여 도관리라 하였다.

- 거주-개[가주개, 거주포(巨舟浦)]: 독안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영조 때 서곡대사(瑞谷大師)가 석비(石碑)를 운반하고 배를 매뒀던 곳이라 한다. 혹은 150여 년 전 포(浦)를 막았는데, 그 고인 물에 큰 배만 한 물고기가 서식하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한다.
- 도관이-장[장거리]: 도관리 장거리에 서는 내촌면의 전통 5일장 장시(場市)를 말한다.
- 둔덕-말: 독안이 옆 둔덕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말거리-소(沼): 답풍리와 도관리 경계에 있는 소(沼)이다. 매짓골에서 난 망아지가 주인을 잃고, 이 소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 매짓-골: 독안[도관리(道寬里)]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이곳에 살던 전씨(全氏)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레도 안 되어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힘이 장사이므로 그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역적모의를 하여 집안을 망칠까 두려워하여 아이를 죽였는데, 얼마 후에 큰 망아지가 이곳에 나타나서 우렁골에서 큰 소리를 내어 울고서 말거리 소(沼)로 가서 빠져 죽었다고 한다.
- 모종촌: 둔덕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 솔 모종을 하였다 하며, 약 50년 전부터 전통 5일장이 선다.
- 배-바우: 배뱃골에 있는 큰 바위로 배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배뱃-골: 큰골 안쪽에 있는 마을로 배바우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버섯-구지: 장거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소(牛)로 밭가는 쟁기 부품의 하나인 보습을 만드는 대장간이 있어 보습구지라 불리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버섯구지라 불리었다.
- 사갑(沙甲): 사방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내촌천이 마을을 삥 돌아서 흘러감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사방-거리[사방가리(四方街里)]: 거주개, 사갑, 서곡리의 서일로 독안이로 가는 네거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 지명이다.
- 쉴-바우: 독안이에 있는 큰 바위로 이 바위 옆에서 행인들이 쉬어 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고래: 거주포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고래는 고랑, 골짜기의 강원도 방언이다.
- 양지-떼소: 도관리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뗏목을 맸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떼소의 건너편은 응달-떼소이며 홍천의 뗏목은 이곳 떼소에서 출발한다.
- 우렁-골: 매짓골 옆에 있는 마을로 뒷산인 백우산(白羽山)인데 백우산 신령(神靈)이 이 계곡에 자주 내려와 재난 시에 큰 소리 내며 우렁차게 울면서 도움을 주었던 골짜기라고 하여 지명으로 유래된 것이다.
- 큰-골[대촌(大村)]: 독안이 북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마을 지명이다.
- 큰골-광산: 큰골에 있는 철광(鐵鑛)으로 1910년에 개광(開鑛)하였다고 한다.

(6) 상대리(和尙垈里)

본래 홍천현 내촌면 지역으로 화상사(和尙寺)가 있었으므로 '화상대'라고 법정동의 이름을 지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월부터[월부대(月浮垈)], 정신뜰, 연못골, 살벼울, 솔골, 신여울, 어은동을 병합하여 화상대리라 하였다.

- 다름-재: 월부터 남쪽에 있는 마을로 다름재 고개 밑이 되어 붙여진 마을 고개 이름이다.
- 달음-재: 다름재 마을과 월부터 사이에 있는 재이다.
- 살-벼울[사탄(沙灘)]: 화상대 동쪽 내촌 하천가에 있는 마을로 앞 내에 여울이 져 있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솔-골[송곡(松谷)]: 화상대 서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았는데 지금도 30여 그루가 남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 쇠목-소: 연못골에 있는 연못이다. 조선 때 좌수가 이 못가에 소를 매두었다가, 저녁 때 끌어 오려고 가보니 소가 없어지고, 고삐만 연못 가운데 떠 있으므로 이무기가 소를 잡아먹은 것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여울: 화상대리 앞 냇물이 센 여울[신-여울(辛灘)]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쌍-둔지: 양쪽으로 둔지(屯地)가 된 곳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래 연못골: 연못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어은-골[어은동(魚隱洞)]: 월부터[월부대(月浮垈)] 동쪽에 있는 마을로 풍수지리적으로 풀숲이 우거진 마을 앞 질퍽한 늪 속에 물고기가 숨어 있는 형국과 같이 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적합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어은골로도 불리우고 어은동(魚隱洞)이라 하였다.
- 연못-골[연동(蓮洞)]: 월부터[월부대(月浮垈)]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큰 연못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웃-연못골[상연동(上蓮洞)]: 연못골 위쪽에 있는 마을로 큰 연못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월부-터[월부대(月浮垈)]: 마을 앞산의 모양이 '월(月)'자가 떠 있는 형국과 같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절-터: 다름재 안쪽에 있는 마을로 암자(菴子)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정신-뜰[정신뜰, 경신평(庚申坪)]: 정신뜰에 있는 마을, 답풍이 삼선대이 앞, 곧 어은동(魚隱洞) 북쪽에 있는 들이다.
- 지르매-재[안현(鞍峴)]: 화상대리에서 두촌면 철정리로 넘어가는 재이다. 고개 모양이 길마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7) 답풍리(踏楓里)

본래 내촌면 지역으로 답풍(踏楓)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래울[가래골, 추곡동(楸谷洞)], 논골[답동(畓洞)], 삼선대이[삼성당(三省堂), 삼선대(三仙臺)],

솔경지[송정(松亭), 음달떼소], 용포동(龍浦洞), 숯고개[탄현(炭峴)]를 병합하여 답풍리라 한다.

- 가래-울[가래골, 추곡동(楸谷洞)]: 답풍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큰 가래나무가 서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가래골이라고도 불린다.
- 가목-소(沼): 옥녀[玉女, 선녀(仙女)]가 경대봉(鏡臺峯)을 앞에 놓고 머리를 감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가막소라'고도 불린다.
- 갈매-울[갈마곡(葛馬谷), 갈매곡]: 답풍리 안에 있는 마을로 갈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경대봉(鏡臺峯): 답풍리에 있는 산봉우리로 가막소, 또는 가목소에서 옥녀가 머리를 감고 경대봉을 향하여 화장(化粧)을 한다고 한다.
- 논-골[답동(畓洞)]: 가래골 동쪽 논 옆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독-바우: 독바우소에 있는 바위로 독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독바우-소: 답풍 안에 있는 소(沼)이다. 옆에 독바우가 솟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밋-골: 용갯골[용포(龍浦), 용포동(龍浦洞)] 옆에 있는 마을로 앞산에 묘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으로 묘골>밋골로 변형되어 불린다.
- 방갯-골: 용갯골 너머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골짜기로 방개골은 '방개울(배미+가+울)'과 같은 어형으로서 '터+가+울'로 보아 '터골의 인근(가장자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추정해볼 수가 있다.
- 삼선-대이[삼성당(三省堂), 삼선대(三仙臺)]: 답풍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세 정승이 날 명당이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석장-골[석장곡(石葬谷)]: 답풍 안에 있는 골짜기 옛 돌무덤이 있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선-가마골: 성씨의 묘(墓)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솔-경지[송정(松亭), 음달떼소]: 논꼴 북쪽 응달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그 소나무를 베어 뗏목을 매던 곳이라 음달떼소라고도 한다. 뗏목은 떼소에서 출발한다.
- 숯-고개[탄현(炭峴)]: 용포동 북쪽 숯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또는 숯고개 마을에서 두촌면 천치리(현, 천현리)로 가는 고개로 숯을 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형제-고개: 답풍리와 화상대리 경계에 있는 고개로 고개 다섯이 연이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 용갯-골[용포(龍浦), 용포동(龍浦洞)]: 답풍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용못, 용포, 용포동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8) 광암리(廣岩里)

내촌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내촌면의 지역으로 4~5평 정도 되는 넓은 바위가 있으므로 너벙바우 또는 광암(廣岩)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웃괘석[상괘석(上掛石)]을 병합하여 광암리라 하였다.

- 가족-이[가족동(可足洞)]: 너벙바우[광암(廣岩)] 남쪽에 있는 마을로 논이 많고 살기가 좋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올바른 사람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 가족이-고개[가족현(可足峴)]: 가족동 남쪽으로 도관리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군-네미[군유동(君踰洞)]: 가족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군네미고개 밑이 된다. 너태소, 용소 등의 소(沼)와 기암괴석이 즐비하고 경치가 좋아 어느 왕[혹은 마의태자(麻衣太子)]이 머물러다가 넘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군네미-고개: 군네미 동쪽 괘석리로 가는 고개로 신라 말엽 마의태자가 넘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내촌괘석[乃村掛石, 괘석이, 웃개석, 상괘석(上掛石)]: 두촌면 경계에 있는 마을로 두촌면 괘석리 위쪽이 되는데 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내촌괘석이라 한다.
- 너벙-바우[광암(廣岩)]: 너벙바우 마을에 넓은 바위(넓이 약 20㎡)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느와-터[영와대(靈瓦垈)]: 너벙바우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능와집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느와터와 웃느와터로 나뉘어 있다.
- 느와터고개(원너미고개): 느와터에서 도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시대 때 어느 원님이 넘어갔다고 하여 '원너미고개'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 문안-고개[문내치(門內峙)]: 황철골 동쪽에서 인제 기린면 문내곡으로 가는 고개이다.
- 신바웃-골: 웃괘석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하얀 바위가 솟아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황철-고개(황정고개): 광암리에서 인제군 기린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황철나무가 많다는 황철-골에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황철-골[황철동(黃哲洞·黃鐵洞), 황정골]: 느와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황철나무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내촌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蓮池洞	연못골	연못골(蓮池洞)	화상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정신뜰, 연못골, 살벼울, 솔골, 신여울 화상대리 편입				
	조선지지	松谷	솔골	솔골(松谷)	화상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솔골 등을 화상대리 편입				
	조선지지	月浮垈	월부터	월부터, 월정대	화상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월부대, 월부터, 월정대를 화상대리리 편입				
	조선지지	沙灘	살벼울	살벼울	화상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사탄을 화상대리에 편입				
	조선지지	畓洞	논골	논골	답풍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가래울, 논골, 삼선대이, 솔경지, 숯고개 답풍리 편입				
	조선지지	楸洞	가래울	가래울(楸洞), 楸谷	답풍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가래울, 논골, 삼선대이, 솔경지, 용포동, 숯고개 편입				
	조선지지	浴浦洞	욕포골	욕포골	답풍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가래울, 논골, 삼선대이, 솔경지, 용포동, 숯고개 편입				
	조선지지	大谷村	큰골말	큰골말	도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큰골, 둔덕, 모종, 버섯구지, 양지떼소 도관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巨貴浦里	거귀포리	거귀포리	도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거귀포리 도관리에 편입				
	조선지지	泗甲村	사갑말	사갑말	도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사갑말 도관리에 편입				
	조선지지	呂昌里	여창리	여창리	서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절골(寺洞), 여창이(汝昌)를 병합하여 서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瑞目里	서목리	서목리	서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서목리 서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飛仙洞	비선동	비선동	와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가령골, 망전을 병합하여 와야리에 편입				
	조선지지	鳳巢垈	봉소터	봉소터	와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봉소터 와야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作洞	수작골	수작골, 수작동	와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수작골 와야리에 편입				
	조선지지	望田洞	망전골	망전골, 덕전골	와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망전골 와야리에 편입				
	조선지지	開靈洞	가령골	가량골, 가령동	와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가령골 와야리에 편입				
	조선지지	가로개	가로개	가루개(葛峴)	물걸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복골, 동창, 감두리, 새마을, 탑둔지, 가로개, 자근솔치, 장수원, 조상골, 조룬, 된재를 병합하여 물걸리에 편입				
	조선지지	졸운	졸운	조룬, 조운(朝雲)	물걸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졸운, 복골, 동창, 감두리, 새마을, 탑둔지, 가루개, 자근솔치, 장수원, 조상골, 조룬, 된재를 병합하여 물걸리에 편입				
	조선지지	甘杜里	감두리	감두리	물걸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감두리 물걸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榻屯之	탑둔지	탑둔지(塔屯地)	물걸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탑둔지 물걸리에 편입				
	조선지지	廣岩	너렁바위	너래바위, 너렁바위(광암)	광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너렁바위 괘석리(현 두촌면)에 편입				
	조선지지	黃哲洞	황철골	황철골(黃鐵洞), 황청골, 황정골	광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황철동 괘석리에 편입				
	조선지지	張可垈	장가터	장가터	광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가터 괘석리에 편입				
	조선지지	文峴里	문고개	문고개(文峴洞)	문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문현동, 문고개 문현리에 편입				
山名	白羽山	백우산	백우산, 배우산	도관리	
	頭峰山	두봉산	두봉산	서곡리	
谷名	開靈谷	가령골	가령골, 개령동	와야리	
	水作谷	수작골	수작골	와야리	
	蓮池谷	연못골	연못골	화상대리	
	福谷	복골	복골	물걸리	
嶺峙峴名	무안고개	무안고개	무안고개	광암리	
	가족고개	가족고개	가족고개	광암리	
	아홉사리고개	아홉사리고개	아홉사리고개	와야리	
酒幕名	松亭酒幕	솔경지쥬막		답풍리	
	사방거리쥬막	사방거리쥬막		도관리	
	가새거리쥬막	가새거리쥬막		서곡리	
	슈직골쥬막	슈직골쥬막		와야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酒幕名	廣岩酒幕	너벙바위쥬막		광암리	
	新村酒幕	새말쥬막		물걸리	
野坪名	庚申坪	정신뜰	정신뜰	화상대리	
	깨뜰	깨뜰	깨뜰	답풍리	
	堂坪	당뜰	당뜰	도관리	
堤堰洑名	大川洑	큰내보	큰내보	물걸리	
	小川洑	작은내보	작은내보	도관리	
江川溪澗名	德灘川	큰여울(덕탄천)	큰여울(덕탄천)	서곡리	
	藥城灘溪	약성여울계곡	약성여울계곡(藥城灘溪)	도관리	

5) 서석면(瑞石面)

홍천군 동남쪽에 위치하며 고려시대에는 노릉군(魯綾郡) 주우면이라고 칭하다가 조선시대부터 서석면이라고 하고 유진리(流津里)와 생곡리(笙谷里)을 관할하였다. 1830년대에 와서 수하(水下), 유진(流津), 검산(檢山), 생곡(笙谷), 청량(淸凉)을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풍암, 하군두, 상군두, 검산, 생곡, 청량, 어론, 수하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으나 근래에 상군두와 하군두를 군두리로 통합하였다.

(1) 검산리(儉·檢山里)

서석면 동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서석면 지역으로 '검산(儉山)'이라는 지명은 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삼신산(三神山)에서 유래했다. '검'은 단군왕검(檀君王儉)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이나 '얼'을 뜻하기도 하며,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들이 검은색을 띠어 '검은산'이라 불리다 '검산'으로 됐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방(邱坊), 샛말[간촌(間村), 새마을], 둔지(屯地), 버들금이[유구미(柳口味)], 멍둥이[명동(明洞)], 진장이[진장동(眞長洞)]를 병합하여 검산리라 한다.

- 검산교(儉山橋): '검산(儉山)'은 주변의 큰 산들이 검은 가마솥 같이 둥근 원형을 이룬 마을을 에워 둘러싸 있다 하여 가마솥의 검은색을 따다가 검은산>검산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났으며 검산교는 내면과 서석면 경계 사이에 있는 다리로 1958년에 놓아졌다.
- 곧너미-고개[직유현(直踰峴)]: 검산리와 생곡리(笙谷里)의 판관대(判官垈) 사이에 있는 고개로 판관대를 지나서 내면으로 가는데 이 고개를 넘어가면 약 10리가 단축된다고 하여 직유현(直踰峴)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 구방(邱坊): 검산리 서남쪽 언덕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구-보: 검산리 앞 남쪽에 예전부터 있던 보(洑)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까끈-재[각근치(刻近峙)]: 진장이 긴 골짜기에서 홍천군 내면(內面)으로 가는 고개이다. 고개의 형세가 마치 깎아 세운 듯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둔지(屯地): 구방(邱坊) 위쪽 언덕 위에 있는 둔지가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둔지-들: 둔지 앞에 있는 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마이산(馬耳山): 삼신산(三神山)의 한 봉우리로 산의 모양이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하여 마이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삼신산은 마이산(馬耳山), 수양산(首陽山), 아미산(娥媚山·娥眉山)을 일컫는다.
- 멍둥-이[명동(明洞)]: 검산 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멍둥이, 작은 멍둥이의 두 마을로 나뉘어 있으며 명동(明洞)이라고도 한다.
- 명동-철광(쇠판이): 멍둥이에 있는 철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버들-구미[유구미(柳口味)]: 검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유구미라고도 불린다. 버들구미에는 작은 버들구미, 큰 버들구미의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 삼신산(三神山): 응달말[삼산, 음촌(三山, 陰村)] 앞 냇가에 솟아 있는 산으로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을 아울러 이르는 말과 같이 서석에도 마이산(馬耳山), 수양산(首陽山), 아미산(娥媚山·娥眉山) 등을 통틀어 말하며 산세가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 예전에 신선(神仙)이 내려와 놀았던 곳이라고 전하여 삼신산이라 이름하여 전해진다고 한다. 이곳 검산리 마을에서는 마이산, 수양산, 아미산을 삼신산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삼신산은 산이 아니라 예부터 마을 이름으로 불리어 전해오고 있다고 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 새-보: 구보(舊洑) 다음으로 새로 만든 새보[신보(新洑)]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샛-말[간촌(間村), 새마을, 새말, 신촌(新村)]: 멍둥-이[명동(明洞)]와 둔지(屯地)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새말, 새마을, 신촌이라고도 불린다.
- 샛곡-고개: 검산에서 생곡리 너래물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샛곡'은 새로운 고개라는 '새터재'란 의미이다.
- 수양산(首陽山): 삼신산의 세 봉우리 중의 하나로 수영이 수양골을 따라 올라가면 바루봉[발우봉(鉢盂峰)]이 수양산이라 알려진 이름이다. 수양산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는 유래를 밝히지 못하였지만, 수양산이란 지명을 가진 산은 대체로 고사리가 많이 자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마도 삼신산 중에 하나인 수양산도 우리 조상들은 고사리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산을 보면 지조(志操)의 상징인 백이숙제(伯夷叔齊)를 떠올리고 그 산에 수양산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며 지명유래는 향후 지역의 자료조사 수집에 의한 연구과제로 삼겠다.
- 수영-이: 수양산(首陽山)의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수양산의 수양>수영으로 음운변화하여 '수영이'라고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아들-바우: 조조울[효제동(孝悌洞)] 안에 있는 높다란 바위로 바위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작은 돌을 던져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오고 있다.
- 안-구랭이: 둔지(屯地) 안 구렁이 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작은 연못과 정자(亭子)가 있었다.
- 안구랭이 연못: 안구렁이 안에 있는 작은 연못이다. 옆에 정자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응달-말[삼산, 음촌(三山, 陰村)]: 둔지(屯地) 동쪽 응달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삼신산(三神山)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진장-이[진장동(眞長洞)]: 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폭포산(瀑布山): 수양산 아래에 있는 산으로 높이 약 2m의 폭포가 있다. 수양산 아래에 살던 늙은 부부가 힘이 센 아들을 낳았는데 역적(逆賊)이 될까 봐 죽였더니, 수양산에서 용마(龍馬)가 나타나 폭포로 떨어져 죽었는데, 근처에는 말 발자국이 있는 바위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군두리(軍杜里)

서석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서석면 지역으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때 적군을 막고자 이 일대에 군(軍)의 숙영지(宿營地)를 만들어 주둔하던 곳이라 군두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상군두리(上軍杜里)라 하고, 새둔지[신둔지(新屯地)], 옥루동(玉樓洞)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하군두리(下軍杜里)라 하였는데, 근년에 다시 병합하여 군두리(軍杜里)라 칭하였다.

- 구시장(舊市場): 상군두(上軍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약 50년 전까지 장(場)이 섰었던 곳이다.
- 군두리(軍杜里): 상군두리와 하군두리에 걸쳐 있는 마을로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주둔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마산(馬山): 구시장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산의 모양이 말의 등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메지바우-너설: 하군두 북쪽 산 밑에 있는 바위너설로 그 넓이가 약 300여 평이나 된다. 너설은 험한 바위나 돌 따위가 삐죽삐죽 나온 곳을 말한다. 순 우리 토박이말이다.
- 새-둔지[신둔지(新屯地)]: 하군두 남서쪽 둔덕에 새로 된 마을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지명이다.
- 옥루동(玉樓洞, 옥루골, 옥룻골): 하군두 서쪽에 선녀(仙女)가 놀던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옥룻골이라고도 불린다.

(3) 생곡리(笙谷里)

서석면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서석면 지역으로 지형이 피리와 같다 하여 피리골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너래물[광수동(廣水洞), 널이물], 고분대월[곡죽동(曲竹洞)], 생비[상비(上飛)], 새창이, 용터[용대(龍垈)], 지장동[지장리(芝長里)], 배나뭇-골[이목동(梨木洞)], 판관터[판관대(判官垈)]를 병합하여 생곡리라 하였다. 일설에는 진한(辰韓)의 태기왕이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태백산맥을 배경으로

광복(光復)을 위해 힘을 길렀다는 전설중, 태기왕이 퉁소를 즐겨 불던 곳이라 하여 생곡(笙谷)이라 부른다 한다.

- 고분대-월[곡죽동(曲竹洞)]: 판관대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굽이가 된 곳에 띄엄띄엄 마을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너래-물[광수동(廣水洞), 널이물]: 피리골 북쪽 내촌천 가에 있는 마을로 앞 냇물에 너럭바위가 많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다리-골[교동(橋洞)]: 샛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월(對月, 大月): 판관대 동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미암동(美岩洞): 명당자리가 있으며 주변경관이 아름다움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배나뭇-골[이목동(梨木洞)]: 지장리(芝長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목동(梨木洞)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돌배나무가 많고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興亭里) 구목령(구나무재)을 넘는 중간에 쉴 곳에 수백 년 묵은 돌배나무가 있어 구목령을 넘어 다니던 행상인(行商人)들인 쉬어 넘어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구목령의 유래는 옛날 오지고개인 이곳에 노목(老木)이 아홉 그루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상대월(上大月): 대월 위쪽에 있는 판관-터[판관대(判官垈)] 동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옛날 한 선비가 밤에 길을 잃게 되자, 산을 바라보며 시(詩)[10]를 지어 부르자 둥근 달이 밝게 솟아올라 길을 찾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새찬-이[쇠찬이, 새창이, 도찬동(道贊洞), 도찬이]: 너래물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어떤 지관(地官)이 명당자리를 찾아 이곳까지 왔으나 찾지 못하고 혀를 차고 돌아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샛-말[간촌(間村)]: 지장고개와 피리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샛말 또는 간촌(間村)이라고도 한다.
- 생비[상비(上飛)]: 지장리(芝長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연화봉(蓮花峰)을 중심으로 한 불교유적에서 지장보살과 생불(生佛), 생비[상비(上飛)] 등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생비는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32종의 표상(標相) 중에 하나이다.
- 서광동(瑞光洞): 판관대(判官垈)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한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 정착하던 중, 이곳에 상서로운 빛을 내는 암석이 많았다고 하여 서광동(瑞光洞)이라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마을이다.

- 서광이 약수터: 서광동(瑞光洞) 안에 있는 약수(藥水)로 속병에 매우 좋다 한다.
- 약물-바우: 약수터에 있는 바위로 바위틈에서 약수가 솟아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용-터[용대(龍垈)]: 피리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 냇물에서 용(龍)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골[장곡(長谷)]: 고분대월[곡죽동(曲竹洞)] 북쪽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긴골, 장골, 장곡이라고도 한다.
- 장골-고개[징곡현(徵谷峴), 장곡재]: 장골[장곡(長谷)]에서 평창군 봉평면(蓬坪面)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칭한다.
- 지장-고개: 지장동[芝長洞, 지장리(芝長里)] 에서 피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일컫는다.
- 지장동[지장리(芝長里)]: 다리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장(기장, 기장쌀)이 많이 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판관-터[판관대(判官垈)]: 너래물[광수동(廣水洞), 널이물]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판관 벼슬을 지낸 사람이 출생한 곳이라 설과 판관 벼슬한 선비가 피난(避難) 와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판관 벼슬한 선비가 바둑을 즐겼던 산상(山上)에는 아직도 그가 편안하게 앉았던 자리[판관대(判官垈)]가 남아 있다고 전한다.
- 하대월(下大月): 대월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수하리(水下里)

서석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서석면 지역으로 수하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두둑[가구리(佳邱里)], 절골[사동(寺洞)], 용의 터[용호대(龍虎垈)], 항골[항곡(項谷)]을 병합하여 다시 수하리라 하였다. 예전부터 학(鶴)이 많이 서식(棲息)하고 있었다는 연유로 향학촌(鄕鶴村)이라고도 불렸다.

- 가-두둑[가구리(佳邱里)]: 구둔치 아래 언덕에 있는 마을러 가구리로도 불린다.
- 고든-골[직동(直洞)]: 누런이[눌언(訥言)이, 납언리(納言里)] 동쪽 곧은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 구둔치(狗屯峙): 구둔치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며 또는 가두둑에서 내촌면 물걸리의 신촌으로 가는 고개로 병자호란 때 용의터[용호대(龍虎垈)]에는 관군이 주둔했고 이 고개에는 북방 오랑캐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구븐-골: 고든골 안쪽 굽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누런-이[눌언(訥言)이, 눌언리(訥言里)]: 가두둑 동북쪽 내촌천 건너에 있는 마을로 눌언리(訥言里)라고도 한다.
- 문-바우: 안절골 위에 있는 바위로 높이 약 10m가 넘는다. 길 양쪽에 문처럼 높게 솟아 있어 마치 양쪽 대문을 닫아놓은 것같이 웅장하고 신비스러워 붙여진 지명이다. 근년에 외사동(外寺洞) 일대가 규석광산(硅石鑛山)이 개발되면서 이 상서로운 문바위는 훼손되었다.
- 바깥 절골[외사동(外寺洞)]: 절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외사동이라고도 불리며, 근래 이 일대가 규석광산으로 개발되어 있는 마을이다.
- 안-절골[내사동(內寺洞)]: 절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붙여진 이름으로 내사동이라고도 불린다.
- 양지-항골[양지항곡(陽地項谷)]: 항골[항곡(項谷)] 양지(陽地) 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용호-터[용호대(龍虎垈)]: 수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龍)과 범(虎)가 많이 서식하여 마을 앞 소(沼)에서 용(龍)이 승천했다고 하며 마을에는 범이 인근 마을까지 자주 출현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음지-항골[음지항곡(陰地項谷)]: 항골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작은 구둔치[소구둔치(小狗屯峙)]: 큰 구둔치 옆에 있는 작은 구든치라 하여 붙여진 고개 이름이다.
- 절-골[사동(寺洞)]: 수하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사동이라고도 불린다.
- 진-고개[장현(長峴)]: 수하리에서 내촌면 물걸리(物傑里) 조상골[조상동(朝霜洞)]로 넘어가는 긴 고개를 일컫는다.
- 진-여울[장탄(長灘)]: 가두둑 앞에 있는 내촌천의 긴 여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장탄이라고도 불린다.
- 큰-두둔치[대구둔치(大狗屯峙)]: 구둔치 북쪽에 있는 큰 고개로 구둔치에서 용호터

와 물걸리 새말로 가는 고개이다.

- 학-무덤 고개[학치(鶴峙)]: 행치(行峙) 위에 있는 묘(墓)이다. 조선시대 말엽 어떤 이가 자기 부인을 묻을 명당자리를 찾고 있는데, 때마침 지나던 스님이 가리키면서 깊이 파지 말고 묻으라 하였다. 하지만 파보니 물이 솟아나서 더 깊이 파니 그곳에서 학 세 마리가 날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학 무덤이 있었던 고개라고 하여 학치(鶴峙)라고도 한다.
- 항-골[항곡(項谷)]: 수하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목처럼 낮은 골짜기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또한 '목실'이라고도 한다.
- 행치[行峙, 학치(鶴峙)]: 항골에서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미다리로 가는 고개로 학 무덤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황새-재[항서령, 황서령]: 용의터에서 수하리로 가는 재이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용호터에 있던 관군(官軍)이 항서(降書)를 가지고 구둔치에 주둔한 호군(胡軍)에게 전하려고 이 고개를 넘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항서령(降書嶺)이라고도 불린다.

(5) 어론리(魚論里)

서석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동리로 본래 홍천군 서석면 지역으로 서석의 모든 물이 모이는 지역으로 강이 가까이 위치하여 고기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어론(魚論)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과우(過隅), 이금이[예금이(藝今伊)], 방강터[방가대(方家垈)], 왯둔지[와둔지(瓦屯地)], 미울(美鬱), 용두안(龍頭岸)을 병합하여 어론리라 하였다.

- 과우(過隅): 이금이[예금이(藝今伊)] 서쪽에 있는 마을로 지나가는 산모퉁이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미울(美鬱): 불목재[부목현(扶牧峴)] 남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붙여진 이름이다.
- 방가-터[방가대(方家垈)]: 어론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방씨일가(方氏一家)가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 불목재[부목현(扶牧峴)]: 어론리에서 동면 노천리(魯川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부목현

(扶牧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솔-치[송치(松峙), 솔재]: 어론리에서 화촌면 장평리 웃솔재로 가는 고개이다. 소나무가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수리-바우: 과우 남쪽 수리봉 산에 있는 큰 바위로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멀리서 보면 마치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야촌(野村): 어론이 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어론-다리[어론교(魚論橋)]: 어론리 앞에 놓인 다리로 1955년에 놓았다.
- 왯-둔지[와둔지(瓦屯地)]: 방가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후기 기와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와둔지(瓦屯地)라 부르게 되었다. 최근에 기와 굽던 유적에 유물들이 산포되어 와편(瓦片)이 채집되고 있음으로 기와 가마가 운영되었던 곳으로 확인된다. 근처에는 와둔지 약수(藥水)가 있다.
- 용두안(龍頭岸): 왯둔지[와둔지(瓦屯地)]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뒷산이 지형이 용의 꼬리 모양이고, 이 마을은 용의 머리 형국(形局)이라 붙여져 불리게 된 지명이다.
- 이금-이[예금이(藝今伊)]: 불목재[부목현(扶牧峴)] 아래에 있는 마을로 작은이금이와 큰이금이,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 중암(重岩): 과우(過隅) 남쪽 수리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겹쳐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황정-골[황정동(黃精洞)]: 과우(過隅)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황철나무가 무성했음으로 이 황철나무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암에 탁월한 효과가 알려져 있는 약재 황정(黃精)임으로 이곳의 지명으로 불리어 붙여진 것이다.
- 황정-고개[황정현(黃精峴)]: 황정골에서 청량리(淸凉里) 노쟁이[노장리(老長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6) 청량리(淸凉里)

서석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서석면 지역으로 숲이 울창하고 물이 맑았으며, 청량사(淸凉寺)가 먼저 창건되어 있었으므로 '청량이' 또는 '청량리'라 이름이 붙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량사에 대한 연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후문제와 지명유래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861~1866년경

김정호에 의하여 편찬된 『대동지지(大東地志)』와 1872년 홍천현 고지도(古地圖)에 의하면 황장봉산(黃腸封山)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홍천현 동남쪽의 청량리(淸凉里)에 금산(禁山)이 표시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노쟁이[노장리(老長里)], 동두말[동두촌(東頭村)], 모곡(牟谷), 벌막, 북바치, 서근바우를 병합하여 청량리라 한다.

- 거리(巨里): 청량이 서쪽 길가에 있는 마을이라 불리게 된 지명이다.
- 노쟁-이[노장리(老長里), 노정리(老亭里)]: 북바치[북전지(北田地)] 위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부유한 고을 어른[노장(老長)]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유어 '노쟁이'란 지명의 유사(類似)한 음(音)을 가진 한자(漢字)를 빌려 표기한 경우이다.
- 독-바우: 청량이 뒤 산 끝에 있는 큰 바위로 바위의 모양이 독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동두-말[동두-촌(東頭村)]: 청량이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동쪽의 첫 번째 큰 마을이라 동두-촌(東頭村)이라고도 한다.
- 벌-막[봉막골, 봉막곡(蜂幕谷)]: 청량이 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양봉(養蜂)을 했던 곳이라 하여 봉막골로도 불린다.
- 보리-울[모곡(牟谷)]: 청량이 앞벌에 있는 마을로 옛날부터 보리를 많이 경작하였던 곳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음양 일조를 볼 때 보리 재배지로 최적지라 하여 마을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 북-바치[북전지(北田地)]: 청량이 북쪽 밭 옆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삼년-터[삼년대(三年垈)]: 청량이 안에 있는 황장봉산(黃腸封山)이 있는 황장곡(黃腸谷) 골짜기 마을로 고을 원님이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살았다고 하여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서근-바우[삼근암(三斤岩), 썩은 바우]: 청량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작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이 있는데, 이 마을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을 예상하고 무게를 달아보니 세 근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 삼근암 또는 서근 바위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옛날 이곳에 8척 장신의 장사가 살았는데 세 근이나 되는 돌로 공기놀이를 하다가 높은 바위 위로

던졌는데 그 공기돌이 큰 바위 위에 올라앉았다고도 한다.

- 원넘이-재[원령(遠嶺)]: 운무산(雲霧山)의 한 줄기로 북바치[북전지(北田地)]에서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율실리(栗實里), 또는 속실리(粟實里)로 가는 큰 고개이다. 병자호란 때 홍천현 원님(李大淳)이 넘어갔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음양지(陰陽地): 청량이 양지 쪽과 음지 쪽 사이에 있는 마을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음지 쪽은 음지말, 양지 쪽은 양지말로 이를 합쳐서 음양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설이 있다.

(7) 풍암리(豊岩里)

서석면(瑞石面) 중심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홍천군 서석면 지역으로 풍암(豊岩)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덕바치, 감두리, 새말, 조조울[효제동(孝悌洞)], 동막골을 병합하여 풍암리라 하였다.

- 감두리(甘頭里·甘杜里)]: 풍암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내촌천이 감돌아 흘러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적을 맞아 싸우다 항복한 곳이라고도 한다.
- 고양-이 약물터: 고양산(高陽山) 아래에 있는 약물터이다. 고양산의 '고양>고양이'로 음운변화 되어 산이 탈락되고 후반부 지명소가 된 '-이'가 의미 없이 붙어 불리고 있다.
- 덕-바치[덕밭재, 덕전치(德田峙)]: 싱방이[승방리(升方里)] 동북쪽 산골짜기 언덕 안에 있는 마을로 밭이 크다고 하여 덕밭, 덕전(德田)이라 지명화되었다. 덕바치, 덕밭재, 덕전치라고도 불리고 있다.
- 동막-골[동막곡(東幕谷)]: 풍암리 서쪽 동막산(東幕山) 아래에 산막(山幕)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말[새마을, 신촌(新村)]: 풍암리 남쪽 들 옆에 근년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새마을, 새-말,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 새말-모퉁이: 풍암리 서북쪽 끝에 있는 마을로 새-말[새마을, 신촌(新村)]로 가는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시장-터: 전통 장시(場市)가 매 5일마다 개설되는 시장으로 서석장(瑞石場)이 운영되는 장터 마을이다.
- 싱방-이[승방이, 승방리(升方里)]: 풍암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승방(僧房)이 있었다고 하여 불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승방(僧房)이라 부르던 것을 승방(升方)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이반-보(洑): 풍암리 앞에 있는 큰 보(洑)로 몽리(蒙利) 면적이 약 2,000마지기나 된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장-막(帳幕): 풍암리 서북쪽 고양산(高陽山) 아래에 있는 마을로 사냥꾼들의 장막(帳幕)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조가동(鳥歌洞): 효제골[조조울, 효제동(孝悌洞)] 남쪽에 있는 마을로 새가 많이 모여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새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라 하여 지명화되었다는 설과 이곳 마을에 조씨 성을 가진 자들이 많이 세거(世居)하여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 조조-울[효제동(孝悌洞)]: 조가동(鳥歌洞)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가 지극하던 효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부터 '효제골', '효제곡리'라고 불렸는데 마을 명칭이 왜 '조조-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 중방-터: 싱방이[승방이, 승방리(升方里)]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 지령리(地靈里, 기렁리): 풍암리에 있는 마을로 비가 조금만 내려도 땅이 질다고 하여 기렁리, 지렁이라고도 불렸다는 설이 있다. 또 마을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었다고 하여 사람은 땅의 신령스런 정기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여 지령리(地靈里, 기령리, 기렁리]라고도 불렸다는 설이 있다.
- 지혜동(智惠洞, 지역골, 지혜골): 감두리(甘頭里)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진등-산: 덕바치[덕밭재, 덕전치(德田峙)]에서 풍암리까지 길게 뻗은 낮은 구릉진 산이다. 진등은 '긴등'의 방언이다. '긴등'은 길게 뻗은 언덕 등성이를 말한다.
- 진등이-고개[자작고개]: 진등산에 있는 길게 뻗은 낮은 구릉진 고개로 동학농민항쟁 때 관군이 이곳에서 동학군(東學軍)을 무찔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자작고개에 아람드리 밤나무가 있었는데, 동학군의 상투머리[효수(梟首)]를 매단 곳이기도 하다.[11] 진등이라는 지명은 동학군이 진(陣), 진영(陣營)을 친 곳이라 하여 만들

어졌다는 설이 있다. 또 언덕 등줄기가 긴 고개를 긴등고개라 하는데, '긴'의 강원도 사투리가 '진'이어서 진등이라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이 고개에는 예전에 성황당(城隍堂)이 있어 '서낭당' 고개라고도 불렸다. 동학농민항쟁 당시 많은 동학군이 희생되어 피가 자작자작 흘렀다고 하여 '자작고개'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 현하(峴下): 진등이 고개(자작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후동(後洞): 풍암리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서석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孝悌谷里	효제골	효제곡리	검산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방, 샛말, 둔지, 버들금이, 멍둥이을 검산리 편입				
	조선지지	明洞里	멍둥이	멍둥이, 명동리	검산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명동리 검산리 편입				
	조선지지	眞長里	진장이	진자이, 진장리	검산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리에 편입				
	조선지지	疊學里	흔학골	흔학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너래물, 고분대월, 새창이, 용터 병합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於長里	어장골	어장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어장리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栗灘里	율탄골	율탄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石王里	석왕골	석왕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생곡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長谷里	장골이	장골이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判官垈里	판관대골	판관대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曲竹洞	곡죽골	곡죽동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大月里	대월골	대월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廣水洞	너래물	너래물(廣水洞)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너래물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道贊里	도찬이	도찬이, 새찬이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도찬이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城惶堂里	성황당골	성황당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황당골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間村里	샛말	샛말(間村里)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샛말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橋洞里	다릿골	다릿골, 교동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다릿골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芝長峴里	지장골	지장골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장골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上飛里	생비골	생비, 상비리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비골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梨木洞	배나무골	배나무골	생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배나무골 생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玉漏里	옥룻골	옥룻골	하군두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옥룻골 하군두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 村名	조선지지	屯德里	둔덕골	둔덕리	하군두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둔덕골 하군두리에 편입				
	조선지지	幕屯地村	막둔지말	막둔지말	풍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막둔지 풍암리에 편입				
	조선지지	地靈里	지령골	지령리	풍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령골 풍암리에 편입				
	조선지지	升方里	승방골	승방리	풍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승방골 풍암리에 편입				
	조선지지	鳥歌洞	조가골	조가동	풍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조가골 풍암리에 편입				
	조선지지	구새달이	구새달이	구새달이	풍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새달이 풍암리에 편입				
	조선지지	黃腸洞	황장골	황장동	언론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풍암리에 편입				
	조선지지	沙川里	사천골	사천리	상군두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사천골 상군두리에 편입				
	조선지지	三斤岩里	삼근암골	삼근암리	청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삼근암골 청량리에 편입				
	조선지지	老長里	노장골	노장리	청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노장골 청량리에 편입				
	조선지지	陽地村	양지말	양지말	청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양지말 청량리에 편입				
	조선지지	東頭村	동두말	동두말, 동두촌	청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동두말 청량리에 편입				
	조선지지	三年垈	삼년터	삼년터, 삼년대	청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삼년터 청량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瓦野屯地	와야둔지	와야둔지	어론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와야둔지 어론에 편입				
	조선지지	龍虎垈	용호터	용호터	수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용호터 수하리에 편입				
	조선지지	咸谷里	함골이	함곡리	수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함골이 수하리에 편입				
	조선지지	寺洞	절골	절골, 사동(寺洞)	수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절골 수하리에 편입				
	조선지지	訥言里	누런이	누런이, 눌언리	수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눌언동 수하리에 편입				
	조선지지	佳印里	가두둑	가두둑, 가인리	수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가두둑, 가인동 수하리에 편입				
山名	峨嵋山	아미산	아미산	검산리	
	首陽山	수양산	수양산	검산리	
	三新山	삼신산	삼신산(三神山)	검산리	
	瀑泡山	폭포산	폭포산	검산리	
	馬耳山	마이산	마이산	검산리	
	大凡山	대범산	대범산	생곡리	
	玉女峰山	옥녀봉산	옥녀봉산	생곡리	
	高陽山	고양산	고양산	풍암리	
山名	美月山	미월산	미월산	어론리	
	赤峰山	적봉산	적봉산	어론리	
	龍頭峰山	용두봉산	용두봉산	어론리	
	馬山	마산	마산	상군두리	
	雲霧峰山	운무봉산	운무봉산	청량리	
谷名	興亭谷	흥정골	흥정골	생곡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谷名	升馬谷	승마골	승마골	하군두리	
	升方谷	승방골	승방골	풍암리	
	智惠谷	지혜골	지혜골, 지역골	풍암리	
	黃腸谷	황장골	황장골	어론리	
嶺峙 峴名	直踰峙	곳네미고개	곧너머고개	검산리	
	獐項峙	노루목재	노루목재	검산리	
	長谷峙	장골재	장골재(長谷峴)	생곡리	
	椽木嶺	서까래나무재	서까래나무재	생곡리	
	梨峴	뱃재	뱃재	생곡리	
	芝長峴	지장고개	지장고개	생곡리	
	鳥弄峴	조롱고개	조롱고개	하군두리	
	自作峴	자작고개	자작고개	풍암리	
	부목재	부목재	부목재	어론리	
	黃腸峙	황장고개	황장고개	어론리	
	머들애재	머들애재	머들애재	청량리	
	원네미고개	원네미고개	원네미고개	청량리	
	行雉嶺	학치고개	행치고개	수하리	
	顴鳥峴	권조고개	권조고개	수하리	
	大九屯峙	큰구둔치고개	큰구둔치고개	수하리	
	小九屯峙	작은구둔치고개	작은구둔치 고개	수하리	
嶺峙 峴名	황새고개	황새고개	황새고개 황새재	수하리	
酒幕名	孝悌谷酒幕	효제골쥬막		검산리	
	大月酒幕	대월쥬막		생곡리	
	判官垈酒幕	판관터쥬막		생곡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酒幕名	長谷於口酒幕	장골어구쥬막		생곡리	
	道賢理酒幕	도현리쥬막		생곡리	
	上軍社里酒幕	상군두리쥬막		상군두리	
	鳥歌洞酒幕	조가골쥬막		풍암리	
	地靈里酒幕	지영리쥬막		풍암리	
	豊岩酒幕	풍암쥬막		풍암리	
	魚論酒幕	어론쥬막		어론리	
	松峙酒幕	솔치쥬막		어론리	
	佳印於口酒幕	가인어구쥬막		수하리	
	寺洞酒幕	절골쥬막		수하리	
市場名	軍杜里場市	군두리장시		상군두리	
野坪名	屯地坪	둔지뜰	둔지뜰	검산리	
	大垈坪	큰터뜰	큰터뜰	생곡리	
	新屯坪	새진뜰	새진뜰	하군두리	
	廣板坪	광판뜰	광판뜰	풍암리	
	長水坪	장수뜰	장수뜰	풍암리	
	嶋巢垈坪	도소터뜰	도소터뜰	풍암리	
	龍頭案坪	용두안뜰	용두안뜰	어론리	
	泥屯坪	진창뜰	진창뜰	청량리	
	問村坪	샛말뜰	샛말뜰	청량리	
	老長坪	노쟁이뜰	노쟁이뜰	청량리	
	龍虎垈坪	용호터뜰	용호터뜰	수하리	
	咸谷坪	함골뜰	함골뜰	수하리	
	寺洞坪	절골뜰	절골뜰	수하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野坪名	訥言坪	누런이뜰	누런이뜰	수하리	
	佳邱坪	가두둑뜰	가두둑뜰	수하리	
堤堰洑名	上洑	윗보	윗보	검산리	
	龍垈坪洑	용터들보	용호터보	생곡리	
	龍頭尾洑	용두미보	용두미보	군두리	
	立案洑	입안보	입안보	풍암리	
江川溪澗名	沙沼川	사소천	사소천	생곡리	
	飛仁洞川	비인동천	비인동천	생곡리	
	咸谷溪	함골계곡	함골계곡	수하리	

6) 동면(東面)

본래 홍천군 지역으로 영귀미면(詠歸美面)이라 하다가 1917년에 홍천읍의 동쪽이 된다 하여 동면으로 개칭되었다. 동면의 북부에 공작산(887m), 동부와 남부에 발교산(髮校山, 994m)·태의산(675m)·오음산 등이 솟아 있어 산지를 이룬다. 북서부에는 홍천강의 지류인 덕치천·성전천·개운천 등이 흘러, 유역인 속초리·성수리·후동리·노천리 등지에 규모는 작지만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1) 개운리(開雲里)

동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詠歸美面) 지역으로 개운사(開雲寺)가 있었으므로 개운동(開雲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산숫골과 돌모루를 병합하여 개운리라 한다.

- 개운(開雲)절: 개운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개운사(開雲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돌-모루[석우(石隅)]: 개운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모퉁이에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산숫-골: 돌모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좋은 샘이 있다. 위치에 따라 웃산숫골, 아랫산수골의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 중평-고개: 개운절과 돌모루 사이에 있는 고개로 중평골[중평(中坪)]에 있다.
- 중평-골[중평(中坪)]: 개운절 옆에 있는 마을로 중평고개 밑이 된다.
- 진-고개[장현(長峴)]: 웃산숫골에서 돌모루로 가는 긴 고개로 진-고개[장현(長峴)]이라고도 한다.
- 피-고개[피현(-峴)]: 아랫산숫골과 돌모루 사이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고개로 피나무[가목(椵木)]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우개라고도 불린다.

(2) 노천리(魯川里)

동면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노냇골, 노래골, 또는 노내동(魯內洞), 노래동(魯來洞), 노천(魯川), 노촌(魯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노쟁이, 새말, 솟대배기, 족돌바우, 지왕동을 병합하여 노천리라 하였다.

- 가랫-골[가래골, 추동(楸洞)]: 물골[수동(水洞)]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공작-고개[공성현(孔省峴), 공작재]: 공작골[공성동(孔省洞)]에서 화촌면 군업리의 당산(堂山, 唐山) 산제당(山祭堂)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공작산(孔雀山) 동쪽이 된다.
- 공작-골[공성동(孔省洞)]: 지왕동[금왕동(金王洞), 기왕동(岐王洞)] 북쪽, 곧 공작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 노쟁-이[노장리(老壯里), 노장촌(魯壯村), 노산정이]: 솟대배기[소박이, 효죽촌(孝竹村)]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조 말엽에 이것에서 허순봉이 정자(亭子)를 짓고 남은 해를 보냈는데, 그의 호(號)를 따서 노산정, 노산정이, 노장리, 노장촌이라 했다고 한다.
- 노천-장터[장거리]: 노천장이 서는 장거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늘-머리[늘목이, 얼목, 얼목리]: 허뱅이[허방리(許方里), 허방이, 화방일(花坊一)] 동쪽에 있는 마을로 늘목이, 얼목, 얼목리라고도 불리어지며 늘목재 아래가 되는 마을이다.

- 늘목-재[얼목(孼木), 얼목현(孼木峴)]: 늘목이에서 횡성군 청일면 소학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느슨하여 넘어가기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득-우[덕우(德隅)]: 덕구산 뒤에 있는 마을로 덕모루라고 하며, 덕우가 '득우'라고 음운이 변화된 지명이다.
- 물-꼴[수동(水洞)]: 노쟁이 동쪽에 있는 마을로 여러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와 모이는 곳이라 수동(水洞)이라 이름하였다.
- 물굽이-소: 계곡이 흘러가는 물굽이[수곡(水曲)]에서 생긴 소(沼)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부목-재[부목현(扶牧峴)]: 물꼴[수동(水洞)] 북쪽에서 서석면 어론리(魚論里)의 이금이, 또는 예금이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새-말[신촌(新村)]: 솟대배기[소때배기, 소따박이, 소박이, 효죽촌(孝竹村)] 서쪽에 새로이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 새-목이[새매기, 조항(鳥項), 조현(鳥峴)]: 허뱅이[허방리(許方里), 허방이, 화방일(花坊一)] 서북 쪽에 있는 마을로 새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소나-고개[노현(弩峴)]: 속초리와 노천리의 사이의 경계로 소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고개의 지형이 마치 '쇠뇌'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뇌골로 불리다가 '쇠뇌'의 음운변화로 소니골, 소나-고개라고 불리고 있다.
- 솔-골: 득우[덕우(德隅)] 서쪽에 있는 모퉁이 마을로 소나무가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솟대-배기[소때배기, 소따박이, 소박이, 효죽촌(孝竹村)]: 노천 동쪽에 있는 마을로 염씨(廉氏)가 예전에 솟대를 세웠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솟대 > 소때 > 소따 음운변화는 자연스러워서 거슬릴 것이 없다. 솟대가 박혀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마을의 상징이 되거나 마을의 지계표(landmark)가 될 만한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들이 마을 이름의 소재가 되었다. 또한 홍씨(洪氏)의 아들이 아버지의 약에 쓸 죽순(竹筍)을 구해 왔으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울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에 의해 효죽촌이라고도 한다.
- 안-공작: 물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공작현의 안쪽이 된다고 하여 안-공작이라 하였다.
- 안공작-재[내공성현(內孔省峴)]: 안공작에 있는 고개로 물골에서 화촌면 군업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약바-터[약마대(躍馬垈), 약마터]: 노천리에 있는 마을로 약바-터[약마대(躍馬垈), 약마터]로 불린다. 예전에 말뛰기 놀이를 하던 터란 의미의 지명이다.

● 용-소(龍沼): 허뱅이에 있는 소(沼)로 깊게 파인 웅덩이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옛날 이곳에 용이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따라 마을 이름을 용소라 지었다는 것이다. 웅덩이를 '용소'라고 부른 것으로 봐서 웅덩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명의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인지라,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라 보인다. 특히 동양에서 용은 하늘의 선행과 풍요를 상징하는 유익한 존재로 여겼던 것을 볼 때, 왜 지명으로 지었는지 짐작이 간다. 마을이 강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빌었던 것이다.

● 지왕-동[금왕동(金王洞), 기왕동(岐王洞)]: 노천리 북쪽, 공작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신라 마지막 경순왕(敬順王)이 횡성군 탑산(塔山)으로 피난(避難)했다가 이 마을을 지나 인제로 갔다고 하여 지명이 되었다고 하는 왕터에 전설로 남아 있다.

● 진지리-고개: 허뱅이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길어서 넘는 데에 진저리를 낸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행상봉[行喪峰, 응곡산(應谷山), 화체봉]: 약바터 남쪽에 있는 산이다. 모양이 행상[상여(喪輿)]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허뱅-이[허방리(許方里), 허방이, 화방일(花坊一)]: 새목이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허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또는 허방이, 화방이라고도 한다.

● 효죽암(孝竹岩, 형제바우): 솟대배기에 있는 바위. 예전에 솟대배기에 두 아들을 둔 홀아비 홍씨가 병으로 눕자 아들 형제는 겨울에도 날마다 공작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 지 100일 째 되는 날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죽순 삶은 물을 먹으면 아버지의 병환(病患)이 나으리라" 하므로 동생은 죽순을 구하러 몇 달을 헤맸으나 구하지 못하고 집 앞에 이으러 눈 속에 솟아난 죽순을 보고 두 아들은 너무나 기뻤다. 산신령님께 고맙다고 무수히 말을 하고 눈 속에 피어난 죽순을 뜯어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두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루를 못 참으시고 아들이 죽순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에 돌아가셨던 것이다. 두 아들은 너무나 원통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이 몰려왔다. 두 아들은 원통함에 사흘 밤낮을 울다가 바위로 변하고 말았다. 이 바위는 효죽천에 나란히 있었는데, 2차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효죽촌

냇물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 바위를 사람들은 효죽암(孝竹岩)이라 불렀고, 그 마을은 효죽촌(孝竹村)이라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바위를 형제가 나란히 바위가 되었다고 해서 형제바위라고도 한다.

(3) 덕치리(德峙里)

동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덕고개 밑이 되므로 덕고개 또는 덕치(德峙)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큰마을, 절안, 소군이, 여우고개를 병합하여 덕치리라 하였다.

- 노루목-고개: 둔지(屯地)와 절안[사내(寺內)] 사이에 있는 고개로 땅의 형세(形勢)가 노루목[장항현(獐項峴), 장항치(獐項峙)]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덕-고개(덕현고개): 덕치고개와 속초리 사이에 있는 큰 고개를 말한다.
- 둔지촌(屯地村): 덕치 앞 둔지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딴-봉: 덕치의 큰 마을 안에 외따로 있는 외딴 산봉우리로 줄여서 딴-봉이라 이름을 붙여졌다.
- 소군-이: 덕치리 어귀에 있는 마을로 소군(昭君)이, 즉 세조(世祖) 임금과 자성왕비(慈聖王妃) 정희왕후(貞熹王后)와 관련 있는 수타사와 정희왕후 태(胎)를 봉안(奉安)한 태봉(胎封)이 있는 태실(胎室)의 입구란 뜻으로 지어진 듯한 지명이다.
- 수타사(壽陀寺): 공작산(孔雀山) 아래 있는 유서 깊은 천년 고찰(古刹)로 신라 제33대 성덕왕(聖德王) 7년(708)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했다고 하고 있으나, 원효는 686년에 입적(入寂)했으므로 잘못 전한 것 같다. 처음에는 우적산(牛跡山) 일월사(日月寺)라 하였는데, 선조 2년(1569)에 공작산으로 옮겨 짓고 옆에 큰 냇물이 흘렀다 하여 수타사(壽墮寺)라고 했는데, 선조 25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병화(兵火)로 불탄 것을 인조 22년(1644)에 학준, 계철, 도전, 승해, 정명, 정지, 대상, 천읍, 법륜 여잠, 천해가 잇달아 세워 숙종 9년(1683)에 완성했다. 고종 15년(1878)에 취운이 칠성각(七星閣)을 짓고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 순장이-버덩[순장들, 순장평(順長坪)]: 둔지촌에 있는 넓은 버덩을 말한다.
- 양지-말: 순장이버덩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여우-고개[호현(狐峴), 유가재]: 덕치리 어귀에 있는 마을로 여우고개 밑이 된다. 또는 덕치리와 홍천읍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하는데 여우가 이 고개에 잘 나왔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 용담(龍潭): 수타사(壽陀寺) 앞에 있는 깊은 소(沼)로 예전에 용(龍)이 나왔다고 전한다.
- 운수암(雲水菴)-터: 공작산(孔雀山)에 있는 수타사에 딸린 운수암이 있었던 터이다. 조선시대 1688(숙종 14)년에 상봉대사(霜峰大師)가 세웠다.
- 응봉(鷹峯): 큰 마을에 있는 산봉우리로 매를 놓아 사냥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하였다.
- 작은-딴봉: 딴봉의 작은 산봉우리로 얕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놀이터가 되었다.
- 절-안[절게, 사내(寺內)]: 순장이 버덩[순장들, 순장평(順長坪)] 동쪽에 있는 마을로 북쪽에 공작산 수타사(壽陀寺)가 있다.
- 정희왕후(貞熹王后) 태실(胎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천현의 동쪽 25리 공작산에 정희왕후의 태(胎)가 봉안됐다"고 기록이 있다. 옛날에는 태어난 지 7일 이내에 태를 묻었다고 한다. 태봉(胎封)의 위치는 지역주민의 구술채록에 의하면 현재 수타사 요사채 건물에서 덕지천 건너편의 작은 봉우리를 태능산(胎陵山)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 질우-고개(질고개): 덕고개에서 홍천읍으로 가는 긴 고개라고 하여 이름하였다.
- 큰-딴봉: 덕고개에 있는 딴봉의 큰 봉우리를 말한다.
- 큰-마을[대촌(大村)]: 덕치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 이름 붙였다.

(4) 방량리(方良里)

동면 서쪽에 위치한 벙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방랑골 또는 방량동(方良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골말[곡촌(谷村)], 족돌바우[족두암(簇頭岩)], 삼현동(三峴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방량리(方良里)라 한다.

- 골-말[곡촌(谷村)]: 방랑골 동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골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방어-재[방어치(坊禦峙)]: 방량리에서 홍천읍 삼마치리로 가는 고개로 단단한 옛 성(城)과 같이 방어뚝이 형성된 고개에서 유래되었다. 방어재 혹은 방아재 또는 방어치라고도 말한다.

- 족돌-바우[족두암(簇頭岩)]: 족돌바우가 있는 마을로 족두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족두암(簇頭岩)이라고도 불린다.

(5) 삼현리(三峴里)

동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고개가 셋이 있다하여 삼재 또는 삼현, 삼현동(三峴, 三峴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논꼴, 무네미[물넘이, 수유촌(水踰村)], 배터[이대(梨垈)]와 방랑동(方良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삼현리라 하였다.

- 건들-재: 배터[이대(梨垈)]에서 홍천읍 연봉리로 가는 재를 말한다. 거느릿재라고도 한다.
- 골말-고개: 삼현리에서 방량리 골말로 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 논-꼴[답곡(畓谷)]: 삼현리 앞 논[답(畓), 수전(水田)]이 많은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무-네미[물넘이, 수유촌(水踰村)]: 삼현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북쪽으로 흐르는 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방량리 쪽으로 흘러 넘어간다고 하여 물넘이, 혹은 무네미, 또는 수유촌이란 지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 배-터[이대(梨垈)]: 삼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배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지명으로 하였다.
- 삼재-고개[삼현(三峴), 논골재, 답곡치(畓谷峙)]: 논골에서 홍천읍 장전평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삼현 또는 논골재, 답곡치로도 불린다.

(6) 성수리(城壽里)

동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수동(壽洞), 성전(壽洞, 城前)을 병합하여 성수리라 하였다.

- 수동-리[숫골, 수(水), 수동(壽洞)]: 성수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숫골이라고도 하며 짓고개 아래쪽으로 웃숫골과 아래숫골로 나누어진다.

- 아래숫-골[하수동(下壽洞)]: 숫골 아래쪽의 마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웃수-골[상수동(上壽洞)]: 숫골 위쪽의 마을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자-앞[잣앞, 재앞, 성전(城前)]: 웃숫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중심부가 되며 대미산성(大彌山城) 앞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자앞, 잣앞, 재앞'이라고 한다. 자앞, 잣앞, 재앞은 적(敵)의 공격을 막기 위해 흙담이나 돌담을 길게 이어 쌓아 올린 큰 성(城)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자 앞의 '자'는 본래 '잣'으로, 성(城)의 옛말이다. '잣'은 'ㅅ'이 탈락하여 '자-앞'의 형태가 되었다.
- 짓-고개[깃고개, 우령(羽嶺)]: 짓골 서북쪽으로 홍천읍으로 질러가는 고개로 홍천읍 객관(客館) 앞 남교(南橋, 鶴橋)에 모였던 학이 이 고개를 날아가다가 깃을 떨어뜨렸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짓-골[깃골, 우곡(羽谷)]: 아래숫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짓고개 밑이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는 홍천읍 갈마곡리로 넘어가는 지름길이다.

(7) 속초리(束草里)

동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속새가 많으므로 속새울, 속새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덕고개, 등대, 원개울, 곶골, 느릅나무정이, 사락골, 소니골, 불근봉을 병합하여 속초리라 하였다.

- 곶-골[화동, 화방(花洞, 花坊)]: 느릅나무정이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달래꽃이 많다.
- 느릅나무-정이[유정촌(楡亭村)]: 원개울 남쪽에 있는 마을. 큰 느릅나무 정자가 있었다.
- 덕-고개[덕현(德峴), 덧고개]: 등대 북쪽에 있는 마을. 덕고개 밑이 된다. 또는 덕치리와 속초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등대(登臺, 떼뚠지): 원개울 서쪽 둔지에 있는 마을로 떼가 많았다.
- 먹-방[먹방버덩]: 묵방산 아래 버덩에 있는 마을이다.
- 묵방산(墨坊山): 먹방버덩 서쪽에 있는 산이다. 골이 깊고 숲이 우거져 낮에도 컴컴하다 하였다.
- 불근-봉[적봉(赤峯)]: 곳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에 통뫼가 있다.
- 사락-골[사락동(士樂洞)]: 곳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 한다.

- 삼재-골(삼절골): 느릅나무정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절 셋이 있었다 한다.
- 새-술막: 속새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새로 된 술집인 주막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소낫-골[노동(弩洞)]: 불근봉 동쪽에 있는 마을. 쇠뇌를 놓고 사냥하던 곳이라 하였다.
- 원-개울[원포(元浦)]: 속새울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포구(浦口)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8) 신봉리(新峯里)

동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마을 가운데 조그마한 통뫼가 있었으므로 신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논골[답동(畓洞)], 맛바우[미암(味岩)], 궁터[궁동(弓洞)]를 병합하여 신봉리라 한다.

- 궁-터[궁동(弓洞)]: 신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활처럼 생겼다 한다.
- 귀영-소: 신봉 앞에 있는 늪[소(沼)]으로 구유같이 생겼다 하여 귀영소가 있는 마을이라 하며 또는 귕소라고도 한다.
- 논-골[답동(畓洞)]: 신봉 북서쪽에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논이 있다.
- 맛-바우[미암(味岩)]: 신봉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맛바우 건너편이다. 또는 맛바우 마을 맞은편 산에 있는 큰 바위이다.
- 왕-터: 신봉리에 있는 마을로 왕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 한다.
- 작은골 고개[소곡치(小谷峙)]: 맛바우에서 화촌면 굴운리 작은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작은 하우고개: 큰하우 고개 옆에 있는 작은 고개이다.
- 큰-하우고개: 논골[답동(畓洞)]에서 속초리의 불근봉으로 가는 고개이다.

(9) 월운리(月雲里)

동면 남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 지역으로 '워룬'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개암둔지[진평(榛坪)], 돌봉[석봉(石峯)], 공주터[공주대(公主垈)]를 병합하여 월운리라 한다.

- 개암-둔지[진평(榛坪)]: 월운 서남쪽 둔지에 있는 마을로 개암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공주-터[공주대(公主垈)]: 월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공주가 피난 왔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돌봉[석봉(石峯)]: 공주터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가 큰 바위로 되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석봉-안[돌봉안]: 석봉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싸리-재: 공주터에서 큰삼마치로 가는 고개인데, 싸리나무가 많았다.
- 오음사 터: 월운리 남쪽 오음산(五音山) 아래에 있던 오음사(五音寺)의 터이다.
- 작은삼마치[소삼마치(小三馬峙)]: 월운에서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로 가는 고개로 홍천읍 큰삼마치 동쪽이 된다.

(10) 좌운리(坐雲里)

동면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영귀미면(詠歸美面, 동면) 지역으로 좌운(坐雲)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곶골[꽃골, 화곡(花谷)], 청룡말[청룡촌(靑龍村)], 첫내[초내, 초천(初內, 初川)], 둔지말[둔지촌(屯地村)], 안골[골말, 내곡(內谷)]을 병합하여 좌운리라 하였고 운중선좌형(雲中仙坐形)의 좋은 묘자리가 있다 한다.

- 개-고개[개치(蓋峙), 개현(蓋峴), 애고개]: 자운(坐雲) 북쪽에서 노천리의 약바터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가파라서 넘는 데 애를 먹는다 한다. 고려 고종 때 추밀원부사 허구와 그의 아들 중찬홍이 개(蓋)를 받고 다녔다 한다.
- 곶-골[꽃골, 화곡(花谷)]: 장구목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화심형(花心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 구석-골[구석동(九石洞)]: 좌운의 동쪽 끝 구석에 있는 마을이다.
- 굴-바우: 곶골에 있는 큰 바위이다. 길이 4m, 높이 1.5m의 굴이 뚫려 있다.
- 굴바우-약수: 굴바우의 굴 안에 있는 약물터인데, 약물이 속병에 좋다 한다.
- 끝-말[히수대, 말촌(末村)]: 좌운 끝에 있는 마을이다.
- 너럭-바우: 곶골에 있는 너럭바위. 냇가에 있어서 천렵터가 되고 있다.

- 너럭바우-골: 너럭바우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둔지-말[둔지촌(屯地村)]: 안쪽 서남쪽 둔지에 있는 마을이다.
- 샘-골[천곡(泉谷)]: 자운이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좋은 샘이 있다.
- 샘골 연못: 샘골에 있는 못이다.
- 숯가마-골[탄부동(炭釜洞)]: 끝말 서쪽에 있는 마을. 숯을 굽던 가마가 있었다.
- 안-골[골말, 내곡(內谷)]: 좌운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 예으-내[예의천(禮義川)]: 횡성군 공근면 여우내와 경계가 되는 마을이다.
- 장구-목[부항(缶項)]: 청룡말 동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장구의 목과 같다.
- 중살은-골: 곶골 안에 있는 산골짜기로, 조선조 말엽에 중이 살았다고 한다.
- 첫-내[초내, 초천(初內, 初川)]: 첫내 옆에 있는 마을이다. 또는 좌운리 끝에 있는 내이다. 횡성군 횡성천의 상류가 된다.
- 청룡-말[청룡촌(靑龍村)]: 좌운의 청룡이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11) 후동리(後洞里)

동면 남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홍천군 영귀미면 지역으로 월운의 뒤쪽이 된다하여 뒷골 또는 후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막골[동막동(東幕洞)], 구미말[구미(龜尾)]을 병합하여 후동리라 하였다.

- 거북-산: 구미말의 앞산으로 산의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구미-말[구미(龜尾)]: 안 뒷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거북산의 뒤쪽이 되어 거북이의 꼬리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구미말[구미(龜尾)마을] 이라고 한다.
- 동막-골[동막동(東幕洞)]: 뒷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막(山幕)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뒷골[내후동(內後洞)]: 뒷골 안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동면(영귀미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德隅里	득우리	덕우리	노천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노냇골, 노쟁이, 새말, 솟대배기, 족돌바우, 지황동, 득우리(덕우리) 등을 병합하여 노천리에 편입				
	조선지지	孝竹里	솟대배기	솟대배기,소박이	노천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솟대배기 노천리에 편입				
	조선지지	花方里	곶골	곶골, 꽃골	노천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곶골 노천리에 편입				
	조선지지	岐王洞	기왕동 지왕동 김왕동	기왕동(岐王洞)	노천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기왕동 노천리에 편입				
	조선지지	孔雀村	공작말	공작말(孔雀村)	노천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공작말 노천리에 편입				
	조선지지	老內洞	노냇골	노냇골	노천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노냇골 노천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作洞	수작골	수작골	월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수작골 월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竹山洞	죽산골	죽산골(竹山洞)	월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죽산골 월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貫革垈	과녁터	과녁터(貫革垈)	월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과녁터 월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石峰村	돌봉말	돌봉말	월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돌봉말 월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龜尾村	구미말	구미말	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미말 후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泉谷里	샘골	샘골	방량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샘골 방량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簇岩里	족돌바우	족돌바우(簇頭岩)	방량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족돌바우 방량리에 편입				
	조선지지	谷村里	골말	골말, 곡촌(谷村)	방량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골말 방량리에 편입				
	조선지지	昭君里	소군이	소군이	덕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소군이 덕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新垈里	샛터	샛터	덕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덕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順長里	순장말	순장말	덕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순장말 덕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陽地村	양지말	양지말	덕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양지말 덕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山水洞	산수골	산수골, 산수동	개운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산수골 개운동에 편입				
	조선지지	石隅	돌모루	돌모루, 석우	개운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돌모루 개운동에 편입				
	조선지지	安春垈	안춘터	안춘터(安春垈)	개운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춘터 개운동에 편입				
	조선지지	銅店	퉁졈	동점(銅店)	개운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퉁졈 개운동에 편입				
	조선지지	靑龍村	청룡말	청룡말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청룡말 좌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內洞	안골	안골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골 좌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泉洞	샘골	샘골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샘골 좌운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屯地村	둔지말	둔지말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둔지말 좌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缶項村	장구목	장구목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구목 좌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花谷村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좌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龜石村	구석골	구석골(九石洞)	좌운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석골 좌운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踰村	무네미	무네미, 수유촌	삼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무네미 삼현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梨垈	배터	배터(梨垈)	삼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배터 삼현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栢村	잣나무백이	잣나무백이 잣말(栢村)	삼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잣나무백이 삼현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瓦屯地	와둔지	와둔지	삼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와둔지 삼현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師洞	사동	사동, 교동(校洞)	삼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사동 삼현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德峴里	덕고개	덕고개	속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덕고개, 등대, 원개울, 곶골, 느릅나무정이, 사락골, 소니골, 불근봉을 병합하여 속초리에 편입				
	조선지지	元浦里	원개울	원개울	속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원개울 속초리에 편입				
	조선지지	楡亭里	느릅나무정이	느릅나무정이 楡亭村	속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느릅나무정이 속초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裡新村	안샛말	裡新村	속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샛말 속초리에 편입				
	조선지지	赤峰里	불근봉	불근봉, 적봉리	속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불근봉 속초리에 편입				
	조선지지	宮垈	궁터	궁터	신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궁터, 논골, 맛바우를 병합하여 신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適岩	맛바우	맛바우(味岩)	신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맛바우, 논골, 궁터를 병합하여 신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壽洞	숫골	숫골, 수동(壽洞)	성수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숫골 성수동에 편입				
	조선지지	城前	성앞	성앞, 재앞	성수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앞 성수동에 편입				
	조선지지	羽洞	짓골	짓골, 우동(羽洞)	성수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짓골 성수동에 편입				
山名	孔雀山	공작산	공작산	노천리	
	大學山	대학산	대학산	노천리	
	飛龍山	비용산	비용산	노천리	
	五音山	오음산	오음산	월운리	
	萬伐山	만벌산	만벌산	후동리	
	昭君山	소군산	소군산	덕치리	
	四鵲山	사작산	사작산	덕치리	
	墨坊山	묵방산	묵방산	개운리	
	舞鳳山	무봉산	무봉산	좌운리	
	仙岩山	선암산	선암산	좌운리	
	德邱山	덕구산	덕구산	좌운리	
	飛龍山	비룡산	비룡산	좌운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山名	紫芝峰山	자지봉산	자지봉산	삼현동	
	丹鳳山	단봉산	단봉산	신봉리	
谷名	曲谷	곡골	곡골	좌운리	
	노내골	노내골	노내골, 노냇골	노천리	
	소니골	소니골	소니골, 소닛골	속초리	
	孔雀谷	공작골	공작골	신봉리	
	사나골	사나골	사나골, 사락골	속초리	
	가는골	가는골	가는골	월운리	
嶺峙 峴名	盖峴	갯고개	갯고개	노천리	
	弩峴	쇳고개	쇳고개(弩峴)	노천리	
	明理峴	명리고개	명리고개	노천리	
	富墨峴	부먹재	부먹재	노천리	
	小三馬峙	소삼마치고개	소삼마치고개	월운리	
	장셔지고개	장셔지고개	장셔지고개	후동리	
	方禦峙	방엇재	방엇재	양동리	
	東幕峙	동막고개	동막고개	덕치리	
	叱牛峴	질우재	질우재	덕치리	
	狐峴	여우고개	여우고개	덕치리	
	獐項峴	노루목고개	노루목고개	덕치리	
嶺峙 峴名	開雲峴	개운고개	개운고개	덕치리	
	盖峙	갯재	갯재	좌운리	
	上佐峙	상좌재	상좌재	삼현동리	
	三齊峙	삼재고개	삼재고개	삼현동리	
	하위고개	하위고개	하위고개	신봉리	
	小洞峙	소골재	소골재	신봉리	
	新峰峙	새봉우리재	새봉우리재	신봉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寺刹名	水墮寺	수타사	수타사(水墮寺)	덕치리	
酒幕名	梨木亭酒幕	이목정쥬막		노천리	
	貫華垈酒幕	관화터쥬막		월운리	
	新垈酒幕	새터쥬막		덕치리	
	莎屯地酒幕	사둔지쥬막		속초리	
野坪名	後屯坪	뒷둔지뜰	뒷둔지뜰	노천리	
	丈屯坪	장둔뜰	장둔뜰	노천리	
	大洑坪	큰보뜰	큰보뜰	노천리	
	於野坪	늘야뜰	늘야뜰	월운리	
	石峰坪	돌봉뜰	돌봉뜰	월운리	
	獐垈坪	노루터뜰	노루터뜰	월운리	
	注畓坪	주답뜰	주답뜰	후동리	
	昭君坪	소군이뜰	소군이뜰	덕치리	
	新坪	새뜰	새뜰	덕치리	
	間坪	샛뜰	샛뜰	덕치리	
	順長坪	순장뜰	순장뜰	덕치리	
	萬垈坪	만터뜰	만터뜰	개운동	
	堂山坪	당산뜰	당산뜰	성수동	
	紫公坪	자공뜰	자공뜰	성수동	
堤堰洑名	大洑	큰보	큰보	삼현동리	
	後屯地洑	뒷둔지보	뒷둔지보	노천리	
	水桶項洑	물통목보	물통목보	성수동	
	艾洞洑	쑥골보	쑥골보	성수동	
	紫公浦洑	자공포보	자공포보	성수동	
	大洑	큰보	큰보	덕치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江川溪澗名	龍沼川	용소내	용소내	신봉리	
	琴浦川	금포내	금포내	속초리	
	莎屯地川	사둔지내	사둔지내	속초리	
	水墮川	수타내	수타내	덕치리	

7) 남면(南面)

홍천군 서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본래 유치리에 있는 금물산(今勿山)의 이름을 따서 금물산면(今勿山面)이라 하였다. 1917년 홍천군의 남쪽이 된다 하여 남면(南面)으로 개칭하였다. 1963년 1월 1일에 홍천면이 홍천읍으로 승격될 때 삼마치리는 홍천읍에, 1973년 7월 1일에 상창봉리(上蒼峰里)가 횡성군 공근면에 편입되었으며, 북방면 노일리(魯日里) 일부가 남노일리(南魯日里)로 남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 3월 15일 상오안리(上吾安里)가 홍천읍에 편입되고, 현재 양덕원·유목정·신대·시동·남노일·유치·월천·명동·제곡·용수·화전리로 분할하였다. 1995년 1월 1일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시동 3리를 시동3·5리로 분할하였다.

(1) 양덕원리(陽德院里)

남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今勿山面) 지역으로 조선시대 때 양덕원(陽德院)에는 역참(驛站)과 원(院)이 있었으므로 양덕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장터[구장대(舊場垈)], 뒷모퉁이, 앞버덩을 병합하여 양덕원이라 하였다.

- 구-장터[구장대(舊場垈)]: 양덕원(陽德院)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5일장이 섰던 곳이다.
- 뒷-모퉁이: 양덕원 뒷산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다.
- 앞-버덩: 양덕원 앞들에 있는 마을 지명으로 또는 양덕원 앞에 있는 들이다.

- 양덕원 터: 양덕원에 있던 조선시대 때의 역원(驛院)의 집터이다.
- 탑(塔)터: 양덕원 동쪽 밭 가운데 있는 삼층석탑의 절터이다. 절터는 양덕원 태신빌라 인근이다. 커다란 자연석 위에 올려진 기단 위에 삼층석탑(양덕원삼층석탑) 서 있었으나 2005년 9월 15일경 도난되어 현재 지대석만 남아 있다. 이 탑에는 고려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나는 어느 대사(大師)가 조선 태조(이성계)의 도읍지를 찾아다니던 중 이곳을 지나다가 땅의 모양이 용(龍)의 형상이므로 머지않아 재앙(災殃)이 미칠 것을 예상하여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절을 짓고 이 탑을 세워 재앙을 미리 막았다는 전설과 다른 하나는 이 석탑을 움직일 경우 마을에 재앙이 생긴다는 절설이다.

(2) 시동리(詩洞里)

남면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시동골, 시동곡(詩洞谷), 또는 시동(詩洞), 글 마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음실[古音室, 웅곡(熊谷), 웅실(熊室), 곰실], 동삿골[동사곡(東沙谷)], 독벼루[도촌(道村), 돌벼루], 사기점(沙器店)거리, 도출(道出)을 병합하여 시동리라 하였다. 예전에는 시동이 남면의 모든 행정과 생활문화의 중심지로서 학문하는 선비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하여 시동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 고음실[古音室, 웅곡(熊谷), 웅실(熊室), 곰실]: 독벼루[도촌(道村), 돌벼루]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산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선비가 숨어 살기 좋은 곳이기에 '고은(古隱)'이라 불렸다고 전하며, 고음(古音)으로 변하여 웅곡, 웅실, 곰실 등으로 소리음과 의역(意譯)으로 차명(借名)하여 지명이 변화되어 함께 사용되었다.
- 남산(南山): 시동 남쪽에 있는 낮은 산이다.
- 도출(道出): 동삿골[동사곡(東沙谷), 도앗골, 동색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 선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곳에 살던 선비들로부터 학문(學文, 學問)의 도(道)가 나오는 마을이란 의미로 한자식 지명이 나오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 독-벼루[도촌(道村), 돌벼루, 됫벼루]: 시동골[시동곡(詩洞谷), 시동(詩洞),] 글 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 마을에도 학덕 높은 선비들의 주생활 근거지로 학문하는

선비들의 마을이란 의미로 문화적 특성이 함축된 지명으로 만들어진 유래이다. 한편 마을 어귀에 위험한 돌벼랑이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벼랑이 벼루로 음운변화되어 돌벼루, 됫-벼루, 돌벼루의 방언 돌-베루, 됫-베루라고도 불린다.

- 동삿-골[동사곡(東沙谷), 도앗골, 동색골]: 음텃-골[음대곡(陰垈谷)] 동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모래톱으로 냇가의 모래가 깔려 있는 넓고 큰 벌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사기점-거리: 고음실 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사기그릇을 만들어 파는 사기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새뭇-골: 시동골 안에 있는 산골짜기로 밤이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샘이 나는 골짜기라는 유래설도 있다.
- 솔안[송내(松內)]: 시동4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소나무가 많은 솔숲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다.
- 음텃-골[음대곡(陰垈谷)]: 고음실 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움집이 있었음으로 움터-골, 산골의 그늘진 곳이라 하여 음텃-골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2) 신대리(新垈里)

남면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유치리에 있는 느르치 서쪽에 새로 생긴 마을임으로 새터, 또는 신대(新垈)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창촌(蒼村), 동거른다리[동은교(東隱橋)], 서거른다리[서은교(西隱橋)], 아래거른다리[하은교(下隱橋)], 사기막(砂器幕), 덕머리[덕두(德頭)], 샛말[간촌(間村)]을 병합하여 신대리라 하였다.

- 거른다리[은교(隱橋)]: 동-거른다리[동은, 동은교(東隱, 東隱橋)]와 서-거른다리[서은, 서은교(西隱, 西隱橋)], 아래거른다리[하은교(下隱橋)]로 나누어져 있다. 고려시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충절(忠節)을 지키기 위하여 신대(新垈)에 자리 잡고 은거(隱居)하였던 곳으로 짐작된다.
- 남창(南倉) 터: 새터 동쪽 산 아래에 있던 홍천현의 남창(南倉)이 있었던 터이다. 1825년에서 1829년에 간행된 『관동지』에 "20칸으로 홍천현 남쪽 40리 금물산면 신대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덕-머리[덕두(德頭)]: 창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신대리의 제일 위쪽으로 언덕이 있으므로 덕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 동-거른다리[동은(東隱), 동은교(東隱橋)]: 아래 거른다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발귀너미-고개[발귀고개, 발귀현(發歸峴), 새터고개]: 서거른다리와 경기도 양평군 신대리 새터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고려 말에 왕씨(王氏)들이 동거른다리로 피란(避亂)와서 살면서, 고려의 옛 서울 송도(松都)가 그리워 날마다 이 고개까지 왔다가 저녁이면 되돌아갔다고 전한다.
- 사기막(砂器幕): 새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사기그릇을 생산하던 사기점(砂器店)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샛-말[간촌(間村)]: 창말과 사기막 사이에 있는 마을로 붙여진 이름으로 한자식 지명으로 간촌(間村)이라고 하였다.
- 서-거른다리[서은교(西隱橋), 서은(西隱)]: 아래 거른다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시루-봉[증봉(甑峯)]: 동거른다리 남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 504m. 산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시루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아래 거른다리[하은교, 하은(下隱橋, 下隱)]: 새터, 신대(新垈)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다리가 있었는데, 그 아래쪽이 된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인적산(人積山, 인죽산): 시동리 안에 있는 산으로 조선조 때 이 산속으로 피난(避難)왔던 사람들이 떼죽음하여 시체가 쌓여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창-말[창촌(倉村)]: 새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남창(南倉)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4) 유치리(楡峙里)

남면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조선시대 금물산면 지역으로 느르치 고개 아래가 되므로 느르치, 또는 유치(楡峙)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화터[상화대(上花垈)], 학동(鶴洞), 지산(芝山), 산막골[산막곡(山幕谷)]을 병합하여 유치리라 하였다.

- 가-두둑[가구(枷邱), 하유(下楡), 下楡洞]: 지산(芝山) 동쪽 둔덕에 있는 마을로 느르치, 또는 유치(楡峙)의 아래쪽이 된다고 하여 아랫유치, 하유, 하유동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난터-골[난대곡(難垈谷)]: 양지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난(難)을 피하던 곳이라고 한다.
- 느르치[유치(楡峙)]: 남면(南面)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홍천군 조선시대 금물산면 지역으로 느릅나무가 많은 고개가 있는 아래 마을이라 하여 느르치라 이름하였으며, 또는 유치(楡峙)라 하였다.
- 느르치-고개[창봉(蒼峰), 유치(楡峙)]: 웃느르치 동쪽에서 횡선군 공근면 상창봉리(上蒼峰里)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창봉고개, 느르치고개라 이름 하였으며, 느릅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느릅나무고개[유치(楡峙)]에서 지명이 변화되어 느르치-고개가 되었다.
- 삼막-골[산막곡(山幕谷), 삼막곡(三幕谷), 산막골]: 웃느르치[상유동(上楡洞)]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함지박 따위의 나무 그릇을 만들던 임시로 만들었던 산막(山幕)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 삼막골로 음운이 변화되었다.
- 상유[上楡, 상유동(上楡洞)]: 느르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웃느르치라고 이름하여 한자식(漢字式)으로 정리할 때 상유라 부르게 되었다.
- 상화-터[상화대(上花垈), 향화대(向花垈), 향화터]: 지산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 양지골[양지곡(陽地谷)]: 난터골 서남쪽 양지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지산(芝山): 지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되며, 또는 아랫-느르치[하유동(下楡洞)]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기도 하다. 야산으로 떼(잔디)가 무성하여 잔디 '지(芝)'자와 뫼 '산(山)'자를 써서 지산이라고 하였다.
- 학동[鶴洞, 학이골, 학이동, 학익동(鶴翼洞)]: 하유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의 모양이 학(鶴)이 날개를 핀 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5) 유목정리(楡木亭里)

남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느릅나무 정자가 있으므로

느릅정이, 또는 유목정(楡木亭)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갈길(葛吉), 봉상촌(鳳翔村), 물굽이[수곡(水曲)]를 병합하여 유목정리라 하였다.

- 갈기-리[갈길(葛吉)]: 느릅정이 동쪽에 있는 마을로 갈기산(葛基山) 아래가 된다고 하여 갈기리라고도 불린다. 큰 갈기리, 작은 갈기리의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갈길'이란 지명은 칡이 많아 칡넝쿨이 무성하고 길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 물-구비[수곡(水曲)]: 봉상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홍천강물이 마을을 감싸고 돌아서 흘러가서 물굽이라고 이름하였으며, '물 수(水)'에 '굽을 곡(曲)'자를 써 한자식 지명이 되었다.
- 봉상촌[鳳翔村, 봉상리(鳳翔里)]: 느릅정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부엉이가 많다고 하여 봉산리, 봉산촌라고 불리고 있다.
- 신다-고개[신당고개, 신당치(新堂峙)]: 큰 갈길 남쪽에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당리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신당고개, 신다고개라고 불리고 있다.
- 자작-고개[자작현(自作峴)]: 물구비에서 신대리 덕머리로 넘어가는 낮은 고개를 말한다.
- 작은 갈기-리: 갈기리 마을의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큰 갈기-리: 갈기리 마을의 큰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6) 명동리(明洞里)

남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명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변경에 따라, 석양촌(夕陽村), 심방곡(尋芳谷), 숲골[수곡(壽谷)], 안골[내곡(內谷)]을 병합하여 명동리라 하였다.

- 석양촌(夕陽村): 명동(明洞)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저녁노을이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숲-골[수곡(壽谷), 수골]: 석양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숲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골, 수곡으로도 불린다.
- 심방-골[심방곡(尋芳谷)]: 숲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사찰(寺刹) 승방(僧房)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심방골-고개(숲골고개): 심방골 뒤에 있는 고개로 심방골에서 숲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임진왜란 때 승병(僧兵)들이 이곳에 모여 피난하던 집이 있었다고 하여 '승방고개'라고 불렸다. 지금은 심방골(尋芳谷) 고개로 불리는데, 승병들이 머물렀던 집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 안-골[내곡(內谷)]: 명동 서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안골-고개(심방골고개): 안골 서쪽에서 심방골(尋芳谷)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절-골: 숲골 북쪽 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7) 월천리(月川里)

남면 북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높은 곳이라 하여 다락골, 또는 월천(月川), 월천동, 월천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안말[내곡(內谷)], 가작골[가작곡(佳作谷)], 헌텃골[구대곡(舊垈谷)], 양지말[양지촌(陽地村)], 욕골을 병합하여 월천리라 하였다.

- 가작-골[가잿골, 가작곡(佳作谷), 현하말, 현하촌(峴下村)]: 월천 서남쪽 마을로 양덕원의 뒷산 아래가 되는데, 가재가 많이 서식하였다고 하여 '가잿골'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한자식으로 가작곡(佳作谷)으로, 뒷산 고개말 아래라고 하여 현하말, 현하촌(峴下村)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 다락골: 월천리에서 제곡으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이곳이 다락처럼 길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 안-말[내곡(內谷)]: 월천 동남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안아밭-골[마을]: 월천 북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밭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양지-말[양지촌(陽地村)]: 월천리 남쪽으로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 욕-골: 안말 동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욕 잘하는 과부(寡婦)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월천-개울: 월천리 앞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명동리 숲-골[수골, 수곡(壽谷)]에서 홍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내이다.
- 큰-골: 월천동 북쪽에 있는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큰골-개울: 큰골에서 제곡리의 저수지로 흐르는 내이다.
- 헌텃-골[구대곡(舊垈谷)]: 다락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부잣집의 터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 제곡리(諸谷里)

남면 북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물 좋고 산 좋으며 전답(田畓)이 기름져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 하여 제일, 제골, 또는 제곡(諸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자터[자대(紫垈), 자대리(自垈里)]를 병합하여 제곡리라 하였다.

- 자-터[자대(紫垈), 자대리(自垈里)]: 제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부자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자(紫)씨 성을 가진 중국 사람이 터를 잡고 살았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 제골[제곡(諸谷), 제일(第一)]: 명동리와 용수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물 좋고 산 좋으며 전답(田畓)이 기름져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 하여 제일, 제골, 또는 제곡(諸谷)이라 하였는데, 주로 '제곡'이라고 불린다.

(9) 용수리(龍水里)

남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용소(龍沼)가 있었으므로 용숫골, 또는 용수동(龍水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응아지[어룡와지(魚龍臥池)], 큰말[대촌(大村)], 장독벼루[간촌(間村)]를 병합하여 용수리라 하였다. 예전에는 앞산이 둘로 나누어져 그 사이로 홍천강물이 흘러 용수 마을을 돌아서 흘러갔는데, 용소(龍沼)에서 용이 나와서 산을 한데 합하여 강물이 장독벼루 쪽으로 곧게 흐르게 됐다고 한다.

- 응아지[어룡와지(魚龍臥池)]: 용숫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응아지 연못이 있어 못 안에 용(龍)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독-벼루[샛골, 사이골, 샛거리, 삭골, 간곡(間谷)]: 용수동 동쪽 홍천강 건너 벼랑 아래에 있는 마을로 벼랑모양이 장독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용수동과 제곡리 제일 사이가 됨으로 '사이골', '샛골', '삭골', 샛거리, '간곡(間谷)'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 장자터: 옛날 장자라는 부자와 용숫골 용(龍)이 내기를 하였는데 부자가 졌기 때문에 장자라는 부자는 멀리 떠나고 용은 산혈(山穴)을 끊어 물이 흐르게 했다 한다.
- 큰-말[대촌(大村)]: 웃용숫골 동북쪽에 있는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10) 화전리(花田里)

남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금물산면 지역으로 화전동(花田洞), 또는 화전(花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과우[과호(果湖)], 방골[방곡(放谷)], 길골[길곡(吉谷)], 터골[대곡(垈谷)], 독장골[독동(篤洞)], 막거리, 흥성골[흥성곡(興成谷), 묵어골[묵어곡(默於谷), 봄노리[법노리(法魯里), 사방터[사방대(四方垈)], 허리원[이목곡(梨木谷)], 명동(明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화전리라 하였다.

- 과-우[과호(果湖), 과울]: 봄노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연못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과호, 과울로도 불린다.
- 길-골[길곡(吉谷)]: 과우 북쪽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독장-골[독동, 독장곡(篤谷, 獨長谷)]: 길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독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독점에는 옹기를 굽는 가마와 옹기를 팔던 옹기전이 있었다고 한다.
- 막-거리: 벼루재 남쪽에 있는 마을로 금광(金鑛)하는 사람들이 막(幕)을 치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묵어-골[묵어곡(默於谷)]: 뺑치 서남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무게골'이라고도 불린다.
- 방-골[방곡(放谷)]: 웃과우 서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 서쪽에서 서면

굴업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방골고개라고 한다.

- 방골-고개[방곡현(放谷峴)]: 방골 서쪽 홍천군 서면 굴업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벼루-재[연치(硯峙)]: 독장골 동북쪽 벼루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봄-노리[법노리(法魯里)]: 아랫과우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서 선비들이 봄놀이를 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 약수터의 약수(藥水)는 만병통치(萬病通治)로 전해진다. 법노리 마을에는 큰 법노리골과 작은 법노리골이 있다.
- 뺑-치[백양치(白楊峙)]: 아랫과우 서쪽 뺑치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강원도의 주로 깊은 산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백양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재 밑에 마을이 형성되어 백양치(白楊峙)란 지명이 불리게 되었다.
- 뺑치-고개[백양치(白楊峙)]: 뺑치에서 홍천군 서면 굴업리로 가는 고개로 백양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백양치>뺑치로 변화하여 불리게 되었다.
- 사방우[四方隅, 사방터, 사방대(四方垈)]: 봄노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으로 가는 길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새남-터: 새남터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남터-고개[조목현, 새나무고개]: 아랫과우에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로 가는 고개이다.
- 아랫-과우[하과호(下果湖)]: 과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어두언-이: 벼루재[연치(硯峙)] 안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가 깊고 숲이 우거져 어둡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 오도치(吾道峙, 오도재, 오도티): 웃과우 북쪽 서면 팔봉리로 넘어가는 오도치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오도(吾道)'란 지명은 『논어(論語)』「이인(里仁)」편의 "오도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 나의 도는 한 가지 이치로 일관되게 꿰뚫는 것이다)"에서 취해 붙여진 이름이다.
- 오도치-고개[오도재, 오도티]: 남면 화전리 오도치 마을에서 서면 팔봉리 쇠판이로 넘어가는 고개로 오도치, 오도티 고개라고도 한다.
- 웃-과우[상과호(上果湖)]: 과우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터골[대곡(垈谷)]: 화전리에 있는 마을이다.
- 허리-원[이목곡]: 사방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화전-개울: 웃과우와 길골 서북쪽 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화전리를 거

쳐 양덕원리에서 홍천강으로 들어가는 개울이다.

● 흥성-골[흥성곡(興成谷)]: 길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남면(금물산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道村	독벼루	독벼루(道村), 됫-벼루	시동리 도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곰실, 동삿골 독벼루 등을 병합 시동리 편입				
	조선지지	南倉村	남창말	남창말	신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창말, 동거른다리, 서가른다리, 덕거리 등 신대리 편입				
	조선지지	內墨室	안먹실	안먹실, 안묵실	장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진밭(긴밭)들을 장전평리 편입				
	조선지지	外墨室	밧먹실	밧먹실	장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밧먹실을 장전평리에 편입				
	조선지지	安興里	안흥리	안흥리	장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흥리을 장전평리에 편입				
	조선지지	城山里	성산리	성산리	장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산리를 장전평리에 편입				
	조선지지	둔지못퉁	둔지못퉁	둔지말(屯地尾)	하오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시울, 굴곡, 도새울, 둔지미 병합 하오안리에 편입				
	조선지지	九詩洞	구시울	구시울(玖谷)	하오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시울을 하오안리에 편입				
	조선지지	느새울	느새울	도새울(都沙谷)	하오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도새울을 하오안리에 편입				
	조선지지	五里木亭	오리나무정	오리나무정	하오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오리나무정을 하오안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募谷屯地	갈곡둔지	갈곡둔지	하오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갈곡둔지를 하오안리에 편입				
	조선지지	陽芝村	양짓말	양짓말(陽地村)	하오안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양짓말을 하오안리에 편입				
	조선지지	高垈	높은터	높은터	삼마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높은터를 삼마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松谷村	솔골말	솔골말	삼마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솔골말을 삼마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地境垈	지경터	지경터	상창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경터, 지오이골말을 상창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只五里村	지오리골말	지오리골말	상창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경터, 지오이골말을 상창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楡峙	느르치	느르치(楡峙)	유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화터, 학동, 지산, 산막골을 유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向花垈	상화터	상화대(上花垈), 향화대	유치리
	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화터, 학동, 지산, 산막골을 병합 유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芝山	지거치	지산(芝山)	유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화터, 학동, 지산, 산막골을 병합 유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龍頭里	용머리	용머리(龍頭里)	유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산, 용머리, 가구를 유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柯邱	가두둑	가두둑, 가구(枷丘)	유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화터, 학동, 지산, 산막골을 병합 유치리에 편입				
	조선지지	嶌(鶴)翼洞	학익동	학익동, 학이골	유치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화터, 학동, 지산, 산막골을 병합 유치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 村名	조선지지	東沙洞	동삿골	동삿골	시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고음실(곰실), 동삿골, 독벼루(돌벼루) 시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砂器店村	사기점말	사기점말	시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사기점말, 도출, 독벼루, 곰음실 등을 시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三洞	세뭇골	새뭇골	시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동삿골, 세뭇골, 곰심 등을 병합 시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松內	솔안	솔안(松內)	시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솔안, 세뭇골, 사기점말, 동삿골 등을 시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楡木亭	느릅정	느릅정	유목정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갈길, 봉산말, 물굽이를 병합 유목정리에 편입				
	조선지지	鳳翔村	봉상말	봉상말(鳳翔村)	유목정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갈길, 봉산말, 물굽이를 병합 유목정리에 편입				
	조선지지	法魯里	봄노리	봄노리	화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과우, 방골, 길골, 터골, 묵어골, 봄노리 화전리에 편입				
	조선지지	柿長洞	시장골	시장골	화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과우, 방골, 길골, 터골, 묵어골, 봄노리 화전리에 편입				
	조선지지	吉谷村	길골말	길골말	화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과우, 방골, 길골, 터골, 묵어골, 봄노리 화전리에 편입				
	조선지지	深培洞	심배동	심배동	화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과우, 방골, 길골, 터골, 묵어골, 봄노리 화전리에 편입				
	조선지지	果隅	과울	과울, 과우, 과호	화전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과우, 방골, 길골, 터골, 묵어골, 봄노리 화전리에 편입				
	조선지지	松谷村	솔골말	솔골말	양덕원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장터, 뒷모퉁이, 앞버덩을 병합 양덕원리에 편입				
	조선지지	文景隅	문경터	문경터	양덕원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장터, 뒷모퉁이, 앞버덩을 병합 양덕원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蓬谷村	쑥골말	숲골말, 숫골(壽谷)	명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석양촌, 숲골, 안골, 심방골 병합 명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內谷里	안골	안골(內谷)	명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석양촌, 숲골, 안골, 심방골 병합 명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괘자골말	괘자골말	괘자골말	명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석양촌, 숲골, 안골, 심방골 병합 명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魚龍臥池	응아지	응아지	용수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응아지, 큰말, 장독벼루를 병합 용수리에 편입				
	조선지지	揷谷村	삽골말	삽골말	용수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응아지, 큰말, 장독벼루를 병합 용수리에 편입				
	조선지지	栢垈	잣터	잣터	제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제일, 제골, 잣터 제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獻垈洞	헌터골	헌터골	월천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말, 가작골, 헌텃골, 양지촌, 욕골 월천리에 편입				
山名	梅花山	매화산	매화산	상오안리	
	峯火山	봉화산	봉화산	장전평리	
	今勿山	금물산(그물산)	금물산	유치리	
	屯陣山	둔짐산	둔짐산	하오안리	
	石革山	석혁산	석혁산	신대리	
	仁竹山	인죽산	인죽산	유목정리	
谷名	貢谷	공골	공골, 공곡	상오안리	
	葛谷	갈골	갈골, 갈곡	장전평리	
	玉流洞谷	옥류동골	옥류동골	장전평리	
	只五里谷	지오리골	지오리골	상창봉리	
	陽地谷	양짓골	양짓골	유치리	
	松谷	솔골	솔골	삼마치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谷名	開山谷	열산골	열산골(呂山谷)	하오안리	
	點語谷	묵어골	묵어골	화전동	
	尋芳谷	심방골	심방골	명동리	
嶺峙 峴名	婦峙	메누리고개	며느리고개	상오안리	
	三馬峙	사무라치고개	삼마치고개	삼마치리	
	自作峴	자작고개	자작고개	신대리	
	新堂峙	신당고개	신당고개	유목정리	
	貢谷峙	공골고개	공골고개	상오안리	
酒幕名	五里木亭 酒幕	오리나무정쥬막		하오안리	
	屯陣隅酒幕	둔지모퉁이쥬막		하오안리	
	新店村酒幕	새점말쥬막		상오안리	
	月川洞酒幕	월천동쥬막		월천동리	
	文景隅酒幕	문경모퉁이쥬막		양덕원리	
	陽德院酒幕	양덕원쥬막		양덕원리	
	느름정이 쥬막	느름정이쥬막		유목정리	
	新堂峙酒幕	신당고개쥬막		유목정리	
	上蒼峰里 酒幕	상창봉리쥬막		상창봉리	
	松谷酒幕	솔골쥬막		삼마치리	
酒幕名	大村酒幕	큰말쥬막		삼마치리	
	長田坪酒幕	진밭들쥬막		장전평리	
土産名	砂金	사금		화전동	
	砂金	사금		용수동	
野坪名	明洞坪	명동뜰	명동뜰	명동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野坪名	道村坪	돌벼루뜰	독벼루, 돌벼루뜰	시동리	
	泥坪	진창뜰	진뜰, 진창뜰	양덕원리	
	三洞坪	삼동뜰	삼동뜰	시동리	
堤堰 洑名	梧木亭洑	오목정보	오목정보	하오안리	
	屯之尾洑	둔지미보	둔지미보	하오안리	
	前坪洑	앞들보	앞들보	장전평리	
	德頭里洑	덕머리보	덕머리보	신대리	
	屋低洑	옥저보	옥저보	유목정리	
	鳳岩洑	봉암보	봉암보	양덕원리	
	別隅洑	벼랑보	벼랑보	명동리	
	壯平洑	장평보	장평보	용수동리	
	前坪洑	앞들보	앞들보	제곡리	
江川溪 澗名	錦川	금내	금천(錦川)	양덕원리	
	觀池川	관지내	관지천(觀池川)	상오안리	
	放嶋川	방도내	방도천(放嶋川)	제곡리	
	中等川	중등내	중등천(中等川)	시동리	
	斗里川	두리내	두리천(斗里川)	신대리	
	鳩岩川	구암내	구암천(鳩岩川)	신대리	

8) 서면(西面)

본래 홍천군 지역으로 감물악산(甘勿岳山)의 이름을 따서 감물악면(甘勿岳面)이라 하여, 두미동(斗米洞), 중방대(中方垈), 길곡(吉谷), 동막(東幕), 모곡(牟谷), 마곡(馬谷), 개야(開野), 팔봉(八峯), 굴업(屈業), 어유포(魚遊浦), 대곡(垈谷)을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하북면 분지리의 일부를 편입하고, 반곡리(盤谷里)를 더 두는 개편을 하였다. 1917년에 홍천군 서쪽이 되므로 이름을 '서면'으로 고쳤다.

(1) 팔봉리(八峯里)

서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甘勿岳面) 지역으로 팔봉산(八峯山) 밑이 되므로 팔봉(八峯)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검시리[검실, 금곡(金谷)], 구예기[궤기, 괴계(槐溪)], 도룡골[되롱골, 교동(蛟洞), 교룡동(蛟龍洞)], 두멍안, 당골, 오도재[오도치(吾道峙)], 큰말[대촌(大村)], 쇠판이쇠판-이[쇠파니, 쇠판동(釗坂洞)]를 병합하여 팔봉리라 하였다.

- 검시-리[검실, 금실, 금곡(金谷)]: 도룡골[되롱골, 교동(蛟洞), 교룡동(蛟龍洞)]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사금(沙金)을 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실, 금실리라고도 한다.
- 구예기[구예개, 궤기, 괴계(槐溪)]: 팔봉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부터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예개, 궤기, 괴계(槐溪)라고도 불린다.
- 귀영-소: 오도치에 있는 소(沼)이다. 모양새가 마치 소의 구유(귕)와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당-고개: 팔봉리와 어유포리(魚遊浦里) 경계에 있는 고개로 성황당(城隍堂)이 있음으로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당-골: 당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당집-여상[팔봉산사(八峯山祠), 삼선당(三仙堂)]: 팔봉산(八峯山)에 있는 사당(祠堂)이다. 산이 여자 모양이라 하여 시어머니, 며느리, 딸의 영혼을 모시고, 음력 3월 보름과 9월 보름에 큰 굿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원을 빌고 있으므로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도룡-골[되롱골, 교동(蛟洞), 교룡동(蛟龍洞)]: 구예기 동쪽 홍천강 건너에 있는 마을로 앞강에서 용(龍)이 승천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두멍-안[두멍골]: 팔봉(八峯)의 깊고 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두멍 안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등잔-바우: 쇠판이[쇠파니, 쇠판동(釗坂洞)]에 있는 바위로 등잔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문봉-재[문봉현(文峯峴)]: 팔봉산(八峯山) 줄기에 있는 재로 팔봉에서 어유포리(魚遊

浦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문봉(文峰)은 팔봉산 줄기의 주변 산봉우리를 모은 것과 같다고 하여 모은봉이라 부르다가 이것이 점차 몬봉으로 바뀌어 불렸고 마침내 이 지명의 발음상 몬봉을 한자식으로 표기하여 문봉(文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혹자는 산의 모양새가 마치 붓의 끝과 같이 생겨 '붓'의 상징인 '문(文)'자를 빌려 문봉(文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유래설도 전한다.

- 바래-실[발화실(發花實)]: 쇠판이[쇠파니, 쇠판동(釗坂洞)] 서남쪽 산위에 있는 마을로 악기 바라(哱囉)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한자식 지명으로 발화실(發花實)로도 불리고 있다.
- 베틀-바우[직조암]: 팔봉산(八峯山)에 있는 큰 바위로 한 칸쯤 되는 큰 굴이 뚫려 있는데 어떤 여자가 피난와서 베를 짜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벽장-바우[다락바우, 누암(樓岩)]: 팔봉산(八峯山)에 있는 바위로 다락처럼 높다랗게 솟아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한자식 지명으로 다락 '루(樓)'자를 빌려 누암(樓岩)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 새-고개[자라고개]: 중시리[중실(中室)]와 오도치(吾道峙) 사이에 있는 고개로, 고개 모양이 자라처럼 생겼다고 하여 '자라고개'라고도 불린다.
- 성방사(城方寺) 터: 조선시대 팔봉산(八峯山)에 성방사[12]라고 하는 절의 터이다.
- 쇠판-이[쇠파니, 쇠판동(釗坂洞)]: 팔봉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쇠가 났으며 또는 무쇠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쇠판-개울[쇠판천(釗坂川)]: 한치골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쇠판이[쇠파니, 쇠판동(釗坂洞)] 팔봉을 거쳐서 구예개, 구예계[궤기, 괴계(槐溪)] 앞에서 홍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물줄기 개울이다.
- 연자방아 터: 조선시대 말에 연자방아가 있던 터라고 하여 불리게 되었다.
- 오도치(吾道峙): 오도치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로 또는 쇠판이[쇠파니, 쇠판동(釗坂洞)]에서 남면 화전리(花田里)로 넘어가는 고개를 오도치고개라고도 한다.
- 오도치 개울[오도치천(吾道峙川)]: 오도치 마을에 있는 하천으로 오도치 남쪽 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오도치를 거쳐 중실이, 중사-리[중실(中室)]에서 홍천강으로 들어가는 작은 개울이다.
- 용소(龍沼): 팔봉 서북쪽 홍천강에 있던 큰 소(沼)에서 이름 그대로 용(龍)이 등천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용소라는 지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 원-터[원대(院垈)]: 쇠판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역원(驛院) 터가 있었기 때문에 '원터'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원터'를 한자식으로 쓰면서 '원대(院垈)'라 하였고, 이후 원대마을 혹은 원터골이라고 하여 불리게 되었다.
- 장락사 터: 팔봉산(八峯山)에 있었던 전통사찰 장락사(長樂寺)로 조선시대 절이 있었던 터임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중미산(中尾山): 도롱골[되롱골, 교동(蛟洞), 교룡동(蛟龍洞)]에 있는 작은 산으로 산의 끝자락에 있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중-사리[중실(中室)]: 팔봉리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로 마을 안의 가운데 있는 사리를 한자식으로 중실(中室)이라고도 불린다.[13]
- 철갑-바우[장수암]: 팔봉고개에 있는 큰 바위로 한 장수(將帥)가 이 바위 속에 쇠로 만든 갑옷인 철갑(鐵甲)을 감추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큰말[대촌(大村)]: 팔봉리에 제일 큰 마을로 여러 자연마을이 있는 중앙에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을 의미한다.
- 팔봉-고개: 여덟 개의 산봉우리가 줄지어 있는데서 유래된 팔봉산 남쪽에서 두미리 오릿골[오리곡(吾里谷), 오리골]로 넘어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2) 두미리(斗尾里)

서면(西面)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감물악산 아래 두메(斗山, 말산)가 되므로 두미(斗尾) 또는 두미동(斗尾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덕거리(德巨里), 뒷말[도인촌(導仁村)], 붓고지[필곡(筆谷), 붓구리], 양지말[陽地村, 향교골(鄕校洞)], 웃말[상촌(上村)], 오릿골[오리곡(吾里谷)], 관사터를 병합하여 두미리라 하였다. 옛 고을 관아(官衙)의 관사터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일명 관사터라고도 한다.

- 관사-터[관사대(館舍垈)]: 뒷말[뒷-마을, 도인촌(導仁村)] 뒤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이곳에 관아(官衙)의 관사(館舍)가 있었던 터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 덕거리(德巨里): 두미(斗尾) 서북쪽에 있는 큰 마을로 옛날부터 사방으로 통하는 큰 길목이라고 해서 '덕거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 독-바우[옹암(甕岩)]: 붓고지[필곡(筆谷), 붓구리]에 있는 바위로 마치 바위가 항아리 독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됫-말[됫-마을, 도인촌(導仁村)]: 덕거리(德巨里)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관아(官衙)의 관리나 벼슬아치가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곳을 일렀다. 됫-마을, 도인촌(導仁村, 道仁村)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 붓-고지[필곡(筆谷), 붓구리]: 두미리 서북쪽에 있는 관아(官衙)가 있던 고을로 붓으로 알림(告知)을 하던 아전들의 관청인 질청[秩廳, 작청(作廳), 연청(椽廳)]이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마을 형국이 붓처럼 생겨 만들어진 지명인지 정확하지 않다.
- 양짓-말[양지촌(陽地村), 향교골(鄕校洞)]: 두미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고을 향교 근처에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향교골이란 지명으로 보아 고을 배치상 관아(官衙)의 오른쪽에 향교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오릿-골[오리곡(五里谷), 오리골]: 예전에 오리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인근 마을을 가려면 거리상으로 사방 오리(五里)가 된다 하여 오리곡(五里谷), 오리골로도 불린다.
- 옥(獄)담 터: 고을 관아(官衙) 관사(館舍)터 옆에 있는 예전에 죄인(罪人)을 가두어 두는 감옥(監獄)이 있었던 터이다.
- 웃-말[상촌(上村)]: 두미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응달-말[음지촌(陰地村)]: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전각터: 붓고지[필곡(筆谷), 붓구리]에 있는 전각(殿閣) 집터이다. 조선시대 말엽에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총애를 받던 무당(巫堂)의 말에 따라 관운장(關雲長)의 화상(畵像)과 칼을 모셔놓고 춘추(春秋)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뒤 헐렸다.

(3) 길곡리(吉谷里)

서면 남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길곡(吉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모곡리(牟谷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길골리라 하였다.

- 낭암리[狼岩里, 남밭골, 낭암동(狼岩洞)]: 진터벌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리 바우[낭암(狼岩)] 아래가 된다. 바위의 모양새가 이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동동멧-벌: 길곡리(吉谷里) 동북쪽 동동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 동동-산: 동동멧벌에 있는 산으로 마을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데, 옛날 장락산 줄기에 있던 동동산이 큰 장마로 동동 떠내려가는데, 고만 산이 그만 떠내려가라고 하여 이곳에 멈추게 되어 동동산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 웃-말[상리(上里)]: 길곡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이리-바우[낭암(狼岩)]: 낭암리[狼岩里, 남밭골, 낭암동(狼岩洞)]에 있는 바위로 모양새가 이리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진터-벌: 동등산 아래에 있는 넓고 긴 뜰이 있는 마을로 긴터-벌>진터-벌로 불리게 되었다.
- 한-새울[황새울, 대조동(大鳥洞)]: 웃말[상리(上里)] 밑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황새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황새울>한새울, 대조동(大鳥洞)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 합소-개울: 동막개울과 길곡개울이 합수하여 홍천강으로 들어가는 작은 내를 말한다.

(4) 굴업리(屈業里)

서면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굴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경기도 양평군 하북면(단월면) 분지리의 일부를 편입하고, 버덩말, 솔골, 뺑치, 장거리를 병합하여 굴업리라 하였다.

- 뺑치[백양치(白楊峙)]: 굴업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뺑치고개 밑이 되며, 뺑치고개는 남면 화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부터 백양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버덩-말: 굴업 앞들에 있는 버덩으로 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졌던 마을을 말한다.
- 솔-골[송곡(松谷)]: 안굴업 서쪽에 있는 소나무가 많은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굴업: 굴업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거리: 굴업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장시(場市)가 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개야리(開野里)

서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가야, 가야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안말[내촌(內村)], 밧말[외촌(外村)], 유진리(留鎭里)를 병합하여 개야리라 하였다.

- 밧-말[외촌(外村)]: 가야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안-말[내촌(內村)]: 가야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유진리(留鎭里): 가야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 난리 때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종자리-고개: 종잘산[종자산(鍾子山)]에 있는 고개로 유진리에서 대곡리(垈谷里) 윗귀랭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종잘-산[종자산(鍾子山)]: 유진리 남동쪽에 있는 산으로 산의 꼭대기의 모양새가 종(鍾)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6) 모곡리(牟谷里)

서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큰벌에 있으므로 버릿골, 버리울 또는 모곡(牟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돌댐이[돌담이, 석담리(石潭里)], 설밀(設蜜), 아랫말, 웃말, 점터, 장락동(長樂洞)을 병합하여 모곡리라 하였다.

- 도리-소[도리소(道理·桃李·都利沼)]: 설밀 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물이 굽어 돌아 흐르는 데가 있어 '도리소'라 불렀다고 한다.
- 돌담 나루: 돌댐이 북쪽에 있는 홍천강의 나루터로 춘성군 남면 가정리(柯亭里), 남산면 통곡리(通谷里, 현 山水里)로 건너다니는 나루이다.
- 돌댐-이[돌담이, 석담리(石潭里)]: 모곡 북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로 강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게 돌로 쌓은 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말-무덤: 돌담이에 있는 큰 무덤으로 의병(義兵) 난리 때 어느 장수의 말을 묻은 곳

이라 하여 말 무덤이라고 전해진다.

- 밤-벌[율목야(栗木野)]: 도리소 동북쪽에 있는 들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보릿-골[보리울, 벌골, 모곡(牟谷), 맥동(麥洞)]: 모곡리 서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로 보리가 잘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설밀(設蜜): 점터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양봉(養蜂)을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숫-산[수산, 웅산(壽山, 雄山)]: 모곡 남쪽 노고산과 마주 보는 산으로 남자의 산이라 하여 기도를 올리면 딸을 낳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아랫-말: 모곡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오지-소(吾止沼): 돌댐이[돌담이, 석담리(石潭里)] 앞에 있는 깊은 소(沼)이다.
- 장락-골[장락동(長樂洞)]: 모곡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장락산(長樂山) 아래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점-터: 모곡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옹기점(甕器店)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7) 중방대리(中方垈里)

서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중방터 또는 중방대(中方垈)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아우라치[병천(倂川)], 산지[산음리(山陰里)]를 병합하여 중방대리라 하였다. 중방터 한가운데 옛날 방씨(方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옹기(甕器)를 만들고 구워내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하여 점방(店房)이라 하다 중방(中房, 中方)이 되었다고도 한다.

- 가일(佳日): 중방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서당(書堂)의 훈장(訓長)님과 학동(學童)들이마을 앞산 노고산(老姑山)으로 등산을 갔는데, 산 위에서 바라보니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강과 하늘만 보이는데 마을에서 한 농부(農夫)가 한가롭게 농우(農牛)를 몰고 밭갈이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과연 가일(佳日)이라 할 만하다고 하여 지명이 붙여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
- 산-지[산음리(山陰里)]: 큰 산 밑에 있는 음지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아우라-치[병천(倂川)]: 중방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서 굴업리 물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고북리에서 나란히 오는 물이 합수되므로 붙여진 지명이다.

(8) 동막리(東幕里)

서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동막(東幕)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새말[신촌(新村)], 삼거리(三巨里)를 병합하여 동막리라 하였다.

● 널미-고개[놀미고개, 녹미치(尾峙), 노미현(老味峴)]: 동막리에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독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험하여 전에는 도둑이 많았다 한다.
● 대-골[대곡(大谷)]: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삼거리(三巨里): 동막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세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새-말[신촌(新村)]: 웅골[웅곡(熊谷)] 옆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아랫-말[아랫마을, 하촌(下村)]: 동막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웅-골[웅곡(熊谷)]: 동막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로 옛날에 이곳에 곰[웅(熊)]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점-터[점말, 점대(店垈), 점촌(店村)]: 동막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무쇠점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9) 대곡리(垈谷里)

서면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무쇠점 터가 있으므로 터일, 대일 또는 대곡(垈谷)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귀량이, 점촌(店村), 새터[신대(新垈)]를 병합하여 대곡리라 하였다.

● 귀량-이(貴良-): 터일[대곡(垈谷)] 북쪽에 있는 마을로 웃귀량이, 아랫귀량이의 두 마을로 나뉘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귀량이-고개[반곡현(盤谷峴), 대곡일(垈谷一), 대곡치(垈谷峙), 두미고개, 두미치]: 대곡리 귀량이에서 두미리로 가는 고개이다.
- 새-터[신대(新垈)]: 아랫귀량이 동남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아랫-귀량[아랫귀랭이, 하귀량(下貴良)]: 귀량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윗-귀량[윗귀랭이, 상귀량(上貴良)]: 귀량이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점촌(店村): 터일 동남쪽에 있는 점말 마을로 조선조 때 무쇠점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0) 반곡리(盤谷里)

서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반곡(盤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뒷들[후평(後坪)], 망단이[망월리(望月里)], 가무름[갈물악(甘勿岳)]을 병합하여 반곡리라 하였다.

- 가무-름[갈물악(甘勿岳)]: 마을 지형이 마치 소반(小盤)과 같이 생겼다 하여 반곡(盤谷)이라 유래한 반곡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감물악산 아래가 된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대량-벼루: 용늪 밑에 있는 벼루와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뒷-들[후평(後坪)]: 가무름 뒷들 옆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뒤뜨르'라고도 불린다.
- 망단-이[망월리(望月里)]: 가무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춘천시 통곡리와 경계가 되는 곳인데, 지형이 옥토망월형(玉兎望月形)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상청-담불(신바우): 가무름 북쪽 강 가운데 있던 희고 큰 바위이다. 상청(上廳) 앞이 되었는데, 지금은 청평댐 속에 들어 있다.
- 서창-터: 조선시대 홍천현의 서창(西倉)이 있었던 터였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용-늪: 가무름 동쪽에 있던 늪으로 용(龍)이 있었다 하는데 근년에 메워졌다고 한다.
- 장-거리: 가무름 안에 있는 중심마을로 예전에 전통 5일장이 섰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태양산(太陽山): 가무름[갈물악(甘勿岳)]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태양이 뜨면 아침 햇빛을 제일 먼저 받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1) 마곡리(馬谷里)

본래 감물악면의 지역으로 말을 먹였던 곳이라 하여 말골 또는 마곡(馬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떼내[사천리(莎川里)]를 병합하여 마곡리라 하였다.

● 떼-내[사천리(莎川里)]: 말골 서북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 뗏목을 타고 오다가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떼를 더 매기도 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말골 나루터: 말골 북쪽에 있는 홍천강의 나루터. 춘천 남면 가정리 황골로 통한다.
● 배-바우: 작은 남이섬에 있는 배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왕터-산: 말골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왕이 피난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 남이섬(소남섬): 말골 남동쪽 홍천강 안에 있는 작은 섬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 서북쪽 한강 가운데 큰 남이섬(南怡島)이 있다.

(12) 어유포리(魚遊浦里)

서면 북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감물악면 지역으로 고기가 놀 만한 곳이라 하여 어유포(魚遊浦)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석말[구석촌(九石村), 구성말], 돌곶이말[석화촌(石花村)], 효죽은이[쇠죽은이, 효자동(孝子洞)]를 병합하여 어유포리라 하였다.

● 고부-소[곡소, 구곡강(曲沼, 九曲江)]: 어유포 남쪽 홍천강에 있는 소(沼)가 굽이져 있다.
● 구석-말[구석촌(九石村), 구성말]: 어유포 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당-여울[당탄(堂灘)]: 어유포리에 있는 물살이 센 여울 결로 팔봉리의 당집 아래가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돌곶이-말[석화촌(石花村)]: 어유포 서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 바위에 진달래꽃이 많

이 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백방사-터: 백방산에 있는 절터를 말한다.
- 백원정(百源亭): 효죽은-이[효자동(孝子洞)]에 있는 정자로 효(孝)는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는 뜻을 따서 백원정이라 하였다.
- 버덩-말: 어유포리(魚遊浦里)에 넓은 버덩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법실-이: 돌곶이 말 뒤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잣방-산[백방산(栢方山)]: 돌곶이 말 남서쪽에 잇는 잣나무가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백방사(栢方寺)가 있었음으로 백방산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 중간-말[중촌(中村)]: 어유포리(魚遊浦里) 중앙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효죽은-이[쇠죽은이, 효자동(孝子洞)]: 돌곶이 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 주씨의 효자(孝子)가 살았었다고 하는 연유로 붙여진 지명이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서면(감물악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蛟龍洞	도룡동	교룡동, 도룡골	팔봉리 도룡골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검시리, 구예기, 도룡골, 두멍안, 당골 팔봉리 편입				
	조선지지	즁실니	즁실니	중실(中室), 중사리	팔봉리 중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팔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鰲峴里	오도치	오도치, 오현리	팔봉리 오도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팔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禁實里	검시리	검시리(金谷), 검실, 금실, 금곡	팔봉리 금곡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팔봉리에 편입				
	조선지지	鉄板里	쇠판이	쇠판동, 쇠판이	팔봉리 쇠판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팔봉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筆谷里	붓고지	붓고지, 붓구리, 필곡(筆谷)	두미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덕거리, 됫말, 붓고지, 양지말, 오릿골 두미리에 편입				
	조선지지	黍田洞	서전동		길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모곡리 일부와 길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남밧골말	남밧골말	남밭골(狼岩里)	길곡리 남밭골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길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栢峙村	뺑치(栢峙村)	뺑치, 백양치(白楊峙)	굴업리 뺑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버덩말, 솔골, 뺑치, 장거리를 굴업리에 편입				
	조선지지	谷村	골말(谷村)	골말(谷村)	개야리 골말(谷村)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안말, 밧말, 유진리를 병합하여 개야리에 편입				
	조선지지	道理沼	도루소	도리소	모곡리 도리소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돌댐이, 설밀, 아랫말, 웃말, 점터, 장락동 모곡리 편입				
	조선지지	石潭村	돌댐이	돌댐이, 돌담이	모곡리 돌댐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돌댐이, 점말, 말무덤, 오지소 등이 모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長樂洞	장락동	장락동(長樂洞)	모곡리 장락동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모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佳日里	가일리	가일리(佳日里)	중방대리 가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아우라치, 산음리를 병합하여 중대방리에 편입				
	조선지지	三巨里	삼거리	삼거리(三巨里)	동막리 삼거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새말, 삼거리를 병합하여 동막리에 편입				
	조선지지	貴良洞	귀량이	귀량리(貴良里)	대곡리 귀량이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귀량이, 새터를 병합하여 대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店村	점말	점말, 점촌(店村)	대곡리 점말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점말, 귀량이, 새터를 병합하여 대곡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後坪里	뒷뜰	뒤뜰(後坪)	반곡리 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뒷뜰, 망단이, 가무름을 병합 반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望丹里	망단이	망단이, 망월리(望月里)	반곡리 망월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뒷뜰, 망단이, 가무름을 병합하여 반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莎川里	떼내	떼내(莎川)	마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떼내를 병합하여 마곡리에 편입				
山名	八峯山	팔봉산	팔봉산	팔봉리	
	熟岩山	숙암산	숙암산	어유포리	
	杜陵山	두릉산	두릉산, 덕응산	두미동리	
	童童山	동동산	동동산	길곡리	
	紅路山	홍로산	홍로산	굴업리	
	드릉산	드릉산	드릉산	개야리	
	長樂山	장락산	장락산	모곡리	
	宗岳山	종악산	종악산	중방대리	
	鹿門山	녹문산	녹문산	동막리	
	靑登山	청등산	청등산	동막리	
	牙淸山	아청산	아청산	대곡리	
	太行山	태행산	태행산	반곡리	
谷名	寒峙谷	한치골	한치골	팔봉리	
	斗尾谷	두미골	두미골	두미동리	
谷名	松谷	송골	송골	어유포리	
	馬谷	마골	마곡	마곡리	
	長樂谷	장락골	장락골	모곡리	
	柒田谷	칠전골	칠전골	길곡리	
	樟尾谷	장미골	장미골	동막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嶺峙 峴名	五道峙	오도치고개	오도치고개	팔봉리	
	寒峙	한치고개	한치고개	팔봉리	
	狐峴	여우고개	여우고개	어유포리	
	堯谷峴	오릿골고개	오릿골고개	두미동리	
	垈日峴	대일고개	대일고개	두미동리	
	竹垈峴	죽터고개	죽터고개	길곡리	
	栢峙	뺑치고개	뺑치고개	굴업리	
	百倍峴	백배고개	백배고개	굴업리	
	石峴	돌고개	돌고개	개야리	
	成野峴	성야고개	성야고개	모곡리	
	馬峙	말고개	말고개	모곡리	
	長垈峴	장터고개	장터고개	모곡리	
	佳日峴	가일고개	가일고개	중방대리	
	鹿門峴	녹문고개	녹문고개	동막리	
	貴良峴	귀량고개	귀량고개	대곡리	
酒幕名	蛟龍洞酒幕	도룡동쥬막		팔봉리	
	前村酒幕	앞말쥬막		모곡리	
	大村酒幕	큰말쥬막		모곡리	
	三巨里酒幕	삼거리쥬막		동막리	
	酒幕	점말쥬막		대곡리	
	中村酒幕	중간말쥬막		반곡리	
渡津名	蛟龍洞津	도룡동나루	도룡동나루	팔봉리	
	烏池沼津	오지소나루	오지소나루	모곡리	
	望丹津	망단나루	망단나루	반곡리	
	後坪津	뒷뜰나루	뒷뜰나루	반곡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野坪名	南上坪	남상뜰	남상뜰	팔봉리	
	垈巨坪	대거뜰	대거뜰	두미동리	
	古岩坪	고암평	고암뜰	두미동리	
	陳垈坪	진대평뜰	진대뜰	길곡리	
	柳坪	버들뜰	버들뜰	개야리	
	逕周坪	경주뜰	경주뜰	개야리	
	長垈坪	진터뜰	진터뜰	모곡리	
	馬墳坪	마분뜰	마분뜰	모곡리	
	三巨坪	삼거뜰	삼거뜰	동막리	
	中坪	중간뜰	중간뜰	중방대리	
	新垈坪	새터뜰	새터뜰	대곡리	
	店村坪	점말뜰	점말뜰	대곡리	
	後坪	뒷뜰	뒷뜰	반곡리	
	別九坪	별구뜰	별구뜰	마곡리	
堤堰洑名	五道峙洑	오도치보		팔봉리	
	寒峙洑	한치보		팔봉리	
	新垈洑	새터보		대곡리	
	欽陽洑	흠양보		두미동리	
	巨野洑	큰뜰보		반곡리	
	牟谷洑	모곡보		모곡리	
江川溪澗名	曲沼江	고부소강	곡소, 구곡강(九曲江)	어유포리	
	栢峙溪	뺑치계곡	뺑치계곡	굴업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父水門江	부수문강	부수문강	개야리	
	長谷川	장곡천	장곡천	모곡리	
	烏池沼江	烏池沼江	오지소강	모곡리	
	道理沼江	도루소강	도리소강	모곡리	
	長水溪	장수계곡	장수계곡	중방대리	

9) 북방면(北方面)

홍천군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면이다. 조선시대 면리제가 실시되고부터 '북방면'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북방은 서북쪽으로 처음은 5리 끝은 5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 등의 옛 지지(地誌)뿐만 아니라 『해동지도』, 『광여도』, 『1872년 지방지도』와 같은 고지도에도 모두 북방면으로 표기되어 있다. 1895년에 잠시 면 이름을 화계면으로 고쳤다가 1914년에 다시 북방면으로 복원되었다.

(1) 구만리(九巒里)

북방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구만산(九巒山)의 아래가 되므로 구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성말[구성촌, 구석일(九石一), 구석촌(九石村)], 북정골[북정동(北亭洞)], 원수골[원수동(遠水洞), 운수골]을 병합하여 구만리라 하였다.

- 구성-말[구성촌, 구석일(九石一), 구석촌(九石村)]: 구만이 성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박씨-정문: 구만이에 있는 박씨의 효자(孝子) 정문(旌門)이다.
- 반석-들[석화촌(石花村)]: 구만리의 중심 마을. 중앙에 큰 반석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북정골[북정동(北亭洞)]: 구만이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정자(亭子)가 있었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 왜-둔지[와둔지(瓦屯地), 와촌(瓦村)]: 구만이 둔지에 있는 마을로 기와집이 많은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 원수-골[원수동(遠水洞), 운수골]: 잣나무배기 동북쪽 깊은 산골짜기 멀리 안에 있는 마을로 운수골로도 불린다.
- 잣나무-배기[백자동(栢子洞)]: 큰 잣나무가 서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2) 원소리(遠所里)

북방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먼배, 면배 또는 원소(遠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만배(萬背), 별업(別業)을 병합하여 원소리라 하였다.

- 계랑리-고개(원소리고개): 먼배, 면배마을에서 계량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만내-골[만천동(萬川洞), 만배(萬背)]: 별업 남쪽 15리쯤 되는 긴 골짜기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등(背) 쪽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밧-면배[외원소(外遠所)]: 면배[원소(遠所)]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벌-업[별업(別業)]: 면배 남쪽에 있는 마을로 벌업으로도 불린다.
- 신술리(新述里): 면배 동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이 없던 곳에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신술리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소리 나는 대로 '신수리'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안-면배[안원배, 내원소(內遠所)]: 면배[원소(遠所)]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이름이다.

(3) 북노일리(北魯日里)

북방면 남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노일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두래미[고두암(高頭岩)], 구룡밭[구룡전(九龍田)], 돌고개[석현(石峴)], 여내[호천(狐川)]를 병합하여 노일리(魯日里)라 하였다. 1973년 북노일(北

魯日)과 남노일(南魯日)로 나뉘어 남노일은 남면에, 북노일은 북방면에 편입되었다.

- 구룡-밭[구룡전(九龍田)]: 돌고개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이곳에서 강을 건너다니는 구룡밭 나루터가 있다.
- 구룡밭 나루: 구룡밭에서 노일로 건너다니는 나루터를 말한다.
- 남-머리[남두(南頭)]: 노일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노일리의 머리쪽이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돌-고개[석현(石峴)]: 돌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로 또는 구룡전 북쪽에 있는 고개로 원소리로 돌아가는데, 돌이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 돌-골: 노일리에 있는 마을로 돌이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샛-말: 큰말과 돌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영산-골[영산동(靈山洞)]: 구룡밭 끝 서면과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용수사 터: 금학산(金鶴山)에 있는 절터로 고려 희종(熙宗) 때 시어사 (侍御使) 용득의(龍得義)가 세웠던 사찰(寺刹)이다. 용수사(龍遂寺)라고 불리었다.
- 웃-벌[상평(上坪)]: 본마을 위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큰-마을: 노일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학서루 터: 금학산 아래에 있는 정자의 터이다. 홍천용씨 시조 용득의(龍得義)가 지었다고 전한다.

(4) 장항리(獐項里)

북방면(北方面) 남서쪽에 위치한 리.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노루목 또는 장항(獐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왯벌, 전골, 오라리, 용수를 병합하여 장항리라 하였다. 1973년 7월 1일 장항리 1개 법정리와 행정리로 편제되어 2018년 현재까지 1개의 단일 행정리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 노루목 나루: 노루목[장항리(獐項里)]에서 왯벌로 건너다니던 나루터이다.
- 돌-골[석곡(石谷)]: 도사곡리 옆에 있는 마을로 돌이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돌골-고개: 돌골에서 도사곡리로 가는 고개이다.
- 오라리(烏羅里): 노루목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 위가 되는 마을이다.
- 왯-벌[오야리(吾野里), 오야평(吾野坪)]: 노루목 서쪽 강가에 있는 마을로 기와를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용-삼: 장항리(獐項里) 북쪽에 있는 마을로 용삼고개 밑이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용삼-고개: 용삼에서 역전평리의 계량이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용수[龍水, 절골, 사곡(寺谷)]: 장항리(獐項里) 서쪽 금학산(金鶴山) 아래에 있는 마을로 용수사(龍水寺)라는 절이 있었다.
- 절-벼루: 절골 옆 벼루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 절-안[사내(寺內), 사내곡(寺內谷), 절안골]: 절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5) 도사곡리(都沙谷里)

북방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모래가 많으므로 도새울 또는 도사곡(都沙谷)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문들, 밧말, 안말을 병합하여 도사곡리라 하였다.

- 문-들: 문사곡리의 중심 마을로 들 옆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밧-말: 중간말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안-말: 도새울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중간-말: 밧말과 안말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6) 굴지리(屈只里)

북방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서 굴지 또는 굴기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거문건너, 산구네미[산구네미, 산구유(山口踰)], 웃거리[상거리(上巨里)], 석골을 병합하여 굴지리라 하였다.

- 거문-건너[거문관이]: 굴기 동남쪽 건너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괴-바우[고양이·괭이바우, 묘암(猫岩)]: 거문건너 냇가에 있는 바위로 고양이처럼 생생겨서 붙여진 붙여진 이름이다.
- 무랭-이: 굴지 안에 있는 마을로 물이 흔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물알-버덩: 굴기 앞에 있는 버덩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벼루-고개: 굴기 앞 벼루에 있는 고개로 고개가 두 길로 되어 있는데, 장항리(獐項里)와 화계리로 각각 가는 고개이다.
- 산꾸-네미[산구네미, 산구유(山口踰)]: 굴기 동북쪽 산 구렁 안에 있는 마을로 산구유(山口踰)로도 불리운다.
- 석-골[석곡(石谷)]: 굴기 서쪽에 있는 마을로 돌이 많은 고을로 큰 석골, 작은 석골 두 마을로 나뉘어 있다.
- 석밭-재: 굴기의 강 건너쪽 재 밑에 있는 마을로 돌이 많은 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웃-거리[상거리(上巨里)]: 굴기 위 길가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7) 역전평리(驛田坪里)

북방면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역에 딸린 들이 있었으므로 역밭들 또는 역전평(驛田坪)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계량이[계랑이(癸浪里), 기랭이], 바칠[바치-리]을 병합하여 역전평리라 하였다.

- 계랑-이[계랑이(癸浪里), 기랭이]: 역전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바-칠[바치-리]: 역전평 서쪽 전치곡리(田峙谷里) 바치리, 바칠 옆에 있는 마을로 바칠고개 밑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바칠고개: 바치리[전치곡리(田峙谷里)]에서 춘천시 동산면(東山面) 조양리(朝陽里)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8) 본궁리(本宮里)

북방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본궁(本宮)이라 하

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솔골[송곡(松谷)], 수무개[시무개]를 병합하여 본궁리라 하였다.

- 본궁-고개[부사원고개, 본궁현, 부소원치(本宮峴, 夫所院峙)]: 본궁에서 부사원리(府司院里)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 솔-골[송곡(松谷)]: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았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수무-개[시무개]: 본궁리 안에 있는 마을로 신[단풍(丹楓)]나무가 많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옛사람들이 신나무에 붙인 이름은 '때깔 나는 나무'란 뜻의 '색목(色木)'이다. 옛 한글 발음으로 '싣나모'라고 하다가 오늘날 신나무가 되었다.

(9) 부사원리(府司院里)

북방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부수원(浮水院), 부소원(府所院)이 있었으므로, 부소원(府所院)이라 하다가 변하여 부사원(府司院)이 되었는데, 부사원은 춘천시 동산면 새순막[신순막(新巡幕), 새술막]으로 넘어가는 길손들이 쉬어가는 주막촌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진골[진곡(陣谷)], 막은 내밋골을 병합하여 부사원리라 하였다.

- 깃대-봉[기봉]: 예전 난리 때 이 산봉우리에 기를 꽂고 싸웠다 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막은 내밋-골: 부사원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막혀 있는 막다른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 진-골[진곡(陣谷)]: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진(陣)을 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진꼴-다리[진곡교(陣谷橋)]: 진골에 있는 다리로 1944년에 놓았다.

(10) 능평리(菱坪里)

북방면 중심부에 위치한 동리로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세종 때 정란공신 연산군 김효성(金孝誠)의 묘가 있으므로 능뜰 또는 능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통폐합에 따라 원동골[원동(院洞), 원골], 진골[진곡(陣谷)]을 병합하여 능평리라 하였다.

- 건너-말: 연산군 묘 건너편 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능평 공동묘지: 건너말에 있는 공동묘지이다.
- 다락-구석이: 한쪽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원동-골[원동(院洞), 원골]: 진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조 때 원집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절-터: 건너말 옆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진-골[진곡(陣谷)]: 능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군인들이 진영(陣營)을 치고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 상화계리(上花溪里)

북방면 중심부에 위치한 동리로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화계(花溪)의 위쪽이 되므로 상화계(上花溪)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덫 골, 뒷 골말, 모래 골을 병합하여 상화계리라 하였다.

- 덫-골[덫모퉁이]: 상화계의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로 산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 한다.
- 뒷-골말: 상화계 뒤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모래-골: 상화계 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많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소학정(巢鶴亭) 터: 상화계리 앞 내 건너 산에 있던 정자의 터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소학정의 소학(巢鶴)은 두루미 학(鶴)의 보금자리 집을 뜻하는 것으로 예전이 학의 무리가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 하여 정자(亭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 잣나무-배기[백리(栢里)]: 상화계 서쪽에 있는 마을로 큰 잣나무가 서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화계(花溪): 상화계(上花溪), 중화계(中花溪), 하화계(下花溪), 화동(花洞)의 4개 리에 걸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내가 흐르고 내 건너 산에 소학정(巢鶴亭)이 있었다.

(12) 중화계리(中花溪里)

북방면 동쪽에 위치한 동리로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상화계와 하화계의 가운데가 되므로 중화계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화계리라 하였다.

- 너구리-터: 중화계 북쪽 곧 마제기고개 앞마을로 너구리가 잘 나왔었다 한다.
- 능안-이: 중화계리의 중심 마을. 이조 세조 때 정난공신 선약장군 김경조(靖難功臣 宣約將軍 金敬祖)의 분묘(墳墓)가 있는데 그 안쪽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제기-고개[마제현(馬蹄峴), 마지기고개, 말굽고개]: 중화계에서 홍천읍으로 가는 고개로 말굽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3) 하화계리(下花溪里)

북방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화계(花溪)의 아래가 되므로 하화계(下花溪)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도둔(桃屯), 백리(栢里), 새둔지[사둔지(沙屯地)], 소단이[소담리(騷坍里)], 새터[신대(新垈)], 중화계의 일부를 병합하여 하화계리라 하였다.

- 도둔(桃屯): 소단이 서쪽 홍천강 건너 언덕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도둔 나루: 도둔 앞 홍천강가에 있는 나루터로 소단리로 건너다녔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돌터-거리(비석거리): 소단이 옆에 있는 마을로 전에 비석이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문-여울: 하화계리에서 홍천읍 하오안리로 흐르는 내이다. 여울이 졌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이[백리(栢里)]: 백이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로 잣나무가 많이 서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백이-고개: 하화계리와 상화계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새-둔지[사둔지(沙屯地)]: 하화계 남쪽 홍천강가에 있는 마을로 모래가 둔덕을 이루

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새-둔지: 새터에 있는 버덩이다.
- 새-터[신대(新垈)]: 소단이 동북쪽에 새로 된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소단이[소담리(騷坍里)]: 하화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안-꼴[내동(內洞)]: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안고래라고도 한다.
- 잣-고개[백고개, 백현(栢峴)]: 하화계에서 홍천읍 희망리로 가는 고개로 잣나무가 있어서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잘못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잘못된 지명유래는 수정하지 않은 채 교육되고 있다. 홍천읍(현내면, 군내면, 홍천면)과 북방면(화계면)의 경계인 고개 능선이 있는 석화산에는 석화산성(石花山城) 혹은 야자산성(也字山城)이 있었는데, '잣고개'는 성(城)을 뜻하는 옛말 '잣'과 관련된 지명이다.
- 청성비(靑星碑): 청성촌 어귀에 있는 돌비석이다. 육군 6사단이 머무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6사단 표지인 푸른 별, 곧 청성(靑星)을 따서 청성비라 하였다.
- 청성촌(靑星村): 육군 6사단이 주둔할 때, 군인들의 관사가 있던 마을이다.
- 퇴밋-고개(악산): 하화계리에서 소매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 마루의 바위너설 속에는 봄에도 얼음이 있다 한다.

(14) 소매곡리(疎梅谷里)

북방면 남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홍천강물이 '새 을(乙)'자 모양으로 흐른다고 하여 을밀, 얼밀 또는 소매곡(疎梅谷)이라 하였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진 농촌이다. 마을 북쪽으로 홍천강이 흐르며 마을 뒤로 까끈봉[삭봉(削峰)]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자연마을 굴결(屈決), 먹방이를 병합하여 법정리 소매곡리라 하였다.

- 굴결(屈決): 먹뱅이 옆에 있는 마을로 홍천강 물결이 '새 을(乙)'자 모양으로 굽어 흘러 나간다고 하여 속칭 을밀, 얼밀이라 불렸다. 또는 굽은 물결이라는 '굴결(屈決)'이라고 이두식(吏讀式) 표현으로 불리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는 '굴결이'라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한자식 이름인 소매곡리(疎梅谷里)라고 불렸다.
- 먹뱅-이[먹방이]: 소매곡 서쪽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먹뱅이'는 '먹방이'의 변

화형이다. 즉 '먹방이'가 'ㅣ'모음 역행동화에 의해 변한 어형이 '먹뱅이'이다. '먹방이'는 '먹방'과 '이'로 분석된다. '먹방[묵방(墨坊)]'은 '먹을 만드는 동네'를 뜻하고, '-이'는 접미사이다. '-이'가 붙은 '먹방이'는 3음절인 관계로 '먹방'보다 안정감을 줄 뿐, 뜻은 '먹방'과 같다. 먹뱅-이[먹방이, 묵방(墨坊)]의 먹방은 먹과 관련된 마을이라는 의미의 먹+방[묵방(墨坊)]으로 이두식 표현[14]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얼밀-마을: 소매곡리를 속칭 얼밀마을이라고 한다. 홍천강물이 새 을(乙)자 모양으로 굽어 흐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을(乙)자와 흐르는 물의 방언 '밀'이 합쳐져 이두식으로 표현된 지명이 '을밀', '얼밀'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1914년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소매곡(疎梅谷)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15) 성동리(城洞里)

북방면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북방면 지역으로, 성재산[성치산(城峙山)] 아래가 되므로 성골 또는 성동(城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성재산[성치산(城峙山)], 갈골[갈곡(葛谷)], 도십리, 구렁말[평촌(坪村)], 돌모루[석우(石隅)], 무수막[수철막(水鐵幕), 수전막(水錢幕)], 용태울[용태동(龍泰洞), 용태리], 닥밭골[저전곡(楮田谷)]을 병합하여 성동리라 하였다.

- 갈-골[갈곡(葛谷)]: 구렁말 서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갈대가 많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구렁-말[평촌(坪村)]: 무수막 남쪽 들 옆에 물 구렁이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나-개울[나여곡, 낙여곡(樂餘谷)]: 성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앞에 개울이 흐른다.
- 닥밭-골[저전곡(楮田谷)]: 성동(城洞) 안에 있는 마을로 닥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대룡지(大龍池): 상화계리에 있는 큰 저수지이다.
- 도십리-고개: 용태울에서 화촌면 구성포리의 도십리로 가는 고개이다.
- 돌-모루[석우(石隅)]: 성동 북쪽 산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만내-고개[만천현(萬川峴)]: 만냇골에서 화촌면 송정리 만내 마을로 가는 긴고개이다.
- 만냇-골: 무수막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무수-막[수철막(水鐵幕), 수전막(水錢幕)]: 성동(城洞) 남쪽에 있는 마을로 무쇠 솥과 엽전(葉錢) 또는 농기구를 제조하던 공장이 있어 무쇠막 또는 무수막[수철막(水鐵幕), 수전막(水錢幕)]이라 불렀는데, 그것을 한자화(漢字化)하여 수철막(水鐵幕), 수전막(水錢幕)이라 이름하였다.
- 뱀-꼴[사곡(蛇谷)]: 성동(城洞) 안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뱀 같다고 하여 이름하였다.
- 불근-봉이: 돌모루에 있는 마을로 불근봉이 고개 아래가 된다.
- 불근봉이-고개: 불근봉이에 있는 고개로 용태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새나무-터: 성동에 있는 마을로 새나루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샛-말: 구렁말과 샛성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샛-성골[간성곡(間城谷)]: 춘천시 동산면 북방리와 성동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성치산(城峙山): 성재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또는 성동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옛 토성(土城)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옻나무-배기: 성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옻나무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태-울[용태동(龍泰洞), 용태리]: 돌모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16) 화동리(花洞里)

북방면 북동쪽에 위치한 동리로 본래 홍천군 북방면 지역으로 화계(花溪)의 이름을 따서 화동(花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너부내[광천(廣川)], 범골[호동(虎洞)]을 병합하여 법정리인 화동리라 하였고 속칭(俗稱) 범골이라고도 한다.

- 너부-내[광천(廣川)]: 화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넓은 내가 흐른다고 하여 너부내[광천(廣川)]라 이름하였다.
- 덕-고개[덕현(德峴)]: 화동에서 중화계리(中花溪里)로 가는 고개 이름으로 '큰 고개' 또는 '높은 언덕고개'라는 의미에서 덕고개라 부르고 한자로 덕현(德峴)이라고 표기하였다.
- 범-골[호동(虎洞)]: 화동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 있는 산의 형국(形局)이 풍수지리상 호랑이가 누운 형상이므로 범골 또는 호동(虎洞)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범골은 아랫범골과 웃범골로 나뉘어 불리고 있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북방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九石村	구성말	구성말, 구석말	구만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구성말, 북정동, 원소리를 병합하여 구만리 편입				
	조선지지	別業里	벌업리	벌업, 별업리	원소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만내, 벌업을 병합하여 원소리 편입				
	조선지지	滿川洞	만내골	만내골, 만배골	원소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원소리 편입				
	조선지지	石峴村	돌고개말	돌고개, 돌말	노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고드래미, 구룡밭, 돌고래, 여내를 병합 노일리에 편입				
	조선지지	軍糧村	군량말	군량말, 구룡밭	노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군량말 노일리에 편입,				
	조선지지	高柱岩	고드래미	고드래미	노일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노일리에 편입,				
	조선지지	位安垈	위안터	위안터	장항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왯벌, 절골, 오라리, 용수를 장항리에 편입,				
	조선지지	문들	문들	문들	도사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도사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屈只	굴지리	굴지리	굴지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거문너머, 산구네미, 웃거리, 석골을 굴지리에 편입,				
	조선지지	되룡소골말	되룡소골말		역리평(역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역리평에 편입				
	조선지지	거문가니	거문가니	거문너머	역리평(역전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계랑이, 바칠을 병합하여 역리평에 편입				
	조선지지	本宮	본궁	본궁	본궁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솔골과 시무개를 본궁리에 편입				
	조선지지	內府司院	내부사원	내부사원(內府司院)	부사원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진골과 막은내밋골을 병합하여 부사원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院洞	원동골	원동골(院洞)	능평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능평리에 편입				
	조선지지	외로이	외로이	외로이(외로리)	상화계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화계리에 편입				
	조선지지	굴결이	굴결이(굴결리)	굴결리(屈決里)	소매곡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소매곡리에 편입				
	조선지지	騷坍里	소단이	소단이(騷坍里)	하화계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하화계리에 편입				
	조선지지	沙屯地	새둔지	새둔지, 사둔지	하화계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하화계리에 편입				
	조선지지	안고래	안고래	안고래, 안골(內洞)	하화계리(內洞)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하화계리에 편입				
	조선지지	鐵可垈	철가터	철가터	중화계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중화계리리에 편입				
	조선지지	廣川里	너부내	너부내(廣川)	화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화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虎洞	범골	범골(虎洞)	화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화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옷나무박이	옷나무배기	옷나무배기	성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水鐵幕	무쇠말, 무수막	무쇠말, 무수막(수철막, 수전막)	성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동리에 편입				
	조선지지	石隅里	돌모루	돌모루(石隅)	성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동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都十里	도십리	도십리	성동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성동리에 편입				
山名	金鶴山	금학산	금학산	노일리	
	九節山	구절산	구절산	성동리	
谷名	甫音谷	보음골 버드렁골	버드렁골	능평리	
	間城谷	샛성골	샛성골(間城谷)	성동리	
	寺內谷	절안골	절안골(寺內谷)	장항리	
	北丁谷	북정골	북정골(北丁谷)	구만리	
	貢進谷	공진골	공진골(貢進谷)	화동리	
嶺峙峴名	지장골고개	지장골고개	지장골고개	원소리	
	면배고개	면배고개	면배(면배)고개	원소리(萬背)	
	府司院峴	부사원고개	부사원고개	부사원리	
	덧고개	덧고개	덧고개	중화계리	
	으능정고개	으능정고개	으능정고개	본궁리	
	石峴	돌고개	돌고개(석현)	노일리	
	얼밀고개	얼밀고개	얼밀고개	소매곡리	
酒幕名	石鋸里酒幕	석거리쥬막		하화계리	
	외로이쥬막	외로이쥬막		상화계리	
	府司院酒幕	부사원쥬막		부사원리	
	驛田坪酒幕	역전평쥬막		역전평리	
野坪名	驛田坪	역전뜰	역전평	역전평리	
	軍糧坪	군량뜰	군량평	노일리	
	외로이뜰	외로이뜰	외로이뜰	상화계리	
	石田坪	석전뜰	석전평	화동리	
	萬川坪	만천뜰	만내뜰	원소리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堤堰洑名	畓谷坪洑	논골뜰보	논골뜰보	성동리	
	滿川洞洑	만내말보	만내말보	성동리	
	蒲田洑	포전보	포전보	상화계리	
	伐山洑	벌산보	벌산보	상화계리	
江川溪澗名	石鉅里溪	석거리내	石鉅里溪	하화계리	
	院洞川	원동내	院洞川	능평리	
	屈只川	굴지내	屈只川	굴지리	
	城洞川	성동내	城洞川	성동리	

10) 내면(內面)

내면은 홍천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강릉군(명주) 지역으로서 내면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내일리(內一里)와 내삼리(內三里) 두 면으로 나누어 내일리면에는 가미동(加美洞), 율전리(栗田里), 생둔리(生屯里), 원당동(院堂洞), 하북곡(下北谷), 소한리(小閑里), 조항리(鳥項里), 이현동(梨峴洞), 광원리(廣院里), 자운리(慈雲里), 창촌리(蒼村里)의 11개 리를, 내삼리면에는 용연동(龍淵洞), 미산동(美山洞), 여차동(如車洞), 아계동(鵝溪洞), 방내동(坊內洞), 성내동(城內洞)의 6개 마을을 관할하다가,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에 이속되고,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다시 두 면을 통폐합하여 내면이라 하여 율전(栗田), 광원(廣院), 창촌(蒼村), 자운(紫雲), 미산(美山), 방내(坊內)의 6개 법정리로 개편하였는데, 1945년 38도선이 생기어 인제군의 대부분이 공산 치하에 들어감에 따라 같은 해 9월 16일 그 나머지 지역은 모두 홍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에 인제군이 전부 수복되었으므로 홍천군에 편입 되었던 대부분의 지역이 인제군에 복구되고 오직 본 내면만 홍천군에 남아 있게 되었다.

(1) 창촌리(蒼村里)

내면 중심부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강릉군 내일리면 지역으로 조선조 때 창고가 있었으므로 창말 또는 창촌(蒼村)이라 하였는데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하북곡(下北谷), 소한리(小閑里)를 병합하여 창촌리라 하여 내면에 편입되었는데, 1945년 38도선이 생김에 따라 같은 해 9월 16일 홍천군에 편입되었다.

- 노루-목[장항동(獐項洞)] 마을: 노루목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장항동(獐項洞)이라고도 한다.
- 노루-목[장항동(獐項洞)]고개: 노루목에서 자운리(紫雲里)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다. 노루목의 지명유래는 지형의 형국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노양-골[노양동(魯陽洞)]: 상북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노양동(魯陽洞)의 유래는 미상이다.
- 들미-버덩[들미평, 거무평(擧茂坪)]: 배전동 북쪽 버덩에 있는 마을로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산 밑에 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망태-골: 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망태같이 생긴 골짜기인지라 붙여진 지명이다.
- 문지방-골: 문지방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물안-골[수침동(水砧洞)]: 웃버덩 북쪽에 있는 마을로 물방아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지명으로 수침동이라고도 한다.
- 백성동(栢城洞): 빼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큰 잣나무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베루-골[지동(砥洞)]: 노양골[노양동(魯陽洞)] 위쪽 벼루 가에 있는 마을로 고은 숫돌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빼치[이전동(梨田洞), 배전동]: 창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창촌이 배의 모양인데 이곳이 배의 귀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상북-골[상북곡(上北谷)]: 창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창촌 위의 골짜기가 된다.
- 송부-골[송부동(松富洞)]: 연랑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 수청동(水淸洞): 예전부터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수청동이라 하였다.
- 승짓-골[성지동(聖旨洞), 승지동(承旨洞)]: 창촌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시대 때 '승지' 벼슬을 한 사람이 벼슬자리를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는 없다. 전국에 '승지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승지'를 한자 '承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자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골, 승적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로 추정되어 '승지'는 '성지', '승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아울러 '승짓골'이나 '승지골', '성지동' 모두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 아랫-버덩[하평(下坪)]: 웃버덩 아래쪽에 있는 버덩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양수교(兩水橋): 창촌 남쪽에 놓인 다리로 이곳에서 조항천(鳥項川)과 자운천(紫雲川)이 합수된다 하여 붙여진 다리 이름이다.
- 연랑동(連浪洞, 어령동): 작은 한이의 골짜기 끝에 있는 마을이다. 곧 소계방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어령동이라고도 한다.
- 용대한 약수터: 대한이에 있는 약물터로 100여 년 전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발견했다고 전한다.
- 웃-말: 웃버덩 위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웃-버덩[상평(上坪)]: 송부동 동북쪽 버덩에 있는 마을로 중버덩 위쪽이 되며 상평으로도 불린다.
- 작은한이[소한동(小閑洞)]: 큰 한이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잿-골[현골, 현곡(峴谷), 현동(峴洞)]: 작은한이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높은 곳으로 현골, 현곡(峴谷), 현동(峴洞)이라고 불린다.
- 잿골-고개: 잿골 남쪽에서 큰한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절-골: 절이 있었던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정서골[정서곡(靜棲谷)]: 중간말 북쪽 높은 산 밑에 있는 고요하고 맑은 보금자리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 정서골과 큰 정서골로 나뉘어 있다.
- 족시-골[족시곡(足時谷)]: 망태골 위쪽에 있는 마을로 족시곡이라고도 불린다.
- 중간-말[중버덩, 중평(中坪)]: 작은 한이와 큰 한이 사이에 있는 마을로 웃버덩과 아랫버덩의 중간이 된다.
- 창집-터: 창촌 서북쪽에 있는 조선시대 때 미곡창고(米穀倉庫)의 터이다.

- 창촌-빨래터: 창촌샘 옆에 있는 빨래터이다.
- 창촌-샘: 창촌에 있는 좋은 샘물이다.
- 터-골: 창촌 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부잣집 터가 있었다고 한다.
- 큰-피얏골[대직동(大稷洞)]: 창촌에 있는 마을로 이곳의 토질이 질고 매우 척박해서 예전에는 피만 무성히 자라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큰 피우개(大稷洞)라고도 한다.
- 큰-한이[대한동(大閑洞)]: 창촌 동남쪽, 곧 대계방산 아래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예로부터 큰 마을이라 하여 한골 또는 한동이라 하다가 남쪽에 작은한이가 생겨난 후에는 큰한이라고 불린다.
- 하북-골[하북곡(下北谷)]: 창촌과 빼치 사이에 있는 마을로 상북골 아래쪽이 된다고 하여 하북골이라 불린다.

(2) 광원리(廣院里)

내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강릉군 내일리면 지역으로 조선조 때 원집이 있었다 하여 늘원이 또는 광원(廣院)이라 하였는데,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덕동, 쇠터울[금기동(金基洞)], 일어서기[기어석리(起於石里)], 사월평(沙月坪), 월둔(月屯), 달둔 (達屯), 을수동(乙水洞), 원당동(院堂洞), 쇳골[금곡(金谷)], 다릿골[교동(橋洞)]을 병합하여 광원리라 하였는데, 1945년 38도선이 생김에 따라 같은 해 9월 16일 홍천군에 편입되었다.

- 가덕동(加德洞): 실론 북쪽 가칠봉(柯七峰) 아래에 있는 마을로 가칠봉과 구룡덕봉(九龍德峰)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온 이름으로 유래된 지명이다.
- 갈마소(渴馬沼): 말처럼 생긴 산 밑에 있는 늪[소(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계천동[桂川洞, 계천(桂川)]: 사월평(砂月坪) 서쪽에 있는 마을로 계천(桂川)이 흘러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골-말: 월둔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광원리 남쪽이 된다.
- 광원-골[광원동(廣院洞)]: 쇠터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광원리 남쪽이 되는 마을이다.
- 구룡령(九龍嶺): 내면 광원리, 명개리에서 양양군 서면 갈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용이 굽이쳐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아흔아홉 구비를 넘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지쳐서 갈천리 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고갯길을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기석산(起石山): 기어석리 뒤에 있는 산으로 일어서기 바우(바위)가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 다릿-골[교동(橋洞)]: 계방천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강에 다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달둔-동[達屯洞, 달둔(達屯)]: 다릿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월둔, 달둔, 생둔 안에 피난처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대-개천동[대계천]: 계천(桂川)의 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대대산(大臺山): 을수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오대산 아래 높고 편편한 큰 산 구릉(丘陵)에 모양이 높은 돈대(墩臺)로 되었으므로 큰 대산(臺山)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뒷-버덩: 큰 골말 뒤 버덩[뒤 뜰(후평(後坪)]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붉은덕-버덩[홍가평(紅加坪), 작업장]: 월둔과 새터 사이 버덩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의 흙 빛깔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월평(砂月坪): 대계천 동쪽 모래톱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 삼봉약수(三峰藥水):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의 명칭이 실론골이어서 실론약수(實論藥水)로 불리다가 세 봉우리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삼봉약수로 이름이 바뀌었다. 부정한 사람이 마시면 흙탕물이 되어 아무런 효험이 없어진다는 속설도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옛 조상들은 삼봉약수를 무척 신성시하고 소중하게 여겨온 것으로 여겨진다. 문종의 왕비인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이 단종(端宗) 폐위 후 이곳 내면에서 은거(隱居)하며 지낼 때 날개 부러진 학(鶴)이 안개 피어오르는 계곡 물에 날개를 적신 뒤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발견했다는 전설이 있다.
- 새-터[신대동(新垈洞)]: 월둔 동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새로 형성된 시기는 미상이다.
- 샘-골[천동(泉洞)]: 다릿골[교동(橋洞)] 북쪽에 있는 마을로 좋은 샘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석대-동[석태동(石台洞), 속대동]: 늘원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골 안에 넓고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소계천동[小桂川洞, 소계천(小桂川)]: 계천동의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소대산(小臺山): 대대산 북쪽에 있는 높고 편편한 작은 대산(臺山)이 있는 구릉(丘陵)에 모양이 낮은 돈대(墩臺)로 되었으므로 작은 대산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쇠터-울[금기동(金基洞)]: 늘원이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사금(砂金)이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쇳-골[금곡동(金谷洞)]: 광원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쇠(鐵)가 났었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큰 쇳골과 작은 쇳골로 나뉘어 있다.
- 실론-골[실론곡(實論谷)]: 큰 쇳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실론(實論)이란 지명은 실(實)은 골짜기[곡(谷)], 론(論)은 논[답(畓)]의 뜻으로 실논>실론으로 음운변화 한 것으로 추측된다.
- 실론-약수터: 실론에 있는 약수터(삼봉약수)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원당동(院堂洞): 사월평(砂月坪) 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원집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 원터-버덩: 원터버덩 옆에 있는 마을로 또는 늘원이 북쪽에 있는 뜰을 말한다. 조선시대 원님의 집이 있었던 터임으로 원-터 옆의 뜰로 버덩을 붙여 유래된 지명이다.
- 월둔-골[월둔곡(月屯谷), 월둔동(月屯洞), 월둔(月屯)]: 월둔동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월송대(月松臺): 달둔(達屯) 앞에 있는 산으로 정월 대보름에 달맞이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을수동(乙水洞): 달둔 서남쪽에 있는 마을. 앞개울이 새 을(乙)자 처럼 굽이져 흐른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 일어서기[기어석리(起於石里)]: 사월평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일어서기 바우(바위의 방언)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 절에: 소계천동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거리: 내면 방내장(坊內場) 옆에 있는 광원리(廣院里) 마을의 장거리로 1958년까지 전통 장시(場市)가 운영되다 1959년부터 방내리로 이전되었다.
- 절에-물: 큰 절에와 작은 절에로 흐르는 개울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직소(直沼): 직소가 있는 마을로 또는 직소마을에 있는 폭포(瀑布)로 높게 곧바로 떨어져 소(沼)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칡소[갈소(葛沼)]로도 불리고 있다.
- 피얏-골[피약골, 직전동(稷田洞)]: 을수동(乙水洞)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피[직(稷)] 농

사를 많이 지었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3) 명개리(明開里)

내면 북동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조개동(早開洞), 명지거리[명지가리(明之街里)], 갈천리(葛川里)의 각 일부와 인제군 군내면 광현리(廣峴里) 일부를 병합하여 조개리(早開里)라 하였다가, 1954년에 명지거리와 조개리의 이름을 따서 명개리라 하였다. 1973년 7월 1일 홍천군 내면에 편입되어 1985년 5월 1일 명개리로 편제되었다.

- 갈전곡(葛田谷, 치밭골): 본래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칡이 많이 있는 밭 골짜기 마을이라 칡밭골, 치밭골이라 이름하였다.
- 갈천리(葛川里, 칡내, 칭내, 갈천): 본래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칡이 많이 나는 시내골짜기 마을이라 갈천리라 이름하였다.
- 대맥동(大麥洞, 몽애동): 조개리(早開里) 서쪽에 있는 마을로 대맥(大麥) 보리와 메밀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대맥동, 목맥동[메밀앗골], 몽애동이라 이름하였다. 같은 의미의 마을 지명을 소리 나는 대로 변하여 불리어진 이름들이다.
- 명지가리[明之街里, 명지거리, 명지동(明池洞), 명지리(明池里)]: 마을 안에 맑은 못이 있었으므로, 명지동이라 불러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명지거리로 개칭됐으며, 1954년 11월 17일자로 조개리(早開里)와 병합하여 명지거리의 명(明)자와 조개리의 개(開)자를 따서 명개리(明開里)라 새로운 지명으로 이름하였다.
- 목맥동(木麥洞, 메밀아홉골, 메밀앗골): 옛날 어떤 농부가 메밀 아홉 이랑을 심어 아홉 섬을 수확했다는 데서 유래한 마을 명칭이다. 처음에는 메밀아홉골, 메밀앗골로 불리어오다, 일제강점기 행정(行政) 편의를 위해 일본 한자식으로 대맥동(大麥洞), 목맥동(木麥洞)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역민들은 목맥동을 '몽애동'으로 소리 나는 대로 불렀다.
- 약수동(藥水洞, 약수골): 마을 안에 약수(藥水)와 같이 속병에 효력이 있는 좋은 샘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청도리(靑道里): 조개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청도리라 이름하였는데 지명유래는 밝

혀져 있지 않다. 청도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은 외청도리, 청도리 안쪽에 있는 마을은 내청도리로 나뉘어 불리고 있다.

(4) 율전리(栗田里)

내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강릉군 내일리면 지역으로 밤나무가 많으므로 밤바치 또는 율전리(栗田里)라 하였는데, 1906년에 인제군(麟蹄郡)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가진포(加眞浦), 생둔리(生屯里)를 병합하여 다시 율전리로 하여 내면에 편입되었는데, 1945년 38도선이 생김에 따라 같은 해 9월 16일 홍천군에 편입되었다.

- 가진포[加眞浦, 가미동(加美洞), 가진포리(加眞浦里)]: 성내동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나룻배가 드나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고든-골[직골, 직곡(直谷)]: 신기 북쪽 곧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직골, 직곡(直谷)으로도 불린다.
- 난치나뭇-골(회목동): 노루목재 북쪽에 있는 마을로 난치나무[난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회목동이라고도 불린다.
- 노루목-재(장항): 문바우 북쪽에서 회목동으로 가는 재이다. 노루의 목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문-바우[문암(門岩)]: 문암동 동쪽 문암산 아래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문처럼 양쪽에 높이 솟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문암동(門岩洞): 화랑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문(門)처럼 생긴 큰 바위가 양쪽에 있어서 문-바우골, 한자식으로 문암동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물안-골[수침동(水砧洞), 물방골]: 신흥동(新興洞) 북쪽에 있는 마을로 물통방아가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뱃-재[이현동(梨峴洞)]: 일송정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뱃재고개 아래가 된다. 또는 뱃재에서 웃-뱃재로 가는 큰 고개를 말한다. 돌배나무가 많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부흥동(富興洞): 뱃재 남쪽에 새로 이룬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살-둔[생둔(生屯)]: 안현동[鞍峴洞, 안현골, 안현곡(鞍峴谷)]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광원리의 월둔, 달둔과 살둔의 삼둔(三屯) 사이에 피난터가 있다고 한다. 임진왜란과 6·25 때 피란지(避亂地)로 안전하여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하늘 아래 첫 동네이며 "사람이 기 대서 살만한 둔덕"이란 뜻의 순우리말의 지명이 살-둔[생둔(生屯)] 마을이다.
- 신기(新基): 서쪽에 새로 이루어진 마을인 데서 유래되었다. 새롭게 흥(興)하기를 기원하며 일어난 마을로 신기(新基), 또는 신흥동(新興洞)이라 이름하였다.
- 신-여울(新灘): 새로운 여울이 만들어져 있는 마을,로 살둔 동남쪽 내린천(內麟川)으로 흐르는 여울이라는 의미로 이름하였으며 물살이 세다고 한다.
- 신흥동(新興洞): 물안골 남쪽에 새로 일으킨 마을로 부흥(富興)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현동[鞍峴洞, 안현골, 안현곡(鞍峴谷)]: 난치나뭇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안현재 아래 마을이 된다는 연유로 이름 붙여졌다.
- 안현-재[안현치(鞍峴峙)]: 안현동 북쪽에서 살둔[생둔(生屯)]으로 넘어가는 언덕으로 길마[지르매. 강원도 방언. 옛말은 '기르매'·'기르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용소(龍沼): 살둔 앞 내린천에 있는 소(沼)이다. 용(龍)이 있어서 영검하다 하여 한발(旱魃)이 심할 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데, 개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용이 노하여 청천벽력(靑天霹靂)이 나고 갑자기 큰 비를 내리게 한다는 민속신앙이 전해진다.
- 외솔-배기[일송정(一松亭)]: 가진포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정자처럼 쓰던 한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우리-울[운리동(雲籬洞)]: 작은구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지역이 높고 산이 사방으로 둘러 있어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우물-골: 가마소 옆에 있는 마을로 어귀에 좋은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우물-재: 우물골 동쪽에서 가진포리로 가는 재이다.
- 웃-뱃재[되뱃재]: 뱃재의 위쪽 마을, 또는 웃뱃재에서 창촌리 장전평으로 가는 고개이다.

- 원율전(元栗田): 율전리의 원마을이란 뜻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진양-골[장양동(長陽洞)]: 골짜기가 깊고 볕이 잘 드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하-뱃재[하리현(下梨峴), 아래뱃재]: 뱃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 한술-골[한술동(漢述洞), 한술(漢述)]: 부흥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가 많이 서식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 한술과 큰 한술로 나뉘어 있다.
- 화랑-동[호랑동, 화양동(華陽洞), 화양(華陽)]: 몰아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자운리(紫雲里)

내면 남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강릉군 내일리면 지역으로 자운(紫雲)이라 하였는데,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새목이[조항리(鳥項里)]를 병합하여 자운리라 하여 내면에 편입되었는데, 1945년 38도선이 생김에 따라 같은 해 9월 16일 홍천군에 편입되었다.

- 괸-돌[지석동(支石洞)]: 자운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괸돌[지석(支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지석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 날근-새목이[고조항(古鳥項)]: 새목이의 원래 마을 이름으로 오래된 낡은 새목이가 소리 나는 대로 날근-새목이로 붙여진 이름이며 고조항(古鳥項)이라고도 불린다.
- 덕두원(德斗院): 새목이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래령(寶來嶺)의 큰 고개 밑이 되는데, 예전에 덕두원이라는 역원(驛院)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도창-골[도장곡(都藏谷), 도창곡(都倉谷)]: 새이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도방처럼 아늑해서 피난처가 된다고 한다.
- 말-무덤: 덕두원에 있는 큰 무덤으로 단종(端宗)의 외조부 권대감이 탔던 말을 묻은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 불발현(佛發峴): 홍천군 내면 자운리와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불발령(佛發嶺)이라고도 하는데 불발령의 지명 횃불(火)을 밝히(明)면서 넘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불바래기재, 불발령, 불발재, 불발현 등으로도 불렸다.
- 새이-목[조항(鳥項), 조항리(鳥項里)]: 새목이 아래에 있는 마을. 또는 덕두원 동북쪽

에 있는 고개로 덕두원에서 창촌으로 넘어가는데 새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 새이-골[간곡(間谷), 간골, 한골]: 자운리에 있는 마을이다.
- 솔-무치[송무치(松茂峙)]: 솔무치 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무성하게 많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또는 새목이 서쪽에 있는 고개로 창촌리의 노양동으로 가는데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수레너미-고개(차유치): 자운에서 덕두원으로 가는 고개로 단종(端宗)의 외조부 권대감이 수레를 타고 넘어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용장-골[용장곡(龍藏谷)]: 부흥골과 괸돌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용장(龍藏)이란 이름에는 좋은 기운을 감추고 있다. 마을로 용소(龍沼)가 있었는데 이곳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마을 이름이 비롯됐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 운두동[雲頭洞, 운두골(雲頭谷)]: 운두령(雲頭嶺)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골[15]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자작-장이[재작장이, 장진평(長津坪)]: 괸돌 북쪽에 있는 마을로 자작나무가 많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청계동(淸溪洞, 聽鷄洞): 백운동 서쪽 마을이다. 산수가 아름다운데 산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여 청계동(聽鷄洞)이라고 이름하였다가, 맑고 깨끗한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의 뜻이 담긴 '맑을 청(淸)'자와 '시내 계(溪)'자로 글자를 바꿔 '청계동(淸溪洞)'이라 하였다.

(6) 방내리(坊內里)

내면 서쪽에 위치한 법정리이다. 본래 강릉군 내삼리면 지역으로 옛날에 현(縣)이 있었던 곳이므로 방내(坊內)라 하였다 한다.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자기아치, 아계동(鵝溪洞), 담터[성내동(城內洞)]을 병합하여 방내리라하여 내면에 편입되었으며, 1945년 38도선이 생김에 따라 같은 해 9월 16일 홍천군에 편입되었다.

- 가마-소[교동(轎洞), 교소(轎沼)]: 성내동(城內洞)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마소[교

동(轎洞), 교소(轎沼)]가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가마소에 있는 큰 늪으로 큰 가마소와 작은 가마소로 나뉘어 불리고 있다.

- 구-름[구운동(九雲洞)]: 본래 강릉군 내삼리면 지역으로 창말삼리-창말[삼리창촌(三里倉村)] 서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인데, 예전에는 마을의 지세가 흡사 구름에 둘러 쌓인 것 같다 하여 구-름, 구름울[운곡동(雲谷洞)]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변하였다. 구-름[구운동(九雲 洞)]으로 불리었다.
- 노루목[장항리(獐項里)]: 녹수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노루목[장항(獐項)]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루목재[장항리고개(獐項峴)] 밑이 되는 마을이다.
- 노루목-재[장항(獐項峴)]: 노루목에 있는 재.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고 이름이 붙여졌다. 담터[담당(潭堂), 담동(潭洞)]로 통하는 고개이다.
- 녹수-골[녹수곡(綠水谷)]: 성내동(城內洞) 북쪽에 있는 마을로 푸른 물이 흐르는 골짜기라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마을이다.
- 담-터[담당(潭堂), 담동(潭洞)]: 질-고앗[칠고 밭, 길고전(吉古田)] 북쪽 성내동(城內洞) 안에 있는 마을로 성(城)을 쌓았던 흔적(痕迹)이 남아 있다.
- 대-구름[대구운(大九雲)]: 구름마을 안동네에 큰 마을을 뜻한다.
- 무-너미[수유동(水踰洞)]: 양지촌 서쪽 긴 골짜기 위에 있는 마을이다. '무너미'란 말에서 '무'는 물, '너미'는 넘는다는 뜻으로, 골짜기의 물이 넘쳐나서 '무너미'라 하였다. 이를 한자명으로 '물 수(水)'자와 '넘칠 유(踰)'자로 옮겨 썼다. 그리하여 하여 수유동(水踰洞)이라고 하였다.
- 삼리-창말[삼리창촌(三里倉村)]: 본래 강릉군 내삼리면의 지역으로서 관청 창고(倉, 倉庫) 가 있었음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 석장-골[석장곡(石葬谷)]: 양지촌(陽地村)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 무덤[석장묘(石葬墓)이 있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속새-절골[속사곡(束沙谷), 속사골]: 본래 강릉군 내삼리면의 지역으로서 삼리창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속새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성내동(城內洞): 장항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성(城) 안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담터[담당(潭堂), 담동(潭洞)]의 안쪽이 된다.
- 아치네[아계동(鵝溪洞)]: 웃 여차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 냇물에서 오리가 잘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양지촌(陽地村): 본래 강릉군 내삼리면의 지역으로서 내삼리면의 창말[창마을, 창촌(倉村)] 북쪽 햇볕이 잘 드는 양지말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여차-울[여차동(如車洞)]: 구미 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로 웃 여차울과 아래 여차울로 나뉘어 있다.

● 옷밥-골[의식동(衣食洞)]: 녹수골[녹수곡(綠水谷)] 서쪽에 있는 마을로 곡식이 잘된다고 하고 또는 옷밥골(衣食洞) 마을이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명유래는 작은 골짜기 마을이지만, 농사짓는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마르지 않아 입고 먹고 살아가는 데 걱정이 없는 고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원심-이[원샘이, 원심동(元心·元深洞)]: 아치내[아계동(鵝溪洞)] 남쪽 긴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 자기-아치[자개촌(自開村), 자기전(自己田), 자기촌(自起村)]: 양지촌(陽地村)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들이 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 구름[소구운(小九雲)]: 구름마을 안동네의 작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장-거리: 방내장(坊內場) 옆에 있는 전통 장시(場市)가 운영되던 장거리 마을이다.

● 질-고앗[칠고밭, 길고전(吉古田)]: 담터와 장항리 사이에 있는 마을로 칠고밭, 또는 한자식(漢字式)으로 길고전(吉古田)이라고도 불린다.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조선지지자료』). 내면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倉村里	창말	창촌리	1945년 9월 16일 홍천군 편입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하북곡, 소한리 창촌리에 편입				
	조선지지	小閑里	소한리	창촌리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창촌리에 편입				
	조선지지	廣院里	광원리	광원리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광원리에 편입				
	조선지지	院堂里	원당리	광원리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광원리에 편입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洞里村名	조선지지	紫雲里	자운리	자운리	〃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자운리에 편입				
山名	石花山	석화산	石花山	창촌리	
	岩雪山	바위셜산	암설산	창촌리	
	桂芳山	계방산	계방산	소한리	
	五臺山	오대산	오대산	을수리	
	磁石山	지남철산		광원리	
	綠樹谷山	녹슈골		성내동	
	燭臺峰	촉대봉		〃	
	紫陽山	자양산		〃	
	倉案山	창말안산		성내동	
	月影圖山	월영산		〃	
	鷹峰	매봉		〃	
	加美山	가매산		아계동(현 방내리)	
	烏頭峰	오두봉		〃	
	回龍峰	동룡봉		여차동(현 방내리)	
	開顔山	개안산		용연동	
	砥峰	숫돌봉		〃	
谷名	鉄谷	쇠골		광원리	
	金垡谷	쇠터울		〃	
	水砧谷	무탕골		소한리	
	漆田谷	옻밧골		성내동	
	漢淡谷	한담골		〃	
	飮水谷	을슈골		아계동	
	束雲谷	속운골		미산동	
	文望谷	문망골		〃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谷名	古木谷	고목골		용연동	
嶺峙 峴名	雲頭峴	운두재		조항리(현 자운리)	
	獐項峙	노루목이재		창촌리	
	寶菜峴	볼래재		조항리	
	蓬田峴	쑥밧재		성내동	
	井峴	졍현		〃	
	崖崎峴	애기고개		아계동	
	味峴	맛고개		여차동	
	城隍峴	셔낭고개		미산동	
古碑名	觀察使鄭元容善政碑		1827. 3.10. 부임	창촌리, 당시 江陵火田부과 租稅대신 還穀 耗穀 補充	
酒幕名	梨峴酒幕	배재쥬막		가진포(현 율전리	
	魯陽洞酒幕	노양골쥬막		자운리	
	倉村酒幕	창말쥬막		창촌리	
	院堂里酒幕	원당리쥬막		원당리(현 광원리)	
	廣院里酒幕	늘운쥬막		광원리	
市場名	倉村市場	창말장	창촌시장	창촌리	
野坪名	廣大坪	광대버덩		〃	
	處士坪	처사버덩		성내동	
	倉坪	창들		〃	
	陰地野	음지버덩		아계동	
	長屛坪	장병버덩		여차동	
	風吹坪	바람부리		용연동	
江川溪 澗名	兩沼川	두소물		광원리	
	倉村川	창말내		창촌리	
	釜沼	가마소		성내동	

종별	지명		한글명		기타
			1910년대	현재	
江川溪澗名	龍沼	용소		성내동	
	長沼	진소		아계동	
	桴沼	떼소		미산동	
	龍沼	용소		용연동	

홍천군의 땅이름 지명유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오랜 옛날에 형성된 것도 있고 아주 최근에 형성된 것도 있다. 옛날의 땅이름은 이 땅에 살았던 옛 선조들의 언어문화 생활을 수천, 수만 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생활정보로서 생활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보고(寶庫)이다.

각 읍면 지명유래 마지막에 있는 표는 『조선지지자료』의 '동리촌별 지명-일제강점기(1910년대)'를 정리한 것이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통치차원에서 발간한 『조선지지자료』는 1910년대 이전의 순우리말 지명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어, 옛 지명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준다. 특히 한자화된 이름과 함께 당시 문법으로 된 한글 지명도 병기되어 있어, 오늘날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순우리말 지명을 효과적으로 복원·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원도지』.
『고려사』.
『대동지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홍천읍지』.
『조선지지자료』.
『조선환여승람』.

강대덕, 『강원의 고지명』(上) 홍천군, 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5.
강대덕,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 본 洪川』(I), 洪川文化院, 2000.
강대덕, 「洪川 孔雀山 壽陀寺 寺刹文化財 綜合的 考察」, 『제27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수상집』, 한국문화원연합회, 2012.
강대덕, 「洪川 牛跡山 日月寺址 位置比定에 관한 硏究」, 『江原道 鄕土文化硏究發表 論文集』, 江原道文化院聯合會, 2013.
손성우 편저, 『한국지명사전』, 경인문화사, 1974.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92.
『홍천군지』, 홍천군, 1989.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angwon.kr)

제2편 지명유래 주

1) 임내(任內)는 신라부터 고려, 조선시대 초기까지 운영되던 지방행정단위와 특수행정구역으로 속현(屬縣)·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역(驛)·진(津)·사(社)를 통칭하던 용어이다. 호장(戶長)이 다스리고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이다. 장·처는 왕실·궁원·사원·내장택에 속한 특수한 장원에 해당하였다. 왕실 등은 장·처에 대해 일정 분량의 수취를 행사하였는데, 장원 단위로서가 아닌 지방 행정 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 고려 시대의 특수한 면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미 고적(古跡)이 되어 있었다는 사이암장(寺伊巖莊)조에 첨부되어 소개되고 있는 장에 대한 설명은 신라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운영된 특수 지방 행정단위의 종류와 성격, 해당 지역민의 신분과 위상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2) 홍천의 고구려 지명인 벌력천현(伐力川縣)의 '伐力'-'綠'은 중세 한국어의 프르다(綠), 伐力 pɐrəkə 綠 噴 파라ᄒᆞ-(綠), 프르- 파랗-, 푸르- 伐 벌(野) 벌, 벌판을 의미하는 푸른 벌판에 힘차게 흐르는 강(江)과 하천(河川)을 표현하여 자연적인 특징을 그 지역의 지명으로 삼았다.

3) 녹효현(綠驍縣): 홍천군의 통일신라시대 옛 이름으로 고구려시대 벌력(伐力: 푸른 벌판을 音借)의 같은 뜻(綠驍·綠繞: 푸른 벌판)의 한자식 신라 지명이다. 출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녹효(綠驍), 녹요현(綠繞縣) 삭주-춘주-녹효현-벌력천현-홍천현. 출전: 『삼국사기(三國史記)』 伐力川停 朔州 綠驍縣 洪川 綠色으로 표기 되었다. 이때 수약주(首若州)를 삭주(朔州)로 고치고 1주, 1소경, 11군, 27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김부식, 「본기 권9 경덕왕」, 『삼국사기』)

4) 태조 23년(940)에 신라의 지명 녹효(綠驍·綠繞)에서 같은 뜻인 '푸르고 넓은 내'를 뜻하는 현재의 지명 홍천(洪川)으로 개명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현종 9년(1018)에는 춘주(春州, 지금의 춘천)와의 영현(領縣)·속현(屬縣), 영속관계(領屬關係)로 예속 재편 시행한 연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1) 진산은 한 마을이나 고을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관아(官衙)의 터, 즉 명당(明堂)인 고을 치소(治所)가 자리한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산(後山)이라고도 하며, 그것을 진호(鎭護)한다 하여 진산, 또는 주산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2) 바우설은 '바위솔'의 방언으로 석화산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소나무가 있어서 장관(壯觀)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판단된다. 즉 소나무를 줄여 솔, 바위+소나무(솔)를 의미하는 '바우설(嵓松, 巖松山, 石松山)'이라는 지명일수도 있겠다는 필자의 현재까지 지명연구와 언어학적인 방언연구의 결과로 하나의 설을 정리하여 후학들이 진일보한 지명유래를 정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필자의 또 하나의 이견(異見)을 정리해본다.

3) '발기봉(發氣峰)'이라는 이름은 현재 정상부에 2009년 KT통신사 시설(지금은 폐쇄) 설치 시 통신전파(通信電波)가 잘 뻗어 나가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한다. 통신시설 설치 기사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정상석을 만들었다.

4) 5월 초순에 전국의 농경지와 인가 주변의 산림에 도래해서 번식하고, 10월까지 국내 농경지, 인가 주변의 산림에서 서식하는 여름철새이다.

5) 맹현(孟峴)이라는 고개가 서울의 종로(현재의 가회동)에도 있었다고 하며, 이 이름의 고개가 그리 험한 고개가 아닌 것처럼, 이곳 맹현봉도 그리 험한 산이 아니다.

6) 횃불을 밝히고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화명현(火明峴), 화명령(火明嶺), 또는 불발재, 불바래기재, 불발현, 불발령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최근에 불당(佛堂)이 있어 지명이 유래했다고 불발현(佛發峴), 불발령(佛發嶺)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 전초전이라 불리는 불발령 사건 때

에는 마을 주민들이 전투하는 국군들의 식사를 전담해서 이 고갯마루까지 지고 왔다고 하고 동학농민항쟁 때는 동학군들도 이 고개를 넘어 최후의 격전지인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로 갔다고 하는 유서 깊은 고갯마루이다.

7) 양수(兩水)는 조항천과 자운천이 만나는 창촌삼거리 합수머리를 말한다.

8) '잣고개'와 '잿골'도 성(城)을 뜻하는 옛말 '잣'과 관련된 지명이다. 일반적으로 성(城)은 산성(山城)과 평성(坪城)이 있다. 산성은 산속에 축성(築城)한다. '재(峙)'와 '고개'는 상통한다. 고개를 뜻하는 한자는 '치(峙)', '현(峴)', '령(嶺)' 등이 있으나 이들의 의미는 각각 다르다. '현(峴)'은 가장 낮은 고개를 일컫는 말이고, '치(峙)'는 상당히 높은 고개를 일컫는다. '령(嶺)'은 태산준령(泰山峻嶺) 같은 매우 큰 산맥의 분수령(分水嶺)을 일컫고, '재'는 산을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 고개를 뜻한다. 하지만 '고개'는 이보다 낮은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는 비탈진 곳이다.

9)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는 우장(雨裝)으로 원래 명칭은 입모(笠帽, 갓모)이며, 우모(雨帽)라고도 한다.

10) 지명설화(地名說話)로 현전(現傳)하지는 않지만, 항간(巷間)에 이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회자(膾炙)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구지가(龜旨歌)와 흡사한 형태의 주술적(呪術的) 시가(詩歌)로 추정된다. 구지가는 가락국(駕洛國)의 추장(酋長)들이 김수로왕(金首露王)을 맞이하기 위해 불렀다는 고대 가요이다.

11) 풍암리 자작고개 유물 유골 출토에 얽힌 일화로 채록에 의하면, 1952년 무렵 초등학생 때 고개를 넘어 학교를 다녔는데, 장마 끝에 표면으로 사람의 해골들이 굴러다녔다. 누군가 해골을 발로 몇 차례 찼는데 '퍼석' 깨지는 것으로 보아 당시로부터 60여 년 전이니 동학농민혁명 시기의 유골이 확실하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시신은 깊이 묻지 않았다. 1975년에 자작고개에 경작하던 밭이 있었는데, 사람의 뼈가 삽과 괭이에 딸려 나왔다. 하지만 한동안 트랙터로 흙을 분쇄하여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1962~1963년 무렵 새마을 운동으로 길을 닦을 때 인골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군 기념탑이 세워졌다.

12)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장락사(長樂寺). 성방사(城方寺) 모두가 홍천현(洪川縣) 팔봉산(八峯山)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3) 지명에서 '실(室)'은 작은 고을 '골(谷)'의 훈(訓)이다. 그러므로 '사(絲), 실(室), 사(沙)'로 음훈(音訓)이 차자(借字)되어 현대어에서도 고을의 '골'은 '실(谷)'과 같이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실(中室)은 중곡(中谷), 중동(中洞)의 같은 의미로 지명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사리의 '사리'는 실[사(絲)]의 원어(原語)로 구불구불하거나 혹은 고랑을 뜻하며, 단위로는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14) 먹뱅이, 먹방이는 '묵방(墨坊)'으로도 불린다. '묵방'은 '먹방'의 '먹'까지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그러나 '먹'은 본래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 '묵(墨)'의 차용어이다. 필자가 지명유래를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먹방'·'먹방골'·'먹방리' 등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먹을 만든 곳'이란 지명유래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15) 설통은 토종벌을 받는 벌통으로 토종벌 유인통을 일컫는 말로 설통을 바위 위에 많이 놓아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바위가 비를 막아주어 벌통을 설치할 경우 토종벌이 잘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3편

민속

제1장 의식주 문화

제2장 통과의례

제3장 세시풍속

제4장 민간신앙

제5장 민속놀이

제6장 생업문화와 생업도구

제1장

의식주 문화

의식주(衣食住), 즉 의복, 음식, 주거공간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춘추시대 제나라 사상가 관중(管仲)의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의식족이지영욕(衣食足而知榮辱)"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다. 즉, 의식주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구성된 생활양식이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홍천 사람들도 자신들이 놓인 환경을 개척하며 생활하였다. 홍천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자연환경이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농사짓기 편리한 곳에 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홍천의 경우 많은 지천을 끼고 있어 강 유역에 크고 작은 들이 형성되었고, 경작하기에 수월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을 개간하여 화전을 일구며 살기도 했다. 산지에 정착해 사는 경우에는 풍부한 목재를 바탕으로 정교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귀틀집을 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지를 개간하였으므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자라는 메밀, 옥수수, 감자 등을 농사지어 먹었으며, 그 외에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도 많이 먹었다. 또한 소나무, 칡, 도토리 등으로 구황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그야말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활을 영위한 것이다. 의복은 대체로 무명옷을 입었고, 삼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삼베옷을 입기도 했다. 그 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산간지역에서는 방한을 위한 의복을 만들어 입고, 눈밭을 걷기 용이하도록 고안된 설피를 만들어 신기도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많이 변모하여 그 흔적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생활을 중심으로 홍천 사람들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생활 문화

여타의 문화현상과 마찬가지로 의생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의복의 기본적인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체온을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자연환경, 또는 외부의 위협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물론 현재 우리가 인지하는 의복의 기능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계급사회가 발생하면서 의복은 지위·계급·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근대사회의 의복은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 발달하게 되었다. 지배층의 복식은 신분과 위엄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발달된 반면, 피지배층의 복식은 노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달된 것이다.

의복이 기능성과 편리성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었다. 신분제 철폐와 산업화를 추구하는 근대화는 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였다. 즉 신분제의 폐지로 말미암아 근대사회에서는 기존의 신분차별 의식에서 비롯된 불편한 전통복장 대신 근대식 복장을 착용하였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의복이 개발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복제개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근대복식 도입에 대한 거센 저항의식은 전통 의복이 단순한 입을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의식과 문화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복식의 도입은 외래문화, 특히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침탈당하는 사건과 맞물리면서 외세·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이후, 조선에는 일본을 통해 들어온 양복과 양장이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반발하여 의복에서도 사치스러운 양장이나 일본 복장을 경고하면서 한복을 개량하여 착용할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1920년 이후 활발한 민족운동과 함께 전개된 여성의 근대 교육운동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신여성'을 등장시켰다. 이 신여성은 주로 외국 유학생들로서, 패션의 선도역할을 하였다. 1907년 일본 동경에서 귀국한 최활란은 팜푸도어(쟁머리) 헤어스타일에 발목 위까지 올라간 짧은 검정 통치마를 입고 귀국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검정 통치마와 짧은 챙머리는 여학생들과 일부 여성 사이에 유행하였으며, '양장미인', '단발미인', '모단 걸(毛斷傑, modern girl)'은 신여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식사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전통적인 속옷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셔츠가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 우리의 속옷류인 친의류(襯衣類)는 차츰 실용가치를 잃고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다. 속적삼은 여성용 셔츠로 대체되었고, 팬티가 등장하자 남자의 속옷이었던 속적삼·속고의와 여성용 속옷인 속속곳과 다리속곳 역시 없어지고 팬티 위에다 단속곳만 입게 되었다. 특히 짧은 치마를 입은 신여성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너른바지·바지를 비롯해서 다리속곳·속속곳·단속곳을 벗어버렸다. 대신 이들은 '사루마다'라는 짧은 무명팬티를 만들어 입었다.

그러자 이에 걸맞게 '어깨허리의 속치마'가 등장하게 되었다. 1920년대 이화학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어깨허리의 속치마는 그 후 조끼허리로 변형되어 속치마뿐 아니라 치마에도 이용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조끼였는데, 조끼는 한·양복 절충의 개량 상의이다. 즉 1920년대 양복의 생활화에 따라 양복조끼를 개량하여 만들어 입게 된 것이 그 효시이다. 전통 한복에는 필요한 물건을 지니고 다닐 호주머니가 없어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에 차곤 했는데, 조끼에는 호주머니가 부착되어 주머니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따라 조끼는 한복의 선을 살리고 양복의 실용성을 가미하여 한복과 양복을 조화시킨 복식의 대표적인 산물로 오늘날까지 자리잡고 있다.

또한 1920년대 장갑이 들어오면서 겨울용 방한구였던 토시가 차츰 가치를 잃고 사라졌으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행전(각반과 비슷한 것)도 그 필요성이 줄어들어 자연히 소멸하였고, 양말이 등장하자 버선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우리 신을 본떠 만든 고무신이 등장하자, 고무신은 갖신·짚신·미투리·나막신 대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신여성 사이에는 고무신 이외에도 '경제화'라 불리던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경향이 부쩍 늘었고, 일부 부유층과 전도부인(傳道婦人)들은 서양식 단화를 신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경제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섬유공업은 군수공업으로 전환되어 군복·낙하산 등을 생산하였고, 사치품 제한령과 직물 배급제가 시행되었다. 일제는 남성들에게 머리를 빡빡 깎고 국방색의 국민복 위에 전투모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여자들에게도 치마를 못 입게 하고 일본여성의 노동복인 '몸빼'라는 바지를 입

게 하였다. 당시 한국여성들은 저고리 밑에 몸빼를 입게 되자, 허리를 가리지 못해 부끄러워했다 한다. 오늘날에도 노동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활동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몸빼를 입는 것은 그때의 유습이라 하겠다.

해방이 되자 일제의 압제에 시달렸던 국민들은 자유의 기쁨에 오랫동안 입지 못했던 치마저고리와 한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따라서 해방 공간의 복식은 한복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곧 미 군정체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입되는 구호물자와 밀수품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밀려든 서양의 문물·생활양식·의상 등을 가장 먼저 수용한 계층은 미군 상대의 접객업소 여성들이었다.

그리하여 양복이 해방 이전에는 제국주의자와 매국노의 상징이었다면, 해방 이후에는 빈민과 접객업소의 여성,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계층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은 급기야 양복에 대해 혐오와 멸시감마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은 과거의 수직적인 왕권사회가 수평적인 평등사회로 전환하는 계기였기에, 과거 신분계급에 의해 제약되었던 복식생활이 평등화되면서 복식은 신분표시의 수단이 아니라 개성과 집단의식의 표현이라는 현대의복의 개념을 차츰 받아들이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질기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옷감은 나일론이었다. 나일론은 질기고 가벼워 젊은 여성들의 블라우스는 물론 속옷에도 두루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낙하산 제작에 사용된 '나일론 66'이라는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남성복은 직물부족으로 군복이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옷감이나 밀수품·구호품 등의 옷감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1950년대 초반의 구호물자는 한복을 양장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1950년대 후반에는 한복과 양장의 착용비율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양복의 착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물론 그것은 양면기 등의 국산화로 메리야스 직물의 보급이 원활해지고, 값싸고 편리한 합성섬유의 대량보급으로 대중복식시대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잘살아보세'를 모토로 하는 '새마을운동', '신생활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재건운동의 일환으로 외국산 의류를 전면 수입 금지시키는 한편, 의복 간소화를 추진하여 남성 복장으로는 작업

복 스타일의 '재건복'을, 여성 복장으로는 '신생활복'을 제시함으로써 양장을 일상복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이후 한복은 의례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천의 의복생활은 위와 같은 한국의 의복생활의 특징과 변천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실 지역적인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다. 전통시대 홍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무명옷과 삼베옷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남자들이 바깥출입을 할 때는 행전을 치고 토시를 끼고 마고자를 입었으며,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중치막 도포를 걸쳤다. 여자는 장옷을 걸쳤다. 그 외 신분에 따라 평민들은 패랭이, 신랑은 초립, 군복에는 주립(朱笠)과 같은 갓(관, 모자)을 착용하기도 했다.

남자의 전통적 옷인 한복에는 고이·적삼·조끼·마고자·두루마기·바지·저고리 등이 있다. 여자의 경우는 치마·저고리·단속곳·적삼 등이 있다. 이외에도 드렁저고리·십자바지·토수·감발 등과 같은 전통의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기억에서만 존재할 뿐 실물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과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천에서도 대체로 집에서 옷을 지어 입었다. 동면 월운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경우 20대 초반이던 1950년대 중후반까지 집에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한다. 주로 만들었던 옷은 미영옷(무명옷)이지만 미영(무명)을 직접 방직한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무명과 광목천을 사다가 옷을 지었다고 한다. 다만 삼의 경우는 농사를 지었으므로 삼베를 만들어 옷을 지었다고 했다. 이러한 풍경 역시 홍천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 '무명'과 '명주'를 짜자, 촛불밑에 베틀은 돈다
>
> 손으로 직물을 짠다는 것은 인간진화 과정의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그 중 특히 이 땅의 직물 수공업은 유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의 가정부인들의 유일한 가공업이었든 것이다. 기계문명이 최고도로 발달을 하게 괴어 시간과 노력을 축소시키고 생산의 큰 혁명을 가져 오게 되자 그 후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든 소위 베틀은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게 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골에 가면 명주 모시 삼베 무명 등을 덜거덩 거리며 추마 밑에 앉아 아낙네들이 짜고 있는 원시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전기사정이 순조롭지 못

> 한 가운데 직물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자 또 다시 베틀이 농촌도시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십세기의 과학문명을 조소하는 듯 파마넨트한 부인들의 가정 부업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요즘은 무명과 명주의 생산이 원시적인 베틀로 돌아가 생산되고 있다는데 이로 생산되는 거시 한 달에 한 틀에서 필필씩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 베틀의 정서적인 그 모양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옛날의 추억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퇴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생산이 된다는 데는 누구 하나 비웃을 사람이 있을까.

위의 인용은 1948년 10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광복을 맞이한 이후인 1940년대 후반에도 가정에서 베틀을 이용해 모시와 삼베 등을 짜는 일이 여전히 존재했으며, 이러한 풍경이 기계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다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홍천에서는 1950년대까지도 집에서 삼베를 짜, 베옷을 지어 입었다는 제보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다.

제보자가 이야기한 베를 짜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삼 농사짓기: 삼씨는 주로 한식 때 부리며 처서 무렵에는 삼을 벤다. 베어낸 삼은 키를 맞추어놓고 나무로 만든 칼로 삼잎을 쳐내 찔 준비를 한다.
- 삼굿하기: 삼굿은 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삼을 찌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동네 밭이 좋은 곳에는 삼을 많이 심었다. 삼을 베서 찔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데 물이 가까운 곳에서 삼을 찐다. 강변에 구덩이를 파고 삼을 세워서 넣는데, 이때 각 집마다 삼을 묶을 때 표시를 해둔다고 한다. 그 위를 흙으로 덮고 아래에는 구들 놓듯이 돌을 깔고 밖에서 불을 때 돌을 달군 후 위에서 구멍을 내고 물을 부으면, 달궈진 돌에서 김이 나며 삼이 삶아진다. 찌고 난 삼을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긴다. 껍질을 집에 갖다 걸어서 말린 후 한 움큼씩 집어서 삼을 삼는다.
- 삼삼기: 삼을 가늘게 찢어서 그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 잇는 과정을 말한다. 삼껍질의 양쪽을 입으로 찢어서 이어 붙인 후 무릎에 비비면 삼껄질이 이어지면서 실이 된다. 한 번에 올려 비비고 내려 비비고 하면 이어져 실이 되는데, 이 실을 함지에 잘 사려놓는다.

● 베나르기: 삼실을 돌갯에 감아 삼 꾸러미를 만든다. 이 삼꾸러미에 잿물을 먹인 다음, 다시 풀어내어 날을 고른다. 왕겨를 태워서 잿불을 피우고 옥수수풀을 쒀서 실을 나른다. 이 실을 베틀에 걸어 베를 짠다.

이렇게 짠 베로 옷을 만들고, 또 베를 무명으로 바꾸어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무명의 경우는 다른 빛깔로 물을 들인 뒤 옷을 지어 입기도 했다. 물을 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 쪽색: 쪽풀을 삶아서 물을 낸 뒤 무명을 담가두면 쪽빛으로 물이 든다.

● 검정색: 검정색은 신당낭그(신당나무)잎을 따서 버섭(보습) 망가진 것과 함께 담가두면 까만 물이 드는데 아주 까맣지는 않고 칙칙한 색이 들게 된다.

● 주황색: 주황색은 황토로도 물을 들이는데, 황토를 퍼다 우선 맷돌에 간 뒤 체로 쳐서 고운 흙만을 모은다. 그 흙에 물을 타 웃물을 버리고 황토를 걸쭉하게 만들어 이것으로 물을 들인다.

그 외에 포도 껍질로도 옷감에 물을 들이기도 했다. 포도 껍질을 푹 고와 그 물을 식혀 이 물에 광목을 하루 종일 담가 두었다가 꺼내 똑바로 펴서 말린다. 다 마른 광목을 물에 담갔다 말리기를 반복하면 그러면 색이 뭉치지 않고 곱게 든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물감이나 염색약을 사다가 색을 들였다고 한다.

홍천 사람들이 마련한 옷감을 활용해 만들어 입었던 전통적 의류는 다음과 같다.

● 우치: 한복의 저고리에 해당하는 웃옷이다.

● 회장저고리: 소매 끝 곁마기 동정 밑에 자주색 깃을 달고 자주색 고름을 늘이는 것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부인들에게만 통용되었다. 과부에 있어서는 아무리 청상이라도 회장저고리는 입지 않았고, 자주고름을 매는 것도 금기로 알았다.

● 드렁저고리: 남녀 어린이들이 입었고, 양반과 서민층 모두 입을 수 있었다. 이 저고리는 돌띠로 둘러매는데, 소매는 색동으로 되어 있고, 깃과 돌띠는 모두 다른 색으로 만들었다.

● 겹저고리: 추운 겨울날에 입던 옷으로서 속에는 솜을 넣어 방한용으로 입었다.

● 누비저고리: 안에 솜을 넣어 누볐으며, 봄과 가을에 많이 입었다.

● 치마: 여성의 옷인 치마는 미혼녀는 다홍치마를, 기혼녀는 주로 남색치마를 입었다.

다홍색은 불을 상징하는데, 자손과 가운이 왕성하리라는 뜻이다. 노란색은 흙을 상징하는데, 만물이 생성한다는 뜻이다. 자주색은 부귀를 누리라는 뜻이다.

- 항아리치마 시루: 통치마를 일컫는다. 멋쟁이들은 치맛단을 넓게 하여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고 하며, 보통은 단을 좁게 박아 입었다. 주로 부유층에서 입었고, 주로 검정색으로서 무릎 아래까지 오며 주름이 많았다.
- 장옷 천의: 여자들이 외출 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머리에서부터 쓴 옷이다. 이는 남녀칠세부동석에서 연유한 것이다.
- 바지: 바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복장이며, 외양으로 보아 웃옷을 받치는 역할에서 '받치'가 '바지'로 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 홑바지: 끝을 달았고, 앞뒤 모양을 같게 하여 밑은 꿰매지 않고 터진 부분을 접어서 입었다. 또 허리끈을 어깨 위로 넘겨서 매기도 하였다.
- 단속곳: 바지가 치마 속으로 들어가 고쟁이가 된 듯하고, 바지통이 굉장히 넓고 얇은 천으로 주로 만들어 시원했다. 길이는 버선목까지 왔고, 속치마와 비슷한 용도로 쓰였던 바지의 일종이다.
- 솜바지: 방한용으로 추운 날에 입었다.
- 십자바지: 어린이용으로 바지통이 좁고, 현재의 바지와 모양은 비슷하다.
- 도포: 도포는 예복으로 입었으며, 지금도 서원·향교 등의 예식이나 관혼상제 때 입는다. 남자가 장가갈 때 도포를 만들어 입었다.
- 토수: 천을 팔에 알맞게 잘라 솜을 속에 넣은 후 꿰매어 팔목과 팔뚝에 단을 달았다. 장가갈 때도 춘추 겸용으로 털솜(겨울용)을 넣어서 사용하였다. 토수는 내의가 없었던 예전에 한복의 소매통이 넓어서 추운 겨울 바람이 들어오므로 그것을 막아주는 것으로도 사용하였다.
- 감발: 무명을 길게(3치 4자 정도) 잘라 만드는데, 산이나 들로 일하러 갈 때 바지 밑으로 발과 발목을 감는 것으로 쓰였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뱀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며, 깊은 숲속을 다닐 때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로 흰색과 회색 계통으로 가장자리에는 선을 두르기도 하였다.
- 복건: 머리에 쓰는 것의 일종으로 검정색 갑사로 길이를 귀와 거의 같이 하여 드림을 등 뒤로 보내어 머리에 쓰고 끈을 뒤통수에 매게 했다. 양반들이 많이 썼으나 지금은 보기가 어렵다. 근래에는 금은박으로 장식하여 한 살 난 어린아이들의 돌빔으

로 사용되고 있다.

- 남바위: 방한을 위한 것으로 머리에 쓰며, 앞은 머리와 이마를 덮을 정도이고, 뒤는 기렉 만들어져서 목까지 덮는다. 부인용으로는 '조바위'가 있다.
- 버선: 남녀의 모양이 비슷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는 꼭 신어야 한다. 강원지방의 버선코는 대체로 낮았다. 또 결혼할 때 신부가 코 주위에 예쁜 수를 놓아 가지고 왔다.

의복에는 신발도 포함된다. 요즘이야 신발가게에서 사 신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과거에는 신발도 직접 삼아서 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신: 짚신(草履)·나막신(木履)·미투리(麻鞋) 등과 같이 짚·나무·삼 등으로 만든 신을 신었다. 이외에도 천으로 엮어 만든 신이 있었는데, 비단으로 수를 놓거나 예쁜 선을 둘렀다. 또 젖은 땅에는 가죽신을 신었는데 신바닥에 징을 박았다.

  여성용 짚신의 경우는 앞에 코를 넣는 등 모양을 예쁘게 만들었다. 싸리가지로 신을 삼는 경우에는 싸리나무 껍데기를 그대로 까맣게 두기도 하고, 껍데기를 벗겨 하얗게 된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두 재료를 교대로 짜면 모양이 더 예뻤다고 한다.
- 살피: 눈이 쌓인 곳을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 신발이다. 다래덩굴을 타원형으로 구부린 뒤 열십자(十)로 엮어 묶어 만든다. 묶을 때는 삼이나 피나무 껍질을 꼬아서 끈으로 사용한다. 완성된 설피의 가운데 신발을 두고 단단히 묶어 착용한다. 설피의 크기는 사방 한 자가량 되는데 그 크기 때문에 걷는 것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 그렇지만 눈에 발이 빠지지 않으므로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꼭 필요했다고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착용하며, 특히 토끼나 노루 등을 사냥하러 갈 때 착용했다고 한다.

홍천 사람들이 옷과 신발을 손수 지어 입고 신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옷을 만드는 옷가게가 활성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옷을 구입해 입는 방향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활동이 세탁, 즉 빨래이다. 홍천의 많은 여인들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마을을 흐르는 개울에 가서 빨래를 했다고

한다. 겨울에 빨래를 하면 손이 아리고 터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특별한 세제가 없었으므로 찌든 빨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잿물이었다. 잿물을 메밀재로 만든다. 메밀짚을 태워 얻은 재를 베보자기에 옮겨 시루에 앉힌 뒤 물을 부어 내리면 미끈미끈한 잿물이 모아진다. 이렇게 만든 잿물에 빨랫감을 담갔다가 손이 벗겨지도록 문지른 뒤 물로 헹궈 빤 뒤에 남겨두었던 잿물로 다시 삶아내면 찌든 때도 말끔하게 빠진다고 한다. 잿물을 만드는 재료는 볏짚을 태운 이짚재(이재)가 가장 좋지만 논이 적어 이짚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흔한 메밀짚으로 잿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월경대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소변을 이용하기도 했다. 월경대를 소변에 담가 두었다가 빨래를 하면 그냥 빠는 것보다는 잘 지워졌지만 말끔하게 지지 않아 잿물로 삶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현재 홍천 사람들이 입는 옷은 대체로 양장 기성복이다. 전통사회의 의복생활과 견주었을 때 두 가지 양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먼저 지어 입던 옷을 구입하여 입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가내수공업으로 제작 → 맞춤옷 구입 → 기성복 구입의 단계를 거친다. 다음의 변화는 한복에서 양장으로의 변화이다. 양장의 경우는 직접 제작해 입는 경우는 없고 양장점에서 맞춤옷을 구입하다가 기성복을 구입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언제부터 홍천 사람들이 옷을 맞춤옷을 입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현재 홍천읍에서 가장 오래된 포목·한복집으로 알려진 ○○상회가 개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8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전에도 한복을 맞춰 입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 맞춤옷을 지을 때에는 바느질을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꿰매는 일을 '혼다'고 한다. 이후에는 미싱(재봉틀)으로 바느질을 대신했다.

○○상회가 처음 개업했을 무렵에는 여성의 저고리가 짧은 형태였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양상이 유지되다가 1980년대부터는 다시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한복의 유행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한복을 맞춰 입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때에 한복을 입지만 일회성으로 빌려 입는 것에 머물 뿐이다.

우리나라에 양장은 일제강점기 이후 활발하게 유입되었는데, 홍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양장을 입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회를 운영하는 제

보자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한복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면서 생활복으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초기에 양장 문화의 향유는 맞춤옷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홍천읍에서 양장점을 운영했었고, 현재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맞춤 양장을 많이 입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5년 무렵을 기점으로 맞춤옷보다는 기성복 중심으로 의복 향유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류에서는 반도패션, 논노패션 등의 기성복 브랜드가 떠오르면서 맞춤옷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2. 식생활 문화

식생활은 주변의 환경,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홍천군은 대체로 내륙 산간지형에 속하며 농사를 주된 산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농촌에서 주로 나는 감자·메밀·강냉이·도토리 등을 주식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 식품들은 평상시에는 주식이면서 동시에 향토의 별미로서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이 음식들이 담백하여 현대인의 성인병을 예방하여 주는 음식이라 해서 타 지역 사람들도 선호하는 음식이 되었다.

홍천의 향토음식, 장, 김장, 구황식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1) 막국수

홍천군을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 메밀을 많이 재배해왔다.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화전을 3~4년 하고 밭이 척박해지면 메밀씨를 뿌렸다. 메밀을 활용한 대표적인 음식이 막국수이다. 통칭 '춘천 막국수'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홍천에서도 막국수를 많이 먹었다. 막국수는 만들려면 우선 메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을 반죽하여 국수틀에다 눌러 국수를 만든다. 눌러 뺀 국수를 끓는 물에 삶아서 냉수에 서너 번 헹구어 사리를 만든다. 사리를 대접에 담고 김칫국물을 부어 먹는다.

(2) 총떡(촌떡)

총떡은 메밀로 부치기를 하여 갓김치 등을 속에다 넣고 말아서 먹는 메밀떡(전)이다.메밀떡은 메밀을 맷돌에 갈아 체에 밭쳐서 물에 가라앉힌다. 갓김치는 꼭 짜서 양념에 무친다. 채에 밭친 메밀을 조금씩 떠서 얇게 전(煎)을 부쳐서 김치소를 돌돌 말아 어슷어슷하게 썰어 간장에 찍어 먹는다.

(3) 감자떡

강원도의 감자는 분이 많고 질척거리지 않아서 맛이 좋다. 감자를 그대로 쪄서 먹기도 하지만 가공해서 먹기도 한다. 강판에 갈아서 전으로 부쳐 먹는 감자전이 있고, 또 감자를 수제비와 떡을 해 먹는다. 감자떡은 감자가루를 더운 물로 말랑말랑하게 반죽한다. 소는 강낭콩을 삶아내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큰 밤톨만큼씩 빚은 소를 넣어 손자국을 내어 찌면 속이 거무스름하고 투명한 떡이 된다.

(4) 감자전

요즈음 관광명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감자전은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인기가 있다. 감자전을 만들려면 먼저 감자의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물기를 짜서 앙금을 받아 간 감자에 섞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그리고 간 감자를 프라이팬에다 둥그렇게 지지면서 파와 고추를 얹어 노릇하게 지져낸다. 그것을 초간장에 찍어서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다. 이때 고추는 씨를 빼내어 동글동글하게 썰고, 파는 5cm로 썬다.

(5) 감자수제비

감자로 수제비를 만들려면 먼저 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서

보자기에 꼭 짠다. 그리고 찌끼는 따로 두고 감자물은 한편에 놓아두어 녹말을 가라앉힌다. 녹말이 가라앉으면 윗물은 가만히 따라내고 따로 두었던 감자 찌끼와 녹말을 고루 잘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직경 2.5mm 정도의 완자로 빚는다. 한편 통감자를 얄팍하게 나박김치 모양으로 썰어 물에 넣고 끓이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감자가 잘 익게 끓으면 준비한 완자를 넣고 호박도 채로 썰어 같이 넣고 다시 한동안 더 끓여 완자가 익어서 떠오르면 대접에 담아내어 먹는다.

(6) 올챙이묵(옥수수묵)·올챙이국수

풋옥수수 알맹이를 따서 맷돌에 곱게 간 다음 솥에 넣고 끓인다. 어느 정도 죽처럼 끓었을 때 올챙이묵틀에다 부으면 올챙이처럼 생긴 국수가 아래로 떨어진다. 이때 찬물에 떨구어야 국수 모양이 흩어지지 않는다. 찬물에 응고된 국수를 건져 참기름과 양념을 넣어 먹는다. 이 국수는 다른 원료의 국수보다 담백하고 고소하며 맛이 좋다.

국수틀은 대개 바가지에다 구멍을 뚫어 사용한다. 또 판자로 사각형틀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7) 도토리묵

홍천에는 굴암(도토리) 나무도 많다. 산에서 채취한 굴암의 겉껍질을 벗겨 여러 날 동안 물에 담가서 떫은맛이 없어지도록 한 뒤 갈아서 응고시켜 묵을 만들어 먹는다. 묵을 만들려면 우선 물에다 우린 도토리나 상수리를 절구에 찧어 앙금을 만든다. 묵을 쑬 때는 펄펄 끓는 물에 도토리 가루를 부어 빨리 젓는다. 묵이 엉기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끓인다. 뜸을 들인 후 그릇에 퍼내어 식히면 윤택이 나고 단단하게 굳는다. 묵을 채로 쳐서 양념장을 살살 섞고 김치를 송송 썰어 넣어 무치는데, 이때 깨소금과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굵은 막고춧가루를 넣으면 좋다.

(8) 옥수수술

옥수수를 물에 담가 불린 후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면 달콤한 술이 된다.

2) 장 담그기

장을 담그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메주이다. 메주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콩을 씻어서 가마에 안치고 푹 삶는다. 식지 않게 불을 때면서 두면 처음에 하얗던 콩이 빨개진다. 콩은 하루 종일 삶아야 한다. 그런 후 건져서 방앗간에서 찧은 후 메주테에 보자기를 펴고 콩 찧은 것을 담은 후 덮고 발로 밟아서 테에 꽉 차게 한다. 덜어내서 짚끈으로 묶어 달아맨다.

메주를 겨우내 뜨뜻한 방에 띄웠다가 정월에 간장을 담근다. 먼저 겨우내 메주에 먼지가 묻었으니 겉을 깨끗이 씻는다. 간장을 만들 때는 메주 서너 장에서 다섯 장 정도 깨서 소금물에 풀어 동우(동이)에 넣는다. 한 동이에 소금 서너 되를 넣으면 양이 적당하다. 여기에 대추, 숯, 고추도 넣는다. 정월에 담갔으니 3월 보름이나 그믐 쯤 건져서 물을 가마에 넣고 달이면 간장이 된다.

간장을 만들고 나면 된장을 만들 차례다. 간장을 우려낸 메주를 무거리라고 하는데, 무거리를 주물러두면 된장이 된다. 동면은 무거리에 소금과 고춧가루, 보리밥 등을 섞어 버무려 막장을 만들기도 한다.

고추장은 우선 콩으로 청국장을 띄어가지고 말린다. 말린 청국장에 메주가루, 고춧가루, 찹쌀가루로 쑨 죽, 조청 등을 섞어 넣는다. 고추는 덜 익은 고추를 뿌리째 뽑아두어 익힌 고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아리에 담아두면 고추장이 된다.

홍천에는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장은 꼭 담근다'는 말이 있다. 이는 콩이 풍부하게 생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내면에서는 아주 배고팠던 시절에 고추장, 된장을 한 숟갈 푼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장을 활용한 장아찌도 많이 담가 먹었다고 한다. 무장아찌는 오래된 막장이나 된장에 무를 넣은 후 동이째 땅에 묻어 만들어 먹었다.

3) 김장하기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이다. 겨우내 김치를 먹기 위해서 김장을 담근다. 강원도에서 특색이 있는 김장을 담그는 곳은 영동지방이다.

배추김치에 소(속)를 넣는 것은 중부지역과 꼭 같으나 무·배·갓·생파·마늘·고

추·생오징어채 및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태살을 새우젓국으로 버무려 간을 맞추고 국물은 멸치젓을 달여 받쳐서 넣는다. 배추는 소를 넣기 전에 멸치국물에 새우젓국은 탄 국물에 적셔내 소를 넣는다. 그리고 무쪽을 큼직큼직하게 썰어 고춧가루와 양념으로 버무려 켜켜로 반드시 넣고 생태머리와 나머지 뼈도 집어넣어 두면 김칫국도 맛있고 생태머리의 맛도 각별하다. 뼈를 넣는 것은 뼈에 칼슘이 많고 또 젖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중요하다.

때로는 평범한 것이 특징이 될 수도 있다. 영서지방에 속한 홍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김장을 담그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내촌면 광암리에서 조사한 김장 담그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김장은 입동 전이나 입동 지나서 한다. 배추의 떡잎은 버리고 배추가 통이 크면 반을 쪼개서 소금물에 절인다. 배추 통이 클 경우는 잘 안 절여지니까 갈피마다 소금을 약간씩 넣어야 한다. 하루 저녁 정도 두면 절여지고 건져내어 물을 뺀다. 양념은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새우젓, 파, 갓, 무채 등을 넣어 만든다. 이 양념을 배추에 차근차근 묻혀서 김장을 담근다.

이는 배추를 소금에 절였다가 무채, 파, 마늘, 고춧가루, 새우젓 등을 넣고 버무린 속으로 양념해서 김치를 담근다는 동면 월운리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독특한 김치 담그기 형태도 존재한다. 서석면 청량리에서 조사한 덤벙김치가 그것인데 만드는 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고춧가루, 파, 마늘 등을 넣은 물에 적셔서 김치를 담근다. 양념물에 덤벙 담근다고 해서 덤벙김치라고 하는데, 양념 구하기가 힘들었던 환경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4) 구황식품

깊은 산촌에서 사는 강원도 화전민은 옥수수와 감자가 주식인데 식량이 모자라거나 흉년이 들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먹고 살았다. 그때는 주로 쑥을 비롯한 고사리·버섯·칡 등을 먹거리로 삼아 연명하였는데, 구황(救荒)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도라지: 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도라지의 껍질을 벗겨서 씻어 삶은 다음에 먹거나, 말려서 가루를 내어 밥에 섞어 먹는다.
- 고사리: 습기가 많은 음지에 나는 고사리를 깨끗이 씻어서 살짝 데쳐 반찬으로 식용한다. 또 깨끗이 씻어 바짝 말려서 저장해 두었다가 먹을 때에는 물에 불린 후에 삶아서 조미하여 반찬으로 먹는다.
- 둥글레: 건조한 비탈에서 자생하는데, 씻어서 건조시키거나 삶아서 콩가루에 섞어 주식 대용으로 하기도 하고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을 밥에 섞어 먹는다.
- 송피(松皮): 산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의 껍질인 송피를 벗겨 삶아서 곡식 가루에 버무려 떡을 만들어 주식 대신 먹는다.
- 버섯: 습지의 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을 따다가 물에 불린 후에 깨끗이 씻어서 삶은 다음 양념장을 하여 부식으로 먹는다. 또 말렸다가 먹을 때는 물에 불려서 조리하여 먹는다.
- 달래: 달래를 따서 깨끗이 씻어 양념장으로 조미하여 부식으로 먹는다.
- 참나물: 높은 산의 습지에서 자라는 참나물을 뜯어다가 조미하여 부식으로 먹는다.
- 더덕: 활엽수림의 습지에 나는 더덕을 캐서 껍질을 벗기고 양념장을 발라 구워 먹거나, 삶아서 건조시켜 가루를 내어 밥에 섞어 먹는다.
- 두릅: 악귀를 물리치고자 그 가시를 문설주 위에 걸어두었던 엄나무의 연한 새순이 두릅이다. 봄철에 따다가 펄펄 끓는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다. 또 굵게 채로 썰어 들깨즙에 강냉이가루를 섞어 지짐이를 해먹는다.
- 칡: 비교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칡은 산지에 많다. 뿌리를 캐다가 전분을 내어 먹는다. 또 약간 삶은 칡잎으로 맷돌에 간 풋옥수수의 가루를 싸서 먹는데, 이것을 칡떡이라고 한다.
- 보리죽: 보리를 맷돌에 타갠 뒤 죽을 쑤어 먹는다. 보리쌀 한 되로 밥을 지으면 한 끼 밖에 먹지 못하지만 죽을 쑤면 사흘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나물죽: 보리죽을 쑬 때 질경이 나물을 뜯어다가 삶아 썰어 넣고 끓이면 나물죽이 된다.
- 푸러국: 밀을 껍질째 맷돌에 갈아낸 뒤 물을 붓고 저으면 붕실붕실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을 끓는 물에 넣어 끓이는 것이 푸러국이다.
- 멀국: 옥수수를 맷돌에 갈아낸 뒤 썬 배춧잎과 함께 끓이다가 된장을 풀어 더 끓인다.

그러면 걸죽하게 죽처럼 되는데 이를 멀죽이라고 부른다. 멀죽은 후루룩 마신다.

- 장물: 고추장이나 된장을 물에 풀어서 마시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도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다.
- 뜯어국: 옥수수 알을 맷돌에 갈아낸다. 이것을 주걱으로 떠서 소금을 넣고 끓인 물에 뚝뚝 떼어 넣고 끓이면 옥수수 뜯어국이 된다.
- 칡떡: 옥수수 알을 맷돌에 갈아낸다. 이것을 칡잎으로 감싸서 쪄내면 떡이 되는데 이를 칡떡이라고 부른다.
- 도토리 쥐대기(묵거리): 도토리의 겉껍질을 까고 나서 삶는다. 용수를 이용해서 끓는 물에 도토리를 우려낸다. 열두 번을 우려내야 도토리의 떫은맛이 사라진다고 한다. 마지막 우릴 때는 도토리를 재친다. 물이 완전히 쫄면 도토리를 함지에 옮겨 담은 뒤 다듬이 방망이나 홍두깨로 두드린다. 이렇게 도토리를 찧은 뒤 사카린이나 당원을 섞어 버무린다. 이 가루를 손으로 꼭 쥐었다가 먹는 음식이 도토리 쥐대기이다. 또는 도토리 묵거리라고도 했다. 도토리 쥐대기는 여느 음식보다 포만감이 오래간다고 한다.
- 송기죽: 송기 겉껍데기를 벗겨내면 속껍질이 일어난다. 이것을 채취해서는 뽕나무 잿물로 삶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송기껍질이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것을 넓적한 바위에 널어서 두드려 체에 빤다. 이렇게 되면 송기껍질이 매우 부드러워지는데 여기에 쌀을 더해서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 당원 아이스께끼: 당원을 대접에 받은 물에 녹인 뒤 얼려서 먹으면서 아이스께끼라고 했다. 당원은 달다 못해 쓴 맛이 나기도 했는데, 요즘은 나오지 않는다.
- 옥수수 범벅: 찰옥수수를 맷돌에 갈아서 껍질을 벗긴 다음 팥, 강낭콩 등과 함께 끓여서 먹는다. 이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부른다.
- 난티나무 국수: 난티나무는 느릅나무과의 나무로 잎이 제비꼬리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다. 난티나무 껍질로 구황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난티나무의 껍질을 벗겨내 겉껍질은 버리고 중간껍질을 취한다. 난티나무의 껍질을 말려 가루를 낸 뒤 맷돌에 간 멧옥수수 가루와 섞는다. 이때 옥수수가루와 난티나무 가루의 비율은 10:1로 한다. 이렇게 섞은 가루를 반죽하여 메밀국수 틀에 눌러서 국수를 뺀다. 국수를 시레기 장국에 넣어 칼국수처럼 끓여먹는데, 맛이 굽수하다(구수하다)고 한다. 난티나무는 고산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또 개난

티나무와 참난티나무가 있는데, 참난티나무 껍질만 국수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개난티나무로 국수를 만들면 국수가 '히매가리(매가리)'가 없어 끊어져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이 음식은 홍천에서도 내면에서만 조사되었다.

- 메밀국수: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 시래기 장국에 넣어 끓여 먹는다. 메밀국수는 찰기가 없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 조구대가리탕: 조구대가리탕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홍천에서는 조기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생선인 조기의 살을 발라먹고 남은 뼈와 머리를 쪼아서(다져서) 무와 뚜가리(뚝배기)에 넣고 끓인다. 물은 자작자작한 정도로 넣어서 끓여 먹는데, 물을 넣어서 두세 번 더 끓여 먹는다.

3. 주거 문화

오늘날 강원도 주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도시의 가옥과 농촌의 가옥이 그것이다. 도시의 가옥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단독주택은 양옥이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형태이다. 농촌의 가옥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새마을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변형되었는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한 집도 있으나 대부분은 지붕만 기와나 슬레이트로 바꾸었다. 그래서 초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옥의 평면구조나 공간구조는 거의 변화가 없다.

강원도 산간의 농가주택은 평면구조상 一자형 집이 많다. 一자형에는 홑一자형과 겹一자형 집이 있는데, 산간마을에는 대부분 홑一자형 집이 많다. 그러나 평야가 있는 곳으로 나오면 ㄱ자형이 많고 ㄷ자와 ㅁ자형 집도 더러 있다.

가옥의 주재료는 나무와 흙이다. 난방은 온돌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토상(土床)의 봉당을 대청이나 온돌로 개조하고 있지만 전통적 구조는 토상과 온돌과 대청(高床)이 상합하여 있다. 나무와 흙은 자연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요, 온돌은 추운 북부지역에서 발달하고 대청은 따뜻한 남부에서 발달하였다.

벽은 중간에 수수깡으로 '외'를 엮고, 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흙을 발라 만들었다. 또 천장에 '고무'를 누르기도 하였다. 고무라는 것은 천정에도 바람벽과 같이 나뭇가

지를 놓고 그곳을 흙으로 싸바른 것을 말한다. 고무를 누르면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으니,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건축에 있어서 단열재 역할에 해당한다.

강원도는 나무가 많으므로 너와집, 굴피집과 같이 나무를 재료로 쓴 집이 많다. 참나무로 울타리를 한 집도 많다. 돌이 흔하기에 석축을 많이 이용한다.

집은 대체로 기단이 높다. 부엌은 넓고, 봉당과 연결되어 있어서 추울 때 부엌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외양간이 부엌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맹수와 추위에 노출된 가축을 보호하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강원도의 전통가옥들은 추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 지붕의 높이가 낮으며, 너와집이나 굴피집이라도 맞배지붕이나 우진각보다는 팔작지붕이 많다. 방 안의 한쪽 벽면에는 관솔을 태워 조명하기 위해 벽난로와 비슷한 형태의 코쿨이 있다.

홍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가옥은 다음과 같다.

1) 귀틀집

귀틀집은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쌓아올려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너와·굴피·화피 등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한다. 1920년대 이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귀틀집은 화전경작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널리 분포하는 가옥의 하나이다. 귀틀을 짜는 통나무는 지름 15~25㎝ 정도의 것을 많이 사용한다. 통나무의 양끝에 홈을 내어 접합한다. 하나는 위턱을 내고 또 하나는 아래턱을 만들어서 덮어 끼웠을 때 十자 모양으로 결구(結構)된다. 이것을 엎을장·받을장의 왕지짜기라 부른다.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결구하면 벽체는 정자형으로 구성된다. 통나무는 울퉁불퉁하여 상하 재목이 틈새 없이 밀착되지 못하므로 통나무 사이의 틈을 진흙으로 안팎에서 메워 바람을 막는다. 통나무의 벽을 알맞게 장방형으로 잘라내어 통나무로 문얼굴을 만들고 형으로 대나무나 시누대 등을 얽어 만든 외짝여닫이를 단다.

방 두 개를 달아서 만들 때의 사잇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간벽은 나무들의 틈을 진흙으로 메워서 흙벽처럼 만들지만 때로는 메우지 않고 두어 나무틈 사이로 서로 들여다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귀틀집의 구성은 방 두 칸과 부엌 한 칸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집, 또는 세 칸에서





홍천군 내면 창촌리 귀틀집(좌)과 귀틀집 일부분(우)

부엌의 끝 쪽에 가축의 우리를 달아낸 것 등의 평면형식이 가장 흔하다. 분포지역이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소규모에서부터 규모가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홍천의 산간지역에 분포했던 집은 이와 같은 귀틀집이었다. 현재 대부분 가옥이 개량했거나 헐려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위의 사진은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서 확인되는 귀틀집이다. 벽과 지붕에서 개량의 흔적이 보이지만, 나무를 쌓아 귀를 맞추어 짠 모양이 확인된다. 현재 이 귀틀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 독가촌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주거 형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가촌이다. 독가촌은 정부에서 주거정책으로 형성된 마을의 하나이다. 주로 한국전쟁 이후에 마련되는데, 형성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화전정리를 하면서 화전민에게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 근처로 내려와 정착하도록 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화전은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목 및 지피식생을 제거한 그 적지에 무시비 경종법에 의해 수년간 작물을 재배한 다음 지력이 쇠퇴하면 다른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속되는 화전경작은 산림을 황폐화하고 또 풍수해에 지반이 취약한 형태가 된다. 이를 방지하고 산업발전의 기반으로서 산림자원 조성과 자연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소한동 독가촌(좌)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우)

둘째, 화전경작민(火田耕作民)의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화전경작민은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유동농민으로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북에서 내려오는 공비들로 인해서 화전민들의 안전이 위협되었으므로 이들을 한곳에 모여 살도록 한 것이다. 또 화전민들이 이주를 하며 남겨둔 가옥들이 공비의 은신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 가옥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독가촌은 가옥 형태가 동일한 연립주택이다. 하나의 부엌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방을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다락방이 딸려 있는 형태이다. 화장실은 별도로 존재한다. 벽은 시멘트블록을 한 겹으로 쌓았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를 올렸다.

처음 독가촌이 형성될 때 입주했던 주민들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전체적인 가옥의 구조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붕을 바꾸고 구조물을 덧붙이는 식으로 개량이 이루어졌다.

3) 풍암리 고택

풍암리 고택은 예부터 부유한 고장으로 불리던 서석면의 부호 엄근호가 1903년 건축하고 45년간 살았던 가옥이다.

一자 형태인 안채와 ㄴ자 형태인 사랑채가 조합하여 튼 ㅁ자 배치를 취하고 있는 목조 가옥으로 원래 지붕은 초가였으나, 1970년대 슬레이트와 함석으로 바꾸었다가 2004년에 함석과 기와로 교체되었다.





공사 중인 풍암리 고택(좌)과 안채(우)

안채는 2단의 자연석을 쌓은 기단에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로 된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는데 1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둥이 튼튼하고 고가의 위풍이 당당하다. 대청마루의 양옆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하고 있는데 마룻바닥의 결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대청마루에는 여덟 쪽 창문을 설치해서 겨울에는 보온이 잘되고 여름에는 완전히 떼어서 가로로 처마 밑에 걸어두고, 통풍이 잘되어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조상들의 삶의 지혜도 엿볼 수 있었다. 안방에서 이어진 부엌과 광이 붙어 있는데 부엌 하단에는 좁은 유리가 가로로 길게 끼어 있어 부엌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채는 전면에 툇간 마루가 있는 2칸 사랑방과 사랑채 부엌으로 구성되고 부엌에서 직각으로 대문간, 광(곳간)이 있다. 원래는 마구간도 있었는데 현재는 광으로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다. 대문은 목재로 만든 전통 양식의 양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자물쇠도 없던 시절에 늘 사용하는 주인들만 열 수 있도록 한 잠금장치가 특징적이다. 출입 대문을 안채와 사랑채에 각각 따로 두어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그 생활양식으로 미루어 보아 부유층임을 증명하는 듯하다.

이 가옥은 영서 및 중부지방의 중류층 전통민가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9호로 지정되었다.

제2장

통과의례

통과의례(通過儀禮)는 다른 말로 일생의례(一生儀禮)라고 한다. 통과의례는 주로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대상으로 하나, 일생의례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죽은 이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통과의례 또는 일생의례는 우리 민속 가운데서 형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인 의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뚜렷하게 행해지고 있다. 일생의례에는 출생을 다루는 출산의례인 산속(産俗), 아이를 기르는 풍속인 육아속(育兒俗), 성인식과 관련된 관례(冠禮)와 계례(笄禮), 혼인과 관련된 혼례(婚禮),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장례(喪葬禮) 또는 상례(喪禮), 죽은 이를 추모하는 제사의식과 관련된 제례(祭禮)가 속한다. 물론 제례 후에도 영혼결혼식(靈魂結婚式)과 같은 사후의 의식들이 있다.

이런 일생의례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중에 가장 오래도록 일정한 틀을 형성하면서 유지되어 온 일생의례 풍속은 조선조시대였다. 이 시대는 유학(儒學) 또는 유교(儒敎)라는 학풍 내지는 종교적인 풍속이 지배해왔다. 이 때문에 예송논쟁(禮訟論爭)이 있을 정도로 의식에 대해 각별했다. 유성룡(柳成龍)의 『상례고증(喪禮考證)』, 신의경(申義慶)의 『상례비요(喪禮備要)』, 정약용(丁若鏞)의 『상례사전(喪禮四箋)』, 김정주(金鼎住)의 『상례편람(喪禮便覽)』, 이재(李縡, 1680~1746)의 증손이 간행한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일생의례 관련 책들이 나온 것은 시대마다 의례가 바뀌었고, 각자가 생각하는 의례와 지역마다 치러지는 의례가 다 다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집집이 다르고, 종교별로도 달랐다. 그래서 가가례(家家禮)라는 표현을 썼다. 오죽하면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 천리부동속(千里不同俗)'이라 하여 백 리나 천 리만 지나면 같은 풍속이 없다고 했겠는가.

홍천의 일생의례도 시대적 변화와 지역 간의 다름에는 예외일 수 없다. 홍천은 우리나라에서 가

장 면적이 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길게 동서로 뻗어 있다. 그러다 보니 인접 시군도 여러 지역이다. 특히 일생의례는 지역 간의 넘나듦이 많다. 혼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접지역과 혼로(婚路)가 맺어진 경우가 많았다. 인접지역과 혼인이 맺어질 때는 어느 한 지역의 의례만 고집할 수 없었다. 그렇게 풍속은 바뀌어갔다. 이처럼 홍천의 일생의례는 홍천 고유의 풍속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슷한 경우도 많다. 본 장은 이런 변화와 다름을 수용하면서 옛 문헌과 홍천군내에서 채록한 자료를 중심으로 집필했음을 밝혀둔다.

1. 산속과 육속

1) 산속(産俗)

산속은 출산의례(出産儀禮)이다.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낳기를 기원하는 의례가 행해졌다. 아이를 가졌을 때와 출산을 할 때도 여러 금기를 지키면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함께 기원하며 의례를 행했다. 사람이 맘먹은 대로 출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에 의탁하기도 하고, 여러 금기(禁忌)와 속신(俗信)도 행해지게 되었다. 이런 행위가 일생의례 중 가장 먼저 행해지는 출산의례이다. 출산에 얽힌 의례는 전국에 걸쳐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홍천의 경우는 종교적인 경우도 있지만, 산과 강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홍천 특유의 산속도 볼 수 있다.

(1) 기자풍속(祈子風俗)

기자풍속은 달리 기자속(祈子俗) 또는 기자신앙(祈子信仰)이라 한다. 기자속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서 '단군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웅녀가 아이 낳기를 신단수 아래에서 빌었다는 내용이 '단군신화'의 기자속이다. 이렇듯 기자속은 종교적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마을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는 산신당이나 성황당에서 기원을 하고, 명산



공작산 산신령상과 산신제단

대천을 찾아 특정한 바위와 나무에 의지하기도 하고, 무당이나 점복에 기대기도 하였다. 기자속의 종류에는 치성기자(致誠祈子), 주술기자(呪術祈子), 점복기자(占卜祈子), 선행·음덕기자(善行陰德祈子), 풍수기자(風水祈子), 태몽기자(胎夢祈子)가 있다. 이런 기자신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행해졌다. 일상적인 부모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낳기를 바라거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하는 형태이다.

홍천에서는 이런 기자속이 대부분 행해졌다. 치성기자의 경우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수타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기원하고, 팔봉산의 산신당과 삼부인당, 물걸리의 삼신당, 백우산의 산신당, 공작산 산신당 등이 유명하다. 공작산 산신당은 산신제단을 대리석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호랑이를 타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산신령을 조각한 제단과 산신제단의 비석까지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자식을 기원한 「축원문」과 기원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된 「공작산 영험기」까지 전하고 있다. 물제사라는 것도 있는데, 물이 좋은 곳에 가서 메를 지어 올리고 자식을 기원하는 것이다. 주술기자는 주문이나 술법을 빌려 아기를 낳기를 기원하는 풍속으로 자식을 많이 낳은 여자의 속옷을 훔쳐서 몸에 걸치면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였다. 놋쇠로 된 고추나 도끼 등을 몸에 품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다고도 했다. 점복기자는 서석면 검산리의 아들바위처럼 돌을 던져 올라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식으로 점복으로 자식을 기원하는 행위이다. 선행·음덕기자는 홍천 백우산의 장수전설처럼 평소에 좋은 일을 해서 자식을 얻는 경우이다. 이처럼 홍천군에서는 여느 지역과 같이 지금도 기자속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2) 산전속(産前俗)

산전속은 아이를 가져서 낳기 전까지의 풍속이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인식했다. 그 때문에 아이를 갖기 전이나 가졌을 때 꾸는 꿈인 태몽(胎夢)부터 소중하게 여겼다. 태몽을 통해 남녀의 성을 구별하기도 하고, 직업

이나 벼슬 등을 점치기도 하였다. 게다가 태명(胎名)이라 하여서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하였고, 태교(胎敎)라 하여 태아의 발육에 좋은 교육을 하였다.

홍천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 또는 가까운 이웃이 태몽을 꾼다. 꿈에 열매를 따거나 따서 집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해나 달이 품에 안기기도 하고, 호랑이나 뱀이나 물고기 같은 짐승을 보기도 한다. 태몽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태아의 성별과 미래를 점친다. 꿈이 기억에 선명하고 길하다고 여겨지면 아들이라 생각하고,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으면 딸이라 여겼다. 과일을 따도 꼭지가 있고 잘 익은 것은 아들이라 여겼고, 꼭지가 떨어지고 설익은 것은 딸이라 여겼다. 알밤을 주우면 아들이고, 밤송이를 주우면 딸이라 했다. 짐승이 크고 실하면 아들이라 여기고, 작고 보잘것없으면 딸이라 했다. 또 집 밖의 일과 집안의 일처럼 남성과 여성의 일에 따라서도 남녀를 따로 생각했다.

태아예지법(胎兒叡智法)은 태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임산부의 배 모양으로 성별을 판별하기도 했다. 임산부의 배꼽이 안으로 쏙 들어가고, 배 모양이 가슴 아래가 톡 불러 오르고 허리가 두루뭉술하면 아들이다. 반대로 임산부의 배꼽이 위로 톡 튀어나오고, 배 모양이 아래로 쳐진 상태에서 불룩 튀어나오면 딸이다. 또 이미 태어난 아이의 행위를 보고도 아들딸을 예상했다. 아이에게 방망이와 칼(또는 빗자루)을 놔두고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방망이를 잡으면 아들이고 칼을 잡으면 딸이라 했다. 아이가 어른들 무릎에 앉을 때 달려와서 정면으로 오면 여동생을 보고, 달려오다가 뒤로 돌아 엉덩이부터 앉으면 남동생을 본다고 했다. 지금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어 옛날의 풍속은 거의 사라졌다.

산모가 아이를 배면 태중금기(胎中禁忌)를 철저하게 지켰다.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이 모두 조심하였다. 태중금기에는 음식금기와 행위금기가 있다. 음식금기는 대개 유사유추(類似類推)에서 비롯했다. 곧 먹은 음식처럼 닮은 형태의 모습으로 아이가 된다고 해서이다. 문어나 오징어 같은 뼈 없는 해산물을 먹으면 뼈 없는 아이를 낳는다고 금하라 했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발이 붙는다고 했으며,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관절에서 '미'라는 닭의 물렁뼈가 나온다고 했다. 태어난 아이가 열이 많이 난다고 쉰 음식이나 짠 음식도 산모가 먹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지 않는다고 음식의 끝이나 모서리 모양이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못하게 했다. 행

위금기에는 언행이 모두 포함되었다. 임산부가 불구경을 하면 아이가 한 번은 불에 덴다고 했다. 절구공이를 넘으면 아이의 성기에 문제가 생기고, 체를 넘으면 출산일이 길어진다고 했다. 이런 행위금기에는 가족에게도 해당되었다. 집 안의 부엌을 고치면 아이가 언청이가 되고, 개고기를 먹으면 부정이 타서 아이가 태어나 개 흉내를 내거나 죽을 수 있다고 했다. 부정 탄다고 남의 상가(喪家)에도 가지 않았다.

(3) 해산속(解産俗)

해산속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풍속이다. 해산속은 달리 출산속(出産俗)이라고도 한다. 산모가 출산일이 가까우면 출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도 산파나 안산법 등의 갖가지 풍속들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집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하므로 예전의 풍속은 많이 사라졌다. 홍천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천에서는 산모가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산모에게 먹일 미역부터 사 왔다. 미역을 살 때는 홀수로 사고, 사 올 때는 미역을 꺾지 않고 오래기째로 가지고 왔다. 미역을 사 가는 것을 보면 어느 집이 아이를 낳을 건지 알 수 있었다. 미역을 꺾으면 산모의 허리가 아프든가, 미역은 해산 전에 사므로 산모가 난산을 한다든가, 아이가 자라서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 온 미역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누구든 뜯어먹지 못하게 했다. 미역을 뜯어먹으면 태어난 아이가 어렸을 때 잘 깨문다고 한다.

또 아이에게 필요한 배냇저고리, 베개, 이불, 포대기, 기저귀 등을 만들어 놓았다. 첫 아이일 때는 새로 만들고, 둘째 때부터는 쓰던 걸 잘 두었다가 썼다. 잘사는 집에서는 소청을 끊어다가 기저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어른들이 입던 헌 옷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다. 배냇저고리는 할아버지가 입던 옷으로 해 입혔다. 할아버지 옷으로 하면 아이가 오래 산다고 한다. 배냇저고리를 형제끼리 내려 입으면 의가 좋다고 했으며, 재판하러 갈 때나 시험 보러 갈 때 옷 속에 끼워서 보내면 재판에 이기고 시험에 합격한다고 한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산실(産室)을 마련했다. 산실은 특별히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방바닥이 피에 젖지 않도록 자리를 깔고, 태를 자르기 위해 가위와 실, 아이를 닦기 위해 물과 수건 등을 챙긴다. 예전에는 짚을 깔거나 기직(부들자리)을 깔았다. 짚

과 기직은 나중에 태와 함께 태웠다. 차를 타고 가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차 주인에게 길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차 주인이 산모나 아이에게 미역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주기도 했다.

아이가 잘 나오지 않으면 안산법(安産法) 또는 순산법(順産法)이라 해서 비법을 썼다. 홍천에서는 출산이 더뎌지면 시어머니가 솥뚜껑을 들고 뒤꼍으로 가서 "얼른 나와라. 얼른 나와라"라며 왔다 갔다 한다. 방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삼신께 순산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마을에 출산을 쉽게 하는 여자의 치마를 얻어다가 산모에게 입혔다. 피마자대궁을 꺾어서 방 네 귀퉁이에 놓았다. 후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산모가 모말을 깔고 앉는데, 모말 안에는 쥐가 파낸 흙을 담아야 한다. 출산을 시작하면 이웃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한다. 출산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아이가 더디게 나오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태를 자르는데, 이를 '삼 가른다'고 한다. 보통은 자를 곳에 있는 피를 세 번 훑어내고 실로 아이 쪽과 엄마 쪽을 묶는다. 동면 성수리에서는 태를 자를 때 피를 훑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 처음 엄마의 문을 열고 나온 태를 훑으면 아이가 자라면서 열이 자주 나기 때문이다. 가위 대신 낫으로 자르면 아이의 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낫으로 자르기도 한다. 또 아들을 낳으면 낫으로 자르고 딸을 낳으면 가위로 자르기도 한다. 태는 태반과 같이 출산 후 바로 태운다. 첫국밥을 끓이는 아궁이에 넣고 태우는데, 다 탈 때까지 지킨다. 태가 폐병에 약이 된다고 하여 훔쳐 가기 때문이다.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탯줄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았다가 함께 태워서 울타리 밑에 묻었다. 이렇게 하면 형제간에 의가 좋다고 한다. 아이의 배꼽에 붙어 있는 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말라 떨어진다. 이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아이가 태열이 나거나 볼거리를 할 때 약으로 사용한다. 또 잘 두었다가 아이가 커서 전쟁이나 위험한 부역에 나갔을 때 몸에 지니고 가면 수호신의 역할을 해주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고 한다. 태는 태우기도 하나 묻거나 물에 넣기도 한다. 홍천에서는 대부분 태워 없애는데, 간혹 묻기도 한다. 공작산은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1418~1483)의 태가 묻힌 곳이다. 아버지 윤번(尹璠, 1384~1448)이 홍천현감을 할 때 일곱 번째로 낳은 딸의 태를 공작산의 공작포란형(孔雀抱卵形, 공작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명당에 묻었다. 요즘은 조혈모세포이식이라고 해서 태를 보관했다가 아이가 자라서 불치병에 걸리면 사용한다고 돈을 주고 병원에 맡겨두기도 한다.

(4) 산후속(産後俗)

아이가 태어나면 외인(外人)의 출입으로 부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문 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한자로 금승(禁繩) 또는 금삭(禁索)이라고도 한다. 대개 부정은 상가(喪家)에 갔던 사람이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고기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나 살생을 한 사람이 해당된다. 또 금줄을 치는 다른 원인은 아이를 해치는 잡귀(雜鬼)의 출입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홍천에서는 금줄을 치는 데 세 가지 방법을 취했다. 대문 앞에 줄을 매는 방법, 대문 앞에 소나무를 베어 세우는 방법, 솔가지를 크게 처마 밑에 꽂아두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대문 앞에 새끼줄을 매는 방법이었다. 새끼줄을 맬 때는 남아와 여아의 구별을 하였다. 남아는 왼새끼에 솔가지와 숯과 고추를 달았고, 여아는 솔가지와 숯을 달았다. 이때 왼새끼, 숯, 고추, 솔가지는 모두 뜻이 있다. 숯은 정화(淨化)의 기능이 있어서 부정을 가시게 한다. 솔가지는 솔잎이 바늘처럼 되어 있고 사철 푸르기에 잡귀가 범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서석면에서는 소나무는 한번 자르고 나면 다시는 싹이 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다시는 여아가 태어나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석면에서는 여아가 났을 때 솔가지를 금줄에 달지 않고, 어린 소나무를 통째로 베어서 금줄에 달았다. 남아의 금줄에 다는 고추는 남아의 상징과 고추가 유사하다는 뜻 외에 홍천에서 고추는 헛꽃이 없어 개화하기만 하면 다 고추가 열리므로 계속하여 남아를 출산하라는 뜻이라 한다. 왼새끼를 꼬아 다는 것은 오른새끼처럼 일상과 다른 새끼를 꼬므로 잡귀를 쫓거나 부정을 막는 신성의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어떤 집에서는 숯을 달지 않는데, 숯은 까맣기 때문에 아이가 숯처럼 흐리멍덩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금줄은 보통 7일 만에 접으나 바라지 않던 여아가 태어나면 3일 만에 접기도 한다. 귀한 손을 낳았을 때는 삼칠일, 즉 21일간 걸어둔다. 날짜가 지나면 금줄은 거두어 둘둘 말아서 대문 옆이나 나무에 걸어둔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기운을 차리면 첫국밥을 먹는다. 첫국밥은 미역국과 이밥이 전부다. 첫국밥에 내는 미역국은 기름 간도 하지 않고, 쌀뜨물이 아닌 맑은 물로 끓인다. 조미도 따로 하지 않고, 간장 한 가지만으로 간을 맞춘다. 첫국밥은 삼신께 올리지 않고 산모가 먼저 먹기도 한다.

산모는 아이를 낳느라고 힘들었으므로 몸조리를 해서 원래대로 몸 상태가 돌아가게 한다. 몸조리는 보통 한 달 내지는 석 달을 하는데, 홍천에서는 그렇게 오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농촌의 특성상 일손이 부족해서 보통 3일 정도 몸조리를 하였다. 3일도 채 못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다. 몸조리할 때 먹는 음식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미역국을 먹는 것은 같았다. 가령, 함경도의 경우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개를 잡아준다고 하고, 남쪽에서는 가물치를 달여주기도 한다. 홍천에서는 대부분 미역국과 밥으로 세끼를 먹고, 간혹 참을 먹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누워 있었다. 홍천에서는 개고기가 금기 음식으로 취급되어서 산모가 산후조리를 할 때는 먹지 않았다. 부기가 오랫동안 빠지지 않으면 호박에 꿀을 넣어 달여 먹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바로 호박을 먹으면 산모의 이가 빠진다고 먹지 않았다.

산후금기는 보통 금줄을 치는 기간에만 행해졌다. 산전금기는 오래도록 지속되어 힘들지만 산후금기는 길어야 삼칠일인 21일이면 끝난다. 산후금기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부정한 음식이나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금기와 행위금기로 나눌 수 있다. 홍천에서는 음식금기로 상가(喪家) 음식은 먹지 않고, 안택이나 고사를 지낸 음식과 같이 절을 받은 음식은 먹지 않았다.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도 금한다. 닭이나 계란을 산모가 먹으면 젖을 먹은 아이 몸에 종기가 자주 생긴다고 한다. 젖이 부족할 때는 돼지 족을 삶아 먹인다. 행위금기로는 삼칠일 전에는 집을 손질하지 않고, 상가(喪家) 출입을 하지 않고, 상주(喪主)의 출입을 금한다. 바람간수라 하여 산모의 외출을 삼가고, 산모가 있는 방은 일정한 온도로 덥힌다. 집 안에서 살생을 금하고, 아이가 있는 방에는 집안사람도 출입을 금했다. 3일이 지나면 집안 어른이 아이를 볼 수 있다. 귀한 자식의 이름은 천하게 짓기도 한다.

2) 육속(育俗)

우리 속담에 "낳는 자랑 말고 기르는 자랑을 하라"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병원이 많고 예방접종을 잘해서 유아의 사망률이 많지 않다. 그러나 예전에는 유아의 사망이 많아 홍역까지 무사히 끝나야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신(神)에게 의탁하여 아이를 길렀다. 삼신신앙, 칠성신앙을 비롯해서 성주신앙, 조앙신앙, 그리고 마을을 관장하는 산신(山神)과 서낭신

(城隍神) 등이 모두 아이를 기르는 육속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사정은 홍천도 마찬가지였다.

(1) 삼신할머니(産神)

태아를 점지하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보살펴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신이 삼신할머니이다. 삼신할머니가 집안에 깃들어야 아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삼신을 집집마다 잘 모셨다. 삼신은 집안의 장롱 부근이나 삼신달이라 하여 자루에 쌀을 넣어 안방에 걸어놓은 신체에 기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홍천에서는 삼신의 표상을 달아놓은 집이 1980년대 말경에 조사를 할 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당시는 없었을 것이다. 삼신의 표상은 없지만, 삼신을 믿고 기원을 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삼신이 기거한다고 믿는 곳이나 유아의 머리맡에 삼신상을 차려놓고 아이를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빈다. 보통 아이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비는데, 이날은 '삼 나가는 날'이라 한다.

비는 사람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있으면 산모 대신 빌었다. 제물은 흰밥에 미역국을 떠놓고, 수저 한 벌을 놓았다. 제물을 차리고 아기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주문에는 삼신을 찬양하는 말과 부정이 있으면 눌러달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사람은 미련하여 아는 것이 없으니 허물치 말아달라는 말, 드리는 것은 소례(小禮)이나 대례(大禮)로 받아달라고 하고, 신을 송축하는 말을 한다. 비는 것이 끝나면 삼신상을 그 자리에 돌려놓고 산모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 보통 3일과 7일에 하고, 유아가 병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다.

홍천지방에서는 삼신이 두부를 특히 좋아한다고 해서 삼신상을 잘 차리고자 하면 두부를 한 판 해서 그대로 올렸다. 삼신께 올린 두부는 식구들이 먹을 때 칼을 대지 않고 수저로 뚝뚝 떼어 먹는다. 삼신상에 올렸던 국과 밥을 말아 태어난 아이의 위 형제에게 먼저 먹이면 형이 동생을 시샘하지 않는다고 한다.

삼신상이 나가면 산모는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그냥 간단히 씻는 정도만 하였다. 산모가 깨끗이 씻고 나면 집안일을 한다.

(2) 작명(作名)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 아이 이름은 곧바로 항렬이나 좋은 글자에 맞춰 짓기도 했으나, 한동안 아명으로 부르다가 출생신고를 할 때 정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아이가 천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이름을 본명 외에 따로 천하게 지어 부르기도 했다. 이 경우는 아이를 낳았을 때 잘 죽어서 아이의 명을 늘리기 위함이었다. 또 나이가 많아 얻은 아이의 무탈을 빌기 위해 그렇게 천하게 짓기도 했다. 귀하게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일찍 잡아 가고, 천하게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가장 많은 천명(賤名)은 개똥이, 쇠똥이, 바우, 돼지, 까마귀, 똘똘이 등이다. 또 딸을 많이 낳은 집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아의 이름을 남아처럼 짓기도 하고, 또 여아를 그만 낳으라고 '고만이', '끝순이', '말순이', '안나' 등처럼 짓기도 하였다. 남아의 경우는 돌림자 등을 따서 잘 짓기도 했으나 여아의 경우는 '간난이', '햇간난이'처럼 짓기도 하고, '순'자나 '숙'자나 '자'자를 넣어 영자, 숙자, 옥자 등처럼 짓기도 하였다. 지금은 출산 후 한 달 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름을 바로 짓는다. 집안의 돌림을 따르는 집도 있으나 좋은 이름으로 짓고자 돌림을 따르지 않기도 한다.

(3) 백일(百日)

아이가 태어나서 백일이 되면 이날은 아기의 첫 경사스러운 날이다. 태어나서 백일 동안 무사하게 자랐다 하여 잔치를 해준다. 집안의 형편에 따라 백일상을 차려주는 집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집도 있다. 백일이 되면 먼저 삼신할머니에게 상을 차려 올린다. 삼신상을 차리는 것은 아이가 무병하기를 바라며, 또 백일 동안 잘 보살펴 주어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이다. 백일에는 백설기를 하는데 홍천에서는 송편도 한다. 백일떡은 백 사람이 먹으면 백 가지의 액운을 때워 무탈하게 백 살까지 장수할 수 있다고 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다. 특히 홍천에서는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집안이 넉넉하며 복이 있는 노인이 아이의 백일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하여 이웃에 이런 노인이 있으면 꼭 초청하여 백일음식을 대접하였다.

백일에도 부정을 가렸다.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은 초청하지 않았으며, 초청을 했

더라도 자신이 남의 상가(喪家)에 갔다 왔다면 가지 않는 것이 예이다. 상가에 갔던 사람이나, 상주가 남의 백일에 갔다가 그 뒤 아기가 병이 나면 상문살(喪門煞)을 맞아서 그렇다고 하여 원망을 듣게 된다.

백일에 수수경단을 하는 집도 있다. 수수경단은 팥죽처럼 잡귀나 액운을 물리친다고 한다. 백일에 잘 얻어먹지 못한 아이는 클 때 잘 넘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면 "백일 떡을 못 얻어먹었나, 애가 왜 이리 잘 넘어져"라고 말했다.

(4) 돌

생후 1주년이 되면 돌잔치를 한다. 이 돌잔치는 육아 시기 중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대부분 아이의 돌을 해주려고 하지만 워낙 가난하거나 일이 바쁘면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 돌에는 돌빔이라 하여 새 옷을 만들어 입힌다. 옷은 한복으로 장만한다. 남자아이는 복건을 만들어 씌우기도 한다. 홍천에서는 돌음식을 본가에서도 하지만, 옷과 음식을 외가에서 만들어 외할머니가 돌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통례로 했다.

돌에는 삼신할머니에게 상을 차려 올린다. 돌 이후에도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삼신할머니에게 상을 차려 올리고 빌 수 있으나 정례(定例)로 올리는 경우는 돌이 마지막이다. 삼신상을 차려놓고 그동안 탈 없이 자라 돌을 맞게 되었다는 감사와 앞으로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기원을 한다. 삼신상을 물리면 산모와 아이가 그 상에서 아침식사를 한다.

돌음식은 백설기, 송편, 수수단자를 비롯하여 가세에 따라 다르나 백설기와 수수단자는 거의 한다. 돌음식도 백일 떡과 같이 많은 사람이 먹을수록 좋다고 한다. 수수무설미는 벽사(辟邪)의 뜻을 가지고 있다. 수수무설미는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해주면 좋다고 하여 빠지지 않고 생일에 해준다. 홍천에서는 특히 돌상에 삼신이 좋아하는 두부를 만들어 올리기도 한다. 이는 백일에 삼신상에 올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칼을 대지 않고 만든 것을 그대로 올린다. 돌음식에는 꼭 답례가 있어야 한다. 돌잔치에 참여할 때는 미리 답례품을 준비해서 간다. 지금은 거의 현금을 가지고 가나 옛날에는 아기의 옷이나 태실을 가지고 간다. 실은 오래 살라는 의미이다. 돌을 맞은 아기에게 좀 안아보자고 하면서 돈을 주머니에 넣어준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관상이로구나" 등의 덕담을 한다.

돌에는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 보는 돌잡이를 하는데, 아이가 잡은 물건으로 무엇이 될지를 점친다. 돌상에는 집에서 만든 음식 외에 쌀, 돈, 책, 실, 연필 등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잡히게 한다. 요즘은 마이크나 청진기를 올리기도 한다. 아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앞날을 점치며 해석을 한다. 실을 잡으면 명이 길어 오래 살 것이라 하고, 연필을 잡으면 글을 잘 쓸 것이라 하고, 책을 잡으면 학자가 될 것이라 하고, 쌀이나 돈을 잡으면 재복이 있어 부자가 될 것이라 한다.

(5) 치병(治病)과 장수기원(長壽祈願)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렸다지만, 병원이 없고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작은 병에도 불구하고 많이 죽어나갔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마을 뒷산에는 곳곳에 애총(兒塚)이 즐비했다. 그 때문에 병에 걸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병 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치병을 하거나 장수기원을 했다.

치병과 장수기원을 위해서 홍천에서 행해진 풍속은 아이를 다른 곳에 파는 행위인 매자(賣子)를 하였다. 복술이나 무당에게 양자로 들이기도 하고, 바위에 팔기도 하였다. 복술이나 무당에게 파는 것은 수양자(收養子)라 하였다. 복술이나 무당은 양자로 들이면 그 아이의 장수를 위해서 치성을 드려주었다. 매자 풍속은 아무 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지 않거나 명이 길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면 행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부모가 복술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수양으로 삼아줄 것을 부탁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날을 잡아 수양잔치를 하였다. 따로 돈을 챙겨주지는 못하고, 수양부모의 대소사를 챙기고, 수양부모가 돌아가면 수양아들은 상주노릇을 하였다. 바위에 아이를 파는 방법은 특정 바위를 찾아가서 아이의 이름과 사주를 적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위가 수천 년을 변함없이 있는 것처럼 아이의 수명을 기원하였다. 바위 자식이 되므로 일찍 죽지 않는다고 믿었다.

한편 아이가 아프면 민간요법도 많이 썼으나, 주로 했던 것은 삼신이나 칠성신께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예방을 한다고 집 문 위에 엄나무를 꽂기도 하였다. 동네 복술을 불러서 경을 읊는 경우도 많았다.

2. 성년식(成年式)

성년식은 통상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라 한다. 이를 묶어서 관례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남녀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이에서 성년으로 될 때 행하는 의식이다. 현재 홍천지역에서는 관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간혹 혼인을 앞두고 조상을 찾아뵙고 예를 갖추어 관례를 행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전통사회에서 성년식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행해졌다. 남자는 관례라 하여 머리를 묶어 상투를 틀어 올렸다. 그리고 갓을 써서 성년이 되었음을 알렸다. 여자는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았는데 이를 계례(笄禮)라 하였다. 성년식은 고려 광종 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행하는 행사에는 삼가례(三加禮)라 하여 머리를 틀어 상투를 올리고 갓을 쓰는 절차, 초례(醮禮)라 하여 술잔을 관자(冠者)와 빈(賓)이 주고받는 의식, 수자례(授字禮)라 하여 자(字)라는 이름을 받는 의식, 알묘(謁廟)라 하여 조상의 사당에서 성년이 되었음을 고하는 절차, 견존장(見尊丈)이라 하여 집안의 어른과 빈객들에게 절을 하고 성년이 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관례가 사라지게 된 계기는 1895년 단발령이 시행이다. 이 때문에 관례 행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다만 혼인을 할 때 동네 어른을 모셔다가 간략하게 잔치를 베풀고 인사하는 의식으로 바뀌어 한동안 이어왔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바뀌었지만 '성년의 날'이 지정되면서 옛 성년식은 풍습이 바뀌어 현재 전하고 있다. 지금은 1984년 9월에 정한 성년의 날을 따라 행해진다. 만 19세가 되는 나이에 있는 남녀가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성년의 날이라 하여 행사를 한다.

이날 행사는 성균관이나 각 지방의 향교 또는 대학 등에서 치러진다. 청소년에서 성년이 되었으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를 주기 위해 행사를 한다. 의복을 갖춰 입고 의식을 치루는 경우고 있다.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한다.

3. 혼례(婚禮)

혼인은 일생의례 가운데 가장 축하할 의식이다. 인륜대사(人倫大事)란 말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자란 환경과 집안의 내력 등이 다른 두 집안의 자손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물론 두 사람이 좋아하여 사랑으로 맺어진 경우에도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모두 인정하고 무난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혼례라는 의식을 치른다. 이 때문에 혼례는 상례와 함께 가장 격식이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

혼례의 절차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인 납채(納采),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 이름을 묻는 문명(問名),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받아 신부 집에 알리는 납길(納吉),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 신랑 집에서 혼례 날을 택일하여 가부를 신부 집에 묻는 청기(請期),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親迎)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를 육례(六禮)라 한다. 육례가 다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혼인이라 한다. 육례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져서 정식 혼인을 한 사이를 얘기할 때 '육례를 갖춘 부부'라고 했다. 옛 풍습에서 여자는 육례를 한 번만 치를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혼례를 올리고 파경을 맞게 되었다가 재가를 하게 되면 육례를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남자는 결혼에 실패하여 몇 번을 결혼을 하든 상대가 처녀일 경우에는 육례를 갖춰야 했다. 처녀에 대한 예의를 육례로써 갖췄다. 육례를 갖추게 되면 재취(再娶)나 삼취(三娶)에서 난 자식도 적서의 차별이 없었다. 그래서 과거(科擧)를 볼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육례를 갖추지 않고 소실로 들어온다거나 한 경우에는 적서의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적서의 차별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육례의 풍습도 많이 바뀌었다.

요즘은 옛 풍습이 사라지고, 혼인식도 여러 가지이고, 이혼의 풍습도 많아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혼례에도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생겼다. 곧 집집마다 혼인의 풍습이 다르다는 말이다. 가가례란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오던 말이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옛 풍속이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전혀 다른 면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홍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요즘은 전통혼례의 풍습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1) 의혼(議婚)

혼사를 의논하는 단계를 의혼(議婚)이라 한다. 남녀가 나이가 되어 혼기(婚期)가 차면 집안에서는 서로의 짝을 찾게 된다. 요즘처럼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 중매혼일 때는 의혼의 단계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졌다. 우리의 혼인관(婚姻觀)에 "딸은 쳐다보고 주고, 며느리는 내려다보고 맞는다"라는 말이 있다. 딸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자기보다 나은 가문을 골라주고 며느리는 자기 가정보다 못한 집에서 본다는 것이다. 의혼에는 사회신분을 비롯하여 궁합이나 중매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고대사회에서는 동성동본의 혼인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데, 조선 사회로 들어오면서 동성동본 결혼 규제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 규제는 없어졌다.

그리고 반상(班常)을 따지기도 했다. 이는 신분으로 인한 계급사회가 있을 때 혼인에도 양반과 상민을 따졌다. 반상 구별에 대한 풍습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많이 희박해졌다. 반상 구별 풍습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구전(口戰)이라는 풍습이 있을 정도였다. 입으로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며 사돈될 사람끼리 싸운다고 해서 구전이라 했다. 반상의 풍속이 성씨로 전이되어 의혼을 할 때 성씨가 무엇인가 따지기도 하였다. 성씨뿐 아니라 직업을 보기도 한다. 부모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혼인 당사자의 직업도 중요하였다. 또 옛날에는 오불취(五不取)라 하여 역적의 자손, 집안에 규범이 없는 집, 형벌을 받은 집, 나쁜 병이 있는 집, 상부(喪父)한 집의 장자는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꺼리기도 하였다.

중매는 요즘도 행해지지만 예전에는 자유연애가 없이 대부분 중매에 의해 혼인이 이뤄졌다. 홍천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야 연애결혼이 있을 정도로 그전에는 대부분 중매로 혼인이 맺어졌다. 중매는 평소 집안에서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 한 사람이 두 집안을 모두 알고 있어 중매를 넣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각각 한 집씩 연결해 주기도 한다. 대부분 신랑 집에서 중매를 넣어 신부 집의 허락을 받는다. 홍천지역에서는 중매장이를 '쥔애비', '쥐내비', '준애비'라 부른다. 예전에는 쥔애비의 말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맞선도 없고, 약혼도 없이 혼인을 했던 시절의 얘기다. 홍천에서는 쥔애비가 신랑 집의 형편을 속이고 신부를 데려오는 사례가 많았다. 쥔애비가 신부 집에 신랑 집을 소개하면서, 신랑감이 멀쩡하고 성실하며, 집

안 형편 또한 넉넉하여 자리를 열두 개나 깔고 살 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신부 집이 허락을 하고 혼인을 한 뒤에 신행을 갔는데, 방에 온전한 돗자리 열두 개를 깐 것이 아니라, 조각으로 열두 개 깔려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다고 한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잔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았다고 한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쥔애비가 신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 좋은데 멀어서 걱정이야"라고 하니, 신부 집에서는 그 말을 듣고 별게 아니라고 여겨 혼인을 시켰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신랑이 왔는데, 눈이 안 보이는 봉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중매쟁이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잘되면 술이 석 잔 못되면 뺨이 석 대"라는 말이 있다.

선보기라 해서 혼담이 오가면 신랑신부의 얼굴을 보았다. 선보기는 신랑의 부모나 신부의 부모가 신랑이나 신부가 될 사람을 보았다. 맞선은 신랑신부 양가의 어른들과 결혼 당사자가 자리를 마련하여 보았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절차가 없이 신랑 집에서 신부를 보기 위해 신랑 집 부모가 신부 집에 들르기도 했다. 신부를 보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서 허락을 해야만 했다. 신랑의 어머니가 와서 볼 때는 지나가듯 살짝 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버지가 와서 보는 경우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히 술상을 대접받기도 한다.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와서 신부를 보는 경우는 혼담이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혼담이 오가면 궁합(宮合)을 본다. 궁합은 상대의 사주(四柱)인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주로 본다. 결혼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사이고, 결혼 후 두 사람이 잘살지 못살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불안을 궁합을 통해 예견하려는 행위이다. 궁합은 주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으로 보았다. 홍천에서도 양가에서 혼사를 결정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의 궁합을 보았다. 마을에 한학을 하는 어른이 있으면 찾아가 신랑과 신부의 사주를 주고 궁합을 살핀다. 궁합은 혼인의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혼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혼담이 성사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 사진관에서 약혼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2) 혼례식 전 의식

의혼이 끝나서 혼인에 대한 의사가 정해지면 정식으로 혼례절차를 밟게 된다. 혼인식을 하기 전 몇 가지 의례가 행해지는데, 결혼하기를 청하는 청혼(請婚)의 의례인 납채

(納采), 신랑의 사주(四柱)를 보내는 의례, 좋은 결혼 날짜를 정하는 연길(涓吉), 예물을 함에 담아 보내는 납폐(納幣), 신랑의 의례복을 만들어 보내는 의양단자(衣樣單子) 등이 있다. 이는 홍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해졌다.

납채(納采)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할 날짜를 택해서 보내는 의례이다. 이때 보통 쥔애비를 통해서 보내는데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한다. 청혼(請婚)의 의례도 함께 행해진다.

사주단자(四柱單子)는 혼례를 하기 전에 신랑의 사주를 종이에 싸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의례이다. 홍천에서 조사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주를 전할 때 팔자가 좋은 사람이나 자식을 많이 낳고 건강한 사람에게 부탁한다. 1950년대에는 사주에 신랑과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모두 적어 넣었다. 종이의 오른 쪽에는 '건(乾)'자를 쓰고 그 아래에 신랑의 사주를 적고, 그 오른쪽에 '곤(坤)'자를 적고 신부의 사주를 적는다. 사주는 종이 한 장에 적는데, 이를 접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잘 접은 사주는 책가지(싸리나무 가지)를 쪼개어 그 사이에 끼우고, 청실홍실로 감는다. 청실홍실로 사주를 감지 않으면 사주와 함께 봉투에 넣는다. 간혹 책가지는 생략되기도 한다. 사주를 접어 봉투에 넣으면 사주보로 싼다. 근래에는 종이에 신랑의 사주만 적고,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사주보에 사주를 넣어 보내기도 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사주저고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신랑 집 형편이 어려우면 생략하기도 했다. 사주저고리는 저고리를 만들 수 있는 옷감으로 보낸다. 양단으로 보내는데, 옷가지의 수가 짝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받아 신부 집에서는 옷을 만들었다.

신부 집에서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사주를 받는다. 신부 집에서는 미리 사주를 받을 장소에 상을 펴고 물을 한 그릇 떠놓는다. 또는 떡시루를 상위에 내다놓고 그 위에 사주를 놓게 하는 풍습이 있다. 사주를 상 위에 올리면 신부 아버지가 이를 펼쳐 보고 부인에게 준다. 신부 어머니는 이를 장롱 안에 넣어둔다. 신부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으면 혼인 후 신부가 친정에 왔을 때 어머니 몰래 훔쳐 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신부는 사주를 가지고 와서 옷장 깊은 곳에 평생을 보관해 두는데, 이는 후에 내외 중 먼저 죽은 사람의 관에 넣어 함께 보낸다.

연길(涓吉)은 혼인 날짜를 택하는 의례이다. 혼택(婚擇)이라고도 한다. 날짜는 신랑 집에서 택하기도 하지만, 신부 집에서 신랑의 사주를 받으면 결혼 날짜를 택하기도 한다. 한여름 더울 때나 한겨울 추울 때를 피해 봄가을에 많이 한다. 농촌에서는 농번

기는 피한다. 날을 잘못 잡으면 신부가 주당살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주말을 택하여 혼례를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옛날에는 반드시 길일을 골랐다. 택일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사주에 맞추어 한다. 그러나 때론 사주에 관계없이 천하대통일(天下大通日)을 잡았다. 택일이 되면 겉봉에는 연길(涓吉)이라 쓰고, 안에는 '전안모월모일모시(奠雁某月某日某時)'라 쓰고 그 옆에 '납폐동일선행(納幣同日先行)'이라 써서 보낸다. 납폐동일선행은 초례 전에 하는 전안을 따로 할 것 없이 초례 전에 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홍천에서도 전안을 따로 날짜를 잡지 않고 초례 직전에 하고 있다.

납폐(納幣)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의례이다. 이것을 통상 '함 보낸다'고 한다. 함 속에는 혼서(婚書)와 신부의 옷을 넣는다. 함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혼서는 신랑의 부친이 신부의 부친에게 보낸다. 내용은 귀한 따님을 아들의 배필로 주어서 고맙기에 선인(先人)들의 예에 따라 사자(使者)를 보내어 폐백의 의식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폐백 함은 일명 함애비 또는 함진애비라 하는 사람이 지고 간다. 옛날에는 함을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 지고 갔다. 홍천에서도 예전에는 그 예에 따라 행했으나, 유복(有福)하다고 하는 사람, 상처를 하지 아니하고 상중(喪中)이 아니고, 첫아들을 낳은 사람을 골라 보낸다. 신랑이나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함이 신부 집에 이르면 신부 집에서는 미리 시루떡을 만들어 소반에 받혀 내다놓는다. 함애비는 함을 사라고 흥정을 한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인집에서 충분한 사례를 하면 함을 시루 위에 올려놓고 함애비가 나간다. 함애비가 나가면 신부의 어머니가 함을 받아 들여간다. 함을 받은 주인은 함을 전부 열어 안을 살피지 아니하고 손이 들어갈 정도로 열고 손을 넣어 더듬어서 먼저 혼서(婚書)를 꺼내고 다시 손을 넣어 옷 한 가지를 꺼낸다. 이때 붉은색이 나오면 첫딸을 낳고 푸른색이 나오면 첫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의양단자(衣樣單子)는 신랑과 신부의 옷과 도포의 치수를 재서 본을 떠서 보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신부집에서 신랑의 한복과 도포를 만든다. 요즘은 신랑의 한복 보다는 양복을 만든다. 신랑의 옷 치수를 재고 본을 떠서 봉투에 넣고 겉봉에는 한글로 '의양'이라고 썼다. 신부의 의양단자는 택일지(擇日紙)를 보낼 때 보내는 것이 관례이고 신랑의 의양단자는 택일지를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 인편에 보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홍천에서는 도포를 명주나 가는 베로 만들고 가문에 따라 그 모양에 차이가 있기도 한데, 도포에 동정을 다는 가문도 있고 동정을 달지 않는 가문도 있다.

3) 혼례의식

혼례는 대례(大禮) 또는 초례(醮禮)라고도 한다. 그리고 '혼인잔치' 또는 '전안 치른다'고도 한다. 혼례의식 때는 사당차례, 초행, 혼례복, 신부화장, 전안례, 초례 또는 교배례, 합근례, 큰상, 합궁례 등이 행해진다. 이런 의례 역시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형편에 따라 다르다. 요즘은 예식장에서 치르는 신식 혼례가 대부분이고, 전통혼례를 치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전통혼례를 행하더라도 약식으로 진행한다. 본 절에서는 전통과 역사성에 미루어 전통혼례의 입장에서 혼례의식을 서술한다.

사당차례는 장가들기 전에 조상에게 알리고 가는 예식이다. 집안에 있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 혼례가 있음을 고하는 것인데, 요즘은 거의 행하는 집이 없다.

초행(初行)은 전통혼례에서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가는 행차이다. 신행행차(新行行次) 또는 혼례행차라고도 한다. 홍천에서는 1940년대에는 초행길에 나선 신랑과 상객은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갔다. 신랑은 집에서 혼례복을 갖춰 입고 나서며, 말을 끄는 '정매' 두 명이 각각 신랑과 상객의 말을 이끈다. 이 뒤를 함진애비와 하님이 따라 나선다. 상객은 신랑의 아버지이거나 집안의 남자 어른이며, 하님은 신행 올 때 신부의 시중을 들 사람이다. 1950년대로 들어서면서 신랑은 초행길에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점차 트럭 또는 대중교통과 가마를 함께 이용하였다. 먼 길은 차를 이용하고, 신부의 마을 앞에서 가마를 타고 들어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랑 일행에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우인대표'라 하여 가마나 함을 들기도 하고, 잔치에 참여하여 축하의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신랑은 혼례복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고 신부의 동네까지 간다.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 집에서 마련해놓은 '새손방', '정방'이라 하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혼례복을 입는 등 준비를 마치면 신부 집 마당으로 나온다. 새손방은 신부 집 사랑이 되기도 하고, 신부 집과 가까운 집의 사랑에 정하기도 한다. 신랑과 신부의 혼례복과 가마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것을 빌려서 사용한다.

혼례복은,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족두리를 했다. 사모관대를 하는 것은 혼인을 함으로써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벼슬을 주는 의미를 띠고 있다. 홍천에서는 혼례복을 입을 때 순서가 다음과 같다. 신부 옷 입는 순서는 고쟁이 단속옷, 받침치

마, 겉치마를 아래에 입고, 속적삼, 받침저고리, 겉저고리, 내삼, 족두리, 금봉채, 큰 댕기를 했다. 신랑 옷은 바지저고리, 도포나 두루마기, 사모관대를 했다.

신부화장은 특별히 신경을 썼다. 요즘은 미장원에 가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서 모두 했다. 잔치를 이틀 정도 앞두면 신부는 얼굴의 잔털을 뽑고 단장을 한다. 재를 칠하고 명실로 잔털을 뽑아 얼굴이 동그래 보이게 만든다. 신부의 단장은 집안 부인들이 해주는데, 혼인을 하고 복 있게 잘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신부단장을 해준 사람이 잔칫날에도 신부화장을 해주고, 신부의 성장(盛裝)을 돕는다.

홍천에서는 초례청(醮禮廳)이 보통 신부 집의 마당이었다. 멍석을 깔고 다리가 긴 상을 초례상으로 놓고 신랑·신부가 설 자리에 왕골자리를 깐다. 그리고 집 쪽으로 병풍을 치고, 햇빛을 가리는 차일(遮日)을 친다. 하늘이 잔치 치르는 것을 내려다보면 신랑과 신부에게 좋지 않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함이다.

초례청이 마련되면 전안례(奠鴈禮)를 행한다. 전안례를 행하는 이유는 오리가 한평생 부부끼리 떨어지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오리처럼 한평생 해로(偕老)하라는 의미이다. 전안례는 초례청 옆에 병풍을 치고 그 병풍 앞에 나무 기러기인 목안(木雁)을 놓을 상을 놓는다. 함진애비가 함에서 목안을 꺼내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그 목안을 받아 반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 이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리를 반 위에 놓지 말고 땅 위에 놓으라고 사방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랑을 놀리려는 것으로 주위에서 이렇게 놀려도 신랑이 개의치 않고 상 위에 놓으면 신랑이 침착하다고 한다. 목안은 신부의 어머니가 받아 가기도 하고 집안에서 복(福)이 있다고 이르는 부인이 받아가기도 한다. 목안은 받아서 쌀 단지 위나 안에 놓았는데, 잘 살라는 의미이다. 전안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초례가 거행된다.

초례(醮禮)는 혼인예식 중 가장 중요한 의례이다. 요즘은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교식으로 예식을 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는 홍천에서 행해졌던 전통혼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초례는 차일 밑에 병풍을 둘러친 '교배(交拜)' 또는 '친영상(親迎床)'이라 부르는 상을 가운데 두고, 처음으로 신랑·신부가 마주 보고 예를 올리는 것이다. 신랑이 전안초례(奠雁醮禮)를 하기 위하여 정방에서 가마를 타고, 신랑이 들고 가는 부채인 사선(紗扇)으로 앞을 가리고 들어가면 모였던 사람들이 신랑을 향하여 잿봉지를 던지는 습속이 있다. 그러

면 이 사선으로 잿봉지를 막는다.

초례상은 상을 덮는 보자기인 상건(床巾)이 있으면 상건을 깔고, 없으면 그대로 상 위 양쪽에 촛대를 세워 촛불을 밝히고, 백자도병(白磁陶甁)을 양쪽에 놓고 거기에 송죽(松竹)을 꽂기도 한다. 홍천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수깡에 청홍(靑紅)의 물을 들여 병에 꽂는 습속도 있다. 청홍색의 수수깡을 꽂는 풍습은 홍천의 특징이다. 교배상(交拜床)에는 이 외에 용떡과 팥, 콩을 한 그릇씩 놓고, 삼실과(三實果)를 놓으며 암수 두 마리의 닭을 날개와 발을 묶어놓는다.

초례의 절차는 홀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초례는 신랑·신부 두 사람의 교배례(交拜禮)인데, 초례상(교배상)을 사이에 두고 한다. 교배상 밑에는 작은 소반을 놓고 소반에는 청홍실을 맨 근배(巹杯)라고 부르는 술잔과 주전자를 놓으며, 이 상 앞에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이라 쓴 화문석(花紋席)을 까나 화문석이 없을 때는 돗자리를 깐다.

신랑이 전안을 마치고 교배상 앞에 서면 신부가 성장(盛裝)을 하고 타인의 부축을 받아 신랑과 대면하여 선다. 신부가 눈을 감은 채 하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신랑을 향하여 재배하면 신랑도 재배로 답례를 한다. 절을 마치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좌정하면 청실과 홍실을 걸친 술잔에 술을 부어 마신다. 합근주(合巹酒)를 마시는 방법도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거의가 신부 측 수모(手母)가 술잔을 부어 신랑 측 시자(侍者)에게 주면 신랑 측 시자가 신랑에게 몇 모금 마시게 하고 신부 측 시자에게 건네주어 신부가 마시게 한다. 횟수는 단배(單杯)에 그치는 곳도 있고 세 번 술잔이 오고 가게 하는 곳도 있다. 이때의 술은 알코올 도수가 있는 술을 쓰기도 하나 감주(甘酒)을 쓰기도 한다.

초례가 끝나면 신랑·신부가 함께 잠깐 신방에서 마주 보고 앉았다가 신부가 나간다. 그러면 신랑은 사모관대를 벗고 평복으로 바꾸어 입는다. 도포에 초립(草笠)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옛 풍속대로 혼례를 하는 집안에서도 초립이 없으면 갓을 씌웠다. 도포에 갓을 쓰고 바깥어른들에게 성인(成人)이 되었다는 절을 한다. 신랑은 결혼 당일 초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는다. 혼례가 끝나고 나면 절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상객으로 따라 온 아버지나 할아버지이고 그다음 장인을 비롯한 처가의 남자들에게 절을 한다. 이날 신랑이 처가의 부녀자 인사를 장모에게만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고 있다가 처가에서 신방을 치를 때는

신방을 치르고 나서 다음 날 인사를 하는 가문도 있다.

신랑의 바깥인사가 끝나면 신랑은 대반상 또는 큰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 큰상의 음식은 먹을 수 있게 차린 것이 아니고 밤, 잣, 대추 등의 과일을 비롯하여 어육(魚肉)에 이르기까지 보기 좋게 고여 놓았기에 여기에는 손을 댈 수 없고 평상의 음식을 먹는다. 큰상의 음식은 그대로 담아 신랑 집에 보내고 신부가 신랑 집에서 받은 큰상도 역시 먹지 않고 신부 집으로 보낸다. 이것은 서로 교환하는 음식이기에 폐스럽다고 하면 양가가 상의하여 차리지 않기도 한다.

초례를 행할 때 음식을 관리하는 곳을 과방(果房)이라고 했다. 과방을 잘 봐야 잔칫집 음식이 모자라지 않고 손님들 모두에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과방을 관리하는 과장주인은 동네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글을 하고 수치를 잘 아는 사람을 들였다. 그런데 서당의 아이들이 음식을 더 먹기 위해서 과방에다 단자를 들였다. 이를 과방단자라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지어 오갔다. 가령, "월출고(月出高)-달라고"라고 보내면, 과방에서는 "지주어(池走魚)-못주어"라고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자가 오가면 과방주인이 상을 내어준다. 이런 단자를 신랑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그러면 상각으로 간 사람이 대신 답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현대식 혼례는 아주 다양하지만 예식장에서는 대부분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사회자와 주례가 위치에 서고, 양가의 어머니가 식장에 있는 촛대에 촛불을 켜고, 이어서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예식이 진행된다. 사회자가 개식을 하고, 신랑 입장이 있고, 신부 입장을 한다. 신부 입장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한다. 다음은 주례가 신랑과 신부의 맞절을 시키며 그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말한다. 신랑·신부 혼인서약을 하고, 성혼선언문 낭독을 한다. 신랑·신부 서약 다음에 예물을 교환하기도 한다. 주례는 성혼선언문 낭독을 하면서 혼례가 원만하게 이뤄졌음을 선언한다. 주례는 두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주례사를 한다. 이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하객들에게도 인사를 한다. 이때 주례가 인사에 얽힌 예절을 간단히 말한다. 신랑·신부 퇴장이 있고, 결혼식이 끝났음을 사회가 알린다. 사진촬영을 하고, 폐백을 올리면 결혼식은 끝난다.

4) 혼례식 후 의식

신행(新行)은 혼례식을 마치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의례이다. 홍천에서 조사된 신행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이전에 혼인한 신부는 친정에서 첫날밤을 치르고 며칠 머물고 신행을 떠났다. 1950년대 말부터는 혼례 당일 신행을 떠났다. 이 시기에도 간혹 첫날밤을 친정에서 치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 집 어른들께 인사를 마치면 떠날 채비를 한다. 신부는 식을 치를 때 복장 그대로 가마를 타고 간다. 신부 어머니는 가마 안에 목화를 가득 채운 요강을 넣어준다. 신부는 신행을 떠날 때 미리 준비해둔 혼수를 가지고 간다. 혼수는 집안 형편껏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쓸 식기와 신부가 입을 속옷 가지들, 시집 식구들에게 드릴 버선 등을 준비한다. 혼수를 잘해 가는 경우에는 시아버지께 드릴 방석과 퇴침, 이불 등을 준비한다. 친정에서는 시집에 가서 폐백 드릴 음식을 준비해서 보낸다. 이는 삶은 닭, 밤과 대추 등을 술과 함께 보낸다. 신랑과 신부의 식기에는 찹쌀과 팥과 같은 곡물을 넣어 가는데, 신부가 시집에서 3일 만에 부엌에 나와 밥을 할 때 꺼내서 쓴다.

신랑과 신부 일행이 도착하면 신랑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간다. 신랑이 들어오면 집안 부인들이 신랑을 끌고 굴뚝으로 데려간다. 신랑은 부인들이 시키는 대로 굴뚝에 다리 한쪽을 걸쳐놓고, 바가지에 담긴 국수를 먹어야 한다. 신랑이 장가를 갔다 와서 먹는 국수를 뺏어 먹으면 좋다고 해서 부인들은 신랑이 국수를 먹으려고 할 때 이를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였다. 또 신랑에게 장난을 치느라 국수를 주고는 젓가락으로 두꺼운 나무를 줘서 애를 먹이기도 하였다. 신부의 가마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대문 앞에 짚불을 놓아 가마꾼이 이를 밟고 들어오게도 한다. 신부 가마가 집으로 들어올 때 액땜을 한다고 팥을 가마에 세 번 뿌리거나,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 바가지를 밟아 깨도록 시킨다. 시어머니는 신부가 들어올 때 쳐다보지 않고 장독대에 가서 장독을 끌어안고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신부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자신에게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신부가 방에 들어가 앉을 때는 손이 없는 방위에 앉고, 꿀물을 신부에게 주는데, 미숫물이라 한다. 신부가 이를 몇 모금 마시면 시누이들과 동서들이 나누어 마신다. 신부에게 먹이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동기간에 나누어 먹이는 것은 서로 사이가 좋기를 바라는 것이다. 신부는 가만

히 앉아 있다가 시집에서 차려주는 큰상을 받는다. 큰상은 다시 싸서 신부 집으로 보낸다.

신부는 큰상을 받고 나면 친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사당차례를 올린다. 신랑 집안의 조상께 새 식구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닭과 밤, 대추 등은 신부가 가지고 온 것을 차리고 신랑 집에서 국수를 삶아서 올린다. 나물과 탕도 준비가 되면 올리지만 메와 자반은 올리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절을 하지만 잔은 신부가 올린다.

폐백(幣帛)은 신부가 시부모와 시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올리는 의례이다. 요즘도 신식 예식을 하면서 폐백은 빼지 않는다. 폐백은 전통의례를 따라 행하는데,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 족두리를 하고 폐백을 올린다. 지금은 신부가 시가 어른을 뵙는 예로 하고 있다. 홍천에서는 폐백 음식으로 닭, 편육, 대추, 잠 등을 차려놓는다. 시조부모가 살아 계셔도 시부모가 우선이고, 그다음 친족의 등친(等親)에 따라 행한다. 같은 행렬인 사람들은 따로 하지 않고 함께 도배(都拜)를 하는 풍속이 홍천에는 있다. 폐백을 받는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의 절을 받고 대추를 한 움큼 집어 신부의 옷자락에 던져준다.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습속이다.

첫날밤은 한자로 초야(初夜)라고도 하는 혼인의례이다. 합궁례(合宮禮)라고 한다. 첫날밤은 예전에는 통상 신부 집에서 보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부 집에서 보내기도 하고 신랑 집에서 보내기도 했다. 홍천은 신부 집에서 보내다가 신랑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는 풍속으로 바뀌었다. 요즘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첫날밤의 풍속도 많이 바뀌었다. 첫날밤에는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 벗기기, 신랑상잡기, 신방엿보기 풍속이 전한다.

신방엿보기는 신방지키기라고도 한다. 이런 풍습에는 이유가 있었다. 옛날 백정의 아들이 결혼을 하여 첫날밤을 맞게 되었다. 첫날밤에는 신부의 옷을 벗기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신부의 살가죽을 벗겼다. 신부는 아파도 참으라고 해서 참다가 그만 살가죽을 벗겨져 죽고 말았다. 또 신부를 좋아하던 동네 청년이 신랑에게 신부를 빼앗겼다고 해서 신랑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부터는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신방을 지켰다고 한다.

신랑상잡기는 하는 집도 있고, 하지 않는 집도 있었다. 첫날밤 신방에다 상을 차리는데, 상 위에 올려놓은 식기에다 쌀, 돈, 물, 술, 팥, 콩 등을 넣고 복개를 닫는다. 이때

신랑이 처음 여는 것을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했다. 돈이 든 식기의 복개를 열면 부자로 살 것이고, 술이 든 복개를 열면 술을 잘 먹을 것이라 했다.

신랑은 자리에 들기 전에 신부의 족두리와 옷을 벗겨준다. 신랑은 특히 족두리를 풀어줄 때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족두리를 풀기 위해서는 비녀를 잘 빼야 하는데, 신방에 들기 전에 방법을 듣지 못한 신랑은 꽤 애를 쓴다. 이런 모습을 보며 신방을 지키는 사람들이 놀린다. 족두리를 땅에 떨어뜨리면 첫딸을 낳는다고 한다.

재행(再行)은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 온 지 3일 만에 신부 집으로 가는 혼인의례이다. '근친(覲親)' 또는 '3일 근친'이라고도 한다. 근친은 3일 만에 못 가면 1년 만에 간다는 말이 있다.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 3일이 되는 날 사람을 신랑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 신부 집에서는 재행 온 신랑에게 송편을 먹이면 좋다고 해서 송편을 비롯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한다. 재행을 왔을 때는 마을의 청년들이 신랑을 보기 위해 많이 모인다. 청년들은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면 신랑을 매단다. 이를 '신랑달기' 또는 '동상례(東床禮)'라고 한다. 이 풍속은 조선 때 한문 희곡으로 작성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다. 신랑과 처가 쪽의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기 위한 놀이로 보면 된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행하다가 불상사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신부를 훔쳐간 범인을 잡는다면서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장작으로 치기도 한다. 재판의 형태를 취하고 놀이를 하는데, 나중에 술이며 안주가 그득 나오면 멈추고 함께 즐긴다. 동해안 쪽에서는 신랑달기를 '왁달계'라고 한다.

1년 만에 가는 근친에는 음식을 많이 해서 간다. 혼례를 치른 지 1년이 되어 가을걷이가 끝나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친정으로 근친을 간다. 시댁에서는 근친을 보낼 때 음식을 잘해서 보낸다. 떡과 엿 등을 해서 동구리에 예쁘게 담아 보내고, 버선도 지어서 보낸다. 음식의 양은 집안 형편에 따른다. 근친을 올 때 엿동구리는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엿동구리를 낳았다'고 했다. 딸을 키워서 시집보내면 엿동구리를 받기 때문이었다. 친정에 간 신부는 시어머니가 허락한 기간만 머물고 돌아온다. 근친 온 딸이 돌아갈 때 친정어머니는 딸이 가져온 만큼은 꼭 해서 보낸다. 이를 두고 '사돈네 음식은 공짜가 없다'고 한다.

신식 혼례에는 신혼여행이 있다. 혼례가 끝나고 신랑·신부 둘이 여행을 떠난다. 혼례가 끝나는 당일 여행을 가는 집도 있고, 첫날밤을 보내고 그다음 날 여행을 떠나는

집도 있다. 형편에 따라 여행을 생략하기도 하고, 며칠 후에 떠나기도 한다.

4. 하의례(賀儀禮)

하의례는 축하할 일이 있어서 행하는 의례이다. 보통 수연례(壽宴禮)나 혼인기념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연례에는 환갑, 칠순, 팔순, 고희 등처럼 축하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잔치를 베푸는 의례이다. 환갑이 되면 미리 잔치 준비를 했다. 돼지를 기르면서 '환갑돼지'라 하였는데, 이는 부모님 환갑잔치 때 잡기 위해서 돼지 새끼를 사다가 기르면서 그렇게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국수며 술이며 해 가지고 왔고, 어느 집 환갑잔치가 열린다면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방아를 찧고 두부를 하고 떡을 만들면서 음식을 장만해 주었다. 아주 풍성한 환갑잔치가 이뤄졌다. 당시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환갑만 넘겨도 축하할 만한 나이였다.

요즘은 수연례 잔치가 마을 단위로 크게 행해지지 않고, 가족 단위로 행하고 있다.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연례의 풍속도 바뀌고 있다. 홍천의 모 단체는 연세 많은 회원들의 생일이 되면 소고기와 미역이 든 선물을 보내서 축하하기도 한다. 홍천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점이나 예식장, 또는 마을회관 등의 건물을 빌려서 마을잔치처럼 수연례를 행하는 집이 많았다. 그러나 점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축하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혼인기념일 행사로 회혼례(回婚禮)를 했다. 회혼례는 부부가 혼인을 한 지 환갑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회혼을 기념하여 행하는 의식이다. 회혼의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부부가 다 살아 있어야 행하였다. 회혼례에는 신랑·신부처럼 사모관대를 하고, 족두리를 썼다. 이웃을 모셔 잔치를 베풀며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고 행복한 삶을 빌어드린다.

5. 상장례(喪葬禮)

상장례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이다. 일생의례 가운데 가장 복

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례가 현대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으나, 상장례는 비교적 옛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산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복에서 탈상까지 축문만 하여도 10여 가지가 넘으니 상례의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상례는 절차가 복잡해서 예속을 잘 아는 사람도 『사례편람』과 같은 예서를 가지고 보면서 절차를 따른다. 그리고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마다 다르고, 가가례(家家禮)란 말처럼 집집이 그 예속이 다르게 진행된다. 그 때문에 어디서 누구에게 채록을 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홍천지역에는 아직도 곳집 또는 화채간이라고 하는 상여보관 장소가 마을마다 남아 있다. 요즘은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으나 간혹 집에서 옛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는 집이 있다. 그래서 상여를 메고 선소리꾼의 사설에 맞춰 상두꾼들이 후렴을 맞춰가며 산으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1) 초종(初終)

초종은 초종장사(初終葬事)의 준말로 임종(臨終)에서부터 염습 전까지 해당한다. 홍천을 비롯한 강원도에서는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빨리 집안의 안방으로 모셨다. 이는 객사(客死)를 면하기 위해서였다. 객사를 하게 되면 먼저 간 조상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였다. 객사한 시체는 집 안으로 들이지도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객사에 대한 옛 의미가 없어졌다.

임종(臨終)은 다른 말로 종신(終身)이라 하는데, 사람이 돌아가실 때의 순간에 해당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식들을 모두 불러 임종을 지키게 했다. 임종을 본 자식이라야 내 자식이라 하였다. 임종을 지켜야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했다. 임종을 확인하는 것을 속광(屬纊)이라 하는데, 부드러운 솜을 병자의 코 밑에 놓고 그 솜털의 움직임을 살핀다. 가는 솜털이 움직이고 있으면 숨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솜털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운명한 것으로 알았다.

운명을 하면 시신을 똑바로 눕히고 송판을 등에 대고 간단히 묶는다. 이를 수시(收屍) 또는 소렴(小斂)이라 한다. 홍천에서는 '수세 걷는다'라고 한다. 사람이 운명을 하면 염을 할 때 힘들이지 않게 하려고 수시를 하는데, 송판을 밑에다 깔고 솜으로 입 코 귀 등을 모두 막고 소청이나 삼으로 양손과 양팔을 묶는다. 홍천에서는 송판을 깔

때 송판이 없으면 번지를 깐다. 그리고 송판과 칠성판을 구분한다. 염을 할 때는 송판을 빼고 칠성판을 깐다. 수시를 마치면 병풍 앞에 팥죽을 한 그릇 놓고 팥죽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부정을 풀기 위한 행위이다.

집 안에서 수세를 걷는 동안에 밖에서는 초혼(招魂)을 한다. 초혼은 달리 고복(皐復)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으면 일시 곡을 멈추고 사잣밥을 지어 대문 앞에 내다놓고 초혼을 한다. 초혼은 홍천군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다른 데가 더러 있다. 사잣밥을 짓되 많이 지어 사잣밥으로는 3접시만 쓰고 남은 것은 술을 빚는 지역도 있고, 사잣밥은 특수한 밥이므로 3접시만 짓는 데도 있다. 내면에서는 사잣밥 3접시와 짚신만을 놓고, 서석면에서는 여기에 돈 세 푼을 더 놓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담배 3개비를 놓는 곳도 있다. 초혼하는 사람은 시신을 보지 아니한 외인이 하기도 하고, 집안사람이 하기도 한다. 초혼할 때에는 죽은 사람의 속적삼을 지붕이나 울 위에 올려놓고,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풍암리 모생모공(某生某公) 속적삼 가지고 가시오. 복복복"이라 하고, 내면에서는 속적삼을 올려놓고 "사자 사자 사자 속적삼 가지고 가시오. 복복복"이라고 한다. 이때 죽은 사람의 성명과 생년을 내는 곳도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사잣밥 3접시, 속옷 등의 준비물은 동일하다. 초혼이 끝나면 속적삼은 지붕 위로 던져 올린다. 초혼을 부른 사람은 일이 끝나면 상가(喪家)에 남아 있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지붕 위에 올린 속적삼은 발인 후 내려서 망인의 물건과 함께 태운다.

사자상(使者床)은 초혼을 부를 때 마당 또는 대문 밖에 차려놓는 상이다. 사자상에는 밥 세 접시, 나물 세 접시, 짚신 세 켤레를 상 위에 올린다. 남면 노일리 등에서는 상이 아닌 키(치) 위에 차리며, 동전을 세 개 또는 일곱 개를 놓는다. 짚신은 요즘 없으므로 종이를 접어서 대신하거나 아예 신을 올리지 않는 집도 있다. 사잣밥은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짓는다. 사자상은 초혼이 끝나면 바로 치우거나 발인 후에 치운다. 사자상은 놓았던 자리에 엎거나 길가에 버린다. 이 사잣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한다.

호상(護喪)은 초상 치르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상이 나면 상가에서는 우선 호상을 세운다. 호상은 집안을 잘 알고, 마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주로 세운다. 호상은 부고를 쓰고 알리며, 부고에는 호상의 이름을 적기 때문에 상가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호상의 이름을 보고 문상 오기도 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부고를 직접 들고 가서 전했다. 부고는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대문에서 사람을 불

러 부고임을 알리고 삽짝에 끼운다. 부고를 받은 집에서는 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무엇인가 먹여 보내는 것이 통례였다. 요즘은 부고를 직접 사람을 시켜 보내지는 않는다. 미디어와 통신이 발달되어서 신문을 통해 부고를 알리든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알리기도 한다. 전화를 하거나 전보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구시대의 통신망이 되었다.

부조(扶助)는 상이 났을 때 십시일반 물건이나 돈을 보태주어서 원활하게 일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상가에서 꼭 필요한 의례이다. 마을에서는 보통 유학계 또는 상여계가 있어서 상이 나면 제반 일을 처리한다. 이웃에서는 팥죽을 쑤어서 상가에 주어 성복제 지내기 전까지 먹는다. 요즘은 모두 부조를 돈으로 한다. 겉봉에 부의(賻儀)라 쓰고 이름을 쓴 다음 이름아래에 삼가드림 또는 한자로 근정(謹呈)이라 쓴다.

상가에서 벌을 치고 있으면 벌통에도 상복을 입혀 주어야 한다. 벌통에 거상을 시키는 것은 부고를 낼 때쯤에 한다. 삼베 헝겊을 잘라서 왼새끼로 꼰 짚으로 벌통에다 묶는다. 벌들은 영물이라 주인이 죽고 거성을 입혀주면 몸에 흰 띠를 두르고 나온다. 이를 안 해주면 벌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죽는다고 한다.

2) 염습(殮襲)과 입관(入棺)

염습(殮襲)은 시신을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서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매듭으로 묶어 입관하기 위한 의례이다. 염습을 할 때는 소렴으로 시신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묶었던 것을 풀고 향목(香木)을 우려낸 물로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힌다. 이때 마지막으로 입는 옷은 수의(壽衣)라고 한다. 수의는 회갑연이나 윤달에 만들어두면 오래 산다는 풍습이 있다.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는데, 천은 명주나 삼베를 주로 썼다. 여자의 경우는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화장을 한다. 손톱과 발톱도 깎아서 따로 주머니에 담아 같이 넣었다.

시신을 거두기에 앞서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은 예미쌀이라고도 한다. 반함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입에다 쌀이나 구슬이나 돈을 물려 보내는 의례이다. 홍천에서는 돈을 넣거나 쌀을 불려서 버드나무로 숟가락을 깎아 사자의 입에 떠 넣는다. 반함을 하는 사람은 유복친(有服親)들이 주로 한다. 쌀을 넣을 때는 보통 세 번에 걸쳐서 넣는데, 넣을 때마다 "천석이요, 만석이요, 백만석이요"라고 한다. 숫자는 부르는 사

람 나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쌀과 돈을 함께 넣는 곳도 있다. 돈과 쌀을 넣는 것은 저승 가서 잘 살라는 의미이다. 돈은 보통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허리춤 양옆에 넣어 준다. 돈은 노잣돈이라 하여 저승 갈 때 쓰라고 한다. 인정지(人情紙)는 저승 갈 때 인정 쓰라고 해서 가슴에 넣어준다.

남자의 경우는 적삼 고의 도포 두루마기 버선을 신기고 대님을 치고 손에는 주머니 모양의 시체의 손을 싸는 악수(幄手)를 끼고 얼굴에는 면건(面巾)을 덮는다. 옷을 입힐 때에는 시신에 이불을 덮고 홑이불 네 귀를 당겨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입힌다. 습이 끝나면 교포(絞布)로 시체를 묶는 염을 한다. 이것을 대렴이라 한다. 묶는 곳은 7곳이고 발쪽에서 위로 3곳을 묶고 목 쪽에서 아래로 3곳을 묶은 뒤에 7번째는 시신 한가운데를 묶는다. 묶는 방법은 교포(絞布) 한 자락을 둘로 쪼개어 시체가 잘 싸이게 하고 오른쪽 교포가 위로 왼쪽 교포가 아래로 가게 한다. 매듭을 지어 매지 않고 틀어서 끼우고 남은 천은 다음 가닥 밑에 끼운다.

염습이 끝나면 시신을 관에다 넣는데 이를 입관(入棺)이라 한다. 지금은 관(棺)을 사다 쓰고 있으나 옛날에는 관을 미리 만들기도 하고, 관으로 쓸 재목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임종을 하면 관을 짜서 쓰기도 했다. 또 관 재목으로 쓸 나무를 미리 봐두었다가 초종에 벌목을 하여 관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관을 미리 만들어둘 때는 관에 옻칠을 하여 썩지 않게 한다. 관으로 쓸 재목은 소나무를 주로 쓴다. 요즘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미리 관을 준비했다가 상주와 의논하여 선택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관이 준비되면 시신을 입관한다. 지금(地衾)이라는 홑이불을 관위에 팽팽하게 펼쳐 놓고 거기에 시신을 놓아 입관시킨다. 어깨, 허리, 다리의 빈 곳은 옷이나 종이로 메꾸어 관을 옮겨도 시신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것을 보공(補空)이라 하고 보공이 끝나면 천금(天衾)을 시신 위에 덮고 관 뚜껑을 나무못으로 박는다. 입관할 때 망인을 마지막으로 대하게 되므로, 자녀들은 가장 슬퍼 운다.

입관을 하고 나면 망자가 관직이 있으면 관 위에 관직을 쓰고 없으면 윗 상(上)자를 쓰는데, 홍천에서는 주로 상(上)자를 써서 방위 표시만 하는 사례가 많다. 입관을 하고 나면 명정(銘旌)을 쓰는데, 붉은 천에 분가루를 물에 개어 흰 글씨로 쓴다. 관직이 있으면 관명과 성(姓)을 쓴다. 곧 '某職某貫公之柩(모직모관공지구)'라 쓰고 여자는 같은 천에 관향과 성씨를 쓴다. 이 명정을 상청에 두었다가 장례 때 상여 앞에서 들고

가서 묘를 쓸 때에 관 위에 덮는다.

입관이 끝나면 상막(喪幕)을 만들고 상막에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魂帛)을 모신다. 상막은 제상(祭床)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에 광목 포장을 드리워 개폐가 되게 하고 그곳에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 지금은 사진으로 대치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한지를 여러 겹으로 배하여 20cm 정도의 정방형의 상자를 만들고 상자 한 운데에 '상(上)'이라고 쓴 조그만 표를 단다. 홍천에서는 상장(喪杖)으로 아버지상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상에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쓰고 있다.

장일이 오래되면 관을 방 밖으로 내어 토롱을 한다. 토롱장소는 마당 안이나 밖이나 어느 장소도 상관없으나 그늘이 지고 볕이 잘 안 드는 곳이 좋다. 땅을 조금 파고 관을 넣고 멍석으로 덮는다. 홍천 일부지방에서는 관을 내 올 때에 문 앞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깨고 나온다. 중상일(重喪日)이 들었다고 하면 예방 차원에서 바가지를 깨고 나오기도 한다.

관이 나올 때는 망자가 후생에 무엇이 되어 갔는지를 점치는 행위도 했다. 키 위에 문종이를 깔고 그 위에 재를 놓아 재에 난 자국을 보고 환생 여부를 알았다. 이를 환토(還土) 또는 후생점치기라 한다.

3) 성복(成服)과 문상(問喪)

성복(成服)은 상주들이 복식에 따라 상복을 입는 의례이다. 옛날 장속에서는 3일 성복이라 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성복제를 지내고 상주들이 상복을 입었다. 또 처지에 따라서는 5일 성복도 하였다. 우리의 장속 복제(服制)에는 5등급이 있었다. 복제의 5등급은 친소에 따라 달리 나타내었다. 부모의 삼년상에 입는 거친 베로 입되 아랫도리를 꿰매지 않고 입는 상복인 참최(斬衰), 이년상에 입는 굵은 삼베로 짓된 아래 가를 좁게 꿰매서 입는 상복인 재최(齊衰), 대공친(大功親)의 상사에 9개월간 입는 상복인 대공(大功), 종조부모와 재종형제 등의 상사에 5달 동안 입는 상복인 소공(小功), 삼종형제 등의 상사에 3달 동안 입는 상복인 시마(緦麻)이다. 성복은 이런 유복친의 상복을 다 만들어 상주로서의 복식을 갖춘 뒤에 지낸다. 홍천에서는 복식의 준비가 다 되면 상복을 입기 전에 당내친(堂內親)들이 모두 모여 마당에 멍석을 깔고 초종중(初終中)에 하지 못했던 세수를 하고, 북향(北向) 사배(四拜)를 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당

내친이 함께 절을 하고 친등(親等)에 따라 복제(服制)를 한다.

홍천에서 채록된 '홍천군의 일생의례'(『한국인의 일생의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대부분 사망을 하면 3일 후에 염을 하고, 염을 마치면 곧이어 상주들이 성복을 하였다. 그래서 '삼일성복'이란 말을 흔하게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당일 염을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져서 '당일성복'이라고 한다. 이는 상의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개 5일장의 경우 삼일성복을 하게 되며, 삼일장의 경우 당일성복을 하게 된다. 상복을 거성옷이라고 부른다. 상주들은 성복 전까지 머리를 풀고 있고, 끼니를 먹을 때도 상을 받치지 아니한다.

성복 전까지 남자 상주들은 입고 있던 옷에 두루마기를 하나 걸치고, 건(巾)을 쓴다. 이때 두루마기의 한쪽 팔을 끼우지 않은 채 빼고 있으며, 건도 위를 꿰매지 않은 채 쓴다. 하지만 서면 길곡리 함양여씨 집안에서는 성복 전에 건을 쓰지 않는다. 입관을 마치고 혼백을 접어 지청을 차리면 곧바로 제상을 차린다. 주로 마루나 마당에 제상을 차리는데 집의 구조와 상황을 봐 가며 위치를 정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청 앞에 차리는 것이 맞는다고 여긴다. 성복 제사의 제물은 큰딸, 즉 사위가 차리는 것으로 정성껏 잘 차린다. 제상이 차려지면 마당 가운데에 물동이 하나를 상에 바쳐 놓는다. 그러면 상주들은 물동이의 물로 손을 씻고, 물동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다. 곧이어 서로 맞절을 하고, 동서남북을 돌아가며 절하는데, 이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상주들의 머리를 다시 묶어주고, 상복을 입혀준다. 상주들은 지청에 들어 성복제사를 지낸다. 제를 마치고 나면 포와 잔만 남기고 이외의 제물을 모두 치운다.

상주들은 거성을 입고 상장(喪杖)을 짚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는다. 만약 남자 상주가 장가를 가지 않았으면 건을 쓰지 않고 삼을 섞어 꼰 테를 머리를 두른다. 복인들은 남자의 경우 행전과 건을 쓰고, 여자의 경우 행주치마를 두른다.

한 번 상을 치르며 사용했던 거성옷은 태우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려면 불에 옷을 넘겨 부정을 가시고, 뒤집어서 보관한다.

문상(問喪)은 조문(弔問) 또는 조상(弔喪)이라고 한다. 문상은 남의 상사(喪事)에 슬퍼하는 뜻으로 상주를 찾아보고 위문하는 의례이다. 문상은 성복제가 지나야 할 수 있다. 성복 전에는 원칙적으로 외인(外人)의 조문을 받지 않는다. 옛날 문상의 방법에는 직접 찾아가서 문상을 하는 경우와 편지를 보내어 문상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었다. 편지를 보내는 것을 위소(慰疏)라 하였다. 문상객이 오면 상주는 서서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면 문상객은 영좌(靈座)에 재배를 하고 상주들과 맞절을 한다. 이때 문상객이 간곡한 위로의 말을 하면 상주들은 조문해 주어서 고맙다는 답사를 한다. 문상은 장례 전에 많이 하고 특히 입장일(入葬日), 즉 드장날인 장일(葬日) 전에 많이 한다. 사정이 있으면 장중(葬中) 어느 때도 관계없이 탈상전(脫喪前)에만 하면 예는 다한 것으로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상을 해야 할 사이인데 3년간 한 번도 하지 아니하면 '3년불문(三年不問)'이라 하여 예를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다.

홍천에서는 집안에 결혼이나 회갑일 등의 날짜를 받아 두었거나, 집안에 제사 같은 일이 있으면 문상을 하지 않는다. 집안에서 출산을 하였을 때도 상가에 가지 않는다. 또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을 때도 상가에 가지 않는다. 이런 경사(慶事)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喪家)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문상을 하지 않아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집안의 사정을 모르고 상가에 갔을 때나 부득이하게 상가에 갈 수밖에 없을 때는 부정을 가리거나 집안의 기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날이 지나거나 달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상관없다.

4) 치장(治葬)

치장(治葬)은 매장 및 화장 등의 장례를 행하는 풍속 전반의 의례이다. 집안에서 상여가 나가는 발인(發靷)에서부터 묘지의 묘혈(墓穴)을 파고, 하관(下棺)을 하고, 회토를 다지며 달구질을 하여 성분(成墳)을 하고, 혼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반혼(返魂)의 과정까지를 일컫는다. 치장은 시신을 장지(葬地)까지 운구하여, 무덤을 만드는 산역(山役)까지 행해지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다.

요즘은 대부분 3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치장은 성복이 끝나면서 곧바로 진행된다. 그러나 옛 풍속에는 장일의 기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치장의 날짜도 달랐다. 게다가 장례를 오래도록 하는 것이 예의였던 시절에는 3개월이나 1년 동안 장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장례의 풍속도 매장문화가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화장문화가 더 많아지고 있다. 화장을 하고 나서도 납골당을 만들어서 유골을 모시기도 하고, 수목장이라 하여 나무 밑에다 묻는 경우도 있다. 또 가족묘의 개념으로 선산을 이용하여 매장을 하기도 하나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장례풍속으로 인해 한동안 유행하고 신앙으로까지 발달해 있는 음택풍수(陰宅風水)의 풍속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홍천에서도 상여를 사용하는 곳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마을마다 상여를 보관하는 곳집이나 화채간은 상여계를 중심으로 있으나, 간혹 가다가 상여로 시신을 옮기는 운구행렬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대부분 운구차 또는 영구차라고 하는 자동차로 묘지 가까이 가서 몇 사람이 관을 옮기는 형태로 변했다.

장사 전날을 드장날 또는 입장날이라 한다. 이날은 강원도 일대에서 드장날놀이라는 것을 행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홍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드장날놀이는 찾기 힘들지만, 이날 전(奠)을 들이는 집은 많다. 전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많고, 문한(文翰)이 있는 가문에서는 밤을 새워 전을 드리고, 전 드릴 사람은 차례를 기다렸다. 전은 반드시 음식을 만들어 혼백 앞에 놓고 드린다. 사돈은 물론 그 외의 인척들도 전을 드리고, 망인과 평소에 정의가 두터우면 전을 드린다. 만들어 온 음식을 진설하고 본인이 영좌 앞에 나와 분향하고 잔을 올려 재배한다. 이때 추도문이나 제문을 지어 왔으면 잔을 올리고 제문을 읽는다. 전 드리는 것이 끝나면 음식을 내려놓고 간단히 음복을 한다. 전 드리는 음식은 대개 푸짐하게 만들어 일종의 부조로도 여겼으므로 부의록에도 기록을 한다.

홍천에서는 지관과 산역꾼들이 먼저 장지에 올라가서 묘혈을 판다. 이때 지관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데, 묘혈을 파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고 참파토(斬破土)를 한다. 묘를 쓸 자리보다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산신께 주과포를 차리고 잔을 올려 땅을 다루게 되었으니 놀라지도 노여워하지도 말라고 고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참파토를 한다. 땅을 팔 곳에서 "참파토하오. 참파토하오. 참파토하오"라고 말하면서 괭이로 땅을 세 번 두드린다. 묘혈을 다 파면 그 위에 멍석을 덮어 상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발인(發靷)은 상여가 집에서 떠나는 상장의 의례이다. 발인은 장지의 거리를 생각하여 하관시(下棺時)를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을 가늠하여 출발한다. 토롱에 있던 관을 상여에 올리고 나면 간단히 제물을 차려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를 지내고 발인을

하기 직전 상가에 모인 사람들과 군정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짓는데, 상가의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붉은 팥을 섞는다. 이 밥은 군정들이 묘를 쓰고 돌아가기 전까지 다 먹어야 해서 발인을 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싸 가기도 하였다.

상여의 행렬은 순서가 있다. 맨 앞에는 방상(方相) 두 사람이 선다. 방상은 커다란 가면을 쓰고 큰칼을 들고 행렬 앞에서 칼춤을 추면서 간다. 방상이 칼춤을 추는 것은 잡귀가 상여에 범접하지 말라는 뜻이다. 방상은 장지까지 안내를 하고는 사례를 받고 멀리 달아난다. 방상이 달구질소리를 들으면 죽는다는 속신이 있다. 방상 다음에는 명정(銘旌)이 선다. 명정은 죽은 사람의 관등성명을 쓴 붉은 천이다. 명정 다음에는 혼백을 봉안한 요여(腰輿)라 부르는 작은 가마가 따른다. 그 뒤에는 공포(功布)를 대에 달아 들고 따른다. 공포는 속칭 '수건대'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는 베로 만들며 길이가 1.5m 폭은 베의 전폭을 그대로 쓴다. 공포는 관의 천관을 깨끗이 닦을 때 쓰인다. 다음 만장(輓章)이 따른다. 만장은 생전에 망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추모하면서 쓴 글귀이다. 만장은 장대에 걸어서 아이들이 들고 가도록 했다. 만장이 많을수록 생전에 잘 살았다고 한다. 만장 다음에는 상여가 따른다. 상여 앞에서는 선소리꾼이 요령을 들고 걷거나 상여 위에 타고 선소리를 메기며 상여의 행진을 지휘한다. 후렴은 군정 모두가 받아서 부른다. 홍천에서 상여를 곱게 모시기 위하여 상여 위에 양푼이에 술을 가득 부어놓고 그 술이 쏟아지지 아니하여야 잘 모신다는 습속이 있다. 상여 뒤에는 상주와 복을 입은 모든 이가 따르며, 문상객이 따른다.

상여 행렬이 가다가 노제(路祭)를 지낸다. 노제는 상여행렬이 가는 도중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등이 있으면 인정상 그대로 보낼 수 없어 약간의 주식(酒食)을 만들어 상여 옆에 놓고 분향재배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음식은 상군들이 나누어 먹는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혼백을 임시로 모시는 지청인 설영(設靈)을 만든다. 설영이 되면 혼백을 여기에 모시고, 상주들이 지키며 혹 묘지에서 문상을 하는 조문객을 맞는다.

설영을 마련하고는 하관준비를 한다. 하관을 하기 전에 광중을 다시 한 번 깨끗하게 하고, 지관의 지시에 따라 하관의 절차가 이어진다. 지관은 생시에 따라 하관을 보지 말아야 하는 생을 말해 피하도록 한다. 하관을 보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상문살에 걸리게 된다. 탈관(脫棺)의 여부는 가풍(家風)에 따라 결정된다. 하관은 시(時)를 맞춰서 한다. 하관을 하게 되면 횡대를 까는데 짝을 맞추지 않으며, 시신의

머리에서 다시 발에서 머리로 올라가며 깐다. 마지막 횡대가 깔리기 전에 시신의 위에 폐백을 드린다. 청색과 홍색의 헝겊을 직사각형으로 덮고 그것을 각각 청실홍실을 사용해 동심결로 묶은 것을 시신의 가슴에 올린다. 폐백은 맏상주가 드린다. 맏상주가 물러나면 마지막 횡대를 덮고, 그 위에 명정을 덮고, 맏상주가 취토를 한다. 취토가 끝나면 산역꾼들이 묘를 다지고 봉분을 만든다.

묘를 다질 때는 회토(灰土)를 넣어 다지는 달구질을 한다. 달구질은 시신의 중앙을 표시하는 횟대를 꽂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하면 5~6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을 맞춰가면서 다진다. 홍천에서는 횟대에 새끼줄을 매달아 놓고 인척에게 돈을 끼우라고 한다. 상주들도 돈을 끼우고, 사위들도 끼운다. 새끼줄에 돈을 끼우는 것은 회다지를 잘해달라는 부탁의 뜻이다. 봉분이 다 되면 떼를 입히고, 평토제를 지낸다.

산역이 끝나 평토제를 지내면 상주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이때 상여는 분해하여 가지고 온다. 요여에 혼백을 싣고 돌아오는데, 요여는 반드시 왔던 길을 다시 간다. 왔던 길로 가지 않으면 혼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여겼다. 집에 이르러서는 혼백이 돌아왔다는 뜻에서 혼백을 영좌에 봉안하고 반혼제(返魂祭)를 지낸다.

치장에는 그동안 많은 풍속이 있었다. 가장 많은 치장은 지금까지 기술한 매장풍속이었다. 그리고 화장풍속은 불교를 중심으로 행해왔으나 이제는 묘지의 부족 등으로 일반적인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산간지역에서는 호환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호식장이라는 풍속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병원 같은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는 아이들이 홍역이나 마마와 같은 전염병에 걸려 많이 죽었다. 그러면 애장(兒葬)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무덤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에 올라 시신을 땅에 묻고 솔가지를 올리고 돌을 들어 눌러놓았다. 전염병으로 갑자기 많이 죽으면 덕장을 해서 시체를 올려 두었다가 전염병이 멎으면 무덤을 하였다. 아주 오래전에는 강원도 곳곳에서 조사되듯 고려장 풍속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이 밖에 종교식(불교식, 기독교식, 천주교식, 천도교식) 장례풍속도 더러 볼 수 있다.

5) 우제(虞祭)와 탈상(脫喪)

우제(虞祭)는 세 번에 걸쳐 지내는데, 이를 초우제(初虞祭), 재우제(再虞祭), 삼우제(三虞祭)라 한다. 우제를 지내는 뜻은 망자의 신체를 땅에 묻었으므로 영혼이 홀로 방황

할 것 같아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낸다. 초우제는 산으로 올라갔던 혼백을 모시고 와서 지청에 모시면 바로 지낸다. 이튿날은 재우제를 지내고, 3일이 되는 날에는 삼우제를 지낸다. 삼우제는 집에서 지내고 나서 무덤에 올라가서 다시 지낸다. 이날은 무덤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함께 간다. 삼우제를 지내고 나서 요즘은 탈상(脫喪)을 하는데, 삼우제 때 탈상을 하고 싶으면 무덤에서 탈상 축문을 고한 후에 한다.

졸곡제(卒哭祭)는 곡을 끝낸다는 의미의 제사이다. 보통 삼년상을 마치고 나면 졸곡제를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삼우제를 지내고 다음 날 지내고 있다. 졸곡은 곡을 마친다는 뜻으로 졸곡 전에는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무시곡(無時哭)이라 해서 때가 아니더라도 곡을 했는데, 졸곡제를 지내면 더 이상 곡을 하지 아니한다.

소상(小祥)은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제향의 절차는 졸곡제와 같이 일반 기제사와 같다. 대상(大祥)은 죽은 지 2년 만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과 그 절차가 같다. 소상과 대상은 망인을 기리는 큰 제사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 돌아가신 이를 기린다. 대상을 지낸 후 해일(亥日)이나 정일(丁日)에 담제(禫祭)를 지내는데, 담제는 탈상제(脫喪祭)이다. 담제를 지내고 나면 상주는 완전히 탈상을 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가 민중의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천도의식의 하나인 49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49재는 이승에 있던 영혼이 중음계(中陰界)를 지나서 저승으로 가는 기간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49재를 지내고 있다.

6. 제례(祭禮)

제례(祭禮)는 돌아가신 선조를 추모하고 보은하는 뜻에서 지내는 의례이다. 제례에는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인 묘제(墓祭), 매년 철이 되면 지내는 제사인 시제(時祭) 또는 시향(時享),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지내는 제사인 차례(茶禮), 매년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인 기제(忌祭) 등이 있다. 이런 제사는 요즘도 홍천에서 대부분 행하고 있다.

1) 기제(忌祭)

기제는 해마다 돌아가신 날짜에 지내는 제사의례이다. 돌아가신 날짜를 기일(忌日)이라 하므로 기제(忌祭)라 한다. 이 기제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4대조인 고조(高祖)까지 지내는 것이 통례이다. 4대봉사(四代奉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5대조부터는 기제를 그만하고 시제(時祭)를 지내게 된다.

홍천에서도 기제는 대부분 지내고 있다. 그러나 집집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는 과거처럼 모든 조상의 기제를 챙겨 지내는 일을 어렵게 여기는 집안도 있다. 타지로 나간 자손들이 기제 때문에 써야 하는 시간과 경비를 생각하면 매번 기제를 챙기는 일이 자식들에게 어렵고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제의 횟수가 점차 줄고 있다. 즉 조상 내외의 제사를 남자의 기일에 합쳐 한 번 지내거나, 아예 집안의 기제를 모두 합쳐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조상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긴다.

홍천에서는 대부분 각각의 기일에 제를 올릴 때 내외를 함께 모시고 제를 드렸다. 근래에는 내외의 제사를 합친 집이 많아 한 번에 지내지만 과거에 각각 모실 때에도 지방을 함께 쓰고, 메와 잔을 각각 드렸다. 기제사는 돌아가신 전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지낸다. 제를 지낼 때 지방(紙榜)은 한 장에 내외분을 함께 쓴다. 예전에는 지방을 제상 뒤에 펴놓은 병풍에 붙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신주틀을 장만해놓고 사용하고 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과 방문을 열어놓는데 이때 불을 밝혀놓으면 조상이 찾아오기가 쉽다. 제물의 진설은 가풍에 따르면 된다. 진설을 마치면 분향강신을 하고, 초헌, 축, 아헌, 종헌, 첨작을 드린다. 초헌은 장자가 하고, 아헌은 둘째 아들이, 종헌은 장손이 맡게 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특히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아헌을 새 식구가 드리기도 한다. 제를 마치면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고 음복을 한다.

기제사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많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내지 않는다.

2) 차례(茶禮)

차례는 절식(節食)을 올리는 제사의례이다. 조상님께 차를 올린다고 하여 차례라 했다. 설,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섣달그믐날 등에는 그때의 절식을 제수로 하여 차례를 지냈다. 홍천에서는 설·추석차례는 거의 다 지내고 있으나 다른 차례는 거의 없어졌다. 한식 때에는 산소를 돌보러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섣달그믐제를 지낼 때는 만둣국을 끓여 국차례를 지내고, 설날 아침에는 밥(메)을 올린다. 지금은 섣달그믐제를 지내는 집안이 거의 없어져서 설날아침에는 떡국과 밥을 모두 올리기도 한다. 진설하는 음식은 기제사와 같으나 절식이 더 올라갈 따름이다.

제의 절차는 강신으로 시작된다. 잔에 술을 부어 퇴주 그릇에 쏟고 빈 잔을 다시 올린 뒤 헌관이 재배를 하면 뒤에 모인 참례자들이 모두 재배를 한다. 차례는 단잔(單盞)을 올린다. 단잔재배로 끝나고 따로 축을 고하지는 않는다. 차례가 끝나면,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돌아온다.

3) 시제(時祭)

우리나라의 제례풍속은 고조(高祖)까지의 신위만을 사당에 봉안한다. 그 이상은 제사 지내는 대의 수가 다 된 조상인 친진조(親盡祖)라 불러, 영원히 사당에 모시는 불천위(不遷位)를 제외하고는 가내에서 기일에 봉사하지 아니한다. 대신 일자를 정하여 묘소에서 봉사하는데 이것을 시제(時祭)·시향(時享)·시사(時祀)·전사(奠祀)·묘제(墓祭)라고 한다.

시제는 어떤 가문에서든 1년에 1회에 걸쳐 거의 다 하고 있다. 시기는 봄이나 가을에 날을 택하여 한다. 대부분 가을에 많이 한다. 9월이나 10월에 지내는데, 홍천에서는 10월에 지내는 집이 많다.

제수는 전일에 유사들이 모여 만들거나 위토를 주어서 도지로 제수를 장만하게 하기도 한다. 각 조상의 오래된 시제에는 소도 잡았고, 가문에 재산이 넉넉하면 제수 준비도 많이 한다. 참사(參祀)는 직계만 하지 아니하고 방계도 함께한다. 오래된 집안의 경우는 전사청(奠祀廳)을 지어서 참사자들이 모여 제수를 준비하고 멀리 있는 일족은 와서 유숙도 한다. 전사청에는 선대를 사모한다는 뜻에서 '영모재(永慕齋)' 또는

'모선재(慕先齋)'라 현판을 붙인 곳이 많다. 이 건물을 재실(齋室)이라고 부른다.

당일 묘 앞 상석(床石)에 제수를 진설하고 참사자가 모여 향사(享祀)를 할 때 초헌관은 종손이 되고, 그 외의 헌관은 파별로 유사들이 결정한다. 묘제를 지낼 때는 산신제를 간단하게 지내는 가문이 있다. 이것은 산신이 묘를 잘 보살펴 달라는 뜻이다.

시제가 끝나고 나면 음복을 하고 이어서 문회(門會)가 열린다. 문회는 문중의 대소사와 문중의 재산에 관한 의논을 한다.

4) 생신제(生辰祭)

생신제는 돌아가신 분의 생신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의례이다. 홍천에서 예전에는 생일차례를 다 지냈다. 이제는 옛 풍속대로 4대에 걸쳐 생신제를 봉행하는 가문은 홍천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부모의 생신제는 행하고 있는 가문이 더러 있다.

또 홍천에서는 부모가 회갑연을 못 치르고 사망하면 회갑 때에 생신제를 지내주는 집안도 있었다. 물론 생시의 회갑연 잔치보다는 못하지만 친척을 초청하여 회갑생신제를 행하였다.

5) 무후제(無後祭)

무후제는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을 마을이나 관청에 기부하고 자신의 상장례와 제사를 부탁한 데서 유래한 제의풍속이다. 그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래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무후한 왕자와 공주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무후제는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특별히 강원도에 많다. 무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화촌면의 무후제 축문에 "생이근업(生而勤業) 사후여재희사(死後餘財喜捨) 면민복지(面民福祉)"라 언급했듯이 살아서는 생업에 부지런하고, 죽은 후에 남은 재산을 면민복지를 위해 희사해야 한다. 이 무후제는 어쩌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제의 중의 하나이다.

홍천에서는 무후제를 지내는 곳이 남면, 내면, 내촌면, 동면, 화촌면 등 무려 일곱 군데나 조사되었다. 동면 월운리는 마을 단위로 지내고 있으며, 나머지는 면 단위의 지내고 있다. 내촌면, 화촌면은 무후제각을 지었으며, 다른 면에서는 복지회관 등에

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 면 단위는 면장이 초헌관이 되며, 아헌관은 관내 유지가 하며, 종헌관은 노인회장이 주로 한다. 동면 월운리의 경우는 이장과 반장과 개발위원장 등이 맡아서 헌작을 한다. 월운리는 무후자가 남긴 농토에서 도지를 받아 제물을 장만하고, 각 면에서는 홍천군에서 매년 100만 원 정도씩 제사비용을 주어서 제수를 장만하여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홍천군에서 무후자의 토지를 팔아 썼기 때문이다. 내면의 경우는 무려 7만 평의 토지를 무후자인 '이(김)건국'씨가 기증을 했다.

참가자는 매년 다르지만 대체로 많이 참석할 때는 40~50명은 족히 된다. 제사는 홀기가 있어 홀기에 따르며, 제물은 무후자의 숫자대로 메와 국을 올리고, 갖가지 제물을 푸짐하게 제상에 올린다. 내면의 경우는 돼지를 잡아 제상에 올리며, 그날은 동네의 잔치를 이룰 정도이다.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참가한 사람과 주민들이 모여 음복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진다.

참고문헌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반, 『강원도 홍천군 학술답사보고서』 (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김의숙·이학주, 『강원인의 일생의례』, 민속원, 2005.

김의숙·전상국, 『강원전통문화총서』, 국학자료원, 1997.

김의숙, 「홍천강 및 팔봉산 주변의 민속문화」, 『홍천강과 팔봉산 문화조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299~344쪽.

『민속지』, 강원도, 1989.

오선영, 「홍천군의 일생의례」, 『한국인의 일생의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774~819쪽.

이학주, 『강원도 무후제 조사 연구』,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2007.

이학주, 『아들 낳은 이야기』, 민속원, 2004.

이학주, 『홍천군 동면 노천리 좌운리 스토리텔링과 마을관광박물관』, 금강P&B·(주)농촌엔이티, 2015.

『홍천군지』, 홍천군, 1989.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홍천군·강원문화연구소, 1996.

제3장

세시풍속

1. 1월

1) 설

(1) 차례 지내기

음력 1월 1일 설날 아침에는 떡만둣국을 끓여서 차례를 지낸다. 주민들은 '떡국', 혹은 '만둣국'을 올린다고 말하지만 상세히 물어보면 모두 떡과 만두를 함께 넣어 끓이는 '떡만둣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남쪽지역은 설날 아침 차례상에 떡만 넣어서 끓이는 떡국을 올리고, 북쪽에서는 떡을 넣지 않고 만두만 넣은 순수 만둣국을 끓여서 올린다. 하지만 중부지역에서는 떡과 만두를 모두 넣어서 끓인 떡만둣국을 올리는데 홍천지역도 떡만둣국을 주로 올린다. 주지하다시피 홍천지역은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해 있다.

차례상에는 북어포나 오징어포, 북어찜이나 코다리찜, 찜닭, 돼지고기나 소고기 편, 사과, 배, 밤, 대추, 산적, 부침개, 조기, 꼬치, 삼색나물, 팥시루떡, 증편, 취떡 등을 올린다. 꼬치 재료는 주로 양념한 무와 파, 그리고 돼지고기이다. 홍천지역 차례 음식 특징은 증편과 취떡, 팥시루떡 등을 만들어 먹는다는 점이다. '증편'은 쌀을 빻은 후 이 쌀가루에 막걸리와 이스트를 넣고 밤새 부풀린 후 찐 떡이다. 술떡이라고도 부른다. '취떡'은 보통 단오에 먹는 떡인데 이곳에서는 단오와 설과 추석에 해 먹는 지역이 많다. 대부분 설에 취떡을 만들어 먹지만 차례상에는 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동면이나 두촌면처럼 차례상에 취떡을 올리는 지역도 있다. 팥시루떡, 취떡, 증편은 다른 시군에서는 설에 먹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도 설에 가래떡, 증편, 취떡을 한다. 그 외에 꼬치를 꼭 올린다는 가정도 있고, 고등어를 찐 후 그 위에

고명을 올려서 고등어를 놓는다는 가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등어와 임연수어는 평소 반찬으로 먹지 차례상에는 잘 올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내면 자운리에서는 차례상에 조기와 고등어를 주로 올렸지만 특이하게도 '소고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소'는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올린다. 북어와 함께 마른 오징어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설 차례상에 반드시 소면을 올린다는 독특한 가정도 있다. 이렇듯 차례음식은 가가례이지만 대체적으로 홍천지역 차례상에 올리는 생선은 북어찜과 조기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전에는 설이나 추석같이 큰 명절에는 집에서 돼지도 잡아서 사용했고, 두부는 평소에도 많이 먹지만 설이나 추석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손수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최근에는 젊은 부부들은 설음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특히 교회 다니는 집들도 차례상을 마련하지 않고 추도 기도만 한다.

(2) 성묘하기

설날 아침 차례를 마친 후 성묘를 간다. 성묘는 명절날 조상님들의 묘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면의 많은 지역에서는 설날 아침 성묘를 가지 못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산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현재처럼 자가용도 없었고 또 눈도 많이 왔기에 길을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설날 아침에는 성묘를 갔다. 성묘를 갈 때는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한다. 아침에 푸짐한 음식을 차려서 차례를 지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주와 과일 몇 가지 정도만 준비한다. 포는 가지고 가지 않고 떡은 준비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돗자리와 향도 가지고 간다. 초는 준비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 성묘 차례는 예전에는 한식이나 9월 9일에도 했지만 현재는 설과 추석 때 주로 한다. 술 종류는 예전에는 막걸리를 올렸지만 최근에는 소주를 주로 가지고 간다. 막걸리 냄새를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만두 빚기

만두는 그믐부터 만들기 시작해 정월 초이레까지 계속해서 만든다. 예전에는 대접할

것이 만두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만두가 필요했다. 부녀자들은 그믐날 밤에 만두를 빚느라고 거의 밤을 새웠다. 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세기에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속신이 있는데 여자들은 일부러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만두를 빚고 일을 하느라고 밤을 지새웠다고 할 수 있다. 만두에 들어가는 만두소는 대체적으로 소박하게 넣었다. 최근에는 고기도 넣지만 예전에는 주로 김치를 살짝 씻거나 백짠지를 양념을 새로 해서 넣고, 삶은 무채와, 두부만을 주로 넣고 빚었다. 여유가 좀 있는 집에서는 꿩이나 돼지고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도 잡채니 고기니 이것저것 넣은 만두보다는 김치를 많이 넣은 김치만두가 제일 맛있다는 분들이 많다. 내면에서는 무를 삶아서 소금에 절여 김치를 담그기도 했는데 이것을 직접 만두소에 넣기도 했다. 만두피는 예전에는 메밀을 사용했고 대략 1965년대 이후부터는 밀가루를 이용한 밀가루 피를 사용했다. 메밀 만두피가 밀가루 만두피보다 훨씬 구수하다고 한다. 최근 떡만둣국 국물은 소고기 양지나 사태를 넣고 푹 끓인 물을 사용한다. 멸치 우린 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맹물에다가 만두만 넣어 끓여서 먹었다. 집에서 두부를 만들었기에 두부와 김치가 주재료인 만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믐부터 시작해서 거의 2월 1일까지 틈틈이 만두를 빚어 먹는다. 1월 14일과 1월 15일에는 병아리 만두나 섬 만두를 빚어서 먹는다.

(4) 세배하기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낸 후 부모님들한테 세배를 드린다. 그다음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이웃 어른들에게 세배를 다닌다. 예전에는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마을 어른들한테도 세배를 다녔다. 심지어 서른 살한테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세배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세배를 왔다 갔나를 적어놓고 세배를 오지 않으면 괘씸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설날 아침부터 시작된 세배는 보통 3~4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세배 풍습 때문에 '삼월삼짇날까지 세배를 다닌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내면에서는 집과 집 사이가 최소 500m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보통 정월대보름까지도 세배를 다녔다. 세배를 갈 때는 보통 빈손으로 가지만 연로한 노인이 있는 집에는 만둣국을 끓여서 가기도 한다. 세배를 다니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거의 이웃집에 세배를 가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 여자들이 설 다음 날이나 이틀 후부터 세배를 다니

는 것과는 다르다. 여자들은 자기 집안 어른들한테만 세배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한테나 가까운 친척한테만 세배를 다닌다. 최근 일부 마을에서는 노인분들을 마을회관으로 오시게 해서 떡국을 대접하고 합동 세배를 드리는 곳이 많다.

세배를 받으면 덕담을 하는데 주로, '한 살 더 먹었으니 부지런히 커라', '소출이 많이 나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등의 덕담을 했으며, '장가가라'는 덕담은 본인들이 듣기 싫어해서 잘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중학교 정도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에 '공부 잘해라'라는 덕담은 최근에 생겼다. 세뱃돈은 예전에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주지 않았다. 세뱃돈이 생긴 것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즉 먹고살 만하면서부터 생겼다. 외삼포리 주민 중 한 명은 현재 며느리 둘한테 각각 30만 원을 주고, 손주들한테는 10만 원씩 준다. 친척 아이들까지 주다 보면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한다. 아들들이 설이라며 주는 용돈은 대략 80만 원 정도이다. 최근에는 아무리 어려도 세뱃돈으로 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며, 중고등학교부터는 3만~5만 원 정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어떤 사람은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한테 2만 원 정도씩 준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세뱃돈이 부담되지만 자손들이 보고 배우라고 모두 5만 원씩 주기도 한다. 자제와 손주들이 많아서 가까이에 살고 있는 자제와 손주만 챙겨준다는 사람도 있다. 액수는 각기 다르겠지만 세뱃돈을 주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다.

(5) 토정비결 보기

정월 초하루에는 보통 토정비결을 본다. 그런데 토정비결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줄 아는 것은 아니다. 동네에 한문을 잘 알거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주로 주로 그들이 봐줬다. 세배를 가면 봐주기도 하고, 따로 찾아가서 보기도 하였다. 집안 어른이나 부친이 봐주기도 했다. 보통 1년 신수가 어떻고, 무슨 달을 조심하고, 몇 월이 운수가 좋은가 등을 들을 수 있다. 토정비결을 잘 보는 분들은 농사점도 쳐주었다.

(6) 윷놀이, 널뛰기, 화투

설날 저녁에는 윷놀이를 했다. 윷놀이는 정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했다. 아무 내기

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윷놀이는 내기를 많이 한다. 내기에서 지는 사람은 주로 노래를 부른다. 정초 오후나 며칠 후부터 부녀자들은 자기 집에서 널을 뛰기도 했다. 널판은 소나무를 이용해 자귀로 깎아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가마니를 둘둘 말아서 그 안에 속을 넣고 널판 밑에 괴었다. 보통 2명이 뛴다. 하지만 몰려오는 세배손님들을 대접하느라 하루 종일 바빠서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 눈에 띠면 재수 없다고 해서 시간이 있어도 밖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았다. 여자가 길을 먼저 건너면 재수가 없다거나 여자가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다거나 맨 처음 여자를 보면 재수가 없다거나 하는 금기가 예전에는 보편적이었다. 동네에서 널을 본격적으로 뛰는 시기는 주로 보름을 전후해서이며, 특히 대보름날 널을 많이 뛴다. 최근에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윷놀이와 화투를 하는데 화투는 1년 내내 거의 매일 하는 편이고 윷놀이는 정월 초에 시작하면 2월 중순까지 하는 편이다.

(7) 연싸움

정초부터 아이들은 연날리기를 많이 했는데 연싸움도 했다. 연싸움은 상대방 연줄을 끊는 게임이다. 연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연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왜냐하면 연싸움에서 이겨야 자신의 액이 상대방의 끊어진 연에 실려 날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연줄이 끊어져서 진 사람은 운이 좋지 않다고 여겼다. 연줄은 질겨야 하는데 누에고치에서 뽑은 명주실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여기에다 양초물을 부어서 튼튼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유리를 잘게 빻아서 유리가루를 줄에다 입히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밥풀이나 찹쌀 풀을 실에다 먹이기도 했다. 연은 주로 방패연을 날렸고 연의 살은 싸리나무를 사용한다.

(8) 복조리 달기

정월 초하루 새벽에 복조리를 집집마다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전에는 복조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기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복조리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서 사서 걸어놓았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복조리를 마당에 던져놓고 3일 정도 지나면 복조리 값을 받으러 온다. 대부분은 복조리값을 달라는 대로 주었다. 복조리는 그



2017년 새해맞이 기원제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복조리 안에 돈이나 쌀을 담아놓기도 하고, 복조리를 쌍으로 현관이나 거실에 걸어놓기도 한다. 복조리는 새 복조리가 생길 때까지 1년 내내 걸어 놓는다.

(9) 현재 정월 초하루 새해맞이 행사

현재 홍천읍에서는 정월 초하루 새해맞이 축제를 읍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해맞이를 통해 홍천군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희망찬 의지를 갖고, 군민화합을 통한 새로운 다짐과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산 정상에 모여서 함께 해맞이를 한다. 홍천향교가 주관하며, 행사는 새해맞이 안녕 기원제, 소망기원 풍선 날리기, 홍천군민 떡국 나눔 잔치로 이루어져 있다. 행사 목적은 잊어가는 해맞이 기원제를 널리 알리고, 홍천군의 번영과 홍천군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떡국 나눔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떡국은 보통 600인분 정도 마련하고 음료와 차 등을 준비한다. 정상 집결 시간은 2017년에는 7시 20분이었다. 향교장이 신년 축원 제례를 봉행하면서 시작한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배례를 하고 단체장들의 인사와 덕담이 이어지며 만세삼창으로 끝이 난다. 맨 마지막 행사는 소망기원 풍선 날리기이다.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풍선을 날리면서 새로운 다짐의 계

기를 마련하는 시간이다. 풍선을 모두 날리면 하산해서 떡국을 먹고 귀가하는 것으로 초하루 새해맞이 행사는 끝난다.

2) 정초

(1) 정초십이지일

① 쥐날(子日)

쥐날에는 예전부터 콩을 볶아 먹는 풍습이 있다. 쥐는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축내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자일, 즉 쥐날에 콩을 볶아 먹었다. 그 이유는 콩이 마치 쥐 주둥이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쥐 주둥이를 볶자는 의미에서 콩을 볶아 먹었다. 곡식을 축내는 쥐 주둥이를 뭉개서 곡식을 갉아먹지 못하게 한다는 의도도 있다. 쥐날에는 칼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② 용날(辰日)

예전에는 하수구가 없으니 부엌에서 나오는 물을 마당에다 내다 버렸다. 하지만 용날에는 물을 마당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그날 물을 마당에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오기 때문이다. 만약 용날에 물을 함부로 버리면 한여름 일할 때 소낙비를 많이 맞는다. 또한 그해에 큰물도 난다고 한다. 용날에는 칼질도 하지 않는다. 이날 칼질을 하면 다친다고 한다. 사람도 다치지만 용이 다칠 수 있어서 큰 재난이 일어난다. 따라서 김치 등 칼을 쓸 일이 있으면 전날 다 썰어놓는다.

③ 말날(午日)

말은 상서로운 동물이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하지만 말날에는 주로 장을 담근다. 이날 장을 담그면 맛있고 탈도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말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로 정월달 편한 날에 장을 담는다. 말날에 장을 담지 못하면 삼월 삼짇날에 담근다. 말날은 좋은 날이고 말이 잘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날은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예전에는 말날에도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전날 미리 김치 등을 썰어놓았다.

(2) 산신제 지내기

정월 초정일, 즉 1월 3일에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 있다. 동면 월운리는 정월 초정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월운리 산신제는 두 군데로 분리되어 지내는데 월운리 6반 중 1·2·3·4반을 한 구역으로, 5·6반을 한 구역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산신제를 지낸다. 1·2·3·4반(진평마을) 절골이라는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며, 5·6반(공주터마을)은 공주터라는 곳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이곳 산신제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6·25 전쟁 때 외에는 끊어진 적이 없다.

한 마을인데 왜 두 군데서 지내는가 하면 산줄기, 즉 '샛등이'가 산 밑까지 죽 내려와서 월운리가 2개의 지역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겨서 길이 끊어졌다. 절골 제의는 오전 10~12시 사이에 지낸다. 절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곳에 큰 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에 빈대가 하도 들끓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 폐사되었다고 한다. 공주터는 예전에 공주의 남편인 부마가 살았던 곳이라서 생긴 명칭이다.

진평마을에서는 2018년 첫 정일(양력 2월 18일)에 산신제를 지냈다. 15명이 참석했지만, 소지는 100호 정도를 올리니까 제의 규모는 큰 편이다. 제의 순서는 일단 제관이 감주를 따라놓고 올리고 절을 하고 축을 올린 후 소지를 올린다. 이곳 오음산 산신은 여신이라 술 대신 감주를 올린다. 축문은 이전에는 매년 읽고 태웠지만 현재는 축문을 쓸 사람이 없어서 한 개를 가지고 연도만 바꿔가면서 계속 사용한다. 소지는 이장이 대표로 우선 창호지 한 장으로 된 대통을 먼저 올리고, 그 후 가구 수대로 따로 소지를 올린다. 제의를 지낼 때 의복은 평상복인데, 두 곳 다 같다. 주민 수가 적은 공주터마을의 산신제에는 4명이 참석하였다. 소지는 40여 집이 올렸다.

절골 제당은 집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공주터는 소나무와 제단만 있는 야외에서 지낸다. 이 소나무에 창호지와 북어를 함께 묶어서 매달아놓고 지낸다. 산신제 때는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고 소와 간단한 주과포만 진설한다. 예전에는 수소를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소가죽을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포를 뜬 고기나 머리 등을 올렸는데 몇십 년 전부터는 소머리만 올린다. 현재 공주터 산신제에는 소머리에 밤과 대추를, 절골 산신제에는 소머리에 백설기, 주과포 등을 올린다. 떡은 백설기를 하는데 절골 산신제에만 올린다. 예전에는 3되 3홉을 했는데 현재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넉

넉하게 해서 제의 후에 주민들이 나누어 먹는다.

(3) 입춘축 붙이기

입춘에는 대문에다가 입춘축을 써서 붙인다. '입춘대길/건양다경', '입춘대길/만사형통'과 같이 복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의미의 글을 써서 문에다 붙인다. 예전에는 입춘축을 직접 쓰거나 이웃에 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마련했다. 그러다가 점차 파는 것을 사다가 붙이기도 했다. 마을에서도 경로당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초창기에는 경로당에다 입춘대길이라고 써서 붙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일체 붙이지 않는다.

(4) 보리뿌리 점치기

입춘 때쯤 보리를 뽑아 보고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보리밭에서 보리를 뿌리째 뽑아 봐서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있으면 그해 보리농사는 풍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뿌리가 성성하면 그해 흉년이 든다고 여겼다. 최근에는 보리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다. 대신 인삼밭이 늘고 있다.

3) 대보름

(1) 열나흗날(14일)

① 용물 떠 오기

많은 지역에서 오곡밥 혹은 찰밥을 해 먹기 위해 15일 새벽에 용물을 떠 오는 것과 달리, 홍천에서는 주로 14일 새벽에 용물을 떠 왔다. 용물 뜨기란 대보름 때 아무도 긷지 않은 물을 처음 떠 오는 것을 말한다. 보름날 새벽 우물이나 개울물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어서 그것을 용알이라고 보기에 용물이라고 한 듯하다. 용물(용알)을 떠 오면 그해에는 복도 많이 받고 떡두꺼비같은 아들도 낳는다는 속신이 있다.

보통 14일에 오곡밥을 해먹고 그 오곡밥을 15일까지 먹거나 15에는 주로 만둣국을



화촌면 군업리 똬리. 물동이를 이고 갈 때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머리에 얹는 용도

해 먹는다. 따라서 14일 새벽 1시에 첫닭이 울면 오곡밥을 짓기 위해 용물을 뜨러 나간다. 예전부터 용물을 3군데서 떠서 오곡밥을 해먹으면 잘 산다고 해서 새벽 1시에 3군데 물을 뜨러 다녔다. 화촌면 외삼포리에 사는 주민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이 잘 살지 못하니 3군데 용물을 떠와서 밥을 지으라'고 해서 꼭 그렇게 했다고 한다. 한밤중에 물을 뜨러 다니면 달만 환하지 아무도 없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새벽달이 워낙 환했기 때문이다. 이때 지푸라기를 가지고 가서 우물이나 샘물에 띄워놓고 온다. 모든 동네 사람이 용물을 뜨러 다닌 것은 아니고 다섯 집 정도가 물을 뜨러 다녔다. 용물을 떠야 하기에 14일 날은 잠을 설친다. 어렴풋이 잠들었다가 1시쯤 첫닭이 울면 그 소리에 깼다. 닭은 1시에 울어야 정상이지 3시나 5시에 우는 닭은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 한 군데 가서 용물을 떠다가 집에 와서 부엌에다 놓고, 또 다른 동이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용물을 떠다가 다시 집에 와서 놓고, 또 다른 동이를 가지고 또 다른 우물이나 샘에 가서 용물을 떠 온 다음 세 군데서 골고루 물을 퍼서 밥을 한다. 오곡밥은 6되 정도를 했다. 내촌면 동창리에서는 비나리(비는)하는 무속인들이 보름날 우물이나 샘에 가서 빌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용물을 떠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② 오곡밥 먹기

1월 14일, 즉 열나흗날은 오곡밥을 해 먹는다. 다섯 가지 곡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오곡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 곡식이 다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더 들어가기도 한다. 오곡밥 재료는 주로 찹쌀·콩·수수·조·기장·팥 등이지만 보리농사를 많이 지을 때는 오곡밥에 보리도 들어갔다. 곡식이 마련되는 대로 오곡밥을 했다고 보면 된다. 수수는 메수수가 거의 없고 차수수이기에 차수수를 넣는다. 내면처럼 조농사를 짓지 않은 곳에서는 조를 넣지 못했다.

오곡밥을 많이 해서 보통 그다음 날인 15일까지 먹는다. 오곡밥을 할 때는 싸리나무를 때서 밥을 한다. 싸리나무가 화력이 좋고 연기도 잘 나지 않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가장 흔한 참나무를 땐다. 오곡밥 양이 많아서 잘 익지 않을 때는 무쇠솥 뚜껑

에 새빨갛게 된 숯덩이를 올려놓는다. 솥의 위아래로 열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뜸이 들면서 잘 익는다. 타는 불이 재가 되기 전에 숯불하고 재하고 섞어놓으면 그 상태로 오래간다고 한다. 오곡밥에는 나물 반찬만 먹는다. 호박·가지·취나물·우거지 등 나물을 봄여름에 말려놓은 것을 '묵나물'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것을 삶아 먹는다. 고사리·고비·도라지 등도 많이 해 먹는 반찬이다. 그러나 김치만은 먹지 않는다. 이날 김치를 먹으면 여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할 때 쐐기에 쏘인다는 속신이 있다.

③ 척사대회

14일 날에 척사대회를 하는 지역도 있다. 동면 개운리는 14일 저녁이면 오곡밥으로 저녁을 먹은 후 동네 회관으로 모인다. 동네 사람 전체가 모여 척사대회를 하면서 단합도 다지고 재미있게 논다. 밖에는 모닥불을 크게 해서 놓고 먹을 것도 마련한다. 상품은 상당히 푸짐하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상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한다. 상품은 차 꼭대기에 매달아 놓는데 주로 냄비, 삽, 괭이 등 농기구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비싸지 않은 생필품인데 모든 집에 조그만 것이라도 다 돌아갈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한다. 상을 타지 못해도 경품권을 준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1~3등까지의 상품이 비교적 좋기는 하다. 정월 14일에는 꼭 윷놀이를 한다. 다른 지역은 보통 15일에 척사대회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보름(15일)

① 병아리만두, 섬만두(복만두) 먹기

14일 저녁쯤이나 15일이 되면 대부분 만둣국을 끓여 먹는다. 이 만둣국을 병아리만두, 혹은 섬만두라고 부른다. 만두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만두 모양도 조금 다르다. 대체적으로 14일 날 저녁에 만둣국을 끓여 먹는 것을 병아리만두라고 하고, 15일에 끓여먹는 것을 섬만두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5일에도 '우리 병아리만둣국 끓여 먹자'고 하기 때문이다. 14일 날 끓여먹는 병아리만둣국은 자기 나이 수대로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15일에 끓여먹는 섬만두는 쌀을 담는 가마니인 볏섬모양으로 만두를 빚어 만든다. 만두를 네 귀가 있게끔 모퉁이를 세우고 볏섬 모양인 네모로 만두를 빚어서 섬만두라 한다. 섬만두를 먹으면 그해 복

을 많이 받고 소득도 많이 난다고 한다. 병아리만두는 섬만두보다 조금 적게 만들면서 보통 만두처럼 빚는다. 병아리만두를 먹으면 그해 병아리를 비롯한 가축들이 잘 자란다고 한다. 즉 닭이 병아리를 많이 까고 잘 자란다. 어떤 주민은 병아리만둣국을 끓여먹지 않았어도 닭만 잘 키웠다고 했다.

② 어부식(어부슴, 용왕제)

보름날 새벽에 개울이나 강가에 나와서 용왕한테 밥을 주면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행위를 어부식, 어부슴, 용왕제 등으로 부른다. 물에서 하는 것이기에 산중에 사는 주민들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계곡에서 했다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름날 새벽'이라는 시간적 공통성과 밥·한지·물이 사용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북방면 성동리 주민들도 예전에는 집집마다 거의 다 했다고 기억했고, 3년 전에 만났던 주민은 그때까지 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대보름이면 자손들을 위해서 물가에 가서 기원을 하는데 그 명칭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아들 4명을 포함해서 6명에 대한 기원을 했는데 아들들이 장가를 들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보름날 아침이면 물가에 가서 10명에 대한 기원을 한다고 했다. 보름날 아침 동이 트기 전(5~6시), 흰맵쌀과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한 후 각자 밥그릇에서 한 수저씩 덜은 다음 한지에 싼다. 한지에는 각자 생년월일을 적는다. 글로 써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한지에 밥을 싼 후 물가에 가서 용왕님한테 던지면서 '한 해 신수가 좋게해 달라', '잘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던진다. 성산 앞 강 깊은 곳에 던진다고 한다.

어부식을 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기원을 바라든지, 조그만 소리로 읊든지, 큰 소리로 '어부슴하시오! 어부슴하오!'라고 외쳤든지, 달한테 절하면서 물에다 비는 행위는 모두가 동일하다. '내 자식 조심시키느라고, 물이 무서우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기 밥에서 3숟가락씩 떠서 한지에 싸서 던졌다'고 하기도 한다. 결국 '용왕한테 제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물에 나가도 용왕님이 보살펴서 잘 봐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식과 기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풍요와 안녕을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지역마다 어부슴을 했던 시간은 조금씩 달랐다. 서면 반곡리에서는 대보름날 저녁 때, 자식들을 위해 '어부심'을 했다고 한다. 강가로 가서 일단 떠오른 달한테 절하

며 '어부심'을 한 다음 횃불놀이를 했다. 반면에 북방리와 화촌면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했다. 아예 강가에 음식(밥과 나물)을 차려놓고 절을 한 경우도 있다. 어부식을 하는 주체는 거의 주부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장이 하기도 했다. 굴지리 주민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했다고 하며, 자신도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몇 년 했다고 한다. 성동리 주민도 자신이 직접 한다고 했다.

달과 물, 그리고 여인이 모두 모여서 했던 우리나라 대보름 풍습이 '어부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달과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나 행할 수 있었던 우리의 오래된 대보름 풍습 중 하나이며, 그 기반은 '풍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부럼 깨물기

보름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딱딱한 것을 깨물면서 '부시럼 깨문다'라고 외치는 것을 부럼 깨물기라고 한다. 보통 보름날 새벽이나 아침에 하지만 최근에는 밥을 먹고 경로당에 가서 하기도 한다. 요즈음은 집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경로당에 가서 귀밝이술을 한 잔씩 먹고 부럼도 깨문다. 부럼 깨물기를 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목욕을 자주 못 해서 부스럼이 잘 났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 내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속신 때문이다. 잣이 많이 나는 동네는 잣을, 호도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호도를 이용했지만, 대부분은 볶은 콩을 이용했고, 땅콩이나 강정을 이용하기도 했다.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강냉이는 거끌거려서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④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은 온 가족이 깨물지만 귀밝이술은 남자 어른들만 주로 마신다. 귀밝이술을 마시는 이유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늘 밝으라는 뜻도 있고, 좋은 말을 잘 들으라는 뜻도 있다. 술은 맑은 술을 주로 이용한다. 예전에는 집에서 술을 담그면 탁주가 가라앉으면서 맨 위는 맑은 동동주가 되는데 이것을 약술이라고 해서 떠서 마셨고 그 후에는 정종 같은 맑은 술을 마셨다. 최근에도 귀밝이술은 주로 정종을 이용한다. 경로당에서 하는 경우는 11시나 12시쯤 하게 된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사 온 과일주나 정종을 마시는데, 한 잔보다 많이 마신다.

⑤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위팔기를 한다. 보름날 아침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이웃 사람한테 '~야' 하고 불러서 돌아보거나, '왜?' 하고 대답하면 '내 더위 사 가라' 고 말하는 것을 더위팔기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더위를 팔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더위를 팔면 '왜 나한테 더위를 파냐'며 화를 내고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보통 가족한테는 더위를 팔지 않는다.

⑥ 대추나무 장가보내기

대보름에는 대추나무 장가보내기를 한다. 대추나무 장가보내기는 대추나무 가지에다 돌을 끼워놓는 것을 말한다. 대추나무 사이에 돌을 끼워놓으면 가지가 서로 벌어져서 대추가 잘 열리기 때문이다. 가지 사이에 돌을 키워서 대추열매끼리 서로 부딪치지 않게 해주면서 대추나무 가지를 막대기로 때려서 새싹이 잘 나오게 한다. 이것을 대추나무 장가보내기라고 한다.

⑦ 불덩이로 점치기

보름날 아침밥을 할 때 장작불을 태우다가 불이 빨갛게 붙은 불덩어리 12개를 부뚜막에 죽 꺼내놓고 어떤 것이 식으면서 새까맣게 재가 되나, 어떤 재가 보얗게 꺼지나 하는 것을 보고 가뭄과 홍수를 예측한다. 꺼멓게 숯덩이가 지면 그 숯이 의미하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달을 의미하는 재가 하얗게 재가 생기면 그 달에는 가물다고 예측한다. 불덩이 12개는 12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달에는 가뭄이고 어느 달에는 비가 많이 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직접 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고 시어머니나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많았다.

⑧ 달맞이하기

정월대보름의 큰 행사 중 하나는 '달맞이'이다. 명칭은 '달맞이, 달 보기, 횃불놀이, 망우' 등 다양하고 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지만 달을 신성시해서 달한테 절하면서 비는 마음 및 행위는 모두 동일하다. 이 행위는 결국 풍년(풍요)을 비는 풍습이다. 달맞이를 하는 장소는 산, 언덕, 강가, 자기 잡 마당, 밭 등 다양하다. 하지만 대보름날 보름

달이 떠오를 때 잘살기를 기원하고 안녕을 소원하기 위해 하는 풍습이라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저녁 때 광솔 소나무에 붙을 붙여서 멀리 나가거나 마당에서 불을 켜고 달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몸 건강히 살 수 있게 빌고 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견해가 많았다. 어떤 분은 '아기 낳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 잘 크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장소는 들이나 산, 밭둑, 자기 집 마당 등에서 주로 많이 했지만 강가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강가에 가서 했다.

달맞이할 때 도구는 대부분 삼대인 저릅(겨릅)대를 사용한다. 저릅은 삼대 껍데기를 벗긴 알맹이를 말한다. 이것을 자기 나이 수만큼 묶은 다음 그 위에 관솔나무를 꽂아서 불을 붙인다. 삼나무가 많이 나지 않은 지역인 서면 일부 지역에서는 싸리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삭대를 세우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콩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싸리나무를 베어서 망우리를 묶는데 그곳에 닭똥 사금파리를 넣고 불을 붙여 횃불싸움을 하는데 닭똥과 사금파리가 날아가면 냄새가 지독했다고 한다.

횃불 만드는 재료는 조금씩 달라도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 자기 나이 수만큼 대를 묶은 후 불을 붙이는 형태이다. 이때 어린아이는 주로 부모가 매준다. 한 아이한테 1개씩 마련해준다. 삭대를 묶어서 10cm 간격으로 묶어서 세우고 불을 붙여서 1년 동안 잘되게 해달라고 달을 맞이하면서 빈다. 보통은 1.5~2m 정도의 높이로 만든다. '삭대에도 절을 하고 달님한테도 절을 한다'고도 한다.

독특하게 달맞이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촌 구성포에서는 달이 떠오를 때 자신의 귀를 붙들고 절을 한다. 양쪽 귀를 손으로 감싸 쥐고 올 농사도 잘되고 집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절을 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잘 모른다고 한다. 이렇듯이 달을 보면서 기원하는 달맞이는 거의 모든 동네나 집집마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양식 및 형식이 공존하지만 대보름날 달을 보고 기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된다.

⑨ 횃싸움, 망우리싸움, 돌싸움(석전)

예전에는 정월대보름날 홍천 전 지역에서 횃불싸움과 석전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횃불싸움 끝에는 돌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화촌면 외삼포와 내삼포리는 보

름날 밤에 횃불싸움을 많이 했다. 서로 공격을 하면서 횃불을 서로 던지고 가까이 가서 치기도 했다. 저릅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30cm 정도 되게끔 단을 묶어서 불을 붙여서 서로 싸운다. 30개 정도 저릅을 묶기 때문에 제법 굵다. 연례행사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 1962년까지는 했다. 횃불싸움과 석전에 참가하는 층은 15세 정도부터 40대 정도까지이다. 거의 육탄전이었다. 그러다 보니 눈썹도 태우곤 했다. 이웃끼리 서로 지기 싫어서 용기 있는 사람은 다 참여했다. 어떤 사람들은 불도 댕기지 않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었다. 육탄전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이 저릅에 불을 댕겨서 오면 도망가기 때문에 아주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다. 소소하게 다치는 일은 다반사이다. 마을당 30~40명 정도씩 참여했다.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청소년들이 마을별로 횃불싸움을 했다. 달이 뜰 무렵 산에 올라가 망우리에 불을 붙여 달한테 절을 하며 한 해 소원을 비는 망우리 돌리기를 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타다 남은 망우리를 상대방 마을에 던지는 망우리 싸움을 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해 풍년이 들고 지면 흉년이 든다고 해서 대보름 밤에 치열하게 망우리 싸움을 했다. 동면 성수리에서는 달이 뜰 무렵 동네 뒷동산인 섬무산에 가서 망월을 하고 내려와 하천 앞 동네인 속초리와 횃싸움과 석전을 했다. 대보름날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석전을 하다가 정월대보름 횃싸움으로 막을 내린다.

설날 차례와 세배가 끝나면 성수리 청소년들은 섬무산에 모이고 속초리 청소년들은 두리봉에 모여 서로 '술령' 또는 '술령수'를 건다. 술령은 상대방에게 도전을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모였던 소년들이 제창을 하는 것이다. 내용은 "자음노도령 나오셨다. 속초 쫄쫄이들 나오라 일러라"라고 하면 상대는 "덕고개 쫄쫄이 나오너라 여기 노도령 나와 계신다"라고 대꾸하면서 서로 외치다가 냇가까지 나와 성수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돌을 던져 석전을 시작한다. 정초부터 이러한 석전이 계속되다가 대보름에 횃싸움으로 끝이 난다. 횃불을 상대방 마을로 던지는 것은 액을 던지는 것이므로 서로 홰를 던져서 자기 마을의 액을 상대방에게 던지고자 했다. 또한 횃불을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도 액을 던진다는 의미로 많이 던진다. 부상자도 생기지만 이 싸움에서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해서 격렬하게 싸운다. 일제강점기 때 금지되었다.

북방면에서도 횃불놀와 석전놀이를 했고, 두천면에서도 횃싸움을 많이 했다. 두천

면에서는 횃싸움뿐만 아니라 줄다리기도 많이 했다. 보름날 저녁에 마을별로 횃불싸움을 할 때는 주로 증골과 지금골이 싸웠다. 보름날 밤에 어떤 마을이든지 저릅을 약 3m 정도 해서 불을 붙여서 인근 마을 산에 올라가 먼저 '덤벼라'라고 으르면 상대방도 올라와서 싸우게 된다. 싸우다 보면 감정들이 서로 상해서 싸우다 싸우다 못해 산에서 내려와 학교 운동장에서도 싸웠다. 대장을 '장수'라고 불렀는데 덩치가 큰 사람을 선택해서 장수로 삼았다. 마을별로 20~30명 정도 모여서 싸운다. 싸우다 보면 돌도 던지고 또 서로 달라붙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육탄전으로 발전한다. 싸우다가 힘이 달리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 지는 것이다. 싸우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싸움이 모두 끝나면 불붙은 저릅대를 발로 밟아서 불을 끈다.

⑩ 망우리 돌리기

망우리 돌리기는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관솔가지를 넣고 깡통에 실을 매달아서 빙빙 돌리면서 노는 것을 말한다. 불이 타고 있는 깡통을 돌리면서 '망우리야', 혹은 '망월이야'라고 외치기도 한다. 망우리를 돌리다가 서로 던지기도 하고 멀리 던지기도 한다. 공중에다 높이 던지기도 한다. 망우리를 던지다가 혹 이웃집 짚단이나 담 등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모두 달려들어서 재빨리 끄기 때문에 큰 불은 나지 않는다. 혹 망우리 놀이를 하다가 이웃집에 약간 손실을 끼쳐도 크게 나무라지 않고 넘어갔다. 망우리를 돌리면서 달한테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했다. 머리칼이나 눈썹을 태우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⑪ 액막이하기

보름날 밤에는 액막이도 많이 했다. 북방면 굴지리에서는 보름날 저녁에 자신들의 옷에 있는 동정을 뜯어서 태웠다. 원래 동정은 때가 타면 뜯어버리고 다시 달아야 하는데 새 동정으로 갈고 난 묵은 동정을 태우는 것이다. 동정이 타면서 나쁜 기운이나 액 같이 나쁜 것들이 모두 소멸되기를 기원한다. 불이나 달빛이 정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내재해 있는 풍습인 듯하다. 북방면 성동리에서는 보름날 밤에 용왕한테 액막이한다는 의미로 런닝구(러닝셔츠)를 하나씩 가져다가 불에 태우기도 했다. 나쁜 기운을 용왕이 다 소멸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동정이나 러닝셔츠나 거의 같은 의미인 듯하다. 저고리를 입을 시절에는 동정을 뜯어서 태웠고 러닝셔츠를 입었을 후대에는

러닝셔츠를 태운 것이 아닌가 한다. 액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미는 동일하다.

⑫ 달보고 점치기

정월대보름날 밤에는 달의 크기와 색깔, 좀생이와의 관계를 보고 점을 치는 등 풍흉을 점치곤 했다. 달이 희끄무레하고 크기가 크면 장마가 진다거나 달이 아주 붉은색이면 가물어서 풍년이 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북두칠성이 대보름달과 가까우면 그해 흉년이 들고 거리가 멀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좀생이가 달의 뒤를 따라가면 배가 고파서 뒤에 따라간다고 해서 흉년이 든다고 하고, 좀생이가 달의 앞에 가면 배가 부르니까 달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여 풍년이 든다고도 한다.

⑬ 현재 대보름 불놀이 및 윷놀이 행사

오늘날에도 대보름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논다. 척사대회 등을 하면서 흥겹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척사대회는 14일 보름 전야제부터 대보름날까지 이어진다.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논다. 14일 아침에는 오곡밥을 해서 먹고, 낮에는 모여서 약주도 먹고 윷도 치고 다양하게 논다. 이것을 척사대회라고 한다. 화촌면에서는 15일에 지신밟기도 하고 척사대회를 하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고 사물놀이도 하면서 흥겹게 논다. 동면 월운리는 경제적 이유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도 격년제로 한다. 보통 척사대회에는 윷놀이를 많이 한다. 상품을 걸고 하기에 더 많이 참여한다.

⑭ 홍천읍 정월대보름 행사

홍천읍에서는 홍천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한다. 대보름날 저녁 4시부터 홍천강 둔치에서 시작한다. 대보름 행사 제의로 시작한다. 초헌관은 군수가 맡는다. 이후 중헌과 종헌을 거쳐 배례를 하고 음복하면서 끝이 난다.



2018년 정월대보름 행사

보통 500~600명 정도 모인다. 대보름 음식이 마련되는데, 오곡밥과 각종 나물 등과 귀밝이술인 막걸리와 떡국까지 제공된다. 오후 4시~밤 9시 정도까지 진행한다. 제기차기, 윷

놀이, 풍물놀이, 공연 등이 진행된다. 윷놀이는 5명씩 팀을 짜서 내기를 한다. 1등이 4만~5만 원, 6등은 15,000원 정도의 상품을 받는데, 주로 그릇이다. 어느 정도 밤이 깊어지면 달집태우기를 한다. 4~5m의 짚으로 달집을 만들고 소원종이를 각자 끼운다. 기관장들이 달집을 둘러싸고 빙 둘러서서 기름 방망이에 불을 붙여서 달집에 옮기면 순식간에 불이 타오른다. 달집은 거의 2시간 정도 탄다. 초대가수도 부른다. 풍물패가 흥을 돋우기도 한다. 또한 강강술래도 하면서 홍천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다짐한다.

⑮ 지신밟기

지신밟기는 현재는 대부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전에는 워낙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농악대도 없었고 지신밟기도 하지 않다가 먹고살기가 좋아진 최근에 하는 마을도 생겼다. 화촌면에서는 최근 농악대를 만들어서 15일 날 지신밟기를 다닌다. 20~30명의 농악대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흥겹게 놀아준다. 지신 밟히는 집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술을 권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축원과 안녕을 빌어준다. 싫어하는 집에는 가지 않는다.

⑶ 귀신달갠 날

① 14일 귀신달갠 날

귀신달갠 날은 16일로 알려져 있는데 답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을은 14일이 귀신달갠 날이라고 하면서 이날 귀신이 오는 날로 알고 있다. 착각하는 경우는 아니다. 화촌면 내삼포리도 14일에 귀신달갠 날을 지냈다고 한다. 지내는 방법은 그날 신발을 감추거나 엎어놓고 체를 대문에 걸어 놓는다고 하는 등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의 방재를 하고 있었다. 독특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신발을 들여놓거나 엎어놓는 것은 동일하지만 대문에다가 체를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엄나무를 찍어다가 대문 앞에 X자로 붙들어 맨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엄나무가 귀신을 쫓기 때문이다. 이 엄나무를 대문 위에 1년 내내 놓는 사람도 있고, 14일에 붙들어 맸다가 그다음 날 철거하기도 한다.

② 16일 귀신달갠 날 밤새기, 신발 감추기, 체 걸어놓기

정월 16일은 귀신을 달랜다는 날(귀신달갠 날)이다. 그러나 '닭의 귀신 날'이라는 사람도 있고, '달긔 귀신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이날은 귀신이나 도깨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날이다.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 신발을 신어본다고 한다. 따라서 귀신이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게 신발을 엎어놓거나 방 안에다 갖다 놓는다. 만약 신발을 감추지 않아서 귀신이 신발을 신어본다면 그 신 임자는 시름시름 앓거나 명이 짧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부분 체를 이용한다. 체는 구멍이 많은데 이것을 대문이나 집 입구에 걸어놓으면 귀신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체 구멍을 세게 된다. 체 구멍을 세다가 첫 닭이 울면 그냥 간다고 한다. 이때 체만 걸어 놓는다는 집도 있고, 체에다 바늘을 꽂아 놓는다는 집도 있으며, 체에다 바늘과 실을 같이 꽂아 놓는다는 집도 있다. 이렇게 방재를 해놓고 이날은 밤을 새워야 한다. 만약 이날 밤에 잠을 잔다면 머리와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속신이 있다.

③ 목화씨 태우기, 잿불 해놓기

16일 귀신달갠 날에는 귀신을 쫓기 위해 잿불을 해놓기도 한다. 잿불에는 목화씨를 태우기도 하고, 메밀 속을 태우기도 하며, 수숫대를 태운 찌꺼기 같은 것을 태우기도 한다. 잿불을 해놓는 장소는 체 옆이다. 귀신이 타는 냄새를 맡고 도망을 가라는 의미이다. 목화씨를 태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4) 1월 중

(1) 굴뚝으로 다니지 않기

'정초에 길을 가는데 여자들이 길을 가로질러 다니면 재수가 없다. 남의 굴뚝 있는 데를 먼저 가도 좋지 않다. 장사가 나서 상여가 나갈 때 남의 집 굴뚝 앞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다. 굴뚝이 있으면 앞으로는 못 가고 골목길을 돌아서 나갔다. 산소에도 가면 지름길이라도 산소 뒤 봉우리로는 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다녔다'는 등 가리는 것이 많았다. 특히 이러한 금기가 많았다.

(2) 해 물리기

해(害) 물리기는 정초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거나 식구들이 아프면 아무 때나 한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액을 물리치기 위해 하는데, 이때 밥 3접시와 나물 1접시를 마련해서 한다. 밥을 3접시 하는 이유는 사자(저승사자)가 3명이기에 그렇다. 1접시에 쌀 3홉씩 해서 3접시이기에 쌀이 모두 9홉이 들어간다. 나물은 1접시를 마련하는데 북어대가리를 함께 놓는 집도 있다. 이 음식을 길가에 갖다 놓거나 집 마당 끝에다 놓고 점쟁이를 데려다가 빈다. 점쟁이가 없을 경우는 가족이 빈다. 그렇게 끝내는 집도 있고 의식이 다 끝난 후 식칼을 멀리 던지는 집도 있다. 칼날이 바깥을 향하면 액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끝내지만 칼끝이 집 안쪽을 향하면 아직도 액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칼날이 바깥쪽을 향할 때까지 빌고 던지기를 반복한다.

(3) 지신제사, 텃고사, 안택고사 지내기

지신제사나 텃고사, 안택고사를 지내는 것은 예전에는 보편적인 일이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성격의 고사이다. 지금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마을별로 서너 집 정도는 하고 있는 듯하다. 이 고사들은 정해진 날은 없지만 대부분 세시 날 적당한 때를 골라서 한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점복을 하는 사람한테 택일을 받는다. 정월대보름, 2월 1일, 삼짇날, 4월 초파일, 중구절, 10월 상달, 동지 등에 주로 한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추수가 끝난 후 하는 10월 상달 텃고사나 지신제, 안택고사이다.

내촌면, 동면, 내면, 남면 등을 비롯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집들이 있다. 화촌면 내삼포리에도 아직 서너 집 정도가 텃고사를 지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신제사라고 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집은 정월대보름에 지내고 있다. 원래는 동짓달에 지냈는데 새 집을 지을 때 기둥 세웠던 날이 마침 보름이라 그때부터 보름으로 옮겨서 지낸다. 집 안 방에다가 메하고 과일만 놓고 빈다. 평생 남편하고 같이 지냈는데,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는 아들하고 같이 지낸다. 원래는 시어머니가 지내다가 아들인 남편이 그 뒤를 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뜨자 자신이 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그만하라고 자꾸 권하지만 자신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고 했다. 떡은 팥시루떡을 한다. 서너 말을

해서 제사를 지낸 후엔 이웃에 돌린다. 내면 자운리에서는 얼마 전까지 대보름에 텃고사를 지낸 집도 있었다. 부엌에 떡시루를 놓고 상량에 북어와 한지를 실로 감아서 놓고 지냈다고 한다. 보름 전후에 곳곳에서 텃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4) 거리 치성, 성황제, 산신제

정월대보름에 거리제나 성황제, 산신제를 지내는 곳은 여러 군데였다. 하지만 현재는 삼짇날이나 중구절로 옮겨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창마을이나 수하리 절골, 동막골 등이 동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정월대보름에 제의를 지냈다. 이때에는 백설기 떡시루를 올린다. 동창마을 남산 지당골 산신제도 매년 정월대보름에 제의를 지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는 지내지 않고 개인이 와서 치성을 드리고 있다. 가루개 서낭당도 예전에는 서낭당에 철마를 안치해놓고 제의를 지냈다. 철마가 서낭신을 태우고 다니고 또 나그네들을 괴롭히는 호랑이를 쫓아주었다고 한다. 말이 서낭신의 교통수단으로 존재하다가 신격화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 마을 공동체와 가족구성원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었다. 여기에도 정월 초사흗날 담근 술과 돼지머리, 시루떡 등 음식을 마련하여 마을의 안녕과 번영, 풍년, 개인의 건강 등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렸다. 현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제의를 지내지 않는다. 절골 거리제는 아직도 지내고 있다.

2. 2월

1) 일꾼 날

예부터 2월 1일은 '일꾼 날'이라고 해서 동네 일꾼들이 모여서 먹고 논다. 이날은 떡과 술과 음식을 해 먹으면서 논다. 시루떡을 주로 해 먹지만 북방면 하화계리에서는 이날 꼭 송편을 해 먹었다. 이날은 머슴을 대우하는 날이어서 머슴한테 옷을 한 벌 해주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면서 놀렸다. 보통은 시루떡이나 찰떡을 집에서 쳐서 해 먹었다. 물론 주인에 따라서 대접받는 것이 달랐다. 한편 일꾼 날

에는 또한 나무 아홉 짐을 해 와야 좋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나무 아홉 짐을 해 오지는 않는다.

예전에 동면 개운리는 마을이 돌무지 밭이었다. 그래서 명칭이 돌무루마을이 되었다. 당연히 쌀이 아주 귀했다. 1970년대 말까지도 쌀이 아주 귀했지만 2월 1일 날은 쌀밥을 해서 실컷 먹으면서 논다. 왜냐하면 2월 1일이 지나면 농사일을 해야 해서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날 경로당에 모여서 논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 경로당에 모여서 논다.

2) 거리제 지내기

2월 1일 거리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서석면 검산2리에서 거리제를 지내게 된 유래도 있다. 예전에 개울 근처에 젊은 과부가 살았는데 개울에 다리가 없어서 불편해했다. 징검다리를 놓으면 장마에 떠내려가곤 했기 때문이다. 과부가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산을 모두 희사하면서 흙다리를 놓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제사도 지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대상이 여성이라 수캐를 잡아서 재물로 쓴다. 치성을 한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신탕을 나누어 먹는다.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날은 사람들이 자기 그릇을 가지고 모인다.



서석면 검산2리 '거리제' 지내던 장소

이곳의 거리제는 동네 입구에서 개를 잡아서 부정을 피우면서 모든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마을이 잘되라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느 잡귀가 들어오지 않게 지낸다는 것이다. 부정을 피우면 모든 잡귀가 못 들어오기 때문이다. 개피를 훅훅 뿌려놓기도 한다. 개를 사올 때는 깎지 않고 산다. 마을 다리 앞에 팥시루떡을 갖다 놓고 개고기도 건져놓고 밥을 놓고 절을 하면서 '이 동네 잡귀 들어오지 말라'고 축원을 드린 다음 각 집마다 하나씩 소지를 올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곳에서는 이 의식을 거리제사라고 부른다. 꼭 2월 1일 일꾼 날에 지낸다.

3. 3월

1) 삼짇날

(1) 장 담그기

정월 초승인 말날에 장을 담그지 못했으면 보통 삼월 삼짇날 장을 담근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왔다. 최근에는 말날을 따지지 않고 정월 초쯤 좋은 날 담근다. 장은 보통 메주를 빻아다가 길금가루를 끓여서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서 보릿가루와 버무려 담그면 된다. 최근에는 약간 들큼하게 담근다. 장을 담근 후에는 고춧가루 씨를 벌레가 꼬이지 말라고 장 위에 덮어놓는다. 만약 장맛이 시큼한 것이 맛이 좋지 않으면 북어를 사다가 장 위에다 거꾸로 꽂아놓는다. 그러면 장맛이 조금 좋아진다.

(2) 서낭제 지내기

현재 삼월 삼짇날 서낭제를 지내는 곳은 많다. 그러나 원래부터 삼월 삼짇날에 지내지 않고 원래 다른 날인데 이날로 옮겨서 지내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초나 대보름에 지내면 날이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화촌면 내삼포리도 원래는 정월대보름에 지냈지만 2000년대부터 3월 3일로 옮겨서 지내고 있다. 날을 받았는데 3월 3일이 좋다고 해서 현재는 이날을 붙박이로 정해서 지내고 있다.

서낭당 내부에는 '성황신위'라고 적혀 있다. 평상시에도 이곳에 외지사람들까지 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빌고 간다. 서낭제 지낼 때 도포를 입는데 10벌을 마련해 놓았다. 이장이 초헌관, 노인회장이 아헌관이다. 최근에는 기관장들도 참여하는 편이다. 서낭당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허술한 것이 비나 맞지 않을 정도였다. 이것을 다시 지어서 지금은 깨끗하다. 2018년에는 50여 명이 모여서 지냈다. 이장이 동네 잘되라고 하면서 소지를 올린 후 반별로 가구 소지를 올린다. 4개 반인데 가장들 이름을 다 부른다. 이전에는 각각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약소화한 것이다. 기관장들도 오니까 너무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반장이 가장들 이름을 죽 부르면서 빨리 진행한다. 그 후에 개인이 또 잔을 드리고 절을 한다. 잔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놓는다. 법은 없지만

다 그렇게 한다. 금줄은 제의 일주일 전에 도가 집에다 건다. 도가는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 한다. 술은 예전에는 빚었지만 현재는 막걸리를 사 온다. 돼지머리는 설삶아서 올리는데 수퇘지나 암퇘지를 가리지는 않는다. 주과포도 올리고 떡은 백설기를 올린다. 예전에는 서낭제를 오후 5시에 했는데 현재는 오후 3시에 한다. 제의가 끝난 후에 돼지머리 곰국을 끓여서 다 같이 저녁으로 먹는다. 가기 싫은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대부분 떡 먹으러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편이다.

서석면 수하리 바깥절골에서는 마을 제의를 성황제라고 부르는데, 이곳 성황 제사도 삼월 삼짇날 한다. 이곳에서는 밥 한 되, 백설기 떡 세 되 반, 북어찜, 무채, 돼지머리 소머리 대신 북어찜을 아홉 마리 찜을 해서 놓고 제의를 지낸다. 음식을 할 때는 홀수로 하는데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술은 소주를 사용한다. 이곳에는 지당과 성황당이 있다. 지당은 여신이고 성황당은 남신이다. 지당과 성황당이 아래, 위로 붙어 있는데 위에 있는 지당에서 먼저 지내고 그다음 성황당 제의를 지낸다. 예전부터 그래왔기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 2018년에는 5집이 모여서 지냈다. 11가구 중에 늘 5집만 지낸다. 지당 제의는 간단히 지내는데 포와 소주만 놓고 지낸다. 성황제는 돼지머리, 주과포, 떡 등을 놓고 지낸다. 예전에는 소를 잡았다고 한다. 도가 집은 5가구가 돌아가면서 한다. 예전에는 아침 7시에 지냈지만 요즈음은 9시에 지낸다. 이곳도 원래는 정월대보름에 하다가 3월 3일로 옮긴 지는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3) 아기 머리 깎아주기

삼월 삼짇날에는 아기 머리를 깎아준다. 아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를 '배냇머리'라고 하는데, 이날 깎아주면 머리도 더 새카맣게 나고 또 장수한다고 한다. '배꼽칼'을 이용하여 머리를 깎는데 꼼꼼하지 않고 엉성하게 깎여서 보기에 예쁘진 않다. 보통 태어나서 한 돌 되기 전에 머리를 깎아준다. 큰아이는 아기 때 머리 숱이 워낙 없고 대머리라 머리를 깎아주지 않아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냥 길러 주었다는 사람도 있다.

2) 3월 중

(1) 나비 점치기

3월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나비도 처음 나오고 벌도 나온다. 예전에는 나비가 정말 많았는데 점차 나비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매미 소리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봄이 되어 처음 보는 나비를 보고 그해 운을 점쳤다. 3월 처음 보는 나비가 호랑나비면 그해 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은 노랑나비이다. 처음 노랑나비를 보아도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흰나비는 가장 별로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처음 흰나비를 보면 상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최근 호랑나비, 노랑나비는 흰나비보다 더 보기 힘들다.

4. 4월

1) 초파일

4월 초파일에는 보통 절에 가서 등에 초를 켜놓고 식구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산사에서는 이날 운 맞이 기원을 하며 명을 빌어준다. 그 외에 기념법회, 연등놀이, 관등놀이, 방생, 탑돌이 등도 한다. 무녀들은 보통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한다. 예전에는 4월 초파일이면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창꽃(진달래의 방언)을 따서 전을 부쳐 먹고 하루 놀다가 왔다. 화전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때는 진달래라는 말이 없었고 모두 창꽃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이날 못자리를 마련하면서 모심기를 준비하기도 한다. 서면에서는 3~4월쯤이면 강에 '말풀'이라는 것이 났는데, 이날 말풀을 건져다가 깨끗하게 골라서 말려서, 기름을 넣고 묻혀 먹고, 튀겨 먹고, 죽도 쑤어 먹었다고 한다.

2) 청명 한식

한식은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다. 나라에서는 종묘 제향을 지냈고, 관리들에

게는 성묘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으며, 민가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돌보는 등 크게 지냈던 세시풍속이다. 최근에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식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다.

동창마을에서는 한식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덤에 잔디를 입히는 일을 한다. 겨울에 죽었던 잔디 떼를 입히는 작업을 한식날 하는 것이다. 잔디를 입힌 후에는 산신제를 드린다.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은 아니고 간단히 과일과 술만 한 잔 놓고 산신한테 고하는 정도이다. 보통 마을 사람들 10~20명 정도가 모여서 떼를 입힌다. 그러나 예전에는 가정형편에 따라 한식 제사를 다르게 지냈다. 이를테면 문중이나 개인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소작인들한테 대여해 주는데 그 조건이 한식 제사와 9월 9일 제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한식과 9월 9일 중구절이 되면 차례음식을 차려놓는다. 그러면 주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한식 제사나 중구절 제사를 지낸다. 따라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한식 제사나 중구절 제사는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산에 가서 벌초를 하고 간단하게 한식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데 양력으로는 대개 4월 5일경이다. 절기상 한식은 청명과 대개 하루 사이이기에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매일반'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전해온다. 한식에는 찬밥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1) 이장하기, 사초하기

한식에는 사초를 했다. 현재에도 한식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덤에 떼를 입히고 간단히 산신제를 지내듯이 예전에는 묘에 가서 풀을 정리하거나 무덤 흙을 보강하거나 떼가 죽었으면 산에 가서 떼를 캐다가 입히기도 했다. 또한 이날은 이장을 하기도 했다. 한식에는 모든 귀신들이 쉬는 날로 조상의 묘에 사토를 하거나 이장을 해도 탈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집인 묘를 건들어도 무탈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날 묘에 가서 떼도 입히고 주변을 정돈하며 이장할 일이 생기면 이장도 한다. 절기로 봐서도 이때 이장을 하면 봉분에 심은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3) 4월 중

(1) 논 거름 만들기, 갈 꺾기

음력 4월은 농사를 짓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 논에 들어갈 거름은 산에 가서 갈나무 싹을 뜯어다가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 때나 꺾을 수는 없다. 4월에 정부에서 갈영을 내리면 그때 비로소 산에 들어가서 갈나무를 꺾을 수 있다. 참나무 잎이 갈이다. 논에다가 갈나무를 바로 넣어서 거름을 만들어야 해서 아주 보드라운 새순을 30cm 정도로 꺾어 온다. 아침 일찍 산에 가서 꺾어 놓았다가 마른 다음 가지고 와서 논에 직접 펴서 갈고 써레질을 하고 삶고 해서 흙하고 섞은 다음 그 위에 모를 심는다. 밤꽃 필대까지 모내기를 한다. 거의 7월까지 한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기도 한다. 원래는 6월 30일까지는 심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6·30 작전이라고 부르며 정부에서 모심기를 독려할 때도 있었다. 이삭을 팬 것을 가져다가 심기도 했다. 서석면 검산리에서는 참나무가 아니라 버드나무 가지 순을 따다가 논에 넣었다. 버드나무는 개울가에 주로 있기 때문에 개울에 가서 30cm 정도로 베어 묶어서 논에 깔아놓고 흙하고 섞어놓으면 이것이 썩으면서 벼가 잘 자란다.

(2) 밭 거름 만들기

논 거름이 갈이나 버드나무 가지 순을 꺾어다 만든 것이라면, 밭 거름은 재와 똥오줌을 섞어서 썩히거나 이것을 태운 것이다. 예전에는 나무로 불을 때서 남은 재를 돌 2개를 만든 다음 그 뒤에다 재를 쏟아놓았다. 즉 화장실에 돌 두 개와 재가 있는 구조이다. 사람들이 거기서 볼일을 보면 이것을 재와 섞어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를 말리고 태워서 밭에 뿌리면 바로 밭 거름이다. 이 거름을 못자리에 뿌리면 모가 시커멓게 올라올 정도로 자양분이 좋다. 하지만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밭 거름으로도 부족했다. 그래도 현재 비료에 비하면 소득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재하고 인분하고 섞은 거름을 사용할 때는 2,000평에 조를 심으면 조 3~4가마니가 소출인데, 현재 비료로 심으면 100평에서도 조 2가마가 나올 정도로 소출 면에서 차이가 난다. 예전

에는 조에 재를 버무려서 심었지만 현재는 비닐을 씌워서 조에 물을 부어 1대궁씩 심는다. 그러면 100평에서 예전 1,000평에 심을 때만큼 수익이 난다. 모두 재배기술과 비료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농사를 10마지기 정도 했다면 현재는 100마지기 정도씩 농사를 짓기에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3) 못자리 내기

한식 무렵 갈아엎어 놓은 논에 곡우가 되면 써레질을 해서 못자리를 만든다. 지금은 모판을 만들어 기계로 모를 심고 못자리를 내면서 금비를 뿌릴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줄고 모내기 기간도 짧아졌다. 하지만 예전에는 모판이 아니라 논에다 못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못자리는 가로가 2자(60cm 정도) 정도 되게 하며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아 새끼줄을 둘러놓고 볍씨를 뿌린다. 그래야 뿌려놓은 볍씨가 물에 쓸려 나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못자리를 만들고 한 달가량이 지나, 소만 무렵이 되면 마을 대방으로부터 갈을 꺾어 논에 펼쳐 놓으라는 갈영이 내려진다. 갈영이 떨어지면 바로 산에 올라가 갈을 꺾어다 논 거름을 한다. 그러면 모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모내기할 논에는 미리 아이논(초벌)을 갈아놓은 다음 갈을 골고루 펼쳐놓고 두 벌 논을 갈아엎어 갈을 흙 속에 쓸어 넣는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물을 대어 논을 삶고 망종에서 하지 사이에 모를 낸다. 모가 나오는 시간은 40일 정도이다. 5월에 모를 심는다. 논을 갈 때에는 홍천지역은 대부분 호리가 아니라 겨리로 한다.

(4) 못자리 고사

4월 10일경부터는 못자리를 만들어서 5월 10일경부터는 모심기를 시작한다. 예전에는 거의 다 물모자리였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모심기를 한다. 혹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면 밤에 나가 물을 조금 대고 아침에 나가 모를 심는다.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물을 퍼 올려 모를 심는다. 그렇듯이 힘들게 모를 심는다. 손으로 못줄을 당기면서 일일이 손으로 모를 심었다. 모 심는 날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었다. 모심기를 하면 여자들은 밥을 해서 10여 명이 밥을 이고 들판으로 가져간다. 모 심는 날이면 이웃에서 밥도 같이 해서 먹는다. 이렇게 새벽부터 낮까지

모를 심은 날 밤에는 부녀자들이 흰밥이나 흰떡을 해 가지고 논으로 가서 못자리에 밥을 넣고 '모가 잘 서고 잘 자라라'고 빌고 온다. 이것을 '못자리 고사'라 한다.

(5) 나물 뜯기

산이 많은 홍천지역에서는 봄이면 나물을 많이 채취한다. 인근 산에 가서 뜯어 오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뜯기도 한다. 모시게, 활나물, 삽주싹, 버드쟁이, 취나물, 고사리, 드릅, 참나물, 다래순, 머루순, 꼬치나무, 싸리나물, 고비, 취나물 등 햇순을 뜯어서 가지고 간 데리끼에 담아서 짊어지고 온다. 이렇게 봄에 뜯어다 말린 것들을 묵나물이라고 하는데 1년 내내 먹는다. 그리고 대보름에 먹는 것도 대부분 손수 뜯어온 나물들이다. 현재는 입산이 금지된 곳도 많고 나물도 별로 없기에 많이 뜯지 못한다. 특히 그 흔하던 취나물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북방면 하화계리 주민은 자주 가서 나물을 뜯던 도둔산에 맥주공장이 들어온 이후로는 거의 나물을 뜯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6) 소풍가기

음력 4월(양력 5월)경이면 모든 학교에서는 봄 소풍을 간다. 대부분 인근의 경치 좋은 시냇가나 강가로 소풍을 간다. 보통 소풍은 노래자랑, 보물찾기, 수건돌리기, 도시락 먹기 등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소풍에는 부모나 엄마들이 따라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풍 대신 여행이나 놀이 공원 방문, 체험 학습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5. 5월

1) 단오

음력 5월 5일은 단오인데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이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서 다른 말로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절이라고 한다. 단오에는 취떡을 해 먹고 그네

를 주로 뛴다. 예전에는 창포로 머리 감기, 쑥 뜯어서 즙 짜먹기, 쑥떡이나 취떡 해 먹기 등을 했지만 최근에는 취떡이나 겨우 해 먹는 정도이다. 떡집에서 구입해서 먹는 집도 있다.

예전에는 단오 제사를 지낸 곳이 많았다. 동창마을에서는 단오에 쑥떡, 밀전병 같은 음식을 마련해서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여자아이들은 홍색과 녹색의 새 옷을 입고 창포뿌리로 장신구로 치장했는데 이를 단오장이라고 하였다. 오늘날은 홍천군에서 마련한 단오행사에 참여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1) 그네뛰기

특별한 놀이가 없던 예전에는 단오 때 뛰는 그네놀이는 아주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였다. 남녀노소 다 뛰었지만 아무래도 부녀자들이 더 많이 뛰었다. 그넷줄이 상당히 굵기 때문에 아이들은 뛰지 못한다. 그네뛰기는 재미도 있었지만 의미도 있어서 단오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날 뛰었다. 예전에는 아름드리나무가 많았기에 여기저기 그넷줄을 매달았다. 단오가 가까워지면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그넷줄을 마련한다. 다른 곳에서는 짚이 없어서 나무껍질도 많이 사용했는데 홍천지역은 대부분 짚으로 그넷줄을 만들었다. 심지어 내면에서도 그넷줄은 새끼줄을 이용했다고 했다. 이를 보면 정선지역 등 더 깊은 산간지역보다는 그나마 논농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칡 그네를 뛰었다는 이야기는 있다. 그네를 매는 나무 종류는 느티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밤나무 등이다. 보통은 밤나무나 소나무에 많이 맨다. 새끼를 8자로 꼬아서 밑판 2개를 걸 수 있게 해서 이쪽저쪽을 얼기설기 돌려서 바닥 나무를 끼웠는데 이 나무 바닥을 '찌깨'라고도 했고, '깔개', '앉을깨'라고도 했다. 이 깔개는 예전에는 자귀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제재소가 생긴 뒤부터는 두껍게 켜다가 끼웠다. 어떤 곳에서는 나무를 끼우지 않고 발판도 그냥 새끼줄로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큰 나무가 거의 없어서 그넷줄 맬 장소도 없는 형편이다.

그네를 뛸 때에는 '우두그네~ 우두그네요~', '어허이~', '칠석을 먹고 뽀대~', '모기 날려라~'라며 뛴다. 예전에는 그네를 하도 많이 뛰기 때문에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를테면, '너 그네 뛸 때 조심해라. 내가 칼침 놓는다' 같은 말인데, 칼침이란 줄을 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냥 장난이기 때문에 웃고 만다. 쌍그네도 많이 뛰었는

데, 쌍그네 뛰는 것을 '업울래 그네'라고 부른다.

(2) 취떡, 쑥떡 해 먹기

단오에는 주로 취떡을 해 먹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쑥떡을 더 많이 해 먹거나 보리개떡을 해 먹기도 했다. 쑥떡은 쑥을 찹쌀하고 섞어서 가로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홍천지역은 단오뿐만 아니라 설날이나 추석, 결혼식 등 특별한 날이면 취떡을 해 먹거나 차례상에 올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 뜯기가 만만치 않다. 산나물을 너무 많이 채취해 가서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촌면 주민도 취떡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 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내면에 가서 뜯어다가 해 먹는다고 했다. 현재 떡취는 내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양식재배를 한다. 즉 밭에다가 취를 키워서 판매하고 있다. 떡취가 특용작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취는 그냥은 잘 삶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잿물에 삶는다. 잿물은 재를 우려서 만들기도 하고 사다가 넣기도 한다. 사온 잿물인 양잿물로 취를 삶을 때는 아주 조금만 넣는다. 이렇게 삶아서 말리면 망가지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약 5~6년까지도 간다. 어떤 제보자는 몇 년 묵힌 취를 최근 셋째 아들 결혼식에 사용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양잿물 대신 소다를 조금 넣어서 삶는다. 취는 잘 삶아지지 않기 때문에 양잿물이나 소다를 넣지 않으면 삭는다고 한다. 말린 취를 불린 후 삶아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행군 다음 떡에 넣기 때문에 양잿물을 사용해도 위험하지 않다. 예전에는 쌀하고 취하고 안반에 쳐서 했지만 현재는 방앗간을 이용한다. 안반에 쳐서 떡을 할 때는 남자들이 떡메로 치면 여자들은 안반에 찰떡이 달라붙을까 물을 묻혀서 떡을 모아주었다. 명절에는 떡을 여러 종류하기 때문에 떡메를 쳐야 하는 남자들은 무척 힘들었다.

(3) 약쑥 뜯어 말리기

단오에는 아침 해가 돋아 이슬이 마르기 전에 남보다 일찍 쑥을 뜯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뜯은 쑥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한다. 베어 온 약쑥은 잘 엮어서 그늘에 매달아서 말린다. 잘하는 집들은 쑥을 매달 때 막걸리를 품어서 쑥에 배게 한 다음

말린다. 이 쑥은 1년 내내 민간약으로 사용된다. 상처가 났을 때 쑥물을 사용하거나 배가 아플 때도 사용한다. 다치거나 아플 때 쑥을 빻아서 상처에 붙여주기도 한다. 여름에는 모기를 쫓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몸이 찬 냉병에도 먹으면 효과가 좋다. 쑥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피부병이나 피부에도 좋다. 예전에 쑥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다.

(4) 홍천군민 단오행사

단오에는 홍천문화원 주관으로 단오행사를 한다. 장소는 홍천 토리숲이고 시간은 오후 4~9시 정도까지 한다. 홍천군민의 안녕기원제를 시작으로 전통 민속놀이를 하는데 인원은 400~500명 정도 모인다. 음식은 단오이니 만큼 취떡과 오미자, 장떡, 오곡밥, 막걸리 등을 제공한다. 전통차 만들기, 창포로 머리감기, 단오 부채 만들기, 장승·솟대 만들기, 그넷줄 꼬기, 새끼줄 꼬기 등 여러 체험행사도 있다. 민요와 판소리 공연이 있고, 회다지 시연회가 2팀 정도 준비되어 공연한다. 그넷줄 꼬기는 남녀 대결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취떡은 2말 정도 떡메로 쳐서 취떡을 만들기용으로 제공한다. 한 가마 정도의 취떡은 방앗간에서 해 온다. 그네뛰기나 널뛰기는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설치해놓지 않는다.

2) 5월 중

(1) 어린이날

음력 4월은 양력으로 5월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어버이날도 최근 마을회관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현대판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집집마다 따로 지내지만 마을 단위에서 선물을 마련해서 주기도 한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집이나 뷔페 등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하고, 용돈이나 장난감을 선물로 준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가 아니지만 어린이날에 용돈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들도 있다.

(2)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도 현대에 고착되고 있는 세시풍속이다. 이날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기거나 선물을 마련해서 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같이 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침은 가정에서 각기 지내는데 아침에 보통 자녀들이 밥을 차려 드리거나 멀리 살고 있고 찾아오지 못할 형편이면 어버이날 아침에 전화를 한다. 직장이 있으면 바로 전 휴일에 찾아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등 미리 효도를 한다. 부모님한테는 필요한 선물을 사드리는데 용돈 봉투를 제일 좋아한다. 하지만 어떤 분은 자녀들이 오면 용돈을 오히려 주는 경우도 있었다. 내면에서는 자녀들이 어버이날 오면 조부나 조모 산소에 가서 인사를 꼭 하고 간다.

점심은 보통 마을회관에서 합동으로 대접을 받는다. 청년회나 부녀회에서는 어버이날에 음식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초청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음식은 북어찜, 불고기, 돼지고기편육, 잡채, 떡 등이 다양하고 푸짐하게 차린다. 마을 청년들이나 부녀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노인들을 대접한다. 기념품도 나누어 준다. 요즈음은 농촌에서도 계를 하거나 미리 여행 준비를 해서 어버이날을 전후로 단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3) 개복숭아 따기

과일나무를 키우는 곳에서는 5월이면 상당히 바쁘다. 5월 단오가 왜 없어졌냐는 질문에 복숭아 봉지 씌우는 때와 겹쳐서라는 대답이 있을 정도이다. 복숭아는 이때쯤 봉지를 씌운 후 양력 7~8월에 따지만 개복숭아를 키우는 곳에서는 5월이면 따느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을 행사이다. 내삼포리도 2008년에 개복숭아를 심어서 복숭아를 따는 음력 5월에는 상당히 바쁘게 지낸다. 약간 덜 익은 개복숭아는 관절에 좋아서 약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득이 좋다. 개복숭아를 판매한 수입은 마을 공동 기금으로 사용한다. 처음에는 복숭아꽃을 보려고 마을에 심었지만 어떤 교수가 특효약이라고 한 후로 판매를 한다. 현재 이 열매는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서석면 수하리도 특용작물인 구기자를 재배하는 데 온 마을 주민이 매달린다고 한다.

6. 6월

1) 유월 유두

유두에 대해서는 예전에 명절이었던 것은 알지만 거의 지내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기억한다 해도 밀국수를 해 먹었다는 것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유두란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약자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뜻이다. 동류수를 선택하는 까닭은 동방이 청(靑)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유두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천신제나 고사 등을 지내기도 하고 유두 음식을 차려서 야외에 가서 놀았던 날이다. 유두에 국수를 먹는 이유는 식구들이 무병장수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속신 때문이다. 또는 음식을 만들어서 일꾼들한테 대접하기도 했다. 유두면은 밀가루나 메밀가루로 만든 면을 삶아 오색경단을 고명으로 얹고 멸치와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 양념을 하여 먹는다. 특히 영월, 원주, 춘천, 삼척, 태백지역에서 유두일을 성대하게 지냈다. 그러나 홍천에서는 거의 명칭만 살아 있는 듯했다.

2) 하지

절기상 하지 날 전후로 캐는 감자를 '하지감자'라 부른다. 하지에 감자를 들썩거려 놓으면 좋다고 하여 이날 감자를 처음으로 캐서 먹는다. 감자를 미리 조금씩 캐서 먹을 때 캔 감자를 돌을 모아 쌓고 나무를 넣고 풀을 넣어 불을 붙인 후 때다가 돌이 새빨개지면 여기다가 물을 확 붓는다. 그러면 감자가 익으면서 김이 난다. 상당히 맛이 있다. 이렇게 많이 먹었다. 하지는 24절기 중 10번째에 해당되는 절기이다.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는 5월, 양력으로는 대개 6월 21일 무렵이다. 이날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예전에는 하지쯤이면 메밀 파종과 누에치기를 하고 감자를 수확하며, 고추밭을 매고, 마늘을 수확하여 건조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하지가 지날 때까지, 즉 모내기를 끝내고 그때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통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3) 기우제

기우제는 농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벼가 타들어 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했다.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조금씩 그 양식이나 형식 등이 달랐지만 '여자'가 주체가 되어 '물'에 가서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모두 동일하다. 화촌면 굴운리는 '3명의 과부가 치(키)를 쓰고 개울에 가서 곡을 한다'고 하며, 화촌면 야시대리에서는 '용소에서 개를 잡아서 피가 고이면 바위에 뿌린다'고 한다. 화촌면 성산리에서는 '외아들 있는 집에 가서 여자들이 그 집 화장실에 물을 끼얹는다'고 한다. 북방면 본궁리는 '마을에 물이 워낙 없어서 혹 기우제를 지내게 되면 인근 마을인 역전평리 앞 냇가에 부녀자들이 치를 가지고 가서 까불며 비오기를 빌었다'고 한다. 서면은 다음과 같이 했다.

> 날은 가문데 물을 펄 양수기가 없으니 모심을 때 못 심어서 기우제를 지낸다. 비린 것(고등어 2마리)을 가지고 강에 가서 물에 씻어서 비린내를 풍기면 비가 온다. 기우제 갈 때는 40-50된 여자들이 쌀 1되씩 내서 밤벌이라는 곳으로 간다. 밤벌에는 큰 용늪(엄청 크다)이 있는데 용늪이 깊지만 물가는 강모양으로 물이 깊지 않다. 여기에 와서 밥을 해 먹는다. 비린 것도 씻으면서 그 때 젊은 과부도 같이 가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과부가 키를 씻으면서 넋두리를 하면서 빈다. "하나님 이렇게 날이 가물면 모도 심지 못하고 남편도 없는데 어린 새끼하고 어떻게 사냐, 비를 주어야지 어린 새끼하고 살지 않냐?" 하면서 키를 씻으면 빈다. 왜 하필 젊은 과부인가요?(조사자), 그거야 젊어야지 새끼가 어리니 더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빌고 오면 비가 꼭 온다. 한 방울이라도 온다. 희한하게 저녁이면 꼭 온다. 나도 여기는 쫓아다녔다. 이곳의 기우제는 천렵 겸 기우제이다. 양수기 들어오면서 안 했다. 가물면 과부를 데리고 간다. "키 씻으러 가자" 하면 가는데 이때에는 남자들도 다 허락한다. 10명 내지 20명 사이로 간다. 과부 혼자 누가 가겠냐? 나는 시집와서 2~3년 즈음부터 했다(서면 반곡리 이순교, 85).

북방면 굴지리에서는 '과수댁 아주머니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고(생리 중인 과수댁 아

주머니들은 알아서 불참) 괴바위에 가서 씻으면서 용왕님께 절도 하고 그랬다. 괴바위 근처는 으슥하다. 남자들이 잘 가지 않는다. 거기에서 키를 씻고 목욕을 한다'고 한다.

굴운리 주민들은 젊어서는 직접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자근골에서는 외아들이 있는 집에 가서 화장실 지붕에다가 물을 끼얹는다. 주로 20~30대의 젊은 여자들이 물을 끼얹으면서 비를 기원했다. 월운리의 경우는 산 위에서 하는 기우제는 남자들이 수퇘지를 가지고 가서 지냈지만 강에서 하는 기우제는 동네 여자들이 키를 가지고 가서 기우제를 했다. 이렇듯이 농업을 주축으로 하는 곳에서는 양수기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기우제를 모두 했다. 각 지역의 공통점이라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거의 다 여성들이 주관을 해서 기우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인류원형 상징으로 물과 여성은 동일한 의미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4) 삼복

(1) 복달임

여름철 초복·중복·말복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세시풍속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날은 챙긴다. 특히 농사꾼들은 이 무렵이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쓴다.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네 번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하여 이 삼복을 복날이라고 부른다. 초복이 온 후 열흘 후가 중복이고 입추를 지나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이기 때문에 삼복은 한여름을 통과하는 기간에 놓여 있다. 삼복은 한창 더운 시기라 심신이 지쳐 있는 시기이기에 보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때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보양을 하게 된다.

복달임에 대한 명칭은 복대림, 복때림, 복드림 등 다양하다. 예전에는 개를 물가로 끌고 가서 개고기를 주로 먹었다. 개는 직접 잡는다. 복달임을 하기 위해 집집마다 개를 키웠다고 한다.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 개를 복날이 되면 냇가에 가서 잡았다. 속담에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복날 개를 잡을 때 개를 나무나 높은 데 달아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잡기에 그런 말이 나왔다. 개고기는 그래야 누린내가 없어지고 제 맛이 난다고 한다. 지금도 개고기를 먹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 잡지

않는다. 최근에는 거의 백숙이라고 부르는 삼계탕을 주로 먹는다. 요즈음도 복달임은 꼭 한다. 특히 마을회관에 모여서 점심을 해결하는 요즈음 실태에서는 복달임 점심은 거의 마을회관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다. 복달임은 청년회나 부녀회에서 각각 추렴을 하거나 격년제로 마을 어른들한테 해드린다. 어떤 마을은 식사를 도와주는 분들이 식사도우미로 한 달에 27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화투놀이를 하거나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고 술도 한 잔씩 한다.

5) 소서와 대서

소서는 작은 더위라 불리며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대서는 대개 중복 때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하다. 예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산간지역 주민들은 숲을 이용해서 더위를 견뎠고 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더위가 본격화되면 강에 가서 거의 살았다고 한다. 강에서 목욕도 하고 달팽이, 다슬기, 물고기 등도 잡았다. 여자들도 물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빨래를 하러 갈 때 옹기그릇에다 된장을 풀어서 부치고 보자기를 씌우고 구멍을 뚫어놓았다. 이렇게 오기옹백에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놓으면 그곳으로 물고기가 들어간다. 옹백이를 어항 대신 사용했다. 잡은 물고기는 고추장을 풀어서 찌개를 끓여 먹었다. 미꾸라지는 주로 고래논(고래실, 항상 물이 있는 곳)에 있었다. 남자들이 미꾸라지를 족대로 잡아 소금을 넣고 씻어서 진흙을 토하라고 재어 놓았다가 미꾸라지탕도 많이 해서 먹었다. 더우면 강가에서 자기도 했다.

7. 7월

1) 칠석 지내기

칠석날과 관련한 견우직녀 이야기, 까막까치 이야기,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기 싫어서 비가 온다는 등의 설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칠석을 거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칠월 칠석에 '칠석차례'라 하여 햇벼가 익으면 사당

에 천신하고 마을에서는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물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두칠성을 향하여 수명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고사를 지내거나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가내의 평안을 비는 경우가 많았다. 어려서 제의를 지냈다는 제보자는 있었다. 마당이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자도 있었다. 가정에 따라서는 무당을 찾아가 칠성맞이 굿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찾아볼 수 없다.

2) 7월 중

(1) 두레 기싸움

서석면 풍암리의 두레농악이 면소재지에서 가장 강했다. 풍암리 두레패는 주로 어론리 두레패와 기싸움을 한다. 논을 맬 때에는 사방에서 마을별로 두레패들이 농기를 세우고 이동하면서 마주 부딪치면 두레 기싸움을 한다. 어떤 때에는 하루 종일 싸움을 해서 일을 못 할 정도이다. 두레패들이 풍물패를 앞세워 이동을 하는데 일단 농악대끼리 마주치면 상쇠잡이의 연주 실력으로 실력을 가른다. 농악싸움에서 상쇠잡이의 연주 실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쇠잡이를 돈을 주고 데려오기까지 한다. 농악대의 상쇠잡이 싸움에서 결판이 나지 않으면 두레패들끼리 완력으로 기를 쓰러뜨리는 기싸움을 한다. 기싸움에서 패한 두레패는 깃발을 넘어뜨리고 엎드려서 빌고 술도 사 와야 한다. 두레패의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패하고 붙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응원을 하였다. 마을 차원의 자존심 싸움이었다. 풍암리의 상쇠잡이는 논 10여 마지기를 팔아서 강릉에서 데리고 왔을 정도로 연주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 풍암리 풍물패가 행진하면 농악이 약한 풍물패는 '풍암리 상쇠잡이가 온다'라고 하면서 도망쳤다.

(2) 퇴비 만들기, 잿풀하기

홍천지역에서는 대부분 7월에 거름을 만든다. 이것을 퇴비 만들기라고 한다. 내면에서는 '잿풀하기'라고 한다. 연한 풀을 베다가 쌓아놓고 썩으면 밭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퇴비와 잿풀하기는 명칭만 다르다. 퇴비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량만큼 만드는 것이지만, 여름이면 면에서 퇴비를 베라고 공식 지시를 내려온다. 그러면 일정량 이상 퇴비를 만들어야 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샀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지게로 져서 만들었다. 홍천군에서 퇴비를 많이 만들면 상금을 준다고 독려해서, 사람들이 모여 며칠씩 퇴비를 만들기도 했다. 면에서는 비료가 없으니 퇴비 장려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퇴비하라고 하도 독려하니까 아무것이나 쌓아놓고 위에만 짚을 덮어서 퇴비더미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할당량이 있었는데 능력이 안 되는 노인들은 이런 방법을 동원할 정도로 퇴비 만들기를 정부에서 독려했다. 낮에는 풀을 베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작두로 썰었다. 농사 잘되어 풍년이 되라고 동네와 면별로 풀을 많이 벤 사람에게 상도 주었다.

8. 8월

1) 추석

(1) 송편하기

추석은 우리나라 4대 명절로서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크게 쇠는 세시풍속이다. 추석에는 멀리 떠나 있던 식구들도 집으로 와 온 가족이 모인다. 우리나라에서 추석 때 4~5시간 이상씩 걸려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 생소하지 않다. 홍천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편이라 서울이나 춘천 등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거의 다 찾아온다.

추석을 쇠기 위한 시작은 송편을 만드는 일이다.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은 우리나라 공통적인 습속이다. 지금은 송편 대신 절편, 흰떡, 취떡 등 다른 떡을 하는 집도 늘고 있다. 송편은 빚기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이들 사다 먹는다. 송편소로는 콩·팥·밤이 제일 많이 쓰이고, 깨도 넣는다. 예전에는 파란 풋콩이 추석 즈음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서 까만 약콩을 주로 사용한다. 서리태는 추석 즈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요즘은 깨가 너무 비싸 거의 넣지 못한다. 가족들이 밤떡을 하도 좋아해서 밤떡만 하는 집도 있다.

예전에는 정월 초하루와 마찬가지로 돼지도 잡고 두부도 집에서 했지만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다. 부녀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남자들은 추석 아침 밤도 깎는 등 차례 지낼 준비를 한다. 밤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한 잔씩 한다.

(2) 차례지내기

추석날 아침에는 차례를 지낸다. 아침에 온 식구가 모여 조상의 지방이나 사진을 놓고 차례를 지낸다. 차례음식은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햅쌀로 밥을 하고 송편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같다. 최근에는 송편 대신 흰떡을 올리기도 한다. 그 외에 전과 튀김, 꼬지, 고기, 잡채, 생선, 포 등을 차례상에 올린다. 탕국은 주로 무탕국이나 토란국을 끓인다. 최근에는 소고기나 갈비를 넣고 무와 다시마를 넣은 국을 끓이기도 한다.

(3) 성묘 가기

차례를 지낸 후에는 성묘를 간다. 추선 며칠 전에 미리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추석날에는 간단히 성묘 차례를 지낸다. 과일, 포, 전, 떡 등을 간단하게 준비해 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술을 붓고 절을 한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가를 부르거나 주모경을 하고 절을 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묘를 거의 가지 않는다. 집에서 간단히 추도예배만 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은 전통적 방식을 따른다.

2) 8월 중

(1) 큰풀하기

음력 8월은 다음 해에 사용할 거름을 만드는 달이다. 퇴비 만들기(진풀하기)가 풀이 연할 때 뜯어서 거름을 만드는 것이라면, '큰풀하기'는 풀이 영글어서 억세진 후 베어서 거름을 만드는 것이다. 풀을 잘게 썰어서 소한테 밟히고, 소똥이나 오줌을 묻혀서 밖으로 쳐내서 겨우내 삭혀서 거름으로 사용한다. 대부분 농사를 짓기에 거의 모든 집

에 소가 다 있다. 내면에서는 집집마다 부엌에 마구간을 같이 짓는데 여기에서 소를 키운다. 이 소 우리에다가 풀을 넣어서 밟히는 것이다. 큰풀하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한다.

큰풀하기는 하루 한 집씩 돌아가면서 한다. 자기 집 큰풀하는 날은 새벽부터 풀을 베어온다. 분량은 한 집당 6짐만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예전에는 풀이 워낙 귀해서 마음대로 더 많이 해 오면 안 되고 정한 만큼만 해야 한다. 자기 집 큰풀할 때는 6짐에 소꼴까지 베어서 내려왔다. 오전에 3짐 정도 하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가서 풀을 3짐 정도 한다. 6짐을 마당에 쌓아놓으면 오후에 동네 사람들이 모인다. 대략 20가구 정도이다. 20집 정도가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한다. 하루에 한 집을 하기 때문에 대략 20일 정도 걸린다. 만약 23가구면 23일 걸리는 셈이다. 새참은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올챙이묵이나 감자를 갈아서 만든 감자옹심이를 내온다. 칼국수를 하는 집도 있다.

보통 쌍작두를 썼는데, 풀을 40cm 정도로 자른다. 청년 둘이 작두를 밟고 밑에서 풀을 메기면서 자른다. 굵은 것 들어갈 때는 '통나무 들어간다'고 한다. 풀을 메기는 사람이 흥이 좋은 사람이면 지속적으로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흥을 돋운다. 읊으면서 하면 힘이 덜 들기도 했다. 과묵한 사람이 메길 때에는 말없이 풀만 썬다. 그러나 풀을 썰면서 읊조리던 가락이나 가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찾지 못했다. 이때 잘못하면 손을 다치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집중해야 한다. 썰어놓은 풀을 쌓아서 말린다. 다 마르면 소 우리와 마구간에 넣어서 소가 밟게 해서 오줌과 똥도 묻혀서 쳐내서 거름을 만든다.

2012년 내면 방내리 큰풀하기(진풀하기) 시연 모습





(2) 성주단지 위하기

예전에는 성주단지를 위하는 집들이 많았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첫 수확이 나오는데 이것을 '수지쌀'이라고 한다. 수지쌀을 단지에 넣어서 집터에 놓고 기원을 한 후 시렁 위나 윗방 선반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1년 동안 성주단지를 위한다. 수지쌀로 밥을 해서 장독대 위에 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10년 전만 해도 믿는 노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3) 지붕 잇기

추수가 끝나면 짚으로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새로 간다. 하루 일이 다 끝나면 마당에 불을 놓고 모여서 이엉을 먼저 엮는다. 이때에는 주로 무시루떡을 만들어서 일하러 오늘 사람들을 대접한다. 사람들은 새 지붕을 만들고 싶어서 오기보다는 무시루떡을 먹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무시루떡은 쌀가루와 팥, 무를 이용해서 쌀가루 한 켜 놓고 그 위에 팥을 넣고 또 그 위에는 무를 삶아 넣어서 켜켜이 만든 다음 찐 시루떡이다. 사람들은 이날 모여서 지붕 가는 집 이엉을 두 개고 세 개고 엮어준다.

9. 9월

1) 중양절(9월 9일)

(1) 9월 차례

9월 9일은 중구절, 중양절이라고 부른다. '중양'이란 홀수인 양이 겹쳤다는 의미이다. 이날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2대조 조상까지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7대조부터는 시향을 받는데 그 중간에 4대에 해당되는 조상들은 제외되기에 이분들을 위해 9월 9일에 '9월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다른 조상들은 빼고 3, 4, 5, 6대 조상들만을 대상으로 차례를 지낸다. 이분들은 한식 차례 때도 지내준다. 그 윗대부터는 음력 10월에 시

제를 지낸다. 따라서 4~5대는 시제 대상이 되지 않기에 한식날이나 중구절에 묘에 가서 지내는 것이다.

음식은 일반 제사상과 같다. 그러나 제사상 음식은 내가 직접 내 부모를 위해 마련하는데 비해, 한식이나 9월 차례에는 내가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남을 주면 땅을 부친 그 사람, 즉 소작인이 제사상을 마련해준다. 땅을 부친 사람이 음식을 다 차려주면 묘에 가서 차례만 지내면 된다. 따라서 땅이 없는 사람은 한식이나 중구절 제사는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구 제사를 지냈다는 집도 예전에는 많았다.

(2) 동제

중구일에 동제를 지내는 지역도 있다. 북방면 본궁리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동제를 지낸다. 동제 때는 쌀 한 말을 시루에 찐다. 찔 때는 한 번에 찌지 않고 쌀을 3분량으로 나누어서 시루를 세 번 찐다. 성황제가 있는 며칠 전에 성황당에 가서 질금 물(콩나물 또는 엿기름을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을 해서 조(제사 음식 준비를 위한 예절)를 잡힌다. 이것을 항아리에 넣어 묻어두고 오면 식혜가 된다. 식혜는 묻은 지 사흘 정도 되면 삭혀져서 달콤하다. 이것을 '조례 잡힌다'라고 말한다. 제의를 지낼 때에는 이것을 걸러서 사용한다.

제의는 성황당 산신한테 먼저 지내고 그다음 장승백이에서 지낸다. 장승은 2개이므로 3번 지내는 셈이다. 새벽 6시에 메, 과일, 돼지머리, 삼색 나물을 차려놓고 지낸다. 장승은 여장승과 남장승이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깎아 세운다. 현재는 다시 세우는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나무가 썩으면 교체한다.

2) 9월 중

(1) 지신제, 텃고사 지내기

예전에는 9월에 지신제, 텃고사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현재에도 9월에 지내는 가정이 있다. 텃고사를 지신제라고 부르는 가정도 있다. 예전에는 텃고사 때 전문적으

로 빌어주는 사람을 불렀다. 대부분 남자들이었는데 '복술'이라고 불렀다. 생활이 어려웠기에 고사를 지내준 대가는 따로 주지 못하고 갈 때 떡을 싸서 보내는 정도였다. 넉넉한 집들은 곡식이나 돈을 주었다. 떡은 보통 한 말 정도 했다. 팥떡을 했는데 붉은색은 귀신이 범접치 말라는 의미이다. 내면은 집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텃고사를 해도 떡을 돌릴 수 없었다. 터신은 한지와 북어를 함께 실로 맨 것으로 부엌 기둥이나 천장이나 아무 데나 걸어놓는다. 그런데 한번 매달면 평생 갈지 알고 계속 걸어놓는다. 보통 부엌에 걸어놓는데 끄름에 새카맣게 돼도 갈지 않는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하게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 죽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았다. 1970년도 무렵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그 후로 없어졌다. 부엌 기둥이나 천장에 터신을 매달아 놓았는데 그 자리에 전구를 설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집은 텃고사를 할 때 복술가한테 쌀이나 콩 혹은 돈을 주었다. 그러나 곡식을 한 말 이상은 주지 못했다. 문창호지 소지를 올린다고 말아서 불을 댕기는데 이때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고사를 잘 지냈다고 평한다. 이곳에서는 터신은 창호지를 접은 것이다. 따라서 창호지만 문에다 꽂아놓는다. 대문에 북어를 몇 마리 거는 사람도 있다. 북어를 걸 때에는 북어만 거는 것이 아니라 실을 감아서 건다. 이유는 실이 기니까 길게 오래오래 잘 살자는 의미일 것이다. 북어는 그다음 날 치운다. 버리지 않고 요리를 해 먹는다. 대문에 걸었던 창호지도 그다음 날 손 없는 곳에 가서 태워버린다. 이렇듯이 텃고사도 명칭이나 하는 방법들이 지방마다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다. 앞의 예, 즉 전기가 들어오면서 지신 표징이 없어진 마을은 내면 자운리의 경우고, 뒤의 예는 두촌면 자은리의 경우다.

(2) 시향드리기

음력 9월, 즉 양력 10월에는 각 가문에서 시제를 지낸다. 이곳에서는 시제를 '시향드리기'라고 했다. 시향(시제)은 제실이나 산소에서 지낸다. 가문이 클수록 시제를 올리는 조상 수도 많고 참석자도 많다.

동창마을에 사는 전주이씨 문중은 제각을 지어놓았다. 또 시조 종답이 있어서 땅을 부치는 분들이 시제 지내는 날 음식을 다 차려 놓는다고 한다. 이 문중은 7대조 이상 조상들을 위한 시향을 드린다. 김해김씨 문중 중 어떤 분은 현재는 아무도 땅을

부치지 않아서 집안끼리 돌아가면서 준비해서 시향을 드린다고 한다.

10. 10월

1) 입동

입동은 24절기 중 하나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때 추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한다. 보통 입동 김장을 주로 한다.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때이다. 이날도 고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현재 그런 풍습은 찾을 수 없다. 입동 때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다고도 하고, 무 뿌리로 점을 치기도 했다.

2) 김장하기

예전에는 겨울철에 특별한 반찬이 없어서 김장 담그는 양이 많았다. 보통 300포기 이상 했다. 종류는 짠지(김치), 물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고들빼기, 짠짠지 등 다양하고, 동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담갔다.

동면 개운리는 땅이 척박하고 돌이 많아서 '돌무지'라고 불렸는데 땅이 좋지 않아서 배추를 심으면 속이 앉지 않고 배추가 벌어지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포기김치로 하지 않고 배추를 토막으로 잘라서 막김치로 김장을 했다. 또한 내륙이라 젓국도 거의 넣지 않았다. 요즈음은 멸치, 까나리, 오징어, 명태 등을 다양하게 넣는다. 한편 내면은 추워서 다른 곳에서는 양력 11월에 보통 김장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10월이면 김장을 했다. 짠지를 할 때 양념도 없고 고춧가루를 쓰지 않아 하얗게 담갔다. 예전에는 홍천지역에서도 김치를 짠지라고 했다. 짠짠지는 소금만 넣어서 담근 김치이다. 또한 내면에는 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조그마했는데 '달랑무'라고 부른다. 이 무를 잎사귀째 삶아서 김장을 했다. 무를 삶아서 김장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해서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삶아서 김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삶은 무에다 소금을 쳐서 독에다 켜켜이 넣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겨우내 먹는다. 아삭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맛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다. 김장할 때 파는 귀해서 잘 넣지 못했지

만 마늘은 많이 넣어서 했다. 배추나 무에 소금과 마늘만 넣어서 담근 김치를 보통 많이 먹었다.

11. 11월

1) 동지

(1) 팥죽 쑤기

동지는 '작은설'이라고도 하는데, '아세'라고도 부른다. 24절기 중 스물두 번째 절기로 양력 12월 22~23일쯤이다. 이날은 오래전부터 팥죽을 쑤어 먹거나 뿌리면서 액을 쫓는 날로 전해져왔다. 동지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로 구분된다. 음력 11월 10일 이전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 10~20일 사이에 들면 '중동지', 20~말일 사이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른다. 애동지에는 팥죽을 해 먹지 않는다. 이때에는 팥의 독소가 다 빠지지 않아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서 그런다고 알려져 왔다. 팥죽은 붉은 팥을 씻어서 가마솥에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서 푹 끓인다. 그 후 채에 받쳐서 팥껍데기를 버리고 앙금물에 멥쌀을 넣고 끓이다가 찹쌀 옹심이를 넣고 끓인다. 아직도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는 집이 많지만, 젊은 층들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간다.

(2) 팥죽 뿌리기

예전에는 팥죽을 쑤어서 조상 제사도 지내고 마당에다 뿌리기도 했지만 지금 그런 집은 거의 없다. 동지 팥죽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직접 지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또 장사가 나도 팥죽을 쑤어 마당에 뿌리기도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 즉 액을 쫓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동지 팥죽을 쑤는 것은 먹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액을 물리치려는 이유도 있다. 팥은 허한 기운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있는 곡식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이사를 새로

오면 팥죽을 쑤어서 팥물을 조금 뿌리기도 하고 팥죽을 이웃에 돌리기도 한다. 인사를 한다는 명분이지만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다.

12. 12월

1) 납평일

동지로부터 세 번째 되는 미일은 납평일, 납일이라고 한다. 대부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털 있는 짐승을 먹는 날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날 종묘와 사직에 제의를 지냈다.

2) 섣달그믐

(1) 섣달그믐 불 밝히기(수세하기)

1년 중 마지막 날인 섣달그믐에는 밤을 새우는 풍습이 있었지만 별로 지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1월 16일 귀신달갠 날 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부녀자들은 설날 아침 만둣국을 끓이고 세배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두를 빚었는데, 워낙 많이 만들어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본의 아니게 밤을 새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섣달그믐에는 밤에 자면 머리랑 눈썹이 센다고 해서 밤을 많이 새웠다. 그때에는 식구 중에 혹시 누가 자고 있으면 눈썹에 밀가루를 묻혀놓고 '잠을 자서 네 머리와 눈썹이 하얗게 센 것'이라고 놀렸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끄지 않는다. 수세를 하는 것이다.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동백기름, 들기름, 피마자기름을 주로 사용했다. 들기름을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들기름을 실에 돌돌 말아서 접시에 놓고 불을 켰다. 초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초가 귀해서 거의 구하지 못했다. 산초를 따다가 기름을 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금방 꺼져서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그믐이면 밤에 불을 밝혔다. 그믐이면 그다음 날 차례를 지내러 온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북적되고

이런저런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일찍 자지 못했다. 또한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를 묵은세배라고 부른다. 한 해를 무사하게 보낸다는 의미로 송년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홍천군 세시풍속 항목

월	홍천군 세시풍속
1월	차례 지내기, 성묘하기, 만두 빚기, 세배하기, 토정비결 보기, 윷놀이, 널뛰기, 화투하기, 연싸움하기, 복조리 달기, 현재 정월 초하루 새해맞이 행사, 쥐날, 용날, 말날, 산신제 지내기, 입춘축 붙이기, 보리뿌리 점치기, 용물 떠오기, 오곡밥 먹기, 14일 척사대회, 병아리만두, 섬만두 먹기, 어부식, 부럼 깨물기, 귀밝이술 마시기, 더위팔기, 대추나무 장가보내기, 불덩이로 점치기, 달맞이하기, 홰싸움 하기, 석전, 망우리 돌리기, 액막이하기, 달보고 점치기, 현재 대보름 불놀이 및 윷놀이 행사, 홍천읍 정월대보름 행사, 지신밟기, 14일 귀신달갠 날, 16일 귀신달갠 날 밤새우기, 신발 감추기, 체 걸기, 목화씨 태우기, 굴뚝으로 다니지 않기, 해 물리기, 지신제사, 산신제
2월	일꾼 날, 거리제 지내기
3월	장 담그기, 서낭제 지내기, 아기 머리 깎아주기, 나비 점치기
4월	초파일, 청명 한식, 이장하기, 논 거름 만들기, 밭 거름 만들기, 못자리 내기, 못자리 고사지내기, 나물 뜯기, 소풍가기
5월	단오, 그네뛰기, 취떡·쑥떡 해 먹기, 약쑥 뜯어 말리기, 홍천군민 단오행사, 어린이날, 어버이날, 개복숭아 따기
6월	유월 유두, 하지, 기우제, 복달임, 소서와 대서
7월	칠석 지내기, 두레기싸움, 퇴비 만들기, 지붕 잇기
8월	추석, 송편하기, 차례지내기, 성묘 가기, 큰풀하기, 성주단지 위하기
9월	중양절 차례, 9월 9일 동제, 지신제, 시향 드리기
10월	입동, 김장하기
11월	팥죽 쑤기, 팥죽 뿌리기
12월	납평일, 섣달그믐 불 밝히기

참고문헌

강명혜, 「강지역 주민의 의식구조적 특성 및 원형: 홍천지역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7집, 사단법인 온지학회, 2013.

강명혜, 「산간지역민과 강지역민의 리미로이드, 평야지역민의 의식구조적 특성: 홍천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42집, 사단법인 온지학회, 2015.

강명혜, 「강원 산간 지역의 동제(洞祭) 양상 및 특성: 산신제, 성황제, 거리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원의 마을민속』 (1)~(4), 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5.

『민속지』, 강원도, 1989.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제4장

민간신앙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신앙은 민족적 특성이 강한 민속종교나 신앙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민간신앙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을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동안 연구된 민간신앙의 범주를 살펴보면, 신화·의례·주술·제사·행사·마을신앙·가정신앙·세시풍속·통과의례·장제(葬祭)·점복·금기·풍수·무속·조상숭배·동제(洞祭) 등과 개인적 신앙, 신흥종교, 민간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홍천군에도 민간신앙이 곳곳에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 전승되는 이러한 민간신앙을 모두 살피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군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도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 가정신앙 그리고 무속신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겠다.

1.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한 마을이 단위가 되어 행해진다. 마을신앙의 규모는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골짜기 등과 같이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규모가 큰 마을에서는 제물도 넉넉하게 준비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간단하게 진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홍천지역이 넓은 까닭에 마을 곳곳의 마을신앙 존재에 대하여 모두 밝히기란 쉽지 않다. 현재도 활발하게 제의를 지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마을도 많다. 제의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한 마을과 제일(祭日), 제의방식, 제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형편을 생각하며 현재 제의를 지내고 있는 마을 몇 곳을 소개하도록 한다.



동면 월운리 개암둔지 산신제. 진설하기

1) 산신제

산신제는 산제·산제사·산치성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산신제를 따로 독립하여 진행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동제의 일환으로 산신제가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홍천군의 몇몇 마을에서는 현재도 산신제를 활발하게 지내고 있다.

(1) 동면 월운리 산신제

월운리에는 오음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월운리는 진등을 사이에 두고 개암둔지와 공주터 두 마을이 있고, 그 중앙에 월운리 중심이 되는 양지말이 있다. 개암둔지와 공주터 두 마을에서는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를 지내는데, 다른 장소에서 각각 지낸다. 제일은 음력 1월 3일 오전이다.

2016년 음력 1월 3일 아침에 개암둔지에서는 산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제의를 진행하였다. 나무로 만든 서낭대에 한지를 걸고, 소머리·백설기·사과·배·밤·대추·통북어·실타래 등을 진설하고, 제주는 술 대신 식혜로 헌작했다. 2013년 음력 1월 3

일 아침에 공주터에서는 실타래를 신목인 소나무에 두르고 그 사이에 한지로 싼 통북어를 끼운 후, 소머리·밤·대추를 진설하고 식혜로 헌작했다. 제의 진행순서는 두 마을이 같은데, 제물이 차려지면 먼저 도가가 배례를 하고 헌작을 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이후 마을의 연장자가 각호의 대주 소지를 하나씩 다 올리는데, 여성이 혼자 있는 경우는 그 사람 소지를 올린다. 철상 한 후 간단하게 음복하며, 음복을 마치면 하산하여 도가 집에 모여서 산신제 경비를 결산한 후 점심을 함께한다.

(2) 북방면 북방리 사랑말 산신제

예전에는 북방1리 사랑말에서 치성을 드리던 곳을 '수살배기'라 했다. 수살배기는 마을 초입에 있는 1.5m 높이의 돌이다. 여기서 지내는 제의를 '거리제'라 했는데, 거리제는 추수가 끝난 후 늦가을에 지냈다. 제의 시간은 밤이었고, 제물로는 북어와 백설기만을 진설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쌀을 조금씩 걷어서 제의를 치렀다. 거리제는 마을의 안녕을 빌고, 마을 구성원들의 건강을 비는 일종의 액막이였다. 예전에 성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날을 받아 제관을 뽑았다. 거리제를 지낼 때는 각 가정의 대주 소지를 하나씩 올렸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까지 거리제를 지냈으나, 이후 날을 받아주는 사람도 세상을 뜨고 해서 그만두었다.

거리제를 지내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후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자 2000년대 초부터 북방1리 엄송골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는 사랑말, 엄송골 주민뿐만 아니라 북방1리 전체 주민들이 참석한다. 현재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원래 산돼지 잡으려는 사냥꾼과 산삼을 캐던 심마니가 산을 오를 때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던 곳이다.

정월 보름 전에 날을 받는데, 2013년에는 음력 1월 14일 오전에 지냈다. 제관은 마을 어른 중에 부정이 없는 2명을 뽑는다. 제수는 이장이 마을 돈으로 준비한다. 제의 장소는 엄송골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있는 제단이다. 제물은 팥시루, 돼지머리, 통북어,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실타래 등이고 제주는 막걸리이다.

제단에 제물을 차린 후 제관은 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준비한 두루마기로 갈아입는다. 그리고 제관이 헌작과 배례를 하면 축관은 축문을 읽는다. 이어서 참석자 중에 희망자는 혼자 또는 2~3명이 함께 헌작과 배례를 하고 소지도 올린다. 제의를 마치면





북방면 북방1리 산신제. 소지 올리기(좌) 제단에 남겨놓은 제물(우)

실타래를 신목인 참나무에 두르고 그 사이에 북어를 끼운다. 제물을 조금씩 떼어 제단에 두고 철상한 후에 참석자들이 음복을 했다. 이후 하산하여 마을회관에서 마을 구성원이 모여 막국수로 점심을 같이했는데, 산신제를 지낸 이후 지금까지 막국수를 준비하여 먹었다.

(3) 북방면 상화계리 산신제

상화계리는 대룡산의 줄기인 마을 뒷산에서 음력 정월 초사흗날 산신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정월 초에서 15일 사이에 날을 받았다. 산신제를 언제부터 지냈는지 알 수 없으나, 6·25전쟁 이후에 빨간 기와를 올린 산신각을 지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미신을 타파한다고 해서 산신각을 부쉈다. 이후 2000년대 초 산신제 지내는 장소에 돌비석과 제단을 설치했는데, 비석에 '산신제단(山神祭壇)'이라고 글을 새겨 놓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부정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개만 죽어도 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 예전에는 제수비용으로 호당 쌀을 한 되씩 걷었으나, 지금은 소지 올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약간의 돈을 받는다. 제의는 도가가 음식을 준비하고 해질 무렵에 지내는데, 예전에는 더 늦은 시간에 지냈다고 한다. 마을에 장승과 솟대는 없으며 거리제도 지내지 않고 오로지 산신제만 지낸다.

2013년 음력 1월 3일 산신제에서는 백설기, 돼지머리, 통북어, 통북어찜, 밤, 대추,

사과, 배, 감, 양념하지 않은 무채, 양념하지 않은 깍두기, 실타래, 정화수 등을 진설했다. 제주는 막걸리이다. 의복은 경로당에서 준비한 유림들의 옷을 입었으며, 제의 진행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그리고 축관과 도가 등 다섯 명이 담당했다. 제물을 차리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축관 등이 함께 배례를 한 후에 헌작을 하고, 이후 무릎을 꿇은 후 축관이 축문을 읽었다. 이어서 제의 참석자 중 희망자는 개인별로 헌작을 했다. 개인별 헌작이 끝나면 각 집안의 대주 소지를 올리는데, 올릴 소지가 많으므로 여러 명이 나눠서 올렸다. 소지 올리기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음복한 후에 철상하여 경로당에서 마을 구성원이 모여 늦은 저녁을 함께한다.

(4) 서석면 검산2리 산신제

검산2리에는 당이 3곳 있었으나, 2곳은 개인적으로 술이나 한 잔 부어놓는 정도이며, 현재는 1곳에서만 지내고 있다. 아랫마을 1반에서는 거리제를 지냈다. 당시 마을 여성 한 사람이 마을에 다리를 놓으라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개를 한 마리 잡아서 치성을 드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한때 거리제를 지냈으나 30여 년 전부터 지내지 않는다. 당시 거리제는 아랫마을 1반 주민들만이 지냈으며, 수캐를 제물로 잡아서 저녁에 지냈다.

산신제는 삼신산에서 지내는데, 돼지를 잡아도 암수 구분을 하지 않으며 제의보다 동네잔치로 생각하면서 진행한다. 이러한 까닭에 제당 근처에 여성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검산2리에서는 새마을운동 이후 한동안 마을제의를 지내지 않았으나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30여 년 전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다.

정월 초에 날을 받는데, 2014년에는 첫 정일(丁日)인 음력 1월 6일 오전 11시에 지냈다. 장소는 서봉사 삼신각이다. 삼신각 정면의 위패에는 '산왕대신(山王大神)'이라 새겨져 있다. 제물은 메 3그릇과 백설기 1시루, 돼지머리·돼지 족(4개)·염통을 익혀서 진설하고, 과일은 사과 1개, 배 1개, 감 5개를 진설하였다.

먼저 이장이 배례를 한 후 헌작을 하면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이어 이장이 다시 배례를 한 후 검산2리 반장들을 제당 앞에 모이게 한 다음 소지관이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라 검산리의 총소지요. 산신령님 흠향받은 게 잘 드셨는지 이 소지장으로 아뢰옵니다. 전체가 잘되게 해달라고 검산리 총소지올시다. 흠향감천 잘하셨으면 비





서석면 검산2리
산신제(좌)
소지 올리기(우)

상승천 해주옵소서" 하고 구술로 축원을 하면서 마을 전체 소지를 올렸다. 이후 이장 소지, 이장대리 소지, 새마을지도자 소지, 도가 소지, 검산리개발위원회 소지 등을 차례로 올린 다음 각 반의 주민들 소지를 반장에게 나눠 줬다. 각 반장은 소지를 받아 반원들과 함께 반별로 모여서 소지를 올린 후 다들 모여 냇가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한다.

2) 서낭제

서낭제는 주민들이 서낭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동제로, '성황제'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다. 물론 서낭제라고 하는 마을도 위패를 보면 '성황지신(城隍之神)'으로 대부분 표기했지만, 지역민들은 일반적으로 서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서낭신의 신체는 흔히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신목(神木)과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목과 함께 제당에 신체(神體)나 신위(神位)를 설치하는 것이다.

홍천군은 신목과 돌무더기보다 제당에 위패만을 모시거나 위패와 신체 그리고 신목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다. 내면 일대에서는 '권대감'이라는 특정 인물을 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홍천지역의 서낭제 실태를 모두 정리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는 몇 마을의 서낭제에 대해 정리한다.



남면 유치2리 서낭당

(1) 남면 유치2리 서낭제

남면 유치2리 마을에서는 6년 전부터 정월 보름날 식전에 서낭제를 지낸다. 그동안 지내지 않던 서낭제를 지내는 까닭은 서낭당 앞 큰길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낭제를 지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예전 서낭제를 지내지 않았을 때도 '서낭뎅이'로 불리는 곳에 상돌을 준비하여 지낸다.

제의 닷새 전에 제관을 뽑아 서낭나무 주변에 금줄을 친다. 이후 제관은 몸을 정갈하게 하고 제수를 준비하는데, 제물은 백설기·돼지머리·북어·탕·채나물 등을 차린다. 서낭제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하며, 여성들도 함께한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관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한 후 구술로 축원을 한다. 이후 제관이 개인별 소지를 올린 후 철상을 하고 음복을 한다. 서낭제를 지낼 때는 축문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구술로 축원하기 때문에 입담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제관으로 한번 뽑히면 여러 해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성황권대감지신(좌)
산신령토지지신(우)

(2) 내면 자운리 운두골 서낭제

내면 자운리 운두령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에 서낭제를 지내는데, 이 마을에서 모시는 신은 두 분이다. 한 분은 '산신령토지지신(山神靈土地之神)'이고 다른 한 분은 '성황권대감지신(城隍權大監之神)'이다. 제당은 방이 두 칸인데, 왼쪽 방에는 '산신령토지지신'을, 오른쪽 방에는 '성황권대감지신'을 모시고 있다. 마을에서는 '성황권대감지신'을 보통 '권대감'이라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권대감제사라고 얘기한다. '산신령토지지신'은 '산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신과 토지지신을 함께 모신 것으로 이해된다. 원래 마을에 산신과 서낭의 제당이 별도로 있어 산신제와 서낭제를 따로 지냈으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제당을 새로 건축하여 함께 지내고 있다.

예전에는 정월과 7월 두 차례 제례를 지냈으나, 요즘은 해마다 음력 1월 3일 아침에 지내고 있다. 제일 일주일 전에 유사를 뽑아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제물을 준비하게 한다. 제일이 되면 당집 앞에 불을 피워 사람과 물건을 넘게 하여 정화시킨다. 이는 정화가 주목적이겠으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도 있다.

2016년에는 음력 1월 3일 6시에 서낭제를 지냈다. 제당의 서낭대에 한지와 실타래를 건 다음 소고기, 새옹메, 북어포, 무채나물, 냉수 등의 제물을 두 방에 똑같이 진설했다. 진설을 마치면 먼저 권대감 방에 참석자들이 한 명씩 차례로 헌작을 한 후에 배례를 했다. 제주는 막걸리를 사용했다. 재배를 마치면 모두 나와 제당 밖에서 재배를 한다. 이후 산신령토지지신 방에서 권대감 방에서와 같이 술을 따르고 재배를 했다. 두 신에 대한 헌작과 배례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담은 접시와 북어포와

냉수를 수부로 판단되는 서낭당 옆의 나무에 놓고 한 사람이 재배한다. 이후 산신령 토지지신 방에서 각 가정의 대주 소지를 올린 후 철상하고 간단히 음복한다. 음복을 마치면 모두 유사 집에 모여 결산하고 아침을 먹는다. 제의에는 여성은 물론 남자라도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이라면 참석할 수 없으나 식사는 함께한다.

(3) 동면 성수리 성전·숫골·짓골 서낭제

성수리는 성전·숫골·짓골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매년 정월 보름날 저녁 6시에 서낭제를 지냈다. 짓골은 예전에 정월 보름과 중양절(9월 9일)에 두 번 제를 지냈으나, 도가의 순번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 등 번거로워 중양절의 서낭제를 생략했다.

2016년 숫골과 짓골에서는 서낭제를 음력 1월 15일 저녁에 지냈고, 성전에서는 음력 2월 1일 저녁에 지냈다. 성전도 매년 그리했던 것처럼 음력 1월 15일에 지내려고 준비했으나 마을에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2월 1일로 연기하였다. 만약에 사정이 있어 제 날짜에 서낭제를 지내지 못하면 보통 다음 달에 지낸다. 제물은 세 마을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성전에서는 사과·배·밤·대추·북어·식혜 등을, 숫골에서는 사과·배·밤·대추·북어·식혜 등을 진설하였다. 짓골에서는 사과·배·밤·대추·곶감·북어·식혜 등을 차렸는데, 두 마을보다 곶감 한 가지를 더 진설하였다. 떡은 세 마을 모두 백설기를 진설하였으며, 육류는 모두 예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 성전에서는 메와 탕을 차리지 않았고, 숫골에서는 생쌀을 한 그릇 진설하고, 짓골에서는 쌀 한 그릇과 탕 한 그릇을 놓았다. 짓골에서는 무채나물을 익혀서 진설하였으나 나머지 두 마을에서는 나물류를 진설하지 않았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헌작과 배례를 하는데, 순서는 세 마을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성전과 짓골에서는 축관과 도가를 따로 뽑으나, 숫골에서는 축관 없이 도가만 선발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성전과 짓골에서는 고축을 했는데, 숫골에서는 하지 않았다. 축문 읽기를 마친 후에는 각호의 대주들 소지를 올렸는데, 여성이 혼자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소지를 올렸다. 소지 올리기를 끝내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 서낭당 옆에 둔 다음 철상하고 그 자리에서 음복을 한 후 헤어졌다.





동면 성수리
짓골 서낭제.
소지 올리기(좌)
동면 성수리
숫골 서낭제.
진설하기(우)

(4) 서석면 풍암리 서낭제

풍암리는 1965년 3월 25일에 1리와 2리로 분리되었다. 하나의 마을에서 두 마을로 바뀌다 보니 서낭제 또한 따로 지내게 되었는데, 별도로 제당을 짓지 않아 마을 경계에 있는 자작고개 서낭당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마을이 분리된 초기에는 서로 먼저 지내려고 서낭당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떤 때는 서낭당을 반으로 나누어 좁은 공간에 두 마을이 동시에 지내기도 했다. 그때는 소지관들이 소지를 경쟁적으로 올리느라 목소리가 커지면서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제일이 서로 겹치면서 제당 안팎이 혼잡하고 무질서해진 까닭에 두 마을의 원로들이 합의하여 제일을 지금과 같이 정하였다. 예를 들어, 풍암1리가 올해 날을 받아 정월 초사흗날 지냈다면, 풍암2리는 다음 날인 초나흗날 지내고, 다음 해에는 풍암2리에서 날을 받아 먼저 지내면 풍암1리에서는 그다음 날 지낸다. 먼저 지내는 마을에서 제일을 받아 서낭제를 지내면 다른 마을에서는 자동적으로 다음 날 제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날을 정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이다. 제일에 대한 정보는 이장을 통해서 이웃 마을에 전해진다.

한마을이었을 때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지낸 후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 집안 차례를 지냈다. 정초인 첫날에 지내는 까닭은 마을에 부정이 없을 때 서낭제를 지내기 위함이다. 제일이 정초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이에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도가가 부정한 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섣달 그믐날에 제물을 준비했다가 새해 초하룻날이 시작되는 시간에 바로 지냈던 것이다. 부정 없는 날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서낭당

서낭제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유효하여 마을에서는 가능한 정월 초하루와 근접한 날을 택하려고 한다.

요즘도 날을 받아 정월 초에 지내지만 시간은 예전보다 많이 늦어져 아침 9시에 지낸다. 예전보다 늦은 시간에 하는 까닭은 마을 구성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4년에는 풍암2리에서 음력 1월 3일에 서낭제를 지냈고, 풍암1리에서 다음 날인 음력 1월 4일에 지냈다. 예전에 제의 3일 전에 금줄을 맸을 때는 서낭에 금줄을 먼저 치고 다음에 도가 집에 쳤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 전날 서낭에만 금줄을 친다. 2014년에는 풍암2리가 먼저 서낭제를 지내므로 제의 전날인 1월 2일에 금줄을 쳤고, 풍암1리에서는 풍암2리에서 친 금줄을 1월 4일 아침 일찍 떼고 새로운 금줄을 쳤다.

풍암1리에서는 백설기, 돼지머리, 메, 쌀 한 그릇, 탕, 시금치나물, 무나물, 버섯볶음, 밤, 대추, 사과, 배, 북어 등을 진설하고 식혜로 헌작했다. 풍암2리에서는 백설기, 돼지머리, 메, 쌀, 무나물, 밤, 대추, 북어 등을 진설하고 식혜로 헌작했다. 이렇듯 술이 아닌 식혜로 헌작하는 까닭은 자작고개에 있는 서낭신이 여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마을에서는 이장이 제관과 도가를 겸하기 때문에 제수도 이장이 준비한다. 풍

암1리에서는 노인회장이 축관을 맡았으나 풍암2리에서는 이장이 고축을 했다. 소지는 두 마을에서 소지관이 각호의 대주 소지를 올리며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의 경우는 그 사람의 소지를 올렸다.

제의 순서는 두 마을이 같다. 제물이 다 차려지면 제관인 이장이 헌작을 하고 재배를 한 후 축관이 고축을 한다. 고축을 마치면 모두들 배례를 한 후 제물을 조금씩 떼어 수부로 생각되는 서낭당 옆 나무 아래에 둔다. 이후 풍암1리에서는 철상을 한 다음 마을 소지와 이장 소지를 올리고 각호의 대주 소지를 올렸다. 풍암2리에서는 마을 소지, 이장 소지, 각호의 대주 소지를 차례로 올린 후 철상하고 음복을 했다.

(5) 화촌면 송정리 만내 서낭제

만내마을에는 서낭당에서 서낭제를 지내고, 마을의 삼거리가 있는 곳에서 거리제를 지내는데, 마을에서는 이를 거리제사라고 한다. 거리제를 지내는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낙상하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차 사고 나지 말라고 지내는 것이다.

제일은 예전에는 날을 받아서 정월 초에 지냈으나 지금은 번거로움 때문에 매년 1월 14일에 지낸다. 마을에서는 서낭제를 '당고사'라 하고 주관하는 사람을 도가라 하는데, 도가가 제수를 구입하여 제물 준비를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쓰는데 암수를 가리지 않으며, 백설기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다. 메도 1그릇 지어놓는데, 거리제에서는 서낭제 때 올린 제물을 그대로 가져오고 주과포만 따로 준비하여 진설한다. 제주는 서낭제와 거리제 모두 식혜를 올린다. 거리제에서는 원래 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내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메밀묵을 쓰고 있었다. 예전에는 메밀을 껍질 채 갈아서 더욱 검었는데, 요즘은 메밀가루를 사다가 집에서 묵을 만들기 때문에 묵이 예전처럼 검지 않다. 서낭신은 남녀 구분이 없으며 거리신도 마찬가지다.

서낭당은 1960년대 장마 때 망가져서 원래 있던 곳에서 40여m 떨어진 지금의 자리로 2004년에 옮겼다. 서낭제에는 여성들이 참석하지 않으나, 거리제는 여성이 참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2013년에는 1월 14일 오전 10시경에 서낭제를 시작했는데, 제물로 백설기, 돼지머리, 메, 쌀, 탕, 무채나물, 통북어, 실타래,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등을 진설한 후, 도

가와 소지관이 함께 감주로 헌작을 하고 재배했다. 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헌작과 재배한 다음에 소지관은 각호의 대주 명단을 보면서 한 명씩 소지를 올린 후 음복을 하고 철상을 했다.

서낭제가 끝난 후 바로 거리제를 지내기 위해 철상한 제물을 가지고 서낭당 앞 삼거리에 자리를 깔고 진설을 했다. 제물은 백설기, 돼지머리, 메, 쌀, 밤, 대추, 사과, 배, 메밀묵, 무생채 등이다. 백설기·돼지머리·사과·밤·배·대추 등은 서낭에 올렸던 것이고, 메·메밀묵·쌀·무생채 등은 새로 준비한 제물이다. 거리제에서는 서낭제에서와 달리 무채를 익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모른다고 소지관이 이야기했다. 진설이 끝난 후 소지관이 감주로 헌작을 하고 재배를 마친 후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 한지에 싸서 냇가에 두고 칼을 던져 칼끝의 방향을 살핀다. 칼끝이 밖으로 향하면 거리신이 흠향했다는 증거라 한다. 철상한 다음 옆에 마련한 자리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며 점심을 함께한다.

3) 거리제

거리제는 '노제'라고도 한다. 거리제에서 모셔지는 신격은 기본적으로 산신이나 서낭신보다 아래 신격이다. 마을의 주신이 마을의 산이나 서낭에 자리하고 있다면 거리제에서 모시는 신은 그보다 아래 서열의 신이며, 주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나 삼거리 등에 자리하고 있다.

거리제의 신체는 수살·수구맥이·장승·솟대 등과 같이 마을에 따라 형태·명칭에





화촌면 송정리 만내 서낭제. 소지 올리기(좌) 송정리 만내 거리제(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재액 및 부정을 막는다는 공통적인 역할을 하며 거리제의 대표적인 신격이 된다. 마을에 따라서는 형상물 없이 삼거리나 사거리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홍천지역에서는 서낭제를 지낸 후 거리제를 지내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거리제만을 지내는 마을도 있다. 장승 및 솟대를 깎은 후 거리제를 지내는 마을이 있고, 제물로 개를 올리는 데도 있다.

(1) 북방면 화동리 범골 거리제

화동리 범골마을에는 서낭당·장승·솟대 등이 있는데, 매년 음력 정월 초나흗날 저녁에 서낭제·장승제·거리제를 지낸다. 몇몇 사람은 거리제를 장승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장승제와 거리제를 구분하고 있다.

서낭당은 마을회관 옆에 있고 장승과 솟대는 3곳에 나눠져 있는데, 마을 저수지 아래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장승과 솟대, 마을 동쪽 입구에는 동방청제장군(東方靑帝將軍) 장승과 솟대, 서쪽에는 서방백제장군(西方白帝將軍) 장승과 솟대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을 두지 않고 있으며, 솟대를 '수살'이라 표현한다. 서낭과 장승 그리고 솟대를 둔 것은 언제부터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한다.

2013년의 범골 서낭제·장승제·거리제를 살펴본다. 음력 1월 4일 아침에 여럿이 산에 가서 장승과 솟대 만드는 데 쓸 나무를 베어 왔다. 안목 있는 사람이 산에 가서 미리 나무를 정해놓아서 당일 아침에 쉽게 베어 올 수 있다. 장승과 솟대는 해마다 새로 만들어 세우는데, 재작년에 세운 장승과 솟대는 뽑아서 거리제 지낼 때 불사르며, 뽑은 자리에는 올해 새로 만든 장승과 솟대를 세웠다.

소나무를 다듬어 장승을 만든 다음 먹물로 글을 쓰고, 솟대에는 먹물로 용틀임을 그린다. 장승과 솟대를 완성하면 장승과 솟대를 세워놓고 서낭고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오전에 산에서 나무를 준비해 동방청제장군이 있는 곳에서 장승과 솟대를 다듬어서 세우고,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갈리어 중앙에 있는 천하대장군과 솟대, 서쪽에 있는 서방백제장군과 솟대 등을 각각 세웠다. 그러나 2013년에는 마을회관 공터에서 장승과 솟대를 모두 만들어 동방청제장군과 솟대, 천하대장군과 솟대, 서방백제장군





북방면 화동리 범골
천하대장군(좌)
동방청제장군(중)
서방백제장군(우)

과 솟대 순으로 세웠다. 장승과 솟대를 세우면 바로 왼새끼를 장승에 두른 다음 한지를 접어 예단을 입혔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먼저 서낭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그리고 천하대장군 앞에서는 간단하게 제물을 차린 후 배례를 한 다음 거리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서낭제에서는 백설기·소족·북어·생채·곶감·대추·밤 등을 진설하고, 천하대장군 앞에는 메·탕·생채·곶감·대추·밤·북어 등을 차렸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40여 가구로부터 쌀을 1되씩 걷어 백설기를 한다. 경비는 예전에 갹출해서 적립한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낭제 지내는 마을 돈이 따로 있다. 거리제 제물은 서낭제에서와 같이 백설기(3되 3홉)·북어·소족·생채·곶감·밤·대추 등을 진설하였다. 거리제 때에는 백설기·소족·북어 등을 제외하고 밤·대추·곶감·생채 등을 똑같이 3그릇씩 진설했다.

서낭제 지내는 시간은 많이 걸리는 편인데, 서낭에서 마을 구성원 각각의 소지를 올리기 때문이다. 서낭신의 성별은 모르며 '성황신'이라 한다. 수부는 모시지 않는데, 예전에 서낭 안에 주물로 만든 돼지처럼 생긴 것이 여러 개 있었으나, 누가 다 집어 갔다고 한다. 현재 '성황지신(城隍之神)'이라 쓴 위패와 돌 하나가 있다.

제의에는 제관 1명, 축관 1명, 유사 등을 선발한다. 예전에는 유사를 부정이 없는 사람 1명을 택했고, 마을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했다. 몇 해 전부터는 노인회 여성회원들 중 2명을 뽑아 제물을 준비한다.

서낭제에서는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이 헌작하고 재배한 후에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서낭당 소지, 마을 소지, 마을이 운영하는 정미소 소지, 제관 소지, 이장 소지,

각호의 대주 소지 순으로 올렸다.

서낭제를 마친 제관은 천하대장군 장승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배례하는 것으로만 장승제를 마치고, 장승 아래의 거리에서 거리제를 지냈다. 이때 주변인들은 재작년에 세웠던 장승과 솟대를 불살랐다. 거리제 제물이 모두 진설되면 제관은 식혜로 헌작하고 재배한 다음 축문을 읽는데, 동일한 축문을 세 번 읽고, 고축한 축문은 그 자리에서 소각했다. 이후 철상하고 마을회관에 모여 저녁을 함께했다. 거리제에 올렸던 떡은 약떡이라 해서 조금씩 나눠줬다.

(2) 서석면 수하리 안절골 거리제

수하리는 1·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절골은 수하2리에 속한다. 안절골에서 거리제를 지낼 때는 무사골·양짓말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지만 수하2리에 속하는 바깥절골 마을에서는 서낭제를 따로 지낸다.

마을에서는 거리제를 '거리제사'라고 표현한다. 예전에는 거리제를 지낼 때 생기를 따져 도가를 선발했으나, 지금은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반장이 마을 구성원 중에서 지정한다. 거리제는 도가 집 가까운 삼거리에서 지내는 까닭에 제의 장소는 해마다 달라진다.

마을에서는 산신제나 서낭제를 지내지 않고 오직 거리제만 지냈다. 예전에는 거리제를 지낼 때 복술이 '삼로가상 횡수대장'을 세 번 불렀는데, 이는 그분을 모신다는 의미로 그러는 것이다. 요즘은 횡수대장을 부르지 않고 제상 위에 '삼로가상횡수대장지위(三路街上橫數大將之位)'라고 써놓는다. 예전에는 도가로 선출되면 제일 3일 전에 도가 집에 금줄을 쳤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제일은 예나 지금이나 음력 정월 첫 정일(丁日)이다. 만약에 정월 들어 마을에 부정이 있으면 다음 달로 연기를 한다. 제의는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지내며, 제의 방향은 지내는 장소에서 제상이 동쪽으로 향하도록 차려놓는다.

예전에는 통북어, 대추, 밤, 무채나물, 메 하나, 백설기(3되 3홉), 담근 술 등을 진설하였다. 당시 마을에 쌀이 귀한 까닭에 제주는 옥수수로 도가 집에서 빚었다. 예전부터 축문은 없었고 소지만 올렸는데, 도가는 음식준비만 하고 소지는 경 읽는 사람이 올렸다. 지금은 소지를 올리되 특별한 축원 없이 그냥 이름만 외치며 올린다. 안절골





서석면 수하리 안절골 거리제. 진설하기(좌) 거리제의 지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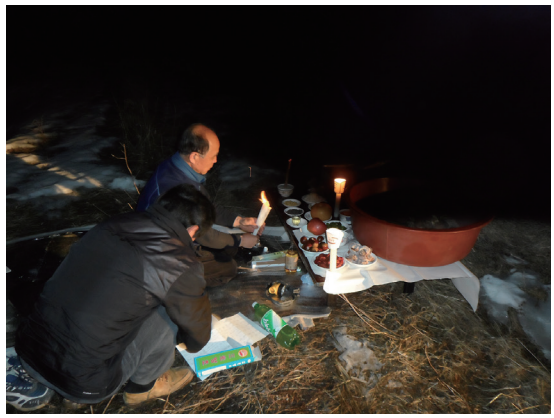
거리제에서는 예전부터 여성들도 참석했다.

2014년 음력 1월 5일 안절골 거리제가 열렸다. 첫 정일 저녁 어둑해질 무렵에 도가가 자신의 집 앞 삼거리에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였다. 제물은 백설기, 메, 돼지머리, 무채나물, 북어찜, 통북어, 사과, 배 등이다. 제물을 차린 후 도가가 헌작하고 배례를 하였다. 안절골 반장이 백설기에 숟가락 15개를 꽂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지역민들도 알지 못하고 다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 하였다. 이후 무사골과 양짓말 반장이 차례로 헌작과 배례를 했다. 헌작과 배례를 마친 반장이 돈을 내놓자 안절골 반장이 "정보도 잘 듣고 먹기도 잘 먹으라"는 덕담을 하면서 돈을 진설한 돼지 귀와 코에 꽂았다. 이후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도가부터 시작하여 각호의 대주 소지를 차례로 올렸으며, 소지를 올릴 때는 대주 이름만 외쳤다. 소지 올리기를 마친 후에 지방을 소각하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 종이에 싼 다음 삼거리 한쪽에 두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음복하고 철상한 후에 도가 집에서 저녁을 함께한다.

(3) 화촌면 구성포리 무수터 거리제

구성포리는 1·2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수터마을은 구성포2리에 속한다. 무수터는 서낭제와 거리제를 지냈는데, 약 20년 전 장마 때 몇몇 사람이 서낭당을 부수어 물에 집어넣었다. 그 안에는 철마 7마리가 있었다. 이후 서낭당을 부순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어 15년 전부터 거리제를 부활하였다. 서낭당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짓지 않고 거리제만 지낸다. 마을에서는 서낭제를 서낭제사라 하고, 거리제 또한 거리제사





화촌면 구성포리 무수터 거리제. 제물차리기(좌) 소지 올리기(우)

라 한다.

예전에는 서낭제과 거리제를 정월에 날을 받아서 저녁에 지냈다. 한편 거리제를 위해서는 개를 잡았다. 마을에서는 제물로 쓰는 개를 '마리'라 부르는데, 내장만 빼고 통으로 삶아서 진설한다.

거리제 장소는 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마다 바뀌지 않았다. 거리제는 해마다 날을 받아 지낸다. 예전에 도가를 선발할 때는 생기에 맞춰 선발했으나 지금은 상가(喪家)를 비롯한 부정한 곳에 다녀오지 않았으면 크게 따지지 않는다. 한 달 전에 뽑는다. 축문은 읽지 않고 소지만 올린다. 마을 소지를 올리고 각호의 대주 소지를 올린다. 경비는 마을 돈으로 감당한다.

거리제 지내는 앞산을 만내산이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에 호랑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물도 호랑이가 좋아하는 개를 쓰는 것인데, 만내산 산신은 여신이므로 수캐만을 쓴다고 한다. 마을에서 호환이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2013년 음력 1월 17일 거리제가 열렸다. 저녁 어두워지면 도가와 반장이 경로당에서 준비한 제물을 갖고 제의 장소에 가서 상을 펴고 진설한다. 제물은 마리(개), 백설기, 통북어, 무채,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물김치, 식혜, 밤, 대추, 곶감, 사과, 배, 팥, 콩 등이다. 제물이 차려지면 먼저 도가가 약주로 헌작을 하고 재배를 한다. 그리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도가가 구술로 축원을 하고 마을 소지를 올린다. 이후 각호의 대주 소지를 일일이 올린 다음 참석자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헌작과 배례를 한다. 개별 헌작과 배례를 마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한쪽에 둔 다음 그 자리에서 가볍게 음복

을 한다. 음복이 끝난 후 철상하여 경로당에서 저녁을 함께한다. 무수터 거리제에는 여성들이 참석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여성회원들이 제물을 마련한다.

무수터 거리제에서 중요한 제물은 개인데, 마을에서 구입해 손질하여 아침부터 큰 솥에다 삶는다. 거리제가 끝나면 마을 구성원들은 경로당에 모여 개로 탕을 만들어 한 그릇씩 먹는다.

2. 가정신앙

가정신앙은 집안에 신을 두어 섬기는 것으로 가택신앙·가신신앙·집안신앙이라고도 한다. 가신의 형태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 각 신들에게는 고유한 영역이 주어지고 맡은 역할 또한 다르다.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성주,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 출산과 육아를 관장하는 삼신 등과 같이 가신들 내에서도 역할 및 위계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집안의 안녕과 풍요 그리고 건강 등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많은 신들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여파로 우리 곁에서 하나둘 사라졌다. 그 결과 지금은 극히 일부 지역이나 집안에서 모시는 특이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홍천군도 다르지 않다. 홍천군내 여러 마을 공동체에서는 산신제·서낭제·거리제 등과 같은 마을신앙을 활발하게 전승하고 있지만, 이들 마을에서 성주·조왕·삼신 등의 가정신앙을 지내는 집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여기서는 한 때 가신들을 섬기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지역민의 구술을 중심으로 가정신앙을 정리한다.

1) 안택

안택은 텃고사라고도 하는데, 가정신·가택신·집안신에 해당하는 성주·조왕·삼신 등에게 축원하는 것이다. 홍천에서는 보통 추수를 마친 시월상달이나 정월에 지낸다. 제물은 시루떡이 중심이 되며, 가정형편에 따라 떡의 가짓수나 양은 차이가 난다.

서석면 수하리에서는 성주고사를 안택이라 한다. 안택은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다음 날을 잡아 경쟁이가 와서 비는 경우가 많았다. 안택을 할 때는 3시루를 해서 성

주·부엌·외양간 등에 두었다. 이웃의 다른 집에서는 팥시루와 백설기를 각각 하나씩 해서 나란히 같이 뒀다고 한다.

화촌면 군업리에서는 수확한 곡식을 손으로 떠서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안택할 때 백설기·팥설기를 쪄서 마루에 있는 성주에게 한 접시 먼저 올렸다. 이후 위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올리는데, 순서는 잊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구간·부뚜막·굴뚝·뒤란 등에도 한 접시씩 올렸다. 그런 다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돌렸다.

서석면 청량리에서는 안택할 때 찌는 떡을 '안택떡', '집안떡'이라 하였다. 안택 때 성주, 터주, 기타 여러 신 등을 위한 떡을 따로 마련하고 가신에 따라 떡의 내용도 달라졌다고 한다.

> "옛날에 안택 해 먹으면, 정월달이고 가을이고 안택하면 떡 해 먹었잖아요? 그러면 성주를 거기다가 모시는데, 떡을 하면은 성주실구(시루)는 백설기, 하얀 백설기 제일 먼저 찌는 거야. 방아 찧을 때도 먼저 찧고 시루에다 찔 때도 가장 먼저 찐다고. 그래 제일 먼저 안치고, 이제 터주지신 떡은 하얀 떡에다가 콩을 놔. 콩을 섞어가지고 마구설기처럼 찌고, 둘째 번에. 그다음에 셋째에는 동토살이고 뭐 가정에 막돌아가미 하는 거는 수수떡에다가 팥 켜를 넣어, 팥을 삶아가지고 켜를 놓아 찌고. 그렇게 세 가지 떡을 찌더라고."

안택을 지낼 때는 보통 떡을 해놓고 주부가 비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복술을 불러 빌기도 했다.

2) 성주

성주는 집을 일으켜 세운 신으로 '성조(成造)'라고도 하며, 모시는 장소는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홍천에서 성주를 모시는 형태는 성주단지와 종이성주가 있다. 성주단지는 안방 시렁에 놓고, 종이성주는 마룻대에 매는 것이 보통이나, 서석면 청량리에서는 '성주조왕'이라 해서 부엌의 들보 위 대공에 걸었다고 한다. 단지에 성주를 모신 경우, 여름에는 보리를 쪄서 그곳에 모셨다가 가을이면 그것을 꺼내 먹고





내면 방내리 아개동 성주(좌)
화촌면 장평리 안마을 성주(우)

단지에는 햅쌀을 다시 넣었다.

내면 자운리에서는 햇곡식이 나오면 팥떡·콩떡을 각각 한 시루씩 해서 성주가 있는 곳에 두고 마음으로 빈 후에 먹었다. 당시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떡을 보통 2~3말씩 했다. 지금도 햇곡식이 나오면 떡을 조금해서 응접실 한쪽에 두었다가 먹는다. 남면 시동리에서는 예전 성주를 모실 때, 성주 모시는 것을 소홀히 했다가 아이들이 몸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내촌면 광암리에서는 정월에 날을 받아 부엌의 성주대에 문창호지를 접어 걸고 그 앞에 팥시루떡을 차린 후 금년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남면 유치리에서는 가을에 집안떡을 하는데, 날을 받아 경쟁이를 초청해 성주를 모신다. 보통 저녁 후부터 시작하면 자정이나 새벽 1시 경까지 경을 읽는데, 경을 읽을 때는 대잡이도 동행한다. 대잡이는 소나무 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다듬어 대를 만든다. 경쟁이가 숟가락 매단 북을 두드리면 대잡이는 대를 방바닥에 두드린다. 이때 집안의 남자는 편하게 앉아서 구경하지만, 여자는 경쟁이의 축원과 함께 비손을 한다. 경 읽기가 끝나면 부인은 떡을 시루에서 떼어 부엌과 장독대에 갖다 놓는다. 경쟁이는 한지를 딱지처럼 접어 막걸리에 담갔다가, 안방 들어오는 문기둥 위쪽 벽에 붙이고 그 위에 쌀을 한 움큼 뿌린다. 그리고 거기에 대잡이가 쥐고 흔들던 성주대와 실타래를 건다.

내면 방내리에서는 방 기둥에 성주를 모시고 있는데, 집에 있는 성주를 '터기도' 드리는 것이라 한다. 정월 초에 가서 생기를 따져서 날을 잡아 고사를 지내는데, 1년 농

사 잘되게 해주고, 자손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한다. 제물은 백설기·메·주과포 등을 진설하는데, 예전에는 백설기와 더불어 팥시루도 진설했다. 지금도 성주고사를 지내고 있다. 벽에 걸어놓은 한지를 성주라 하는데, 방에서 기원하고 소지를 올린 후에 서낭당에 예단을 걸듯이 벽에 한지를 건다. 이때 쌀을 손으로 조금씩 세 번을 집어 한지에 싸서 걸어둔다. 기존의 것은 버리지 않고 해마다 새것을 그 위에 건다. 만약에 종이성주가 너무 많아 거는 것이 불편하면 일부를 떼어내어 깨끗한 곳에서 태우며, 현재의 것은 10년 정도 되었다. 방내리에는 지금도 성주를 모시는 집이 여럿 있다.

3) 조왕

조왕은 부엌에 머물러 있는 가정신으로, 조신·조왕대신·부뚜막신 등으로도 불린다. 조왕은 본질이 화신(火神)으로 부엌에 존재하는 까닭에 부녀자들과 관계가 깊다.

홍천에서는 조왕을 따로 모시기보다 안택 때 떡을 해서 한 시루는 성주에 놓고 비손을 한 후에 떡을 썰어 조왕이 있는 부엌, 터주가 있는 뒤란의 장독대, 군웅이 있는 외양간 등에 갖다 놓고 빈 후에 식구들이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서석면 청량리에서는 조왕과 성주를 부부로 인식하여 두 신을 부엌에 함께 모시고 '성주조왕'이라 한다.

4) 삼신

삼신은 아이의 탄생을 돕고 길러주는 신으로 산신·삼신할머니 등이라고도 한다. 신체는 삼신바가지·삼신주머니·삼신단지·장롱 등 다양 곳에 모시지만, 모두 안방에 자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통 삼신상을 차릴 때는 밥과 미역국을 3그릇씩 혹은 1그릇씩 올린다. 아이가 자라면서 갖가지 질병이 따르기 때문에 삼신을 위하는 의례는 수시로 행해진다. 삼신을 집에다 모시고 있는 경우에 아이가 탈이 나면, 밥·미역국·정한수(정화수) 등을 준비하여 삼신 앞에 차려놓고 빈다. 모시는 신체가 별도로 없는 허공삼신이면 엄마와 아이가 지내는 방에다 상을 마련하고 비손을 한다. 아기가 커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도 삼신의 배려는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대개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 삼신이 돌

봐준다고 한다.

결혼 후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떼밭에 가서 삼신을 모셔 오는 경우가 있다. 삼신을 모실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비손하고 축원한 다음, 주변의 잔디로 작은 똬리를 만들어 며느리의 허리에 차고 집에 오면 아이가 들어선다고 한다. 아이가 들어서거나 출산한 후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삼신에게 미역국 1그릇을 올린다.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미역국 1그릇은 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삼신상 한 상 차림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 따라서 미역국 1그릇은 산모가 먹는 미역국·밥·정한수 등을 함께 이른다.

5) 산치성

홍천에서는 산치성을 개인이나 집안 식구가 함께 산에 가서 정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까닭에 지역에서는 산치성을 '산에 정성 드리러 간다'는 표현을 쓴다.

서석면 생곡리 제보자는 지금도 4월 초파일이면 부모님이 다니셨던 산에 가서 정성을 드린다. 이날 부인이 새옹메를 지어 북어·과일 등과 함께 싸주면, 남편은 그것을 들고 이른 아침에 부모님 때부터 다니던 산에 가서 싸준 제물을 진설하고 축원을 한다. 축원이 끝나면 차렸던 제물을 주변에 놓는데, 이는 산에 있는 짐승들이 먹는다. 이 마을에서는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초파일 새벽이면 정성 드리러 산에 다녔으나 지금은 연세들도 많고 힘이 들어 다니지 못하고 있다. 부정이 없으면 부인과 함께 가지만 어두운 산길이라 위험하므로 보통은 남편 혼자 간다. 제보자 남편도 나이가 있어 언제까지 산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서석면 청량리 제보자는 칠월 칠석이나 구월 구일에 산에 가서 정성을 드린다. 산에 갈 때는 작은 솥과 초만을 가지고 간다. 산에 가서 쌀을 씻어 솥에 담가 촛불을 켜 놓고 메를 지어서 올린 후에 축원하는데, 주로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지금은 다리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다니지 못하고 있다.

6) 신줏단지

신줏단지는 돌아가신 조상을 집안에 모신 것으로 '조상단지'라고도 하는데, 영남지방

에서는 세존단지·시조단지, 호남지방에서는 제석오가리라고 한다. 영남지방에서는 단지 안에 매년 추수 때마다 햅쌀을 정성스럽게 갈아 담는다. 원칙적으로 맏아들 집에서 모시는데 대개 안방 윗목의 시렁 위에 놓는 경우가 많다. 종손이나 장손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사당을 짓고 신주를 모실 수는 없으니, 이것은 그 사당의 약식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호남지방에서는 장손이 제석오가리와 신줏단지(또는 몸오가리)를 모시는데, 오가리란 오지그릇의 단지나 항아리를 가리키는 사투리이다.

홍천지역에서는 지역민들 대부분이 신줏단지를 모신 일이 없었거나 신줏단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홍천에서는 신줏단지 모신 일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신줏단지를 모신 일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서석면 청량리 제보자는 시어머니 때는 모르겠으나 시집을 오니 시댁에서 신줏단지를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서 친정에서도 신줏단지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한다.

7) 영등

영등은 풍신(風神) 또는 영등할머니라 칭하는데,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다. 음력 2월 1일이 되면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 2월 15~20일 사이에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 그래서 영등은 모시는 가정에 따라 15일 또는 20일까지 모신다. 영등은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음식을 마련하여 풍년과 풍어를 기원한다.

홍천지역 대부분 마을에서는 영등을 모시지 않고, 영동지역 사람들이 주로 모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집에서 위했고, 지금도 여러 가정에서 모시고 있다.

내면 광원리 제보자는 음력 2월 1일을 '풍신(風神) 내려오는 날'이라고 하면서 찰밥을 했다. 찰밥은 팥·찹쌀·수수쌀·좁쌀·콩 등을 넣고 쪄서 만드는데, 찰밥이 다 되면 시루 채 장독대에 가져다 놓고 비손을 했다. 풍신이 올라가는 날에는 풍신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는 음식은 없다. 풍신이 내려오는 날 바람이 불면 봄 한 철 바람이 분다고 했다.

내면 자운리 운두령 제보자는 음력 2월 초하룻날에는 풍신이 내려오는 날이라고 해서 밥, 동태찌개를 각각 한 양재기 퍼서 돼내(뒤란) 장독대에 올려놓고 "풍신할머니 내려오셔서 오곡밥을 해놨으니 단단히 잡숫고 즐거이 올라가시라고 하면서 우리 농

사 열두 달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 그리고 2월 20일 올라가는 날까지 매일 아침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었다고 한다. 풍신이 머무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장독대에 뒀다가 먹었다. 풍신이 내려오는 2월 초하룻날 날이 좋으면 "아이고 풍신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날이 이렇게 따시고 좋다!" 하고, 딸을 데리고 내려오면 "풍신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내려와서 날이 흐렸어!"라고 했다.

내면 자운4리 제보자는 2월 초하루에 풍신도 위했는데, 대부분 강릉 쪽에서 살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도 지냈을 뿐이고, 이곳 토박이들은 풍신 모시는 걸 몰랐다고 한다. 풍신을 위할 때는 음식을 해도 풍신에게 놓았다가 먹었고, 이웃에서 뭘 가지고 와도 먼저 그곳에 두었다가 먹었다. 예전에 제보자 어머니는 2월 초하룻날 음식을 해놓고 숟가락을 잔뜩 꽂아놓고 정성을 드리다가 다음 날부터는 정한수만 떠놓고 치성했다고 한다.

"그때 내 어릴 적에, 몇 살 안 돼서, 몇 살이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웃에서 뭘 인제 음식을 해가지고서 이제 갖다 먹으라고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야야 그거 저 갖다 놔라!' 근데 그 가져온 사람이 친구, 이 같은 친군데, '야야 이 얼른 들라놓고 놀러가자!' 이런단 말이야. 그 놀러가자는 거기에 팔려가지고 이놈을 갖다 제자리에 안 갖다 놓고서 그 아무데나 팁석 놓고 고만 놀러 갔단 말이야. 놀러가서 인제 놀다가 한 저녁 때가 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배길 장사가 있나요 뭐. 그래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해가 붉게 넘어가는데, 그 해가 햇빛이 아니구 불빛이더라구요. 좀 있더라니까 정신이, 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 육신이 전수 틀어져가는 거야. 이 팔이 뒤에도 가 있고 뭐 막 고개가 이리 돌아가고 막 야단쳤단 말이야. 뭐 그게 만개 뭔지 아는가요? 지금도 뭐 그렇게 되면 뭔지 몰라요. 그래 이웃의 노인네 한 분이, 용한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노인이 뭐 점이라 하잖우? 점이라고 점을 하다니까 '아, 풍신 탈이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밥을 이래 해다 놓고 뭐 잘못했다고 빌으니까, 그다음에 이, 그러는 시간이 아매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서너 시간 그러했던 모양이래요. 그 해가 넘어가는 걸 봤는데, 방에 불을 켜난 기, 깨나보니 불을 켜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됐죠. 그래 그 불 켜놓기 전에두, 그 해 빌기 전까지두 막 그냥 이래

가지구서 다 죽다시피 이래 가지구 있었는데, 이래 가지구 '잘못했다!' 빌구 나니까 그다음에 이 몸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래요. 자 이제 제대로 돌아오고서, 그 다음에 이 불 켜논 것이 빨갛게 뵈키더라구. 그때 이제 살아난 거지."

제보자가 군대를 다녀왔을 때도 어머니께서 풍신을 위했다. 결국 제보자가 어려서 그렇게 풍신 때문에 혼이 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 그만두게 하였다.

8) 터주

터주는 집터를 지켜주는 신으로 터줏대감·토주대신·후토주임·대주라고도 한다. 성주가 집안의 어른이라면 터주는 땅의 신으로 집안의 액운을 걷어주고 집터를 맡아서 재복을 주는 기능을 한다. 터주는 대개 집의 뒤뜰에 옹기나 질그릇단지에 벼를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위에 짚으로 엮어서 터주가리를 만들어 모신다.

서면 중방대리 제보자는 집을 다 지은 후에 터주에 고사를 지내고 터주항아리에 벼를 넣어 두었다가 살림이 매우 어려워지면 꺼내서 찧어 먹었다고 한다.

서석면 청량리 제보자는 안택할 때 터주의 떡을 찌었다. "터주지신 떡은 하얀 떡에다가 콩을 놔. 콩을 섞어가지고 마구설기처럼 찌고"라는 말처럼 떡을 했다. 그리고 터주는 뒤란 장독대에 있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그곳에 가서 많이 빌었다.



풍암리 고택의 뒤란 장독대

"터주지신은 장독대에 있는가 봐! 그래서 허공에 장독간에 가서 하는 건 귀신이 안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 대보름날도 촛불 장독간에다 켜놓고서 달을 볼라 그러면 거다 물 떠다놓고, 남편이 어디가 소식이 없어도 장독간에 물 떠다놓고 빌면 귀신의 탈도 없다는 얘기야. 뒤에 탈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장독간에서 많이 하지."

9) 칠성

칠성은 인간의 장수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홍천지역에서는 칠성 모시는 일이 활발하지 않은 까닭에 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북방면 북방리 제보자는 칠월 칠석에 장독에다 물과 부침개를 가져다 놓고 비손을 한 후에 먹었다고 한다.

10) 측신

측신은 측간(변소)을 관장하는 신으로 뒷간귀신·부출각시·변소각시·칙도부인·측신각시·치귀·정낭귀신 등으로도 불린다. 측신은 대개 여성 신으로 인식하는데 머리가 길며, 성격이 포악하고 노여움을 잘 타서 두려운 존재로 여겨져왔다. 변소에서 병을 얻거나 사고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소행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서석면 청량리 제보자는 "변소간에는 측신, 마당에는 벼락장군, 굴뚝에는 굴뚝장군 뭐야 잿간에는 측신장군 그렇대요. 그렇게 장군이 다 집에 있대. 똥통에 빠지면 떡해주잖아요. 명이 짧다고. 똥통에 빠지면 죽는다고, 떡을 해줘야 안 죽는다고 백설기 떡을 해준다고"라고 측신에 대해 설명한다. 만약에 아이가 변소에 빠져 떡을 하면 그 떡은 애와 집안에서 먹을 뿐 이웃에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

화촌면 성산리에서는 아이가 변소에 빠지면 예방하느라 송편을 해서 먹는데, 만약에 송편을 안 해 먹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속신이 전한다.

3.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무당을 주축으로 민간에 전승되는 신앙형태인데, 무속제의를 주관하는 이들은 무업(巫業)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강신무(降神巫)·세습무(世襲巫)·학습무(學習巫)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업에 종사하는 무당이고, 세습무는 부모 또는 시부모로부터 무당의 신분이나 무직(巫職)을 물려받은 무당이며, 학습무는 경문을 외어서 낭송하는 경쟁이를 이른다. 홍천지역에는 강신무와 학습무가 활동하고 있으나, 학습무인 경쟁이의 경우는 드물고 만신, 무당 등으로 불리는 강신무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홍천에서는 경쟁이를 '복술', '복술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천군에도 점집임을 알리는 깃발이 곳곳에 있는데, 홍천군에서 유명한 무속제의는 팔봉산 당굿이다. 팔봉산 당굿에 대해서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에 소개된 이후 몇 곳에 정리하였으나 『홍천강과 팔봉산 문화조사』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당굿은 오래 전부터 매년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팔봉산 정상의 당집에서 인근의 어유포리·반곡리·팔봉리·두미리·구만리 등의 주민이 모여 마을의 수호신인 삼부인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로 진행되어 왔으나, '대한승공경신연합회강원지부'가 참여하게 된 1993년부터는 봄철에만 당굿을 강변에서 크게 하고 있다.

팔봉산은 산봉우리가 8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제2봉 정상에는 2개의 당집이 있다. 2칸 크기의 당은 삼부인(三夫人)을 모신 곳이고, 그 옆의 작은 당은 산신·칠성·후토신을 모신 산신당이다. 산신당에는 제물과 함께 한지가 헌납되어 있고 중앙에는 두 개의 위패가 있는데, 칠성칠군(七星七君)·팔봉산후토신령(八峯山后土神靈)이라 쓰여 있다. 그리고 산신의 경우 예전에는 범이 산신을 모시고 있는 형태의 작은 산신도(山神圖)로 대신하였으나, 현재는 가운데 산신이 좌정하고 좌우로 동자가 자리하는 형태의 조각을 배치하고 있다. 삼부인당은 제단 중앙 벽면에 좌로부터 홍씨부인신위, 김씨부인신위, 이씨부인신위라고 쓴 위패가 있다. 팔봉산은 원래 여성의 형상이기 때문에 삼부인신을 모시고 있으며, 삼부인의 위치는 제보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씨는 시어머니, 홍씨는 며느리, 김씨는 딸이라고 한다.

팔봉산 당산제는 이씨·김씨·홍씨 등 세 부인을 모시고, 그들을 위하는 당굿을 벌이고 수명(壽命)·재복(財福)·태평(泰平)·액막이를 빈다. 예로부터 팔봉산 당굿을 보면

자녀를 많이 두게 되고 상팔자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안택·혼인·이사를 할 때, 문상이나 먼 길을 떠날 때도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는 팔봉산 당산제가 돈독한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 원주목 홍천현에서는 해마다 봄가을로 팔봉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정리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홍천현 사묘(祠廟)인 팔봉산사(八峰山祠)에 대해 "봄가을에 본현(本縣)에서 치제(致祭)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437년(세종 19) 예조에서는 여러 도의 순심 별감(巡審別監)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악(嶽)·해(海)·독(瀆)·산천의 단묘(壇廟)와 신패(神牌)의 제도를 상정하면서 강원도 홍천현의 팔봉산에 대해서는 "홍천현(洪川縣)의 팔봉산은 사묘의 위판에 팔봉산 대왕지신(八峰山大王之神)이라고 썼는데, 청하건대, '대왕' 두 글자는 삭제할 것. 또 사묘가 산 위에 있어서, 대단히 험하여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 청하건대, 땅을 가려서 단을 설치할 것"과 같이 위패에 새기는 글자까지 중앙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아울러 팔봉산에서 제사지내는 일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팔봉산 제사를 홍천현에서 치제할 때는 이렇듯 유교식으로 지냈으나,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민간신앙으로 바뀌면서 무당에 의해 제의를 치르게 되었다. 화재로 인해 팔봉산의 산신당과 삼부인당이 소실되어 제의를 거른 적도 있으나, 지금도 음력 3월 15일에는 큰 당굿을 지낸다.

홍천군 공식 블로그에서는 "오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면 팔봉산 유원지 일원에서 홍천군민과 관광객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여는 팔봉산당산제 추진위원회!"와 같이 2018년 팔봉산 당산제를 알리면서 일정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당산제는 매년 음력 3월 보름과 9월 보름에 전통적인 굿과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번영과 풍년, 군민과 관광객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문화행사인데요. 400여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당산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홍천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첫날인 28일 새벽, 팔봉산 2봉에 위치한 삼부인 당집에서 삼부인 신을 모시고 오는 제사를 시작으로 10시 30분부터 팔봉산유원지 일원에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당산제 첫날은 참석자들의 부정을 떨쳐내는 부정굿에 이어 서낭굿,

산신굿, 칠성굿, 장군굿, 작두굿, 대감굿, 대산 동자굿 등이 계속되며 오후 2시에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둘째 날인 29일은 오전 10시부터 홍천강의 익사 사고를 방지하고 익사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용신굿과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마당 굿을 펼치며 이틀간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해부터 재개된 팔봉산 당산제. 올해에도 내실 있고 풍성하게 행사를 마련했으니 홍천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도가를 팔봉산 당집의 당지기로 정했으나, 1976년에 당집을 새로 준공한 이후에는 북방면 노일리에 거주하던 세습무 박복녀에게 당지기를 맡겼다. 그러다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정순 보살에게 당집 열쇠를 맡겼던 까닭에 지역에서는 조성순 보살을 흔히 당지기라 한다. 당지기는 단순히 열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당굿을 비롯하여 지역민들과 각처에서 찾아온 이들을 위해 굿을 하고 축원한다.

조정순 당지기는 3월 15일에 하는 당굿을 '꽃맞이' 대치성, 10월 15일에 하는 당굿을 '햇곡맞이' 대치성이라 한다. 이날 당제를 지낼 때는 떡이 빠지지 않는데, 산신에게는 팥시루, 칠성에게는 백설기, 삼부인당의 이씨부인에게는 백설기, 김씨부인에게는 팥시루, 홍씨부인에게는 콩시루떡을 진설한다. 이와 같이 산신, 칠성, 삼부인신에 따라 떡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조정순 당지기는 "아 콩팥이 있잖어. 누구든지. 콩팥이 있으니까, 김씨부인은 땅에 살잖어. 칠성은 하늘에 있잖어. 하늘, 칠성, 칠성정기를 다 가지고 있구, 하늘에. 또 김씨부인은 이 산 지하의 정기는 다 인제 김씨부인이 안구 있구. 팔도명산 도신령님, 각도명산 신령님네. 팔도영산 대산신령, 이 정기는 다 김씨부인이 주량을 달구. 홍씨부인은 이나라 이씨별상 저나라 홍씨별상 강남 대한국은 사신별상, 이게 별상 정기를 다 가지구 있어. 그래서 콩이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순 당지기는 팔봉산 다섯 신의 신격 및 역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사자 팔봉산에서 제일 큰 신이 누구예요?

조정순 제일 큰 신이? 다섯 분이 다 똑같지 뭐.

조사자 아니 그때 저한테는 칠성이 제일.

조정순 칠성은 하늘이야. 천하정기. 천하정기는 다 하얀 시루 찌는 그 양반이 하늘의 정기는 다 가지구 있구. 또 김씨부인. 이 산 정기는 다 가지구 있구. 홍씨부인은 이나라 이씨별상 저나라 호기별상 강남 대한국은 사신별상. 굿할 적에. 그 양반 정기는 다. 까다로운 정기는 다 그 양반이야.

조사자 네. 아까 칠성하고 산신이라 그랬죠?

조정순 긍께, 칠성은 하늘이요, 김씨부인은 산신이요, 홍씨부인은 사해용왕! 용궁. 용국에서부터 인간의 정기는 다 까다로운 정기는 다 그 양반이 안고 있고, 홍씨부인이. 그래 까다로와. 굿할 때. 그래 삼부인이 최고잖아. 이씨부인은 하늘에 정기를 다 가지고 있고, 김씨부인은 이 산 정기. 팔도영산 도신령님, 각도명산 신령님네. 팔도명산 대산신령. 다 가지고 있고. 홍씨부인은 까다로운 거. 사해용왕에서부터 이나라 이씨별상 저나라 호기별상 강남은 대한국에 사시별상.

조사자 별상이 뭐예요?

조정순 우리네 호구마마 별상 알잖어?

조사자 그냥 이름이에요?

조사자 호구마마.

조정순 그럼. 그게 별상이지. 그게 호구마마 별상이 까다롭잖어.

조사자 특별한 어떤 신.

조정순 그니까 그냥반이 제일 까다로운 겨. 깨끗하고 뭐든지 정결하고 그래야지, 응. 그 저기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까다로워. 홍씨부인이 그래서 굿할 때 여간해서 안 내려. 통돼지도 잡고 그러잖아. 그런데.

조사자 그 세 신이 좌정하기 전에, 삼부인이 오기 전에 여기 있던 신이 원래 둘이 있었죠?

조정순 칠성 하구 산신.

조사자 산신은 여자 신이죠?

조정순 여기는 다 여신들이야.

조사자 다섯 명이 여신이라고 해요.

조사자 칠성도 여신이에요?

조정순 칠성, 산신, 이씨, 김씨, 홍씨. 다 여신들이구. 김씨, 이씨, 이 삼부인은 선녀들이 내려와서 하강하구. 이 양반들은 원래 주장이구.

조사자 그때 이런 얘기를 누가 알려주셔서 아시는 거예요?

조정순 아 신으루 다 통하지 누가 알려! 어떤 놈이 알려.

조사자 신이 알려줬대, 신이. 근데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씨는 시어머니였고, 김씨는 딸이고, 홍씨는 며느리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정순 이씨는 시어머니. 김씨는 며느리.

조사자 네 여기 사셨다면서요, 그렇게. 아니에요?

조정순 그렇게 자기네가 이름을 지은 거야. 시어머니가 어른이잖어. 그러니까 칠성정기를 가졌지. 홍씨는 사해용왕. 우리가 삼신이 아니면 못 사는 거여. 물을 못 먹어도 못 살고, 땅을 못 딛어도 안 되고, 하늘의 정기가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조화가 있는 거지. 홍씨는 사해용왕, 김씨는 산, 홍씨는 하늘에. 우리가 삼신이 아니면 못사는 거야.

조사자 그러니까 이 동네 살았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조정순 아이 선녀들인데 뭘 들어. 하는 소리지 다.

조사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조정순 그럼. 내가 모르는데, 신이 모르는데 뭘 알어. 누가!

위의 내용은 2015년 5월 1일에 팔봉산 당지기인 조정순과 인터뷰한 것인데, 당시에도 당집 열쇠와 관련하여 조정순은 마을구성원들과 갈등이 있었음을 얘기했다. 이후 갈등을 풀었는지 2016년 1월 1일자로 열쇠관리자가 바뀌었음을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한다.

> 팔봉산 <당집> 관리를 2016년 1월 1일부터 팔봉1리 이장님 및 정보화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건장치를 교체하였으니 이용자께서는 정보화마을에 오셔서 신분증을 맡기시고 열쇠를 받아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보화마을에 문의하여 주세요. 문의 033)435-1481 참살이정보화마을/문의 이광영 이장 010-8502-1259

참고문헌

『강원의 전통민속 예술』, 강원도, 1994.

『강원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88.

국어국문학과 학술조사반, 『강원도 홍천군 학술답사보고서』 (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VI,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8(중판).

김의숙, 「홍천군 동면 성수리 짓골 당제사」, 『마을신앙』 (上), 국립민속박물관, 2007, 181~187쪽.

노혁진 외, 『홍천군의 전통문화』,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문화유적분포지도 홍천군』, 홍천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민속지』, 강원도, 1989.

이영식, 「강원도 홍천군 동면과 서석면 지역의 마을제의 변화양상: 제일과 제물 그리고 제례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227~253쪽.

이영식, 「홍천강 지류별 마을 제의 존재 양상: 성산천·풍천천·성동천·굴지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강촌 문화』, 지식산업사, 2015, 63~94쪽.

이학주, 「공동체를 위한 동신의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내면에 전승하는 '권대감신'을 중심으로」, 『강원도 산간 문화』, 지식산업사, 2014, 227~22쪽.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 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의 가정신앙』 강원도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마을제당』 제2권 강원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77.

『홍천강과 팔봉산 문화조사』(강원인문논총 제4집 별쇄),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홍천군·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6.

『홍천군지』, 홍천군지편찬위원회, 1989.

http://sillok.history.go.kr(국사편찬위원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0061(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민간신앙).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1869(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상단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cgnews&logNo=221260966664.

http://palbong.invil.org/index.html?menuno=6938&lnb=50201(서면 팔봉산 당굿1,2 사진).

http://palbong.invil.org/index.html?menuno=6937&lnb=50101&bbsno=242654&boardno=611&ztag=rO0ABXQAM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jExIiBza2luPSJub3RpY2UiPjwvY2FsbD4%3D&siteno=145&act=view&village=33HC4028&sido=6420000&sgg=4250000.

제5장

민속놀이

놀이라 하면 보통 아무런 조건 없이 노동에서 벗어나 노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놀이는 단순히 노는 것,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문화라면 놀이는 문화 그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놀이이다.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일찍이 문화가 놀이라고 말하고 있다.

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놀이가 대세이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는 게임문화가 유행이다. 이에 비해 어른들 세계에는 놀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각자의 개인 취미를 즐기는 것 정도이다. 개인이 즐기는 취미도 놀이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면 고기를 낚는 과정과 기다리는 과정 등에서 맛보는 긴장감 등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놀이는 함께 하는 놀이, 혼자 하는 놀이 등으로 참여 인원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민속놀이는 전통 사회에서 개인별 대항 놀이보다는 공동체의 대결 구도가 더 큰 놀이로 자리잡고 있다. 공동체의 대결 구도 등이 계절별·시기별로 정해져서 행해지며 여기에서 또 개인적으로 대항하거나 함께 하는 놀이들로 나눌 수 있다. 함께 놀더라도 경쟁구도가 패로 나누어지는가, 개인끼리의 경쟁인가에 따라 단체놀이와 개인놀이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통사회에서 행해졌던 놀이들을 살피고 그 의미와 존재 양상을 생각해보자. 이후 현대사회에까지 이어지는 놀이가 있는지,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놀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홍천군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놀이는 1989년 『홍천군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에 전해지는 놀이를 48가지를 시기별로 설명해 놓았다. 이를 단체놀이와 개인놀이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단체놀이	개인놀이
윷놀이, 승경도놀이, 연날리기, 돈치기, 널뛰기, 달맞이, 석전, 쥐불놀이, 줄다리기, 다리밟기, 달집태우기, 걸립, 놋다리밟기, 연등 놀이, 화전놀이, 군사 놀이, 호박따기 놀이, 술래잡기, 쌍윷, 도둑 잡기	풀각시, 봉선화 물들이기, 장치기, 제기 차기, 씨름, 그네, 소싸움, 자치기, 팽이치기, 비석치기, 꽈리 불기, 닭싸움, 낫치기, 못 치기, 땅 빼앗기, 진 빼앗기, 공기받기, 목자놀이, 엿치기, 고누, 바둑, 장기, 투전, 골패, 목침 빼앗기, 팔씨름, 다리헤기, 그림자놀이

1. 단체놀이

단체놀이의 특징은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월의 세시풍속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설날에는 새해를 맞아 차례를 지내고 동네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세배를 하는 등 경건하게 지내지만, 정월 대보름 전후 며칠은 1년 중 가장 재미있게 노는 기간이다.

앞의 표에 정리된 놀이를 살필 때, 세시풍속과 관련해서 의례인가 놀이인가를 주의해서 구별해야 한다. 의례와 놀이는 목적이 다르지만 실생활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달집태우기 같은 것이 그 예이다.

1) 달집태우기

'달집'이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산기슭이나 언덕에 나무나 짚으로 만든 조그마한 움막을 말하는데, 달이 떠오를 때 이를 태우는 행위를 '달집태우기'라 한다. 이때 달집은 꼭대기가 한 점이 되도록 묶고 한쪽만 터놓으며 방향을 동쪽으로 한 후에 그 안에 새끼줄로 달을 만들어 매단다.

달집을 태우며 달에다 절을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1년 내내 무병하며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만을 본다면 달집태우기는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서 북부의 다른 지방은 대나무를 섞어서 태우기도 한다. 대나무가 불에 타서 터질 때 큰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의례적인 속성이 강하다.

그렇지만 달집을 준비하는 과정과 불을 질러 불이 솟아오르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등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다. 또한 마을 청년들은 이 불을 이용하여 쥐불놀이 등의 놀이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듯 정월대보름의 놀이는 의례와 놀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석전과 줄다리기 역시 놀이이면서 기풍의례(祈豊儀禮)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현재 홍천지역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는 곳은 여러 곳이다. 노천1리의 경우 정월대보름에 달집태우기를 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나무와 볏짚으로 달집을 만든 후 보름 저녁에 태웠다. 이때 풍물은 동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2) 석전과 줄다리기

민속놀이 중 겨울철 놀이 대부분은 정월대보름 기간에 몰려 있다. 정월대보름에 관련한 놀이 중 재미있는 것은 마을 대항 놀이가 많다는 점이다. 석전·줄다리기는 마을 청년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하는 놀이이다. 석전은 주로 청년들이 하는데 말 그대로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칠게 진행되어 사상자가 나오기도 한다. 주로 강변에서 마을 대항으로 많이 한다. 강변에는 돌을 구하기가 쉽고 거리가 멀어 싸움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석전에 비해 줄다리기는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이 적은 편싸움 놀이이다. 마을과 마을, 한마을의 동·서 지역 등으로 편을 갈라 노는데, 줄을 당겨 많이 끌어당긴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농한기인 정초에 마을에서는 모두 짚으로 새끼를 꼰 후 줄다리기하기 며칠 전부터 마을의 넓은 곳을 찾아 새끼 한쪽을 하나로 꼬아 머리를 만들고 여러 새끼를 이어 꼬면서 여러 갈래로 늘여 몸통 부분과 손잡이 줄을 만든다. 양편의 줄을 모아서 앞머리를 교차하여 연결하여 한쪽을 암줄, 다른 쪽을 수줄이라 하는데 동쪽과 남쪽이 수줄, 서쪽과 북쪽을 암줄로 칭한다. 각 편은 풍물을 동원하여 응원을 하며 줄을 당기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면 며칠에 걸쳐서 줄다리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을 사람 모두가 합심하여 줄다리기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는 쪽이 풍년이 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을 대항으로 내기도 하는데 이긴 마을 쪽에 음식을 대접하거나, 다리를 놓아주는 등의 조건을 걸기도 하였다.

이처럼 석전과 줄다리기는 마을의 활력소가 되는 집단놀이이면서 제의성을 지니

기도 하였다. 이 놀이들 모두 정월에 행해진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정월은 1년이 시작되는 신성한 달이다. 그러므로 이달에 행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은 앞으로 한 해 농사와 재액 등을 결정짓는 요소들로 보았던 것이다.

요새는 석전은 사라졌다. 줄다리기는 마을이나 학교 운동회에서 살아나 동네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군내 학교들이 줄고 운동회도 줄어 이러한 모습도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있다.

3) 횃불싸움

횃불싸움은 마을 대항 싸움이다. 자기 마을의 풍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 마을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횃불싸움을 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열심히 싸운 후에는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놀이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

서석면 생곡리에서는 예전에 횃불을 저릅(겨릅)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정월대보름 저녁에 깡통에 불을 넣어 돌리면서 옆 마을과 횃불싸움을 했다. 저릅보다 불이 오래갈 수 있고 손에 직접 닿지 않고 던지거나 위협하는 데 더 편했기 때문이다. 내촌면 광암리에서도 횃불놀이를 정월대보름 전후에 행했다. 열나흗날과 보름날에 긴 줄 끝에 석유 적신 솜방망이를 달아 돌리면서 놀았다. 석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최근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화촌면 성산3리에서는 산에 가서 싸릿가지를 베다가 겨릅하고 섞어서 '홰'를 만들어 '홰싸움'을 했다. 겨릅만으로 홰를 만들면 약하기 때문에 겨릅에 싸릿가지를 섞었다. 홰를 만들 때는 칡줄로 묶고 겨릅대는 잡히는 대로 묶었다. 이때 어른들이 '홰싸움'은 위험하다고 적극적으로 말렸다. 어렸을 때는 마을 등지봉에 올라가서 홰싸움을 하면서 달에게 소원을 빌었으나 나중에는 산불이 난다고 하여 주로 아래에서 했다.

4) 오곡밥 얻어먹기

오곡밥 얻어먹기 놀이는 서석면 생곡리의 독특한 놀이다. 정월대보름에 여러 명이 모여서 거치처럼 꾸민 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곡밥을 얻는 놀이라고 한다. 오곡밥을

얻은 뒤에는 큰 그릇에 담아서 섞은 다음 함께 먹었다고 한다. 마치 거치놀이를 하듯이 하였는데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했다. 이때 마을의 각 가정에서는 으레 이들이 올 줄 알고 오곡밥을 따로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였다.

5) 달마중하기

달마중하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는 놀이이다. 서석면 검산리에서는 보름날 밤 달 뜨기 전에 저릅대에 소나무를 박아서 횃불을 만들어 산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저릅만 묶으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광솔을 안에 박았다. 산에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밭둑에서도 했는데 달이 뜨는 것을 보면서 달에 대고 절을 하였다. 어른들이 절을 하는 아이들에게 "올 한 해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빌게 시켰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비는데 망우리를 돌리다가 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놀이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로 하였다. 화촌면 성산3리에서도 달맞이하면서 1년 건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망우리돌리기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6) 연싸움하기

서석면 검산리에서는 대보름 밤이 되면 연싸움도 하였다. 이 싸움은 개인 대항이 아니라 마을 대항으로 응달마을과 양지마을이 서로 편을 먹고 연싸움을 하였다. 한 마을당 15명씩 편을 먹고 서로 연줄을 교차시켜서 상대방 연줄을 끊어 연을 떨어트리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다. 이 연싸움에 쓰는 연은 대부분 방패연이었다. 다른 편의 연줄을 빨리 끊기 위해 연줄에 유리조각이나 사금 등을 발라서 연줄을 만들기도 하였다.

7) 윷치기

윷치기도 정월에 많이 하였는데 먼저 윷을 만들어야 했다. 서석면 생곡2리에서 윷을 만드는 방식은 나무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싸리나무나 느릅나무로 만들었는데 싸리나무는 갈라서 만들고, 느릅나무는 깎아서 만들었다. 윷판을 돌아다니는 말은 옥시

기(옥수수) 알갱이를 주로 사용하였다. '빠꾸도(백도)'가 있었냐고 묻자 '물림도'라고 하여 옛날에도 윷 하나에 표시를 하여 그 윷만 뒤집어져서 도가 나오면 한 칸을 뒤로 물렸다고 한다.

동면 노천1리에는 재미있는 윷놀이가 전해진다. 농사윷이라고 하는 놀이인데 콩알로 말을 삼아서 "콩알을 많이 따는 사람이 농사가 잘된다"고 하여 모두 열심히 하였다. 이때 말은 메주콩과 검정콩, 색이 다른 콩으로 둘씩 편을 나누어 놀았다.

8) 망우리 돌리기/싸우기

서석면 검산리는 마을 대항 놀이가 많았는데 망우리 싸움도 하였다. 망우리 싸움은 깡통에 구멍을 뚫어서 광솔을 넣고 불을 붙여서 빙빙 돌리다가 상대편에게 던지는 놀이이다. 간혹 화상이나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석전만큼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 크게 다치지 않고 눈썹을 그을리거나 머리칼이 타거나 피부에 가벼운 화상을 입는 정도이기도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다. 연싸움과 같이 양짓말과 응달말이 주로 싸웠다.

내면 광원리에서는 망우리 돌리기를 '불꽃놀이'라고 하여 정월대보름 무렵 저녁에 놀았다. 구멍 뚫은 깡통에 마른 나무를 넣고 불을 담아서 철사로 줄을 만들어 돌리면서 놀았다. 1월 14일, 정월대보름 당일, 1월 16일 3일 동안 놀았다. 저릅대를 쓰기도 하였으나 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깡통을 구할 수 있을 때부터는 깡통에 나무를 담아 놀았다.

화촌면 성산3리도 정월대보름 때 망우리를 돌리며 놀았다.

9) 호미씻이

호미씻이는 말 그대로 호미를 씻는다는 의미이다. 모를 심고 김을 매고 난 후 더 이상 호미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왔을 때를 기념하여 한바탕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말한다. 내면 자운리에서는 '질먹기'라고도 하였다. 농경사회에서 논농사는 특히 노동집약적 농업인데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모를 심고 김을 매야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을의 모든 김매기가 끝이 나면 비로소 힘든 노동의 시간이 끝나고 한

숨 돌릴 수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의 넓은 터를 선정하여 하루 종일 마시고 먹고 논다. 매년 반복되는 놀이로서 세시풍속에 속하지만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1년의 중요한 농사 행위를 마친 것에 대한 놀이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동면 월운리에서는 호미씻음(호미씻이)이라 하여 내면 자운리와 비슷하다. 논농사에서 애벌매기가 끝나면 더 이상 호미를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개울가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루 일을 쉬고 먹고 논다. "그냥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술과 음식을 해서 다 같이 하루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라며 마을 화합을 다지는 일이라고 한다.

10) 천렵

천렵은 대개 마을 단위로 전국에서 실시했는데 이름이 마을마다, 고장마다 다르다. 시기와 내용을 보면 호미씻이와 비슷한데 목적이 조금 다르다. 호미씻이가 노농의 고단함이 한바탕이 끝난 뒤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천렵은 '한여름 힘든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하루 쉬어 간다는 마음이 더 크다(북방면 북방리).' 특히 복날 무렵 마을 근처 개울가에 모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막걸리를 만들어 마시고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를 끓여서 먹는다는 점도 다르다. 여름더위를 이겨내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의식도 높이기 위한 단합대회의 성격도 갖는다.

11) 대돋음하기

대돋음하기는 놀이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상갓집에서 상여가 나가기 전날 상여꾼들이 발을 맞추며 한바탕 노는 행위는 분명히 놀이가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의례의 일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 광원리에서는 상여가 나가기 전날 빈 상여를 가지고 상여 나가는 것처럼 하는 것을 '대돋음'이라고 하였다. 대돋음을 준비할 때에는 내일 상여를 맬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여 멜 사람들의 조를 짜고 발을 맞추면서 마당을 돌아다닌다. 대돋음하기는 즐겁게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능률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일의 중요한 행사를 망치지 않

기 위해, 망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잘 모시기 위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놀이로 보는 이유는 상황이 경건하거나 엄숙하게 행해지지만 않는다는 점이다. 술과 음식을 맘껏 먹은 후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임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는 하나의 정서적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2. 개인놀이

단체놀이는 마을 대항의 편싸움 놀이이거나 의례적 성격을 띠는 놀이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개인놀이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가 주를 이루며, 경쟁에 민감하고 승부를 내고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 꽈리 불기, 닭싸움, 낫치기, 못 치기, 땅 빼앗기, 진 빼앗기, 공기받기, 목자 놀이, 술래잡기, 엿치기, 고누 등이 있다.

못 치기, 땅 빼앗기는 비슷한 놀이로 놀이 주체가 소년·소녀의 차이점을 보인다. 엿치기는 단순히 엿을 잘라서 엿의 단면에 있는 구멍의 크기로 승패를 좌우하는 놀이로 먹을 것을 이용하는 거의 유일한 놀이이다. 엿장사가 흔하던 시절에는 많이 했으나 엿장사가 사라짐과 동시에 엿을 구입하는 통로가 없어져 놀이도 없어졌다.

겨울철 방 안에서 하는 개인놀이들로는 바둑, 장기, 쌍윷, 투전, 골패, 도둑 잡기, 목침 빼앗기, 팔씨름, 다리헤기, 그림자놀이 등이 있다. 장기는 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놀이로서 예전에는 남자 어른들이 남자아이들에게 집 안에서 함께 놀이하며 전수하곤 하였는데 현재는 특별한 취미로 여겨지고 있다. 쌍윷은 민중들의 놀이라기보다는 중상층 부인들의 놀이로 민속놀이로 보기는 어렵다.

겨울철 방 안에서 하는 놀이로는 도박도 있는데 투전이나 골패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놀이는 서민 경제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겨울철 농한기에 이 노름에 빠져서 한 해 농사 지은 결과물이나 혹은 소를 판 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투전이 서민적이라면 골패는 재료에서부터 서민과는 거리가 있으며 중국에서 넘어온 놀이이다.

1)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연을 만들어 멀리 날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놀이였고 내기도 자주 했다. 연줄을 끊는 '연싸움'도 하였다. 연싸움을 마을 대항으로 하면 단체놀이인데, 대개는 개인 대항으로 놀았다.

내촌면 광암리에서는 설부터 보름까지만 연을 날리고 마지막 연은 태워버렸다. 보통은 연을 멀리 날리며 액운을 함께 날려 보내는 의례적 행위를 곁들이기도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연을 만들 때 참대를 써서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웠다.

2) 널뛰기

서석면 생곡2리에서는 예전에 널뛰기, 그네뛰기, 윷치기, 연날리기, 공기놀이 등을 하였다. 널뛰기와 윷치기 연날리기 등은 모두 겨울철 놀이로 정월에 하는 놀이들이다. 널뛰기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설날에 밤을 새우면서 뛰고 놀았다. 널뛰는 나무를 '널'이라 하고 받침대를 가운데에 받쳐놓은 곳을 '널목'이라 한다. 널목에는 받침대가 고정되도록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것을 '목밟는다'고 하였다. 받침대는 움직이지 않고 두툼해야 하므로 섶나무를 묶어서 가마니로 싼 뒤 널 아래에 둔다. 설부터 밤새워 정월 보름 엿새날인 귀신달개는 날에는 "귀신대가리 깨자"라고 말하면서 널을 뛰었다고 한다. 열엿새날이 귀신날인 것과 관계가 있다.

3) 그네뛰기

개인놀이의 으뜸은 단오에 그네를 뛰는 일이다. 단옷날 타는 그네는 남녀 모두 뛰었는데 누가 더 높이 뛰나 내기도 하였다.

단옷날 그네를 뛰는 것은 우리나라 보편적인 세시 놀이이다. 보통 단오 전날 마을 남자들이 그넷줄을 만들어서, 그네를 매기 좋은 가장 큰 나무에 맨다. 짚을 틀어서 새끼를 꼬고 다시 모아서 두껍고 튼튼하게 줄을 맨다. 그네를 뛸 때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내면 자운리에서는 그네를 뛸 때 "춘천이요!"를 외쳤다. 그네뛰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나, 특히 댕기에 예쁜 색을 물들

여 달고 타면 더 멋있었다고 한다.

내면 광원리에서도 단오에 그네뛰기를 했다. 단오가 다가오면 마을에서 가장 높은 나무에 그네를 맸다. 며칠 전부터 그네 뛸 생각에 마을 처녀들은 마음이 들뜨기도 했다. 또 그넷줄을 빨리, 잘 매달라고 마을 청년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네를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보통 "우두 그네여!", "오월 단오 춘천이여!"라고 외친다. 마을에서는 누가 더 높이 뛰나 내기를 하거나 상금을 거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는 하지 않는다.

서석면 검산리에서도 그네뛰기는 단옷날의 가장 큰 행사로 꼽힌다. 주로 단오 때 놀이는 그네를 뛰는 것으로 생각했다. 검산리에서는 산신각 앞에 있는 큰 소나무에 그네를 매는데 이때 그넷줄은 마을 청년들이 새끼를 모아서 동아를 틀어서 매었다. 그네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타지만 주로 부녀자들이 뛰었다.

서석면 생곡2리도 단옷날 그네를 뛰었다. 이 마을에서는 "우두 그네!"라고 소리치면서 그네를 뛰었다. 새끼로 줄을 매는데 그때 구릿대피리(새납, 날나리, 태평소) 등을 불면서 시끌벅적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강원도민일보에 단오 관련 기사가 난 적이 있다. 홍천군 동면 노천1리 마을 정자 옆 나무에 단오에 맞춰 그네를 매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네가 옛 방식 그대로라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노천1리에 찾아갔더니 그네는 이미 줄이 끊어져서 윗부분만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였다. 근처 식당을 운영하는 김두호 씨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노천1리는 예전부터 그네를 매오던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네를 계속해서 매는 이유를 "마을 사람들이 그네를 매는 이유 중 가장 큰일은 매던 걸 매면 안 좋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꼭 매는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짚이 흔했지만 요새 강원도는 논의 비율이 줄어서 내면 같은 경우는 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짚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네를 매는 줄은 소먹이는 집에서 짚을 가져와"서 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네는 단오 전날 매었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는 줄을 끊었다. 이유는 대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전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근면을 위해서이다. 그넷줄을 그대로 두면 썩기 마련인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계속 타다가 줄이 끊어지면 큰일나기 때문이다. 또 단오 즈음은 한창 바쁠 때인데 일은 안 하고 그네만 타고 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옛 풍습이고 최근에는 그네를 단옷날 당일 맨다고 한다. 수리취떡을 해 먹으며 노는데 그네를 탈 때는 "우두 그네!", "취떡 먹고 부스스"라고 한다. "취떡 먹

고 부스스”라고 하는 이유는 단오에 취떡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네뛰기로 내기도 했는데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발 디디는 ‘밑싣개’에 끈을 달아서 끈이 가장 많이 풀리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상을 주었다. 이 밑싣개는 정자 안 지붕 아래 꽂혀 있었다.

4) 씨름

씨름 역시 단오에 하는 중요한 놀이이다. 마을 남자들 중 누가 가장 힘이 센가를 겨루는 놀이로 다른 마을로 원정을 가기도 하였다. 씨름대회의 우승 상품으로 황소를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기 많은 놀이였다.

화촌면 성산3리에서는 단오보다는 8월에 씨름을 많이 했다. 마을 남자들이 화양강을 경계로 편을 갈라 강 건너 외삼포 마을 사람들과 경쟁을 했다.

5) 자치기

자치기는 긴 작대와 짧은 나무토막으로 하는 놀이로, 긴 작대기는 재치기(자치기), 짧은 토막은 메뚜기라 부른다. 메뚜기는 양 끝을 어슷하게 잘라 자치기로 치면 위로 솟게 만들었다. 편을 갈라 자치기로 메뚜기를 쳐서 멀리 가는 팀이 이기는 놀이이다. 남녀 가리지 않고 놀았는데 가끔은 튀어 오르는 메뚜기에 눈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내면 자운리에서 추석 전후 마을 공터에 모여서 놀았다고 한다.

6) 곱새치기

곱새치기는 금점의 광부들이 저녁에 모여 하는 것으로, 화촌면 성산리에서도 개인적으로 했다. 야시대리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야시대리에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촌면 도관리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도 마을에서 곱새치기를 하였다. 도관리에도 광산이 있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외부에서 온 광

부들이 주로 곱새치기를 했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도관리에서는 곱새치기를 하였다. 곱새치기는 투전과 달리 노름보다는 놀이에 가까웠다. 돈을 걸지 않고 음식이나 담배 정도를 걸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름과 다른 점은 소리를 한다는 점이다. 곱새치기에는 불림소리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가진 숫자패를 보여주면서 그 숫자에 맞는 소리를 한다. 즉 1자가 적힌 패를 낼 때는 그에 맞는 소리를 불러서 내가 무슨 숫자를 냈는지 알린다. 이 때 상대방이 같은 수를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를 잡고 자기가 불림을 할 수 있다.

소리를 하면서 놀기 때문에 청이 좋은 사람이 인기가 많다. 또한 불림소리를 여러 개 알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마을에서 불리던 불림소리를 숫자당 2개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자
일이도 전장 대포소리다 일천이 간장
일자무식 판무식이다

2자
둘이 누워서 틈이 없구나
이 앞동네가 화류계 촌이라

3자
삼월이 둘이면 윤삼월이다 춘삼월 몸풀달이다
삼대풍이 연대풍이요

4자
너덧이 곱새치잖다
너 울면 나도 슳구나

5자
오라버니 사정에 속곳벗고 담넘어가다 시내낭구 가시에 꼭찔려 색금초란다

오춘댁이면 당숙모라지

6자
육날 미투리 감발신이다
누워서 가는 길은 황천길이요

7자
일곱이 목도꾼이라
치렁치렁 흐튼 머리 빗고 나니 맵시 난다

8자
팔아라 들여라 돈 쓸 일이 났다
팔라당 팔라당 갑사 댕기 고운 때도 아니 묻어서 주네비 오네

9자
국이 끓고 밥내가 난다
국궁다대긴 공구리판이요

10자
장한림 수풀에 꿩이 긴다 잔띠밭에 장끼가 논다 장장거리고 뎀비지 말라
십만석 실린 배로다

이처럼 내는 패의 숫자에 맞는 불림소리를 부르는데 대개는 성적인 사설이 많고 숫자에만 맞추기 때문에 내용이 의미가 없거나 모르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9자의 국궁다대긴의 경우도 그렇다. 부르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어떤 내용은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어서 설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7) 다리헤기/다리뽑기

다리헤기는 지방마다 혹은 같은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어 이 노래에 맞춰 각자의 다리를 짚어가며 세다가 노래가 끝날 때 걸리는 다리를 접는 놀이이다. 먼저 다릴 다 빼내야 이기는 놀이이다. 이 역시 노래가 끝날 때 누구 다리가 걸리는가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긴장감을 즐기는 놀이이다.

서석면 청량2리 이옥춘 씨는 어릴 때 명절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 놀이를 많이 했다면서 노랫말은 알려주었다. "오고리도고리갓고리 동지 망근 지망근 짝발이 호양군 어르매 족개 장두깨 모기밭에 독수리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섣달 대서리 잎이 왔네 살이 왔네 고드래 뽕." '뽕'에 다리가 걸린 아이는 다리를 빼고 다리를 먼저 모두 빼면 이기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술래가 되었따. 이 노래 외에도 '고모네집에갔더니'와 '앵기땡기' 등도 불렀다고 한다.

화촌면 성산2리 천봉희 씨의 경우는 다리헤기 노래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하말대 두말대 삼사 나가니 은단지 꽃단지 바람에 쥐새끼 영랑 거지 팔대 장군 고드레 무니 뼝아 땡// 하말대 두말대 삼사 나가니 은단지 꽃단지 바람에 쥐새끼 영랑 거지 팔대 장군 고드레 무니 뼝아 땡." 이렇게 다리뽑기를 한 후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원'이 되는데, 원은 술래를 말한다.

민영순 씨는 "오고리 조고리 각고리 짐치 망근 도망근 짝발이 호양근 다리밑에 김치쪽"과 같이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노래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막혔다. 그다음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천봉희 씨와 민영순 씨는 '앵기땡기', '고모네 집에 갔더니'는 모른다고 하였다. 서석면 청량2리의 이옥춘 씨는 두 노래 모두 알고 있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 연배가 비슷한 천봉희 씨는 경기지역에서 태어났으며 민영순 씨 열 살쯤 아래 나이이다.

같은 동네 토박이 남자인 박희명 씨는 "이뚜이뚜 다누 절루가서 다누 천천히 천천히 기와사니 기와사니 하늘밑에 땅"과 같은 다리헤기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일본 노래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 노래를 어려서 배웠는데, 어렸을 때는 야시대리로 많이 놀러 다녔다고 한다.

또한 남면 시동3리에서는 "오고리 도고리 갓거리 진지 망군 도망군 짝발래 호양군 도루매장두 장두깨 모기밭에 뚝서리"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놀이하였다.

내면 광원3리의 손미정 씨는 40대인데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수탉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 걸 나 한숟가락 안주고 우리집에 왔단봐라 대가리 폭삭 깨 논다"와 같이 '고모네 집에 갔더니'를 부르면서 놀았다고 한다. 손미정 씨는 이 노래를 '오고리 닥고리'라 표현했으며 친구들끼리 '오고리 닥고리 하자' 그러면 이 놀이를 이르는 것이라 한다. 노래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다.

위 놀이들은 모두 실내에서 하는 놀이로 몸을 움직이며 노는 것이 아니므로 심리적 긴장감을 즐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전통사회에서 옛날 사람들은 겨울철 농한기에 추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재미있게 긴장감을 즐기는 놀이들로 긴 겨울밤을 보내곤 하였다.

8) 고드름 치기

화촌면 군업리에는 겨울철 아주 손쉬운 놀이가 있었다. 고드름 치기인데 고드름 치기는 겨울철에 하는 놀이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심심해지면 끝에 고드름치기를 하였다. 놀이 방법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다.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을 떼서 서로 고드름을 치고 때려 깨지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가끔은 게임에서 진 사람은 벌칙으로 자기 집에 가서 이긴 친구에게 고구마를 먹이기도 하였다.

9) 소리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한다. 소리를 하면서 노는 일은 어떤 도구나 장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좋은 놀이 중 하나이다. 화촌면 군업리에는 소리를 하면서 놀 때 강원지역의 대표적 소리인 아라리를 중심으로 아리랑타령 등 옛날 노래를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근 중년들은 그런 소리보다는 학예회에서 배운 노래를 하거나 무용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년보다 윗연배인 어른들은 윷놀이를 하거나 바가지 장단을 치면서 옛날 소리를 하기도 했으나, 현재 중년층들은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과거의 소리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민요와 같은 구전소리들을 중년들은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옛날 남자들은 튀전(투전)을 하거나 닭서리 등을 하면서 떼로 놀

기도 하였다고 한다.

10) 멱감기

우리나라 개울은 맑고 깨끗하여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하다. 개울은 여름철 어린 아이들의 물놀이 천국이었다. 요즘은 워터파크에 가서 놀지만 그때는 마을 앞 개울이 물놀이터였다. 화촌면 군업리에서도 10대 초반까지는 남녀가 구분 없이 어울려 냇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다. 멱감기는 나이가 들면서 구역과 시간이 나누어진다. 개울의 어느 부분은 부녀자들이, 또 어느 부분은 청년들이 나누어 멱감기를 즐겼다.

화촌면 성산3리에는 마을 앞 개울에 개소, 광대소, 두멍소 등 소가 여러 개 있었다. 제보자는 어릴 때 그곳에서 멱을 감았는데, 지금은 보로 인하여 그 소들이 다 메워졌다. 멱감고 놀면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는데, 잡은 물고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꿰면서 부르는 소리가 있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짐치 들어간다." 물고기 아가미에 꿰는 버들가지를 '꿈지'라고 한다.

서석면 청량2리에서도 여름이면 열댓 명이 냇가 소에서 멱을 감으며 놀았다. 당시 어린 동생들을 업고와 냇가에 놔두고 놀던 친구도 있었는데, 아이가 물에까지 기어와서 물에 빠지기도 했다.

물에서 놀다가 날이 흐려 추우면 앉아서 "해야 해야 밝은 해야 이태백이 놀던 해야 빨리 빨리 나와라 아이고 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춘달래 지미 추워 춘달래 멀구다래 따먹었다 불알이 헐켜 죽겠네" 등의 노래를 불렀다. '아이고 추워 춘달래'는 추운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멱 감고 추울 때도 부르는 노리였다.

물고기는 꺽지, 메기, 뚝지, 퉁가리, 쉬리, 버드쟁이, 뱀장어 등이 있었다.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이는데, 고추장을 푼 물에 배를 딴 물고기를 밀가루에 묻혀서 넣고 끓여먹는다. 수제비도 더러 넣으나, 즐겨 넣지 않는다.

또 가재를 잡을 때는 "퉤 흐린물은 너 갖고 맑은물은 나 다와" 같은 노래도 불렀다. 가재 잡을 때 물이 맑아야 가재가 보이기 때문에 물이 맑아지기를 바란 것이다.

11) 고무줄놀이

동면 노천2리에서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나 고무줄놀이를 하였다. 3~5명이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였다. 고무줄놀이도 했는데 보통 고무줄을 무릎, 허리, 어깨, 머리, 만세 등 5단계 높이로 들었다. 노래는 '무찌르자 공산당' 같은 노래를 불렀다.

화촌면 성산2리에서는 "찌르릉찌르릉 비켜나세요 저기가는 저노인 꼬부랑노인 어물쭈물 하다가는 큰일납니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이외에도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삼천리',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등을 불렀다고 한다.

12) 반지 돌리기 놀이

화촌면 성산2리에서는 빙 둘러 앉아서 반지 등을 손에 쥐고 술래가 모르게 치마폭 안에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며 놀았다. "반지반지 돌렸네…"와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뒤 노랫말은 기억하지 못했다.

13) 줄넘기하기

화촌면 성산2리에서는 줄넘기를 할 때 '꼬마야 고마야'를 불렀다고 한다. 이 노래는 요즘에도 불린다.

14) 그리면서 노래부르기

화촌면 성산2리 민영순 씨는 '해골바가지'를 그릴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한다. "아침먹고 땡, 저녁먹고 땡"으로 시작하는데 노랫말을 완성하지 못 했다.

15) 춘향이 놀이

춘향이 놀이는 한 사람은 가운데 합장하고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빙 둘러 앉아 춘향이 노래를 부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신이 내렸다면서 춤을 추면서 점을 치

는 놀이이다. 화촌면 성산2리에서는 이 놀이를 하는데, 춘향이 역을 맡은 친구가 신이 내려 춤을 추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민영순 씨는 초등학교 졸업 때 사은회를 마치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 놀이를 했는데, 신이 내린 친구가 친구들을 쫓아다니며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노랫말은 "이도령이 왔네. 춘향이가 왔네. 남악골 춘향이가 왔네. 이도령이 왔네. 슬슬이 내리시오"와 같다.

천봉희 씨는 "이 노래를 부르면 합장한 손이 벌어지면서 춤을 추게 된다"라고 하였다. 박희명 씨는 "여자 친구들하고 춘향이 놀이를 하며 함께 놀았다"고 했으며, 천봉희 씨 역시 여자아이들만 놀거나 하지는 않고 "예전에는 어려서 남자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하였다.

남면 시동3리 박이자 씨는 이 노래를 '남원읍내 성춘향이'라고 하면서 "남원읍내 성춘향이 정기정기 내려라. 남원읍내 성춘향이 정기정기 내려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렇게 부르면 합장한 손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한다. 이 놀이는 16~17세 때에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가락지를 감추고 찾는 놀이도 했는데 그걸 방망이대로 찾는다고 '방망이점 치는 놀이'라고 했다. 이런 놀이들은 마당이 아닌 방에서 하는 놀이로서 정월에 방에서 주로 많이 놀았다. 다른 때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면 노천1리의 남자아이들은 겨울에는 따로 놀이가 없어서 무꾸뎅이에 있는 무서리를 하러 다녔는데 분장을 하고 서리하러 다녔다.

16) 잠자리 잡기

서석면 청량2리 이옥추 씨는 어릴 때는 잠자리를 잡고 놀거나, 방아깨비를 잡아서 부리면서 놀았다. 남면 시동3리 박이자 씨는 어릴 때 "꼭꼭 숨어라 어디어디 숨었니"라고 노래를 부르며 잠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또 최옥선 씨는 "앉을자리 앉아라" 이러면서 잠자리를 잡고 놀았다.

3. 현대의 놀이

1) 컴퓨터게임과 보드게임

고등학생들은 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프린세스메이커, 레스토랑게임 등의 컴퓨터게임을 다 알고 또 직접 하고 있다. 컴퓨터게임은 지역에 관계없이 하는 놀이이므로 전국적인 현상과 같다. 또 부루마블, 인생게임 등의 보드게임도 즐겨한다.

2) 땅따먹기와 그네타기

땅따먹기 같은 전통놀이는 주로 초등학교 때 하였다. 다만 공기놀이는 지금도 가끔씩 한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들은 그네타기 등도 전통적인 것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논다는 것이다. 그네를 위로 멀리 올려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을 놀이기구 '바이킹'과 같다 하여 '바이킹'이라 하고 그넷줄을 꽈배기처럼 꼬았다 푸는 것을 '토네이도'라고 한다.

3) 줄넘기

줄넘기놀이 가운데 '긴 줄넘기'가 있다. 이는 긴 줄을 돌리면서 '꼬마야 꼬마야'를 부르며 줄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놀이다. 마을이나 학교에서 많이 했으며 지금도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르는 노랫말은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가거라"이다.

내면 광원리의 손미정 씨는 이렇게 불렀다. 앞서 화촌면 성산2리 민영순 씨가 완성하지 못한 노래를 손미정 씨가 완성하였다. 노래가 변함이 없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랫말에 제시되는 동작을 취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할 때와 동작을 다 취하고 나갈 때여서 이때 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노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마을 언니들을 통해 익혔다. 대부분의 어린 제보자들은 이 놀이를 학교에서 배웠다.

4) 손으로 하는 놀이

손으로 하는 놀이는 손바닥치기, 쌀보리, 아이엠그라운드, 끝말잇기, 쿵쿵따 등이 있다. 손바닥치기는 '푸른하늘 은하수'를 부르면서 많이 했다. '쿵쿵따'는 끝말잇기에다 리듬을 넣은 것으로,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 "이수영 쿵쿵따 영감 쿵쿵따"와 같이 뒤에 '쿵쿵따'가 붙는다. 방송에서 시작되어 유행을 타게 되었다. 후라이팬놀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나탄다. 원래는 아이엠그라운드로 알려진 놀이였는데 방송에서 말을 바꾸어 후라이팬놀이라고 방송하자 이 놀이로 더 알려지게 되었다. 이 두 놀이는 현대사회에서 방송의 영향을 받은 놀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5)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는 현재 고등학생이 유치원 때 언니하고 했다고 한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반찬. 살았니 죽었니?"라고 노래를 한다. "살았니 죽었니?"라고 물었을 때, "살았다!" 하면 도망가고, "죽었다"고 하면 그냥 서 있는다. 도망가다가 여우에게 잡히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어 놀이를 계속한다.

6) 곰발바닥

'곰발바닥'은 여러 사람이 하는 놀이로, 한 글자가 들어가는 동물 이름을 정하여 경기를 한다. 예를 들어, 개발바닥, 새발바닥 등과 같이 정하면 한 사람이 두 손의 손등을 내밀며 '곰발바닥'하고 왼 후에 손을 접었다 손바닥을 내밀며 '개발바닥' 하고 외면, 개발바닥으로 정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손동작은 앞의 사람과 같이 하면서 '개발바닥 새발바닥'하고 왼다. 그러면 '새발바닥'으로 정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앞의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왼다.

7) 해골바가지 그리기

해골바가지를 그리는 노래로 예전부터 전해져오는 노래와 같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옥상에 올라가니 지렁이 한 마리. 지렁이 두 마리. 지렁이 세 마리. 뭐가 됐을까? 해골바가지." 이 노래는 앞서 성산2리 민영순 씨가 완성하지 못한 노래를 아이들이 완성했는데, 그만큼 전승력이 뛰어난 노래이다.

조사 결과, 아이들은 아는 놀이는 대부분 비슷했고, 주로 초등학교 때 많이 놀았다. 중학교에 올라오면 남학생들은 컴퓨터게임에, 여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특히 요새 마을에 아이들이 적다 보니 대부분의 놀이를 초등학교 들어가 친구들끼리 놀면서 배우거나 교육과정에서 배운다고 한다. 마을에서 자연스레 전승되던 놀이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나마도 아이들이 크면 자주 만나기 어려워 혼자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주말에 만나면 쇼핑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전승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40대들은 어렸을 때는 밖에서 많이 놀았다고 한다. 고무줄놀이, 숨바꼭질하기, 구슬치기, 딱지 날리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귀신놀이 등을 하고 놀았고, 겨울에는 콩을 가져와 모닥불을 피워 콩 볶아 먹기 등을 했다.

이제 전통 민속놀이는 전승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통놀이가 사라진 배경은 농촌에서 제액초복의 의미를 예전만큼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쇠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마을에서 달맞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을 새로운 전통 민속놀이로 놀이로 부활시키고 있다.

단오 명절이 쇠퇴하면서 그네와 씨름 등도 시들해져 가고 있다. 농사짓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화전놀이를 가는 풍경도 사라졌다. 화전놀이는 봄에 꽃이 필 무렵 하는 놀이이다. 마을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마을 근처 숲에서 하루 노는데 주로 삼월 삼짇날에 많이 갔다. 이때는 장구 등을 가지고 놀러 가서, 화전도 부치고 술도 마시면서 하루 신나게 놀았다. 시어머니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화전놀이 대신 단체관광을 간다.

현대사회에서 놀이의 개념은 전통사회와 다르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농업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놀이 개념이 달라졌다. 특히 도시에서의 놀이는 개별화·파편화되어 있어, 함께하는 놀이는 학교·회사 등 단체에서 결속력을 다지는 단체놀이 정도로 약화되었다. 놀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놀이를 이용하는 모습에 가깝다. 예를 들면, 회사나 집단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합창 모임을 의무적으로 하는 모습들이다.

현대사회의 농촌도 전통사회의 농촌과 많이 다르다. 예전처럼 마을 전체가 농업에 매달려 있지 않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노동집약적인 논농사도 기계의 힘을 빌려 개인적인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놀이와 세시 놀이들이 사라졌다. 농촌에는 아이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있다 해도 예전처럼 자연을 벗 삼아 놀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세상의 놀이가 민속놀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놀이를 하려는 욕망은 과거나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천1리와 같이 전통놀이를 이으려는 노력을 하는 마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현대사회에 걸맞은 관광과 같은 새로운 놀이를 찾기도 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놀이에 대한 열망은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같다.

제6장

생업문화와 생업도구

1. 생업문화

원초 경제사회 때 홍천지역 사람들은 산야, 밭, 논 등으로 구성된 자연과 풍토 속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다. 홍천의 자연과 풍토 속에서 더불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다. 홍천의 생업문화는 홍천 사람들이 홍천지역의 자연과 풍토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창조·계승·발전시켜온 삶의 방식이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홍천의 생업문화를 산야, 밭, 논으로만 나누어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홍천 여러 지역에서 면면하게 삶을 이어오신 홍천 어르신들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 생면부지(生面不知) 필자에게 아낌없이 가르침 주신 홍천지역 여러 어르신에게 감사드린다.

1) 산야의 생업문화

홍천 사람들은 오랫동안 산야에서 여러 가지 생업활동을 펼쳐왔다. 이 글에서는 홍천 사람들이 산야에서 화전 농사, 논 거름풀인 '갈' 채취, 마구간의 보온재임과 동시에 소의 월동 사료인 '마초' 채취, 지붕 재료인 '새초' 채취, 화식(火食)과 온돌을 위한 땔감 채취, 농우 사육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 화전 농사

홍천 사람들은 숙전을 '농토(農土)', 산야를 일군 농경지를 '화전'이라고 하였다. 비교적 드넓은 산야의

품에서 살아온 홍천 사람들은 화전 농사로 생계를 돕는 경우가 많았다. 내면 창촌1리에서 화전 농사를 들여다보았다.

[사례1] 내면 창촌1리 방계환(1928년생, 남) 씨

이 마을은 계방산과 소계방산 북서쪽 골짜기에 위치한다. 마을 사람들은 계방산과 소계방산 서북쪽 골짜기를 끼고 있는 산야에서 화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마련한 화전을 '새밭 화전', 새밭 화전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력이 떨어져 묵혀두었던 밭에서 이루어지는 화전을 '묵밭 화전'이라고 하였다. 새밭 화전은 잡초가 많지 않았지만, 묵밭 화전에는 '바랭이, 비름, 능쟁이, 돗나물' 등의 잡초가 제법 많았다. 묵밭 화전을 일구었던 자리를 10여 년 동안 놓아두면 저절로 지력이 회복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묵밭 화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새밭 화전과 묵밭 화전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새밭 화전은 경사도, 습도, 비옥도, 돌의 유무, 그리고 수목의 생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물갈도토리'가 비교적 많은 수림지대는 음지(陰地), 그리고 '부둑(굴피나무)'이 비교적 많은 수림지대는 양지(陽地)였다. 음지 새밭 화전에서는 그만큼 곡식 알갱이가 여물지 않았고, 양지 새밭 화전에서는 비교적 곡식의 알갱이가 여물었다. 또 음지 새밭 화전은 비교적 잡초가 많았지만, 양지 새밭 화전은 잡초가 많지 않았다. 그러니 새밭 화전 자리는 양지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새밭 화전을 선정하는 일을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음력 2월에는 얼릴 땅이 풀렸다. 이때 새밭 화전 자리의 잡목 따위를 베어냈다. 음력 2월 하순쯤에 불을 질렀다. 이를 '새밭에 불 싼다'라고 하였다. 우선 새밭 화전에 박혀 있는 썩은 나무뿌리 따위는 괭이로 파내고 땅속에 묻었다. 이런 일을 '방둥이 묻는다'고 하였다. '방둥이'는 썩은 나무토막 뿌리라는 말이다. '방둥이'에 불이 붙으면 불씨가 오래 남아 새밭 화전 자리 바깥으로 번질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또 불길이 새밭 화전 바깥으로 번지지 않게 사방 돌아가며 한 발 너비로 흙이 드러나도록 호미로 잡초를 베어냈고, 갈퀴로 바닥의 먼지까지도 긁어 빤빤하게 다듬었다. 이런 일을 '불깃 올린다'고 하였다. '불깃'은 화전에서 산불이 더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타고 있는 산림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주위에 미리 불을 놓는 일이다. 대낮에는 불기둥이 잘 안보이기에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화전 자리 위에서 아래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차차 불을 질렀다. 이

때는 불길과 연기가 골짜기로 쏠리면서 새밭 화전 자리 바깥쪽으로 번지지 않아서 좋았다.

새밭 화전 1년차에는 조(粟)를 심었다. 음력 3월 초순에 조의 씨앗을 흩뿌렸다. 이를 '헛뿌이'라고 하였다. 새밭 화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여기저기 괭이로 땅거죽을 일구며 조의 씨앗을 묻었다. 괭이로 화전 땅거죽을 일구는 일을 '삭판다'라고 하였다. 파종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조의 그루와 그루 간격이 한 뼘이 유지되게 맨손으로 솎아주었다. 새밭 화전에서는 잡초가 성가시게 굴지 않았다. 다만 칡의 줄기만을 맨손으로 걷어낼 뿐이었다. 음력 9월 중순쯤에 조를 거두어들였다.

새밭 화전 2년차에는 콩이나 팥을 심었다. 음력 4월 중순 무렵에 괭이로 두둑과 고랑을 산비탈을 따라 좌우로 만들었다. 괭이로 고랑과 두둑을 만드는 일을 '골 판다'고 하였다. 두둑 폭은 55㎝ 정도였다. 경사도에 따라 두둑 폭은 일정하지 않았다. 경사도가 높으면 두둑 폭은 넓었고, 경사도가 낮으면 두둑 폭은 좁았다. 콩과 팥을 혼작(混作)하지 않고 따로따로 고랑에 심었다. 숙전에서 콩과 팥을 두둑에 심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새밭 화전은 산비탈에 붙어 있었으니, 농작물의 씨앗을 고랑에 심지 않으면 비바람에 농작물이 쓰러질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새밭 화전의 고랑은 '곡식골', 두둑은 '헛골'이 되었다. 콩과 팥의 그루와 그루 사이는 30㎝ 정도였다. 하나의 구멍에 콩은 4방울, 팥은 7방울 정도 넣었다. '종다래끼'라는 파종바구니를 허리에 차고 씨앗을 담았다. 손에는 호미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구멍을 냈고, 손으로 씨앗을 집어 구멍에 넣었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 묻어주었다. 그리고 콩과 팥이 자라는 동안에 2회 정도 잡초를 뽑아주었다. 음력 9월 중순에 콩과 팥을 거두어들였다.

새밭 화전 3년차에는 음력 4월에 옥수수를 심었다. 괭이로 '곡식골'과 '헛골'의 그루를 바꾸면서 고랑과 두둑을 만들었다. 고랑의 폭은 55㎝ 정도였다. 옥수수는 고랑에 심었다. 옥수수를 심을 구멍과 구멍 거리는 50㎝ 안팎으로 길게 잡아주었다. 가끔 콩과 혼작(混作)하였다. 콩은 옥수수처럼 줄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통풍이 잘되었다. 통풍이 잘되게 옥수수 밭에 콩을 심었다. '종다래끼'에 씨앗을 담아 허리에 찼다. 손에는 호미를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종다래끼'에 담겨 있는 씨앗을 끄집어내고 하나의 구멍에 옥수수 씨앗은 2알, 콩 씨앗은 3~4알을 집어넣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 묻어주었다. 그러니 옥수수 밭에 콩을 혼작할 때는 '종다래끼'를 양쪽 허리에 각각 하나씩 차고, 옥수수와 콩 씨앗을 각각 따로 담았다. 옥수수와 콩이 자라는 동

안 3회 정도 잡초를 뽑아주었다. 음력 9월 초순에 옥수수와 콩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묵밭 화전에서 1년차에는 조를 심었다. 산비탈을 따라 괭이로 일구며 두둑과 고랑을 좌우로 만들었다. 이렇게 산비탈을 따라 괭이로 땅거죽을 일구며 좌우로 고랑을 내는 일을 '골 판다'고 하였다. 두둑 폭은 55㎝ 정도였다. 조는 고랑에 심었다. 고랑은 '곡식골', 두둑은 '헛골'이 되는 셈이었다. 조의 새싹이 7㎝쯤 자라면 간격을 조정하는 일이 맨손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일을 '조 솎는다'고 하였다. 조의 그루와 그루 간격은 약 7㎝ 정도였다. 이후에 수시로 잡초를 뽑아주었다. 조가 약 50㎝쯤 자라면 더 이상 잡초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음력 9월 중에 묵밭 화전의 조를 거두어들였다.

묵밭 화전 2년차에는 콩을 심었다. 음력 4월에 괭이로 두둑과 고랑을 만들었다. 조를 파종하였을 때 고랑이었던 '곡식골'은 두둑으로 '헛골'이 되었고, 조를 파종하였을 때 두둑이었던 '헛골'은 고랑으로 '곡식골'이 되었다. 이런 일을 '그루 바꾼다'고 하였다. 산비탈을 따라 두둑과 고랑을 좌우로 만들었다. 콩 심을 구멍 간격은 30~40㎝ 안팎이었다. 토질이 비옥한 묵밭 화전의 구멍은 약 30㎝, 그리고 토질이 박한 화전의 구멍과 구멍의 거리는 약 40㎝ 정도로 잡아주었다. '종다래끼'에 콩 씨앗을 담고 허리에 찼다. 손에는 호미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종다래끼'에 담겨 있는 콩 씨앗을 끄집어내고 하나의 구멍에 3~4방울을 넣었다.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주며 복토하였다. 콩이 자라는 동안 3회 정도 잡초를 뽑아주었다. 음력 9월 초순에 콩을 거두어들였다.

묵밭 화전 3년차에는 옥수수를 심거나 더러 옥수수와 콩을 혼작하였는데, 새밭 화전 3년차 농사 방법과 같았다.

(2) 갈 채취

'갈'은 논에 밑거름으로 주는 참나무 움돋이이다. 홍천지역에는 '갈령'이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갈'은 참나무의 움돋이, '령'은 한자어 '영(令)'이다. '갈'은 영(令)이 내려지고 나서야 채취할 수 있었다. '갈령'이 내려지기 전에 갈을 채취하는 것은 관습법 위반으로 작용하였다.

[사례2] 서석면 검산2리 이명윤(1936년생, 남) 씨

소만(5월 21일경)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 결의에 따라 스스로 '갈령'을 내렸다.

[사례3] 내면 율전3리 공시효(1932년생, 남) 씨

이 마을에서 '갈령'은 소만(5월 21일경) 무렵에 내렸다. '갈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없이 산야로 올라갔다. 낫으로 '갈'을 꺾어 단을 묶었다. '갈' 10단이 지게 한 짐이었다.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일곱 짐을 꺾을 수 있었다. 한 마지기(150평)당 다섯 짐의 '갈'을 깔았다. 이 마을에서 논이 없는 남정네들은 2~3일 동안 인제(강원도) 지역이나 서석면(홍천군) 지역으로 '갈' 채취 품팔이로 팔려가는 일도 없지 않았다.

(3) 마초 채취

홍천 사람들은 소의 월동 사료이면서 보온 목적으로 마구간 바닥에 깔아주는 잡초를 '마초'라고 하였다. '마초'는 소두엄의 재료이기도 하였다.

[사례4] 내면 율전3리 공시효(1932년생, 남) 씨

공씨는 개인소유의 3정보짜리 산야에서 해마다 '마초'를 생산하였다. '마초'는 '안들미', 칡넝쿨, '새초(띠)' 등으로 구성되었다. 처서(8월 23익경)가 지나면 산야의 모든 잡초들은 바싹 말랐다. 그때 낫으로 '마초'를 베어내어 단으로 묶었다. '마초' 4단이 지게로 한 짐이 되었다. 집 안 한쪽에 '마초'로 낟가리를 만들어 두었다. 날마다 '거릿대'로 소두엄을 내어두고 나서 그 자리에 하루에 '마초' 2단을 깔아주었다. '거릿대'는 소두엄 따위를 쳐내는 쇠스랑처럼 생긴 도구였다. 다만 '거릿대' 발은 쇠스랑 발처럼 굽지 않고 뻗어 있었다. '거릿대'의 세 가닥은 발이 되고, 나뭇가리는 자루가 되었다. 농우는 '마초'를 먹었고, 먹다 남은 '마초'는 마구간의 보온재로 작용하였다.

(4) 새초 채취

홍천 사람들은 띠(茅)를 '새초'라고 하였다. 볏짚이 없거나 모자라 지붕을 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야에서 '새초'를 베어다가 지붕을 이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5] 내면 율전3리 공시효(1932년생, 남) 씨

마을 사람들은 음력 10월 중에 산야를 누비면서 '새초'를 찾아 베었다. 하루에 지게로 '새초' 두 짐 정도를 베어낼 수 있었다. 지게로 '새초' 한 짐으로 '영(이엉)' 세 마람을 엮을 수 있었다. '새초'로 엮은 '영'을 '새초영'이라고 하였다. '새초영'은 볏짚으로 엮은 '짚영'보다 길고 질겼다.

(5) 땔감 채취

홍천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집중적으로 땔감을 마련하였다. 농번기가 끝난 음력 11월부터 음력 2월까지 마련하는 땔감을 '땔나무'라고 하였다. '땔나무'는 나뭇가리를 만들어두지 않은 채 아무데나 저장하여 두면서 음력 6월까지 땔감으로 썼다. 음력 2~3월에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땔감을 '농목(農木)'이라고 하였다. '농목'은 농사지을 동안에 때는 땔감이라는 말이었다. '농목'은 솔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농목'은 100짐 정도를 나뭇가리를 만들어 저장하였다가 음력 7월부터 상강(10월 23일경)까지 땔감으로 썼다.

[사례6] 내면 율전3리 공시효(1932년생, 남) 씨

마을 사람들은 '땔나무' 마련하는 일을 '나무한다', 그리고 '농목' 마련하는 일을 '농목한다'고 하였다.

[사례7] 두촌면 장남1리 홍현택(1928년생, 남) 씨

'땔나무'는 '삭다리'와 '활대(나무토막)'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삭다리'는 '나무낫', '활대'는 '목낫'으로 채취하였다. '목낫'은 '나무낫'보다 묵직한 것이었다. 남정네들은 지게를 지고 하루에 두 번 산야에서 땔나무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농목'은 솔가지인 경우가 많았다. 소나무는 3년에 한 번쯤 가지를 쳐주었다. 소나무밭 없는 사람들은 소나무밭의 솔가지를 채취한 값으로 '농목'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사람은 소나무에 올라가 '목낫'으로 솔가지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땅바닥에 있는 사람은 '나무낫'으로 잔가지를 쳤다. 솔가지 3단이 지게 한 짐이 되었다.

[사례8] 남면 유치2리 박영묵(1932년생, 남) 씨

'땔나무'는 싸리나무와 '삭다리(삭정이)'가 대부분이었다. 싸리나무는 '나무낫'으로 베어 단을 묶었다. 싸리나무 3단은 지게로 한 짐이었다. '삭다리'는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나무에 올라가 '삭다리'를 꺾었다. 소나무 '삭다리'는 단으로 묶지 않고 그대로 지게에 지어 날랐다.

(6) 농우 사육

홍천 사람들은 원초 경제사회 때 농우로 밭을 갈았다. 농우는 논과 밭을 갈거나 고르는 농사일뿐 아니라 짐도 지어 날랐다. 농우 한 마리를 거느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천석꾼도 소가 반쪽"이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농우가 없는 농가에서 이웃의 농우를 빌려 밭갈이나 짐 나르는 일을 부렸을 경우에는 인력(人力)으로 그 품을 갚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소품앗이'라고 하였다. 농우의 품삯과 농부의 품삯은 같은 값이었다. 원초경제 사회 때 농우를 어떻게 생산하였을까. 두촌면 장남1리에서 들여다보았다.

[사례9] 두촌면 장남1리 홍현택(1928년생, 남) 씨

암소는 생후 13개월부터 발정하였다. 발정이 되면 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랐다. 암소는 발정 욕구를 발산하려고 소리도 내질렀다. 그러면 종모우에게 끌고 가서 교미를 붙였다. 이를 '상 붙인다'고 하였고, 상 붙인 값을 '상값'이라고 하였다. 종모우 주인에게 '상값'으로 콩 1말 정도를 주었다. 10개월 후에는 송아지가 태어났다. 어린 송아지는 어미 소의 젖을 먹으며 자랐다. 생후 5~6개월 지나면 송아지 머리에 뿔이 돋았고, 이때쯤 젖을 떼게 했다. 젖을 떼고 나서 송아지의 목을 맸다. 목맨 송아지 돌보기는 매우 성가셨다.

목맨 송아지를 소작하는 관습도 전승되었다. 이를 '그리소'라고 하였다. 생후 10개월쯤에는 물푸레나무 송곳 따위로 코청을 뚫어 그 자리에 노송나무로 고리를 채웠다. 이를 '코뚜레'라고 하였다. 소의 목에는 요령을 매달았다. 소의 동태 파악 목적이었다.

생후 24개월이 되면 밭갈이 훈련을 시켰다. 발구를 끌게 하여 목 근육의 힘을 키웠

다. 이렇게 목 근육의 힘을 키우는 일을 '발구로 목 울린다!'고 하였다. 이때 이웃집의 소와 짝을 이루어 밭갈이 연습을 시켰는데, 이런 일을 '소 짝한다'라고 하였다. 비교적 힘이 강한 소는 오른쪽, 그리고 비교적 힘이 약한 소는 왼쪽에 세웠다. 앞의 농우를 '마릿소', 그리고 뒤의 농우를 '안소'라고 하였다. '연장(쟁기)'을 끌 수 있는 농우 만들기는 간단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의 '연장'에 두 마리의 소를 매웠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에서 각각 '마릿소'와 '안소'의 고삐를 잡았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겨리를 컨트롤하며 밭갈이를 훈련시켰다. 이때 두 마리의 소가 얌전하고 또 서로 사이가 좋으면 3~4일 만에 밭갈이 훈련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름 내내 밭갈이를 훈련시키느라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연장'에서 밭갈이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 동안 농우의 위치가 한번 정해지면, 함부로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없었다.

그러니 홍천지역에서는 두 농가에서 각각 한 마리의 일소를 내놓고 밭갈이를 익혀 부리기로 굳게 약속하면, 함부로 그 약속을 파기(破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웃집 사이에 각각 한 마리의 농우를 내놓고 하나의 '연장'을 끌기로 굳게 약속한 집을 '짝집'이라고 하였다.

농우의 나이 15세까지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새끼를 쳤다. 15세가 넘어서는 노년기(老年期)에 접어들었다.

농우 사육의 1년도 간단하지 않았다. 음력 6~8월까지는 낮에 논두렁과 밭두렁, 또는 산이나 들에서 소에게 풀을 먹였고 밤에는 외양간에 들여 매었다. 남자는 11세 되는 해부터 소 가꾸는 일에 참여하였다.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풀을 먹일 때는 꼭 한 사람이 고삐를 잡고 있었다. 이런 일을 '소 뜯긴다'고 하였다. 해질 무렵 돌아올 때 소의 먹이인 꼴 한 짐을 마련하여 지고 와 소에게 먹였다.

음력 9월부터 이듬해 음력 5월까지 거의 외양간에서 소를 매어 길렀다. 아침과 저녁에 소 먹이를 솥에서 마련하였다. 이런 일을 '소죽 쑨다'고 하였다. 볏짚, 겨, 콩깍지 등을 작도에서 썬 것을 '여물'이라고 하였다. 소죽솥에 '여물'을 넣고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달였다. 이것을 소죽바가지로 떠 구유에 넣어 소에게 먹였다. 점심에는 아침에 끓여 둔 소죽을 데쳐 다시 소에게 먹이거나 콩깍지를 주었다.

2) 밭의 생업문화

홍천의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동안 하나의 밭에서 겨울농사로 보리를 갈지 않고 여름농사만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지역을 1년 1작 지대라고 하고자 한다. 홍천이 어떤 지역에서는 보리 사이에 여름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는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수단이었다. 농경지 주변에 높은 일조량을 가로 막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을 2년 3작 지대라고 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보리를 베어낸 그루밭에 여름농사를 짓고, 여름농사 그루밭에 겨울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지역을 1년 2작 지대라고 하고자 한다. 홍천의 어떤 지역에는 1년 1작 지대, 2년 3작 지대, 1년 2작 지대가 공존하였다. 홍천지역은 한반도 밭 생업문화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1) 1년 1작 지대의 밭농사

홍천지역에서 1년 1작의 지대는 내면과 서석면 일부 지역에 분포하였다. 홍천지역 1년 1작 지대의 밭농사는 내면 율전3리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사례10] 내면 율전3리 공시효(1932년생, 남) 씨

마을 사람들은 1년 1작 지대의 밭에 감자, '강냉이(옥수수)'와 콩, 팥을 심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자는 단작, 강냉이와 콩은 혼작(混作), 팥은 단작(單作)하는 경우가 많았다.

① 감자 농사

한식(4월 5일경) 무렵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밭을 갈았다. 두둑 폭은 45㎝ 정도였다. 감자는 고랑에 심었다. 우선 '소똥거름'을 한 움큼씩 15㎝ 간격으로 집어넣고, 그 사이마다 감자 씨앗 하나씩 넣었다. 감자 씨앗은 '감자눈'이 있는 감자 조각이었다. 하나의 감자에서 2~3개 싹이 움텄다. 움이 돋은 감자를 하나씩 칼로 따냈다. 이런 일을 '감자눈 딴다'고 하였다. 눈짐작으로 30㎝ 간격을 맞추어가며 '감자눈'을 줄줄이 고랑에 놓았다. 그리고 '곽지(괭이)'로 두둑을 깨어나가면서 고랑에 있는 '소똥거름'과 감자의 씨앗을 묻었다.

감자는 파종하고 나서 1개월 후쯤에 새싹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다시 1개월 후에

한 차례 정도 김을 매었다. 그리고 하지(6월 21일경) 이후에 호미로 감자를 캐어내었다.

② 강냉이와 콩 농사

입하(5월 5일경) 무렵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밭을 갈았다. 두둑 폭은 45㎝ 정도였다. 강냉이와 콩은 고랑에 심었다. 고랑에 '쇠똥거름'을 흩뿌렸다. '쇠똥거름'은 소 두엄(외양간에서 쳐낸 두엄)을 삭힌 거름이었다. 강냉이 그루와 그루 사이는 70㎝ 정도였다. 호미로 구멍을 내고 강냉이 씨앗 두 알을 넣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 묻어주었다. 그 사이에 콩을 심었다. 이때도 호미로 구멍을 내고 콩 씨앗 4알 정도를 넣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 묻어주었다. 강냉이와 콩 심기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강냉이와 콩이 자라는 동안에 호미로 김을 매어주었다. 첫 번째 '짐(김)' 매는 일을 '아시 맨다', 두 번째 '짐(김)' 매는 일을 '두벌 맨다'고 하였다.

가을에 거두어들였다. 콩을 먼저 거두어들이고 나서 강냉이를 나중에 거두어들였다. 강냉이는 양식으로 작용하였다. 강냉이를 맷돌에서 갈았다. 이를 '탄다'고 하였다. '얼개미(어레미)'로 쳤다. 떨어진 것을 '강냉이쌀'이라고 하였다. '강냉이쌀'로 밥을 지었다. '강냉이밥'이라고 하였다. 보리 재배를 할 수 없는 홍천의 1년 1작 지대 사람들에게 '강냉이쌀'은 보리쌀 구실을 해주었다.

③ 팥 농사

입하(5월 5일경) 무렵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밭을 갈았다. 두둑 폭은 45㎝ 정도였다. 팥은 두둑에 심었다. 고랑에 감자, 강냉이, 콩을 심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팥의 그루와 그루 사이 간격은 40㎝ 정도였다. 호미로 구멍을 내고 팥 씨앗 3~4알을 넣었다. 그리고 호미로 흙밥을 긁어 팥 씨앗을 묻어주었다. 팥이 자라는 동안 김을 두 차례 매어주었다. 가을에 옥수수보다 먼저 거두어들였다. 홍천지역 사람들은 팥의 낟알을 떨어낸 줄기를 '팥짚'이라고 하였다. '팥짚'은 소에게 주었다.

(2) 2년 3작 지대의 밭농사

홍천지역에서 2년 3작의 지대는 내면과 서석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곳에 분포하였다. 2년 3작 지대의 밭농사는 두촌면 장남1리에서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사례11] 두촌면 장남1리 홍현택(1928년생, 남) 씨

마을 사람들은 2년 3작 지대의 밭에 겨울농사로 보리, 여름농사로 조와 콩, 그리고 겨울농사로 보리를 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목화 농사만은 하나의 밭에서만 연작(連作)하였다.

① 보리 농사

입동(11월 8일경) 전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첫 번째 밭을 갈았다. 이를 '된다'고 하였다. 다시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골(고랑)'을 쳤다. 이를 '골 켠다'고 하였다. '골'과 두둑 폭은 각각 45㎝ 정도였다. '고물개(고무래)'로 '골'을 빤빤하게 다듬었다. 이를 '골 닦는다'고 하였다. '잿간(헛간)'에서는 오랫동안 인분(人糞)과 재를 섞어 거름을 만들어두었는데, 홍천 사람들은 이를 '망오거름'이라고 하였다. 마당에 '망오거름'을 펼쳐놓고, 그 위에 보리 씨앗을 흩뿌렸다. '망오거름'과 보리 씨앗을 '곽지(괭이)'로 저어주면서 뒤섞었다. 이것을 삼태기에 담아 '골' 따라가면서 흩뿌렸다. 두둑의 흙밥을 '고물개'로 긁어내리면서 '망오거름'과 보리 씨앗을 묻어주었다. 음력 2월 하순과 3월 초순에는 보리밭도 밟아주었다. 보리 수확은 1년 1작 지대와 같았다.

② 조 농사

입하(5월 5일경) 무렵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15일 전쯤에 보리밭에 조를 파종하였다. 보리가 자라는 '골'을 '보릿골', 보리가 자라지 않는 두둑 자리를 '헛골'이라고 하였다. '곽지(괭이)'로 '헛골'을 일구었다. 이런 일을 '곽지로 헛골 친다'고 하였다. 그 자리에 조의 씨앗만 흩뿌렸다. 이렇게 거름 없이 조의 씨앗만 흩뿌리는 일을 '쉽씨로 조 간다'고 하였다. 발로 흙밥을 밀고 당기며 조의 씨앗을 묻었다. 이렇게 '보릿골' 사이에 조를 파종하는 일을 '골걸이'라고 하였다.

소만(5월 21일경) 무렵에 보리를 베어내고 나서 호미로 조의 새싹을 솎아주었다. 조 그루와 그루 사이는 3~5㎝ 정도였다. 이때 보리 그루터기를 매고 흙밥을 털어버린 것을 여기저기 모아두었다. 보리 그루터기가 조의 새싹을 눌러버리면, 조가 자라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③ 콩 농사

입하(5월 5일경) 무렵 보리를 거두어들이기 15일 전쯤에 '헛골'에 콩을 심었다. 호미로 30㎝ 간격을 두고 구멍을 냈다. 하나의 구멍에 콩 씨앗 2~4알을 넣었다.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주면서 콩 씨앗을 묻었다. '헛골'에 콩을 심는 일을 '대우친다'고 하였다. '대우친다'는 2년 3작 지대에만 전승되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소만(5월 21일경) 무렵에 보리를 베어내고 나서 호미로 잡초를 뽑아줌과 동시에 보리그루터기를 매어내어 흙밥을 털어낸 것을 콩 새싹에 덮어주었다. 이를 '북준다'고 하였다. 콩의 새싹은 보리 아랫동가리에를 아랑곳없이 잘 자랐다.

조와 콩이 어느 정도 자라면,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보리를 베어낸 '골'을 갈아주면서 조와 보리의 뿌리를 덮어주었다. 이런 일을 '걸긴다' 또는 '걸개질'이라고 하였다. '걸개질'을 하는 동안 한 사람은 뒤따라가면서 소의 발에 채여 쓰러진 조와 콩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걸개질'은 '연장'으로 보리그루를 갈아주면서 잡초를 제거함과 동시에 곡식의 뿌리에 흙밥을 덮어주는 구실을 하였다.

④ 목화 농사

홍천지역 2년 3작 지대에서 목화 농사만은 1년 1작으로 이루어내었다. 목화의 생장이 다른 농작물보다 생장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었다. 홍씨 어르신은 장남리 448-2번지 236평짜리 밭에서는 해마다 목화 농사만 지었다. 하나의 밭에서 목화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거름이 강조되었다. 1년에 지게로 50짐 정도의 퇴비를 지어다가 밭의 전면에 흩뿌렸다. 한식(4월 5일경) 무렵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밭을 갈았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골'을 냈다. 목화 씨앗을 '망오거름'에 섞어 '골'에 뿌리고 나서 고무래로 두둑의 흙밥을 당기면서 묻어주었다. 목화 새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목화 그루와 그루 사이가 7~8㎝쯤 벌어지게 솎아주었다. 더러 목화 10그루당 한 그루 정도가 되게 수수를 심는 경우도 있었다. 목화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열매를 땄다. 서리가 내리고 나서부터는 목화 그루를 뽑아내고 매달아두었다. 그러면 목화 열매가 익었다.

⑶ 1년 2작 지대의 밭농사

홍천지역에서 1년 2작의 밭농사는 남면 남노일리와 서면 반곡리와 두미리에서도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남면 남노일리에서 전승되는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사례12] 남면 남노일리 김부경(1942년생, 남) 씨

① 보리 농사

한로(10월 9일경) 무렵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밭을 갈았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골'을 닦았다. '골'에 거름을 흩뿌렸다. 거름 위에 보리씨앗을 흩뿌렸다. '곽지(괭이)'로 '골' 양쪽 두둑의 흙밥을 긁어내리며 거름과 보리씨앗을 묻었다. 하지(6월 21일경) 무렵에 보리를 거두어들였다.

② 강냉이와 콩 농사

소서(7월 8일경) 무렵에 소 두 마리를 채운 '연장'으로 보리그루밭을 갈았다. 두둑 폭은 45㎝ 정도였다. 강냉이와 콩은 두둑 위에 심었다. 이때의 두둑은 '곡식골'이 되었다. 강냉이는 50㎝ 간격으로 호미로 구멍을 냈다. 하나의 구멍에 강냉이 씨앗 2알을 넣고 호미로 흙밥을 긁어 묻으며 하나의 '곡식골'을 만들었다. 콩은 30㎝ 간격으로 하나의 구멍에 콩의 씨앗 3알을 넣고 묻었다. 이렇게 4개의 '곡식골'을 만들었을 때, 강냉이 '곡식골'은 한 '골', 콩 '곡식골'은 세 '골'이 되었다. 이렇게 강냉이와 콩을 혼작하는 일을 '고네미'라고 하였다.

3) 논의 생업문화

논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강조되었는데, 논물을 얻는 방법에 따라 홍천지역 논농사는 '고래실논'과 '봇논'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① '고래실논'은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은 논이다.

● 남면 화전2리 최대길(1939년생, 남) 씨는 오랫동안 340평짜리 '고래실논'에서 논농사를 지어왔다. 최씨 소유 '고래실논'은 바닥이 깊어 못자리를 앉힐 수 없었다. 그래서

'고래실논'에 심을 볏모는 다른 논에서 키워낼 수밖에 없었다.

- 남면 유치2리 박영묵(1932년생, 남) 씨는 여덟 마지기(한 마지기 150평) '고래실논'에서 논농사를 지어왔다. 물이 솟구치는 자리를 '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 다리 하나 빠지는 정도의 '수'를 '외통수'라고 하였다. 박씨 어르신 '고래실논'에는 '수'가 4군데 있었다. 소는 '수'의 위치를 감지하고 교묘하게 그 자리를 피하였지만, 소를 컨트롤하는 일꾼은 '수'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하고 '수'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② '봇논'은 봇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논이다.

- 두촌면 장남1리는 '장남천'가에 있다. '장남천'에는 '윗보'와 '아랫보'가 있었다. '아랫보'는 15,000천 평 정도의 '봇들'로 구성되었다. 답주는 8명 정도였다. 홍현택(1928년생, 남) 씨는 '아랫보 봇들'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아랫보 봇들' 답주 8명은 하나의 농경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를 '보계(洑契)'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의 '계장(契長)'을 두었다. 계장 임기는 3년 윤번(輪番)되었다. '보계' 구성원들은 계장의 지시에 따라 해마다 소만(5월 21일경)과 장마 이후에 두 차례 '보(洑)'를 쳤다.
- 남면 남노일리 사람들은 금학산 남쪽 '큰골'이라는 골짜기의 물을 논밭으로 끌어들여 논농사를 지었다. 골짜기 물을 끌어들여 논농사를 짓는 논을 '봇논'이라고 하였다. '큰골' 위에는 '봇논' 4개, 그 아래쪽에는 '봇논' 하나가 있었다. '봇논' 4개의 논밭 주인들은 서로 힘을 모아 '보'를 쳤고, 아래쪽 '봇논'은 혼자를 '보'를 쳤다. 혼자 치는 보를 '독보'라고 하였다. 홍천지역의 논농사는 남면 남노일리의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사례13] 남면 남노일리 김부경(1942년생, 남) 씨

김씨는 '독보' 논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홍천지역의 '봇논'에서는 남부 지역의 경우처럼 나락그루밭에서 보리농사를 짓는 일은 없었다. 김씨 소유 '독보' 논은 1,200평짜리인데 큰배미, 작은배매, 샛갓배미' 등 일곱 배미로 구성되었다. 김씨 소유 '독보' 논의 논농사는 다음과 같았다.

김씨는 곡우(4월 20일경) 무렵에 '보'를 막거나 봇도랑을 쳤다. 그리고 봇물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아구배미'에 못자리를 앉혔다. 못자리를 앉히기 전에 여러 일거리가 아기자기하게 전개되었다. 소 두 마리를 채운 '논연장'으로 못자리를 갈았다. 이를 '아이

간다'라고 하였다. '논연장'은 '밭연장'에 볏을 채운 것이었다. 그리고 물을 대고 가래로 논두렁을 손질했다.

논바닥을 써레로 잘 풀어주었다. 이런 일을 '삶이질'이라고 하였다. 논바닥의 물을 뺐다. 그리고 논바닥에 고랑을 내어 모판을 마련하였다. 모판의 폭은 약 120㎝, 고랑의 폭은 40㎝ 정도였다. 고랑과 고랑의 폭은 약120㎝이었다. 모판을 만들고 나서 하루 동안 그대로 놓아두었다. 이런 일을 '모판 굳힌다'라고 하였다. 모판을 굳히지 않고 볍씨를 뿌렸을 때, 볍씨는 모판에 콕콕 박혀버리는 수가 있었다. 그러면 볍씨는 물을 많이 먹어 곯아 버리거나 또는 모종의 뿌리가 너무 깊이 뻗어내려 모내기 때는 모종이 잘 뽑히지 않아 성가시게 굴기 일쑤였다. 그리고 볍씨 장만에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나락은 '그네'에서 탈곡하였다. 이때부터 볍씨로 삼을 나락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다. 어쩌다 껍질이 벗겨진 볍씨는 손으로 골라내 버렸다. 볍씨로 삼을 나락은 반드시 섬이나 가마니에 담아 보관하였다. 볍씨로 삼을 나락은 그만큼 통풍이 잘되게 명심하였기 때문이었다. 풍흉에 따라 볍씨를 마련하는 수량도 가늠하였다. 흉년에는 그만큼 쭉정이가 많았을 것이니 비교적 많이, 그리고 풍년에는 그만큼 쭉정이가 줄어들었을 것이니 비교적 많지 않게 마련하였다.

볍씨를 끼얹을 모판에 물을 대었다. 차차 볏모가 자라면서 잡초도 나왔다. 잡초는 손가락으로 뽑아주었다. 이를 '피사리'라고 하였다.

입하(5월 6일경) 무렵에 모내기를 하였다. 모내기는 음력5월 20일 안팎에 이루어졌다. 논밭에서 못자리를 마련하듯이 논갈이→물대기→삶이질→물 빼기→거름주기→물대기를 하고 나서 볏모를 심었다. 홍천지역의 모내기는 남자들의 일거리였다. 볏모는 사방 8㎝ 안팎이 되게 눈짐작으로 가늠하며 심어나갔다. 이를 '막모'라고 하였다. 일꾼 한 사람이 하루에 논 한 마지기(150평)를 심었다. 김씨 나이 23세가 되는 1965년 무렵부터 못줄을 대고 심는 모내기가 유행하였다. 이를 '줄모'라고 하였다.

모내기를 하고 나서 20일 후에 첫 번째로 논을 맸다. 이때의 논매기를 '아이 맨다'고 하였다. 이쯤에 볏모는 30cm 정도 자랐다. 홍천지역 논매기는 남자들의 일거리였다. 일꾼들은 논의 호미로 잡초를 매어지는 족족 논바닥 속으로 우겨넣었다. 논 호미로 논바닥을 긁다 보면 볏모의 뿌리도 잘려나갔다. 볏모는 그럴수록 새 뿌리를 힘차게 내뻗었다. 일꾼 한 사람이 하루에 논 한 마지기(150평)를 맸다. 첫 논매기를 하고 나서 20~25일 후에 두 번째로 논을 맸다. 이를 '두벌 맨다'고 하였다. 이때는 맨손으로만

논매기를 이루어 내었다. 맨손으로 잡초를 뽑아 논바닥 속으로 묻어주거나, 또는 손으로 흙덩이를 주무르며 풀어주었다. 두 번째 논매기를 하고 나서 20일 후에 세 번째로 논을 맸다. 이를 '피목'이라고 하였다. 맨손으로 이루어졌다.

음력 10월 중에 벼를 거두어들였다. 논 한 마지기(150평)에서 나락 15말 정도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볏짚은 150토매(단)가 생산되었다. 볏짚은 지붕 재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홍천 사람들은 '영(이엉)'은 '엮다', '용마람(용마름)'은 '틀다'고 하였다. 볏짚 25토매로 '영(이엉)' 한 마람을 엮을 수 있었다.

나가며

홍천지역의 생업문화를 들여다본 소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한다.

(1) 산야의 생업문화에 대한 소견

① 산야가 골고루 배치된 홍천지역에서는 화전 농사도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마련한 '새밭 화전'과 새밭 화전에서 농사를 짓다가 지력이 떨어져 묵혀두었던 밭에서 이루어지는 화전을 '묵밭 화전'이라고 하였다.

② 홍천 사람들은 참나무 움돋이를 '갈'이라고 하였다. '소만(5월 21일경)' 무렵에 '갈'을 채취하여 논에 거름으로 주었다.

③ 홍천 사람들은 소의 월동 사료임과 동시에 보온 목적으로 마구간 바닥에 깔아주는 말린 잡초를 '마초'라고 하였다. '마초'는 소두엄 재료로도 작용하였다. 홍천지역 세서는 비교적 온난한 남부지역보다 '마초'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④ 홍천 사람들은 띠(茅)를 '새초'라고 하였다. 볏짚이 없거나 모자라 지붕을 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야에서 '새초'를 베어다가 지붕을 이는 경우도 있었다.

⑤ 홍천 사람들은 1년에 두 번 집중적으로 땔감을 마련하였다. 농번지가 끝난 음력 11월부터 음력 2월까지 마련하는 땔감을 '땔나무'라고 하였다. '땔나무'는 아무 데나 저장하여 두면서 음력 6월까지 땔감으로 땠다. 음력 2~3월에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땔감을 '농목(農木)'이라고 하였다. '농목'은 나무가리에 저장하여 두고 필요할 때만 한 단씩 빼내면서 땔감으로 땠다.

⑥ 원초 경제사회 때 홍천 사람들은 농우를 사육하여 밭을 갈았을 뿐만 아니라 짐도 지어 나르는 운반 수단으로도 이용하였다. 농우가 없는 농가 사람들은 '소 품앗이'로 농우의 노동력을 확보하였다.

(2) 밭의 생업문화에 대한 소견

홍천지역에는 1년 1작 지대, 2년 3작 지대, 1년 2작 지대가 공존하였다. 홍천지역은 한반도 밭 생업문화의 축소판이었다. 홍천지역에는 다양한 밭의 생업문화가 전승되고 있었 때문이었다. 홍천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농업지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 제작의 꿈을 실현시키기 좋은 곳이다.

(3) 논의 생업문화에 대한 소견

홍천지역에서 전승되는 논농사를 짓는 데는 물이 강조되었는데, 논물을 얻는 방법에 따라 '고래실논'과 '봇논'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① '고래실논'은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은 논이다. 물이 솟구치는 자리를 '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 다리 하나 정도 빠지는 정도의 '수'를 '외통수'라고 하였다.

② '봇논'은 봇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논이다. '봇논'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영농조직이 전승되고 있었다.

2. 도구

도구는 원초 경제사회 때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의 필요에 따라 자연적인 소재로 창조·계승·발전시켜 온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도구마다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을 기록하여둘 필요가 있다. 도구마다 육하원칙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때, 그것은 역사와 문화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은 도구에 대하여 육하원칙을 기록하여 두는 일 없이 무자비하게 골동품가게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제는 골동품가게로 팔려나갈 도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도구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한국의 박물관은 골동품가게에서 구입한 정체불명의 도구들을 전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국립아무개박물관은 한반도 동해안 어느 지역에서 연어를 찔러 잡는 '무시'라는 창(槍)을 골동품가게에서 사다가 대관령 지역에서 멧돼지를 잡는 삼지창(三枝槍)으로 둔갑시켜 전시하고, 연어를 잡았던 창이 멧돼지를 잡았던 창이라고 하면서 『도록(圖錄)』에도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언젠가 이것이 교과서에도 실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생활사박물관은 육하원칙이 불명(不明)한 도구인 골동품 전시장이 되고 말았다.

이 기회를 통하여 홍천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일부 도구나마 수집하고, 그것마다 육하원칙을 기록하여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한 도구 수집은 2018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홍천 여러 지역에서 면면하게 삶을 이어오신 홍천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생면부지(生面不知) 필자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구마다 육하원칙의 가르침을 주신 홍천지역 여러 어르신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홍천지역에서 수집한 생활사 자료들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였다. 도구의 크기는 센티미터(㎝)를 기본으로 하였다. 도구 명칭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이름에 따랐다.

1) 의생활 도구

의생활 도구는 머리에 쓰는 것, 의복, 신발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수집된 의생활 도구는 피륙을 만들거나 다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솔(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22.5, 폭 12.0)



피륙을 짜려고 베 매기할 때 실올에 풀을 먹이는 도구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솔뿌리 가는 것을 뭉뚱그려서 위쪽에 베 조각을 씌우고, 다시 베 조각 위에 굵은 솔뿌리로 감아 매어 손잡이를 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솔을 매어준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솔쟁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언젠가 이 마을에 찾아온 어느 '솔쟁이'가 만든 것이다.



● **여섯새베바디(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39.5, 폭 9.0)**

베틀에 딸린 도구의 하나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가르침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목화를 재배하는 일은 없었고 삼(麻)만 재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베를 짜는 베틀에 딸린 바디인 셈이다. 가늘고 얇은 왕대 대오리를 빗살같이 세우고 양쪽 끝에 왕대 조각을 대고 실로 단단하게 얽어 묶었다. 왕대 조각 한쪽 면에 빗금 6개를 새겨놓았다. 이것은 여섯 새 바디의 징표이다.



● **일곱새베바디(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41.0, 폭 9.3)**

베틀에 딸린 도구의 하나이다. 이 마을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가늘고 얇은 왕대 대오리를 빗살같이 세우고 양쪽 끝에 왕대 조각을 대고 실로 단단하게 얽어 묶었다. 왕대 조각 오른쪽에 하나의 빗금과 왼쪽에 2개의 빗금을 그어놓았다. 왼쪽 하나의 빗금은 다섯 새, 오른쪽 2개의 빗금은 각각 하나의 새를 나타낸다. 일곱 새 바디의 징표인 셈이다.



● **열두새베바디(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40.3, 폭 9.1)**

베틀에 딸린 도구의 하나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명주를 짜던 바디이다. 가늘고 얇은 왕대 대오리를 빗살같이 세고 양쪽 끝에 왕대 조각을 대고 실로 단단하게 얽어 묶었다. 왕대 조각 한쪽 면에 10새를 나타내는 X자와 1새를 나타내는 '/'자 두 개를 새겨 놓았으니, 이것은 열두 새 바디의 징표인 셈이다.



● **바디집(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54.1, 폭 5.2, 두께 2.3)**

바디를 끼우는 테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황경나무로 만들었다. 홈이 있는 두 짝의 나무에 바디를 끼우고 양편 마구리에 쇠막대기를 꽂았다.

● **북(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가로 28.8, 세로 6.0, 높이 4.5)**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도구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배(船) 모양이다. 윗면에 홈을 냈다. 그 안에 씨실의 타래를 담는다.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실이 나오는 구멍을 뚫어놓았다.

● **홍두깨(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74.0, 폭 5.0)**



몸체에 옷감을 감아 다듬이 방망이로 다듬이질하는 굵고 둥근 몽동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박달나무로 만든 것이다. 이 마을은 홍천지역의 홍두깨 생산지였다.

2) 식생활 도구

식생활 도구는 저장에 따른 도구와 식품가공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로 묶어 들여다보고자 한다.

● **쪽박(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박을 두 쪽으로 쪼개어 만든 그릇이다. 이명윤(1936년생, 남) 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쪽박은 모두 2점이다. 왼쪽 것(가로 12.8㎝, 세로 16.0㎝, 높이 7.5㎝)이 오른쪽 것(가로 12.4㎝, 세로 15.7㎝, 높이 6.0㎝)보다 조금 크다. 이씨네 집에서는 쪽박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 **된박(출처: 남면 화전2리, 크기: 가로 31.0, 세로 24.5)**



된장의 한 종류인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그릇이다. 최대길(1939년생, 남) 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박의 위쪽을 톱으로 켜서 그 아래쪽의 것은 몸통, 그 위쪽의 것은 뚜껑으로 삼았다. 콩을 불려 삶고 나서 이것에 담아 발효시켜 청국장을 만들었다.



● **맷돌걸이(출처: 남면 화전2리 , 크기: 가로 30.0, 세로 55.5, 높이 5.2)**

맷돌을 함지 위에 올려놓고 물에 담가두었던 콩 따위를 갈 때, 맷돌이 함지 바닥에 주저앉지 않도록 떠받치는 도구이다. 최대길(1939년생, 남)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Y자 모양의 나뭇가지를 다듬어 만들었는데, 맷돌을 걸어놓는 바로 그 자리만은 2.2㎝ 높이로 깎아내렸다.



● **조리(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크기: 가로 17.5, 세로 13.0, 높이 38.0)**

쌀을 이는 데 쓰는 도구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죽'을 '신우대'라고 하였다. 산야에서 '신우대' 움돋이를 베어낸 것으로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우대' 움돋이로 조리를 만드는 일을 '조리 맨다'라고 하였다.



● **절구괭이(출처: 서면 두미리, 크기: 길이 98.0)**

절구에서 곡식 따위를 빻거나 찧는 공이다. 류재식(1933년생, 남)씨 집에 있는 것이다. 참나무로 다듬어 만들었다. 절구괭이 아래쪽 머리로는 겉곡이나 누룩 따위는 찧는 경우가 많았고, 절구괭이 위쪽 머리로는 가루를 만들려고 알곡을 빻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에는 "외손자 위하느니 절구괭이 위하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 **떡메(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크기: 길이 74.0)**



인절미나 흰떡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찐 쌀을 안반(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자)에서 치는 메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탕건처럼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진 소나무토막(가로 15.0㎝, 세로 11.0㎝, 높이 22.0㎝)에 자루(길이 74.0㎝, 폭 3.0㎝)를 박았다.

3) 주생활 도구

주생활 도구는 실내 도구 1점과 실외 도구 1점이 수집되었다.

● **자리(출처: 서면 두미리, 크기: 길이 258.0, 폭 104.0)**



방바닥에 까는 물건이다. 류재식(1933년생, 남)씨 집에 있는 것이다. 류씨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자리 위쪽은 왕골, 아래쪽은 볏짚이 가게 하여 나일론 줄로 엮었다.

● **눈가래(출처: 서석면 생곡2리, 크기: 길이 127.0, 폭 33.0)**



눈을 치는 도구다. 장순석(1946년생, 남)씨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피나무를 다듬어 넓적한 나무판과 자루가 한 몸이 되게 만들었다. 나무판은 안쪽으로 살짝 구부려놓았다. 피나무는 가벼우면서도 쉬 으깨지지 않는 성질을 가졌지만, 넓적한 나무판 으깨진 데에 철판을 대고 못을 박아 더 깨지지 못하게 막아 놓았다.

● **거릿대(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147.0, 폭 21.0)**



'거릿대'는 소두엄 따위를 쳐내는 쇠스랑처럼 생긴 도구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피나무로 만들어 쓰던 것이다. 다만 '거릿대' 발은 쇠스랑 발처럼 굽지 않았다. 피나무는 비교적 가벼운 성질을 가졌으니, 이것으로 소두엄을 쳐내는 데는 그만큼 힘을 덜어주어서 좋았다. '거릿대'의 세 가닥은 발이 되고, 나뭇가리는 자루가 되게 만들었다.

4) 산야 채취 도구

홍천지역에서 산야 채취 도구는 땔감과 복령을 채취하는 도구가 수집되었다.

● **나무낫(출처: 내면 자운2리, 크기: 길이 52.0)**



홍천지역 남정네들이 땔감으로 쓸 싸리나무 등의 떨기나무(灌木)나 나뭇가지를 베어내는 낫이다. 탁석근(1937년생, 남)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시우쇠로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안쪽으로 날(길이 19.0㎝, 폭 3.3㎝)을 내고 뒤끝 슴베를 나무 자루(길이 32.5㎝, 폭 3.0㎝)를 박았다. 그

리고 슴베가 박힌 자루 쪽에 쇠고리를 채웠다. 무게는 500g이다.



● **목낫(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길이 51.0)**

홍천지역 남정네들이 땔감으로 쓸 비교적 굵은 나뭇가지를 찍어내는 낫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쓰던 것이다. 홍천지역 사람들은 풀 따위를 베어내는 낫을 '장목낫', 싸리나무 등 떨기나무(灌木)나 나뭇가지를 베어내는 낫을 '나무낫', 그리고 비교적 굵은 나뭇가리를 찍어내는 낫을 '목낫'이라고 하였다. '목낫'은 '나무낫'처럼 시우쇠로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안쪽으로 날(길이 23.5㎝, 폭 4.5㎝)을 내고 뒤끝 슴베에 나무 자루(길이 31.0㎝, 폭 4.0㎝)를 박아 만들었지만, 무게는 520g으로 '나무낫'보다 20g 정도 더 무거웠다.



● **복령꼬챙이(출처: 두촌면 장남1리, 크기: 길이 61.0)**

땅속에 들어 있는 복령(茯苓)을 찔러서 감각으로 찾아내는 도구이다. 홍현택(1928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가늘고 길면서 끝이 뾰족한 쇠를 T자 모양의 나무 자루(길이 13.0㎝)에 박고 쇠고리를 채웠다. 복령은 소나무 둥치 주변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복령은 구멍장이버섯과의 버섯이다. 복령은 공 모양 또는 타원형의 덩어리로 땅속에서 소나무 따위의 뿌리에 기생한다. 껍질은 검은 갈색으로 주름이 많고 속은 엷은 붉은색으로 무르며, 마르면 딱딱해져서 흰색을 나타낸다. 이뇨의 효과가 있어 한방에서 수종(水腫), 임질, 설사 따위에 약재로 쓰였다.



● **복령괭이(출처: 두촌면 장남1리, 크기: 길이 23.5)**

복령을 파내는 괭이다. 홍현택(1928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ㄱ'자 모양으로 생긴 쇠 부분의 한쪽에는 V자 모양의 날(길이 13.2.0㎝, 폭 5.0㎝)의 슴베를 나무자루(길이 16.5㎝, 폭 2.7㎝)에 박았다.

5) 농업생산 도구

홍천지역 사람들이 화전, 숙전, 논에서 농업생산을 하는 동안에 창조, 계승, 발전시켜 온 도구들이다. 화전의 제초도구인 '양귀호미' 또는 '벽채호미'가 여러 곳에서 전승되고 있었다.

● **씨통(출처: 남면 화전2리, 크기: 길이 26.0)**



씨앗을 보관하는 통이다. 최대길(1939년생, 남)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호리병박을 솥에서 삶고 나서 호리병박 어깨와 꼭지에 구멍을 뚫었다. 구멍 두 개로 공기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기 위해서다. 어깨 구멍으로 싸리개비 따위를 우겨넣고 후벼 씨앗을 파내두고 나서 충분히 말렸다. 이 정도 크기의 '씨통'이면 1천 평 정도의 밭에 심을 깨 씨앗을 보관할 수 있었다. 씨통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줄을 걸어 묶고, 기둥 따위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 **소구레(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크기: 가로 27.0, 세로 18.0, 높이 13.5)**



소를 부릴 때에 소가 곡식이나 풀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의 주둥이에 씌우는 그물이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만들어 쓰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부리망을 '소구레'라고 한다. 소 주둥이에 들어가게 전화선으로 그물처럼 뜨고 나서 좌우에 줄을 묶었다. 소의 주둥이에 '소구레'를 씌우고 나서 이 줄로 걸어 묶는다.

● **보섭(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크기: 길이 44.0, 폭 39.0)**



'연장(쟁기)'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쇳조각이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 집에 있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세 가지 '보섭(보습)'이 전승되었다. 가장 큰 것을 '대보섭'이라고 하였고, '연장'에 소 두 마리를 채우고 숙전을 일구는 '보섭'이었다. 중간 크기의 것을 '중보섭'이라고 하였고, '연장'에 소 한 마리를 채우고 보리그루의 콩밭을 중경(中耕)하는 '보섭'이다. 가장 작은 것을 '소보섭'이라고 하였고, 한 사람이 끄는 '연장'인 '인걸이'

를 끌게 하여 콩밭을 중경(中耕)하는 '보섭'이다. 이것은 '중보섭'인데, 달아빠진 데는 쇳조각을 대고 용접하였다.



● **곽지(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크기: 길이 90.0)**

땅을 파거나 땅을 고르는 도구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홍천지역 사람들은 괭이를 '곽지'라고 한다. 'ㄱ'자 모양으로 생긴 쇠 부분의 한쪽에는 V자 모양의 날(길이 17.0㎝, 폭 8.5㎝)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괴구멍이 있는데, 이것에 나무자루(길이 90.0㎝, 폭 3.3㎝)를 박았다.



● **양귀호미 ①(출처: 내면 창촌2리, 크기: 길이 40.6)**

화전에서 남정네들이 잡초 제거하는 도구이다. 김한근(1953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호미 날의 두 쪽 귀를 모두 세워서 벼린 것이다. 양쪽 귀를 세운 날(폭 19.8㎝, 높이 6.6㎝)의 슴베를 자루(길이 29.3㎝, 폭 3.0㎝)에 박았다. 그리고 슴베가 쉬 빠지지 못하게 자루 한쪽에 쇠고리를 채웠다.



● **양귀호미 ②(출처: 내면 창촌2리, 크기: 길이 38.6)**

화전에서 남정네들이 잡초 제거하는 도구이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호미 날의 양쪽 귀를 모두 세워서 벼린 것이다. 호미의 양쪽 귀를 세운 날(폭 16.7㎝, 높이 6.5㎝)의 슴베를 자루(길이 29.2㎝, 폭 2.8㎝)에 박았다. 그리고 슴베가 쉬 빠지지 못하게 자루 한쪽에 쇠고리를 채웠다.



● **양귀호미 ③(출처: 서면 두미리, 크기: 길이 40.3)**

화전에서 남정네들이 잡초 제거하는 도구이다. 류재식(1933년생, 남)씨 집에 있는 것이다. 호미 날의 양쪽 귀를 모두 세워서 벼린 것이다. 양쪽 귀를 세운 날(폭 16.5㎝, 높이 6.6㎝)의 슴베를 자루(길이 30.6㎝, 폭 2.7㎝)에 박았다. 그리고 슴베가 쉬 빠지지 못하게 자루 한쪽에 쇠고

리를 채웠다.

● **벽채호미(출처: 두촌면 장남1리, 크기: 길이 43.5)**



화전에서 남정네들이 잡초 제거하는 도구이다. 홍현택(1928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호미 날의 양쪽 귀를 모두 세워서 벼린 것이다. 양쪽 귀를 세운 날(폭 18.0㎝, 높이 6.5㎝)의 슴베를 자루(길이 32.0㎝, 폭 3.0㎝)에 박았다. 그리고 슴베가 쉬 빠지지 못하게 자루 한쪽에 쇠고리를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양귀호미'를 '벽채호미'라고 하였다. '벽채'는 '광산에서 광석을 긁어모으거나 파내는 데 쓰는 호미'라는 말로 보통 호미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로 쓰인 모양이다. 홍씨는 화전에서 농사를 지었던 적이 없지만, 화전에서 주로 쓰이는 '벽채호미'를 가지게 된 배경은 이웃집 화전에 품앗이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논호미(출처: 남면 남노일리, 크기: 길이 27.0)**



남정네들이 논에서 김을 매는 호미이다. 김부경(1942년생, 남)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볏처럼 직삼각형으로 생긴 날(가로 8.5㎝, 세로 14.0㎝)의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둥근 나무 자루(길이 14.0㎝, 폭 3.2㎝)에 박았다. 귀가 양쪽으로 난 '양귀호미'에 대비하여 한쪽으로만 귀가 난 호미이기에 '외귀호미'라고도 한다. 이 호미는 왼쪽으로 쏠린 오른손잡이용이다. 이 지역에서 논김을 매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다.

● **외귀호미(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크기: 길이 32.5)**



남정네들이 논에서 김을 매는 호미이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양쪽으로 귀가 난 '양귀호미'에 대비하여 한쪽으로만 귀가 난 호미라서 '외귀호미'라고도 한다. 볏처럼 직삼각형으로 생긴 날(가로 11.0㎝, 세로 15.7㎝)의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둥근 나무 자루(길이 13.7㎝, 폭 3.0㎝)에 박았다. 이 호미는 왼쪽으로 쏠린 오른손잡이용이다. 이 지역에서 논김을 매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다.



● **도리깨 ①(출처: 서석면 검산2리 명동마을)**

곡식의 낟알을 떨어내는 도구다. 이명윤(1936년생, 남)씨가 쓰던 것이다. 도리깨는 손잡이, 타부(打部), 연결부(連結部)로 구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손잡이를 '장치'라고 하는데, 소나무로 만들었다(길이 150.0㎝). 마을 사람들은 타부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물푸레나무 움돋이로 만들었다(길이 106.0㎝). 움돋이라야 곁가지가 없이 곧게 뻗어서 좋다. 나일론 줄과 전화선으로 얽어 맸다. 마을 사람들은 연결부를 '꼭지'라고 하였다(길이 21.5㎝).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다.



● **도리깨 ②(출처: 내면 방내1리)**

곡식의 낟알을 떨어내는 도구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도리깨는 손잡이, 타부(打部), 연결부(連結部)로 구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손잡이를 '장치'라고 하는데, 피나무로 만들었다(길이 167.0㎝). 마을 사람들은 타부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물푸레나무 움돋이로 만들었다(길이 108.0㎝). 마을 사람들은 연결부를 '꼭지'라고 하였다(길이 16.0㎝). 물푸레나무로 만들었다.

6) 운반 도구

남성들의 운반도구와 여성들의 운반도구를 구분하지 않고 들여다보고자 한다.



● **도비(출처: 내면 창촌2리, 크기: 길이 111.0)**

남정네들이 산판에서 통나무를 찍어 내리는 도구다. 김한근(1953년생, 남)씨가 산판에서 쓰던 것이다. 통나무는 보통 6자, 9자, 12자 길이로 잘랐다. 'ㄱ'자 모양으로 생긴 쇠 부분의 한쪽에는 뾰족한 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괴구멍이 있는데, 이 괴구멍(길이 6.0㎝, 폭4.2㎝)에 긴 자루(길이 111.0㎝, 폭 2.5㎝)를 박았다. 이것으로 통나무를 찍어 내리는 일을 '굴고한다'고 하였다.

● **다래끼 ①(출처: 내면 자운2리, 크기: 가로 32.0, 세로 16.0, 높이 23.0)**



홍천지역 아낙네들이 허리에 차고 산나물, 야채, 고추 등을 담아 나르는 바구니다. 탁석근(1937년생, 남)씨 집안에서 쓰던 것이다. 다래끼 아가리 안쪽에 나뭇조각을 대고, 그 바깥쪽에 줄을 대고 나일론 줄로 묶었다. 다래끼 바깥쪽 줄은 산나물 따위를 담아 나를 때 허리에 찬다. 다래끼는 '참싸리' 중 봄에 움돋이로 엮어 만든다. 마을 사람들은 싸리나무 움돋이를 '동바리채'라고 한다. 홍천지역 사람들은 원초 경제사회 때 싸리나무는 겨울에 땔나무로 채취하여 땔감으로 때는 경우가 많았다. 요마적에는 화학연료의 범람으로 싸리나무를 땔감으로 때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래끼를 만들 '동바리채'도 볼 수 없게 되었다.

● **다래끼 ②(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34.5, 세로 11.0, 높이 28.5)**



홍천지역 아낙네들이 허리에 차고 산나물, 야채, 고추 등을 담아 나르는 바구니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이것은 '참싸리' 움돋이의 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엮어 만들었다.

● **종다래끼 ①(출처: 내면 자운2리, 크기: 가로 19.0, 세로 8.0, 높이 19.0)**



홍천 사람들이 허리에 차고 여러 가지 종자를 담아 나르는 바구니다. 탁석근(1937년생, 남) 씨 집안에서 쓰던 것이다. '종다래끼' 아가리 한쪽에 나일론 줄로 묶었다. '종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여러 가지 종자를 담아 나른다. 다래끼는 '참싸리' 중 봄에 움돋이로 엮어 만드는데, 마을 사람들은 싸리나무 움돋이를 '동바리채'라고 한다. 한국의 1년 2작 지대와 1년 1작 지대 사람들은 대부분을 씨앗을 호미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씨앗을 넣고 다시 호미로 흙밥을 긁어 묻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씨앗을 호미로 파종하는 농사 문화권에는 이와 같은 '종다래끼'가 전승된다.



● **종다래끼 ②(출처: 남면 남노일리, 크기: 가로 18.0, 세로 8.0, 높이 21.5)**

홍천 사람들이 허리에 차고 여러 가지 종자를 담아 나르는 바구니다. 김부경(1942년생, 남)씨 집에서 쓰던 것이다. '종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여러 가지 종자를 담아 나른다. 이것은 봄에 '참싸리' 움돋이의 껍질을 벗겨두고 엮어 만들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싸리나무 움돋이를 '동발채'라고 하였다.



● **삼태기 ①(출처: 서석면 생곡2리, 크기: 가로 53.0, 세로 56.0, 높이 21.0)**

거름, 흙, 쓰레기 따위를 담아 나르는 도구이다. 장순석(1946년생, 남)씨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물푸레나무를 테두리로 놓고 기둥삼아 새끼로 멍석을 짜듯이 하여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게 좌우 양편은 울이 지게 엮어 만들었다.



● **삼태기 ②(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가로 76.0, 세로 68.0, 높이 37.5)**

거름, 흙, 쓰레기 따위를 담아 나르는 도구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싸리나무 움돋이 편 것으로 씨줄과 날줄을 삼아 앞은 벌어지고 뒤는 우긋하게, 좌우 양편은 울이 지게 엮었다. 그 주위는 피나무 껍질로 만든 줄로 얽어맸다.



● **어렝이삼태기(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가로 74.5, 세로 53.0, 높이 17.0)**

비교적 소량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도구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피나무 껍질 줄로 통 싸리를 얼멍얼멍하게 엮어 만들었다.

7) 교역 도구

물건을 사고팔고 하여 서로 바꾸며 살아가는 교역 활동에 따른 도구들도 많이 전승되고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말(斗)과 젓갈을 사고팔 때 담는 독만 수집되었다.

● **말(출처: 서면 두미리, 크기: 직경 26.5, 높이 26.5)**



곡식 따위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이다. 류재식(1933년생, 남)씨 집에 있는 것이다. 원기둥 모양이다. 이런 모양의 말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통용되었다. 10리터용으로 소두(小斗) 말이다.

● **젓독(출처: 내면 방내1리, 크기: 아가리 직경 27.0, 밑굽 직경 21.0, 높이 42.0)**



거래할 새우젓 따위의 젓을 담는 독이다. 강동주(1935년생, 여)씨 집에 있는 것이다. 강씨 남편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쓰던 것이다. 일반 옹기그릇에 비하여 배가 홀쭉하다. 밑굽은 편평하다. 이 '젓독'은 한반도 서해안 갯마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모양과 같은 것이다.

나가며

홍천지역에서 수집된 도구를 들여다본 소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한다.

① 홍천지역에 전승되는 북(베 매기할 때 실올에 풀을 먹이는 도구)은 조금 왜소하면서도 뭉툭하다는 점이 돋보인다.

② 청국장을 만들 목적으로 삶은 콩을 발효시키는 그릇(된박)을 박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③ 홍천지역에서 전승되는 '눈가래(눈을 치는 도구)'와 '거릿대(소두엄 내는 도구)'는 통나무로 만들어 원초적인 멋을 내고 있다.

④ 홍천지역에서는 '보섭(보습)'이 3가지가 전승되고 있었는데, 그 목적이 모두 달랐다.

⑥ '양귀호미' 또는 '벽채호미' 화전의 제초도구인데 화전 농사를 짓지 않는 집안에서도 품앗이 목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다.

⑦ 홍천지역에서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삼태기 볏짚으로 만든 것과 싸리나무로 만든 동시에 전승되고 있었다.

⑧ 홍천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내면 방내1리까지 서해안 어촌에서 생산된 젓갈을 담은 '젓독'이 수집되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 교역의 생활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제4편

구비전승

제1장 설화

제2장 민요

제3장 구비단문

제1장

설화

1. 개관

설화(說話)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다. 현대인들에게는 '옛날이야기'가 익숙하지만, 어르신들은 '고담(古談)'이라 부르기도 한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전설(傳說)', '유래담(由來談)', '민담(民譚)'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모든 이야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설화'이며, 설화는 학술상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설화는 구전(口傳)과 이야기 구조에 힘입어 전승하지만, 일상적인 '신변잡담'이나 말로 전하는 '역사적 사실' 등은 설화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홍천군을 대상으로 설화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들은 끊임없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홍천군 설화의 집대성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강원문화총서'의 일부로 간행한 『태백의 설화 상』에 홍천군 설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간행 당시까지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던 홍천군 설화를 비롯해서 새롭게 현지 조사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설화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는 「옛날옛적」, 「거짓말」, 「꽁지따기」, 「새끼 서발 꽈서」 등 민담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함병업(문학평론가, 보성전문학교 강사)이 간접 채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록일은 1933년 1월이다. 홍천군 어디에서 채록한 것인지 구체적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930년대에 채록된 홍천군 설화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 이후 『민속지』를 비롯해서 홍천군에서 발간한 『홍천군지』, 『우리 고장 홍천』,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등에도 홍천군 설화들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이들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들은 구체적인 채록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태백의 설화 상』에 수록한 설화에 일부 설화가 덧붙여졌다.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홍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설화를 조사해서 『강원도 홍천군 학술조사보고서』 2권을 간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강원구비문학전집-홍천군편』으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홍천군을 답사해서 채록한 설화를 다른 지역 조사 자료와 함께 『강원전통문화총서3-설화』에 수록해서 출판하였다.

강원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설화를 대상으로 강원도 전체 시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홍천군 조사는 2004년에 이루어졌으며, 조사한 설화 자료들은 『강원의 설화 Ⅱ』에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1979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구비문학대계』 1차 사업에서 누락되었던 홍천군 전역에 대한 구비문학 조사가 2009년에 이루어졌다. 현지조사에서 141편의 설화를 채록하여 수록하였다. 1970~1980년대에 이루어졌던 1차 사업과 달리 구비문학 채록 현장의 붕괴로 순수 설화 채록이 어려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록한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증편 구비문학대계-홍천군』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홍천군 설화들을 대상으로 신화·전설 등으로 유형을 나눠서 정리하려 한다. 다만 민담의 경우, 홍천군에서 전승은 되지만 홍천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설화들은 다양하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홍천군 설화 가운데 연구가 이루어진 설화, 지역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설화 등을 선별해서 소개하려 한다. 소개하는 설화들은 전체 내용을 수록하기에 지면이 부족하므로, 화소(話素)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참고한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주석을 달지 않고 참고문헌으로 대체한다.

2. 신화

신화(神話)는 설화 가운데 전승자가 진실하고 신성하다고 믿는 것이다. 주로 고대의 신(神)이라든지, 영웅들이 지니는 비범한 이야기 등을 포함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신화는 신화의 하위분류로 보았을 때 국가 단위로 전승하는 신화가 아니고, 지역

단위로 전승하는 '당신화(堂神話)'다. 당신화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으로서의 당(堂)과 그곳에 모셔진 신들과 관련한 이야기다. 곧 당신화는 당신(堂神)과 관계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당신화의 경우 신격의 좌정 유래를 설명하거나, 신의 직능 해설인 영험담 등을 중심으로 전승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봉산 당신화」와 「권대감 당신화」이다.

1) 팔봉산 당신화

팔봉산은 오래전부터 제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당이 현재 두 번째 봉우리에 소재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삼선당(三仙堂)이라는 팔봉산사(八峯山祠)가 있어서 해마다 홍천현이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서 팔봉산 제의는 역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팔봉산 제의의 주신(主神)은 '삼부인(三夫人)'이다. 팔봉산 제의는 이들 삼부인을 모시고 인간의 평안을 기원한다. 팔봉산 주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당신화가 전승한다.

> 팔봉산 삼선당(三仙堂)의 주신은 삼부인(三夫人)이다. 그들은 시어머니 이씨, 딸 김씨, 며느리 홍씨라고 한다. 이씨는 마음씨가 인자하였고, 김씨는 더 착하고 자상하였다. 그러나 홍씨는 너그럽지 못했다. 그래서 굿을 할 때 이씨가 강신(降神)하면 풍년이 들고, 김씨가 강신하면 대풍년이 들지만, 홍씨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홍씨가 강신하면 주문을 외워서 달랬다. 한편 팔봉산 산신령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벼슬아치들도 말에서 내려 걸어갔다고 한다. 조선시대 이괄이 말을 타고 팔봉산 앞을 지나가다가 말발굽이 붙어서 지나가지 못하자, 말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팔봉산에 피칠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신령의 행패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에게 산(山)은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팔봉산과 같이 기이한 형상을 한 산은 그 자체가 신성함의 대상이면서,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된다. 「팔봉산 당신화」는 팔봉산 제당에서 모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벼슬아치들도 말에서 걸어서 갔다"라는 것을 통해 영험함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당

신화이다. 「팔봉산 당신화」를 통해 팔봉산 주신이 여성이며, '시어머니-딸-며느리' 관계가 있고, 팔봉산 인근 마을 세거성씨의 여성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신격은 바람신인 영동지역의 영등신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세 여신은 질투가 심해서 "시집가는 가마가 떨어지지 않아 새색시들이 옷을 벗어 걸어 놓고서야 지나갔다"라고도 한다.

2) 권대감 당신화

내면지역에서는 권대감을 마을의 산신이나 서낭신으로 모시는 마을들이 많고, 매년 '권대감당'이라 불리는 제당에서 마을제의를 이어오고 있다. 권대감당이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권대감 당신화」가 전승한다. 「권대감 당신화」는 권대감이 내면으로 오게 된 이유와 마을에서 권대감을 신으로 모시게 된 유래, 권대감이 신으로서 보이는 영험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면 사람들은 해당 마을에서 모시는 신과 제의의 당위성을 「권대감 당신화」에서 찾고자 한다. 「권대감 당신화」는 조선 초기 단종(端宗)과 얽힌 사건으로 내면으로 오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 권대감이 관군에 쫓겨서 내면으로 도망 오게 된다. 급하게 도망 오던 중 권대감이 타던 말이 칡넝쿨에 걸려 죽게 되자, 그곳에 말을 묻고 부적을 써 던져 내면지역에 칡이 사라지게 되었다. 권대감이 현재의 삼봉약수 근처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학 한 마리가 날아가다 물에 떨어졌다. 신기하게도 부러진 날개가 치료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물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현재의 삼봉약수이다.

「권대감 당신화」는 설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줄거리는 비슷하다. 권대감이 단종과 관련한 사건에 내면으로 쫓겨 오게 되고, 현재의 자운1리 덕두원을 지날 때 말이 칡넝쿨에 걸려 죽게 된다. 권대감은 그 자리에 말을 묻고 칡넝쿨을 향해 부적을 던져 내면에 칡넝쿨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내면에 살면서 삼봉약수를



내면 자운리 덕두원 말무덤

이용해 마을 주민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권대감이 죽고 나서는 마을 제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면지역의 신령(神靈)으로 자리 잡은 권대감은 여러 형태로 영험함을 보여준다. 「권대감 당신화」에서의 신격 권대감에 대해서 단종의 외조부, 외숙 등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권대감이 어떻게 내면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부적을 이용해 칡을 없앤 행위와 내면지역에서 약수를 이용 마을 주민들의 병을 고쳐준 행위, 신으로서 보이는 영험함에 관심을 갖고 「권대감 당신화」를 전승하고 있다.

3. 전설

전설은 설화 가운데 전승자가 신성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나 '진실하다'라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다. 이들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지니며, 증거물을 통해 이야기 자체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또한 증거물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유래나 특징을 이야기로 꾸며내기도 한다. 전설에서의 증거물들은 자연물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전설을 증거물의 형태에 따라 자연물전설, 인공물전설, 풍수전설, 인물전설 등으로 분류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자연물전설

홍천군 전설 가운데 자연물을 그 증거물로 해서 전승하는 전설에는 자연창조전설, 고개전설, 샘·소·약수전설, 암석전설과 지명과 지형에 따른 전설 등이 있다.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설도 자연물전설에 포함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자연물전설을 유형화시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연창조전설

자연창조전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물과 자연현상이 생성된 시원(始原) 또는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이다.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자연창조전설에는 자연물의 형

성이 홍수나 어떠 신령한 힘의 의지해 떠내려 오거나 날아왔다는 내용의 부래(浮來) 전설과 홍수를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홍수(洪水)전설 등이다.

> 팔봉산은 원래 남쪽 지역에 있던 산이었다. 옛날에 여덟 명의 장사가 산을 메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이곳에 와서 쉬게 되었다. 갑자기 뇌성벽력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쳐 더 이상 금강산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팔봉산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부래전설에는 「팔봉산 전설」(팔봉리)과 「백우산 전설」(두촌면과 내촌면 경계), 「배바위 전설」(모곡리) 등이 있다. 「팔봉산전설」은 팔봉산이 산봉우리가 8개로 이루어진 배경을 전설로 설명한다. 곧 '팔(八)'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여덟 명의 장사가 산을 옮기다가 놓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팔봉산의 최종 목적지는 금강산이다. 그러나 강물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백우산 전설」도 금강산에서 명산(名山)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던 중, 잠시 쉬는 동안 이미 다 찼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의 자리에 멈추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홍천군 부래전설은 강원도 내에서 전승하는 다른 지역의 부래전설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부래전설과는 다르게 세금 납부와 관련한 화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배바위 전설」은 홍수에 떠내려오다가 현재의 자리에 멈추었다고 해서 홍수설화와도 연계된다.

> 옛날 몇 달 며칠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백우산까지 물이 차게 되었다. 이때 배를 타고 산으로 피난을 왔던 사람들이 배를 말뚝에 매어놓고 물이 빠진 다음 마을로 왔다가 다시 올라가 보니 그 큰 배가 돌로 변해 있었다. 지금도 백우산 중턱 남쪽에 배 모양으로 생긴 큰 바위와 말뚝같이 생긴 돌이 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배골이라 전한다.

서면 모곡리 배바위



자연창조전설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 한 가지가 홍수전설이다. 홍수전설은 태초 혹은 옛날에 있었던 큰 홍

수와 그 결과 등에 관련된 전설이다. 홍천군에서는 백우산의 「배바위 전설」, 가리산의 「무쇠말재 전설」, 매화산의 「배내미 전설」, 매봉산 「맷바우 전설」 등이 전한다. 백우산 「배바위전설」은 홍수 때 배를 백우산 정상에 있는 배바위에 매었다고 하며, '배골'이라는 지명과도 연계되어 전한다. 「무쇠말재 전설」은 배를 매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고 하며, 「배내미 전설」은 매화산 봉우리 사이에 배가 지나갔다고 한다. 「맷바우 전설도」 매봉산의 유래와 관련해서 배를 매었다고 하며, 그 증거물로 '맷바위'가 있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이들 홍수전설은 홍수의 원인과 결과가 상세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 주로 배를 매었다는 것에 집중해서 전승한다.

(2) 고개전설

홍천군은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산지가 발달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나, 산에 난 고갯길 등이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다. '산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고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 애환의 갈림길로 표현되기도 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고개전설에서도 다양한 홍천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설 또한 다양하다. 어느 한 유형으로 특정적이지 않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고개전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며느리고개 전설」(상오안리), 「주음치고개 전설」(주음치리), 「아홉사리고개 전설」(와야리), 「삼마치고개 전설」(홍천군과 횡성군 경계), 「원넘이고개 전설」(청량리) 등이다.

홍천읍 상오안리
며느리고개



●「며느리고개 전설」

어느 해 봄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나귀 등에 있던 짚신꾸러미가 없어진 것을 보고 고개를 되돌아 내려왔지만 짚신꾸러미는 없었다. 시아버지는 다시 며느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발길을 돌리려 나귀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나귀 발굽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나귀도 그곳에 두고 고갯길을 내려왔다. 그 후 소문에 며느리는 "산

도적에게 잡혀갔다" 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 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개를 '며느리 고개'라 불렀다. 그 이후에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고개를 지날 때 나귀 발굽이 떨어지지 않거나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지곤 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고개를 넘지 않고 60리 길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주음치고개 전설」

주음치는 원래 고개 이름이 '설음재'였다. 옛날 새색시가 주음치리 마을로 시집을 갈 때 험한 고개를 넘어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서럽게 울었다고 해서 설음재로 불렸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전국의 지명을 정리할 때 고개 이름을 마을 주민에게 묻자 '설음재'라고 대답하니, 발음을 못해서 '술음재'라고 하며 한자로 술 '주(酒)'자, 마실 '음(飮)'자, 산 우뚝 설 '치(峙)'자로 고개를 명명하였다. 이름이 새로 붙여진 후 고개를 넘어갈 때 꼭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넘어가야 한다는 풍습이 생겼다.

●「아홉사리고개 전설」

인제군 상남리에서 아홉사리고개를 넘어 내촌면 와야리 쪽으로 열여섯 살 처녀가 권씨 댁에 시집을 왔다. 시집온 지 1년 후 아이를 낳고 친정에 가려고 해도 어린아이 때문에 험한 고개를 넘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어린 아이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고개를 넘었다 하여 아홉사리고개라 부른다.

고개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높다', '험하다'라는 의미에서 지역을 단절시키기도 한다. 「주음치고개 전설」과 「아홉사리고개 전설」에서는 고개의 높고 험난함으로 시댁과 친정과의 거리를 멀게 하기도 한다. 또한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산도적과 들짐승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곳이었다. 「며느리고개 전설」에서는 고개의 위험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3) 샘·소·약수전설

홍천군에는 우물이나 샘(泉), 소(沼), 약수(藥水) 등과 관련한 전설도 전해진다. 우물과 샘 관련 전설에는 「쪽박골샘터 전설」(자은리), 「추평마을 우물 전설」(역내리) 등이 있고,

소와 관련한 전설에는 「망정소 전설」(생곡리), 「벼락소 전설」(대곡리), 「쇠목소 전설」(화상대리·풍암리), 「메지소 전설」(풍암리), 「약장소 전설」(덕치리) 등이 있다. 또한 약수와 관련해서 「삼봉약수 전설」(광원리) 등이 전승한다.

●「쪽박골샘터 전설」

옛날 앉은뱅이가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졌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길을 따라 올라가 보라고 하였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 샘터가 있었다. 그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앉은뱅이는 기뻐서 소리치며 마을로 돌아가 샘터에서 있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후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였다. 사람들은 그 골짜기가 조롱박을 닮았다고 해서 '쪽박골 샘터'라 불렀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개고기와 술을 먹고 갔더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았다고 한다.

●「추평마을 우물 전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하여 추평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선비는 잠시 마을에서 쉬어 가기로 하였다. 때마침 그곳에 있던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다. 그랬더니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모두 생각날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다. 선비는 며칠 동안 추평마을에서 묵고 과거시험을 보러 가서 장원급제를 하였다. 그 후 선비는 그 우물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게 되었다. 그리고 우물 옆에 가래나무 네 그루를 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망정소 전설」

구목령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마씨 내외가 자식 없이 말 한 필을 키우며 살았다. 어느 날 그 말을 강가에 매어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이 캄캄해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폭우 속에 말을 데리러 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물에 잠기지 않은 바위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말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물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그 후로 이 바위를 망정암(望情岩), 할머니가 물에 빠진 곳을 망정소(望情沼)라 부른다. 할아버지는 구목령 산신이 되었고, 할머니는 마고산 신령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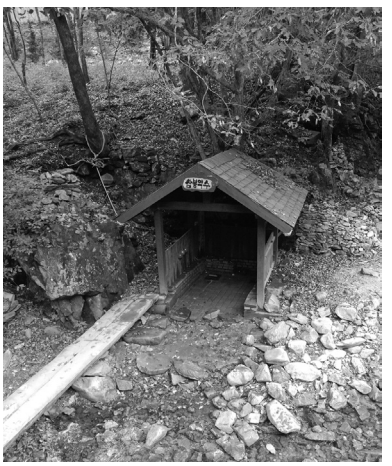
●「벼락소 전설」

옛날에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두 친구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날씨가 무더워 소에서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고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깜짝 놀란 두 친구는 한 바위 밑을 찾아 들었다. 물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던 한 친구가 갑자기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물결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저 구렁이 봐라.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소리치고는 까무러쳤다. 그와 동시에 요란한 천둥번개와 함께 구렁이에게 벼락이 떨어졌다. 두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위가 분명 하나였었는데 두 개가 되어 물 한가운데 떠 있고, 맞은편 바위에는 벼락 맞은 구렁이 시체가 얹혀 있었다. 그 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소를 '벼락소'라 부르게 되었다.

●「삼봉약수 전설」

내면에 정착한 권대감은 삼봉약수 근처에 살았다. 어느 날 학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다. 권대감이 학이 떨어진 곳에 가보니 그곳이 지금의 삼봉약수 자리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날개가 부러진 학이 다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권대감이 그 물로 마을 사람들 병을 고쳐줬다고 한다.

홍천군의 샘과 우물을 대상으로 전해지는 「쪽박골샘터 전설」, 「추평마을 우물 전설」에서는 샘과 우물이 약수로서 기능을 한다.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놀라운 기억력을 소유하게 해 과거급제를 하게도 한다. 곧 이들 전설에서는 샘과 우물의 효험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다. 한편 소를 대상으로 한 「망정소 전설」, 「쇠목소 전설」, 「메지소 전설」, 「약장소 전설」 등은 사람이나 소, 말 등이 빠졌다는 유래를 지니고 있다. 다만 「망정소 전설」은 구목령과 마고산 산신의 정체를 밝혀주는 기능까지도 한다. 「벼락소 전설」은 용이 되지 못한 구렁이(이무기)와 관련이 있다. 구렁이가 용이 되어가는 과정을 전설 속에서 '두 친구'가 보게 되어 용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형태의 전설로 그 이유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삼봉약수 전설」은 삼봉약수의 발견과 효능에 관련된 전설이다. 보편적으로 약수는 여러 가지 질병에 효능이 있는 '신



내면 광원리
삼봉약수

령한 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발견에도 전설을 통해서 영험함을 보여준다. 삼봉약수의 경우 학이 약수에 빠졌다가 치료되는 광경을 통해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그 발견의 주체가 내면지역에서 신으로 모시는 권대감이다.

(4) 바위전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자연물전설 가운데 바위와 연계한 전설은 그 형상이나 이름과 관련해 전해지는 전설이 대부분이다. 바위가 평범하게 생기지 않았거나, 사람들 눈에 띄어서 이름을 갖게 되며, 이름을 갖게 된 바위는 때로는 지역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편, 바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며, 자식(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풍수와 연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름을 갖게 된 유래를 전설로 전하는 바위들도 있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바위전설 가운데 단순한 형상과 이름을 가진 것들을 제외하면 「삼형제바위 전설」(물걸리), 「고인돌 전설」(자운리), 「구메바위 전설」(수하리), 「말바위 전설」(화상대리) 「아들바위 전설」(유목정리, 검산리, 생곡리), 「용바위 전설」(용수리) 등이 대표적이다.

●「삼형제바위 전설」

물걸리에 삼형제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삼이 필요했다. 하루는 바위 위에 산삼이 자라서 강물 위에 비치었다. 아들들은 산삼을 보고서 바위 위로 올라갔다. 첫째와 둘째는 산삼을 찾지 못하고 내려왔다. 막내는 산삼을 캐는 도중 그만 바위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형제들이 물에서 막내의 시신을 건졌더니 막내 손에 산삼이 들려져 있었다. 그 산삼을 아버지에 먹이고,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그 이후 그 바위를 '삼형제바위'라 부른다.

●「고인돌 전설」

신선이 자운리에 있는 바위에 내려와 놀곤 하였다. 어느 날 놀다가 반지를 잃어버렸다. 찾아도 보이지 않아 신선들은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을의 마귀할멈(마고할멈)이 반지가 그 바위 밑에 들어간 것을 알았다. 마귀할멈이 반지를 찾기 위해 바위를 들어 올려놓아서 고인돌 형상이 되었다고 한다.

●「구메바위 전설」

서석면 어론리에 있는 용두산에서 용이 승천했고, 저녁마다 '구메바위'에 호랑이가 나타나 울어서 마을을 지켜준다고 '용호대'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한국전쟁 무렵 중공군이 용호대를 향해 야간 행군을 하며 '구메바위'를 지날 때 벼랑에서 2~3명의 중공군이 강바닥으로 떨어졌다. 행렬은 뒤로 돌아갔으며 "이 길로 갈 수 없으니 행로를 갈현리로 해서 절골로 돌아가라"라고 하여 다시는 이곳에 적군이 근접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는 구메바위가 용호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마을을 지켜 주었다고 믿고 있다.

●「말바위 전설」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살벼울과 응골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내촌천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바위 이름이 '말바위'다. 지금은 두 개이고 형태도 알 수 없으나 원래는 한 개이고 모양도 말 모양과 흡사했으며 응골 쪽을 보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응골쪽은 농사가 잘되지 않고 살벼울은 농사가 잘되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말머리가 응골쪽을 향하고 있으니 응골쪽의 풀과 양식은 입으로 뜯어 먹고 그것을 궁둥이로 살벼울 쪽으로 베푸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응골 쪽 사람들이 한밤중에 몰래 그 바위를 두 쪽으로 부쉈더니 그해부터는 강 양쪽 마을에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아들바위 전설」

옛날 이씨 종가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해 소박을 맞고 가다가 바위 움푹 파인 곳을 조약돌로 던져 맞추고, 조약돌을 바위 위에 얹어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1년만 함께 살 것을 간청하여 아들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바위전설 가운데 「삼형제바위 전설」은 효행담의 형태로 전해진다. 효행의 주체가 막연하게 '삼형제'이며, 아버지의 병을 고치지만 막내의 희생이라는 대가도 치르게 한다. 「고인돌 전설」은 자연물이나 지형을 만들었다는 거인 여신인 마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설이다. 돌이 올려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마고할멈이 반지를 찾기 위해 올려놓았다고 한다. 마고할멈이야기는 창세신화의 일종이다. 그러나 전승하면서 창조신

의 지위를 상실하고 자연물 형성과 연관된 전설로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한편 『홍천군지』에는 '마귀할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부정적 신격으로 와전되어 전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구메바위 전설」은 시대적 배경이 비교적 근래이다. 전설을 통해서 '구메바위'가 마을을 지켜지는 수호신격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말바위 전설」은 마을의 풍흉과 관련이 있다. 한편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아들바위 전설」은 아들바위가 기자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곧 '돌을 던져서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그 형상이 용과 같아서 용의 승천(昇天)으로 생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이 「용바위 전설」이다.

2) 인공물전설

(1) 사찰전설

홍천군 사찰들 가운데 사찰 창건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 있다. 내촌면 서곡리에 소재한 쌍계사(雙鷄寺)다. 쌍계사는 서곡리 출신 승려로 알려진 서곡대사와 관련 있는 사찰이다. 쌍계산 창건과 관련해서 「쌍계사 창건 전설」(서곡리)이 전해진다. 한편 홍천군 사찰전설 가운데는 폐사지가 된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동면 신봉리에서 전해지는 「절터 전설」(신봉리)이 대표적이다. 이들 전설은 주로 '절터'라고 하는 지명과 연계되어 전해지고 있다.

내촌면 서곡리
쌍계사



●「쌍계사 창건 전설」

서곡대사가 쌍계사 자리에 터를 잡을 때 "계란 두 개를 묻어놓고 밤중에 닭 우는 소리가 나거든 그 자리에 절을 만들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계란 두 개를 묻어놓고 기다리는데 실제로 닭 우는 소리가 나서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쌍계사가 원래 닭 계(鷄)자를 썼었지만, 현재의 자리로 옮겨오면서 계곡 계(溪)자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절터 전설」

약 400년 전 절터 자리에 절이 있었고, 스님 혼자 도를 닦으며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 도중 불장난을 심하게 해서 주민들의 반발로 쫓겨나게 되고 빈 절이 되고 말았다. 절은 점차 노후되어 빗물이 샐 정도로 낡아가고 있었다. 그때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절 마루를 뜯어다 뒤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부자가 머슴을 시켜 절 마루를 뜯어다 뒤주를 만들게 하였다. 그 후 부잣집의 가세가 차차 기울어가고 더욱이 우환이 잦았다. 밤이면 꿈에 패랭이를 쓴 스님이 나타나 "내 나무 내놓으라"고 하고, 때로는 호랑이가 나타나 가축들을 물어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결국 부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남은 자손들은 뒤주를 뜯어다가 다시 절을 고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사찰 창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흔히 '사찰연기설화'라고도 한다. 불교와 관련한 공간이 지어진 신이한 내력을 전하는 전설들이다. 「쌍계사 창건 전설」에서는 계란을 땅에 묻어놓고,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한 곳에 절을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신이한 전설을 통해 쌍계사가 소재해야 하는 당위성과 영험함을 갖추게 된다. 한편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사찰전설 가운데는 「절터 전설」처럼 사찰이 폐사지가 된 유래를 전하기도 하는데, 이들 전설은 주로 '절터'였다는 지명과 연계되어 있다.

(2) 누정전설

홍천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누정(樓亭)이 적은 편이다. 전설에 국한해 보았을 때도 누정전설의 전승이 활발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누각이나 정자 등에 얽힌 전설은 이름난 인물과 결부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누정전설은 누정의 창건 배경과 이름의 유래 등을 담고 있다. 홍천군에서는 전해지는 누정전설은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학명루(鶴鳴樓)의 명칭 유래와 관련해서 전해지는「학명루 전설」(희망리)이 유일하다.



홍천읍 학명루 자리

●「학명루 전설」

옛날부터 홍천 읍내에는 올라가 주위를 바라볼 만한 누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럴 즈음 '윤지(尹志)'라는 사람이 수령으로 부임해왔다. 그는 고을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여 객관의 동쪽에 누대를 세웠다. 누대 앞에는 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다. 마을 노인들을 초청하여 낙성 잔치를 베풀었다. 윤지는 그 자리에서 "누대 이름을 무엇으로 짓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한 노인이 "이 객관 앞에 학다리(鶴橋)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는 날 학이 날아와서 울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입니다. 청컨대 누대 이름을 학이 날아와서 울었다는 이야기와 연계해서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윤지는 그 노인의 뜻에 따라 누대 이름을 학명루라고 지었다 한다.

현재 홍천읍에는 학명루가 없으며 학다리도 매몰되었다. 학명루와 연못이 있던 자리에는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다. '학명루길'을 통해서 그 자취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학명루 전설」은 학명루를 창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현재도 홍천군 관내에는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보았을 때 누정이 많지 많다. 학명루를 창건하게 된 배경도 그 때문이다. 설립자는 윤지이고, 위치는 동헌 객관의 동쪽이다. 그리고 이름은 학다리와 연계해서 지었다고 한다.

3) 동물전설

동물전설은 상상이나 현실 속의 동물과 관련한 전설이다. 홍천군에도 말, 개, 호랑이, 구렁이(이시미), 용 등과 관련한 전설이 전승한다. 이들 동물전설들은 실존 인물들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선바위와 말무덤 전설」(좌운리)과 「최진사집 개무덤 전설」, 「동막고개 전설」 등이다. 「선바위와 말무덤 전설」은 좌운리 출신으로 명천부사를 지낸 허수(許遂, 허명천)와 얽힌 전설이며, 「최진사집 개무덤 전설」(월운리)은 사람을 구하고 죽은 의로운 개무덤에 관한 이야기다. 「동막고개 전설」(속초리)은 은혜 갚은 호랑이를 소재로 한다. 이 외에도 「두봉산의 이시미 전설」(서곡리), 「황다리골 전설」(천현리) 등은 이시미(구렁이)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전설이다.

●「선바위와 말무덤 전설」

조선 인조 때 허명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허명천이 선바위에서 무술을 익혔다. 하

루는 용마에게 "화살보다 늦게 도착하면 목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먼 거리로 화살을 쐈다. 허명천이 그 장소로 가보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허명천은 약속대로 말의 목을 쳤다. 그러자 뒤늦게 화살이 떨어졌다. 죽은 용마를 그곳에 묻었다고 한다.



동면 좌운리 선바위

●「최진사집 개무덤 전설」

최진사 집에는 10여 년 동안 키운 영리한 개가 한 마리 있었다. 그 개는 진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주인을 지켰다. 하루는 주인이 환갑잔치에 갔다 오는 길에 술에 취해서 고개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주인이 누워 자는 밑에서 불이 타올라왔다. 개는 물가에 내려가서 털에 물을 묻혀 주인이 자는 옆에다 흔들어 털곤 하여 불이 옮겨 붙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개는 기진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잠에서 깬 진사가 옆을 보니 개가 죽어 있고, 자신이 누워 있던 곳은 질퍽하게 젖어 있었다. 최 진사는 죽은 개를 조심스레 들어다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아주 큰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 후 최씨 집안에서는 진사가 여덟이나 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개무덤 9대 진사집'이라고 불렀다.

●「동막고개 전설」

한 사람이 동막고개를 지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호랑이 입을 보니 목에 비녀가 걸려 있었다. 비녀를 빼어주었더니 호랑이가 사라졌다. 다음에 동막고개를 지날 때 다시 호랑이가 나타나 목적지까지 태워주었다.

「선바위와 말무덤 전설」은 허수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명마의 능력을 시험하려다가 실수로 죽인 다음 말무덤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전설이다. 충직한 말은 허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였음에도 허수의 경솔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다. 「최진사집 개무덤 전설」에서 개는 주인인 최진사의 목숨을 구해주고, 최진사는 개를 위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그로 인해 '9대 진사집'라는 별칭을 갖게 될 정도의 덕을 입었다고 한다. 「최진사집 개무덤 전설」은 일반적인 개무덤 관련 전설과는 달리 '개의 보은'

과 '개무덤 형성'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의 보은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동막고개 전설」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꺼내주고, 그 은혜를 호랑이가 갚았다는 전형적인 보은담(報恩譚)에 해당한다. 이들 동물전설들은 말이나 개, 호랑이의 용맹함과 충성스러움 혹은 의로움이 인간의 그것을 넘어섬을 설득하려 한다.

4) 풍수전설

홍천군의 지형이나 지세와 관련된 전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풍수전설이다. 홍천군의 풍수전설은 특정 지명과 관련된 것도 있고, 숲이나 바위, 고개 등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것도 있다. 또한 음택풍수(陰宅風水)인 묏자리와 관련해서 전해지기도 한다. 홍천군 풍수전설 가운데는 지형과 관련해 전해지는 것은 「어목리(魚牧里)와 어유포리(魚遊浦里) 전설」(두미리, 어유포리)이다. 「백우산 지령 전설」(도관리), 「수레바위 전설」(서곡리), 「장자터 전설」(명개리), 「부처바위 전설」(창촌리), 「쥐산과 고양이산 전설」(원동리), 「가미봉 지령 전설」(장남리), 「용두안 전설」(풍암리) 등은 며느리나 부자에 의해 명당이 깨뜨려지는 형태의 풍수전설로 홍천군에서 비교적 전승이 활발하다. 「삼마치고개 전설」(삼마치리)은 아기장수 설화와 관련 있으며, 「남산 전설」(연봉리), 「닭바위 전설」(갈마곡리), 「양구데미 전설」(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경계) 등은 명당자리에 자손의 영화를 위해서 암매장하는 형태의 전설이다.

서석면 풍암리 용두뿔



● 「어목리(魚牧里)와 어유포리(魚遊浦里) 전설」

서면 모곡3리에 '돌댐'이라는 곳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그곳에 댐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곳에 댐이 만들어지면 현재 어목리가 고기를 키우는 곳이 되기 때문에 '어목리'라 하였고, '어유포리'는 물고기가 노는 곳이라는 의미다. 곧 지형의 형세를 보고 선견지명으로 지명을 지었다.

●「백우산 지령 전설」

전씨 집안에서 백우산에 시조 산을 쓰고 부자가 되었다. 살림이 넉넉한 까닭으로 오고 가는 손님들이 많았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왔다. 며느리는 시주를 하면서 손님이 덜 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스님은 시조 묘소 앞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사람을 사서 바위를 깨뜨렸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금붕어 한 쌍이 나타나 사라졌다. 이후 손님이 줄고 가세가 기울어져 가난하게 되었다.

●「삼마치고개 전설」

홍천과 횡성을 잇는 경계에 '삼마치고개'가 있고, 고갯마루에는 오음산(五音山)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오음산에서 다섯 명의 장수가 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수가 나면 마을이 편안하지 못해서 장수가 나지 못하게 오음산 골짜기 바위굴에 구리를 녹여 붓고 쇠창을 꽂았다. 그랬더니 검붉은 피가 용솟음치면서 다섯 개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울었다. 그 뒤 3일이 지난 저녁 세 마리의 말이 나와 힘없이 고개를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고개를 삼마치고개라 한다.

●「남산 전설」

홍천읍 남쪽에 남산(南山)이 있다. 남산에 시체를 남 몰래 묻으면 가정에 복이 오고 큰 운이 깃든다고 믿어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시체를 묻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산 거북등에다 시체를 묻으면 홍천지역에 큰 가뭄이 들고 향교의 정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고 한다.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풍수전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어목리와 어유포리 전설」처럼 해당 지형의 형상과 지명을 풍수로 설명하려 한다. 두 번째는 「백우산 지령 전설」처럼 명당을 파괴하는 형태의 전설이다. 다만 전설에 따라서 명당 파괴의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백우산 지령 전설」, 「수레바위 전설」, 「쥐산과 고양이산 전설」, 「가미봉 지령 전설」은 며느리에 의해서 명당이 파괴되고, 「장자터 전설」, 「용두안 전설」은 부자가 직접 명당을 파괴한다. 그리고 대상은 주로 산, 바위, 연못 등이다. 「두미리 전설」은 풍수림(風水林)을 파괴함으로써 마을이 어려워졌으며, 「삼마치고개 전설」은 산맥을 끊음으로써 장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해 뒤에서 제시할 '아기장

수전설'과 이어진다. 세 번째는 암매장과 연계한 전설들이다. 「남산전설」, 「닭바위 전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명당에 암매장한 결과가 마을 홍수와 가뭄과 이어진다. 한편, 풍수를 시행해서 발복(發福)해 이름을 얻거나 명성을 떨친 사람과 관련한 전설은 전승하지 않는다.

5) 아기장수전설

홍천군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탓에 그 부모 또는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의 「아기장수 전설」이 전승한다. 이전설은 홍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승하는 광포전설의 일종이다. 홍천군도 「아기장수 전설」의 전승력이 활발한 편이다. 「백우산 장수 전설」(도관리), 「이장사 전설」(검산리), 「아기장수 전설」(도관리, 화상대리, 서곡리, 풍암리, 창촌리, 명개리, 자운리) 등이 대표적이다.

●「백우산 장수 전설」

백우산 기슭 매지골에 초맹삼이라는 어질고 착한 농부가 살았다. 나이가 오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한 스님에게 시주를 하고 부인의 몸에 태기(胎氣)가 생겼다. 그러나 출산 후 아기가 백일이 지나기도 전에 기운이 장사였고, 밤마다 나갔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하루는 몰래 뒤를 따라가 숨어서 엿보았는데 칼을 들고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방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 당시에는 장수를 낳으면 나라에 화를 입힌다고 하여 아이가 성장하여 힘을 쓰기 전에 부모의 손으로 죽여야 했다. 부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잠자는 아들의 몸 위에 콩 두 가마니를 얹어 놓아 죽였다. 아이가 죽자 용마가 울며 헤매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지금도 도관2리에 '우렁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용마가 울었던 곳이다. 또한 '쉴 바위'는 장수가 쉬었던 바위이고, '약세'에는 용마의 죽통과 말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장사 전설」

검산리에 이씨네가 들어와 살았다.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나 불공을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고 열 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 금방 태어난 아기 울음이

쩌렁쩌렁 울려 집안사람들이 가보니 아이가 남과 달리 뼈마디가 길고 통이 크게 생겼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힘센 장사가 나면 역적이 된다 하여 장사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았다. 어느 덧 아이의 나이 열아홉이 되었다. 친구들이 주동이 되어 장사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이장사가 대변을 보러 뒷간에 갈 때 올가미를 씌우고 바깥에서 열다섯 명이 잡아당겼다. 장사는 그러나 끄덕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문이 한양에까지 퍼졌다. 동학란이 일어나자 관군을 뽑는다는 방이 전국에 내렸고, 그들은 이 장사를 데려가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첫 번째 밥 한 말 먹기에는 합격했으나, 두 번째 된 똥 누기에는 묽은 똥이 나와 불합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옷 입는 시험에서 이 장사는 무거운 갑옷을 입어도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격했는가 싶었는데 투구를 쓰자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불합격되고 말았다. 이 장사는 나라를 위해 힘 한번 쓰지 못했지만, 장사가 못되고 역사(力士)급 정도여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장사의 묘는 아들바위 뒤에 있다고 한다.

「아기장수 전설」에서 주인공 아기장수는 평범한 집안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태어난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를 역적이 될 징후로 여겼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것이 두려워 하늘이 내린 영웅을 제거해 버린다.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전설의 경우 아기장수를 시해 하는 주체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백우산 장수 전설」과 서곡리의 「아기장수 전설」은 시해의 주체가 어머니이고, 풍암리와 창촌리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 전설」은 집안 식구들에 의해 아기장수가 죽임을 당한다. 또한 명개리와 자운리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아기장수를 죽이는 주체가 마을 주민들이다. 한편 아기장수를 시해하는 도구와 방법도 차이가 난다. 「백우산 장수 전설」과 화상대리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콩자루, 서곡리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팥 석 섬과 버섯 아홉 되, 풍암리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팥 석 섬과 맷돌 두 개를 아기장수 위에 올려놓아 죽인다. 창촌리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끌로 아기장수의 어깨를 파기도 하고, 자운리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아기장수 겨드랑이에 난 두 비늘을 뽑아서 죽인다. 그리고 이들 전설들은 아기장수의 용마가 죽어서 묻었다는 말무덤과 연계되어 있다. 한편 「이장사 전설」은 다른 「아기장수 전설」과 다르다. 아기장수가 장수로서의 힘을 갖추지 못했기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곧 아기장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6) 역사인물전설

홍천군에는 역사인물과 관련한 전설이 전승한다. 특정한 인물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적을 남겼다는 인물전설은 그 행적에서 일정한 역사성을 드러내기에 역사와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홍천군의 역사인물전설은 다양한 증거물들과 함께 전승된다. 또한 홍천군 역사인물전설의 주인공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분별로는 왕자에서부터 역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1) 마의태자전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태자인 마의태자(麻衣太子)에 관한 전설이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를 중심으로 전승한다. 전설에서 광암리는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로 마의태자가 가는 길에 지나쳐 간 마을이라고 하면서, 그 흔적을 마을 지명에 남겨 전승한다. '마의태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전설에서는 '신라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하였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마의태자 전설」에서 홍천군을 지나가는 마의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을 지나는 마의태자는 쫓김을 당하고, 풀(草)로 얹은 수레에 몸을 숨기고 있는 모습이다.

공작산에는 마의태자가 금강산 가는 길에 머물렀다는 '왕궁터'와 '내시터'라는 데가 있다. 마의태자가 왕궁터에서 머물렀고, 내시터에는 수행하던 사람들이 머물렀다고 한다. 마의태자가 수레 위에 풀을 엎어서 닭장처럼 위장해 지나갔다고 해서 수레 차(車)변에 풀 초(草), 닭 유(酉)자를 써서 군유동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군넘이 고개와 황병재는 임금이 넘은 고개라고 의미로 생긴 지명이다.

내촌면 광암리
군유동



강원도 홍천군을 지나는 마의태자의 노정은 "동면 공작산(왕궁터, 내시골) → 화촌면(도강터, 장평 솔치) → 내촌면 동창리 → 내촌면 광암리(군유동) → 두촌면 괘석리(삼층석탑) →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등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홍

천군에서 전승하는 지명설화를 통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마의태자 전설」의 최종 목적지는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다. 이는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 김부대왕(또는 마의태자)을 모시고 있는 '대왕각'이 위치해 있고, 김부대왕의 무덤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오미자골 입구 도로변에 있다는 전설도 전하기 때문이다. 「마의태자 전설」이 전승하는 지역에서는 그를 지역의 신으로 모시기도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홍천군을 지나갔다고만 한다. 홍천군의 「마의태자 전설」에서 마의태자는 김부리를 향하고 있고, 고개를 넘어가는 마의태자의 모습만 형상화하고 있다.

(2) 서곡대사전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를 중심으로 「서곡대사 전설」이 전승한다. 서곡리가 서곡대사가 태어난 곳과 출가한 곳, 주석한 곳이라고 하며, 그와 관련한 전설들이 마을 곳곳의 지명 및 증거물들과 연계해서 전승하고 있다. 서곡리에는 '태어난 집터'라는 곳이 '안실마을'에 소재해 있다. 또한 서곡대사가 출가했다고 하는 '서곡리사지(현 비룡사 소재)'와 공부를 했다고 하는 동굴 등이 남아 있으며, 서곡대사의 무덤을 찾을 수는 없지만, '거스르미재(큰여창이에서 도관리 거주포로 넘는 고개)' 너머 오른편 기슭에 있다고도 한다. 서곡대사의 법명은 찬연(粲淵, 1702~1768)이다. 서곡대사는 수타사와 봉복사에서 주석하였다. 현재 홍천군 동면 수타사에 그의 진영(眞影)과 부도, 그리고 부도비가 남아 있다.

서곡대사는 내촌면 서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가 꼴을 베어 오라고 시키니까 꼴을 베면 풀에서 피가 난다고 해 베지를 못했다고 한다. 또한 논에 가서 가래질을 하다가 지렁이를 뚝 자르고 말았다. '이게 못할 짓이로구나' 하여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서곡리 쌍계사를 창건할 때 "계란을 두 개 묻고, 밤중에 닭 우는 소리가 나는 곳에 절을 지어라"라고 해서 옮기기 이전에 쌍계사는 닭 계(鷄)자를 썼다. 원주 서곡리나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났는데, 세숫물과 숭늉으로 끄기도



내촌면 서곡리
서곡대사 출생지

하고 포수가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다. 다음 날 서곡대사가 해우소에 다녀온 후 그 아래에서 돼지가 살아 나갔다고 한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전해지는 「서곡대사 전설」은 서곡대사 출생지와 출가(出家) 이유, 고승(高僧)으로서 보이는 영험담 등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전승력이 활발한 것은 고승으로서 보이는 영험담이다. 서곡대사가 출가한 이유는 자연물 곧 동물(지렁이)과 식물(풀)을 해(害)할 수 없었던 그의 성품에서 비롯되며, 아버지에 의해 또는 그 스스로 스님이 될 결심을 하고 출가를 결정했다고 한다. 특히 서곡대사는 불을 제압하는 능력과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慧眼)을 지닌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 횡성군 봉복사, 원주시 서곡리사지, 합천군 해인사 등에 난 불을 숭늉을 뿌려 제압하기도 하며, 산짐승을 잡는 포수들의 놀림도 지혜를 발휘해 오히려 포수들의 존경까지 받게 된다. 한편, 주민들의 병고(病苦)를 덜어주고 풍흉을 예언해 왔다고도 한다.

(3) 이괄전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역사인물전설 가운데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전승하는 것이 「이괄 전설」이다. 이괄(李适)은 조선 중기에 난(亂)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서면 팔봉리와 어유포리, 홍천읍 소매곡리, 검율리 등에서 「이괄 전설」이 전승하며, 덕치천 인근 일부 지역에 소재한 증거물들을 대상으로 동면 덕치리, 성수리 등에서도 전승한다. 특히 홍천군 동면 덕치리에 있는 '이괄봉'을 중심으로, '이괄 성', '이괄 소', '이괄 샘', '이괄 바위' 등의 전설적 증거물들을 토대로 전해진다.

이괄은 어렸을 때 성질이 난폭하고 아버지의 말에 항상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언행을 하였다. 이괄의 아버지는 풍수에 밝아서 자신의 묏자리를 당대에 왕이 날 곳으로 잡았는데, 그 자리는 시신을 거꾸로 묻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이괄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해서 시체를 바로 묻었다. 나중에 관군이 이괄 아버지의 무덤을 파보니 용이 거의 되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괄이 팔봉산을 지날 때 말의 발굽이 떨어지지

않아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을 창으로 찌르고, 그 피를 팔봉산에 칠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괄이 서울을 갔다 오는 동안, 용은 삼성산과 도룡굴을 파헤쳐 강물을 돌려놓는 내기를 하였다. 이괄이 서울을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용도 마침 산맥을 갈라 서로 비겼다. 동면 덕치리에서 이괄이 머무르며 무술을 닦기도 하고, 산성을 쌓았다. 그는 강을 건너 뛰어 장을 뜨러 다녔고, 부인(작은 부인, 애첩)을 산에서 강으로 떨어뜨려 받기도 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이괄 전설」은 이괄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풍수(風水)의 금기위반(禁忌違反) 등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또한 「이괄 전설」을 전승하는 사람들은 홍천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어려서 무술을 연마하던 곳', '군사를 훈련시키던 곳', '거주하며 생활하던 곳' 등으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괄과 홍천과의 연계성을 처가에서 찾기도 하며,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홍천에서 일어난 변란에서 찾기도 한다.

(4) 효행전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인물전설 가운데 마을 단위로 전승하는 대표적인 것이 효행(孝行)전설이다. 홍천군의 효행전설은 내용이 다채로운 편은 아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잘라 부모의 약으로 삼았다든가, 한겨울의 잉어처럼 계절에 맞지 않는 물건을 구했다든가 하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효행전설에는 「박효자 전설」(생곡리), 「정효자 전설」(청량리), 「이소 효행 전설」(제곡리), 「이회명 효행 전설」(유치리) 등이 있다.

이회명은 가난한 살림에도 부모님을 도와 일도 열심히 하고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27세 되는 해에는 호조참판이란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임금님께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간병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하였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린 다음, 약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골짜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머리와 수



이회명 효자비

염이 하얀 노인을 만나 잉어를 잡아 푹 삶아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곧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회명은 겹겹이 언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약을 해드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은 차도가 없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아버지의 입속에 넣어드렸다. 그 순간 외딴곳에서 만났던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내가 하느님의 명을 받아 너에게로 와서 이르노니 너무 걱정 말아라" 하면서 사라졌다. 그고는 아버지의 일그러졌던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눈을 뜨셨다고 한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효행 전설의 경우 효행의 증거로 '산삼'과 '잉어'가 주로 등장한다. 홍천군의 지역의 지리적 특성인 산간 계곡에서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된 소재이다. 「이소 효행 전설」, 「이회명 효행 전설」, 「정효자 전설」 등에서는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잉어를 구해서 몸보신을 하게하고, 「이소 효행 전설」에서는 산삼과 앵두가 추가된다. 한편, 「이회명 효행 전설」에서는 단지(斷指)를 통해서 부모님의 목숨을 연장하게 한다. 이들 효행 전설은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당 문중과 마을 중심으로 전승한다.

제2장

민요

1. 개관

민요(民謠)는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노래로 생업활동이나 세시풍속, 놀이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홍천군의 민요'라고 하면 홍천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리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설화와는 다르게 민요는 개인은 물론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불리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홍천군 민요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 민요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홍천군 관내에서 전통 민요를 듣기가 쉽지 않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홍천군 관내를 대상으로 한 민요 조사와 연구는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홍천군 민요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이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는 「압니 싸진 갈가쥐」, 「동무야 나무가자」 등 유희요를 중심으로 홍천군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민요 조사는 먼저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한 조사다. 조사에서 채록한 민요들은 『강원구비문학전집』에 수록하고 있다. 『강원구비문학전집』은 전승하는 홍천군 민요를 집대성했다는 의의를 지니며, 홍천군 관내에서 채록한 민요가 700여 편 수록되어 있다. 또한 MBC문화방송에서 조사한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에도 홍천군에서 채록한 민요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원도 전역을 현지 조사하고 시·군·면·마을별로 구분해서 수록한 『강원도의 민요 Ⅰ』에 홍천군 전역에서 채록한 민요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마을과 제보자, 구연상황 등 민요 전승의 주변 환경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천군 민요를 대상으로 한 온전

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의 민요 Ⅰ』에 수록된 있는 민요 현황을 면과 리별로 분류한 표는 다음과 같다.

면	리	편수	제목
남면	시동3리	9편	아라리(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2, 아리라(나무하는소리), 에헤요허호소리(논매는소리), 단허리(논매는소리), 어허넘차소리(운상하는소리), 어허호이소리(운상하는소리), 워호소리(운상하는소리)
내면	자운2리	18편	가갸거겨하니(한글풀이하는소리), 한강수타령(가창유희요), 경복궁타령(가창유희요), 양산도(가창유희요), 아라리(나무하는소리), 강원도아리랑(가창유희요), 아라리(나물뜯는소리), 석탄가(가창유희요), 뱃노래(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진주난봉가(가창유희요), 우리영감 장가가네(가창유희요), 다복녀(가창유희요), 한 살먹어부모죽어(가창유희요), 둥개소리(아기어르는소리), 노랫가락(가창유희요)
	창촌3리	9편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아라리(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도라지타령(가창유희요), 이거리저거리갓거리(다리뽑기하는소리), 베틀소리(가창유희요), 성님성님 사촌성님(가창유희요), 독수공방 빈방안에(가창유희요), 성님오네 성님오네(가창유희요)
내촌면	물걸1리	6편	본조아리랑(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창부타령(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
동면	속초리	8편	어허 어허야소리(논매는소리), 여처처소리(도리깨질하는소리), 자진아라리(가창유희요), 베틀가(가창유희요), 성님성님 사촌성님(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일자나한자 들고보니(숫자풀이하는소리)
	삼현리	15편	아라리(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춘아춘아 옥단춘아(가창유희요), 아라리(삼삼는소리), 담바구타령(가창유희요), 둥개소리(아기어르는소리), 풀무소리(아기어르는소리), 세상달강(아기어르는소리), 우리아기 잘도 잔다(아기재우는소리), 한알대두알대(다리뽑기하는소리), 열다섯에 낭군 잃고(가창유희요), 아라리(나물뜯는소리), 돈타령(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엮음아라리(가창유희요)

면	리	편수	제목
두촌면	자은2리	6편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장기타령(가창유희요), 밀양아리랑(가창유희요), 베틀가(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장남1리	11편	베틀가(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2, 아라리(나무하는소리), 한오백년(가창유희요), 창부타령(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우러리(풀써는소리), 이거리저거리 갓거리(다리뽑기하는소리), 각설이타령(가창유희요)
북방면	노일리	23편	방아소리(논매는소리), 이랴소리(밭가는소리)2, 허영차소리(목도하는소리), 달구소리(묘다지는소리), 어허넘차소리(운상하는소리), 둥게소리(아기어르는소리), 이수일과 심순애(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베틀소리(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도라지타령(가창유희요), 노들강변(가창유희요), 한알대두알대(다리뽑기하는소리), 일일자장군이(숫자풀이하는소리), 아라리(나물뜯는소리), 성님성님 사촌성님(가창유희요), 다복녀(가창유희요), 새야새야 파랑새야(가창유희요), 세상마상(아기어르는소리), 풀무소리(어기어르는소리), 일자나한자들구보니(숫자풀이하는소리)
	성동1리	11편	방아소리(논매는소리), 상사소리(논매는소리), 이랴소리(논삶는소리), 어허넘차소리(운상하는소리), 어이가리소리(운상하는소리), 오호소리(운상하는소리), 달구소리(묘다지는소리), 아라리(나무하는소리), 자진아라리(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성동2리	10편	한강수타령(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성주풀이(가창유희요), 창부타령(가창유희요), 각설이타령(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베틀가(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2, 흥타령(가창유희요)
	중화계리	5편	지경소리(땅다지는소리), 이랴소리(밭가는소리), 한강수타령(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자진아라리(가창유희요)
서면	대곡리	1편	이랴소리(밭가는소리)
	두미리	3편	아라리(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이랴소리(밭가는소리)
	팔봉리	4편	방아소리(논매는소리), 달구소리(묘다지는소리), 자진아라리(가창유희요), 한오백년(가창유희요)

면	리	편수	제목
서석면	어론2리	9편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우리아기 잘도잔다(아기재우는소리), 방아방아야(아기어르는소리), 풀무소리(아기어르는소리), 담바구타령(가창유희요), 백발가(가창유희요), 자진아라리(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풍암1리	21편	아라리(가창유희요), 노랫가락(가창유희요), 노들강변(가창유희요), 창부타령(가창유희요), 석탄가(가창유희요), 도라지타령(가창유희요), 돈타령(가창유희요), 둥게소리(가창유희요), 풀무소리(아기어르는소리), 허영차소리(목도하는소리), 우러리(풀써는소리), 상사소리(논매는소리), 지경소리(땅다지는소리), 곱새치기소리(노름하는소리), 일자나한자 들고보니(숫자풀이하는소리), 앵끼댕끼(다리뽑기하는소리), 에이어라 댕겨라(나무끄는소리), 우리아기 잘도잔다(아기재우는소리), 한오백년(가창유희요), 엮음아라리(가창유희요)
화촌면	송정리	4편	창부타령(가창유희요), 베틀가(가창유희요), 오봉산 타령(가창유희요), 뱃노래(가창유희요)
	야시대1리	9편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자진아라리(나무하는소리), 자진아라리(가창유희요), 아라리(가창유희요)2, 한오백년(가창유희요), 창부타령(가창유희요), 어랑타령(가창유희요), 성님성님 사촌성님(가창유희요)

아울러 1979~1985년까지 『한국구비문학대계』 1차 조사사업에서 누락되었던 홍천군 전역에 대한 구비문학 조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이때 채록한 민요는 총 72편이며, 이들 민요는 설화와 마찬가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증편 구비문학대계-홍천군』에도 수록되어 있다. 다만 2000년대에 이루어진 조사는 민요 전승 환경의 변화로 민요 구연자 및 전승 민요 각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홍천군 관내의 민요를 노동요·의식요·유희요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수록하되, 특정 유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홍천군 전승 민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타령 계통의 민요들은 홍천군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기에 여기서는 배제하였으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 또한 배제하였다. 자료 출처는 설화와 마찬가지로 참고문헌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1) 노동요

노동요(勞動謠)는 일의 능률을 높이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는 민요를 가리킨다. 홍천군 관내에서 채록한 노동요 가운데 농업노동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무나 나물 등을 채취하면서 부르는 '임산노동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부르는 '토건노동요'와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불렀던 '가사노동요' 등이 주로 전승한다.

(1) 논농사요

논농사요는 논농사를 하면서 불렀던 민요다. 홍천군에서는 논농사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보이는 것이 「논매는소리」이다. 조사·채록의 시기, 방법 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논가는소리」, 「모찌는소리」, 「논삶는소리」, 「모심는소리」 등의 전승은 「논매는소리」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다. 「이랴소리」로 대표되는 「논삶는소리」만 일부 보일 뿐이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논매는소리」에는 「에헤야허호소리」, 「단호리」, 「어허어허야소리」, 「방아소리」, 「상사소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상사소리」가 가장 보편적이다. 한편 모를 찔 때, 논을 맬 때 「아라리」도 불렀다는 것이 확인된다. 홍천군의 대표적인 논농사요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랴소리(논삶는소리)

이러 마 안야 제껴서라 / 마라소가 돌다리네 어서잘 다버다려라

이러이 어후후 마라소는 술술이 물러서고 / 안소는 밀고돌아아서라 후안야 허호허호

이러마 힘든다말구서 슬슬 잡아다려라 / 안소야 넘나들지를말구서 추견추견히 잘잡아다려

- 북방면 성동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44쪽.

에헤야하호소리(논매는소리)

에이헤야 허호 에헤야 워호리 워호야 / 위호 에헤야 에헤야 워호

에헤야 워호리 워호야 워호 에헤야 / 다맸다

- 남면 시동3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980쪽.

단허리(논매는소리)

어화얼씬 단호리야 어화얼씬 단허리야 / 단호리소리가 웬소린가 어화얼씬 단호리야

우리농부는 논매는소리 어화얼씬 단호리야 / 두마지기 다랭이가 어화얼씬 단호리야

반달만치 남았구나 어화얼씬 단호리야 / 니가무슨 반달이냐 어화얼씬 단호리야

…(생략)…

- 남면 시동3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980~981쪽.

어허어허야소리(논매는소리)

어허 어허야 어형어야 어허 어허야 에헤허야 / 여보시오 계원님들 어허 어허야 에헤허야

논매는소리를 하여봅시다 어허 어허야 에헤허야 / 이소리는 무슨소리 어허 어허야 에헤허야

농부들이 논매는소리 어허 어허야 에헤허야 / 잘한다구 먼저말구 어허 어허야 에헤허야

…(생략)…

- 동면 속초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11쪽.

방아소리(논매는소리)

에이여라 방아요 에이여라 방아요 / 여보시오 일꾼님네에이여라 방아요

이내소리를 들으면서 에이여라 방아요 / 자주자주를 매여를봅시다 에이여라 방아요

에이여라 방아요 에이여라 방아요 / 찍어주오 찍어를주오 에이여라 방아요

…(생략)…

- 북방면 노일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31쪽.

상사소리(논매는소리)

저건너 김부자 노적가리 홀라서서 / 춤만덩실 추누나 얼럴럴 상사데야

얼럴럴 상사데야 얼럴럴 상사데야 / 삼칸에 훌치대로 아주잘만 패나주게

얼럴럴 상사데야 얼럴럴 상사데야 / 칸칸마다 차차대로 아주잘 파내만주게

…(생략)…

- 북방면 성동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31쪽.

(2) 밭농사요

밭농사요는 밭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부르는 민요다. 홍천군 관내의 대표적인 밭농사요는 「밭가는소리」이다. 「밭가는소리」는 홍천군 전역에서 채록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조사에서도 꾸준히 보인다. '홍천 겨릿소 밭가는소리 전승보존회'를 중심으로 현재도 발굴 및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故) 임은복 씨가 2012년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밭가는소리」로 참가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홍천군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이용하는 '겨리소' 특징을 보이며, 「밭가는소리」는 소를 부리면서 '이랴'라는 소리를 내는 「이랴소리」의 형태로 전승한다. 홍천군의 「밭가는소리」는 주로 밭을 가는 사람이 소에게 건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설 내용이 일과 관련해서 소에게 내리는 명령이 대부분이다. 한편 밭농사요로 「도리깨질하는소리」도 채록되었다. 곡식 낟알을 털기 위해 도리깨질을 하면서 소리를 했다. 「도리깨질하는소리」는 특별한 사설 없이 여음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밭가는 장면
(화촌면 구성포리)

이랴소리(밭가는소리)

어러 저짝 밭머리가니 어후돌아서자 / 인제는 잡아를댕기구 저떼소 발밟아 가주구

올래밀구 내려밀구 잘댕겨줘라 어후돌아섰다 / 인제는 저고랑에 또 들어선다

왔다갔다 하질말구 잘해야지 잘말듣고 따라해 허후 / 돌아서 인제는 또한길 나온다 말잘들어

…(생략)…

- 내촌면 물걸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09쪽.

여처처소리(도리깨질하는 소리)

여처처처 어허야 조조 후우 / 여처처처 에헤야 조조 후우

여처처처 어허야 조조 후우 / 여처처처 에헤야 조조 후우

여처처처 어허야 조조 후우 / 여처처처 에헤야 조조 후우

- 동면 속초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11쪽.

(3) 임산노동요

임산노동요를 '벌채노동요'라고도 한다. 주로 목재 생산과 임산물 채취를 할 때 불리는 민요다. 홍천군은 산지가 많기에 홍천군 사람들에게는 산이 생활 터전이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또는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리를 하고, 나물을 뜯으러 가서도 소리를 하였다. 홍천군의 임산노동요에는 「풀써는소리」, 「나무하는소리」, 「나무끄는소리」, 「목도하는소리」, 「나물뜯는소리」 등이 있다. 「풀써는소리」는 나무나 풀을 자르기 위해 '쌍작두'에 넣으면서 부르는 소리다. 「나무하는소리」, 「나무끄는소리」, 「목도하는소리」 목재 생산 과정에서 주로 불린다. 이들 민요들은 모두 손발 맞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설 없이, 여음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나물을 뜯는 과정에서 「아라리」를 부르기도 하였다.



갈풀썰이
(내면 방내리)

우러리(풀써는소리)

아 우러리다 / 빵빵눌러 디뎌라

호진대사 국신쟁이 방구꼈다 뽕나무냐 / 며느리방구 뽕낭구냐 어 잡아들여라

꽝꽝눌러 디뎌라 어 무른대미에 / 지렁이 갈빗대냐 파리 팔대에

…(생략)…

- 서석면 풍암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83쪽.

아라리(나무하는소리)

갈 꺾구 모심으고 하루쉬는 날이 / 바느질거리 옆에끼구서 놀러를 오소

우리가 살고살면은 몇백년이나 사느냐 / 살아생전에 좋은일이나 하다가나 갑시다

만첩산중에 북망산은 말을 물어보자 / 임이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있더냐

…(생략)…

- 내면 자운2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984~985쪽.

에이여라 댕겨라(나무끄는소리)

아허야 댕겨라 이여하자 댕겨라 /팔자대비로 찍어다와 엥허리 댕겨라

목상놈이 돈을안줘 낭기야 산판을한다 / 어허루야 댕겨라 낭구야 올러왔네

나도야한번 댕겨줄거니 어이허라 댕겨라

- 서석면 풍암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86쪽.

허영차소리(목도하는소리)

허자 어저차 어이 일어나 / 어저차 허이차 어 어이저 허여

허어자 헤여이 허어자 헤여이 / 허저차 헤여 힘이든다 말씀말고

헤저차 허져 삐끗하면 다치네 / 허저차 허여 허리깨가 부러져도

…(생략)…

- 북방면 노일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32쪽.

아라리(나물뜯는소리)

우리야 삼동세 보나물가세 / 모시대 참나물 시러진골로

우리야 삼동세 보나물이나 가세 / 시아버지 산소에 화상이나 비쳤는지

우리야 삼동세가 줄난봉이났네

- 동면 삼현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20~1021쪽.

(4) 토건노동요

토건노동요는 '토목노동요'라고도 한다. 주로 건축이나 토목현장에서 부르는 민요다. 홍천군의 토건노동요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땅다지는소리」가 있다. 「땅다지는소리」는 집터를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들독'이라고 부르는 큰 돌이나 나무를 줄에 묶어 여러 사람이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부른다. 홍천군의 경우 「땅다지는소리」 가운데 「지경소리」가 전승하며, 사설의 내용은 집을 만드는 과정과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무사와 안녕을 담고 있다. 전형적인 선후창 형식으로 소리를 받을 때는 "에이허리 지경이요"로 받는다.

지경소리(땅다지는소리)

에허라 지경이요 에이허라 지경이요 / 번쩍들었다 떨길적에 에이허라 지경이요

어이허라 지경인데 에이허라 지경이요 / 이집을질려면 어떻게닫나 에이허라 지경이요

어이허라 지경인데 에이허라 지경이요 / 우렁집을 지어볼까 에이허라 지경이요

…(생략)…

- 북방면 중화계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55~1058쪽.

(5) 가사노동요

홍천군 민요 가운데 가사노동요로 아이를 키우면서 부르는 양육요(養育謠)가 전승된다. 양육요 가운데도 「아기어르는소리」, 「아기재우는소리」 등이 주를 이룬다. 「아기어르는소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며 어를 때 하는 소리이며, 「둥게소리」, 「세상달강」, 「불무소리」, 「세상마상」, 「방아방아방아야」 등을 주로 불렀다. 그 가운데 「둥게소리」, 「불무소리」 등이 홍천군 전역에서 보인다. 곡조는 전체적으로 느린 편이다. 아기가 잠투정할 때면 「아기재우는소리」를 불러 재우게 된다. 「아기어르는소리」나 「아기재우는소리」는 주로 할머니나 어머니 등이 부른다. 한편 아녀자들이 삼베를 짜기 위해 삼을 삼으면서 「아라리」를 부르기도 하였다.

불무소리(아기어르는소리)

풍구풍구 풍구야 요렇게 불어두 신선에 풍기로구나 / 풍구풍구 풍구야 슬근살짝 불어도 신선에 풍기로다

풍구풍구 풍구야 엎드려라 좀 배려보자 / 딱후룩 뚝딱딱딱 후루 뚝딱딱

딱후룩 뚝딱딱딱 후루 뚝딱딱 / 아 이제 다했다 베렸다

- 서석면 어론2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70쪽.

우리아기 잘도잔다(아기재우는소리)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한켠손에 과줄쥐고 한켠손에 약과쥐고 / 잘도잘도 자는구나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 건네집아긴 못도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생략)…

- 서석면 어론2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69~1070쪽.

2) 의식요

의식요(儀式謠)는 의식을 치루는 과정에서 부르는 민요다. 홍천군 의식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보이는 것이 장례의식요이다. 곧 「운상하는소리」와 「묘다지는소리」가 홍천군 전역에서 불려진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운상하는소리」는 받는 후렴구에 따라서 「어허넘차소리」, 「어허호이소리」, 「워호소리」, 「어이가리소리」 등이 있다. 특히 「어허호이소리」와 「워호소리」는 「운상하는소리」 중에서도 빠른 가락으로 부를 때 주로 부른다. 산과 같은 경사가 있는 곳을 오를 때 주로 불리는 민요다. 이를 홍천군에서는 '자진상여소리'라고 부른다. 장례의식요 가운데 「묘다지는소리」로 홍천군에서는 주로 「달구소리」를 부른다. 이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 홍천군은 물로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불리는 소리다.

어허넘차소리(운상하는소리)

워럼차 허호 워럼차 훠호 / 워럼차 훠호 워럼차 훠호
가네가네 나는가네 워럼차 훠호 / 너를두고 나는가네 워럼차 훠호
명사십리 해당화야 워럼차 훠호 / 꽃진다고 설워마라 워럼차 훠호
…(생략)…
- 남면 시동3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981~982쪽.

달구소리(묘다지는소리)

에호리 달에야 에호리 달헤야 / 여보소 계원님네 에호리 달헤야
이내말씀 가는대로 에호리 달헤야 / 횟대한번 발질두번 에호리 달헤야
여보소 계원님네 에호리 달헤야 / 횟대밟고 밟아졌으면 에호리 달헤야
…(생략)…
- 서면 팔봉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66~1067쪽.

3) 유희요

유희요(遊戱謠)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인데, 놀이의 진행을 위해 또는 놀이에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부른다. 홍천군에서는 전승하는 유희요에는 '동작유희요', '도구유희요', '언어유희요', '가창유희요' 등이 있다. 그중 가창유희요 전승이 가장 활발하다. '동작유희요' 중에는 「다리뽑기하는소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홍천군에서 전승하는 「다리뽑기하는소리」에는 「오구리도구리가꾸리」, 「한알대두알대」, 「앵끼댕끼」 등이 주를 이룬다.

'도구유희요'에는 「노름하는소리」가, '언어유희요'에는 「한글풀이하는소리」, 「숫자풀이하는소리」 등이 보인다. 「노름하는소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곱새치기소리」다. '곱새치기'는 화투를 이용한 놀이로, 4명이 2장씩 총 24장의 화투를 도구로 진행한다. 이때 화투를 내면서 그에 해당하는 '숫자 불림'과 '상황 불림'이라는 소리를 하고, 상대가 낸 패를 잡으면서도 소리를 한다. 홍천군에서는 주로 광산이 있던 곳이나 광부들 사이에서 불렀다. 「한글풀이하는소리」, 「숫자풀이하는소리」 한글이나 숫자를 차례에 따라가면서 그 소리나 뜻에 맞게 일정한 내용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부르는

민요다.

한편 가창유희요로 홍천군 전역에서 「아라리」를 주로 불렀다. 또한 「진주난봉가」, 「성님성님 사촌성님」, 「노랫가락」, 「한오백년」, 「뱃노래」, 「어랑타령」 등의 통속민요도 많이 보인다. 이들 민요들은 「아라리」와 함께 섞어서 부르기도 하였다. 홍천군이 서울·경기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민요'를 많이 부르지만, 현재는 면이나 읍 단위의 문화센터 등에서 경기민요를 배우기는 기회가 많기에 홍천군 전역에서 채록된 민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창유희요 가운데 통속민요의 경우 홍천군에서 많이 불리기는 하지만, 홍천군 민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오구리도구리가꾸리(다리뽑기하는소리)

오구리 도구리 가꾸리 / 돈지 만근 도만근 짝발이 호양근
도루매 진지 장독대 / 동지섣달 대설이 개천에가 죽어도
잎이왔네 살려왔네 드드레 뽕
…(생략)…
- 내면 창촌3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01쪽.

한알대두알대(다리뽑기하는소리)

한알대 두알 때 연사 영금
바라 칭 칭 말 불 퉁 탕
- 동면 삼현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20쪽.

앵끼댕끼(다리뽑기하는소리)

앵끼 땡끼 가락지 성찌 / 올라간다 가매 꼭지 딸까당
앵끼 땡끼 가락지 성찌 / 올라간다 가매 꼭지 딸까당
…(생략)…
- 서석면 풍암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85~1086쪽.

곱새치기소리(노름하는소리)

자 일자나 한자 들구봐 일월이성성 야성성 / 아 일

삼자나 한자 들구봐 삼십먹은 노총각 장개가기가 등뼈가네 / 국궁다대주면 국궁다대주면 문고리 팔다리 구월산 나물뜯으러 가세

칠십 둘 / 칠십만근을 가래 십만석 시눈에 배로다

…(생략)…

- 서석면 풍암1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84~1085쪽.

가갸거겨하니(한글풀이하는소리)

기역니은디귿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 사잤더니 / 인연이 짚질못하여 아차잠깐 죽었구나

가이거겨 가련한 이내신세 거지없게 되었구나 / 교교구규 고생한 우리낭군 구간하기 짝이없네

나냐너녀 나귀등에 솔질하여 소기헌장 빗겨타고 천리만리유람가자 / 노뇨누뉴 노세노세 젊어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생략)…

- 서면 팔봉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66~1067쪽.

일 일자장군이(숫자풀이하는소리)

일 일자 장군이 이 이대 장군을 데리고 / 삼 삼층을 올라가서 사 사방을 내려벼며

오 오자 장군이 육 육혈포를 가지고 / 칠 칠칠나올 때 팔 팔자가 달아나다

구 구둣발로 빵 때렸다 엊그제 신문에 났다

…(생략)…

- 북방변 노일리 채록, 『강원도의 민요 Ⅰ』, 1040~1041쪽.

제3장

구비단문

구비전승 가운데 짧은 문장으로 된 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속담, 수수께끼, 속신어(俗信語) 등이며, 흔히 구비단문(口碑短文)이라고 한다. 속담과 수수께끼는 홍천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도 있지만, 홍천군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구비단문 가운데 속신어는 속신 관념에 의해 굳어진 것이기에 홍천 사람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속신어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속신어는 '~하면' 그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 된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홍천군 지역의 속신어는 홍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고 제약하며 교육을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강원대학교 산촌문화연구센터에서 전통지식의 일환으로 조사한, 앞으로 일어날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속신어 가운데 기후 관련 속신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들 기후 관련 속신어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과학적 합리성,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교육성, 사고와 행동의 제약을 주는 주술적 심리성 등이 담겨져 있다.

- 남쪽인 봉평에서 검은 구름이 북쪽인 광원리로 달려가면 소나기가 온다. (내면 자운리)
-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적게 오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다. (내면 자운리)
- 봄에 참꽃(진달래꽃)이 붉고 진하게 피면 가물고, 여리게 피면 장마가 진다. (내면 자운리)
- 가을에 무를 뽑아 뿌리가 길게 내리면 그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짧으면 눈이 적게 온다. (내면 자운리)
- 감자를 심어서 감자가 깊이 있으면 가물고, 얕게 있으면 장마가 진다. (내면 자운리)

- 정월대보름에 뜬 달을 보아 달이 붉게 뜨면 가문다. (서면 중방대리)
- 여름철 저녁 조개구름(큰 구름이 아니고 작은 조각구름)이 떠 있으면, 그날이나 3일 안에 비가 온다. (서석면 청량리)
- 여름철 검은 구름이 횡성(남쪽) 방향에서 서석면 소재지 방향(북쪽)으로 흘러가면 비가 오고, 서석면 소재지(북쪽)에서 횡성 방향(남쪽)으로 흘러가면 비가 오지 않는다. (서석면 청량리)
- 겨울철 시커먼 구름이 덥히면서 날씨가 춥지 않고 푸근하면 눈이 많이 온다. (서석면 청량리)
- 겨울철 노루가 응달쪽에서 울면 추워질 것이고, 양지쪽에서 울면 추위가 풀릴 것이다. (서석면 청량리)
- 어느 한곳에 화재가 나고 나서 노루가 울면, 노루가 우는 방향 쪽에서 맞불(화재)이 난다. (서석면 청량리)
- 하루 전날 지는 해가 붉고 진하면 그다음 날 비가 온다. (내면 광원리)
- 해가 뜰 무렵 노란구름이 떠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분다. (서석면 검산리)
- 아침에 무지개가 뜨면 그날 비가 온다. (서석면 검산리)
- 서쪽에 무지개가 뜨면 소나기가 온다. (서석면 검산리)
- 해가 붉게 보이면 그해는 가뭄이 든다. (서석면 검산리)
- 정월대보름에 달이 붉게 보이면 그 해 가뭄이 든다. (서석면 검산리)
- 정월대보름에 달이 뿌옇게 보이면 장마가 든다. (서석면 검산리)
-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면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서석면 검산리)
- 달보다 좀생이별이 앞서가면 그 해는 비가 많이 온다. (서석면 검산리)
- 수양산 옆 폭포수가 안개가 일어서 중허리를 넘어 왔다 갔다 하면 장마가 진다. (서석면 검산리)
- 수양산 옆 폭포수에서 안개가 솟아 멀리 흐르게 되면 가뭄이 든다. (서석면 검산리)
- 수양산에 구름이 떠서 왔다 갔다 하면 사흘이 안 되어 비가 온다. (서석면 검산리)
- 구름 모양이 북쪽으로 풀뿌리처럼 뻗어 있고 먹구름이 질 때 비가 온다. (내촌면 군업리)
- 바람이 차고 뭉게구름이 일 때 눈이 온다. (내촌면 군업리)
- 굴뚝새가 여럿이 덤불 사이로 날아다니며 추위가 온다. (내촌면 군업리)

참고문헌

『강원구비문학전집』 홍천군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1989.

『강원전통문화총서3-설화』, 국학자료원, 1998.

『강원의 설화』 I·Ⅲ, 강원도, 2005.

『강원의 민요』 I , 강원도, 2002.

김소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제일서점, 1933.

김세건 외, 『강원도 산간문화-홍천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사, 2014.

김세건 외, 『강원도 강촌문화-홍천강변 사람들의 이야기』, 지식산업사, 2015.

김의숙, 「이괄 전설 연구」, 『강원민속학』 11집, 강원도민속학회, 1995.

김의숙,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김의숙, 「구비설화의 역사의식 연구」, 『강원민속학』 12집, 강원도민속학회, 1996.

『민속지』, 강원도, 1989.

『우리 고장 홍천』, 홍천군, 1992.

유명희, 「홍천 산간 지역의 '논매는소리' 교섭 양상, 『역사민속학』 41집, 역사민속학회, 2013.

유명희, 「홍천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민요권역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평민사, 1989.

최명환, 「홍천군 산간지역 인물설화의 지역적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2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2.

최명환, 「강원도 홍천군 인물설화의 지역적 특징 연구」, 『온지논총』 41집, 온지학회, 2014.

최승순, 『강원문화논총』,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9.

『태백의 설화 상』, 강원일보사, 1974.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 국립민속박물관, 2012.

『한국민요대전-강원도편』, MBC, 1996.

『홍천군지』, 홍천군, 1989.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홍천군, 1996.

황루시 외,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홍천군』,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제5편
언어

제1장 개관

제2장 홍천방언의 어휘

제1장

개관

방언은 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전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투리라고도 한다. 특성상 같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같은 하나의 방언권으로 분류한다. 홍천방언은 큰 방언권으로 나누면 중부방언에 속한다. 중부방언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명칭은 서울·경기·강원·충청·황해도를 포함하는 '경기방언'의 설정을 시작으로 '중선방언(中鮮方言)'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아직까지 우리 학계에서 그 명칭과 개념 및 방언구획의 문제에 대하여 학자 간에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다소 막연히 쓰고 있는 명칭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부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방언구획에서의 어려움은 방언권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전체를 오쿠라 신뻬이(小倉進平)는 경기방언·경상방언·전라방언·제주도방언·함경방언·평안방언의 5개의 큰 방언권으로 나누고, 강원도·황해도·충청남북도는 경기방언권에 소속시켰고 나머지는 대체로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분류를 하였다. 그 후 고노 로쿠로(河野六郎)는 대체로 오쿠라 신뻬이(小倉進平)의 방언구획을 따라 중조방언(中朝方言)·서조방언(西朝方言)·북조방언(北朝方言)·남조방언(南朝方言)·제주방언(濟州方言)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경상방언과 전라방언을 남조방언 하나로 묶어 5개의 방언권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중조방언은 오쿠라 신뻬이(小倉進平)의 경기방언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노 로쿠로(河野六郎)는 네 가지의 음운적 특징만으로 방언구획을 하였는데, 오쿠라 신뻬이(小倉進平)는 이보다는 많은 언어 특징을 제시하였지만 방언권을 구획할 때 근거로 제시한 언어 특징이 그때그때 달라져 일관성 있는 기준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널리 통용되는 방언구획은 오쿠라 신뻬이(小倉進平)에 의한 것이나 이후 다른 체계의 구획이 몇 가지 시도되었다. 그중 하나는 한국이 방언을 북부방언군과 남부방언군으로 크게 양분하고 이를 다시 전자를 경기도방언, 강원도방언, 황해도방언, 충청도(북부)방언, 평안도방언으

로, 후자를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함경도방언, 충청도(남부)방언, 제주도방언으로 하위분류한 최학근의 방언구획 체계가 두드러진다. 그 이후의 방언구획들의 논의에서는 강원도방언은 모두 중부방언에 소속시켜 구획하였다. 이들의 방언 구획에서 강원도방언의 위치는 대다수 경기도·황해도·충청도를 포함하는 중부방언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강원도가 경기도·황해도·충청도와 접해 있거나 이웃하고 있어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중부방언권의 방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방언이 다른 방언과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 특징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강원도방언은 음운, 문법, 어휘에서 나름대로 체계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구분되어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고, 영동지방은 영서지방과 달리 중부방언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 교통의 편리함, 매스컴 보급 등의 원인으로 지역적 방언 차가 급속히 좁혀져 방언자료들이 소멸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

한 방언이 상당한 크기의 지역을 지리적 조건이나, 사회적·문화적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안에서도 상당한 언어적 분화가 있게 마련이고, 각 방언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방언 구역 안에서도 상당한 언어적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다시 작은 구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서로 인접해 있는 방언 사이에는 항상 접촉이 이루어져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

강원도를 몇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지 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방언구획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을 방언구획의 기준으로 하고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방언구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강원도는 다른 행정구역에 비하여 넓고 상당한 부분이 휴전선 이북에 속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방언구획을 하는 일은 불가능한 형편이기도 하다.

방언의 영향은 하천이나 산맥 등으로 교류를 하지 못하면서 같은 방언권에 있으면서도방언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강원도는 태백산맥이라는 큰 준령이 놓여 있어서 동서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였고, 영동지방의 경우는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뱃길의 교류가 더 활발하였다. 그래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 형태가 되었고 영서지방의 언어와 영동지방의 언어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강원도방언권은 태백산맥을 분계선으로 하여 강원도를 동서로 양분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에 따라 강원도는 크게 영서방언권과 영동방언권으로 나뉜다.

그러나 방언이 태백산맥을 분계선으로 하여 영서·영동으로 나누지만, 태백산맥의 줄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동방언권과 영서방언권을 군별로 소속시키면, 영서방언권에는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홍천·횡성·원주가 속하며, 영동방언권에는 고성·속초 양양·강릉·삼척·동해·태백·평창·정선·영월이 속한다.

위의 구분에서 영서방언권에 속한 시군들의 언어는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방언권에 속한 시군들은 방언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북단영동방언권·강릉방언권·삼척방언권·서남영동방언권으로 구분된다. 북단영동방언권은 고성·속초·양양이 속하며, 휴전선 이북까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방언권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강릉방언권은 강릉·명주를 묶은 지역으로, 이 지역은 때로는 양양과 가까운 관계를 보이기도 하나 여러 방언 특징에 의해 이웃 지역들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방언권을 형성한다. 삼척방언권은 삼척·동해·태백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도방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영동의 한 방언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서남영동방언권은 평창·정선·영월의 세 군을 묶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동방언과 영서방언권의 요소가 뒤섞여 나타나는 지역으로 영동방언권에서 영서방언권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방언권이다. 홍천지역어는 영서방언권에 속한다.

홍천군은 강원도에서 특히 산이 많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등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천군은 강원도의 중심지역으로 서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양평군과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양양군·강릉시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춘천시·인제군, 남쪽으로는 횡성군·평창군이 접해 있다. 이처럼 홍천군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접해 있고 동으로는 영동지방과 접해 있어 강원도방언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지역이다. 홍천군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중부방언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영동지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영서방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홍천군 지역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1970~1980년대 4개의 논문이 있다. 신동수가 「홍천 방언 연구」로 1975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정호완이 「강원도 홍천 방언

의 음운체계 연구: 내면지방을 중심으로」로 1976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원훈의는 「강원도 방언연구」라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여 강원도의 시군을 지역별(평창, 정선, 영월, 홍천, 춘천, 춘성, 화천)로 음운·어휘·문법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홍천지역에 관한 논문은 1987년과 1988년에 발표한 두 편이 있다. 그러나 원훈의의 연구는 지방대학의 학술지인 춘천교대 『관동향토문화연구』에만 실림으로써 학계에 널리 읽힐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문법형태소의 분석 등 그 방법론에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홍천지역의 방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홍천의 지역어에 대한 내용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방언답사가 매우 중요하다. 방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직접 새로이 수집하는 일을 수반한다. 남이 이미 모아놓은 자료를 근거로 어떤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는 일은 방언조사에 있어서는 정도가 아니다. 방언분야의 조사 지점과 제보자, 조사 항목은 많을수록 좋겠으나, 여건상 조사 지점은 1개 면에서 한두 마을을 택하였고, 몇몇 지역은 조사 후 그 지역 젊은이들을 통한 확인 작업이 있기도 하였다. 조사항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에서 출간한 『한국방언조사질문지』의 전 항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홍천군은 주요 경제수단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와 더불어 의식주와 관련되는 것, 가축들을 조사하면서 제보자들이 쉽게 알려줄 수 있고 친근감을 느끼게 유도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로 질문지에 있는 그림을 보며 묻는 방식인 명명식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제보자는 대다수 70세가 넘는 홍천에 거주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홍천군 토박이거나 할머니들도 홍천지역 내에서 시집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간혹 치아가 고르지 못하신 분이나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보자로 선정하여 조사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제2장

홍천방언의 어휘

홍천군 전역에 공통되는 방언의 특징을 기술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강원도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이다. 홍천군은 1읍 9면으로 되어 있지만 면 단위로 구별되어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홍천군 전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음소(音素)

한국어의 음소는 고저장단(高低長短) 중에서 음장과 성조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는 성조가 쓰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 성조가 나타나는 지역은 대개 삼척·강릉을 비롯하여 영월·정선·평창 등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천군은 동쪽으로는 양양군과 강릉시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횡성군과 평창군이 접해 있어서 주변 언어에서 성조를 습득할 수 있지만 성조의 음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홍천 지역어는 단모음을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홍천군에서는 '없다, 어른, 언제, 어디' 등의 '어(ə)'가 '으:(ɨ:)'로 실현되어 '읍:따, 으:른, 은:제, 으:디'로 나타난다. 또한 'ㅕ(jə)'도 'ㅢ(jɨ)'로 바꾸어 길게 발음해서 '영감, 영례, 여드름, 경상도'를 '/jɨ:ŋgam/, /jɨ:ŋlje/, /jɨ:dɨrɨm/, /kjɨ:ŋsaŋ do/'로 나타낸다. 이러한 발음 현상은 다른 방언보다 많은 편이다.

2. 음운(音韻)

1) 자음(子音)

홍천군의 자음체계는 표준어와 발음 위치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음화, 구개음화, 격음화, 자음교체, 자음탈락 등과 같은 음운변화로 인해 어휘의 형태에서 표준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만 자음의 체계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아 19개의 자음이 그대로 쓰인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음운의 전사는 IPA기호를 따르되 조금 차이를 둔다.

ㅂ(p)	ㄷ(t)	ㅈ(c)	ㄱ(k)
ㅍ(p^h)	ㅌ(t^h)	ㅊ(c^h)	ㅋ(k^h)
ㅃ(p ')	ㄸ(t ')	ㅉ(c ')	ㄲ(k ')
	ㅅ(s) ㅎ(h)		
	ㅆ(s ')		
ㅁ(m)	ㄴ(n)	ㅇ(ŋ)	
ㄹ(r)			

홍천군 방언의 자음의 교체나 자음 변화는 모음에 비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러 유형으로 실현된다. 자음교체의 경우에는 어떤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므로 발음적 차이는 나타나지만 의미의 변화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

구개음화는 '맏이'가 '마지'로 발음되는 것처럼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ㅣ[j]'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인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으로 변화되는 현상인데, 홍천군에서는 연구개음인 'ㄱ'이 구개음인 'ㅈ'으로 발음되거나, 후두음 'ㅎ'이 치경구개음인 'ㅅ'으로 교체되는 현상까지를 포함한다. 홍천군 방언에서도 'ㄱ'이 'ㅈ'으로 변하는 현상은 경상도방언이나 전라도방언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ㄱ'이 '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i'나 'i'계 모음을 만나면 초성에서도 바뀌어 발음된다. 예를 들면 '짐메다(김매다), 젠누리(곁두리), 치(키), 짐치(김치), 밀지울(밀기울), 지둥(기둥), 집다

(깁다), 번더지(번데기), 절혼(결혼), 짓(깃), 짚다(깁다), 씨친다(씻기다), 질이 질다.(길이 질다)' 처럼 나타난다. 'ㅎ'이 'ㅅ'으로 변하는 현상을 보면 '성(형), 성님(형님), 세(혀)'처럼 발음한다.

또한 홍천군에서는 평음 'ㄱ', 'ㄷ', 'ㅂ', 'ㅈ'이 격음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격음화라 한다. 어두보다는 어중에서 종성 'ㅎ'음과 뒤 음절 초성의 'ㄱ, ㄷ, ㅂ, ㅈ'이 결합하여 'ㅋ, ㅌ, ㅍ, ㅊ'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음운현상과는 달리 초성에서 평음이 격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투렝이(두렁이), 쿠리다(구린내), 퇴(도, 윷놀이의 '도'), 칼치(갈치) 등이 있다.

홍천군에서는 '씨레기(시래기), 꼬갱이(고갱이), 또랑(도랑), 꼬랑내(고린내), 깨구리(개구리), 뚜꺼비(두꺼비), 깨금(개암)'처럼 평음이 경음(된소리)으로 변하는 경음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파열음 계통의 평음 'ㄱ, ㄷ, ㅂ'이 어두에서 된소리인 'ㄲ, ㄸ, ㅃ, ㅉ'으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경향이면서도 지역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위'를 '가새'라 하고, '마을 간다'를 '마실 간다'라고 쓰거나 예전에,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덧붙였던 딴 머리를 '다리'라고 하는데, 홍천에서 '달비(talbi)'로 쓴다. 또한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닐 때 머리에 받치는 고리 모양의 물건인 '똬리'를 '또바리(t 'obari)'라고 한다. 홍천방언에서도 경상도나 충청도방언에 나타나는 소실문자 'ㅿ, ㆆ'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표준어에는 없지만 방언형에서 'ㅅ'과 'ㅂ'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또한 중세국어에 'ㄱ' 곡용의 형태였던 것이 'ㄱ'이 소실되었다가 방언형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낭구'로 발음한다. 이와 유사한 예는 얼개미(얼레미), 고물개(고무래), 얼개빗(얼레빗)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하고 단어에 따라서도 변화의 양상을 달리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자생적인 음운 변화의 양상인지 아니면 인접 방언의 차용된 결과인지를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외에도 자음이 첨가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부추'를 '분추'로 'ㄴ(n)'이 첨가되어 쓰이고, '추녀'를 '충녀'로 'ㅇ(ŋ)'이 첨가되어 쓰인다. '언청이'를 홍천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원도 지방에서 '헤챙이(hecheŋi)'로 쓰이면서 'ㅎ/h/'을 첨가하여 쓴다.

자음이 첨가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음절이나 음운

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 싸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하여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인 '광주리'를 홍천에서는 '광우리(kwaŋuri)'로 부른다.

2) 모음(母音)

모음체계는 방언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특히 경상도방언이나 제주도방언에서는 ㅔ(e)와 ㅐ(ɛ)가 /E/로 실현되어 6개의 단모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홍천방언은 'ㅐ(e)'에 비해 'ㅔ(ɛ)'가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부방언의 다른 지역 방언과 모음체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홍천방언의 단모음은 대다수 10모음 체계를 가진다.

	전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	ㅣ[i]	ㅟ[y]	ㅡ[ɨ]	ㅜ[u]
중	ㅔ[e]	ㅚ[ø]	ㅓ[ə]	ㅗ[o]
저	ㅐ[ɛ]		ㅏ[a]	

이중모음의 경우는 반모음 /w/, /j/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나타나는데, 중부방언들의 이중모음 체계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경상도방언에 나타나는 이중모음 'ㅢ[jɨ]'가 몇 어휘에 장음으로 나타난다.

홍천지역에서는 '누데기(누더기), 엉뎅이(엉덩이), 두드레기(두드러기), 홀애비(홀아비), 괴기(고기), 피라미(피라미), 뚜께비(두꺼비), 구데기(구더기), 지렝이(지렁이), 쟁끼(장끼), 삭젱이(삭정이), 소내기(소나기), 아지랑이(아지랑이)'처럼 앞의 단어 또는 어절에 있는 'ㅏ(a), ㅓ(ə), ㅗ(o)' 등의 후설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ㅣ(i)'나 'ㅣ(i)'계 모음의 영향을 받아 전설모음 'ㅐ(ɛ), ㅔ(e), ㅚ(ø)' 등으로 변하는 움라우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청소년층에서는 '고기, 엉덩이'와 같은 단어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표준어 교육이나 대중매체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사동형이나 피동형을 만드는 선어말어미 '-이-, -히-, -리-, -기-' 등이 붙은 사동사들이 이러한 움라우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멕이다(먹이다), 멜기다(맡기다)' 등이 보인다.

홍천지역에서도 모음교체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첫째 후설모음[우(u), 오(o), 으(ɨ), 아(a), 어(ə)] 등이 전설모음[이(i), 에(e), 외(ø), 애(ɛ)]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경우와 저모음이면서 개모음이 고모음이면서 폐모음으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후설모음 '우(u), 애(ɛ), 으(ɨ), 오(o), 아(a), 에(e)'가 전설고모음 '이(i)'로 교체되어 실현된다. '국시(국수), 골미(골무)'는 '우(u)'가 '이(i)'로 교체된 것이고, '재치기(재채기)'는 '애(ɛ)'가 '이(i)'로, '쇠시랑(쇠스랑), 이실비(이슬비)'는 '으(ɨ)'가 '이(i)'로, '화리(화로)'는 '오(o)'가 '이(i)'로, '창지(창자)'는 '아(a)'가 '이(i)'로, '사리(사례)'는 '예(ye)'가 '이(i)'로 교체되는 예들이다. 이중모음 '여(yə)'가 전설반고모음인 '에(e)'로 교체되면서 어두에서 장모음 '에:(e:)'로 실현되는 어휘가 많다. 예를 들면 베:(벼), 베:씨(볍씨), 뼤:(뼈), 메:느리(며느리), 메:르치(멸치), 베:룩(벼룩) 등이 있다. '얼매(얼마), 진데기(진디기)' 등은 후설모음 '아(a), 으(ɨ)'가 전설반고모음인 '에(e)'로 교체된 어휘들이다. '퇴(도, 윷놀이의 '도')'는 '오(o)'가 '외(ø)'로 교체된 어휘이고, '씨애(씨아)'는 '아(a)'가 '애(ɛ)'로 교체된 어휘이다. 이(i), 에(e), 외(ø), 애(ɛ)로 교체된 모음은 대다수 후설모음 '아(a), 어(ə), 오(o), 우(u)'인데 전설모음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고, 같은 전설모음이라도 개구도가 큰 개모음이 개구도가 작은 폐모음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중설모음 '으(ɨ)'나 '어(ə), 아(a)'로 교체된 것으로 이들 모음 교체도 대다수 후설모음 '어(ə)', '우(u)', '오(o)'가 중설모음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고, 같은 중설모음이라도 개구도가 큰 개모음이 개구도가 작은 폐모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쓰레(써레), 그머리(거머리), 누릉지(누룽지), 드레박(두레박), 들팽이(달팽이) 등은 후설모음 '어(ə)', '우(u)', '오(o)'가 중설모음 '으(ɨ)'로 교체된 것이다. '오(o)'가 '어(ə)'로의 교체는 원순모음인 '오(o)'가 비원순모음인 '어(ə)'로 변하는 것으로 '보습'을 '버섭(pəsəp)'으로, '보리'를 '버리(pəri)'로 쓴다. 또한 '우(u)', '어(ə)', '애(ɛ)'가 '아(a)'로 교체되어 실현되는데 '따깡(뚜껑), 우사리(우수리), 그마리(거머리)'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전설모음이나 중설모음이 후설모음인 '우(u)'나 '오(o)'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홍천지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원순전설고모음인 '위(y)'가 원순후설고모음 '우(u)'로 교체되어 나타난다. 사마구(사마귀), 기저구(기저귀), 흰자우(흰자위), 까마구(까마귀),

씀바구(씀바귀), 바우(바위)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호무(호미), 굽두리(굽도리), 구루(그루) 등은 '이(i), 오(o), 으(ɨ)'가 후설고모음 '우(u)'로 교체된 어휘들이다. '외(ø)', '아(a)'가 후설모음 '오(o)'로 변한 '소시랑(쇠시랑), 보구니(바구니)' 등도 있다. 우(u)로의 교체현상은 그 빈도수에 있어서 전설모음의 교체가 지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후설모음화의 교체로 보아야 한다.

홍천지역 방언의 모음의 교체현상은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나 교체현상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거나 일정한 경향을 크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중모음의 단모음으로의 교체인 '여(yə)'가 '에(e)'로 교체되는 것과 '위(y)'가 '우(u)'로 교체되는 경향을 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벼'가 '베'로 '바위'가 '바우'로 바뀌는 것들이다.

홍천지역에서는 모음교체 이외에도 모음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멸치'를 홍천에서는 '메르치(meɾiᶜʰi)'로 '으(ɨ)'가 첨가되어 쓰인다. '조이(조)', '고드르미(고드름)', '망우리(망월)'은 '이(i)'가 첨가되어 쓰인 것이고, '무우(무)'는 '우(u)'가 첨가되어 쓰인 것이다. 이러한 모음첨가는 발음상 길게 하려는 습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홍천방언에는 자음이나 모음의 음운 첨가가 아닌 어휘에 음절을 더하여 발음하는 것들도 있다.

못자리 → 못자리판(moʤaripʰan)	쇠 → 쇠꼽(søk 'op)
벽 → 베룸빡(perump 'ak)	샘 → 샘물(sɛmmul)
짚신 → 집세기(cipʰsegi)	가마 → 수가마(sugama)
가르마 → 가름배(karɨmbe)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과는 반대로 음운이 탈락되어 나타난다.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음절이나 음운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어휘들이 있다. '두루마기'를 '두루막(turumak)'으로, '시누이'를 '시누(sinu)'로, '꾸러미'는 '꾸름(k 'urɨm)'으로 발음하면서 '이(i)'가 탈락되어 나타난다. '새암'은 '샘(sɛm)'으로 '아(a)'가 탈락되어 나타난다. '세수대야'는 '세숫대(sesut 'ɛ)'로 '야(ya)'가 탈락하였다. '오(o)'가 탈락되어 나타내는 것으로는 '모이'를 '미(mi)'로, '회오리바람'을 '회리바람(høɾibaram)'으로 한 형태들이 있다.

붇가리(부젓가락), 노(노끈), 사다리(사닥다리), 머리칼(머리카락), 진개비(진눈깨비) 등은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상으로 음절수가 줄어든 것이다.

3) 받침

홍천군 방언에서의 받침은 다른 방언권과 마찬가지로 음절 말에서 중화를 이루어 /ㄷ, ㅌ, ㄸ, ㅅ, ㅆ, ㅈ, ㅊ, ㅎ/이 /ㄷ/으로, /ㄱ, ㅋ, ㄲ/이 /ㄱ/으로, /ㅂ, ㅍ, ㅃ/이 /ㅂ/으로 발음됨으로써 받침에서는 7자음이 실현된다. 받침에서 격음 /ㅋ, ㅌ, ㅍ, ㅊ/ 등이 중화하여 /ㄱ, ㄷ, ㅂ, ㅈ/으로 평음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화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솥'은 '솟'이나 'ㅌ'이 뒤에 '이(i)'나 '이(i)'계 모음과 결합하면 '치'로 구개음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한글맞춤법에 맞는 것이지만 조사 '-을'과 결합하면 '솟/솣/솥' 등이 임의적으로 쓰인다. '밭'도 '밧'이나 '밪'으로 중화되어 쓰이는데 조사 '-에'와 결합하면 보수적으로 '밭'이 쓰인다.

또한 표준어 발음과 다른 받침의 발음이 나타난다. 표준발음법 규정에 겹받침 'ㄳ', 'ㄵ', 'ㅙ, ㅞ, ㅢ',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하며, 'ㄺ, ㅀ, ㅛ'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 방언에서는 '맑다, 묽다, 읽다'는 모두 받침이 'ㄺ'이므로 '막따(makt'a), 묵따(mukt'a), 익따(ikt'a)'가 되어야 하지만 'ㄹ(l)'로 발음이 되며, '밟다'도 받침이 'ㅛ'이므로 '밥따(papt'a)'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홍천군 지역에서는 '말다(맑다), 물다(묽다), 발다(밟다), 일다(읽다)'처럼 대부분 받침이 'ㄹ(l)'로 나타난다. 또한 겹받침 'ㄺ'의 '흙'은 단독 쓰일 때는 '흑'으로 발음되고, '흙+이'가 되면 '흘기'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 맞춤법 규정인데, 몇 개의 면단위 지역에서는 '흑이'로 발음하는 경우가 보인다.

3. 문법

홍천방언의 특징은 대부분 음성학과 음운론에 치중되어 있고 문법적인 특징은 매우 드물다. 조사의 경우는 표준어와 대부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몇 개의 격조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여격조사 '-에게'는 '-에게'와 '-한테'로 모두 나타나는데 '-한테'를 더 많이 쓴다. 예를 들면 "엄마한테 물어보렴"처럼 쓰인다. "바체 가서 솔 몰구 와유"처럼 목적격 조사 '-를'을 '-ㄹ'만 쓰기도 한다. 처소격 조사의 '-에'를 '-애, -에다/-에다가'를 쓰는 경우가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특수조사에서는 '-까지'를 '-꺼정'으로 발음한다.

종결어미도 대다수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다. 의문형 종결어미는 강릉, 삼척, 평창, 정선 등의 지역에서는 "니 어데 가나?"처럼 '-나'가 쓰이지만, 홍천지역에서는 '-니'가 쓰인다. '-니'는 강원도를 동남지역과 서북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고, -ㄴ다고'를 '-구, -ㄴ다구'로 쓰기도 한다.

문법적인 특징에서 논의되는 것이 상대경어법의 화계에 대한 차이이다. 홍천지역 방언에서는 상대경어법을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의 6화계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그중에서 상대경어법의 '해요'체의 '-요'를 '-유/-슈'로 쓴다.

4. 어휘

홍천지역 방언에서만 관찰되는 어휘상의 특징을 지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어휘들이 강원도 전체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편협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음이나 자음의 교체로 인한 어휘변화가 아닌 음운변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정리해본다.

벼훑이 → 찍개(c'ikke)	개상 → 태질(t^hɛʤil)
겨 → 커풀(k'əp^hul)	고명 → 꾸미(k'umi)
새알심 → 옹심이(oŋsimi)	땅벌 → 땡삐(t'ɛŋp'i)
튀밥 → 쌀광쟁이(s'alkwaŋʤɛŋi)	엿기름 → 질금(cilgim)

아궁이 → 보강지(pogandʒi)	부삽 → 비댕이(pidɛŋi)
성냥 → 다황(tahwaŋ)	열쇠 → 쇠때(søt'ɛ)
뒤꼍 → 두락(turak)	잠방이 → 곰방주(kombaŋdʒu)
가부좌 → 올방구(olbangu)	곤지곤지 → 짝꿍짝꿍(c'akk'uŋc'akk'uŋ)
목말 → 무등(mudiŋ)	작은막대 → 매뚜기(mɛt ugi)
밑싣게 → 안즌개(andʒingɛ)	벼슬 → 면두(mjəndu)
덫 → 쬐기(c'øgi)	진달래 → 참꽃(chamk'ot)
덩굴 → 덤불(təmbul)	달래 → 달롱(tarroŋ)
변소 → 재깐(cɛg'an)	천연두 → 마마(mama), 손님(sonnim)
귀얄 → 풀솔(phulsol)	도깨비바늘 →까막사리(k'amaks'ari)
거울 → 색경(sɛkk'jəŋ)	이끼 → 바우옷(pauot) / 물이끼(mulik'i)

위의 특이한 방언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어휘는 설명을 붙여본다. '개상'은 볏단을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데 쓰던 농기구로 굵은 서까래 같은 통나무 네댓 개를 가로로 대어 엮고 다리 네 개를 박아 만드는 것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챗돌(chɛt'ol)', '탯돌(thɛthol)'이 나타나는데, 홍천에서는 '태질(t^hɛdʒil)'이라고 한다.

'고명'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인데, 이것을 홍천에서는 '국이나 찌개에 넣는 고기붙이'인 '꾸미(k'umi)'라고 한다. 팥죽 속에 넣어 먹는 새알만 한 덩이로 보통 찹쌀가루나 수숫가루로 동글동글하게 만든 '새알심'을 홍천지역에서 '옹심이(oŋsimi)'이라고 한다. '아궁이'에 대하여 경기도방언이나 충북 방언에 쓰이는 '보강지(pogandʒi)'를 홍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부삽'은 충청도와 경상도방언에서 '비뎅이(pidɛŋi)'로 형성되는데, 홍천에서도 '비뎅이(pidɛŋi)'의 방언형이 쓰인다. '가부좌'는 부처나 중의 앉음새의 하나로 두 발을 구부려 각각 양쪽 허벅다리 위에 얹거나 한쪽 발만 얹고 앉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원도방언에서는 '올방구'로 쓰고 있다. 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으로 빛깔이 붉고 시울이 톱니처럼 생긴 닭의 '벼'을 홍천지역에서는 '면두(mjəndu)'의 방언형으로 쓴다. '진달래'를 '먹는 꽃이라는 뜻'의 '참꽃(chamk'ot)'으로 쓰고 있다. '변소'를 홍천에

서는 경기도에서 '뒷간'의 방언형인 '재깐'을 쓴다. '재깐'은 재를 두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풀이나 옻을 칠할 때에 쓰는 솔로 돼지털이나 말총을 넓적하게 묶어 만든 것을 '귀얄'이라고 하는데 홍천에서는 '풀솔(phulsol)'로 쓴다. '도깨비바늘'은 다른 방언형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홍천지역에서는 '까막사리(k'amaks'ari)'로 쓴다. '이끼'는 홍천지역에서는 '바우옷(pauot)'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것은 '바위에 나는 옷'의 의미로 볼 수가 있으며, '물이끼'라고도 한다. '회충'을 홍천지역에서 '거시(kəsi)'의 방언형을 쓰는데, 이 '거시'는 경기·충청·경상·전라도 지역에서도 쓰는 어휘이다.

이상의 어휘들은 홍천지역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어휘들인데, 표준어에 비해 의미상으로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 있다.

현대어는 한자어의 사용보다는 고유어를 많이 쓰면서 한글 전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강원도 홍천방언에서는 표준어가 고유어로 되어 있는 어휘를 한자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한자어 사용은 피조사자가 방언조사 시 방언보다는 한자어를 쓰려는 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식혜 → kamʤu(甘酒)	그릇 → sikki(食器)
살강 → sənban(懸盤)	시렁 → sənban(懸盤)
허리띠 → hyəkt 'i(革-)	아우 → toŋsɛŋ(同生)
새색시 → sɛdɛk(-宅)	올캐 → səŋnim(兄-)
홀어미 → kwabu(寡婦)	잔돈 → canʤon(-錢)
풀무 → p^huŋgu(風-)	외양간 → magutk'an(馬廐間)
묘 → sanso(山所)	묏자리 → sanʤari(山-)
가을하다 → c^husuhada(秋收-)	장독대 → caŋdok'an(-間)
버짐 → pɛgnap(白-)	

반면 한자어를 고유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형제'를 뜻하는 '시숙(媤叔)'을 '시아주버니'로 쓰며, '잡화상(雜貨商)'을 '잡화가게'로 쓴다.

홍천방언에서는 현대어 이전의 고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위'의 '가새(kasɛ)'는 'ᄀᆞ새'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경상도방언이나 전라도방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회충'의 '거시(kəsi)'는 '거싀<걷위<것위'의 변

화 과정을 거쳐 오는 어휘로 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방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산돼지'의 방언형 '멧돼지'의 '메'는 '산'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농장기'는 '농기구'의 옛말인데 홍천지역에서는 현재도 쓰고 있다.

또한 일반어를 비속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눈두덩'을 '눈텡이'로 쓰는데, 이는 '눈퉁이'의 발음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토라지다'를 현대어에서 '삐지다'로 표현하고 있다.

아래 어휘들은 각 두 어휘들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도 홍천지역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귀지 → kyc^{h}əŋ(귀청)	중부 → pɛkpu(백부)
축 → kwən(권)	다슬기 → kolbɛŋi(골뱅이)
방아깨비 → paŋgɛ(방개)	소입막이 → məŋ(멍)
매 → sɛmɛ(새매)	산마루 → sanboŋori(산봉우리)
기슭 → sandʒuŋt^{h}ək	(산중턱)수렁 → u ŋ dəŋ(웅덩이)
얼레 → yəndʒasa(연자세)	자루 → karak(가락)
과줄 → tasik(다식)	

'귀지'는 귓구멍 속에 낀 때이지만 '귀청(kyc^{h}əŋ)'은 고막을 말하는 것이고, '중부(仲父)'는 큰아버지라도 둘째 큰아버지로 '백부(pɛkpu)'와는 다르며, '축'은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지만 '권(kwən)'은 책 등을 세는 단위이다. '다슬기'와 '골뱅이(kolbɛŋi)'는 크기가 다른 것이다. '방아깨비'는 메뚜깃과로 몸의 길이는 수컷이 5.4cm, 암컷이 8.9cm 정도이며 녹색 또는 회색에 머리끝이 뾰족하다. 뒷다리가 매우 크고 길어서 끝을 손으로 쥐면 방아처럼 끄덕거린다. 여름철 풀밭에 많은데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 분포하는 것이고, '방개'는 물방갯과의 곤충으로 몸의 길이는 3.5~4.0cm이며, 검은 갈색에 녹색 광택이 나고 딱지날개의 가에는 노란 띠가 둘려 있다.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다. 수컷은 앞다리의 발목마디가 부풀어 빨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연못, 무논 따위의 물속에 사는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방아깨비'와 '방개'는 다른 곤충이다. '소입막이'는 소가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입을 막는 물건이고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새매'는 '매'

의 일종이다. '산등성 마루'는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이고 '산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말한다. '기슭'은 산이나 처마 따위에서 비탈진 곳의 아랫부분을 말하며, '산중턱'은 산이나 고개, 바위 따위의 허리쯤 되는 곳을 말한다. '수렁'은 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여 많이 괸 웅덩이이고, '웅덩이'는 움푹 패어 물이 고여 있는 곳이다. '얼레'는 연줄, 낚싯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이고 '자새'는 새끼, 바 따위를 꼬거나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얼레를 말한다. '자루'는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이고 '가락'은 가늘고 길게 토막이 난 물건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과줄'은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고, '다식'은 녹말, 송화, 검은깨 따위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들며, 흰색, 노란색, 검은색, 따위의 여러 색깔로 구색을 맞춘 것이다. 이처럼 이들 어휘들은 분명히 다른 형태인데, 이것을 잘못 인식하여 쓰는 것이다.

5. 의미

1)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한 교체

강원도 홍천지역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이 표준어에 비해 의미상 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들이다.

디딜방아 → 발방아(palbaŋa)	흙손 → 흑칼(hik^{h}al)
풀비 → 풀솔(p^{h}ulsol)	다리쇠 → 구멍쇠(kuməŋsø)
용마름 → 용구세(yoŋguse)	반짓고리 → 반짓그릇(pandʒitkirit)
귓볼 → 귀부랄(kybural)	소꼽질 → 소꿉장난(sok'opcaŋnan)
반딧불 → 개똥불(kɛt'oŋbul)	쇠죽바가지 → 쇠물꾸박(sømulk'ubak)
솔가지 → 검불(kəmbul)	곁 → 옆(yəp^{h})
후비다 → 파낸다(p^{h}anenda)	

2) 의미영역의 차이로 인한 교체

홍천방언의 언어적 차이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역적·계층적 환경에서 동일한 언어기호가 그 의미 영역을 달리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방언조사 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보자의 방언일 수도 있고, 조사자의 질문을 잘못 인식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동일한 형식이 홍천방언에서는 어떠한 의미영역으로 나타나는지 몇 어휘를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쟁기 → 연장(yendʒaŋ)	보습 → 버섭(pəsəp)	극젱이 → 보구레(pogure)

이 어휘들은 거의 비슷하여 방언 조사 시 제보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만 방언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로 술, 성에, 한마루를 삼각으로 맞춘 것으로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 한마루 몸에 의지하여 볏을 덧대고 성에 앞 끝에 줄을 매어 소에 멍에를 거는 것이다. 이것을 홍천지역에서는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모든 농사의 도구들을 의미한다. '보습'은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구로 삽 모양의 쇳조각으로 쟁기나 극젱이의 술바닥에 맞추어 끼우는 것이다. '극젱이'는 땅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로 쟁기와 비슷하나 쟁깃술이 곧게 내려가고 보습 끝이 무디다. 이 '극젱이'를 '보구래'라고 하는데, 홍천에서는 '쟁기'와 '극젱이'의 방언으로 보구레를 많이 쓴다.

살강 → 선반(sənban)	시렁 → 선반(sənban)

이들 어휘는 대체적으로 홍천지역 사람들은 모두 선반이라고 부르고 있다. '살강'은 그릇 따위를 얹어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드린 선반이고, '시렁'은 물건을 얹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인데 이것을 모두 선반으로 부른다.

애벌 → 아이짐(aidʒim)	두벌 → tubəldʒim

‘아이’는 예전에는 ‘첫 번째’라는 뜻이다. 중부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모음이 단모음화한 ‘애’가 사용되고 있으나, 홍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도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이짐’의 ‘짐’은 ‘김매다’의 ‘김’에 구개음화형이다.

발채 → 소쿠리(sok^{h}uri) / 소고리(sogori)

‘발채’는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으로 싸리나 대오리로 둥글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결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끈으로 두 개의 고리를 달아서 얹을 때 지겟가지에 끼우는 것이고, ‘소쿠리’는 대나 싸리로 엮어 테가 있게 만든 그릇으로 다른 물건이다. 지게에 지고 다니며 물건을 나르는 것을 ‘소쿠리’라고 한다. 그런데 홍천지역에서는 ‘소쿠리’의 방언형인 ‘소고리(sogori)’가 쓰인다.

벼랑 → 낭떠러지(naŋt’ərədʒi)

‘벼랑’은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이고 ‘낭떠러지’는 깎아지른 듯한 언덕이므로 차이가 분명한데, 홍천지역에서는 ‘벼랑’을 ‘낭떠러지(naŋt’ərədʒi)’로 쓴다.

보늬 → 속껍데기(sokk’əptegi)

‘보늬’는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이고, ‘속껍데기’는 겉껍데기 안에 겹으로 있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으로 아주 유사하다. ‘보늬’보다는 ‘속껍데기(sokk’əptegi)’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홍천방언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천지역의 자음, 모음의 음운체계는 표준어의 그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음의 교체 현상은 어두경음화, 구개음화 현상은 남부 방언보다도 덜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강원지역의 방언과 비슷하게 일어나며, 특히 ‘ㄱ’이 ‘ㅈ’으로 변화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다른 지역

과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셋째 모음교체는 움라우트 현상이 다른 지역과 거의 같은 빈도수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음의 교체는 전설모음화가 되는 경우가 우세하다. 넷째 강원도방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자음 유지 현상은 'ㄱ(k)'음 첨가가 많은 편이고, 다른 것은 표준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섯째 어휘의 특징을 보면 한자어로 교체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또한 고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여섯째 어휘의 의미적인 면에서 방언형이 표준어에 비해 대상을 더 명확히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미영역을 달리하는 몇 가지 어휘들을 검토하였는데 표준어와 비교하여 세분화된 어휘들이 있었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홍천방언은 표준어와 많이 유사하며, 내면(內面)지역은 강릉지역의 방언과 비슷하다.









제6편
시문학

제1장 산천

제2장 사찰

제3장 인물

제4장 누정

제1장

산천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홍천의 산천에서 석화산(石花山), 대미산(大彌山), 공작산(孔雀山), 마점(麻岾), 팔봉산(八峯山), 우령(羽嶺), 가리산(加里山). 용연(龍淵), 필룡산(匹龍山), 남천(南川)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19세기 전반에 강원감영에서 편찬한 강원도 지리지인 『관동지』도 크게 차이가 없다. 오음산(五音山)과 청량산(淸凉山)이 추가되었고, 남천(南川)이 화양강(華陽江)으로 명칭을 달리했다. 1940년에 강원도청에서 간행한 『강원도지』는 군자천(君子川), 풍천(楓川), 명암천(鳴巖川), 관천(冠川), 귀미천(歸美川), 강선봉(降仙峯), 용담폭포(龍潭瀑布) 등을 추가하였다. 위 기록들은 예전부터 알려진 홍천의 산천을 알려준다. 시인과 묵객들은 홍천의 유명한 산천을 한시로 노래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산천을 제목으로 한 작품도 있지만, 산천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포함시켰다.

▪ **금학산(金鶴山)**

사랑스러운 금학산	可愛金鶴山
춘천 동쪽에 있네	來自壽春東
불쑥 홍천강 가에 솟아 나	時起驍江上
아득히 푸른 하늘과 접해 있네	萬仞接蒼穹
비록 세상에 이름나지 않았지만	縱無著世名
절로 만물을 누르는 공이 있네	自有鎭物功
몇 번 추위와 더위 겪었건만	閱歷幾寒暑
온화함을 속에 품고 있네	穩在秘藏中

가까이 있어 볼 수 있음을 邇來付我看
조화옹에게 감사드리네 感謝造化翁
의젓함은 진실로 스승 삼을 만하고 儼然眞可師
조용히 본분을 지키는 공 보여주네 示我靜守工
지팡이 짚고 정상에 올라 携笻登絶頂
곳곳에서 먼 곳 모두 보니 處處眺望窮
머리 위로 태양이 가깝고 頭上白日近
발밑으로 더러움과 먼지 사라지네 脚底穢塵空
남악의 시구 길게 읊조리며[2] 長吟南嶽句
멀리 청화산[3]의 바람 맞아들이네 遙納靑華風
돌아오니 달빛 문에 가득한데 歸來月滿戶
벗과 함께 할 수 없음이 한스럽네 恨不故人同
– 유중악(柳重岳)[4], 『항와집(恒窩集)』

▪ 팔봉산(八鳳山)

서쪽에 석산이 강가에 있는데 앞에서 뾰족이 솟아 들쑥날쑥하다. 옛 이름은 팔봉(八峯)이었는데 내가 팔봉(八鳳)으로 고쳤다. 구룡과 짝을 지어 세상에 상서로움을 일으키고자 해서였다. 마침내 한 수의 율시로 그 뜻을 나타낸다.

봉자(鳳字)로 봉우리 이름 내려 주니 吾將鳳字錫峰名
큰 뜻 소리 비슷한 데서 취한 것 아니네 大義非惟取近聲
용같이 생긴 바위 한없이 깎아지른 모양이며 夔石得來千仞像
두루 용이 잠겼으리라는 건 일반적인 일 周龍潛在一般情
강물로 단술 만들어도 누구와 함께 마실까 高江作醴同誰嘆
오동나무에 해 오를 때 너의 울음 기다리네 東日升梧待爾鳴
나그네 와도 음식 장만에 수고하지 않고도 客到無勞鷄黍具
이 산 함께 돌아보면 주인의 덕 빛나리라 此山供覽德輝明
– 유중악, 『항와집』

▪ 이웃 서사의 여러 벗들과 팔봉산에 올라 앞의 운을 사용하여

쌓인 돌 층진 언덕 봉황으로 이름 짓고　　疊石層崗以鳳名
지팡이 짚고 이 날 꾀꼬리 소리 좇네　　鳩笻[5]是日逐鶯聲
조화옹(造化翁)이 설치해 놓은 놀이터　　化翁爲設翱翔地
여러 선비들 쇄락한 마음으로 함께 와서　　群彦同臨灑落情
굽어보며 어룡에게 강의 즐거움 묻고　　俯問魚龍江國樂
황홀하게 난학(鸞鶴)이 하늘서 우는 소리 들으며　　怳聞鸞鶴玉京鳴
취해 읊조리며 사방 둘러보며 초연히 앉았으니　　醉吟流眺超然坐
큰 나무 우거진 숲에 어느덧 노을 지네　　未覺修林夕照明
– 유중악, 『항와집』

▪ 함자범(咸子範)–홍구(洪九)–가 나를 위해 구룡전(九龍田)에 집을 사서 함께 밭을 갈고 독서할 것을 요청하기에 거기로 옮기면서 오언고시 한 편을 읊다. 병신(1896)년 3월

옥천(沃川)의 구룡촌(九龍村)은　　沃川九龍村
우리 송선생을 태어나게 하였는데[6]　　降我宋先生
선생은 공자와 주자를 이어　　先生述孔朱
커다란 의리는 해와 별처럼 걸려있네　　大義懸日星
백대에 걸쳐 스승으로 우러르는 바　　百世所宗仰
땅도 또한 힘입어 울어대네　　地亦賴以鳴
홍천의 구룡전(九龍田)은　　洪川九龍田
옛날부터 이름 알려지지 않아　　古來未著名
조그마한 초가집 겨우 십여 채고　　蝸屋僅十餘
돌밭도 평평한 곳이 하나 없네　　石田無一平
산출되는 물산도 보잘 것 없거니와　　地物乏産貨
사람들도 속세의 영화 좇지 않네　　人不趍世榮
부지런하고 절약해도 오히려 굶주리지만　　勤儉猶飢餓
순수 질박하니 참됨과 정성스러움 많네　　淳樸多眞誠
협소하고 누추함은 근심거리가 못 되고　　狹陋不堪憂
외진 곳이라 누가 다투려 하겠는가?　　窮僻誰所爭

산 북쪽에 벗이 있는데 山北有故人
나를 위해 몇 칸 집을 샀네 爲我買數楹
장차 거처를 이곳으로 옮겨와 將欲移宅來
이웃하여 함께 책 읽고 밭 갈려 하네 結隣共讀耕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보니 欣然就屋之
원숭이와 새들도 놀라지 않네 猿鳥自不驚
강물이 얕지만 바람은 멀리까지 불고 江淺風猶遠
산이 깊으니 달도 또한 밝네 山深月亦明
매화 보호하는 것은 봄을 붙잡아 두려 함이고 護梅爲留春
국화 심는 것은 꽃을 반찬으로 삼으려 함일세 栽菊將餐英
선왕의 복식을 제대로 갖춰 입고 緊着先王服
옛 성현의 경전을 열심히 보리라 溫閱古聖經
여유롭게 세월을 보내며 優優送歲月
타고난 성정을 기쁘게 즐기리라 怡怡樂性情
지금 커다란 변괴를 만나 時遭大變愧
천하가 모두 더럽고 비린내 진동하고 宇內盡穢腥
우리나라도 함께 혼란함에 빠져 東方幷昏墊
백성들 형체도 보존하기 어렵네 吾人難保形
가끔 호걸스런 선비가 往往豪傑士
의리에 기대어 의병을 일으켜 仗義領山兵
천하가 모두 같은 형세로 四海大同勢
맞서느라 바람소리 진동하니 抗之振風聲
모든 백성들 함께 분발해 奮發有萬姓
영령들이 보호하고 도와주리라 保佑仰百靈
스스로 돌아보니 병들고 재주도 없어 自顧病且拙
창을 잡고 출정할 수조차 없네 未能執殳征
원숭이와 짝함을 달게 받아들이고 甘作獼猴伴
해오라기 학과의 맹세 거듭 맺네 重結鶴鷺盟
한가로운 날 홀로 돛단배타고 暇日掉孤舟

강물 거슬러 삼정(三丁)으로 가서　　溯流入三丁
화서 선생 거처하는 곳에서　　華老遺躅地
배회하며 정자를 배우던 자취 찾다가　　徘徊尋學程
배를 돌려 중류로 내려와　　回翔中流下
흥에 겨워 가정(柯亭)에 이르르네　　乘興到柯亭
성재(省齋) 선생 옛 거처에 오르니　　省翁舊堂上
어린 아이들 한참 공부중이네　　冠童講禮行
정도를 지킴을 진실로 의심치 말라　　守正固無疑
분수 헤아리는 것 이외에 다시 무엇 하랴?　　量分更何營
그래도 크게 원하는 바가 있나니　　尙有所大願
함께 성현의 뜰로 돌아가는 것　　同歸聖賢庭
비바람 거세지는 것 까맣게 잊다가　　渾忘風雨急
고요해지면 천지가 맑아지길 엿보네　　靜侯乾坤淸
– 유중악, 『항와집』

▪ 가슴 속 생각을 적다

만근 종을 하나의 티끌처럼 가볍게 보나니　　萬鍾視若一塵輕
세상엔 응당 놀랄 만한 일이 없네　　世上應無事事驚
우리에겐 절로 위대한 윤리 도덕 있는데　　吾人自有綱常大
귀신과 도깨비 어찌하여 온 천하에 횡행하나?　　鬼魅如何宇宙橫
구룡강(九龍江) 가엔 맑은 바람 불어오고　　九龍江畔淸風在
팔봉산(八峯山) 앞엔 밝은 달 비추는데　　八峯山前皓月明
홀로 스승님의 귀중한 비결 안고　　獨抱先師珎重訣
때때로 펼쳐 보며 내 마음 의지하네　　時時玩讀寓心情
– 유중악, 『항와집』

▪ 젊은 벗 서상묵(徐相默)[7]이 중국에 갔다가 공자 및 여러 성현들의 초상을 모시고 돌아왔다. 병오(丙午)[8]년에 가정(柯亭) 두니산(斗尼山) 아래에서 성묘(聖廟)를 영건(營建)하기 시작해서 이듬해에 완공하고 만세사(萬世祠)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하여 항

와(恒窩)[9]선생을 모시고 강의 상·하류를 다니면서 아홉 곳의 풍경을 선택하고 이산구곡(尼山九曲)이라 이름을 짓고 각각 시로 읊었다

오랜 바위 천년이나 우뚝 솟았고　　老石千年立體嵬
만 갈래 시냇물 흘러와 감도누나　　萬川水到自縈回
길손마다 우러러 바라보고 지나니　　非徒行客尊瞻過
신선들도 엄숙히 허리 굽혀 찾아오네　　更有仙人肅揖來

1곡은 입석(立石)이다. 바위는 우읍산(禹揖山) 선인봉(仙人峯) 아래에 있다.

소룡암(巢龍巖) 절벽은 동쪽으로 향했는데　　巢龍巖面向東開
소성강(韶成江) 녹효강(綠驍江)[10] 제 앞으로 끌어오네　　前把韶驍二水來
절벽 아래 배를 매고 소리높이 노래하니　　巖下繫舟歌浩發
구름 빛과 산 그림자 뒤섞여 배회하네　　雲光山影共徘徊

2곡은 소룡암(巢龍巖)이다. 소성강(韶成江)과 녹효강(綠驍江)이 여기에서 합류된다.

부딪치는 여울물 흐름도 빠르니　　激激灘流過險深
사람들 남모르게 무서움을 느낀다네　　使人自發戰危心
하늘의 삼상(三象)[11]을 앉아서 생각하니　　坐來默想乾三象
군자들의 근심은 고금이 따로 없네　　君子惕時無古今

3곡은 전위탄(戰危灘)이다. 녹효강을 거슬러서 몇 리 되는 곳에 있다.

가로놓인 푸른 병풍 못을 둘러싸서　　翠屛橫列繞長潭
물 위에 꽃 그림자 거꾸로 어렸는데　　絶愛層花倒影涵
여기에서 거문고 한 곡조 뜯으면　　爰有吾琴彈一曲
무수한 날 새들이 안개 속에 날겠지　　飛禽無數度烟嵐

4곡은 요취담(繞翠潭)이다. 못 북쪽에 오금산(吾琴山)이 있다.

온종일 배 저어서 부연에 들어가니　　永日移舟上釜淵
흰모래 푸른 물이 배 줄을 붙잡네　　沙明水碧纜遲牽
내려가긴 쉬우나 돌아올 땐 어려운데　　到頭難不溯回久

장락산 열리고 고기들 뛰어노네　　長樂山開魚躍天

5곡은 부연(釜淵)이다. 못 옆에 장락산(長樂山)이 있다.

홍무벽 앞에서 술 순배 늦추면서　　洪武壁前行酒遲
스승님 지은 시 바람 속에 외우네　　臨風三復我師詩
천지의 중화 기운 이곳에 남았나니　　斯存天地中華脉
의관하고 앉은 모양 더더욱 엄숙하네　　坐列衣冠更肅儀

6곡은 홍무벽(洪武壁)이다. 성재(省齋) 선생이 절벽에 새긴 '기봉강역(箕封彊域), 홍무의관(洪武衣冠)'이란 여덟 자가 있고 '홍무벽(洪武壁) 앞에서 큰 술판을 벌였노라'란 시구가 있다.

비령담 푸른 물 유유히 흐르니　　飛靈潭水碧悠悠
어려서 낚시질로 노닐던 곳이네　　自我童時慣釣遊
강 북쪽 기슭에는 꽃과 나무 줄서고　　花樹相連江北岸
저녁이면 금서(琴書)로 근심을 가신다네　　琴書晩暮更消憂

7곡은 비령담(飛靈潭)이다.

만고의 바위 옆에 물 흐르고 꽃 피니　　水流花發古巖邊
보이는 강물마다 거룩하고 빛나니　　何物非夫賁道然
다름 아닌 이곳이 아름다운 진경이라　　眞境無他斯卽在
대지팡이 짚고서 안개 속을 즐기노라　　倚笻隨意弄風烟

8곡은 비도암(賁道巖)이다.

늪 이름이 오지(吾止)라 내 걸음을 멎게 하니　　沼名吾止止吾行
사람들 경지 따라 정신을 안정시키네　　人與境宜安性靈
밤중에 앉았으니 창문에 밝은 달 비치고　　坐夜蓬窓明月到
고요한 산 속에 물소리 잠잠하네　　山容皆靜水無聲

9곡은 오지소(吾止沼)이다.

구곡을 읊고서 강가 하늘로 돌아와　　九曲詠歸江上天
성사(聖祠) 앞에서 대금 줄 가린다네　　徐趨理瑟聖祠前
길이길이 전하여 갈 우리의 공맹지도　　願言來泰壽斯道
우뚝 솟은 이산(尼山)처럼 만년을 푸르리라　　有屹尼山靑萬年
– 유인석(柳麟錫)[12], 「이산구곡(尼山九曲)」, 『의암집(毅庵集)』

▪ 천근암(天根巖)의 노래

천근암(天根巖)에 올라가서 목청껏 노래하니　　天根巖上放高歌
노래는 스승의 노래 뜻이 깊어라　　歌是我師歌意多
가정촌(柯亭村) 동쪽에 바위가 있는데　　巖在柯亭村東
작봉산(雀鳳山) 양지바른 언덕　　雀鳳山南阿
높고도 창연하거니　　屹然復蒼然
땅 속에 뿌리박고　　根盤地
하늘로 솟았네　　中天立
천근으로 세워졌거니　　作天根
천지의 미래를 열어놓았네　　開闢以來年
아, 옛날이로다　　吁戱昔焉
한북(漢北)에 뭉게뭉게 찬바람 뭉겨　　漢北寒雲漲
중국의 대지를 가로질러서　　華州繼之東西
찬 기운 마침내 청구(靑邱)에 이르니　　冷氛及靑邱
광풍이 불어치고 하염없이 눈 내렸네　　終風且曀雪霏霏
세계의 음극은 땅의 한 끝에 있노니　　世界陰極地盡頭
음지에 양이 없다 하지를 말라　　不爲無陽於陰極
오고 가며 날마다 천지의 마음 본다네　　來復曰見天地心
스승의 노래 뜻이 이러하니　　我師歌意爲如斯
오늘도 천근암에서 노래 부르네　　我到巖前歌又今
– 유인석, 『의암집』

▪ 화양강[13]에서 뱃놀이

짙푸른 나무 색깔 강가에 비치는데　　重重樹色映江頭
짧은 노로 바람 따라 작은 배 띄웠네　　短櫂隨風泛小舟
근심과 즐거움 속 세상 모두 꿈이니　　憂樂人間惟一夢
백 년 신세 모래 벌 갈매기에 맡기네　　百年身世付沙鷗

– 김기도(金箕燾)[14], 『한송재유고(寒松齋遺稿)』

▪ 공작산(孔雀山)에서 송라분암(松蘿墳菴)으로 돌아가는 공려 홍상휴(洪祥休)를
▪ 전송하다

마산에 바람과 눈 매서우리니　　馬山風雪猛
그대 전송에 밤새도록 시름겹네　　終夜送君愁
새끼 오리는 털 짧아 추워하고　　毛淺寒雛鳴
늙은 소 진흙 밟느라 땀 흘리겠네　　蹄泥汗老牛
비오고 개는 것 며칠을 다투지만　　潦晴爭幾日
가고 머무름 어찌 계획과 다르리　　去駐豈殊謀
윤달에 봄 강물이 푸르면　　閏月春江碧
내 장차 일엽편주 사리라　　吾將買葉舟

–이항로(李恒老)[15], 『화서집(華西集)』

▪ 삼신산(三神山)[16]

고색창연한 바위가 좋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不意蒼巖好
푸른 나귀 타고 우연히 단풍든 산에 이르렀네　　靑驢偶及楓
말은 마땅히 기주 북쪽[17]보다 뛰어나니　　馬應超冀北
돼지가 어찌 요동과 섞이겠는가[18]　　豕豈混遼東
해약(海若)[19]이 비로소 수레 굄목 열었고[20]　　海若初開軔
상산(常山)의 뱀[21] 또 중앙을 친다네　　常蛇又擊中
어떻게 하면 작은 집을 지어서　　何由置小屋
그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枕漱[22]與君同

기이(其二)

오만하게 버티던 자라 뼈에 서리 내렸는데[23]	傲兀霜鰲骨
만겁의 세월동안 빛을 내며 단풍 들었네	生光萬劫楓
바위는 우뚝한 채 오히려 북쪽을 바라보고	石危猶面北
물결은 꺾여도 동쪽으로 흐르려 하네	波折亦心東
태어난 후에 많은 의혹이 있으나	多惑有生後
죽음 속에선 잘못 구함은 없네	誤求無死中
방호산은 별천지가 아니며	方壺非別境
요·순임금도 사람과 똑같네[24]	堯舜與人同

–이항로, 『화서집』

▪ **덕탄(德灘)[25]**

숭정(崇禎)[26] 네 번째 정미년에	崇禎四丁未
덕탄 가에서 중양절을 맞이했네	重陽德灘邊
바위 표면에 여덟 글자를 써서	巖面題八字
남겨두어 이 골짜기를 지키노라	留鎭洞中天[27]

글자는 기봉강역(箕封疆域, 기자가 봉해졌던 강역이요), 홍무의관(洪武衣冠, 홍무[28] 의관이라네)"이라고 하였다.

–이항로, 『화서집』

▪ 가정(柯亭) 앞의 강 상류에는 큰 바위가 강물 속에서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데 열을 지어 앉아 술 마시고 읊조리기에 좋아 '천근암(天根巖)' 이라고 이름 지었다. 조만간 글자를 새겨 넣고자 한다

홍무벽 앞에서 술자리 크게 벌이고	洪武壁前行大酒
천근암 위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네	天根巖上放高歌
모든 집에 양이 돌아온다는 소식 없으니	千門萬戶無消息
온 세상 매서운 추위를 어이 하리	九野寒威奈若何

– 유중교(柳重敎)[29], 『성재집』

제2장

사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홍천의 불우(佛宇)'편에서 수타사(水墮寺)는 공작산(孔雀山)에 있으며, 관음사(觀音寺)는 석화산(石花山)에 있고, 장락사(長樂寺)와 성방사(城方寺)는 팔봉산에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관동지』는 수타사만 언급하였고, 1940년에 간행한 『강원도지』도 수타사에 대한 설명만 자세하다.[30] 수타사 이외의 사찰들이 폐사되었음을 알려준다. 내촌면 서곡리에 있는 쌍계사는 1730년대 이전의 절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530년대 이후에 창건되었다가 19세기 전반기 이전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걸리사지와 괘석리사지, 희망리사지, 연봉리사지 등도 문헌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수타사를 소재로 한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수타사(水墮寺)**

고을 누각 동쪽에 수타사 있는데	水墮招提郡閣東
조계(曹溪)[31]의 물줄기 범파정과 통하네	曹溪一派泛波通
일찍이 수레를 따라 절에 가서	曾隨皁盖[32]登初地[33]
언뜻 청련을 보니 절에서 솟았네[34]	乍覩靑蓮涌梵宮
오대산과 가까워 둘째가 될 만하고	親近臺山堪作亞
인제로 오고가니 중간에 있네	往來麟峽恰居中
솔과 시내 아우에 맡기고 돌아와	歸依已囑松溪弟
봄 연못 철쭉 필 때 기약하네	期在春潭躑躅紅

– 김창흡(金昌翕)[35],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 상상(上庠) 남궁자고(南宮子固)－원(垣)－, 김휴징(金休徵)－정서(鼎瑞)－, 백명원(白明遠)－광세(光世)－가 나에게 수타사(水墮寺)로 꽃 찾기를 요청했다. 삼종(三從)－인상(寅商)－인 위수씨(渭叟氏)는 비록 무인(武人)이나 함께 노닐었다. 이때는 3월 모춘(暮春)이다

깊어가는 봄날의 수타사　　春深水墮寺
구름 개인 백련대(白蓮臺)　　雲淨白蓮臺
멀리 푸른 산으로 따라가　　愛逐碧山遠
돌며 향기로운 풀 찾았네　　因尋芳草迴
늦게 개자 새도 느리게 울고　　晩晴啼鳥緩
새로 내린 비에 온갖 꽃 피었네　　新雨雜花開
올라가 바라보니 생각 끝없어　　登眺意無極
바람 맞으며 사영운[36] 생각하네　　臨風憶謝才

－이인엽(李寅燁)[37], 『회와시고(晦窩詩稿)』

▪ 아버님이 고을 사람 몇 명과 수타사로 유람 갔다. 마침 병들어 누워 있어서 모시고 갈 수 없어서 특별히 서운했다

아버지 모시고 갈 수 없어　　未陪杖屨去
배를 띄워 되돌아왔네　　仍作泛舟還
병들어 초가집에 누웠으나　　病卧茅茨裡
맘속으로 자연에서 유람하니　　心游水石間
흐드러진 꽃 옛 절에 숨어 있고　　濃花隱古寺
우는 새 봄 산에 가득하네　　啼鳥滿春山
슬피 안개와 노을 바라보면서　　悵望烟霞色
아침 내내 홀로 문 닫고 있네　　終朝獨掩關

－이하곤(李夏坤)[38], 『두타초(頭陀草)』

▪ 봄에 수타사에 유람 갔다가 조담(槽潭)과 용연(龍淵)을 보다. 정미년(丁未年)

긴 시내 두 산을 자르며 휘돌다가　　長川劈斷兩山廻
쌓인 바위 밀치며 병풍 되거나 대가 되네　　疊石排屛又作臺

맑은 못에 해 비치자 옥거울 열리고　　暎日淸潭開玉鏡
폭포 공중에 울리니 마른 우레 울리며　　響空飛瀑震晴雷
바위 가 지초 나니 신선이 이르고　　芝生巖畔仙應至
구름 가 소나무 늙으니 학이 오네　　松老雲邊鶴自來
기이한 곳이라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　　異境不敎人世識
수타사 모퉁이에 안개로 거듭 잠그네　　重重霧鎖洞天隈

위 시는 조담(槽潭)이다.

기이(其二)
양쪽 언덕 너럭바위 기울어지려 하고　　兩岸盤陀勢欲傾
가운데 백 척 조그만 연못 평평하네　　中間百尺小潭平
바람과 천둥의 옛 자취는 갈라진 바위 벼랑　　風霆舊跡巖崖拆
구름과 비 충분한 것은 자라난 나무와 꽃　　雲雨餘滋卉木生
신령스런 용 믿지 못하겠으니 지금 있는가?　　未信神鱗今在否
전해져 온 기이한 소문 예부터 놀라게 했네　　相傳異聞古來驚
정자를 세운 옛 일 알아주는 사람 없고　　起亭故事無人會
석양에 머뭇거리며 홀로 슬퍼하네　　日暮踟躕獨愴情

위 시는 용연(龍淵)이다.

기삼(其三)
오래된 수타사 찾아오니　　我來訪古寺
흰 구름 속에서 스님 나오네　　僧出白雲間
바위에 함께 앉아 물소리 들으며　　聽流同坐石
해 지도록 돌아갈 줄 모르네　　日暮不知還
－한원진(韓元震)[39], 『남당선생문집(南塘先生文集)』

▪ **수타사에서 책을 읽다**

제일 싫은 건 관청 시끄러운 것이라　最厭官齋鬧
절 있는 곳 묻고 책을 들었네　携書問上方
덩굴 뚫고 십 리 말 달려　穿蘿十里馬
한밤 책상에서 게송을 듣는데　聽偈四更床
오래된 벽은 뚫어져 달을 머금고　古壁虛含月
차가운 종소리 멀리 서리를 맞네　寒鐘迥帶霜
내 마음 보기에 이러하여　吾心觀卽是
새벽에 일어나 다시 향을 피우네　晨起更燒香
–이천보(李天輔)[40], 『진암집(晉菴集)』

▪ **수타사에서 이생(李生)의 시에 차운하다**

졸다 깨니 솔 그림자 옷 시원하게 하고　睡餘松影洒衣裳
산들바람 마음대로 화랑(畵廊)으로 부네　隨意微風轉畵廊
산에 오니 비 개어 새롭게 물들고　山到雨晴新着色
선정 든 스님 따라 꽃 절로 향기 나며　花從僧定自生香
절 집 뒤에 외로운 종소리 울리는데　上方齋後孤鐘動
속세로 돌아올 때 물줄기 길어라　下界歸時一水長
어디선지 꾀꼬리 나그네 울며 보내니　何處流鶯啼送客
잊기 어려워 계곡 입구서 머리 돌리네　洞門回首意難忘
–이천보, 『진암집』

▪ **수타사에 있다가 저녁에 읊조리다**

해 지자 종소리 끊기고　日暮鐘聲歇
하늘에 보이는 건 별 몇 개　諸天見數星
가을 산 스님과 함께 고요하고　秋山僧共寂
늙은 나무 부처와 함께 신령스럽네　老樹佛俱靈
밤을 깎는 것은 잿밥을 위해서요　剝栗當齋飯
날아다니는 반딧불은 불경을 비추네　流螢照道經

관청서 바라던 것 지워버리자　　却思縣齋望
구름밖엔 푸르른 봉우리 하나　　雲外一峰青
–이천보, 『진암집』

▪ 공작산(孔雀山) 수타사(水墮寺)

변함없는 천 길 푸른 공작산(孔雀山)　　依然孔雀碧千尋
유람객 다시 오니 감개가 무량하네　　遊子重來感慨深
오래된 바위 맑은 물 오랜 절에서 울고　　老石清泉鳴古寺
날리는 눈 지는 달 차가운 숲 흔드네　　飛雲落月動寒林
늙은이 예전 일 말하는 걸 어찌 견디나　　那堪白首談前事
홀로 푸른 산 있어 마음을 알겠네　　獨有青山見素心
종과 경쇠 소리 잠기고 향 피어오르자　　鐘磬聲沉香細起
가을바람 부는 고요한 밤에 절로 신음하네　　秋風靜夜自呻吟
–안석경(安錫儆)[41], 『삽교집(霅橋集)』

▪ 수타사에 놀러가서 정원선사(淨源禪師)에게 주다

한공(韓公)이 태전(太顚) 좋아한 걸
괴이하게 여겼으니[42]　　嘗怪韓公喜太顚
아마도 고사(高士)와 같이 그윽한 선 사랑해서 이리라　　豈同高士著幽禪
오늘 와서 불가의 친구 사귀게 되자　　今來結識空門友
비로소 옷 남긴 것 우연 아닌 걸 깨달았네　　始覺留衣不偶然
–박태순(朴泰淳)[43], 『동계집(東溪集)』

▪ 봉대(鳳臺)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타사를 보고 배(杯)자 운을 써서 시를 짓다

기수(沂水) 물가에 봄바람 이니　　沂上春風起
골짜기 얼음과 눈 풀리자　　炭中氷雪開
매 불러 여수(驪水) 건너고　　呼鷹驪水渡
과녁에 쏘려고 봉대(鳳臺)로 왔네　　射鵠鳳臺來
여길 떠나 선방에서 자며　　此去禪房宿

고깃배 끌고 되돌아왔네　　仍携漁艇廻
여러 신하 조정에 가득 찼으나　　羣公滿朝著
나는 시골사람 술잔에 취하네　　吾醉野人杯
– 김진상(金鎭商)[44], 『퇴어당유고(退漁堂遺稿)』

▪ 홍천의 이관하(李觀夏)에게 삼가 드리다 5수

금강산에서 돌아온 후 기쁜 소식 없지만　　金剛歸後阻喜音
낙엽지고 꽃 피는 것 옛날 지금 한결 같네　　葉落花開一古今
가소롭구나 수타사란 세 글자 판액　　可笑壽陀三字蹟
졸렬한 글씨 절을 더럽힐 수 없네　　拙書能不汚祗林

홍천에 있을 때 수타사(壽陀寺) 판액(板額)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푸른 소나무 흰 바위 동서로 흩어져 있고　　靑松白石散東西
가운데 띠집 옛날 머물던 곳이네　　中有茅茨[45]舊日棲
묻건대 범파정(泛波亭) 아래 물　　試問泛波亭下水
어떻게 옥류계(玉流溪)를 누워 듣는가　　何如卧聽玉流溪

인왕산(寅旺山) 빛 비온 후 짙고　　寅旺山光雨後多
기린교(麒麟橋) 아래 물 파도가 이네　　麒麟橋下水生波
맑은 바람 만 섬 그리워하는 곳　　淸風萬斛相思地
비록 큰 술잔 있어도 어찌할 것인가　　縱有深杯更奈何

화산(花山) 동쪽 바라보니 날로 처량해가고　　花山東望日凄其
세 번 내려온 어서(魚書)[46]를 아는지 모르는지　　三度魚書知不知
백상루(百祥樓)[47] 위 저녁을 아직 기억하나니　　猶記百祥樓上夕
취한 가운데 붓 잡아 시를 짓는다　　醉中揮灑雪中詩[48]

기다리던 봄바람에 다섯 말[49]을 달리게 했는데　　苦待春風五馬騑

아름다운 약속 무슨 일로 또 어긋나네　　佳期何事又相違
누가 알리오 한 조각 외로운 구름 그림자　　誰知一片孤雲影
홀로 미원(薇園) 향해 깊은 곳으로 돌아가네　　獨向薇園深處歸
－박윤묵(朴允默)[50], 『존재집(存齋集)』

▪ 마재(麻峴) 수석(壽席)에 수타사를 세웠다. 아버지가 율시 한 수를 지었는데 삼가 차운하여 짓는다

짧은 비파 긴 노래 웃음소리 나는 곳　　短瑟長歌笑語場
절의 물색(物色) 더욱 빛나는구나　　諸天[51]物色倍輝光
문장으로 일찍이 등용되어 선배 따르고　　文章早許追前輩
나이와 덕망 알아 고을에서 제일이네　　齒德從知冠此鄕
저녁 무렵 구름과 노을 계곡 안에 자욱하고　　向暮雲霞迷洞裏
겨울 난 솔과 계수 오랜 바위 옆에 있네　　經冬松桂老岩傍
하물며 지금 생일에 회갑을 겸했으니　　况今初度兼回甲
취해서 돌아가면 석양이 될 것이네　　醉後歸當趁夕陽
－ 홍계영(洪啓英), 『관수재유고(觀水齋遺稿)』

▪ 수타사에 놀러 갔다가 게을러 시를 짓지 않았다. 돌아와서 본 것을 모아 120구를 지었다.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니 보는 사람은 비웃지 말라

어젯밤에 용추(龍湫)를 꿈꿨는데　　昨夜夢龍湫
서리 내린 맑은 못은 파란색　　霜落澄潭碧
오늘 아침 사람들 말 들으니　　今朝聞人語
가을빛이 정말로 특별하다고　　秋光正奇特
마침내 격렬한 흥이 일어나　　卒因狂興出
친구와 약속 있는지도 모르고　　不與朋知約
외로운 배로 강을 건넜네　　孤舟渡江去
말을 타고 공작산으로 향하니　　騎馬向孔雀
함께 한 자는 누구인가　　與俱者誰子
심생(沈生)은 풍류객으로　　沈生風流客

행장은 무척 깨끗하고 行裝太蕭洒
지친 동복과 짧은 지팡이뿐 倦僮與短策
흉년이라 백성들 슬퍼하니 儉歲民物悲
멀리 보아도 마음은 슬프네 極目心惻惻
들판엔 벼와 기장 없는데 野郊無禾黍
바위 틈 단풍나무 가을빛을 띠네 岩楓只秋色
길은 끊기고 언덕도 끊어져 路絶岸亦斷
말은 산기슭으로 가네 馬行由山麓
늙은이 나그네 보고 인사하며 故老見客拜
말하려다 길게 두려워하네 欲語長怵惕
어찌 차마 지난 여름을 말하랴 何忍說往夏
지금도 혼백을 놀라게 하네 至今驚魂魄
홍수가 하늘까지 흘러넘치고 洪水乃滔天
끝없이 지축을 찢어버렸네 蕩蕩裂坤軸
평지는 열려 아득해지고 平地開渺溟
높은 언덕은 깊은 계곡 되었네 高岡變深谷
사람과 가축 물결을 따라가니 人畜隨波瀾
하늘에 사무치도록 청산은 곡하네 徹天靑山哭
하루아침에 해로움 제거되어 一朝其害去
천지는 개벽한 것 같지만 天地如改闢
죽은 자 뼈를 거두지 못했고 死者未收骨
산 자는 굶어 골짜기를 메우네 生者餓塡壑
백 집에 열 집 남고 百家十家村
겨우 남은 사람은 대여섯 僅餘人五六
농민은 함께 텅 비었으니 田民俱蕩然
어찌 농사를 생각할 수 있으랴 何能念稼穡
가을 와도 가을 같지 않고 秋來不似秋
풀 먹는 게 옥 먹는 것 같네 食草如食玉
옛길은 형태와 윤곽도 없고 舊路無形址

새 길은 고치거나 쌓지 못했네 新路未修築
만일 수타사로 가려면 如欲往水墮
저 줄기를 따라가야 한다네 宜遵彼山脉
이 말 듣고 거듭 탄식하고 聞此重唧唧
유람할 뜻 쓸쓸해지네 遊賞意索漠
비로소 산 아래로 가니 始向山下去
위험한 언덕 반쯤 기울었네 危岸半傾仄
어느 곳인지 홀로 연기 이니 何處孤烟起
산등성이와 떨어져 절이 있네 山寺一岡隔
기뻐하며 말 재촉하며 가니 欣然蹴馬去
계곡 입구에 안개가 끼어 있네 洞口雲猶積
소나무 연이어 푸르고 松樹連蒼蒼
새소리는 얼마나 고요한지 鳥聲何寂寂
가고 가니 계곡이 다하고 行行洞初盡
산은 둘러싸고 땅은 조금 넓네 山圍地少拓
용추(龍湫)가 가뿐히 눈으로 들어오니 龍湫翻入眼
활짝 트여 가슴이 열리네 豁然開胸臆
절의 누대에 들어가지 않고 不入梵宮樓
곧바로 너럭바위로 가서 앉네 直至坐盤石
누가 도끼로 조화를 부려 誰將造化斧
푸른 벼랑 배를 갈랐는가 擘破蒼崖腹
골짜기 물 산 급한 곳서 나와 峽流出山急
달려와 폭포가 되었네 奔下作懸瀑
푸른 하늘에 성난 우레와 비 내리고 靑天怒雷雨
맑은 하늘에 벼락이 치네 白日飛霹靂
물은 떨어져 못이 되는데 水落作潭淵
깊이를 헤아릴 수 없네 其深不可測
종종 파도가 놀라게 하니 往往波濤驚
늙은 용이 숨어 있다고 하네 聞有老虬伏

들뜬 남기 푸른 이끼에 물방울지고　浮嵐滴蒼苔
푸른 절벽 깎은 듯 서 있네　翠壁立如削
비단 수놓은 듯 푸르게 흐르며　錦繡涵碧流
단풍나무 교묘하게 꾸민 듯　楓林巧爲餙
계수나무숲 붉은 계곡에서 늙고　叢桂老丹壑
마른 소나무에 물가의 학 깃드네　枯松巢水鶴
돌머리 높이 베고 누우니　高枕石頭卧
속세 생각 한 번에 씻어지네　塵慮一洗濯
여러 스님 조금씩 모이자　諸僧集稍稍
바라보니 아는 사람이 많네　相看多舊識
이에 한바탕 함께 이야기하니　仍與話一塲
맑은 이야기에 속세를 벗어나네　淸談亦脫俗
산밤으로 간단하게 요기하니　山栗療我飢
골짜기 맛이라 더욱 담백하네　峽味更淡泊
시 지었으나 종이와 붓 없어　詩成無紙筆
오히려 단풍잎에 새겼네　猶將赤葉刻
속세 벗어난 흥 마음에 넘치니　逸興橫素襟
눈 아래 천지는 좁구나　眼底乾坤霅
밟는 곳은 금모래가 펼쳐진 세계　步踏金沙界
길은 돌아가며 수없이 꺾이네　路轉千萬曲
사천왕은 절 문에 서 있어　天王立寺門
화난 눈 사람을 놀라게 하네　怒眼令人愕
나는 듯 용당(龍堂)에 들어가 앉으니　翻入龍堂坐
단청이 누각에서 빛나네　丹靑耀樓閣
예전에 이름 쓴 것　往年題名字
의연히 아직도 벽에 있네　依然猶在壁
흉년에 스님 아직도 많아　凶歲僧猶富
뜰에 가득 햇곡식 펼쳤네　滿庭鋪新穀
저녁 경쇠 소리 방마다 이르고　夕磬房房早

한낮에 스님 먹을 죽 내놓네	日午開僧粥
잠시 후 선창(禪窓)에 앉아	移時坐禪窓
고적(古蹟)과 방사록(訪寺籙)을 보네	古蹟訪寺籙
가을 과일 일제히 열려	秋果齊結實
서리 맞았으나 딸 수 있네	得霜堪可摘
생각하자 입에 침 흘러	想來口流涎
쫓아가서 구하려 했으나	欲往從之覔
스님 나를 향해서 말하길	居僧向余道
길이 험해서 갈 수 없다네	路險不可適
처음에 이 말을 믿지 못하고	初不信此語
의기는 하늘을 치려했네	意氣天欲拍
문 나서 비로소 산을 보니	出門始見山
마음이 먼저 오르는 걸 겁내네	心先㥘登陟
옷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	解衣繫樹枝
건 벗어 돌 모서리에 거니	脫巾掛石角
짧은 소매 어찌나 나부끼는지	短袂何飄飄
몸에 얽어매는 것이 없네	一身無絆束
대여섯 사람 끌고	提携五六人
산굽이를 따라 몰래 가는데	潛行緣隈隩
사방 둘러봐도 길이 없네	四顧無路逕
바라보니 가시나무 뿐	一望惟荊棘
풀은 크며 이슬 마르지 않았고	草長露不乾
산 깊어 낮에도 컴컴하네	山深晝亦黑
때때로 오랑이 우는소리 들리며	時聞乕兕啼
보이는 것은 여우 자취뿐	惟見狐狸迹
나무꾼 일찍이 오지 않았으니	樵童未嘗到
스님이 어찌 왔겠는가	僧脚何曾着
장애물에 부딪쳐 설 수 없어	礙觸不敢立
구부리고 엎드리며 나무를 뚫고 가니	俯伏穿樹隙

그윽하고 질퍽하며 풀뿌리 매끄러우니　幽隰草根滑
걸을 때 얼마나 다리가 아팠던가　步步幾酸脚
넘어져 깊은 계곡에 떨어지고　跌足墜深壑
가파른 바위에 겨드랑이 걸리며　巉岩罥雙腋
안개 속에 떨어진 듯하니　若墮烟霧中
황홀하여 정신은 막히네　怳惚心魂塞
벼랑 올라가 엎드려서 나오니　攀崖匍匐出
등에 땀이 흘러 떨어지고　背上汗流滴
머리를 돌리니 더욱 아득하여　回頭更茫然
가는 길 남북에서 헤매네　去路迷南北
여러 사람 다투어 머리를 긁어　諸人競搔首
내 돌아가는 것 당겨 재촉했네　挽我歸去促
이곳에 오니 헛되이 돌아온 것 같아　到此若虛還
응당 산신령에게 꾸짖음 당했네　應被山靈責
길에서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기만 하고　畏途猶盤桓
얇은 얼음 밟듯 전전긍긍하네　戰戰如履薄
오르고 오르다 바위를 만나　登登或得石
마음이 편안해 비로소 발을 붙이네　心安始着足
농사 망친 것이 산에도 미치니　凶荒亦及山
온갖 것 예전과 같지 않네　百物不如昔
언덕과 산등성이 두루 다녔으나　丘岡踏已遍
과일 나무 끝내 만나지 못했네　果樹終未獲
함께 간 자 웃으며 말하길　同伴笑余曰
헛되이 힘써 이익이 없다네　徒勞竟無益
바위 위 나무 쳐다보지 말라　忽瞻石上樹
등나무 덩굴 철사처럼 무성하네　藤蘿森鐵索
위에 산포도 있으나　上有山葡萄
모두 비와 이슬 맞아 익었네　皆添雨露熟
기쁘게 그 아래 서니　欣然立其下

향기가 옷에 스미네 香氣襲衣服
손뼉 치며 환호성 일고 拍手歡聲起
아동은 다투어 뛰네 兒童爭踊躍
바위에 붙은 뿌리로 가벼운 몸 올라가 攀根輕身上
서로 부르며 다투어 차니 相呼競踘蹴
어떤 것은 풀에 떨어져 흩어지고 或落散百草
어떤 것은 양손에 가득하네 或摘盈雙掬
색깔 검은 것은 옻을 점찍은 듯 色黑如點漆
달콤한 맛은 꿀 같네 味甘似蜂液
회수(淮水)의 귤과 초나라의 매실 淮橘與楚梅
이것과 비교하면 모두 노비가 되네 比此皆奴僕
씹어 먹어도 싫증나지 않으나 嚥嚼雖不厭
이가 시어 배불리 먹기 어렵네 齒酸難飽喫
옆 사람 가장 먹는 걸 탐해 傍人最耽食
두건을 잃고도 알지 못하네 失巾不自覺
바람 불어 귀밑머리 흔들고 風吹動兩鬢
서로 보며 껄껄 웃네 相顧笑啞啞
구월 구일 용산에서 술을 마시고 九日龍山飮
참군(參軍)의 사모를 떨어뜨렸네 參軍紗帽落
고인(高人)의 세속에 구애받지 않음 高人正放達
천년동안 풍격을 이야기하네 千載說風格
풍류는 멀지만 서로 비슷하니 風流遠相似
어찌 깊이 애석해 하겠는가 何用深愛惜
풀 깔고 앉아 다리쉼 하니 藉草坐休脚
가을날은 이미 저녁이 되었네 秋日看已夕
돌아갈 계책 어찌해야 하나 若爲歸去謀
가슴을 치며 여러 번 탄식하네 撫膺興歎數
단지 깊이 산에 든 걸 알지만 只記入山深
오던 길 어디서 찾을 수 있나 來路尋何得

스님은 내 뜻 알고 雲衲解吾意
몇 척되는 지팡이 주네 贈以杖數尺
지팡이로 발은 가벼우니 杖之足欲輕
붉은 옥으로 만든 신발보다 낫네 絶勝赤玉舃
산에서 내려오니 더 오르는 것 같고 下山猶愈上
이리저리 가다가 밭둑에 이르렀네 轉輾到田陌
내려와 서서 다시 머리 돌리니 下立更回首
벼랑에 단풍잎 붉구나 崖丹楓葉赤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좋으나 眼瞻一何好
발로 밟는 것은 이렇게 나쁘네 足踏一何惡
비로소 그 사이에서 노닌 걸 깨달으니 始覺遊其間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네 不及遠望覿
돌아와 불전에 오르니 歸來上佛殿
대낮에 촛불 두 개가 밝네 白晝明雙燭
불상은 손을 마주잡고 앉았는데 佛像叉手坐
금빛 이마 먼지로 어둡네 塵埃暗金額
선방 네 벽에 그림을 그렸으니 畫禪圍四壁
별들이 북극성에 인사하는 것 같네 如星拱北極
적멸(寂滅)의 도 비록 없으나 寂滅道雖無
위엄 있는 모습 법칙이 될 만하네 威儀如可則
참선하는 자리에 두 발 펴고 禪牀展兩足
피곤하여 잠시 휴식하였네 困疲暫休息
계단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階前何所有
반송(盤松)이 푸르게 옆으로 뻗었네 盤松偃盖綠
홀연히 영동의 스님 만나 忽逢嶺東僧
맞이하여 앉아 금강산을 말했네 延坐說楓嶽
시를 주고 아름다운 약속을 남겨 贈詩留佳約
장차 멀리 바라볼 걸 약속했네 將期騁遠目
늙은 스님 은근한 정 많아 老釋多慇懃

저녁밥을 나에게 보내주네　夕飯饋我食
오늘 행차 스님에게 폐를 끼쳐　今行貽僧弊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네　使人心愧怍
돌아올 때 점차 밤이 깊어지자　歸時夜漸闌
마을 집들 반은 이미 잠들었네　村廬半已宿
사미승은 말 앞에서 달려　沙彌馬前走
횃불을 부르니 동쪽 막사에서 나오네　喚炬出東幕
관수당(觀水堂)[52]으로 돌아와 누우니　還卧觀水堂
강 위의 달 방석보다 낮구나　江月低瑤席
예전 노닐던 곳 돌아보니　回看舊遊處
찍어 바른 듯 산에 안개 하얗네　一抹山烟白
– 홍계영, 『관수재유고』

제3장

인물

1940년에 간행한 『강원도지』에 홍천의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다. 문과(文科) 항목에 태종 때 급제하여 검교(檢校)가 되었으며 벼슬이 공조판서(工曺判書)에 이른 용희수(龍希壽), 정종 경진년(140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른 최덕방(崔德芳), 세조 경진년(1460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른 탁중(卓中), 숙종 신묘년(1711)에 문과에 급제한 이른 심일희(沈一羲), 헌종 기해년(1839)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조정랑(兵曹正郞)·전적(典籍)에 오른 김영삼(金永三), 무신년(1908)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예정랑(禮正郞)을 거친 손상철(孫相喆)이 실려 있다. 문학(文學) 항목에는 김윤적(金允迪), 허벽(許檗), 허대섭(許大燮), 김교순(金敎順)이 이름을 올렸다. 우거(寓居)조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병조판서에 이르렀고, 단종 계유년 정난원공신(靖難元功臣)에 기록되어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진 김효성(金孝誠), 진사시에 합격하고 서울로부터 홍천에 와서 우거한 고신(高宸), 숙종 임진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중추(中樞)에 이른 김진상(金鎭商), 순조조에 양근(楊根)에서 처음 와서 외삼포(外三浦)에 우거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친 이항로(李恒老)가 실렸다. 현감을 지낸 분들의 명단도 백여 명이 넘는다.[53]

『강원도지』뿐만 아니라 읍지 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른다면 더 많은 인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홍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홍천을 노래한 이원익(李元翼)과 이안눌(李安訥), 후학들을 육성한 이항로(李恒老), 홍천현감을 지낸 안중관(安重觀)을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하고, 그들이 지은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이원익(李元翼)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조선 중기 때 병제와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6번제와 대동법을 실시하는 데 공헌한 문신. 임진왜란 당시 평안도순찰사로 왕의 피난길을 선도하며 군사를 모아 일본군과 싸웠고, 이듬해 이여송과 합세하여 평양을 탈환했다. 그 공으로 숭정대부를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인목대비 폐위론이 제기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에도 저항해 그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광해군이 난폭해지자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비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여색에 대한 근신, 국가 재정의 절검 등을 극언으로 간쟁했고, 임해군(臨海君)의 처형에 극력 반대하다 실현되지 못하자 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정조(鄭造)·윤인(尹宎) 등이 대비폐위론을 주장하자,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극렬한 어구로 상소해 광해군 7년인 1615에 홍천으로 유배되었으며 뒤에 여주로 이배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80세에 가까운 노구로 공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도체찰사로 세자를 호위해 전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와서 왕을 호위했으며, 서울로 환도하자 훈련도감제조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령으로 체력이 약해져 사직을 청하고 낙향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성품이 소박하고 단조로워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모르고, 소임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였다.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집은 두어 칸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했다 한다. 저서로는 『오리집(梧里集)』·『속오리집(續梧里集)』·『오리일기(梧里日記)』 등이 있으며, 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시흥의 충현서원(忠賢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원익이 홍천에 있을 때 지은 대표적인 시를 살펴본다.

▪ 봄비—을묘년(乙卯年)[54], 홍천에 유배되었을 때다

작년 봄 가뭄에 보리농사 걱정했지만	去年春旱憂無麥
올해는 마땅히 풍년이 들 걸 알겠네	今歲應知大有年
단비 아침부터 내려 밭두렁에 가득하니	甘雨朝來流滿陌
가난한 백성 즐거워하며 밭에서 김매네	疲氓歌舞競鋤田

—『오리집(梧里集)』

▪ 느낌이 있어 범파정 운에 차운하여 외손인 이적(李樀)에게 주다

강가 흐릿한데 사방은 숲　　江上微茫遠近林
마음속 어지러워 가슴 아프네　　胸間攪擾感傷襟
타향살이 전전하다 지금 정자 보는데　　羈來俯仰今亭觀
늙을수록 처량해져 예처럼 거문고 타네　　老去凄涼舊瑟琴
계절 바뀌어 깊어지니 그리워지는 임금 은혜　　節換轉深懷聖澤
시절 변해도 오직 소원은 내 마음 지키는 것　　時移猶願守吾心
근심 속 손자 놈 빼어난 모습 대하고 있자니　　愁中且對孫兒秀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절로 솟는다　　愛悅之情自不禁
–『오리집』

▪ 판결(判決) 이구(李龜)[55]의 사미정(四美亭) 운에 차운하여 종손(宗孫) 찰방 이방보(李邦輔)에게 주고, 또 손자 이적(李樀)에 보여주며 화운을 구한다. 병진년(丙辰年)[56] 봄

바람과 달 새로운 경치에 남고　　風月餘新境
강산을 보니 옛 정이 없어지네　　江山廢舊情
시간이 지나자 노래와 춤도 다하고　　時移歌舞盡
봄이 오자 온갖 풀 푸르러지네　　春到草萊青
풍광은 지금과 옛날이 같은데　　光景同今昔
흥망성쇠는 보고 듣는 것과 다르네　　興衰異視聽
지은 정자에 효성스런 손자 있어　　構堂孝孫在
만나 보고서 무거운 빗장 올리네　　會見起重扃
–『오리집』

▪ 사의(司議) 이정혁(李廷赫)이 금강(金剛)으로 놀러가는 것을 보내다–홍천현 동쪽 저노라기지리(猪奴羅跂之里)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심일송(沈一松)[57]이 홍천에 현감으로 있을 때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렀다. 그래서 뒷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천하의 명산 이름이 헛되지 않아　　天下名山名不空
금강산 만 봉우리 구름 속에 모였네　　金剛萬嶽攢雲中
조그만 산 기이하게 뛰어나 보기 좋아　　小巒奇絶看猶好

일송(一松)이 이름 붙이니 뜻은 통하네　　松老題稱意亦通
옹안(瓮岸)과 학암(鶴巖)에 내 머리 움츠리고　　瓮岸鷄巖吾縮首
저노라기(猪盧羅跂)에서 그대 산에 올랐네　　猪盧羅跂子登峯
먼 길 바깥으로 석양에 가랑비 내리는데　　夕陽微雨長程外
한없이 부러워하니 생각은 끝이 없네　　瞻羨悠悠思未窮
–『오리집』

2) 이안눌(李安訥)

본관은 덕수. 자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증조할아버지는 행(荇)이고, 아버지는 진사 형(泂)이며, 이식(李植)의 종숙(從叔)이다. 18세에 진사시에 수석하여 성시(省試)에 응시하려던 중 동료의 모함을 받아 과거 볼 생각을 포기하고 문학에 열중했다. 이때 동년배인 권필(權韠)과 선배인 윤근수(尹根壽)·이호민(李好閔) 등과 동악시단(東岳詩壇)이란 모임을 갖기도 했다. 1599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언관직(言官職)을 거쳐 예조와 이조의 정랑으로 있다가 1601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성균직강(成均直講)으로 옮겨 봉조하를 겸했다. 1607년 홍주목사·동래부사, 1610년 담양부사가 되었으나 1년 만에 병을 이유로 돌아왔다. 3년 후에 경주부윤이 되었다가 동부승지와 좌부승지를 거쳐 강화부사가 되었다. 어머니의 3년 상을 마치자 인조반정으로 다시 등용, 예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했다. 1624년 3월 이괄(李适)의 난에 방관했다는 이유로 함경도 경성부(鏡城府)로 유배되었으며, 1625년 3월 홍천으로 유배되었다가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사면되어 강도유수(江都留守)에 임명되었다. 1631년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고,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학을 거쳐 충청도 도순찰사에 제수되었으며 그 후 형조판서 겸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 때에 병중 노구를 이끌고 왕을 호종하다가 병세가 더하여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도학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문학에 힘쓰되 평생 "뜻을 얻으면 경제일세(經濟一世)하고 뜻을 잃으면 은둔한거(隱遁閑居)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 특히 시작(詩作)에 주력하여 문집에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기고 있다. 그의 시는 절실한 주제를 기발한 시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며, 그가 옮겨 다닌 지방의 민중생활사 및 사회사적 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생애가 임진왜란·병자호란의 양란에 걸쳐

있으므로 전란으로 황폐해진 당시의 상황을 그의 시를 통하여 추적해볼 수 있다. 저서로는 『동악집』이 있다. 이안눌이 홍천에 있을 때 지은 대표적인 시를 살펴본다.

▪ 7월 25일—홍천 읍내에 연봉역이 있다

이 세상에서 상심하는 곳　　天下傷心地
오랜 연봉(連峰) 역 마을　　連峯古驛村
읍에는 말할 사람 없고　　邑無人可語
숲에는 호랑이 웅크리고 있네　　林有虎常蹲
바다 머니 해산물 적고　　海遠魚蝦少
산 깊으니 참새 쥐 많구나　　山深雀鼠繁
누가 나그네 눈물 옮겨서　　誰將遷客淚
모습 드러내 임금께 바칠까　　貌出獻君門
—『동악집(東岳集)』

▪ 시냇가에서

시냇가에서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나　　臨溪何事淚垂雙
시냇물 서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내려가네　　溪水西流下漢江
강가 종남산(終南山) 북쪽 산기슭　　江上終南山北麓
정원에서 소나무 창문에 갇혀 있네　　小園空鎖舊松窓
—『동악집』

▪ 8월 12일

변경 지방 싹 틔우자 들판엔 복숭아 붉고　　塞關新拆野桃紅
푸른 버들 핀 산성 낮에 그늘 짙구나　　碧柳山城午影重
나그네 북에서 온 게 어제 같은데　　客自北遷如昨日
고향을 서대에서 바라보니 가을바람 부네　　鄉仍西望又秋風
급한 강물 양화나루로 곧게 내달리고　　奔川直瀉楊花渡
겹겹 고개 공작산을 가로지르네　　複嶺橫遮孔雀峯
문 밖 길 있으나 돌아가질 못하고　　門外有程歸不得

달 기우는 뜰에 귀뚜라미만 우는구나　　月斜庭畔咽寒蟲
–『동악집』

▪ 한식(寒食), 3월 9일

동쪽으로 도성 나와 북쪽 변방 왔다가　　東出都門走北塞
남쪽 골짜기와 고개 넘어 서대 이르니　　南踰峽嶺臨西臺
스물 네 번 달이 홀연히 지났으며　　二十四月忽已過
일백 오 일이 지금 또 오네　　一百五日今又來
바람과 안개 눈 가득한데 시내와 들 변하고　　風煙滿目川原變
고향 생각뿐이나 늙음과 병이 재촉하네　　鄉國回頭老病催
들판에 제사 지내고 노래와 곡소리 끝나자　　野外祭人歌哭罷
석양 까마귀 재가 된 지전 다투어 쪼네　　暝鴉爭啄紙錢灰
[집 서쪽 산기슭에 하나의 높은 언덕이 있는데 위가 평평하여 앉을 수 있다. 지금 영의정 완평(完平) 이상국(李相國)이 유배생활할 때 오르던 곳이어서 대(臺)라 칭했다. 그래서 서대(西臺)라 하는 것은 망향대(望鄉臺)란 뜻이다.]
–『동악집』

▪ 집에서 회포를 적다

구름 넘어 첩첩 산 또 첩첩 산　　雲外千山復萬山
한 줄기 역로는 서울과 막혔네　　一條官路隔長安
두견새는 나그네 마음 알지 못하고　　杜鵑不識羈人意
매번 앞 숲에서 밤새 우는구나　　每到前林叫夜闌 (隔一作入)

많은 구름 겹겹 산속에 외길 황량한데　　萬疊雲山一逕荒
서울에서 옮겨왔으니 또한 타향이네　　移來中域亦殊方
나그네 마음 남쪽 시냇물 같아　　羈心直與南溪水
밤낮 서쪽으로 흘러 한양으로 향하네　　日夜西流向漢陽
–『동악집』

3) 이항로(李恒老)

화서학파(華西學派)를 형성하여 한말 위정척사론과 의병항쟁의 사상적 기초를 다져 놓았다. 본관은 벽진. 초명은 광로(光老). 자는 이술(而述), 호는 화서(華西). 아버지는 회장(晦章)이다. 3세 때 『천자문』을 떼고, 6세 때 『십구사략(十九史略)』을 읽고 「천황지황변(天皇地皇辨)」을 지었으며, 12세에는 신기령(辛耆寧)에게 『서전(書傳)』을 배웠다. 부친의 뜻을 받들어 과거준비에 몰두하여 1808년(순조 8) 한성초시에 합격했으나 과거 급제를 구실로 한 권력층 고관자제와의 친교를 종용받고 환멸을 느껴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그후 서울의 임로(任魯)와 지평의 이우신(李友信) 등 당시 이름 있는 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경학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25~26세에 연이어 양친을 여읜 뒤 더욱 학문에 몰두하여 4서(四書)에 관한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나 장구(章句)를 반복연구하면서 주자의 학문에 심취했다. 그는 『주자대전(朱子大全)』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궁구하면서 점차 『송자대전(宋子大全)』으로 나아가 송시열(宋時烈)이 주자 이후의 정종(正宗)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840년(헌종 6) 학행으로 천거되어 휘경원참봉(徽慶園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그 뒤에도 조인영(趙寅永)을 비롯한 실력자들로부터 지방수령 등의 교섭을 받았지만 고사하고 향리에 머물며 강학에 전념했다. 한말 위정척사론자들로 의병항쟁을 주도하기도 했던 최익현(崔益鉉)·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 등이 이 무렵 그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1852년(61세) 금강산구경을 다녀오다 삼포리 전경에 넋을 잃고 가족들과 함께 홍천으로 이사, 61세 때부터 69세까지 살며 화촌면 삼포에서는 왕성한 저술 작업을 펼쳤다. 1864년(고종 1) 조두순(趙斗淳) 등의 천거로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에 제수되고,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지평·장령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거절했다. 1866년 프랑스 군함이 침입하여 강화도를 약탈한 병인양요가 일어나 이에 대한 대책을 놓고 조정에 의견이 분분할 때 노성한 사람의 의견을 듣자는 김병학(金炳學)의 제청에 따라 동부승지로 부름을 받자 입궐하여 흥선대원군에게 척화론(斥和論)을 건의, 이를 국론으로 채택하게 했다. 며칠 후 공조참판으로 승진 발령되고, 경연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경복궁 중건의 중지와 과중한 세금부과의 시정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만동묘의 재건을 상소하는 등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 정면공격을 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삭탈관직을 당하고 낙향하여 말년을 보냈다. 저서로는 『화서집』·『화동사합편

강목(華東史合編綱目)』 60권,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 『화서아언(華西雅言)』 12권 등이 있다.[58] 이항로가 홍천에 있을 때 지은 대표적인 시를 살펴본다.

▪ 수타사 용담(龍潭)에서 잠깐 쉬면서 장난삼아 지어 경담(鏡潭) 스님에게 준다. 이때는 경자년(1840) 8월 하현이다

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겠거니	亦知龍不起
옛 절은 여전히 깊고도 그윽하네	古刹一泓幽
술잔 씻으니 붉은 노을 지고	洗酌紅霞落
거문고 연주하니 백설가가 흐르네	援琴白雪流
모임에 참석했던 자취 돌이켜 생각해보니	緬懷參社迹
별들이 모여드는 가을이라 더욱 부끄럽네	多愧聚星[59]秋
삼신산 가는 학에 올라타려고 하니	擬跨三神鶴
구름 낀 산등성이에 내 말은 한가롭네	雲岡我馬悠

–『화서집(華西集)』

▪ 화양사군(홍천현감)이 범파정에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금성의 재랑(齋郎)[60] 두 어른도 자리에 있었다. 나는 죽림거사를 따라 그 자리에 갔는데, 마침 가랑비가 그쳐 맑게 개이니 가을이 바야흐로 한창이었다. 난간에 기대 떠오른 생각을 읊고 멀리까지 경치를 구경하며 매우 즐거워했다. 다음 날 아침 사군 어른이 금성 어른에게 서신을 보내 "오성이 규성에 모여들어[61] 이름난 정자가 빛을 더하였으니, 어제의 모임은 장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대개 자리를 함께 했던 다섯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일찍이 조정에 천거하는 문서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희롱한 것이다. 몇 개의 시구로 그 일을 기록하고 여러 어른들에게 화답시를 내려줄 것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부끄러워서 감히 할 수가 없었다. 용담에 이르렀는데 마침 늙은 지주가 시 한수를 지어줄 것을 청하는 괴로운 일을 당하였다. 이미 사소한 것을 기록하면서 중대한 것을 빠트리는 것 또한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그 운을 사용하여 어제 있었던 일을 추가로 지으니, 대개 지나온 행적을 스스로 갖추고자 할 목적에서였다. 이미 짓고 나서 꺼리는 것도 또한 타당한 바가 아니기에 촛불을 가져오게 하였으나 싯귀가 거칠고 난잡하니 용서하고 봐 주시기를 아울러 바란다

지난번엔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라　向來觀海路
시냇가 누각에서는 그윽함을 찾지 못하였지　溪閣未搜幽
커다란 나무는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데　喬木開深谷
서풍을 맞으며 강의 하류를 건너네　西風涉下流
관리의 수레엔 거문고와 학[62]을 실은 날이요　官車琴鶴日
백성들의 밥상엔 쌀과 생선 오르는 가을이라　民飯稻魚秋
생각해보면 숫자나 채운 것이 부끄럽나니　商局羞添數
석 잔 술에 흥취가 더욱 늘어나네　三蕉[63]興轉悠
–『화서집』

▪ 삼포(三浦)에서 출발하며 삼연(三淵)[64] 옹의 시에 차운하다

끝없이 내리는 가을비가 두려우니　無窮秋雨畏
한 마리 말로 새벽의 음산함을 가르네　匹馬破晨陰
누런 초가는 무릎 들어갈 정도였고　容膝黃茅棟
마구간 있는 숲을 머리 돌려 보네　回頭皁櫪林
멈춘 난새는 물가에 임해 서 있고　停鸞臨水立
나는 기러기는 구름 헤치며 우네　翔鴈挐雲唫
바로 북쪽은 인제 가는 길이니　直北麟蹄路
한가롭게 말 달리는 대로 맡기네　蕭蕭信御駸
–『화서집』

▪ 저물녘에 삼포에 이르다

하인이 말을 잘 몰아 저물녘에 돌아오는데　暮歸僮馬慣
산의 이름 다시 물어보지도 않는다네　不復問山名
평온한 강물 속은 맑고도 맑으며　湛湛江心穩
평평한 들판을 달리고 달렸네　駸駸野面平
마당 곳간은 비 온 뒤라 빽빽하고　場囷經雨密
널어놓은 빨래는 별빛 띠어 맑네　洿澼帶星淸
내가 객인 줄을 완전히 잊었는지　渾忘吾爲客

마을 삽살개는 발걸음에 짖지 않네　　村狵不吠行
–『화서집』

▪ 벗 홍덕재(洪德哉)와 홍덕용(洪德庸)이 공작산 속에 이웃해 사는데 시를 지어 보여주기에 받들어 차운하다

촉사봉 빛은 저녁 되면서 나눠지니　　促史峯光向夕分
푸르고 붉은 절벽 석양에 열리네　　蒼崖丹壁闢西曛
봄은 경기지역보다 더디어 삼일이 늦지만　　春遲畿輔多三日
산은 봉래산과 가까워 매번 오색구름이네　　山近蓬萊每五雲

늘그막에 『주역』은 누구와 함께 배우나[65]　　老去龜龍誰共學
지난날에 『시경』은 무리지어도 감당 못했네[66]　　向來鳥獸不堪羣
청년시절에 미력했던 것도 부끄러울 만한데　　足羞未力靑年日
백발에 이르도록 아직 알려짐이 없는 듯하네[67]　　到白紛如未有聞

기이(其二)
공작산 서쪽에 돌길이 비스듬하니　　孔雀山西石逕斜
뽕과 삼 어딘들 집안을 화목케 하네[68]　　桑麻何處不宜家
숲에 작은 집을 열어 서책을 간직하고　　林開蝸室藏芸卷
뜰에 연못을 둘러 국화에 물을 대네　　庭繞魚塘溉菊花

밭갈이에 소 몰지 않아도 밭은 쉬이 곧아지고　　耕不叱牛田易直
정원에 새가 옮겨와 머물며 나무와 뒤섞이네　　園留遷鳥樹交加
다만 산중의 호사를 다하지 못할까 근심하니　　但憂未盡山中好
풍광이 본래 뛰어나지 않다고 말하지 말길　　莫說風光本不多

기삼(其三)
넌 소 배불리 먹이고 난 수레에 장막 치며[69]　　爾牛飽飯我車巾
쟁기와 보습을 한가하게 이웃이 함께 쓰네　　耒耜閑閑共四隣

글자 세고 글줄 찾으니 혼연히 늙음을 잊었고[70]　數墨尋行渾忘老
아욱 꺾고 기장 찧으니 완전히 가난한 건 아니네　折葵舂黍未全貧

새는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친구처럼 날아오고　鳥無符節來如舊
꽃은 연지 바르지 않았는데 교태가 새롭네　花不朱鉛態各新
몸속에 가득한 천지의 생의 제외하고서　除是滿腔生意外
어느 곳에서 다시 봄을 찾으리오　却從何處更尋春

기사(其四)
아득한 내 걸음에 석양이 기우는데　緬矣吾行暮景斜
산수는 뜻에 맞아 나그네라도 제집인 듯　林泉適意旅如家
포희당 위는 그림임에 분명하고　庖犧堂上分明畫
공작산 속은 꽃들이 온화하네　孔雀山中蘊藉花

죽음 또한 무방하니 희비가 사라지고　死亦何妨悲喜泯
삶은 여전히 즐길 만하니 연찬이 더해지네　生猶可樂鑽研加
독서에 사탕의 맛이 있음을 알지 못했는데　讀書未識砂糖味
숙독한 후에 죽촌 노인의 칭찬을 깊이 알았네　熟後深知竹老多
죽촌 이 어른(李友信)의 시에　竹村李丈詩
"나에게 특별히 사탕의 맛이 있는데,　有儂家別有砂糖味
자세함과 분명함이 저변의 이름이 되네"라는 구절이　仔細分明爲底名之句
있기 때문에 말연(末聯)에서 운운한 것이다.　故末聯云
—『화서집』

▪ 범파정에서 삼연 옹의 시에 차운하다
범파정은 옛날부터　泛波亭子古
풍치로 시인 안목을 넓혔는데　風致廣詩家
술 따르니 붉은 난간 물에 비쳐　斟酌紅欄影
영롱하게 푸른 물결에 빛나네　玲瓏碧浪

낚시터에는 대부분 집이 지어졌고　　釣磯多着屋
시골 쟁기는 이미 백사장을 갈았네　　村耒已耕沙
물과 육지가 이처럼 뒤바뀌었는데　　川陸飜如此
난간에 기대니 세월이 기우는구나　　憑軒歲月斜

4) 안중관(安重觀)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국빈(國賓), 호는 회와(悔窩)·가주(可洲).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에 문과 응시는 포기하였다. 뒤에 유일(遺逸, 학문과 명망이 높아 과거를 거치지 않고 높은 벼슬에 등용되는 선비)로 천거 받아 세자익위사위수(世子翊衛司衛率)가 되었고, 공조좌랑을 거쳐, 홍천·제천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벼슬보다는 성리학에 침잠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유학을 비롯하여 문학·경세학(經世學)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시문은 6대손 안종학(安鍾學)이 편집한 『회와집(悔窩集)』에 수록되었는데, 내용은 시·서(序)·제(題)·발(跋)·기·논·설·잡저·행록·행장·찬(贊)·명·송(頌)·서(書)·제문·애사 등이다. 안중관이 홍천에 있을 때 지은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본다.

▪ 수타사에서 돌아올 때 아이들에게 배를 불잡고 기다리게 했다가 범파정(汎波亭)으로 내려와서 두보의 율시에 차운하다

봄바람과 봄물로　　春風與春水
넓고 넓어 끝없는데　　浩浩正無邊
늙은이 말을 돌리니　　老子纔回騎
아이들은 벌써 배에 있네　　兒曹已在船
공문서 버린 지 반나절　　簿書拋半日
맑은 날 음주가무 하니　　歌酒倚晴天
호걸스런 원룡(元龍)[71] 기운　　淮海[72]元龍氣
의연히 젊은 시절과 같네　　依然少壯年
–『회와집(悔窩集)』

▪ **수타사 용추(龍湫)에서 비 내리기를 바라는 제문(祭文)**

물은 깊지 않은데	水不尋仞[73]
용이 살고 있는가?	有無龍公
예전에 커다란 학자는	古云碩儒
10보(步)의 집에서 살았네[74]	一畝其宮
이것으로 헤아려보니	以而反揆
용은 혹 이곳에서 편안할 터	龍或此安
하물며 헤엄치는 데	矧伊作游
어찌 못과 물가 가리겠는가?	何擇淵灣
예전에 이름을 붙인 것은	昔所命名
반드시 징험이 있었을 터	其必有徵
가뭄과 장마 생길 때	肆於旱潦
재앙 막는 제사 거듭 지냈네	禜雩相仍
위에서 백성을 부지런히 돌봐	上方勤民
밭에서 농사 힘쓰고	卽功[75]于田
농사일 밝히는 조서 내려	明農十行[76]
고을에 자주 알리네	方州屢宣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	精白以承
관리가 감히 게을러도	吏敢或怠
풍년의 보답이 있고	有年之報
날짜를 세며 기다리니	計日而待
어찌 때맞춰 볕들길 바라겠는가	何意恒暘
이에 지금 가뭄 만나니	乃値斯今
흙은 타들어가 농사 망쳐	土焦稼痒
크게 흉년들 것이니	歲將大侵
이치와 일 어그러져	理與事乖
멍하니 헤아리기 어렵네	惝恍難測
구름 뿜고 우레를 뱉는 것	噓雲歕雷
진실로 용의 일이라	實維龍職

이로부터 아득히	玆之漠然
늙었다고 게으르지 않으리	無乃老惰
어찌 자리를 잃고	抑豈失所
피곤하여 결과를 내지 못하겠는가?	困莫能果
감히 채찍과 경고 없이	罔敢鞭警
오직 희생으로 기도하니	唯用牲祈
바라건대 빨리 떨쳐	庶幾亟奮
성대하게 내려주시길	沛乎一施

–『회와집』

제4장

누정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 곳곳에 누정(樓亭)이 건립된 것은 기능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사대부들은 누정에서 동호인(同好人) 성격의 소모임을 갖고 자연을 완상(玩賞)하기도 했지만, 자제들의 교육이나 종친회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흔히 어느 지역 민심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건립하거나 먼 길을 오가는 관원(官員)들을 위로하기 위해 객관(客館)에 부설하였다.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명칭으로서 정루(亭樓)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각에 비하여 정자는 작은 건물로서, 역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놀거나 휴식할 장소로서 산수 좋은 높은 곳에 세우는데 정각(亭閣) 또는 정사(亭榭)라고도 한다.

홍천은 풍광(風光)을 중심으로 한 누정문학이 넉넉히 생산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홍천 근교는 유배지이기도 하였으니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때 연루되었던 사미정(四美亭) 이구(李龜), 1615년에는 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홍천으로 귀양 보내졌고, 김자점(金自點)은 1650년 파직되고 강원도 홍천으로 유배당한다. 1844년에는 선공감역(繕工監役) 등을 지내다가 모함을 받아 유신환(兪莘煥)이 홍천에 유배되었다. 이들이 유배되어 지내던 누정은 후대 시인들에게 중요한 시의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누정에서 창작된 문학 작품은 여타 지역의 그것과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홍천은 일반적인 누정에서의 풍광에 대한 감상은 물론이고,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풍광·유배의 정서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누정 문학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홍천현(洪川縣)의 누정(樓亭)은 고적(古跡) 학명루(鶴鳴樓)에 대한 기록과 범파정(泛波亭)[77]이 소개되었고, 『여지도서』 누정조에는 학명루, 범파정, 관수당(觀水堂), 양망헌(兩忘軒)

등의 위치와 건립 사실을 밝히고 있다. 『홍천현 읍지』에는 객관 내에 청안당(靑眼堂)과 군자정(君子亭)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다.

학명루는 1448(무진)년 봄에 현감으로 부임한 윤지(尹志)[78]가 3년째 되는 1450년(庚午) 가을에 객관(客館) 동쪽에 연못도 만들면서 5칸 창건하였다. 현감 윤지는 시서(詩書)에 능통(能通)하고 문아(文雅)를 좋아하는 수령(守令)이었다.

범파정은 1547년(丁未) 3월 25일에 도임(到任)하여 1551년(辛亥) 2월 13일 병상(病狀)으로 체거(遞去)한 노연령(魯延齡)[79]에 의하여 빈관(賓館, 客舍)의 문루(門樓)로 8칸을 창건하였다. 1658년(戊戌) 현감 원만춘(元萬春)[80]에 의해 중수(重修)되었고 1829년(己丑) 현감 한여(韓璵) 때 13칸을 개건(改建)하였다.

양망헌은 1675년(을묘) 2월 2일에 도임하여 다음 해 9월 21일 사장(辭狀)으로 체거한 이세백(李世白)[81]에 의하여 1675년 범파정 동쪽 담장에 창건하였다.

군자정(君子亭)은 1829년(기축) 현감 한여(韓璵)가 아사(衙舍) 좌측 동쪽 담장 밖에 6칸으로 개건(改建)하였다.

그 외에도 학서루(鶴棲樓)[82], 사미정(四美亭)[83], 소학정(巢鶴亭)[84], 아양정(峨洋亭)[85] 등의 위치를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결국 누정문학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림문화가 발달하면서 산수자연에 대한 미의식이 확산, 제고된 것이 누정제영(樓亭題詠) 창작의 정신적 배경이 된 것이다. 누정문화의 발달 여부는 그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인 것이다. 아울러 어느 지역의 자연환경이 당대 사류들의 심미적 관점에 의해 조명받고 있었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누정제영의 지역적 분포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학파(學派)와 서원의 발달, 물산의 생산과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측되며 그 지역 선비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문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1) 학명루(鶴鳴樓)에 대한 기문(記文)[86] – 서거정(徐居正)

원주(原州)의 곁에 붙어 있는 현이 홍천이다. 홍천은 산과 강에 둘러싸여 깊숙하고 궁벽진 곳이지만 잘 다스려져서, 백성들의 풍속이 순박하고 쟁송(爭訟)이 맑고 간소하여, 다스리는 즐거움이 있는 고을이다.

나는 어려서 영서(嶺西)에 유학하면서, 원주에서 춘천으로 갈 때 재차 홍천을 지나다녔다. 그때 그 고을이 그윽하고 밝으며 산수가 맑고 기이하며 백성이 많고 물산이 풍부하며 나무들이 울창한 것을 보고 흐뭇해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번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할 누대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정통(正統) 무진년(戊辰年, 1448, 세종 30) 봄에 윤후(尹侯)[87]가 선발되어 수령(守令)으로 왔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정사가 매우 잘 이루어졌다. 3년째가 되던 경오년(庚午年, 1450, 문종 즉위년) 가을에 비로소 객관(客館)의 동쪽에 누대를 세우고 그 누대 앞으로 못을 파고 연꽃을 심어, 공무(公務)를 보는 여가에 올라가 경치를 둘러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곤 하였다.

하루는 고을의 노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며 낙성식(落成式)을 하고, 누대(樓臺)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물었다. 노인들이 말하기를, "객관 앞 수십 걸음쯤 되는 곳에 옛날에 학교(鶴橋)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다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학(鶴)이 와서 울었는데, 그것으로 이름을 삼은 것입니다. 학(鶴)은 우리 고을의 상서(祥瑞)입니다. 이것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윤후가 그 말을 따랐다.

안평대군(安平大君)이 '학명루(鶴鳴樓)'라는 세 글자 편액을 써서 누각을 빛나게 했다.

이해 겨울에 윤후가 서울에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대저 '춘추(春秋)'에 토목공사는 반드시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백성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령(守令)들은 대부분 백성을 고생시키고 군중을 동원하며 어려운 때인데도 호사스러운 일을 벌입니다. 누대 하나를 세우거나 정자 하나를 세우면, 반드시 장황하게 써서 일과 능력을 떠벌리니, 이것이 무슨 의리입니까? 나는 이러한 이름을 싫어합니다. 다만 그대는 과대하게 칭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대가 지어진 내력이나 기록해 두려고 한마디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름답게 여겼다. 이어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대저 누관(樓觀)을 짓는 것은 단지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으로 임금의 사자(使者)를 존중하고 빈객(賓客)을 접대하며 시절을 점치고 농작(農作)을 살펴, 백성과 더불어 즐기려는 뜻을 붙인 것이니, 어찌 작은 일로 여길 수 있겠는가. 하물며 누관이 보수되느냐 황폐해지느냐 하는 것은 한 고을이 흥성하는지 쇠퇴하는지가 그것에 연관되며, 한 고을이 흥성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것은 수령이 현능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그것에 관련된다. 대체 누가 이것을 하찮은 일로 여길 수 있

겠는가. 일으킨 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아야 할 뿐이다. 윤후는 이번 일을 하면서 재물을 손상하지도 않았고 때를 어기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백성을 부리기를 때에 맞게 한다'라는 『춘추』의 뜻을 깊이 체득하였으니, 성인이 포폄(褒貶)한 사례로 볼 때 마땅히 크게 특별히 적어서 찬미해야 할 일이다. 내가 사양하고자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윤후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니 윤후의 사람됨이 더욱 미덥다. 내 또 들으니, 『시경(詩經)』에, '학(鶴)이 구고(九皐)에서 우니,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린다'[88] 하였다. 구고는 매우 깊숙한 곳이고, 구천(九天)은 매우 광활하고 먼 곳이다. 참으로 지극하면, 아주 깊숙한 곳에서도 오히려 광활하고 먼 곳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 홍천이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윤후의 명성이 이처럼 빛나니, 끝내는 틀림없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날 것이고 군주에게까지 알려져 부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올라, 한 시대에 이름을 날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윤후가 누대에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 어찌 더욱 징험이 있지 않겠는가. 윤후는 시서(詩書)에 능통하고 문아(文雅)를 좋아하는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시경』과 『춘추』에 있는 말을 아울러 써서 기문을 짓는다."

경오년(庚午年, 1450, 문종 즉위년) 겨울

2) 범파정(泛波亭) 제영(題詠)

▪ 홍천현감 노연령에게 범파정을 제하여 부치다

산수가 배어난 소나무 계수나무 숲속에 山水中間松桂林
그대 은거한다고 들으니 번뇌가 씻기네 聞君高卧滌煩襟
골짜기의 승경은 오직 범파정이고 洞天形勝唯高閣
태수의 풍류는 가야금 하나뿐이라네 太守風流只一琴
황학[89]을 부를 만한 별천지임을 알겠고 黃鶴可招知異境
백구를 가까이 하니 기심(機心)[90]을 잊겠네 白鷗相近絶機心
봄이 되어 복사꽃이 물결 위에 떠 있으니 春來定是桃花浪
강기슭에 정박하는 고깃배를
금치 못할까 염려되네 入岸漁舟恐不禁

– 정유길(鄭惟吉), 『임당유고(林塘遺稿)』, 「제영시(題詠詩)」

▪ 범파정(泛波亭)에서, 임당(林塘) 공의 시에 차운하다

어찌 꼭 작은 배를 타고 산음을 올라가야 할까[91] 小舟何必上山陰
얼음과 눈 둘러싼 곳 거마(車馬)를 금방 멈췄노라 車馬纔休氷雪襟
황학과 흰 물새가 대감님의 노래라면 黃鶴白鷗台府詠
높은 산 흐르는 물 우리 고을 원님의 거문고라 高山流水使君琴
소요유(逍遙遊)[92] 펼칠 만한 정자를 새로 갖췄으니 屬新棟宇逍遙具
신선처럼 한만유(汗漫遊)[93]를 즐길 수도 있고말고 堪住神仙汗漫心
내년에 어버이 기쁘게 할 경사(慶事)가 생기거든 來歲悅親還有事
안개꽃 핀 물길을 혼자만 아끼지 마시기를 煙花莫愛被渠禁
– 최립(崔岦)[94], 『간이집(簡易集)』, 「동군록(東郡錄)」

▪ 홍천 범파정 차운

한줄기 긴 시내가 울창한 숲을 감싸 안았는데 一帶長川擁茂林
물결 구경하는 곳마다 담담한 속마음 기를지니라 觀瀾隨處養沖襟
관전(官田)에는 도연명의 기장[95] 많이 심었고 官田多種淵明秫
재각(齋閣)에는 간간이 자천의 거문고[96] 들리네 齋閣時鳴子賤琴
조각달은 약속이나 한 듯이 처마를 엿보고 片月窺簷如有約
외로운 구름은 본래 무심한 듯 산에서 나오네 孤雲出岫本[97]無心
삼 년 마다 앉아 휘파람 분 지가 어언 36년[98] 三年坐嘯今三紀
백발로 그리워하는 마음 꿈에서도 금치 못하네 白首憧憧夢不禁
– 심희수(沈喜壽), 『일송집(一松集)』

▪ 수재(秀才)[99] 유시영(柳時英)이 찾아와 김숙도(金叔度)[100] 등 여러 사람의 범파정 운을 전하기에 경솔하게 즉흥으로 지었다

외로운 다리 비탈진 오솔길 먼 숲속으로 사라지는데 斷橋斜路入長林
강상의 누정에 올라서 흉금(胸襟)을 한번 푼다네 江上高樓一散襟
물을 젓는 삿대소리 돌아오는 객선(客船)인데 沿渚棹聲回客舫
주렴(珠簾)을 걷자 산빛이 거문고에 다가온다 捲簾山色近瑤琴
풍진(風塵) 속의 반세상 흰머리를 바라보니 風塵半世看華髮

강호(江湖)에서 살자던 평소 마음 부끄럽기만 하네　湖海平生媿素心
늙어가며 종병 모임[101]같이 은거(隱居)할까 생각하니　老去欲投宗炳社
갈포두건(葛布頭巾)에 등나무 단장(短杖)인들
누가 말리랴　葛巾藤杖也誰禁
– 신흠(申欽)[102], 『상촌집(象村集)』

▪ 범파정에서 차운한 시

난간 저쪽 맑은 시내 물 건너엔 울창한 숲　檻外晴川川外林
누정 위에 올라서니 가슴이 맑게 툭 터지네　樓居淸絶愜疎襟
맑은 물결 일렁일렁 흰 비단을 펴놓은 듯　澄波澹澹鋪纖練
냉랭청청(冷冷淸淸) 바람 소리 가야금 소리 들리는 듯　爽籟冷冷當素琴
저녁나절 산그늘 나무 끝에 생겨나고　靑嶂晩陰生樹頂
흰 구름 서늘하게 물속에 그림자 드리웠네　白雲凉影落潭心
학[103]이 깃털 떨군 지도 어언 일천여 년　仙禽墮羽今千載
선계(仙界)의 생각 금할 수 없어 시름없이 바라만 보네　悵望琳霄思不禁
– 장유(張維),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 홍천의 수령으로 가는 이정숙 한[104]을 전송하다

범파정의 앞 물가에는 잔물결과 큰 물결 일고　泛波亭水漾波瀾
돌 절벽은 어둑하여 한낮에도 싸늘하리　石壁空濛生晝寒
정자 아래 봄이 오면 오마[105] 씻을 것이거니　亭下春來洗五馬
사람들이 사군탄[106]이라 칭할 줄을 알겠구나　也知人喚使君灘
– 정두경(鄭斗卿)[107], 『동명집(東溟集)』

▪ 범파정에서 달밤에 선위[108] 형제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흥취를 풀다

기일(其一)
저 멀리 산마루에 달이 뜨더니　迢迢嶺月擧
밝은 빛이 강가의 범파정에 비치네　素彩泛江[109]亭
시흥은 술잔 속의 달[110]에게 있고　興在杯中桂

기약은 물 위의 부평초 되었네　　期成水上萍
개울의 물고기들이 밤 얘기 소리 듣고　　溪魚聞夜語
바위의 학(鶴)이 흰 깃털을 떨어뜨리네　　岩鶴墮霜翎
굳이 거문고 맑은 곡조 탈 필요 없나니　　不必淸琴奏
바람 소리 여울 소리가 난간에 가득하네　　風灘韻滿欞

기이(其二)
단풍은 밝고 강물은 맑고 맑은데　　楓明江湛湛
난간에 기대니 이곳이 신선 집이네　　倚檻卽仙家
관청에선 상락주(桑落酒)[111]를 개봉하였고　　官釀開桑落
빈계(賓階)[112]에는 국화꽃이 흩날리네　　賓階散菊華
고금의 시가 누벽(樓壁)에 가득하고　　古今詩滿壁
아침저녁의 물결이 모래를 씻네　　朝暮浪淘沙
세상살이에는 헤어짐이 많으나　　世故多離合
달이 져서 술자리 파할까 염려되네　　停盃畏月[113]斜
– 김창흡(金昌翕)[114], 『삼연집(三淵集)』,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제영시(題詠詩)[115]

▪ 이계장 인엽에게 부치다
한양 비바람 소리에 꿈 막 깨었더니　　秦城風雨夢初醒
어두운 하늘에 외로운 기러기 날아가네　　却放孤鴻在杳冥
은사(隱士) 부르려 나 계수나무[116] 부여잡고　　招隱我攀叢桂樹
그대는 범파정 옆에 살 곳 정했네　　卜居君傍泛波亭
관문 들어설 때 참모습 감추었으리니　　關門已覺收眞氣
강호의 그 누가 객성을 알아볼까　　湖海誰知有客星
무엇보다 머문 구름 자주 눈에 드니　　最是停雲頻入望
한 동이 술을 언제쯤 반가운 눈빛으로 나눌까　　一樽何日眼回靑
– 송상기(宋相琦), 『옥오재집(玉吾齋集)』

▪ 계장이 부쳐온 시에 화운하다

기일(其一)

멀리 관동에 있는 그대 그립더니	憶君迢遞在關東
흰 기러기가 소식 전해주네	消息纔憑白鴈通
세상일이 절로 오늘의 한을 낳았고	人事自生今日恨
세월 얼마나 지났나, 또 가을바람 부네	歲華能幾又秋風
은하수의 새벽 별빛 멀리서도 또렷하고	星河曉色亭亭遠
쓸쓸한 여치 울음 곳곳에서 들린다	絡緯寒聲處處同
금경으로 받은 천상의 이슬 묻지 마라	莫問金莖天上露
예로부터 시인은 소갈증 앓았다네	古來詞客秖消中

기이(其二)

그대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살아가며	林泉樂在碩人槃
방에 맑은 술 있어 마음 절로 여유롭겠지	室有淸樽意自寬
지팡이 짚으니 구름이 짧은 해를 재촉하고	倚杖雲陰催短景
발 올리니 가을빛에 서늘한 기운 맴돌리라	開簾秋色動微寒
백련사 전례 따라 새로운 모임 논하리니	須從白社論新契
금화전 향해 옛 관직 물을 필요 없겠지	莫向金華問舊官
범파정 가에 사는 그대 그려보니	遙憶泛波亭畔客
뱃노래가 달빛 타고 앞 여울 내려가겠지	棹歌乘月下前灘

기삼(其三)

게으름 피우며 빈산에 누워	伏枕空山懶未除
종일 문 걸어두니 빈 골짜기로 도망친 듯	閉門終日似逃虛
놀란 마음은 활시위 소리 들은 새와 같고	驚心正類聞弦鳥
뜻 얻었으니 물 만난 고기 말하지 말라	得意休論縱壑魚
한가롭게 살아가니 몸은 본래 토목 같고	散地形骸元土木
늘그막 공부는 시서에 있어라	暮年工力在詩書
저물녘 지팡이 짚고 사립문 옆에 서니	斜陽曳杖柴門側

울긋불긋 봉우리마다 가랑비 지나갔네　　紫翠千峰小雨餘
– 송상기, 『옥오재집』

▪ 홍천 범파정에서 원량(元亮)[117] 종장을 만나니 어찌 공곡공음[118]일 뿐이랴! 금강산 산행 약속을 만류하여 함께 죽서루(竹西樓)에 노닐면서 즉석에서 차운하다[119]

초승달이 발 사이로 비춰 찬 그림자 성기고　　微月穿簾冷影疎
습기가 난간에 침투하니 누각이 텅 비었네　　侵欄水氣小亭虛
역로에서 함께 말 타고 갈 줄을 누가 알았으랴　　誰知驛路拚征策
도문(都門)[120]에서 옷깃 잡고 작별함이
아직도 생각나네　　尙憶都門摻別裾
봉각(蓬閣)의 술자리는 삼경을 넘기고　　蓬閣酒盃三夜後
해산(海山)의 수레 몰이는 오순 남짓이네　　海山車御五旬餘
또한 우리 숙부 만류하여 좋은 모임 함께하니　　且留吾叔同佳會
촛불 밝힌 담소가 독서(讀書)보다 좋네　　秉燭淸談勝讀書
–이만유(李萬維), 『은암집(恩庵集)』, 「염주세고(鹽州世稿)」

▪ 범파정 만난 자리에서 여러 친구에게 지어 보이다(화전[121] 사군, 홍천 사군 김태연 장숙, 평릉 독어, 민정[122] 정옥, 보안승 최희도[123])

짙은 구름 뚫고 온갖 봉우리를 지나　　重雲穿過萬峰間
명소(名所) 얻을 마음에 기쁘게 말 몰았지　　欣得明區卸客鞍
누각 가까이 산빛은 푸른 떨기 같고　　山色近樓靑似簇
들판 가른 강물은 만곡(彎曲)을 이루었네　　江流劃野曲成彎
9월 여행길 형륙의 부림[形役]받더니　　三秋跋履形爲役
반나절 머무르니 마음 잠시 너그러워　　半日留連意暫寬
너른 자리 한 잔술에 진정한 모임자리　　盃酒平筵眞勝集
빈주(賓主) 함께 얼굴 붉어진들 어떠하리　　不妨賓主共酡顔
–이만유, 『은암집』, 「염주세고」

▪ 범파정 벽상 시에 차운하다

기일(其一)

정자 아랜 맑은 물 정자 위엔 푸른 산　　亭下澄江亭上山
굽은 난간에 기대어 산중턱을 바라보네　　曲欄人倚翠微間
깊은 정은 먼 산에서 피어나는 조각구름　　幽情遠岩孤雲出
지친 생각은 먼 창공에서 돌아오는 외로운 새　　倦意長空獨鳥還
속세에서 몇 년을 근심스러워했던가　　塵土幾年愁迫隘
선경을 찾은 오늘은 마음 여유로워 기쁘네　　仙區此日喜寬閒
학 날아가는 남교엔 이내 낀 잔디가 푸르고　　南橋鶴去烟莎綠
서서 청도[124]를 바라보나 오를 수 없어 슬프네　　立望淸都悵莫攀

기이(其二)

높이 솟은 나무 빽빽하게 사방 둘러 있는데　　雲木蒼蒼四面圍
배꽃 빗물에 씻겨 창가에 있다　　梨花雨灑近窓枝
향수에 젖은 나그네 닻줄 풀어 배 띄우려 하는데　　鄕心客纜牽將去
봄빛 밝은 숲속의 새 놀다 오라 운다　　春色林禽喚遣歸
흥 넘쳐 홀로 술동이 속 푸른 빛 잔질하다　　漫興獨斟樽裏綠
감회 끌어당겨 벽에 걸린 시들이 두루 화운한다　　羈懷遍和壁間詩
헛된 명예에 스스로 목매어 있어 쓴웃음 짓다가　　虛名自誤眞堪笑
얼굴 붉혀 속세 향해 다시 옷 먼지 턴다　　羞向風塵 更振衣

–한원진(韓元震)[125], 『남당집(南塘集)』

▪ 수타사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배를 불들고 기다리고 있기에 마침내 그대로 범파정(泛波亭)으로 내려와서 두보의 율시에 차운하다

봄바람과 봄 물은　　春風與春水
아득하여 정히 끝이 없구나　　浩浩正無邊
늙은이는 겨우 돌아왔는데　　老子纔回騎
아이들은 벌써 배에 있네　　兒曹已在船
반나절 동안 공무를 멈추고　　簿書拋半日

맑은 날씨에 술 마시고 노래하네　　歌酒倚晴天
회해지사[126] 원룡(元龍)[127]의 호기는　　淮海元龍氣
의연히 젊은 시절의 기상과 같네　　依然少壯年
- 안중관(安重觀)[128], 『회와집(悔窩集)』

▪ 범파정에 올라

먼 산이 우뚝이 성긴 숲을 비추는데　　遠山嵽兀映踈林
눈 비비고 외론 정자 보니 눈물이 하염없네　　揩眼孤亭淚染襟
선친[129]의 시편이 이윽고 새 벽에 걸려 있고　　先什居然新揭壁
가을 강엔 완연히 옛 거문고 소리 들리네　　秋江宛爾舊鳴琴
찬 솔에 해가 떨어지니 기상이 씩씩하고　　寒松落日崢嶸氣
흰 학이 하늘을 나니 마음이 아득하네　　皓鶴寥天縹緲心
어린 자식은 끝내 시례의 교훈[130]을 저버리고　　稚子終孤詩禮訓
성성해지는 백발을 막지 못해 괴롭기만하네　　紛如白髮苦難禁
- 안석경(安錫儆)[131], 『삽교집(霅橋集)』

안석경(安錫儆)은 『동유기(東遊記)』「풍악산유람기(楓嶽山遊覽記)」에 홍천 범파정에서 감회를 기록하고 있다.

1765년 8월 21일(갑자) 길을 나설 때 조금 비가 내렸다. 30리를 가서 창봉역(蒼峰驛)에서 점심을 먹었다. 사마치(沙馬峙)[132]를 넘어 홍천(洪川)의 석천(石泉)[133]을 향하였는데, 길옆에는 단풍이 아름다웠고, 때때로 감상할 만한 못(潭)과 폭포(瀑布)[134]가 나타났다.

40리를 걸어서 저물녘에 홍천에 도착하였다. 범파정(泛波亭)에 올라보니, 동쪽 골짜기의 아득한 봉우리는 이내와 아지랑이 사이에서 출몰하였고, 해맑은 앞 강물은 나누어져 두 줄기로 흘러 벽파정의 아름다운 난간 앞에 이르렀으며, 마을에는 구름이 내려앉은 나무들이 있어서 아름답고 상쾌하여 멀리서 바라볼 만한 운치가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회와 안중관)께서는 일찍이 이 고을을 다스리셨는데(1738.1.27~1729.6.28) 우리 자식들은 매번 한가로울 때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이 정자(범파정)에 와서 노닐었었다. 지금 벌써 28년이 지났으니, 굽어보고 우러러보는 동안에 서글퍼져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범파정 처마에 걸려 있는 시판(詩板) 가운데 아버지(안중관, 1683~1752)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것이 있었다. 담존재(湛存齋) 이성보(李聖輔)가 홍천을 다스릴 적(1753.5.25.~1755.5.7 별세)에 써서 새긴 것이라 한다.[135] 바라보고 두세 번 읊어보니 두 줄기 눈물이 절로 떨어졌다고 감회를 기술하고 있다.

삽교 안석경은 은자(隱者)이다. 세상에 나아가 벼슬하는 데 뜻을 두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스승이나 벗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만 굳으면 자연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안석경은 자연이야말로 훌륭한 스승과 벗이라 하였다. 높이 솟은 산에서 흔들리지 않는 몸가짐을 배우고, 흐르는 물에서 맑고 원대한 정신을 배우라 하였다. 바위를 보면 찬란한 문식과 단단한 바탕을 배우고, 대나무를 보면 텅 빈 마음과 분명한 절조를 배우며 소나무를 보면 늠름하고 우뚝한 기상을 배우라 하였다. 이처럼 자연을 스승과 벗으로 삼을 방도를 생각하여야지, 스승과 벗이 없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범파정에서 삼연 옹의 시에 차운하다

범파정은 예전부터	泛波亭子古
시인들의 풍치를 확장하였네	風致廣詩家
술 따르니 붉은 난간(범파정) 화양강에 비쳐	斟酌[136]紅欄影
영롱하게 푸른 물결에 빛나네	玲瓏碧浪華
낚시터에는 대부분 집이 지어졌고	釣磯多着屋
시골 쟁기는 이미 백사장을 갈았네	村耒已耕沙
물과 육지가 이처럼 뒤바뀌었는데	川陸飜如此
난간에 기대니 세월이 기우는구나	憑軒歲月斜

—이항로(李恒老), 『화서집(華西集)』

▪ 화양사군[137]이 범파정에 조촐한 술자리 마련하다

지난번에는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라	向來觀海路
시냇가 그윽한 누각에 들르지 못했네	溪閣未搜幽
커다란 나무는 깊은 골짜기에 자라고	喬木[138]開深谷

가을바람은 화양강 아래로 스쳐가네　　西風涉下流
청렴한 관리(홍천현감)가 부임하는 날　　官車琴鶴日
백성들이 쌀밥과 생선을 먹는 때라네　　民飯稻魚秋
인원 숫자만 채운 것 같아 부끄러워　　商局羞添數
초엽배[139] 석 잔 마시니 흥취 더욱 하염없네　　三蕉興轉悠
–이항로, 『화서집』

이 작품들 외에도 범파정에 대한 제영시(題詠詩)가 적지 않다. 송병선(宋秉璿)의 『동유기(東遊記)』(1868)에는 "29일 정축(丁丑)일, 이부자리에서 밥을 먹고 산다현(神茶峴, 양평 청운면과 홍천 양덕원 유목정리 사이에 있는 고개. 일명 신당고개)을 넘으니 홍천(洪川) 지역이었다. 화양강(華陽江)을 건너 읍내에 들어가 범파정(泛波亭)에 올랐다. 정자는 빈관(賓館, 客舍)의 문루(門樓)이다. 강의 빛은 옷감을 누인 것처럼 희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해준다. 중요한 자료인 현판액(懸板額, 범파정)은 고동 이익회(古東 李翊會)[140]의 글씨이고, 또 그 밖의 제영(題詠)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41]

범파정은 강원도의 대표적 정자로, 이 정자를 중심으로 누정(樓亭) 제영(題詠)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고 누정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중요한 7개의 누정 중 춘천에 있는 소양정(昭陽亭)과 홍천에 있는 범파정을 제외한 5개의 누정이 모두 금강산 유람의 경유지에 있다는 사실이다. 범파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문인(文人)들은 강학(講學)과 시사(詩社) 활동을 통해 홍천학풍을 계승하였다.

1) 의암학회에서 펴낸 『국역 항와집』, 『국역 의암집』, 『국역 화서집』 등을 참조하였다.
2) 남악의 시구: 주자가 남악을 여행하면서 남헌(南軒)과 수창한 시구들을 말한다.
3) 청화산: 이항로가 거처한 벽계리(蘗溪里) 서쪽에 있던 산으로, 청화의 바람은 이항로의 학문을 지칭한다.
4) 유중악(柳重岳, 1843~1909). 한말의 유학자. 위정척사론자로 이항로(李恒老)·김평묵(金平默)·유중교 등의 문하에서 주자학을 공부했다.
5) 구공(鳩笻): 구장(鳩杖). 지팡이 머리에 비둘기를 새긴 노인장(老人杖).
6) 송시열(宋時烈)이 1607년 11월 12월 옥천(沃川)의 구룡촌(九龍村)에서 수옹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7) 서상묵(徐相默): 유인석의 문인으로 항일의병을 한 독립운동가.
8) 병오(丙午): 1906년.
9) 항와(恒窩): 유중악(柳重岳)의 호.
10) 소성강(韶成江)과 녹효강(綠驍江): 각각 북한강과 홍천강을 이른다.
11) 삼상(三象): 주공(周公)이 지은 풍류 이름.
12) 유인석(柳麟錫, 1842~1915). 한말의 위정척사론자·의병장. 한말 서양 및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철저히 반대하면서 유교적인 이념으로써 통치되는 독립된 나라를 구상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초기 항일의병을 주도했다.
13) 화양강: 홍천군과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을 통과하여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홍천강은 북한강의 여러 지류 중 제일 크다. 옛 이름은 여러 가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남천(南川)에 대해 현의 남쪽 2리에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춘천부의 소양강(昭陽江)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남천이라 불렀음을 보여준다.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은 「동유기(東遊記)」에서 화양강(華陽江)을 건너 읍으로 들어와 범파정에 올랐다고 기록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실려 있는 화양강진(華陽江津)은 화양강에 있는 나루터다. 홍천강을 화양강이라 불렀음을 알려준다. 홍천의 옛 이름이 녹효(綠繞)였기 때문에 녹요강(綠繞江)이란 명칭도 종종 보인다.
14) 김기도(金箕燾): 이항로(李恒老)와 사돈지간으로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에 올랐으며, 홍천 희망리 큰 소나무 아래 몇 칸의 초가에 살았기 때문에 한송재(寒松齋)란 호를 얻었다.
15) 이항로(李恒老, 1792~1868): 화서학파를 형성하여 한말 위정척사론과 의병항쟁의 사상적 기초를 다져놓았다.
16) 삼신산(三神山): 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일대에 위치한 산이다.
17) 기주 북쪽: 중국 기주(冀州)의 북쪽으로 지금의 하북성(河北省)인데, 이곳은 말의 산지로서 준마(駿馬)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명사(名士)가 많은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8) 요동(遼東)의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자 주인이 기이하게 여겨 조정에 바치려고 길을 떠났다가 하동(河東)에 와서 돼지가 모두 흰 것을 보고는 부끄럽게 여겨 돌아갔다는 '요동시(遼東豕)'의 고사를 말한다.
19) 해약(海若): 북해(北海)의 신 약(若)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해신(海神)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20) 개인(開軔)에서 '인(軔)'은 바퀴가 도는 것을 막는 '굄목'을 말한다. 이 굄목을 열었다는 것은 수레를 움직여서 출발한다는 뜻인 '발인(發軔)'과 의미가 통한다.

21) 상산(常山)의 뱀: 수미(首尾)가 상응한다는 전설상의 뱀을 말한다. 수미(首尾)가 서로 호응하도록 펼쳐진 진법(陣法)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며, 지적할 만한 허점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2) 침수(枕漱): 돌을 베고 흐르는 물에 양치질한다는 '침석수류(枕石漱流)'의 준말로, 산수 좋은 곳에서 은거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23) 이백(李白)의 「등고구이망원해(登高邱而望遠海)」이란 시에 "여섯 자라의 뼈엔 이미 서리 내렸으니, 삼신산은 흘러가서 어디에 있는가?(六鰲骨已霜, 三山流安在)"라고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24) 『맹자·이루하(離婁下)』에 제나라 사람인 저자(儲子)가 "왕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를 엿보게 하니, 과연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王使人瞯夫子, 果有以異於人乎)"라고 묻자, 맹자가 말하길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요순도 사람과 똑같을 뿐이다(何以異於人哉? 堯舜與人同耳)"라고 하였다.

25) 덕탄(德灘)은 현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에 소재한 계곡을 말한다.

26) 숭정(崇禎):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연호로, '숭정사정미(崇禎四丁未)'는 1847년을 말한다.

27) 동중천(洞中天): 신선이 산다고 하는 명산(名山) 승경(勝景)을 말한다. 여기서는 덕탄을 신선세계로 비유한 것이다.

28) 홍무(洪武): 명나라 태조(太祖)의 연호이다.

29) 유중교(柳重敎). 조선 말기의 학자. 김평묵과 함께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81년 김홍집이 일본을 다녀와 미국과 연합하고 서양기술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척사위정을 기반으로 척양척왜를 주장하며 맞섰다.

30) 수타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동면(東面) 공작산(孔雀山)에 있다. 신라 성덕왕 무신년(戊申年)에 원효조사가 창건하고 일월사(日月寺)라고 칭하였다. 조선 선조 임진년에 불에 타버렸다가 인조 병자년에 사승(寺僧) 공잠(工岑)이 대적광전(大寂光殿)을 세웠고, 효종 경인년에 사승 도전(道詮)이 정문을 세웠다. 숙종 병진년에는 사승 여담(汝湛)이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조성하였고, 정사년에는 신도 천해(天海)가 새로 청련당(靑蓮堂)을 건립하였다. 경신년에는 사승 여민(汝敏)이 향적전(香積殿)을 창건하였고, 신유년에는 사승 지해(智海)·지행(智行) 등이 백련당(白蓮堂)을 건설하였으며, 임술년에는 사승 성민(性敏)·찬증(贊證)·선찰(善察) 등이 송월당(送月堂)을 창건하였다. 계해는에는 사승 성념(省念)·찬원(贊源)·상흘(尙屹) 등이 영월당(詠月堂)을 창건하였고, 무진년에는 사승 상봉(霜峰)이 운수암(雲水菴)을 창건하였다."

31) 조계(曹溪): 중국 광동성 곡강현 동남쪽에서 발원하여 진수(溱水)로 흘러들어가는 물 이름. 당나라 때 선종(禪宗)의 육조(六祖) 혜능(慧能)이 보림사(寶林寺)를 세우고 불법(佛法)을 크게 일으킨 곳임.

32) 조개(皁盖): 흑색의 수레 덮개라는 뜻으로, 지방 장관을 가리킨다.

33) 초지(初地): 『화엄경(華嚴經)』에 나오는 보살(菩薩)의 십지(十地) 중 첫째 단계로, 일명 환희지(歡喜地)라고 한다.

34) 인도(印度)에서는 청련(靑蓮)이 솟는다는 것은 상서롭다는 뜻으로 표현한다.

35)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으며, 장악원주부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나가지 않았다.

36) 사영운(謝靈運): 위진남북조 시대 진(晉)나라 말기에 태어나 진(晉)과 송(宋)을 거쳐 산 사람.

37) 이인엽(李寅燁, 1656~1710). 강화유수로서 치적을 남겨 사당이 세워졌다. 특히 강화부 방비를 위한 진(鎭)의 설치에 관한 이인엽의 견해는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아 후대까지 종종 인용되었는데, 정조 대에 이르러 실제 시행에 옮겨지기도 하였다. 벼슬이 행이조판서·홍문관대제학에 이르렀다.

38) 이하곤(李夏坤, 1677~1724).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이자 평론가.

39) 한원진(韓元震, 1682~1751). 1717년 천거되어 영릉참봉으로 첫 관직을 지냈다. 1725년 경연관으로 뽑혀 영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소론을 배척하는 발언이 탕평책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여 파면됐다. 그 이후엔 임명되는 관직마다 모두 사퇴하고 학문에 매진했다. 이이-송시열-권상하의 학통을 이어 정통 주자학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켰다.

40) 이천보(李天輔, 1698~1761). 이조판서·병조판서 등을 거쳐 1752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같은 해 좌의정에 올랐다가 영돈령부사로 전임되었다. 176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사건(遠遊事件)에 인책, 음독 자결하였다. 담론을 잘하여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희소(喜笑: 즐겁게 농담함)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41) 안석경(安錫儆, 1718~1774). 아버지 중관의 임소를 따라 홍천·제천·원주 등지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당시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과거에 3차례 낙방한 뒤 강원도 횡성 삽교에서 은거생활을 했다. 그의 저서 『삽교만록(霅橋漫錄)』 중에는 야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상인의 움직임이나 민중적 항거의 양상 등을 생동감 있게 나타냈다.

42) 한유(韓愈)는 평소에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리는 등 극렬하게 불교를 배척하다가 황제의 미움을 받아 조주(潮州)의 자사로 좌천되었는데, 그곳 축융봉(祝融峯)에서 도를 닦고 있던 태전 선사(太顚禪師)를 만나보고 그의 높은 도력과 인품에 매료되어 깊은 교분을 쌓았다. 그로 인해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는 「제태전당벽(題太顚堂壁)」이라는 시에서, "퇴지는 스스로 태전이 공자와 같다 하니, 「원도(原道)」 지어 불교, 도교 깊이 배척한 건 거짓이었나. 모르겠네, 태전의 어떤 면이 닮았기에, 정중한 여러 통 편지에다 옷까지 남겼었나(退之自謂如夫子 原道深排釋老非 不識太顚何似者 數書珍重更留衣)" 하였다.

43) 박태순(朴泰淳): 1653(효종 4)~1704(숙종 30). 형조판서, 전라도관찰사로 재직 중에 허균(許筠)의 문집을 간행한 데 대한 전라도 유생들의 규탄으로, 장단부사(長湍府使)로 좌천되었다가 1703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44) 김진상(金鎭商, 1684~1755). 수찬·필선·부교리 등의 관직을 역임하던 중 1729년(영조 5) 기유처분으로 실시된 탕평책에 반대하여 퇴거하였다. 그러나 다시 조정에 진출하여 1735년(영조 11) 부제학을 지냈으며, 1738년(영조 14)에는 대사성을 지냈다. 1740년(영조 16) 대사헌을 거쳐 1753년(영조 29)에는 좌참찬에까지 이르는 등 왕성한 정계활동을 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경기도 여주(驪州)에 은거하면서 산수를 유람하였다.

45) 모자(茅茨): 띠로 지붕을 인 집.

46) 어서(魚書): 옛날 조정에서 주군(州郡)의 장관을 임면(任免)할 때에 반사(頒賜)하던 어부(魚符)와 칙서(勅書)를 합칭한 말이다.

47) 백상루(百祥樓): 천강(淸川江)을 굽어보는 안주(安州)의 누각 이름이다.

48) 설중시(雪中詩): 당나라 맹호연(孟浩然)이 경사(京師)에 가던 도중에 눈을 만나 지은 시를 말한다. 이를 두고 송(宋) 나라 소식(蘇軾)이 "또 보지 못하는가, 눈 오는 날 당나귀 탄 맹호연의 그 모습을. 시 읊느라 찌푸린 눈썹 산처럼 옹그린 그의 어깨(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라고 읊은 유명한 시구가 전한다. (「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眞何充秀才」) 참고로 맹호연의 '부경도중우설시(赴京途中遇雪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迢遞秦京道 蒼茫歲暮天 窮陰連晦朔 積雪滿山川 落雁迷沙渚 飢鳥噪野田 客愁空佇立 不見有人煙."

49) 오마(五馬)는 한(漢)나라 때 태수(太守)가 다섯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방 장관이나 외직(外職)의 높은 관원을 가리킨다.

50) 박윤묵(朴允默, 1771~1849).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1835년(헌종 1) 평신진첨절제사로서 바른 정치를 베풀

었다. 왕희지·조맹부의 서체를 이어받았으며, 특히 시문에 뛰어나 후진들과 서원시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51) 제천(諸天): 제천은 산꼭대기에 있는 절을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시에 "제천은 응당 등라 저 밖에 있을 텐데,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날이 깜깜해지겠군(諸天合在藤蘿外 昏黑應須到上頭)"이라는 표현이 있다.

52) 관수당(觀水堂): 홍천군 홍천강 가에 세워진 공청(公廳) 중의 하나다. 이민구(李敏求)의 「홍천 관수당에서(洪川觀水堂)」란 시가 있다. "민가도 관사도 강가에 있는데(民居官舍盡江濱), 무엇보다 앞 언덕이 눈에 새롭게 들어오네(最有前皐洗眼新), 누가 화려한 정자를 맑은 물가에 만들었나(誰着紅亭臨沆瀣), 어여쁘다 푸른 물결이 의건에 아른대네(渾憐碧浪動衣巾), 수레로 약수 지난 게 언제였으며(車通弱水知何日), 뗏목으로 영원에 이른 사람 몇이던가(槎到靈源定幾人), 맑은 물빛 비단 자리에 아른거림 맡겨둔 채(任使鏡光搖綺席), 아득히 흥을 타고 용나루로 내려간다(渺然乘興下龍津)."

53) 『관동지』에 실린 읍선생(邑先生)은 다음과 같다. "윤지(尹志), 홍윤창(洪胤昌), 이영복(李永福), 신문준(愼文俊), 남필성(南畢星), 신거홍(愼居弘), 김덕우(金德優), 노연령(魯延齡), 신사헌(愼思獻), 이상(李翔), 한해(韓垓), 허임(許任), 정명선(鄭明善), 이언사(李彦師), 경시형(慶時衡), 민사용(閔思容), 홍흡(洪洽), 정경례(鄭景禮), 윤기정(尹起禎), 민숙헌(閔叔獻), 이언종(李彦悰), 정인복(鄭仁復), 유순(兪洵), 심희수(沈喜壽), 한윤종(韓胤宗), 이응호(李應虎), 김호수(金虎秀), 안응린(安應麟), 임정로(任廷老), 박지진(朴知進), 최원(崔緩), 안백지(安百之), 류영성(柳永成), 김창일(金昌一), 한여숙(韓汝淑), 남이영(南以英), 채증광(蔡增光), 조국필(趙國弼), 정락역(鄭樂易), 윤성지(尹性之), 안사함(安士諴), 황집(黃潗), 김광환(金光煥), 박취장(朴就章), 조공립(趙恭立), 황수(黃灑), 남정(南瀞), 김천석(金天錫), 구인기(具仁堅), 이인후(李仁後), 이한(李懶), 이대순(李大淳), 정량우(鄭良佑), 신평(申怦), 윤홍거(尹鴻擧), 윤형은(尹衡殷), 최일(崔逸), 윤경지(尹敬之), 원만춘(元萬春), 이섬(李暹), 김세행(金世行), 유명윤(兪命胤), 황구(黃玖), 신필화(申弼華), 이세백(李世白), 송도창(宋道昌), 임당(任堂), 신성(申晟), 이관주(李觀周), 이문준(李文俊), 홍택보(洪澤普), 조해(趙楷), 박태순(朴泰淳), 정광주(鄭匡周), 이직(李溭), 이현령(李玄齡), 정사신(丁思愼), 서종헌(徐宗憲), 박심(朴鐔), 이익흥(李益興), 홍우채(洪禹采), 이의장(李宜璋), 이만정(李萬貞), 이수만(李綏晩), 이명세(李命世), 조도보(趙道輔), 이주신(李舟臣), 정석징(鄭錫徵), 김태연(金泰衍), 한계진(韓啓震), 이현모(李顯模), 최상복(崔尙復), 심명설(沈命說), 안윤승(安允升), 심탁(沈鐸), 안중관(安重觀), 이회(李匡會), 최규태(崔逵泰), 홍계백(洪啓百), 김광우(金光遇), 이기(李埼), 유언호(兪彦好), 윤봉오(尹鳳五), 민백창(閔百昌), 심계(沈銈), 송익흠(宋益欽), 이명익(李明翼), 홍익철(洪益喆), 홍계우(洪啓祐), 이복상(李復祥), 이택원(李宅源), 홍계구(洪啓九), 정동연(鄭東淵), 백봉린(白鳳麟), 임막후(任幕厚), 조시완(趙時完), 유한철(兪漢喆), 조원(趙瑗), 심진(沈鈔), 이최원(李崔源), 박돈호(朴敦浩), 이시원(李始源), 신영(申瑛), 서유증(徐有曾), 최창적(崔昌迪), 서겸순(徐謙淳), 이희인(李羲寅), 조의규(趙儀逵), 김노경(金魯敬), 김화주(金華柱), 임희계(任希季), 박종여(朴宗輿), 이헌규(李憲圭), 이유수(李有秀), 라원야(羅元野), 심래영(沈來永), 이희평(李羲平), 조석구(曺錫龜), 한여(韓璵).

54) 을묘년(乙卯年): 광해군 7년인 1615년을 말한다. 이해에 홍천에 유배되었다.

55) 이구(李龜, 1469~1526):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장(子長), 호는 사미정(四美亭). 이제현(李齊賢)의 7대손으로, 아버지는 창평현령 이공린(李公麟)이다. 어머니는 박팽년(朴彭年)의 딸이다. 1492년(성종 2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예빈시직장(禮賓寺直長)·예조좌랑·고성현감·면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무오·갑자사화 때 동생 이원(李黿)이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화를 당하는 것에 연좌되어 홍천으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기용되어 이조좌랑·호조정랑·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홍문관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응교(應敎), 동부승지를 역임하였다. 외

직으로 충주·홍주·상주의 목사를 거쳐 장례원판결사가 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직한 뒤 홍천 결은리에 돌아와 은거하였다. 그 뒤 향리에 사미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청절한 생활을 하였다.

56) 병진년(丙辰年): 광해군 8년인 1616년.

57) 심일송(沈一松): 심희수(沈喜壽, 1548~1622). 본관은 청송,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수뢰누인(水雷累人),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72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저술로 『일송집』이 있다.

58) 이항로의 시는 의암학회에서 펴낸 『국역 화서집』을 참조하였다.

59) 취성(聚星): 덕망과 재능을 갖춘 선비의 모임을 뜻하는 말로, 후한(後漢)의 진식(陳寔)이 원방(元方), 계방(季方) 두 아들과 손자 장문(長文)을 데리고 순숙(荀淑)의 집에 가자 하늘에 덕성(德星)이 모이는 상서(祥瑞)가 나타났고, 태사(太史)가 "오백 리 안에 현인(賢人)이 모였을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60) 재랑(齋郞): 제사 때 집사를 맡는 벼슬아치를 말한다.

61) 오성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를 가리키는데, 이 다섯 개의 별이 문창성(文昌星)인 규성(奎星)에 모이면 문운(文運)이 크게 번창한다고 한다.

62) 거문고와 학: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말이다. 송나라 조변(趙抃)은 철면어사(鐵面御史)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거문고 하나와 학 한 마리만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63) 삼초(三蕉): 소식(蘇軾)이 파초의 잎으로 만든 술잔을 초엽배(蕉葉杯)라고 하는데 이 술잔으로 석 잔을 마신다는 뜻이다.

64) 삼연(三淵):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의 호. 화서가 차운한 삼연의 시는 「조발삼정포 무우미개(早發三亭浦 霧雨未開)」(『삼연집(三淵集)』 권9)이다.

65) 원문의 '구룡(龜龍)'은 낙서와 하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주역(周易)』을 뜻한다.

66) 조수(鳥獸): 앞 구의 '귀룡(龜龍)'과 호응하여 『시경』을 뜻한다.

67) 『논어·자한(子罕)』에 공자가 이르길 "후생은 두려울 만하니 후생의 장래가 나의 지금보자 못함을 어찌 알겠는가? 4·50세가 되어도 알려짐이 없으면, 이 또한 두려워할 만하지 않다(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四十 五十而無聞焉, 斯亦不足畏也已)"라고 하였다.

68) 의가(宜家):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감을 뜻한다.

69) 차건(車巾): 건차로, 장막을 친 가벼운 수레를 말한다.

70) 수묵심행(數墨尋行): '심행수묵(尋行數墨)'이라고도 하는데, 글줄을 찾고 글자를 센다는 말로 독서에 대한 겸사이다.

71) 원룡(元龍): 원룡(元龍)은 진등(陳登)의 자(字)이다.

72) 회해(淮海)는 강해(江海) 혹은 호해(湖海)와 같은 뜻으로서, 뜻이 원대하고 호방하여 속인들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3) 심인(尋仞): 심이나 인이 모두 여덟 자(尺)다.

74) 『예기』 유행(儒行)에 "선비는 가로 세로 각각 10보(步) 이내의 담장 안에서 거주한다. 좁은 방 안에는 사방에 벽만 서 있을 뿐이다. 대를 쪼개어 엮은 사립문을 매달고, 문 옆으로 규 모양의 쪽문을 내었다. 쑥대를 엮은 문을 통해서 방을 출입하고, 깨진 옹기 구멍의 들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다(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篳門圭竇 蓬戶甕牖)"라는 말이 나온다.

75) 즉공(卽功): 주나라 문왕(文王)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과 농사일을 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임금이 백성들의 농사일에 심력을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서경』 「무일(無逸)」)

76) 십행(十行):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가 제후에게 손수 조서를 내릴 때에는 모두 자그마한 글씨로 빽빽하

게 적어서 열 줄을 넘지 않았다는 일찰십행(一札十行)의 고사가 『후한서(後漢書)』 권76 「순리열전(循吏列傳)」 서문(序文)에 나온다.

77) 범파정(泛波亭): 『신증동국여지승람』 번역본 [비고]에 소개된 누정(樓亭)에서 "홍천현(洪川縣) 동남쪽으로 2리(里)인 남천(南川)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78) 윤지(尹志): 본관은 칠원(漆原)이며, 자(字)는 가형(可衡) 또는 이형(伊衡), 호(號)는 양성당(養性堂)이다. 세종 때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과 함께 집현전(集賢殿)에 들어가 『치평요람(治平要覽)』의 서사를 맡았고 교유하였다. 세종 30년(1448) 봄에 홍천현감(洪川縣監)를 역임하였고, 1452년 청백리(淸白吏)에 선정되었으며, 대사간(大司諫)에 제수되었다가 1455년 윤(閏) 6월 단종(端宗)의 양위(讓位) 이후 벼슬을 버리고 현재의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부산면(夫山面) 기동리(基洞里)에 은둔(隱遁)하며 여생을 보냈다. 1782년 홍포서원(鴻浦書院)에 배향되었는데, 서원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소재하고 있다.

79) 노연령(魯延齡):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본관은 함평(咸平). 노인산(魯仁山)의 아들로, 경성교수(鏡城敎授)를 역임했다.

80) 원만춘(元萬春):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군시(君始). 수군절도사 원호(元豪)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지중추부사 원유남(元裕男)이다. 아버지는 좌의정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이며, 어머니는 사간 최동식(崔東式)의 딸이다. 타고난 성품이 질박한 데다 조행(操行)이 있었고 관직에 있을 때는 해당 고을의 누적된 폐단을 시정하는 데 힘썼다. 홍천현감으로 있을 때는 주민의 과중한 역(役)을 조종하여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하여 "현감원만춘청백선정영세불망비(縣監元萬春淸白善政永世不忘碑)"의 1661년(辛丑) 4월에 철비(鐵碑)를 만들어 세웠다. 이 철비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가장 두꺼운(높이 86.5cm×폭 42.5cm×두께 7cm) 조선시대 철비이다. 1661년 4월 철비를 주조한 장인(匠人)의 이름 진쇠이, 진금이(叅金伊)를 표기한 것이 특이(特異)하다.

81) 이세백(李世白):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중경(仲庚), 호는 우사(雩沙) 또는 북계(北溪). 이사경(李士慶)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후천(李後天)이다. 아버지는 목사 이정악(李挺岳)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 동지중추부사 김광찬(金光燦)의 딸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외증손이며, 외삼촌은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과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이다. 1689년 기사환국 때에 도승지로 있으면서 송시열(宋時烈)의 유배에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도승지로 복관되어 선혜청 당상·한성부판윤을 거쳐 이듬해 예조판서가 되었으며,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96년 호조판서를 거쳐, 1697년 이조판서가 되어 특히 지방관의 인사를 엄격히 해, 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썼다. 관직은 이 밖에도 대사헌·공조판서 등을 두루 거쳤다. 1698년 우의정에 올랐고, 1700년에는 좌의정이 되어 세자부(世子傅)를 겸했으며 인현왕후(仁顯王后)의 국상을 총괄하였다. 아들 이의현(李宜顯)과 연달아 정승이 된 것으로 유명하였다. 예학(禮學)에 밝아 국가의 중요 예론(禮論)에 깊이 참여하였다. 특히 노론의 중심인물로서 소론·남인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중요한 몫을 하였다.

82) 학서루(鶴棲樓): 홍천용씨(洪川龍氏)의 시조인 고려 고종 때 문하시중 용득의(龍得義)가 만년에 홍천군 북방면 금학산(金鶴山) 자락에 용수사(龍遂寺)를 창건하고 학서루(鶴棲樓)를 지어 우거(寓居)하면서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였음으로 후손들이 홍천에 터를 잡고 살게 되면서 자손이 대대로 세거(世居)하였다.

83) 사미정(四美亭): 범파정(泛波亭) 동쪽 800m쯤 되는 곳에 있던 정자로 조선조 세조 때 사육신 박팽년(朴彭年)의 외손인 이구(李龜)가 무오·갑자사화 때 동생 이원(李黿)이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화를 당하는 것에 연좌되어 홍천 결운리로 유배 왔다가 중종반정으로 다시 기용된 뒤 벼슬을 사직한 후 화양강가에 정자를 짓고 그의 호를 따서 사미정(四美亭)이라 하고 이곳에 은거(隱居)하면서 경주이씨 입향 세거조

로서 학문과 더불어 후학을 양성하면서 청절(淸節)한 생활을 하였다. 정자이름 '사미정(四美亭)'은 '좋은 날(良辰) 아름다운 경치(美景)를 완상하는 넉넉한 마음(玩賞心)으로 즐겨 재미 붙일 만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서 이 네 가지 아름다움을 간직한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84) 소학정(巢鶴亭): 홍천군 서쪽 1리에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다. (『강원도지』 권4, 누정, 홍천)

85) 아양정(峨洋亭): 화촌면 군업리에 있다. 남으로는 공작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봉황대가 있으며 북으로는 성주봉, 문무봉 두 봉우리를 등지고 있으며 아래로는 구곡이 있다. 이계선(李繼善) 종중에서 건립한 것인데 후에 그 종질 이구연(李龜淵)이 상의하고 기록을 남겼다.

86)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천현 풍속(風俗)조와 고적(古跡)조와 『사가문집(四佳文集)』 권지2(券之二)에 「학명루기(鶴鳴樓記)」에 대한 내용이 있다.

87) 윤후(尹侯): 홍천현감 윤지(尹志)를 말한다.

88) 학(鶴)이… 들린다 : 『시경』 「학명(鶴鳴)」에 나온다.

89) 황학(黃鶴): 전설에 나오는 누런 빛깔의 학으로 신선이 타고 다니는 서조(瑞鳥)이다.

90) 기심(機心): 겉으로는 아닌 체하면서 속으로 품고 있는 사심(邪心)을 말하는 것이다. 장자(莊子)에 보면 '기심(機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계(機械)가 편리한 줄 알지만 그 기계에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빼앗기게 된다는 경고가 그 말 속에는 들어 있다.

91) 어찌… 할까: 눈 내린 밤에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산음(山陰) 땅에 있다가 홀연히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져서 배를 타고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배를 돌려서 돌아왔다는 고사를 말한다. 『世說新語 任誕』

92) 소요유: 『장자(莊子)』의 편명(篇名)으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노니는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93) 한만유: 세상 밖을 벗어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한가로이 노니는 것을 말한다.

94) 최립(崔岦):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동고. 아버지는 진사 자양(自陽)이다. 이이(李珥)에게 수학했다. 시에 탁월하여 초(草)·목(木)·화(花)·석의 40여 종을 소재로 시부 1편씩을 지었다. 문장에도 뛰어나 한호의 글씨, 차천로의 시와 함께 송도삼절로 불렸다. 문집으로 『간이집』, 시학서로 『십가근체시(十家近體詩)』·『한사열전초(漢史列傳抄)』, 역학서로 『주역본의구결부설(周易本義口訣附說)』 등이 있다.

95) 도연명(陶淵明)의 기장: 차조로 술을 빚어서 즐겨 마셨던 도연명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진(晉)나라 도연명이 팽택 현령(彭澤縣令)이 되었을 때, 매우 술을 좋아한 나머지 공전(公田)에 모두 술을 빚기에 좋은 차조만을 심게 했던 일화가 전한다. 『宋書 卷93 隱逸列傳 陶潛』

96) 자천(子賤): 공자의 제자로 성은 복(宓) 이름은 부제(不齊)다. 공자는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서두에서 자천의 군자다움을 칭찬하고 결론에서는 노나라에 군자가 많음을 칭송하고 있다. 복자천은 어진 수령을 언급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로, 청백리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呂氏春秋』 「察賢」에 "복자천이 선보(單父) 고을을 다스릴 때 거문고나 타고 당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선보기 다스려졌다. 무마기(巫馬期)는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며 밤낮 쉬지 않고 몸소 일을 하여 선보가 잘 다스려졌다. 무마기가 그 까닭을 묻자, 복자천이 대답하기를 '말하자면, 나는 사람에게 맡겼고, 그대는 노력에 맡긴 것이니, 노력에 맡기면 고생스럽고 사람에게 맡기면 편안한 것이다' 하였다"는 고사이다.

97) 『관동지(關東誌)』를 비롯하여 이미 간행된 범파정 관련 자료에서 일송 심희수(一松 沈喜壽)의 「홍천범파정차운(次洪川泛波亭韻)」의 오자(誤字) '자(自)'자를 『일송집(一松集)』 권4 원문(原文)과 같이 '본(本)'자로 바로 수정한다.

98) 36년: 일기(一紀)가 12년이니, 삼기(三紀)는 36년을 말한다.

99)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고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100) 김숙도(金叔度): 김상헌(金尙憲)으로, 숙도는 그의 자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시호는 문정(文正). 윤근수의 문인으로, 1596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좌랑·부교리·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 등을 거쳤다. 인조반정 이후 대사헌·대사성·대제학을 거쳐 육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끝까지 주전론을 주장하다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났다. 글씨에 능했으며, 특히 동기창체를 잘 썼다. 저서에 『청음집』·『야인담록』·『풍악문답』 등이 있다.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661년 효종 묘에 배향되고, 양주 석실서원, 정주 봉명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101) 남조(南朝) 송나라 종병이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은거(隱居)하여 산수를 찾아 유람하기를 좋아했는데, 일찍이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에서 뇌차종(雷次宗)·혜원(慧遠)·혜영(慧永)·유유민(劉遺民) 등 18인과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하여 함께 염불하였다. 곧 은거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풍월을 즐기는 청아한 모임을 뜻한다.

102) 신흠(申欽):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헌(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 증판서 신세경(申世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참찬 신영(申瑛)이고, 아버지는 개성도사 신승서(申承緖)이다. 어머니는 은진송씨(恩津宋氏)로 송기수(宋麒壽)의 딸이다. 송인수(宋麟壽)와 이제민(李濟民)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으나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이미 문명을 떨쳤다. 벼슬에 나가서는 서인인 이이와 정철을 옹호하여 동인의 배척을 받았으나,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선조의 신망을 받으면서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대하고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림의 신망을 받음은 물론, 이정구(李廷龜)·장유(張維)·이식(李植)과 함께 조선중기 한문학의 정종(正宗, 바른 종통) 또는 월상계택(月象谿澤, 월사 이정구, 상촌 신흠, 계곡 장유, 택당 이식)으로 칭송되었다. 1651년(효종 2) 인조묘정에 배향되었고, 강원도 춘천시 도포서원(道浦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03) 학(鶴): 현학(玄鶴)으로 깃털을 떨어뜨렸다는 옛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학교(鶴橋)라든가 우령(羽嶺)이라는 이름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홍천현(洪川縣) 고적(古跡) 서거정(徐居正)의 학명루(鶴鳴樓) 기문(記文)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현학(玄鶴)은 진(晉)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注)』 조수(鳥獸)에 "학이 1천 년 지나면 푸른색이 되고 2천 년 지나면 검은색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이른바 현학(玄鶴)이다" 하였다.

104) 이한(李僩):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정숙(靜叔)이며, 조암(釣巖) 이시백(李時白)의 아들이다. 공주목사, 충주목사, 참의 등을 지냈으며, 심양(瀋陽)에 볼모로 가기도 하였다. 홍천현감(1634. 2.7~1636.1.2.)을 역임하고 병상(病床)으로 체거(遞去)되었다.

105) 오마(五馬): 말 다섯 마리가 끄는 수레로, 태수가 부임할 적에 이 수레를 타고 갔으므로, 한 고을의 수령(守令)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106) 사군탄(使君灘): 사천성(四川省) 만현(萬縣)의 동쪽에 있는 시내 이름으로 중국의 양량(楊亮)이라는 사람이 익주(益州)의 수령이 되어 가던 중 이곳에서 배가 전복되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백의 「부득백로사송송소부입삼협(賦得白鷺鶿送宋少府入三峽)」 시에 "사람에게 놀란 백로 멀리 날아가다가, 곧장 사군탄 여울로 향하는구나(人驚遠飛去 直向使君灘)" 하였다.

107) 정두경(鄭斗卿):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 아버지는 호조좌랑을 지낸 정회(鄭晦)이며,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이다. 14세 때 별시 초선(初選)에 합격하여 문명을 떨쳤다. 1626년(인조 4) 문학으로 이름 있는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그는 벼슬 없는 선비로서 부름을 받아 김류(金瑬) 등과

함께 중국 사신을 접대하였다. 할아버지 정지승(鄭之升)과 증조부 정담(鄭譚), 종증조부 정염(鄭焰)·정작(鄭碏)은 모두 시인으로 이름이 났다. 저서로는 『동명집(東溟集)』 26권이 있다.

108) 선위(仙尉): 남창현령(南昌縣令)을 지냈던 한(漢)나라 매복(梅福)이 뒤에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기인된 말로 일반적으로 지방관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홍천현감을 말한다.

109) 『관동지』를 비롯하여 이미 간행된 자료에는 김창흡의 범파정 제영시 「범파정월야(泛波亭月夜)」에 ' 홍(紅)'자로 되어 있으나 『삼연집(三淵集)』, 「습유(拾遺)」 권지11(卷之十一), 시(詩) 원문에는 '강(江)'자로 되어 있다.

110) 달: 원문의 '계(桂)'는 달 속에 계수나무가 있다는 전설에서 온 말로, 달을 가리킨다.

111) 상락주(桑落酒): 뽕잎이 떨어질 무렵에 빚은 술을 말한다. 이 술은 술맛이 매우 좋아 붙여진 이름으로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마셨으므로 이른 말이다. 두보(杜甫)의 「구일양봉선회백수최명부(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 시에 "앉아서 상락주를 마시고, 와서 국화 가지를 어루만지네(坐開桑落酒 來把菊花枝)"라고 하였다. 『두소릉시집』 권4

112) 빈계(賓階): 손님이 서는 서쪽 섬돌을 가리킨다.

113) 『관동지』를 비롯한 이미 간행된 자료에는 김창흡의 범파정 제영시 '범파정월야(泛波亭月夜)'에 '일(日)'자로 되어 있으나 『삼연집(三淵集)』, 「습유(拾遺)」 권지11(卷之十一), 시(詩) 원문(原文)에는 '월(月)'자로 되어 있다.

114)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 김수항[金壽恒, 김상헌(金尙憲)의 손자]의 세 아들인 김창집(金昌集), 김창협(金昌協), 김창흡을 꼽는다. 성리학에 뛰어난 형 창협과 함께 율곡 이후의 대학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영평(永平)에 은거하여 지냈다. 저서에 『삼연집(三淵集)』이 있다.

115) 삽교(霅橋) 안석경(安錫儆)의 1765년 「풍악산유람기(楓嶽山遊覽記)」를 보면, 삼연 김창흡 선생의 시(詩)가 두 편이 있는데, 문집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옛날에 보았을 때는 판각이 그래도 완전했었는데 지금은 깨지고 이지러졌으니 안타깝다고 기록하고 있다.

116) 계수나무: 신선사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과 결합되어 있다. 계수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 것은 우리나라의 한시(漢詩)에서 흔히 은사(隱士)가 사는 거주처로 상징되어 왔다. 그것은 한(漢)나라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지은 「초은사(招隱士)」에 "계수나무 무더기로 자라누나 산골 깊은 곳에, 꼿꼿하고 굽은 가지 서로 얽히었네(桂樹叢生兮山之幽 偃蹇連卷兮枝相繚)"라고 한 데서 용사(用事)된 표현이다.

117) 원량(元亮): 이양신(李亮臣)의 자(字)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초명은 종신(宗臣)이다. 1715년(숙종 41) 진사가 되고, 1727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부수찬이 되었다. 1729년 부수찬으로 있을 때 정미환국으로 집권한 이광좌(李光佐) 등을 12항의 죄목을 열거하여 탄핵하였는데, 이 일로 곽산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경원부로 옮긴 뒤 즉시 방면되었다. 1730년 북평사(北評事)로 임명되고, 1738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온 공로를 인정받아 통정대부가 되었다. 저서로는 『대간공유고(大諫公遺稿)』가 있다.

118) 공곡공음(空谷跫音): 빈 골짜기에 들리는 사람의 발소리, 즉 지극히 반갑고 기쁜 것을 말한다. 『장자(莊子)』 서무귀(徐無鬼)에 "혼자 빈 골짜기에 도망쳐 살 적에 인기척만 들려도 반가울 텐데, 더구나 형제와 친척의 기침 소리가 옆에서 들려온다면 어떻겠는가(夫逃虛空者 聞人足音跫然而喜 又況乎昆弟親戚之謦欬其側者乎)"라고 하였다.

119) 공이 원주 감영에서 방백과 단란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제4구에서 운운하였다. 우리 족숙 항(沆) 태초(太初) 씨가 이곳에 우거하면서 또한 모임에 참석한 까닭에 제8구에서 운운한 것이다(公於原營與方伯團欒故第四云 吾族叔沆太初氏寓此亦來會故第八云云).

120) 도문(都門): 조선시대 원주(原州)에 있던 강원도관찰부(江原道觀察府) 감영(監營)을 말한다.

121) 화전(花田): 강원도 횡성군(橫城郡)의 옛 지명이다.

122) 민정(閔珽):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정옥(廷玉)이다. 1721년(경종 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1728년(영조 4) 정언이 되어 양사(兩司)를 거친 뒤,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

123) 최희도(崔熙道):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172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24) 청도(淸都): 천제(天帝)가 거처한다는 천상의 궁전을 가리킨다.

125) 한원진(韓元震): 조선 후기 성리학자. 호는 남당(南塘). 이이-송시열-권상하의 학통을 이어 정통 주자학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켰다. 실학자들과는 반대로 주자학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인물이다. 이 시는 남당이 불혹(不惑) 중반기인 45세 때(1726년 11월쯤)에 홍천을 방문, 범파정에 올라 지은 것이다. 『남당집(南塘集)』에 범파정(泛波亭)에 관한 시(詩) 7제(題) 8수(首)가 있다

126) 회해지사(淮海之士): 호해지사(湖海之士)와 같은 말로, 어디에 매인 곳이 없이 마음이 호쾌하고 기개가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127) 원룡(元龍): 진등(陳登)의 자(字)이다.

128) 안중관(安重觀):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국빈(國賓), 호는 회와(悔窩)·가주(可洲).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된 뒤에 문과 응시는 포기하였다. 뒤에 유일(遺逸: 학문과 명망이 높아 과거를 거치지 않고 높은 벼슬에 등용되는 선비)로 천거 받아 세자익위사위수(世子翊衛司衛率)가 되었고, 공조좌랑을 거쳐, 홍천·제천의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벼슬보다는 성리학에 침잠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유학을 비롯하여 문학·경세학(經世學)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시문은 6대손 안종학(安鍾學)이 편집한 『회와집(悔窩集)』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서(序)·제(題)·발(跋)·기·논·설·잡저·행록·행장·찬(贊)·명·송(頌)·서(書)·제문·애사 등이다. 안중관이 홍천현감 재임(1738.1.27~1739.6.28) 시 지은 범파정(泛波亭)에 대한 작품이다.

129) 선친(先親): 홍천현감을 역임한 안중관이다. 위의 범파정(泛波亭)에 대한 시와 주석 참조.

130) 시례(詩禮)의 교훈: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음을 말한다. 공자의 아들 리(鯉)가 뜰에서 공자 앞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가 공자로부터 시(詩)와 예(禮)에 대하여 배웠느냐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일에서 유래하였다. (『논어』「계씨」)

131) 안석경(安錫儆):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본관은 순흥(順興), 호는 완양(完陽)·삽교(霅橋)이고, 숙화는 그의 자이다. 그는 소인배들이 날뛰고 있는 환로(宦路)에 환멸을 느꼈으나, 또 과거가 아니면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 심한 갈등을 겪었다. 세 차례 과거에 응하지만 출세 지향의 공부에 힘쓰지 않았던 그는 번번이 낙방하고 결국 횡성(橫城) 삽교(霅橋)에 은거하였다. 저서에 『삽교집(霅橋集)』, 『삽교만록(霅橋漫錄)』이 있다.

132) 사마치(沙馬峙): 홍천읍 삼마치(三馬峙)의 또 다른 지명이다. 원터에서 횡선군 공군면 상창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홍천읍에서 제일 높으며 험하고 가팔라서 예전에는 세 마리의 말을 갈아타고 넘어 다녔다고 하여 삼마치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133) 홍천읍 삼마치터널 전에 있는 계곡의 약수(藥水)터를 말한다.

134) 홍천읍 장전평리의 5번 국도변 옥류동천(玉流洞天)이 있는 계곡과 봉화산(烽火山) 금룡사(金龍寺)가 소재하고 있는 선녀담(仙女潭, 仙女湯)과 폭포가 있는 계곡 안을 말한다.

135) 登泛波亭. 亭楣有懸先大人遺篇. 李公明翼守洪川時. 追書而刻之云.

136) 침작(斟酌): 한자 어원은 '술을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따른다'는 의미이다. 고대에는 술잔을 주고받고 술을 따라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침작'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었지만, 주

로 엄격한 격식에 따르는 자리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술잔을 올리거나 술을 따르는 과정에서 상대의 의중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요즘에도 술잔을 받는 태도나 따르는 것을 보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략 눈치를 챌 수 있는 것과 같다. 침작하는 것이 곧 상대의 의중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변한 이유이다. 발음은 '침작'에서 '짐작'으로 순화되었다.

137) 화양 사군(華陽使君): 홍천현감(洪川縣監)을 말한다.

138) 교목(喬木):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뚜렷하고, 줄기는 한 개이며, 땅에서부터 가지 밑 부분에 이르는 줄기의 높이가 높다.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따위가 있다.

139) 초엽배(蕉葉杯): 소식(蘇軾)이 파초(芭蕉)의 잎으로 만든 술잔이다. "동파(東坡)가 말하기를 '우리 형 자명은 술을 마심에 초엽배(蕉葉杯)로 석 잔만 마셨다. 나는 젊어서 술잔을 바라만 봐도 취하였는데, 지금은 초엽배 석 잔은 마실 수 있다(東坡云 '吾兄子明, 飮酒三蕉葉. 吾少時, 望見酒盞而醉, 今亦能三蕉葉矣')"라고 하였다.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속집 권13)

140) 이익회(李翊會):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좌보(左甫), 호는 고동(古東). 병조판서 제신(濟臣)의 8대손으로, 득배(得培)의 아들이며, 낙배(樂培)에게 입양되었다. 음보(蔭補)로 김제군수가 되고, 1811년(순조 11) 정시(식년시)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1817년 홍문관에 등용되고, 1820년 대사간을 역임하였으며, 1825년 대사성을 거쳐 1827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1834년 홍문관제학에 올라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갔다가 1835년(헌종 1) 돌아와 대사헌이 된 뒤 여러 번 거듭해서 대사헌의 직을 지냈으며, 1843년 한성부판윤에 이르렀다. 글씨에 능하였으며, 작품으로 「삼우당문익점신도비(三憂堂文益漸神道碑)」를 썼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41) 이번 『홍천군지』 누정(樓亭) 시문학을 집필하면서 범파정(泛波亭)에 대한 제영시(題詠詩)만 70여 수(首)가 조사되었으나 한정된 지면에 모두 게재할 수 없었음을 밝혀드린다.

집필진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주제		집필자
제1편 인문환경	홍천의 인구 지형과 길 홍천의 마을	허림(향토사학자)
제2편 지명유래	산천의 지명유래 읍면별 지명유래	강대덕(화서학연구소장) 강성원(화서학연구소 연구원) 강정식(전 홍천예총 회장) 이건숙(전 강원대학교 외래교수)
제3편 민속	의식주문화	유형동(강원대학교 산촌문화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통과의례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세시풍속	강명혜(강원대학교 산촌문화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민간신앙	이영식(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민속놀이	유명희(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생업문화	고광민(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원)
제4편 구비전승	전설 민요 속담·수수께끼	최명환(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제5편 언어	홍천 지역어 개관 홍천 방언의 어휘	최홍열(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6편 시문학	산천	권혁진(강원한문고전연구소)
	사찰	
	인물	
	누정	황재국(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강대덕(화서학연구소장)

홍천군지 중권

삶과 문화

발 행 일 | 2018년 12월
발 행 처 | 홍천군청
주　　소 |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전　　화 | 033-432-7801
팩　　스 | 033-430-2414
편집제작 | ㈜역사만들기

ⓒ 2018, 홍천군